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여유진

우선희·곽윤경·김지원·강상경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21-2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23-5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26>

발|간|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지도 2여년이 되어간다. 한국의 정부와 시민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함으로써 모범적으로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치명률과 최소한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소상공인, 문화예술계, 취업준비생 등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사회가 이전과 완전히 동질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았다. 일의 형태와 성격,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방식과 소비 행태, 문화 향유 방식, 사회적 친교와 교류 방식, 학교 현장과 교육 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급속히 변화했고 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부터 진행되던 소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한층 빠르고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국가도, 시장도, 개인과 가족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가늠하고 방향타를 잡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거버넌스, 사람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 사회적 자본과 응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전후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사회통합 인식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 시기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통합 수준을 가늠하고 향후 사회적 응집력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국민 인식을 일관된 방식으로 조사해 옴으로써 변화의 시기에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는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에서는 곽윤경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김지원 연구원이, 외부에서는 서울대 강상경 교수님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과 진심 어린 지적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이재열 교수님과 이태진 선임연구위원께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 포럼을 통해 많은 영감과 자극을 주신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님, 충남대학교 황선재 교수님, 행정연구원 채종현 박사님, 사회보장위원회 송준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원내 김동진 건강정책연구실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연구가 급변하는 위기의 시기에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정책 방향 설정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이론적 배경	35
제1절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위기와 불확실성 증대	37
제2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통합과 정신건강	40
제3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59
제1절 들어가며	61
제2절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64
제3절 사회통합 인식	73
제4절 요약 및 소결	109
제4장 코로나19 전후 위험인식의 변화와 영향요인	113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연구 방법	117
제3절 분석 결과	119
제4절 요약 및 소결	149
제5장 코로나19 전후 신뢰·차별 인식의 변화	153
제1절 들어가며	155
제2절 연구 방법	157

제3절 분석 결과	159
제4절 요약 및 소결	187
제6장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	191
제1절 들어가며	193
제2절 자료 및 연구 방법	194
제3절 분석 결과 I: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	202
제4절 분석 결과 II: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 적응력	208
제5절 요약 및 소결	216
제7장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수준 변화와 영향요인	219
제1절 들어가며	221
제2절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신건강	224
제3절 분석 결과 I: 코로나 전후의 정신건강 (2017년과 2021년 비교)	233
제4절 분석 결과 II: 정신건강 영향요인 및 코로나의 영향	268
제5절 분석 결과 III: 코로나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통합적 분석	272
제6절 요약 및 소결	277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3
참고문헌	291
부록	
[부록 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311
[부록 2]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328
[부록 3]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분석	34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27
〈표 1-2〉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31
〈표 1-3〉 코로나19 전후 변화 분석을 위한 공통 문항과 코로나19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문항	33
〈표 3-1〉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통 문항	62
〈표 3-2〉 행복도	64
〈표 3-3〉 삶의 만족도	68
〈표 3-4〉 우울감	71
〈표 3-5〉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74
〈표 3-6〉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76
〈표 3-7〉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79
〈표 3-8〉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83
〈표 3-9〉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85
〈표 3-10〉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87
〈표 3-11〉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89
〈표 3-12〉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유무	92
〈표 3-13〉 큰돈 빌려줄 사람 유무	94
〈표 3-14〉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96
〈표 3-15〉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99
〈표 3-16〉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101
〈표 3-17〉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103
〈표 3-18〉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105
〈표 3-19〉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107
〈표 3-20〉 코로나19 전과 후(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와 항목	110
〈표 4-1〉 활용 변수	119
〈표 4-2〉 영역별 위험인식 수준	120
〈표 4-3〉 집단별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	122
〈표 4-4〉 집단별 건강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3
〈표 4-5〉 집단별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5
〈표 4-6〉 집단별 생애주기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6
〈표 4-7〉 집단별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8
〈표 4-8〉 불평등 인식 수준	129

〈표 4-9〉 집단별 불평등 인식 수준	130
〈표 4-10〉 대인신뢰 수준	133
〈표 4-11〉 집단별 대인신뢰 수준	134
〈표 4-12〉 사회신뢰 수준	135
〈표 4-13〉 집단별 사회신뢰 수준	136
〈표 4-14〉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신뢰 수준	137
〈표 4-15〉 집단별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신뢰 수준	138
〈표 4-16〉 사회적 지지 수준	139
〈표 4-17〉 집단별 사회적 지지 수준	140
〈표 4-18〉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전반적 위험	144
〈표 4-19〉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2: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145
〈표 4-20〉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3: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146
〈표 4-21〉 2021년 전반적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148
〈표 5-1〉 신뢰와 차별 관련 문항	158
〈표 5-2〉 국가 위기 시 공무원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	165
〈표 5-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신뢰	173
〈표 5-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신뢰	174
〈표 5-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신뢰	176
〈표 5-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정보신뢰	177
〈표 5-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잠재적 차별 가능성 인식 분포	179
〈표 5-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분포	180
〈표 5-9〉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182
〈표 5-10〉 신뢰의 영향요인분석	184
〈표 5-11〉 잠재적 차별 가능성의 영향요인분석	185
〈표 5-12〉 신뢰가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에 미치는 영향	187
〈표 6-1〉 코로나 민감도 측정 문항	195
〈표 6-2〉 코로나 블루 측정 문항	196
〈표 6-3〉 지역사회 응집성 평가 문항	197
〈표 6-4〉 사회적 자본 평가 문항	197
〈표 6-5〉 코로나에 대한 중앙정부 대응정책에 대한 신뢰도	199
〈표 6-6〉 코로나19 이후 개인 생활수칙 준수도	199



〈표 6-7〉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기 본인 삶의 변화 전망	200
〈표 6-8〉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기 사회경제 변화 전망	200
〈표 6-9〉 지역사회 응집성 평가 문항	201
〈표 6-10〉 사회적 자본 평가 문항	201
〈표 6-11〉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민감도	203
〈표 6-12〉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블루	204
〈표 6-13〉 지역사회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대응력에 미친 영향	207
〈표 6-14〉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정부 대응정책 신뢰도	209
〈표 6-15〉 개인 및 가구 특성별 개인 생활수칙 준수도	210
〈표 6-16〉 개인 및 가구 특성별 포스트코로나 개인 생활 전망	212
〈표 6-17〉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사회경제 전망	213
〈표 6-18〉 지역사회 응집성의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 생활 적응력에 미친 영향	215
〈표 7-1〉 연도별 연구 참여자 특성 및 시점 간 차이	233
〈표 7-2〉 행복도: 연령대별	234
〈표 7-3〉 행복도: 성별	235
〈표 7-4〉 행복도: 소득계층별	237
〈표 7-5〉 행복도: 수도권, 비수도권	238
〈표 7-6〉 행복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39
〈표 7-7〉 행복도: 농어촌, 도시	240
〈표 7-8〉 우울 정도: 연령대별	241
〈표 7-9〉 우울 정도: 성별	243
〈표 7-10〉 우울 정도: 소득계층별	244
〈표 7-11〉 우울 정도: 수도권, 비수도권	245
〈표 7-12〉 우울 정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46
〈표 7-13〉 우울 정도: 농어촌, 도시	247
〈표 7-14〉 삶의 만족도: 연령대별	248
〈표 7-15〉 삶의 만족도: 성별	250
〈표 7-16〉 삶의 만족도: 소득계층별	251
〈표 7-17〉 삶의 만족도: 수도권, 비수도권	252
〈표 7-18〉 삶의 만족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53
〈표 7-19〉 삶의 만족도: 농어촌, 도시	254



〈표 7-20〉 사회적 지지: 연령대별	255
〈표 7-21〉 사회적 지지: 성별	256
〈표 7-22〉 사회적 지지: 소득계층별	258
〈표 7-23〉 사회적 지지: 수도권, 비수도권	259
〈표 7-24〉 사회적 지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60
〈표 7-25〉 사회적 지지: 농어촌, 도시	261
〈표 7-26〉 자살생각: 연령대별	262
〈표 7-27〉 자살생각: 성별	263
〈표 7-28〉 자살생각: 소득계층별	264
〈표 7-29〉 자살생각: 수도권, 비수도권	265
〈표 7-30〉 자살생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66
〈표 7-31〉 자살생각: 농어촌, 도시	267
〈표 7-32〉 코로나가 행복도에 미친 영향	268
〈표 7-33〉 코로나가 우울 정도에 미친 영향	269
〈표 7-34〉 코로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	270
〈표 7-35〉 코로나가 사회적 지지에 미친 영향	270
〈표 7-36〉 코로나가 자살생각에 미친 영향1	271
〈표 7-37〉 코로나가 자살생각에 미친 영향2	272
〈표 7-38〉 행복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73
〈표 7-39〉 우울 정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74
〈표 7-40〉 삶의 만족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75
〈표 7-41〉 사회적 지지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76
〈표 7-42〉 자살생각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77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주요국의 GDP 성장률 추이	41
[그림 3-1] 행복도	65
[그림 3-2] 삶의 만족도	69
[그림 3-3] 우울감	72
[그림 3-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75
[그림 3-5]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77
[그림 3-6]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80
[그림 3-7]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84
[그림 3-8]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86
[그림 3-9]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88
[그림 3-10]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90
[그림 3-11]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유무	93
[그림 3-12] 큰돈 빌려줄 사람 유무	95
[그림 3-13]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97
[그림 3-14]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100
[그림 3-15]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102
[그림 3-16]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104
[그림 3-1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106
[그림 3-18]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108
[그림 4-1] 연구 모형	117
[그림 4-2] 영역별 위험인식 수준	121
[그림 4-3] 집단별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	122
[그림 4-4] 집단별 건강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4
[그림 4-5] 집단별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5
[그림 4-6] 집단별 생애주기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7
[그림 4-7] 집단별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128
[그림 4-8] 집단별 불평등 인식 수준	131
[그림 4-9]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영향 인식	132
[그림 4-10] 집단별 대인신뢰 수준	134
[그림 4-11] 집단별 사회신뢰 수준	136
[그림 4-12] 집단별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신뢰 수준	138

[그림 4-13] 집단별 사회적 지지 수준	140
[그림 5-1] 코로나19 전후 사회신뢰 비교	159
[그림 5-2] 코로나19 전후 정부신뢰 비교	160
[그림 5-3] 코로나19 전후 대인신뢰 비교	160
[그림 5-4]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평가	161
[그림 5-5] 자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평가	162
[그림 5-6] 각 국별 코로나19 백신 신뢰도	162
[그림 5-7] 보건당국이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 정도	163
[그림 5-8] 영국과 한국의 코로나19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 비교	164
[그림 5-9] 코로나19 계기 차별대상	166
[그림 5-10] 코로나19 이후 잠재적 차별 가능성	166
[그림 5-1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대상 유무	167
[그림 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대상 (복수 응답)	168
[그림 5-13]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 여부	169
[그림 5-14]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 (중복 응답)	169
[그림 5-15]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170
[그림 5-16] 터키 내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171
[그림 5-17]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을 받은 집단/사람	172
[그림 6-1]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민감도	204
[그림 6-2]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우울	205
[그림 6-3]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정부 대응정책 신뢰도	209
[그림 6-4] 개인 및 가구 특성별 개인 생활수칙 준수도	210
[그림 6-5] 개인 및 가구 특성별 포스트코로나 개인 생활 전망	212
[그림 6-6]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사회경제 전망	213
[그림 7-1] 개인의 정신건강	222
[그림 7-2] 생태학적 정신건강과 코로나의 영향	223
[그림 7-3] 코로나의 영향: 자연 실험설계	228
[그림 7-4] 연구모형	232
[그림 7-5]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모형	232
[그림 7-6] 연령대별 행복도 수준 및 변화	235
[그림 7-7] 성별 행복도 수준 및 변화	236



[그림 7-8] 소득계층별 행복도 수준 및 변화	237
[그림 7-9] 수도권과 비수도권 행복도 수준 및 변화	238
[그림 7-10]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행복도 수준 및 변화	239
[그림 7-11] 농어촌과 도시 행복도 수준 및 변화	240
[그림 7-12] 연령대별 우울 정도 및 변화	242
[그림 7-13] 성별 우울 정도 및 변화	243
[그림 7-14] 소득계층별 우울 정도 및 변화	244
[그림 7-15] 수도권과 비수도권 우울 정도 및 변화	245
[그림 7-16]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우울 정도 및 변화	246
[그림 7-17] 농어촌과 도시 우울 정도 및 변화	247
[그림 7-18]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249
[그림 7-19] 성별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250
[그림 7-20]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251
[그림 7-21] 수도권과 비수도권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252
[그림 7-22]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253
[그림 7-23] 농어촌과 도시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254
[그림 7-24]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256
[그림 7-25] 성별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257
[그림 7-26] 소득계층별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258
[그림 7-27]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259
[그림 7-28]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260
[그림 7-29] 농어촌과 도시의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261
[그림 7-30] 연령대별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262
[그림 7-31] 성별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263
[그림 7-32] 소득계층별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264
[그림 7-33]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265
[그림 7-3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266
[그림 7-35] 농어촌과 도시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267
[그림 8-1]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소득감소	286
[그림 8-2]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도와 경제성장률, 자살률, 출산율 추이	288
[그림 8-3] 자살률 추이	290

부표 목차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312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314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314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315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316
〈부표 1-6〉 표본 규모 산정	321
〈부표 1-7〉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1	322
〈부표 1-8〉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2	323
〈부표 1-9〉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3	324
〈부표 3-1〉 응답자 월평균 근로소득	345
〈부표 3-2〉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346
〈부표 3-3〉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정도	347
〈부표 3-4〉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지속 기간	348
〈부표 3-5〉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이유	349
〈부표 3-6〉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1)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350
〈부표 3-7〉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351
〈부표 3-8〉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3) 집세(월세·일세)가 밀린 적이 있다	352
〈부표 3-9〉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4)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353
〈부표 3-10〉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354
〈부표 3-1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소득계층 - 1) 상층	355
〈부표 3-1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소득계층 - 2) 중간층	356
〈부표 3-1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소득계층 - 3) 하층	357
〈부표 3-1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성별 - 1) 남성	358
〈부표 3-1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성별 - 2) 여성	359
〈부표 3-1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세대 - 1) 청년	360
〈부표 3-17〉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세대 - 2) 장년층	361
〈부표 3-18〉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세대 - 3) 노년층	362
〈부표 3-19〉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363
〈부표 3-20〉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제공	364
〈부표 3-21〉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3)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365



〈부표 3-22〉 국가위기 시 공공부문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	366
〈부표 3-23〉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1)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367
〈부표 3-24〉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2)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368
〈부표 3-25〉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3) 자기개발과 미래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369
〈부표 3-26〉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4)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비대면 접촉(전화, SNS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한다	370
〈부표 3-27〉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1) 가구 경제 상황	371
〈부표 3-28〉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2) 가족관계	372
〈부표 3-29〉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373
〈부표 3-30〉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374
〈부표 3-31〉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1) 경제적 수준	375
〈부표 3-32〉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2) 불평등, 양극화	376
〈부표 3-33〉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3) 시민의식	377
〈부표 3-34〉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4)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378
〈부표 3-35〉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차별대상/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 ·	379
〈부표 3-36〉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_1순위	380
〈부표 3-37〉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_2순위	382
〈부표 3-38〉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_1+2순위(중복응답)	384
〈부표 3-39〉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386
〈부표 3-4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전 국민 대상 제외)	387
〈부표 3-41〉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1순위	388
〈부표 3-42〉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2순위	389
〈부표 3-43〉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3순위	390
〈부표 3-44〉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1+2+3순위(중복응답)	391
〈부표 3-45〉 지급된 정부지원에 대한 만족도	392
〈부표 3-46〉 본인의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	393
〈부표 3-47〉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394
〈부표 3-48〉 어제 행복했던 정도	395
〈부표 3-49〉 어제 우울했던 정도	396
〈부표 3-50〉 삶에 만족하는 정도	397
〈부표 3-51〉 사회적 지지 정도	398

〈부표 3-52〉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399
〈부표 3-53〉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400
〈부표 3-54〉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401
〈부표 3-55〉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402
〈부표 3-56〉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403
〈부표 3-57〉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404
〈부표 3-58〉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405
〈부표 3-59〉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406
〈부표 3-60〉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407
〈부표 3-61〉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408
〈부표 3-62〉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409
〈부표 3-63〉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410
〈부표 3-64〉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411
〈부표 3-65〉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412
〈부표 3-66〉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413
〈부표 3-67〉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2) 비교적 잘 지냈다	414
〈부표 3-68〉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3) 상당히 우울했다	415
〈부표 3-69〉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416
〈부표 3-70〉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417
〈부표 3-71〉 지난 일주일 간 부정적 경험: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418
〈부표 3-72〉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419
〈부표 3-73〉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420
〈부표 3-74〉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9) 마음이 슬펐다	421
〈부표 3-75〉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422
〈부표 3-76〉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423
〈부표 3-77〉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	424
〈부표 3-78〉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425
〈부표 3-79〉 지난 1년간 죽고 싶었던 이유	426



〈부표 3-80〉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427
〈부표 3-81〉 기관에 대한 신뢰도: (1) 대기업	428
〈부표 3-82〉 기관에 대한 신뢰도: (2) 종교계	429
〈부표 3-83〉 기관에 대한 신뢰도: (3) 교육계	430
〈부표 3-84〉 기관에 대한 신뢰도: (4) 노동조합	431
〈부표 3-85〉 기관에 대한 신뢰도: (5) 언론계(신문사, TV 방송국)	432
〈부표 3-86〉 기관에 대한 신뢰도: (6) 의료계	433
〈부표 3-87〉 기관에 대한 신뢰도: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434
〈부표 3-88〉 기관에 대한 신뢰도: (8) 입법부(국회)	435
〈부표 3-89〉 기관에 대한 신뢰도: (9) 사법부(법원)	436
〈부표 3-90〉 기관에 대한 신뢰도: (10) 군대	437
〈부표 3-91〉 기관에 대한 신뢰도: (11) 금융기관	438
〈부표 3-92〉 기관에 대한 신뢰도: (12) 시민운동단체	439
〈부표 3-93〉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440
〈부표 3-94〉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441
〈부표 3-95〉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442
〈부표 3-96〉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4)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443
〈부표 3-97〉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5)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444
〈부표 3-98〉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6)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445
〈부표 3-99〉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446
〈부표 3-100〉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8)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447
〈부표 3-101〉 1년간 활동 빈도: (1) 자원봉사	448
〈부표 3-102〉 1년간 활동 빈도: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449
〈부표 3-103〉 국가 자긍심	450
〈부표 3-104〉 지난 10년 동안 생활수준의 변화	451
〈부표 3-105〉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452
〈부표 3-106〉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453
〈부표 3-107〉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도	454
〈부표 3-108〉 이웃과의 관계: (1) 이웃과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455
〈부표 3-109〉 이웃과의 관계: (2) 이웃이 곤경에 처하면 도움 의향이 있다	456



〈부표 3-110〉 이웃과의 관계: (3)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다	457
〈부표 3-111〉 이웃과의 관계: (4) 이 동네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458
〈부표 3-112〉 이웃과의 관계: (5) 이 동네 이웃들과 나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459
〈부표 3-113〉 코로나19로 가장 위협받는 사회적 가치	460
〈부표 3-114〉 코로나19로 가장 높아진 사회적 가치	461
〈부표 3-115〉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한국사회가 안전한 정도	462
〈부표 3-116〉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1) 자연재해 관련	463
〈부표 3-117〉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2) 건강 관련	464
〈부표 3-118〉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3) 생애주기 관련	465
〈부표 3-119〉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4) 사회생활 관련	466
〈부표 3-120〉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5) 경제생활 관련	467
〈부표 3-121〉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468
〈부표 3-122〉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7) 환경 관련	469
〈부표 3-123〉 우리나라 갈등 정도	470
〈부표 3-124〉 집단 간 갈등 정도: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471
〈부표 3-125〉 집단 간 갈등 정도: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472
〈부표 3-126〉 집단 간 갈등 정도: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473
〈부표 3-127〉 집단 간 갈등 정도: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474
〈부표 3-128〉 집단 간 갈등 정도: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475
〈부표 3-129〉 집단 간 갈등 정도: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476
〈부표 3-130〉 집단 간 갈등 정도: (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477
〈부표 3-131〉 집단 간 갈등 정도: (8)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478
〈부표 3-132〉 가구주 소득 단절 시 공적/사적 지원 없이 가계 유지 할 수 있는 기간	479



Abstract

A Study on Assessment of Social Cohesion Status with Policy Implications(VIII)

: The Socioeconomic Crises and The Social Cohesion

Project Head: Yeo, Euge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and its effects on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by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risks and social cohesion.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social surveys on the socioeconomic crises and the social cohesion, and analyzed the results thereof.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decreased compared to those befor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while depression increased. In particular,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fluctuations compared to 2019. In general upon the COVID-19, 31.4% of households experienced an income decrease, and 17.9% lost more than 30% of their income. 73% of the self-employed experienced a decrease in their income due to the COVID-19, and 46.3% of them reported a significant income decrease by over 30%. It seems to be related to the particularly significant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the self-employed.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all awareness of social cohesion and social trust greatly increased after the COVID-19 outbreak. National pride, social cohesion, and trust level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general. In contrast to the rising of overall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at the micro level showed little change or a lower level. In particular,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social support could be observed in the young and the middle-aged,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e 2nd to 5th income quintile, the lower-middle classes, and the middle classes.

Third, the level of risk perception increased in 2021 compared to 2017. In particular, the health-related risk was evaluated the highest due to the COVID-19. Analyses of the risk perception factors could reveal that women and the low-income group perceived risks more compared to men and the middle and higher class groups. Also, the greate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the lower the level of trust they felt, the higher the risk perception was.

Fourth, more than 59.3%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y could be the target of discrimination due to the COVID-19 at least once. Also, it was found that social trust and government trus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discrimination. Men were less likely to be discriminated than women, and those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were less likely than college graduates. On the other hand, the 35~64-year-olds showed a higher potential for discrimination than the 65-year-olds or older, the 1st income quintile than the 5th quintile, and the monthly rent tenants than the homeow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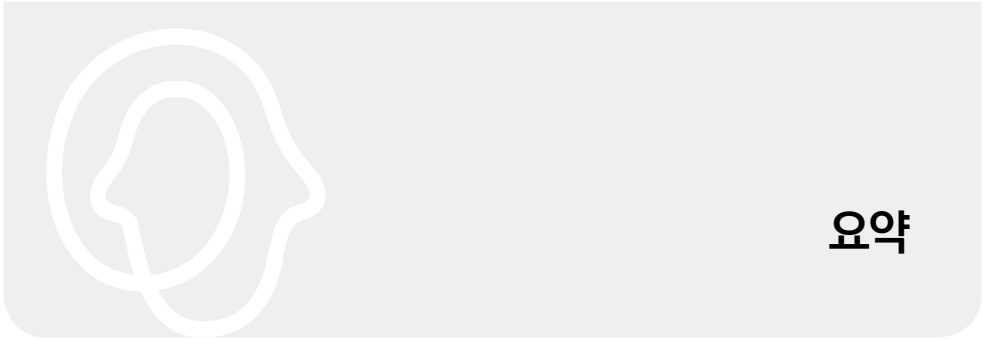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community cohes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of the government trust,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life, personal life outlook, and socioeconomic outlook, even when both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were controll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eople with abundant social capital for helping others in a variety of situations are following the rules for maintaining a daily life against the COVID-19 and have a relatively optimistic outlook on the life

after the COVID-19.

Lastly, the social support level in 2021 decreased in all the age groups compared to 2017, and in particular, the decrease in social support in their 30s was greater than in other age groups. Social support decreased in the upper middle class (upper class), middle class, and lower middle class, but increased in the lower income class. Suicidal ideation hardly changed in the 50s and decreased in the 60s and 30s, but increased in the 40s. Male's suicidal ideation remained at a similar level, while female's increased, and that of the middle and lower middle classes slightly increased, while the upper middle class decreased slightly, but the lower clas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other classes. While suicidal ideation increased among the resident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ose in the metropolitan areas decreased. And while that of the rural residents remained at a similar level, urban residents increased significantly.

In order to enhance social and community cohesion in a nationwide disaster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active financial resources and support measures for directly affected groups in terms of social solidarity. Also, in the stage of daily life recovery, measures should be discussed how to enhance the inclus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overall social polic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verall alert systems and the protection systems relating to mental health. In particular, in the modern society with ever-weakening community networks,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diversify public and private networks with easier accessibility.

Key word: social cohesion, socioeconomic crises, COVID-19, perceived risk, social trust,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resilience.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파장과 그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영향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협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의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정신건강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적 연구 방법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사회조사(‘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8월 기간에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4,000가구(4,000명)를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923명을 조사 완료하였다. 6장에서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함께 202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코로나 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의 원자료도 분석에 활용되었다.

나. 연구 배경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 인구 고령화, 가족 형태와 일의 성격 변화 등과 같은 내생적인 변화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원전 사고, 기후 온난화, 새로운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가상화폐 등장과 같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교란) 요인들이 수시로 등장하면서 경제와 사회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울리히 벡(Urich Beck)은 오늘날의 위협들은 산업적 과잉생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근대화가 낳은 위험은 지구적으로 전개되면서 체계적으로 강화되며, 특히 산업사회는 자연을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으로써 자연에 대한 위협을 사회화시키며 사회-정치 제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성과 근대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근대성 즉, '성찰적 근대성'을 추구해야만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파한다(Beck, 1986[1997], p.3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통합과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위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혹은 제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몇몇 연구들은 대체로 위기는 사회통합 혹은 사회적 응집력과 결속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Sweet, 1998; Calo-Blanco, Kovař 1 k, & Romero, 2017). 반대로 사회경제적 위기나 재난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잉글랜드의 사회응집력 변화를 추적한 보코프스가와 로렌스는 2020년 6월 조사 결과 모든 사회적 응집력 지표의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장 박탈된 지역과 특정 소수 민족, 저숙련 계층에서 응집력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Borkowska & Laurence, 2021). 한편 위기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위기나 재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의 시기와 지속 기간, 파급 효과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다르며, 국가와 대중 간의 관계, 국가의 효과성, 능력, 정당성에 의해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Wildavsky와 Dake(1990)에 따르면, 위험인식은 지식이론, 인성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지식이론(knowledge theory)으로 어떤 기술이나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은 개인의 위험기피적 성향 또는 위험선호적 성향에 따라 위험인식의 수준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경제이론(economic theory)은 신기술에 대한 위협의 수용 정도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부유층은 신기술이 안고 있는 위험을 더 잘 받아들이고, 빈곤층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론(political theory)은 성, 연령, 계층, 이념 등에 따른 정치적 성향이 위험인식 수준을 달리한다는 주장이다(이재완, 2018, p. 520). 위험인식을 설명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지, 정서, 경험을 넘어 자발성, 통제성, 심각함, 친숙함, 신념 등으로 확장되었다(김영평 외, 1995; Slovic et al.,1981; Fischhoff et al., 1984; 김영주, 2018에서 재인용).

셋째,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신뢰 수준과 위기 상황에서의 신뢰 수준은 상이하다.

신뢰는 국가적 위기 국면의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로 인해 오히려 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Nielsen & Lindvall, 2021). 코로나19 역시 그 영향과 규모 면에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초기 신뢰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Esaiasson et al., 2020; Nielsen & Lindvall, 2021). 반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른 유형의 낙인으로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증가시켰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 접근성 제한, 문자 알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 등의 차별적 경험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엠디 콜람 랍바니·김경학, 2021).

넷째,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지역사회 결속력의 수준, 특히 사회적 자본과 사회 참여도 등이 재난 발생 시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자본은 오래 지속되는 재해 복구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사회 집단이 지역 사회의 취약성, 소외 집단, 우선순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더 유관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식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Jewett, Sarah, Howell, & Larsen, 2021).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지리적 수준 전반에 걸쳐 사회적 응집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응집력의 강도는 회복의 강력한 예측인자일 가능성이 높다(Borkowska & Laurence, 2021).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및 적응에 대한 요구들은 개인에게 외적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 자살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 문제를 만들어냈다(박용천, 박기호, 김나은, 이주희, 조수린, 장지희, 정다운, 장은진, 최기홍, 2020; Bhuiyan, Sakib, Pakpour, Griffiths, & Mamun, 2020). 행복이나 삶에 대한 만족이 코로나19 직후에는 경감되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Yu, Li, Li, Xiang, Yuan, Liu, Li, & Xiong, 2020).

2. 주요 연구결과

가.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3장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 중 사회통합 관련 인식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공통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코로나 전의 추이와 코로나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역별로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신뢰도, 사회적 지지, 형평성 인식 등이며, 전체,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대별, 균등화된 가구소득 5분위별, 주관적 계층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관적 행복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61점과 6.48점을 보였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1년에는 6.33점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2021년의 주관적 행복도의 하락이 추세에 따른 하락의 연장선인지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6.15점(2019년)과 5.90점(2021년)으로 0.25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감소였다. 특히 자영자의 삶의 만족도는 2019년 6.25점에서 2021년 5.66점으로 0.59점 하락하여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우울감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2.93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지만 2018년과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특히, 40/50대의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이 연령대가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계층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한 연령대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자의 경우 2019년 2.58점에서 2021년 3.07점으로 우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둘째, 4점 척도로 계측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82점에서 2.88점 사이로 2.9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에는 2.96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21년의 자부심 상승은 이전의 모든 연도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 또한 이 기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0점에서 10점까지로 계측된 전반적인 통합도에 대한 평가는 2016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4.18점, 4.17점, 4.17점

으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4.50점, 2021년에 4.59점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팬데믹으로 개인적·국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전 세계 공통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방역이나 경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국제적인 평가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평가 역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인 2021년에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신뢰도는 2021년 5.37점으로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019년에 비해 2021년 사회적 신뢰는 0.37점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체적인 대인신뢰도, 즉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등의 문항은 2019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코로나 19의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시민 일반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0에서 10점 척도로 평가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문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전에 비해 2021년에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5.94점이던 사회적 지지 점수는 2021년 5.67로 0.27점 감소했다. 특히, 구체적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의 비율은 2017년에 비해 5% 정도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청년층에서 도움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21년에 “큰돈 빌려줄 사람”이 있는 사람의 비율 역시 실질적 감소를 보였다.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큰돈 빌려줄 사람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약 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8%포인트),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상용직(12%포인트)과 비경제활동인구(6%포인트), 소득 5분위별로는 4분위(12%포인트)와 5분위(11%포인트),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간층(7%포인트)과 중상층 이상(16%포인트)에서 큰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고민을 나눌 사람의 절대적 사회자본 수준은 앞서 두 가지 사회자본보다는 높았다. 2021년 기준으로 90%의 응답자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2017년에 비해 그 비율이 약간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4년 조사 이후 3.4~3.6점대로 대체로 ‘약간 동의’와 ‘중립’ 사이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동의 정도가 약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였다. 즉, 한국사회의 공정 이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는 문항과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평가는 2019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정부가 빈곤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여야 한다(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는 데 대해서는 2021년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70대, 자영자, 중하층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자기이해적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결과이다.

나. 코로나19 전후 위험인식의 변화

4장에서는 위험-주관주의에 근거한 위험인식의 수준 및 위험인식 설명요인, 그리고 코로나19 전후 위험인식 및 설명요인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험인식은 조사된 7가지 위험 영역 중 자연재해와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을 제외한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관련 위험 4가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위험인식의 설명요인으로는 객관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주관적인 인식요인으로 불평등 인식, 신뢰(대인, 사회, 정부), 사회적 지지 수준을 검토하였다.

먼저, 7개 영역 위험인식의 평균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위험인식 수준은 2017년 3.09점에서 2021년 3.57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위험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은 방사성 폐기물, 대기 및 수질 오염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위험(3.31점)이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강 관련 위험(3.81점, 전염병, 정신건강, 성인병, 먹거리 문제 등)이 가장 큰 위험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의 불안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건강 관련 위험 3.81점과 유사한 3.7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인 불평등 인식은 2017년과 2021년

모두 4.0점(3점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뢰수준의 인식은 대인신뢰, 사회신뢰, 정부신뢰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대인신뢰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보통 이하로 낮은 수준이고, 사회신뢰는 2017년보다 2021년 모두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간 감소했으나 사회신뢰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 역시 그 수준이 높지 않은데,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와 ‘다소 신뢰한다’ 사이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2019년 1.48점, 2021년 1.51점).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역시 2017년 대비 2021년 그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불평등 인식은 약간 증가하였고, 대인신뢰와 사회적 지지 수준이 약간 감소한 것에 반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는 약간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변수는 2017년과 2021년, 4가지(건강, 생애주기, 사회 및 경제생활 관련) 위험 영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제외).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Gustafson, 1998; Byrnes, Miller, & Schafer, 1999; 이승훈, 최수정, 2009; 김수아, 임동균, 2016; 조광덕, 김중백, 2018)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위험인식에 미치는 연령이나 교육수준의 영향이 위험 영역 등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는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여성은 동일한 위험이라도 남성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Olveda et al., 2004)고 설명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험지위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상태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2017년에는 전반적으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실업자/비경제활동자는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인 2021년에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직 역시 위기가 닥치면 위험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 및 위험인식의 관리가 모든 계층에 두루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셋째, 주관적 소득계층은 위험 영역에 따라 위험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건강 관련 위험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은 2017년과 2021년 모두 하층보다 중간층 이상에서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소득계층별 차이가 확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위험 관리 및 예방 지원이 경제생활 관련 위험(실업, 빈곤, 주택 가격 및 전세금 불안, 금융 불안, 경기 침체 등)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위험(전염병, 정신건강, 성인병, 먹거리 문제 등) 영역에서도 체감도 높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인식에 대한 소득계층별 영향이 하층과 비교해 중간층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험 영역별 관련 정책 대상자 선정 시 중하층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 이들 대상을 포함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조작적 개념이 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산층 귀속의식이 축소되고 이를 서민의식이 대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한 연구(조권중, 최지원, 2016)는 하층과 중하층의 위험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해준다 하겠다.

넷째, 위험인식의 주관적 영향요인으로 불평등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불평등 인식은 2017년에는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을 제외한, 건강, 생애주기,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는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전반적 위험인식 요인(〈표 4-10〉)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든 모형에서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자본의 부(-)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인식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상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에는 불평등 인식이 위험인식의 관리에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조광덕 외(2018)는 낮은 공정성은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져오고, 이는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불평등 인식이 2017년에 비해 2021년 약간 증가하였지만(〈표 4-2〉),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불평등 인식 수준을 급격히 증가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잠재되어 있던 영향력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인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사회경제적 위기 전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소득격차와

같은 실제적인 결과적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위험인식 수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인신뢰와 사회신뢰는 위험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신뢰와 사회적 지지 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위기 시, 위험인식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과 개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코로나19 전후 신뢰차별 인식의 변화

5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시대에 신뢰와 차별 인식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뢰(사회신뢰, 정부신뢰, 대인신뢰), 코로나19와 신뢰(코로나19 관련 정책평가, 위기 시 정보신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차별 인식과 경험(잠재적 차별 가능성,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사회통합 인식 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소득, 지역, 학력, 경제활동 상태, 주거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19년과 2021년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부신뢰 전반에 대해서는 2019년 1.37에서 2021년 1.39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신뢰는 2019년 1.22점에서 2021년 1.26점으로, 행정부신뢰는 2019년 1.49점에서 2021년 1.5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대인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정보제공 > 의료적 방역조치 > 사회경제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위기 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신뢰한다는 15.8%, 약간 신뢰한다는 64.8%로 신뢰한다는 응답이 80.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of London)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영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였다(Imperial College of London, 2021).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차별 대상/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9.3% 이상은 한 번이라도 본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으로는 1위가 종교인, 2위가 외국인 및 이주민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분석 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27.2%, ‘매우 그렇다’가 2.4%를 차지하여 약 3명 중 1명은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마지막으로,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차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중졸 이하는 대졸보다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적지만, 35~64세는 65세 이상 노인보다, 소득 1분위가 5분위보다, 월세가 자가보다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가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대체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차별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소득 3분위가 5분위보다, 임시 일용직이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월세 거주자가 자가소유자보다 코로나19 완치자/확진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료적 방역조치, 코로나 정보제공,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일수록,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

6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응집력과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대응력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계층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심리적 대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 민감도와 코로나 블루로 명명된 2개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생활 적응력을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에 대한 중앙정부 대응정책 신뢰도, 코로나19 이후 생활수칙,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기 본인 삶의 변화 전망과 사회·

경제 전망이라는 4개의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는 성별, 혼인 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코로나19 기간에 소득 감소 여부별, 소득 5분위별,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여성과 남성이었다. 여성의 코로나로 인한 민감도는 19.16으로 남성의 17.80에 비해 1.35 더 높게 나타났다. 사별이나 이혼을 한 사람은 기혼자에 비해, 아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경제활동자, 실업자, 임시·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가구소득이 코로나로 인해 크게 감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도권 이외 거주자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민감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우울과 삶의 만족도 저하는 아동 유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코로나 블루가 상당한 점수 차이(1.21점)로 더 높아서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코로나 블루가 20~3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적 특성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고서도 평소 이웃과의 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로 측정된 지역사회 응집도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의 유무로 측정된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민감도와 코로나 블루를 낮추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응집도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민감도를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 민감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반면, 지역사회 응집도와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 블루를 낮추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셋째, 개인과 가구 특성에 따른 생활 적응력의 차이를 탐색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 40~50대 중장년층, 상용직,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대응정책을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자,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이 크게 감소한 사람, 중하 계층에 속한 사람은 정부의 대응정책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지침 준수, 건강 추구 행태, 자기개발 노력, 관계망 유지 노력 등의 자기 관리 정도에 따라 생활 적응력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에 대응해 일상 생활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일수록, 가구소득이 줄지 않을수록, 고소득층일수록 자기 관리에 충실했다. 포스트코로나 시기 본인의 삶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현재 경제 상태가 더 나은 사람일수록, 즉 코로나로 인한 가구 경제 손실이 없고, 고소득층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코로나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낙관적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의 상황, 즉 경제적 수준, 불평등과 양극화, 시민의식,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전망도 자신의 삶에 대한 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응집도와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다양한 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사회 응집도는 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경제적 특성 변수를 모두 통제하고도 정부신뢰도, 생활수칙 준수도, 개인 생활 전망, 사회경제 전망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기여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자기 관리 등 생활수칙을 잘 준수하며, 코로나 이후의 삶과 사회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한편,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대응하여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자본은 정부신뢰도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

코로나19와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에 국민의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코로나로 인한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의 변화가 연령대별, 성별, 소득 계층별,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과 도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2017년과 2021년 데이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영향요인들이 무엇인가? 넷째, 정신건강 영향요인 변수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 사이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인 2017년 데이터와 코로나 이후인 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과 2021년의 정신건강 지표들에 대한 이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우울과 자살생각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분석의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다변량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항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의 이러한 결과들은 코로나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행복도 변화의 정도는 연령대별 및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 행복도 변화는 30대, 50대, 60대와 비교해 20대와 40대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행복도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과 비교해 하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변화의 정도는 소득 계층별 및 농·어촌과 도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득 계층별 우울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과 비교해서 하층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우울 증가 폭이 도시와 비교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변화의 정도는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변화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50대의 감소폭이 작았다. 소득 계층별 삶의 만족도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과 비교해서 하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이 수도권 하락 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화의 정도는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 농어촌과 도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했지만, 30대의 사회적 지지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에서는 감소했으나,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과 도시의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사회적 지지수준은 급감하고 농어촌지역 사회적 지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변화의 정도는 연령, 성별, 소득,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자살생각은 거의 변화가 없고 60대와 30대의 자살생각은 감소했으나, 10대와 40대의 자살생각은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생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여성의 자살생각은 증가하였다. 소득 계층별로는 중하층과 중간층은 약간 증가하였고, 중상층은 약간 감소했으나, 하층의 자살생각은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자살생각은 증가했지만, 수도권 자살생각은 감소하였고, 농어촌 자살률이 답보상태를 보인 반면, 도시 지역 자살생각은 급증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21년 통합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복도는 포함된 변수 중 교육을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 배우자, 소득, 직업, 지역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정도는 성별과 교육을 제외한 연령, 배우자, 소득, 직업, 지역 변수와 관련이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교육변수를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 배우자, 소득, 직업, 지역 특성 등 포함된 모든 변수와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포함된 모든 변수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성별과 교육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신건강지표들의 예측요인들이 코로나 전인 2017년과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 유사한지를 검증한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 동질성 검증에서 행복도와 우울의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에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복도와 우울 예측요인들은 두 시점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에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신건강지표 예측요인들이 두 시점 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검증결과에서 교육변수와 우울 간의 관계는 두 시점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17년에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반면, 2021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이 우울억제 효과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의 우울억제효과가 약화하였고, (2)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울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경험(예: 실직, 실직 위험 증가, 소득 감소 등)을 더 많이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동질성 검증결과는, 지역 변수의 영향력은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점 모두 수도권 지역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수도권

지역의 삶의 만족도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201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2021년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줄어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삶의 만족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모형 동질성 검증결과는, 성별, 교육, 소득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2017년의 남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비해 매우 낮아서 성별 격차가 컸는데, 2021년에는 여전히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보다 낮지만,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적 지지가 줄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그 결과 비록 하향평준화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적 지지의 성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 수준의 경우 2017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이 차이가 없었다. 즉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격차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주는 사회적 지지 보호 효과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 2017년과 2021년 모두 가구원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높았지만, 소득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격차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에 비해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사회적 지지 보호 효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된다.

자살생각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에 동질 하지 않았다. 자살생각 예측 변수들은 두 시점에서 대부분 동질하였지만, 교육 및 지역 변수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뀌었다. 즉, 2017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게 나타났지만, 2021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 수준이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작동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요인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울이나 사회적 지지 결과와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가지던 우울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호요인의 기능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것처럼, 유사한 현상이 교육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아마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상대적

으로 더 많은 부정적 스트레스(예: 실직, 실직위험, 소득감소 등)를 경험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지역의 경우 2017년에는 수도권외의 자살생각이 비수도권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2021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간 자살생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자살생각 격차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지역별 거주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방역 대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의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사회연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재난연대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피해집단에게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재난 시기에 높아진 사회통합 인식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재난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된다. ‘K-자형 양극화’ 가능성이나 ‘지연된 자살 효과’와 같은 것이 그러한 우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개별화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난의 피해 집단이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금전적, 물리적, 사회심리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포용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도 대인신뢰도, 결사체소속도, 사회단체 참여율, 소수자 포용성, 사회적 고립도 등의 사회적 자본 지표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풀뿌리 공동체’와 ‘건전한 시민 공간’의 복원은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을 단위의 상호 협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례화, 학교와 시민 교육을 통한 신뢰, 협력, 연대 제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과 공동체 차원의 재난 대응 교육의 체계화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보 시스템과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 네트워크가 취약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보강해 줄 공적·사적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심리지원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포괄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대면·비대면의 공동체 네트워크의 활성화, 동심원적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인 지원 대책을 통한 격차 해소, 지나친 경쟁과 경제 중심적 사고의 지양과 협력과 사회적 연대 중심적 사고와의 균형 모색 등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 사회통합, 정신건강, 코로나19, 위험인식, 신뢰,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회복탄력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대체로 합리적인 복지국가에 의해 예측 가능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처 가능하다는 근대 사회의 믿음은 탈근대 사회에서 산산이 부서져 왔다. 조효제 교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속적 원리는 근대성, 그리고 자본주의/산업화라는 양대 조건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 이 두 가지 확실한 원리가 오늘날 최악의 불확실성을 낳는 원천이 되었다.”고 주장한다(박성민, 조효제, 박종현, 최정규, 2010, pp.51-52). 울리히 벡(Urich Beck, 1986)은 이 같은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을 특징으로 하는 탈근대 사회를 ‘위험사회’로 명명한 바 있으며, 지그문트 바우만(Zyhmunt Bauman, 2000)은 ‘액체 근대’ 혹은 ‘유동하는 공포’로 표현한 바 있다. 실제로 기 경제(gig economy)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정보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위험 증가, 구소련과 일본에서의 원전 폭발사고, 온난화와 환경파괴가 야기하는 식량 위기,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한 감염병이 인간 사회와 경제에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극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경제적,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예컨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외적, 환경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예컨대, 감염병의 창궐, 쓰나미, 지진 등-가 향후에도 비 예측적이고 극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사회보험 등 기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특히 불안정·저소득계층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약화된 국민국가에서 새로운 ‘사건’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도구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실직, 파산, 가족 해체, 자살, 범죄와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과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국가(정부)를 중심으로 시민을 통합시키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기후위기 대응, 빈곤국에 대한 인도적 원조 등에 대한 국제적 책임성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가구)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의 실태, 이에 대한 대응 방식, 정부와 사회의 대응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사회통합 인식이 사회·경제적 위기의 극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파장과 그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영향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험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가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의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정신건강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하에 매년 수행되는 일반과제로 지금까지의 연차별 연구 주제와 주요 내용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행복, 사회이동, 사회통합 인식, 사회심리적 불안, 사회갈등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다. 올해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현대 사회의 비주기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불안정성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식과 국가의 대응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통합과 정신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대안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1-1〉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년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과 행복 수준의 결정요인 규명,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분석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및 상태 진단 - 사회통합인식의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 행복의 개념 및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유형별, 개인 특성별 행복 수준 - 행복의 결정요인
2년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현황 - 교육 성취와 사회이동 - 사회이동과 사회통합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 사회이동 수준 국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계층 이동 국제 비교 분석 및 결과 • 사회이동 수준 비교의 함의
3년차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사회통합 국민인식 구조를 갈등인식과 박탈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사회통합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 -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
4년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국민이 경험하는 불안, 불신, 불만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 증진의 단초 마련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개념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 -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 -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 •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 -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
5년차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갈등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함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 - 사회계층에 따른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2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6년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사회통합 실태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시도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정책 영향 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 -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 및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적 자본의 상태 진단 및 국민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이동성의 상태 진단 및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
7년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국민의 사회이동성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고, 공정성을 비롯한 사회이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슈들을 조망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 -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 -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 - 사회이동 인식의 결정요인 -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8년차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코로나19 전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및 정신건강 실태 진단 및 위기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 조망 -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 코로나19 전후 위험인식의 변화와 영향요인 - 코로나19 전후 신뢰차별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 -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수준 변화와 영향요인

이 연구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의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후기 혹은 탈근대 사회의 사회적 위험의 새로운 양태를 진단하고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했다.

3장은 심층적인 분석에 앞서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사회통합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할애되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 원자료 중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통 문항(〈표 1-3〉 참조)을 추출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변화를 인구·경제적 특성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코로나19 전후 혹은 코로나19 이후 사회통합 실태와 결정요인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1-3〉 참조). 먼저 4장에서는 각 사회적 위험 상황에 대한 불안 수준을 통해 유형별 위험인식 수준과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 문항을 활용하여 2017년과 2021년에 위험인식 수준과 결정요인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신뢰와 차별의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외 조사 결과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전후 신뢰 유형의 변화와 정보신뢰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19와 관련한 차별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6장에서는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과 생활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심리적 대응력은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와 코로나 블루의 수준으로, 생활 적응력은 코로나에 대한 중앙정부 대응정책에 대한 신뢰도, 개인 생활수칙의 준수 정도,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기 본인 삶의 전망과 사회·경제에 대한 전망으로 계측되었다.

7장은 코로나19 전후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에 국민의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 코로나로 인한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의 변화가 연령대별, 성별, 소득계층별,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과 도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지, 2017년과 2021년 데이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건강 영향요인 변수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 사이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개인과 가구의 불안 정성(insecurity)과 빈곤을 경감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전체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제고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개인의 불안정성 정도, 이에 대한 대응 방식과 평가, 그 결과의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사회통합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위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통합과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주요한 국내외 문헌 검토, 실태조사와 원자료 분석,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새로운 위험 등장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진단, 그러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개인 수준의 불안 인식, 신뢰와 혐오 등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개인의 회복 탄력성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 문헌을 검토·정리하였다. 또한 장별로 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과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해 다양한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인용하였다.

둘째, 본 보고서의 핵심적 연구 방법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사회조사(‘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8월 동안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4,000가구(4,000명)를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923명을 조사 완료하였다. 조사 개요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2021년의 조사결과뿐 아니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기존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 원자료도 분석하였다. 이는 올해 주제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통합과 정신건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조사와의 비교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는 신뢰, 사회적 지지, 형평성, 행복, 삶의 만족도, 우울 등의 변수를 2014년 이래 일관되게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변수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불안, 스트레스, 정신건강 등이 대표적이다. 2장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결과와 2021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였고, 나머지 장에서도 주제에 맞는 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대면조사 방식과 달리 웹 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되었기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장에서는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함께 202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의 원자료도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1-2〉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남녀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2002년 5월 31일 이전 출생) ~75세 이하(1945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 단위	가구 내 개인 1인 (빠른 생일자)	
표본 크기	전국 500개 집계구(지역) 내 3,923가구(3,923명)	
표본 추출	2019년 집계구 활용 조사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8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 기간	2021년 6월 21일~2021년 9월 17일	
조사 문항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 사항	가구원 수, 가구원 특성(만 18세 미만 가구원,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수), 가구주와의 관계, 응답자 성별, 출생연도,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직업, 고용 형태, 종사상 지위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	코로나19 이후의 근로소득 감소 정도 및 이유,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및 개인 생활방식의 변화 정도, 코로나19 차별과 혐오의 대상 인식,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
	사회심리적 감정 상태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인식 및 사회적 자원 여부,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 자살생각,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사회 및 공공기관, 타인에 대한 신뢰, 부패인식 및 복지 태도, 자원봉사 및 기부 활동 정도, 이념 성향 및 국가 자긍도, 이웃과의 관계, 주관적 소득 계층, 사회이동 및 사회통합 인식,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가구의 경제 상태	가구 자산 및 부채, 집의 유형 및 점유형태, 월평균 가구 총소득, 가구주 소득 단절 시 지원 없이 가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마지막으로, 사회통합포럼은 사회통합정책 및 연구영역의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여 이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사회통합과 정신건강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세 차례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였다. 1차 포럼(7월 14일)은 코로나19의 사회·심리적 영향, 2차 포럼(10월 13일)은 코로나19와 사회통합, 3차 포럼(12월 1일)은 본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전과 후의 사회통합과 정신건강 수준의 변화 추이와 그 결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분석에 한계가 불가피하였다.

먼저, 3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 수준의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재난이나 위기 발생 이후에도 시점에 따라, 즉 발생 직후인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의 조사 결과가 누락된 점은 연구의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20년에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II'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대면조사 대신 온라인 조사(웹과 모바일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조사 대상도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조사방식과 대상 제한성으로 인해 기존 조사와 2021년의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대면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가 분석에서 제외된 것은 코로나19 전후의 비교에서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장에서의 분석내용과 분석방법에서의 중복성과 차이 또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3장은 전반적인 추이 분석으로서 기초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후 4장에서 7장까지는 심층분석이 수행되었다. 전체 주제 상 유사한 변수가 분석에 활용되다보니 3장에서 분석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신뢰, 행복, 우울 등의 변수가 각 장에서 중복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간명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각 장의 주제와 맥락상 분석 결과를 거두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심층분석에서 다중 회귀분석이 주류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지만, 예외적으로 7장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변수의 코딩 방식도 장 간 다소 차이가 있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선호 및 분석의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었으나 분석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1-3〉 코로나19 전후 변화 분석을 위한 공통 문항과 코로나19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문항

구분	영역	문항	척도	비교연도 ¹⁾	
추이 분석용 공통 문항 - 기초 분석	행복과 삶의 만족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 ~ 매우 행복했다(10)	2014~21년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 ~ 매우 행복했다(10)	2014~21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 ~ 매우 행복했다(10)	2014~21년	
	사회 통합도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 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5) ~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	2014~21년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 ~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2014~21년	
	신뢰도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 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0) ~ 매우 믿을 수 있다(10)	2014~21년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 수에 불과하다	매우 동의한다(1) ~ 매우 반대한다(5)	2014~21년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 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매우 동의한다(1) ~ 매우 반대한다(5)	2014~21년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매우 동의한다(1) ~ 매우 반대한다(5)	2014~21년	
	사회적 지지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받고 있지 않음(0) ~ 매우 많이 받고 있음(10)	2017년, 2021년	
		도움 청 할 사 람 유 무	갑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 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없음(0), 있음(1)	2014~15년, 2017~21년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없음(0), 있음(1)	2014~15년, 2017~21년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 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없음(0), 있음(1)	2014~15년, 2017~21년	
	형평성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 패할 수밖에 없다	매우 반대한다(1) ~매우 동의한다(5)	2014~21년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매우 반대한다(1) ~매우 동의한다(5)	2014~21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매우 반대한다(1) ~매우 동의한다(5)	2014~21년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한다	매우 반대한다(1) ~매우 동의한다(5)	2014~21년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1) ~매우 반대한다(5)	2014~21년	

3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구분	영역	문항	척도	비교연도 ¹⁾	
코로나19 영향요인 분석용 문항 - 심층 분석	위험 인식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건강/생애주기/사회생활/경제생활)	매우 불안하다(1) ~ 전혀 불안하지 않다(5)	2017년, 2021년	
	신뢰와 차별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매우 적절하다(1) ~ 매우 부적절하다(5)	2021년	
		귀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	2021년	
		귀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1) ~ 자주 생각했다(4)	2021년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1), 없다(2)	2021년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완치된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1) ~ 전혀 그렇지 않다(4)	2021년	
	위기 대응력	중앙정부 대응정책 신뢰도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 3)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매우 부적절하다(1) ~ 매우 적절하다(5)	2021년
		생활 수칙 준수도	1)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2)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3) 자기개발과 미래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4)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비대면 접촉(전화, SNS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2021년
		본인 삶의 전망	1) 가구 경제 상황 2) 가족관계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훨씬 더 나빠질 것(1) ~ 훨씬 더 나아질 것(5)	2021년
		사회 경제 전망	1) 경제적 수준 2) 불평등, 양극화 3) 시민의식 4) 전반적인 사회의 질	훨씬 더 나빠질 것(1) ~ 훨씬 더 나아질 것(5)	2021년
	정신 건강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 ~ 매우 행복했다(10)	2017년, 2021년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 ~ 매우 행복했다(10)	2017년, 2021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 ~ 매우 행복했다(10)	2017년, 2021년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받고 있지 않음(0) ~ 매우 많이 받고 있음(10)	2017년, 2021년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음(0), 있음(1)	2017년, 2021년	

주: 단, 2020년은 웹 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부록 [조사표] 참조(2021년 이외의 문항은 각 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참조)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위기와 불확실성 증대
제2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통합과 정신건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위기와 불확실성 증대

‘위기’(crisis)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단계”이다. crisis는 희랍어 ‘Krinein’에서 유래했으며,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두산백과, 2021.9.1.). 사회·경제적 위기는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이로부터 파생된 상황을 통칭한다.

역사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사건이나 요인은 다양하다. 대규모의 자연 재해, 전염병, 전쟁, 주기적인 경제공황 등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흑사병과 장기화된 십자군 전쟁은 봉건제의 중심을 이루던 장원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킴으로써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촉발한 결정적 요인들로 꼽힌다. 산업화 이후에도 1, 2차 세계대전, 1929년 대공황,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파급의 영역과 심도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기를 촉발했다. 21세기 이래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감염병만 해도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CoV),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코로나19)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은 “팬데믹”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며, 2009년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침체”로 규정할 만큼 그 파장이 컸다(기획재정부, 2020. 6. 9. 보도참고자료).

사회·경제적 위기는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의 짧은 ‘황금기’-물론 서구의 시각에서지만- 동안은 사회적 위험이 상당 부분 통제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했던 시기이고 실제로도 사회·경제적 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기였다. 즉, 근대사회, 특히 복지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risk)에 대해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 해서 관리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사회였다. 반면, 서구를 기준으로 대략 1980년대를 전후로 하는 탈근대 혹은 후기 근대사회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영향 또한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재규정되고 있다(박종현, 2010, p.87).¹⁾ 예를 들면,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 노령, 실업, 질병, 산업재해 등 각종 구(舊)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험계리적 계산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들의 이면에 깔린 전제는 대부분의 시민이 유사한 삶의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전체 시민의 위험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시민들은 이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확률 분포에 바탕한 사회공학적 설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security)을 구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계산속에는 시민들의 생애 과정(life course)상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외생적·내생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지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후기 근대 사회에서 이러한 전제는 상당 부분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 인구 고령화, 가족 형태와 일의 성격 변화 등과 같은 내생적인 변화 요인은 차지하고라도, 원전 사고, 기후 온난화, 새로운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가상화폐 등장과 같은 새로운 (교란) 요인들이 수시로 등장하면서 경제와 사회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기 근대 사회의 불확실성 고조와 새로운 위험의 등장에 대한 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울리히 벡(Urich Beck)을 꼽을 수 있다.

벡(Beck)은 위험을 “주어진 기술적 또는 다른 과정들로 말미암아 물리적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포스트(post), 후기(late) 혹은 초(trans) 근대사회의 위험들과 위해들(hazard)은 과학과 산업의 발전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 사회’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 산업사회라고 주장한다(Beck, 1986[1997], p.38). 즉, 선진 산업사회에서 부의 사회적 생산은 위험의 사회적 생산을 체계적으로 수반한다는

1)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결정 과정에서 의존하는 정보의 성격과 관련하여 확실성, 리스크, 불확실성, 무지를 구분한다. 확실성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리스크란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확률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불확실성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확률분포는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지란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박종현, 2010, p.87).

것이다(Beck, 1986[1997], p.52).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위해들은 산업적 과잉생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근대화가 낳은 위험은 지구적으로 전개되면서 체계적으로 강화된다고 하였다(p.56). 특히 산업사회는 자연을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자연에 대한 위험을 사회화시키며 사회-정치 제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Beck, 1986[1997], p.144). 기술적 선택의 능력이 커지는 만큼 그 결과의 계산 불가능성, 즉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험은 계급 사회의 불평등과 중첩되며 서로를 조건 지운다(p.90). 위험은 종종 계층화되거나 계급-특수적인 방식으로 분배되는 경향이 있으며, 계급과 위험사회 사이에는 폭넓은 중첩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반대이다(Beck, 1986[1997], p.75). 1986년에 발간된 벡(Beck)의 저술이 내포한 이러한 통찰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현재 상황에도 적합한 해석을 제공한다. 그는 “위험의 경험이 상실된 안전과 깨어진 신뢰라는 규범적 지평을 전제로 한다”(Beck, 1986[1997], p.65)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과 위해가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성찰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eck, 1986[1997], p.54). <위험사회>의 부제(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험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성과 근대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근대성 즉, ‘성찰적 근대성’을 추구해야만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클라우스 슈밥과 티에리 말르레(Schwab & Malleret, 2021)는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는 세 가지 특징으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속도(velocity), 복잡성(complexity)을 꼽으며, 이들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의존적인 세계는 모든 위험이 복잡한 상호작용망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코로나19의 전파 속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그 결과와 영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블랙스완’, ‘위기가 일어날 것’임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걸 말하는 ’알려진 무지(known unknowns)’로 인해 ‘놀라움’, ‘격변’, ‘불확실함’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Schwab & Malleret, 2021, pp.37-49). 그들은 이러한 복잡한 상호의존성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지정학적·환경적 차원에서의 소위 ‘위대한 리셋’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와 ‘맹목적 시장숭배주의’

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계약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회계약에는 더 광범위한 사회 지원, 사회보험, 의료 및 기본 품질 서비스 제공, 노동자와 현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의 강화가 포함된다(Schwab & Malleret, 2021, p.99, p.121).

제2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통합과 정신건강

1.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충격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실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 충격은 경제뿐 아니라 환경, 기술, 문화, 교육, 가족의 일상, 소비 패턴,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다. 2020년 6월에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애초의 2.5%에서 -5.2%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실제 2020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은 세계은행 추정치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 추정치보다 낮아서 전년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전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앞당겨지면서 2021년 성장률을 4.3%로 전망함으로써 처음 예상보다 빠른 'V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World Bank,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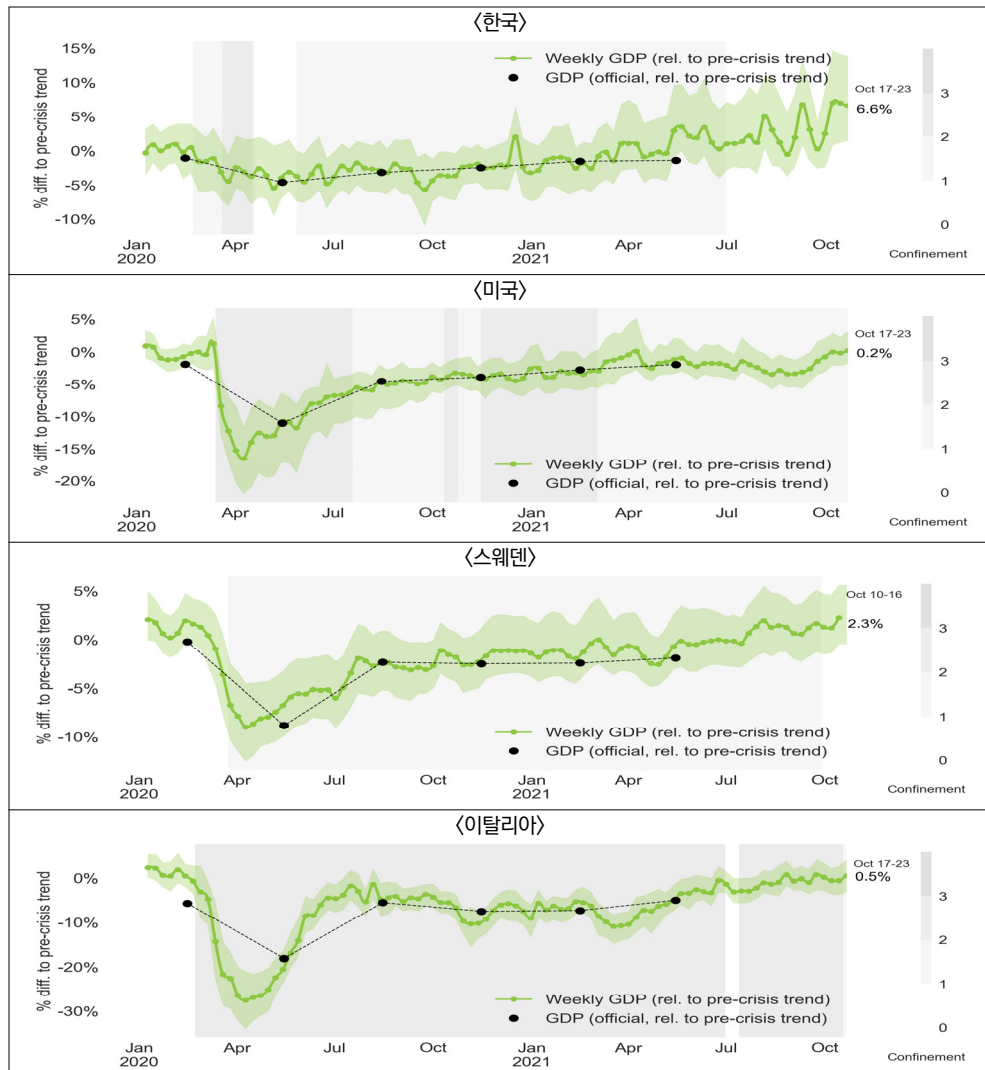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놓치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에 속한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해 가며 확산세를 최대한 차단해 가면서도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떨어진 나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외현적인 경제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이동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민간소비는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2019년 1.7% 성장했던 민간소비는 2020년 마이너스 5.0%의 감소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 2021. 1. 26).²⁾ 노동시장 지표 또한 악화하여 2020년 3월부터 총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취업자 수는 2020년

2) 다만 극심한 소비 부진을 수출투자재정이 완충하면서 2020년 실질 GDP는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기획재정부, 2021. 1. 26).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19.6만 명 감소하였으며, 4월 47.6만 명, 5월 39.2만 명, 6월 35.3만 명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일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근식, 2020, p. 83).

[그림 2-1] 주요국의 GDP 성장을 추이



주: 녹색 신뢰 대역은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위클리 트래커(Weekly Tracker)는 2019년 11월 <OECD Economic outlook>을 기준으로 위기 이전 추세와 비교한 주간 GDP 추정치임. 회색 배경의 어두운 색상은 Oxford Blavatnik 데이터베이스(0 - 조치 없음, 1 - 외출 금지 권고, 2 - 예외를 둔 외출 금지, 3 - 최소 예외로 외출 금지)를 반영함. 자료: OECD. (2021. 10. 28). Tracking GDP growth in real time, <https://www.oecd.org/economy/weekly-tracker-of-gdp-growth/> (2021. 10. 28. 인출)

코로나19의 영향은 비례적으로 노동시장과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 근로 형태별로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 특수고용 자영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남성 보다는 여성, 핵심 근로연령층보다는 청년과 노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유근식, 2020;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2021; 허재준, 2020).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월과 9월 사이에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은 각각 6.2%와 6.7%가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고용의 64.8%, 자영자의 40%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근로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상용직은 약 11%만이 근로활동의 위축을 경험했으며, 주로 단축근로(8.6%)나 유급휴직(1.4%)과 같이 일시적이고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였다. 그 결과 2019년 9월 대비 2020년 4월의 소득 감소폭은 상용직을 가구주로 둔 가구의 경우 5.8%에 그친 데 비해, 임시·일용직 가구주 가구 15.9%, 특수고용직 가구주 가구 25.8%, 자영자 가구 27.5%에 이르렀다(여유진, 2021, p.8). 또한 경제가 코로나 19 발생 이전으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과 적응을 보이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격차가 커지는 이른바 ‘K자형 회복’(K-shaped recovery)이 우려된다는 점도 향후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은 코로나19 이후 국가 역할의 확대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만큼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계기는 드물었다. 국가는 입국과 출국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감염의심자를 조기에 선별하여 검사하고, 확진자를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여 병상을 확보하며, 밀접접촉자와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고, 학교, 병원, 요양원 등 집단시설을 관리하는 등 방역정책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자영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총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했다. 국가의 이 같은 사상 유례 없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은 ‘국가의 능력’과 ‘시민의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일종의 시험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통합

가. 위기(재난)와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연결과 결속의 정도, 개인과 커뮤니티 간의 신뢰와 연결 수준”을 의미한다(Jewett, Sarah, Howell, & Larsen, 2021). 라로트 등(Lalot et al., 2021)은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제도적 신뢰, 제도의 정당성, 개방성, 참여, 대인 간 신뢰,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의 밀도를 거론한다. 사회통합의 역할과 중요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영역이다.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위기와 사회통합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위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혹은 제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대답이 존재한다.

몇몇 연구들은 대체로 위기는 사회통합 혹은 사회적 응집력과 결속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Sweet, 1998; Calo-Blanco, Kovař 1 k, Romero, 2017; Lalot et al., 2021). 위기의 초기에는 공유된 충격적인 경험이 ‘모두 한배를 탔다’라는 인식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alot et al., 2021).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남동부를 덮친 심한 폭풍과 태풍으로 인한 전력망 파괴와 환경 피해 전후 피해 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재난의 즉각적인 여파로 사회적 응집력이 증가했으나 한 달 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재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재해는 사회적 응집력에 지속적인 영향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Sweet, 1998). 실험적 연구에서도 급격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신뢰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von Dawans et al., 2012; Borkowska & Larence, 202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8년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이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복구를 위한 자발적 자원봉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위기에 대응해 사회적 응집력과 결속력이 빛을 발한 예이기는 하지만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효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반대로 사회·경제적 위기나 재난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다. 팬데믹은 한편 새로운 유대감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미래 사회가 더욱 분열될 위험

정도 상존한다는 것이다(More in Common, 2021). 코로나19 동안 잉글랜드의 사회 응집력 변화를 추적한 보코프스가와 로렌스는 2020년 6월 조사 결과 모든 사회적 응집력 지표의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장 박탈된 지역과 특정 소수 민족, 저숙련 계층에서 응집력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Borkowska & Laurence, 2021). 위기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장기적이라면 위기는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주로 가구, 지역사회, 국가 수준에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 즉, 재난은 종종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악화시키고, 그 결과 사회갈등과 분열이 더욱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의 회복과 사회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형평성 렌즈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Jewett, Mah, Howell, & Larsen, 2021).

한편 위기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국가는 시민사회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자율적인 행위자이기도 하다(Skocpol, 1985). 복지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기존 지역 단위의 공동체 사회-서구의 경우 장원이나 교구,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 공동체-에서 도맡아 해오다시피 하던 빈민 구제나 시민의 안전 보장 같은 역할을 중앙정부의 역할로 재규정하는 과정의 역사적 산물로, 이를 통해 국가 단위의 연대와 통합을 끌어냈다. 하지만 그 역량은 나라마다 다르다. 자율성과 역량의 창출은 대개 지정학적 요소, 구체제의 구조들, 민족주의 강도, 정치체제의 성격, 문화적 요소 등에 의해 좌우된다(Zhao & Hall, 1994). 그 결과 국가의 권위, 능력, 정당성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 공공재 제공, 더 나은 공중 보건정책을 포함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산출한다. 또한 잘 작동하는 국가 기구는 자연재해와 같은 외생적 충격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Gisselquist & Vaccaro, 2021). 사회통합적 요소들-응집성, 신뢰, 국가 조치에의 순응 등-은 이러한 국가의 권위, 능력,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기저의 힘이며 이렇게 산출된 긍정적 결과물들은 다시 사회통합을 재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기 기간에 대중의 결속을 끌어내는 것은 상당 부분 정부의 손에 달렸다. 포괄적 리더십, 권위의 정당성, 공유된 정체성 및 공통 목표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사회적 결속은 일상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더욱 긴급하게 요구된다(Jewett, Mah, Howell, & Larsen, 2021).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에서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극히 중시하는 정치·문화적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나, 반대로 국가주의적 전통과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질서 있고 모범적인 방역체계를 신속히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지정학적 요인 등을 통제했을 때 국가의 능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및 치사율과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봉쇄정책은 덜 엄격했고 경제적 지원정책은 더 관대했다(Gisselquist & Vaccaro, 2021). 서구 7개국³⁾ 14,0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 대처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 만큼, 독일인과 네덜란드인들은 정부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ore in Common, 2021). 요컨대, 위기나 재난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의 시기와 지속 기간, 파급 효과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다르며, 국가와 대중 간의 관계, 국가의 효과성, 능력, 정당성에 의해 매개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코로나19와 위험인식

1) 위험과 주관적 위험인식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위험(危險)’은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위험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중 Beck(1992)은 위험을 “우리를 위협하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사건”, Rosa (2003)는 “인간의 가치(value) 또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 결과가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 Renn(2008)은 “자연적 사건이나 인간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의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위험의 불확실성과 발생 가능성,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내포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위험-객관주의(risk-objectivism)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 위험-구성주의(risk-

3)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

constructivism)는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다(이재열, 2004). 일반적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위험은 구성주의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물론 위험주관주의적 접근이 객관적 측면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위험일지라도 개인의 심리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다르게 평가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위험은 위험인식(risk perception)으로 개념화된다.

위험인식에 대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Wildavsky와 Dake(1990)에 따르면, 위험인식은 지식이론, 인성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지식이론(knowledge theory)으로 어떤 기술이나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위험인식을 높게 한다는 주장이며, 두 번째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은 개인의 위험기피적 성향 또는 위험선호적 성향에 따라 위험인식의 수준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경제이론(economic theory)은 신기술에 대한 위험의 수용 정도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부유층은 신기술이 안고 있는 위험을 더 잘 받아들이고, 빈곤층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론(political theory)은 성, 연령, 계층, 이념 등에 따른 정치적 성향이 위험인식 수준을 달리한다는 주장이다(이재완, 2018, p.520).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위험인식은 불안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Beck(1992)은 20세기 후반에 느끼는 불안은 위험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가 위험하다고 인식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신종질병이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위험(14.9%), 범죄(13.2%), 국가 안보(11.3%)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신종질병의 비중은 2018년 조사에서는 2.9%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0a, p.36).

2) 주관적 위험인식의 설명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인식은 개인 또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된다. 위험인식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등에서 다수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정책학, 행정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전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의 범위 확장은 위험인식의 설명요인 확장으로 연결되었다. 예컨대, 행정학에서는 위험인식의 설명요인으로 행정주체의 역량, 신뢰, 지역공동체 등에 주목하게 된다(김영주, 2018). 위험인식을 설명하는 요인은 개인의 인지, 정서, 경험을 넘어 자발성, 통제성, 심각함, 친숙함, 신념 등으로 확장되었다(김영평 외, 1995; Slovic et al., 1981; Fischhoff et al., 1984; 김영주, 2018에서 재인용).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개인의 경험과 관련되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 위험인식의 수준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Gustafson, 1998; Byrnes, Miller, & Schafer, 1999; 이승훈, 최수정, 2009),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Hajito et al., 2015; Peacock, Brody, & Highfield, 2005; 김영란, 2011). 혼인상태 및 자녀 수도 위험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혼보다는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승훈, 최수정, 2009).

반면, 연령과 교육수준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Farrand & McKenna, 2001; 김수아, 2016)가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을 낮게 평가한다는 결과를 얻는 연구도 있다(Hakes & Viscusi, 2004).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위험을 크게 인식한다고 분석한 연구(Hakes & Viscusi, 2004; 정진영 외, 2010, p.75-98)가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험을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Moen & Rundmo, 2005; 김수아, 2016). 이러한 결과는 위험인식의 범위 및 유형을 달리 규정하는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재완(2018)의 연구에서 자연재해, 교통사고, 전염병 등은 연령이 위험인식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실업과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해식 외(2017)의 연구에서도 생애주기 위험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높지만, 경제적 위험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주관적 위험인식은 다른 주관적 인식과 관련성이 높다. 신뢰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영역(정치·경제·사회·문화·보건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김지영, 정명호, 2015; 박희봉, 이희창, 2010; 하상근, 2014,

김영주, 2018에서 재인용). 위험인식 연구에서 신뢰는 정부 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험대상을 관리 및 예방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송해룡과 김원제(2015)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 및 제도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수아 외(2016)와 이재완(201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뢰의 본질과 관련되는데, 신뢰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식이자 원천이기 때문이다(김수아 외, 2016). 또한 신종인플루엔자와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기간에도 신뢰는 관련 정부 규정 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ndon & Sinha, 2010; Liao, Cowling, Lam, Ng, & Fielding, 2010; Podlesek, Roskar, & Komidar, 2011; Prati, Pietrantonio, & Zani, 2011; Siegrist & Zingg, 2014; Siegrist, Luchsinger, & Bearth, 2021에서 재인용).

위험인식 연구들은 신뢰가 위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Earle, 2010). Siegrist et al.(2000)은 일반시민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불완전한 위험 판단은 전문가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뢰의 유형에 따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즉,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위험을 덜 인식하는 반면,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위험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Siegrist et al., 2021).

또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한 유형인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과 물질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지할 수 있으며 돌봐주고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Caplan, 1974)이나 필요할 때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유용한 지지에 대한 개인의 만족(Sarason & Sarason, 1983)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행복감 제고와 우울감 감소 등에 직·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1984; 정해식 외, 2017; 김성아 외, 2019; 손주희 외, 2018).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을 사회심리적 자원(socio-psychological resources) 모형(Hobfoll, 2002), 또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 메커니즘(stress buffering mechanisms of social support)으로

설명한다(Cohen & Wills, 1995). 최근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서 및 물질적 사회적 지지는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 위험인식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위험인식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으로 불평등 인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불평등은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은 사회구성원 간 지위경쟁을 심화시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자살, 비만 등과 같은 개인적인 병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다수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김도영, 2012; 김진영, 2007; 김형용, 2010; 김혜련, 2007; 송인한, 이한나, 2011; 이미숙, 2005; 이준협 외, 2009; 황선재, 2015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수준에서도 소득불평등은 유무형의 이질성을 증가시켜 상호 간의 응집성과 통합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자살, 범죄, 살인, 정신질환과 같은 사회해체적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Alesina & La Ferrara, 2002; Costa & Kahn, 2003; Skocpol, 2003; 황선재, 2015에서 재인용). 황선재(2015)는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Wilkinson과 Pickett(2009)가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지수에는 사회적 신뢰, 평균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비만, 정신질환, 학업성취도, 십대 출산율, 살인율, 수감률, 사회(비)이동성 1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소득불평등은 그 강도가 상이하지만, 모든 지표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와 달리 불평등인식과 위험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득불평등과 사회병리적 현상 및 사회적 위험과의 관계는 인식 측면에서 두 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볼 충분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하겠다. 불평등 상황에서 개인 및 집단은 상이한 위험 경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차별화된 경험의 축적은 불안감 및 박탈감 등을 통해 위험인식의 격차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코로나19와 신뢰차별 인식

1) 사회·경제적 위기와 신뢰

신뢰는 의사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고 축적되며 신뢰가 높을수록 협력의 가능성도 커진다. 신뢰는 상호적이므로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신뢰로 인해 관련 주체들은 협동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황선영, 곽한영, 2012, p.1263). 또한 축적된 신뢰는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뢰의 유형은 학자마다 상이하게 분류되고 규정된다. 우슬러너는 신뢰를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한다(Uslaner, 2002). 한편, 콜먼은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낯선 이와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기도 한다(Coleman, 1988). 2014년에 발간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정부신뢰는 29위를, 타인에 대한 신뢰는 23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통합 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창용, 이태준, 2017, p.5).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신뢰 수준과 위기 상황에서의 신뢰 수준은 상이하다. 신뢰는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로 인해 오히려 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Nielsen & Lindvall, 2021). 일례로, 2001년 911 테러 상황에서 미국인의 신뢰는 오히려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마드리드 테러 사건 발생 시, 공공기관 및 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커졌다. 다만, 그 효과는 단발성으로 그쳤다(Dinesen & Jæger, 2013). 위기 국면에서는 정부 및 공공 신뢰뿐만 아니라 대인신뢰 수준이 높아지기도 한다(Nielsen & Lindvall, 2021). 예를 들면, 2011년 노르웨이 Utøya 지역의 테러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증가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Wollebæk et al., 2012).

코로나19 역시 그 영향과 규모 면에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 19 초기 신뢰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Esaiasson et al., 2020; Nielsen & Lindvall, 2021). 유럽 국가들의 봉쇄조치는 오히려 신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Bol et al., 2020). 그러나 네덜란드의 한 조사에 따르면 봉쇄조치 자체가 신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감염 확산세 정도가 사람들을 결집시킨 수준 정도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Schraff, 2020).

2) 코로나19와 차별·혐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또 다른 유형의 낙인으로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증가시켰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아시아계 혹은 기타 이주민을 향한 차별, 폭언, 그리고 폭행 등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및 정치인 성명 등에서 차별과 혐오의 표적으로 종종 묘사되곤 했다. 아시아계 이주민을 코로나19 전염병과 동일시하거나, 전염 확산의 원인으로 간주시키는 등, 이를 연결하려는 현상은 이주민을 타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 접근성 제한, 문자 알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 등의 차별적 경험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엠디 골람 랍바니·김경학, 2021).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차별의 징후가 감지되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차별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종사자가 귀가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UNESCO, 2020). 봉쇄조치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다른 기본 방역 예방 조치를 준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노숙인에 대한 차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노숙인에게 낙인과 차별적인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다(UNESCO, 2020).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완치자 및 확진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정석준, 2021.09.15.). 코로나19 완치 이력을 이유로,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 및 치료를 거부당한 사례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신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손 보험의 경우 완치 1년 후에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주희, 2021.04.15.).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해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의 연대를 촉구하고, 각국에 인종차별을 없애는 국가 행동 계획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20.05.12.). 유네스코에서는 ▲각국 정부가 법과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차별 반대 시스템을 확립하고 ▲학계가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 전달을 통해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저항력을 높이고 ▲문화 간 대화 및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UNESCO, 2020). 각국 차원에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차별과 혐오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차별 방지를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완치자 및 확진자 관련해서,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장에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의료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 거부 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 된다”고 전했다(정석준, 2021.09.15.).

라.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회복탄력성

위기 기간 혹은 그 이후 지역사회 회복력은 변화하는 환경과 도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응 정도를 나타낸다(Borkowska & Laurence, 2021). 즉, 재난의 급성기 및 복구 단계에서 적응력, 필요한 자원(재정, 사회, 노동력, 기술 등)을 동원하고 적용하는 지역사회의 능력이다(Jewett, Sarah, Howell, & Larsen, 2021). 지역사회 회복력은 물리적 환경, 이웃의 도움 수준, 다른 지역과의 고립, 아이디어의 개방성, 자부심, 커뮤니티 리더 등과 같은 지표로 복합적으로 측정된다.

특히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지역사회 결속력의 수준, 특히 사회적 자본과 사회 참여도 등이 재난 발생 시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사회적 자본은 재해 복구 관련 문헌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으로(Borkowska & Laurence, 2021),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이 “상호 이익을 위한 행동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Putnam, 2000). 사회자본은 오래 지속되는 재해 복구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사회 집단이 지역사회의 취약성, 소외 집단, 우선순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것보다 더 유관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식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Jewett, Sarah, Howell, & Larsen, 2021).

또한, 피해는 비균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 주민에게 지역사회가 정보, 상담, 참여적 의사 결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줄일 수 있다(Kim, 2020). 네 가지 요소(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사회적 지원 또는 집단행동, 소속감, 지역사회와 동일시)가 모두 효과적으로 해결될 때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원 구조 또는 지원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이웃 서비스,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결속력이 결합하면 빈곤한 독신 노인의 복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응집력은 심각한 신체적 질병을 직접 치료할 수는 없지만, 고립, 우울 증상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고통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재 역할을 함으로써 재난과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중섭(Kim, 2020)은 디트로이트에 기반을 둔 사례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많은 연구를 검토한 후 Banulescu-Bogdan과 Ahad(2021)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가진 커뮤니티가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보다 공중 보건 위기를 더 잘 견뎌냈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해 같은 최근의 재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통합 인식으로 측정된 보다 응집력 있는 지역에 사는 개인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그들의 미래 전망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적 의사 결정 및 효과적인 조치와 관련된 지역사회 능력은 지역적 통합인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Le et al., 2013; Norris et al., 2008; Jung, 2019; Borkowska & Laurence, 2021 재인용).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지리적 수준 전반에 걸쳐 사회적 응집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응집력의 강도는 회복의 강력한 예측인자일 가능성이 높다(Borkowska & Laurence, 2021). 실제로 영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사회통합 투자 우선 지역이었던 6개 지자체와 나머지 3개 지역의 코로나19 이후 사회통합 인식을 검토한 결과, 미시, 중범위, 거시 수준 모두에서 6개 사회통합 우선 지역의 사회통합도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Lalot et al., 2021). 이와 같이, 협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부문 간의 연결을 재건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광범위한 위기 예방 노력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Banulescu-Bogdan & Ahad, 2021).

3.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신건강

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와 정신건강

일반적으로 일상은 반복적이고 단순하며 예측이 가능한 일로 정의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균형적인 것이 되었다(성미애, 진미정, 장영은, 손서희, 2020; Haleem, Javaid, & Vaishya, 2020). 코로나19 이후 초·중·고등학교들의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의 변경, 재택근무 시작 등의 방역지침들은 개인과 가족의 일상 변화를 만들어냈다. 학교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으로 가족이 한 공간에서 머물게 하는 시간이 증대되었으며, 주 양육자의 소득 손실 및 제한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다(성미애 외, 2020; 정익중, 2020). 예측할 수 없는 불균형은 개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방역지침에 근거하여 일상 및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등이 증가 및 축소되는 일상과는 다른 적응 방식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홍성희, 2021).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및 적응에 대한 요구들은 개인에게 외적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 자살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 문제를 만들어냈다(박용천, 박기호, 김나은, 이주희, 조수린, 장지희, 정다운, 장은진, 최기홍, 2020; Bhuiyan, Sakib, Pakpour, Griffiths, & Mamun, 2020).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25.4%가 우울 및 불안이 감염병 유행 이후 심화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Choi, Hui, & Wan, 2020), 인도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도 국민의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Rehman, Shahnawaz, Khan, Kharshiing, Khursheed, Gupta, Kashyap, & Uniyal, 2021). 이란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참여자 대부분은 정상 수준의 스트레스(36.6%), 불안(57.9%), 우울증(47.9%)을 경험하였지만, 약 2.5 퍼센트의 응답자들이 극도로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불안은 6.3% 우울의 경우 7.9%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hademian, Delavari, Koohjani, & Khademian, 2021).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심각한 수준의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에서는 자살 위험성도 높아졌는데(Klomek, 2020), 일본에서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 4월~9월보다 10월 이후에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7월에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Sakamoto,

Ishikane, Ghaznavi, & Ueda, 2021). 종합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은 ‘코로나19 Stress Syndrome’(Taylor, 2021),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조상아, 2020).

행복이나 삶의 만족이 코로나19 직후에는 낮아졌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락다운(lockdown) 정책을 펼친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행복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Greyling, Rossouw, & Adhikari, 2020),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Yunus, Badri, Panatik, & Mukhtar, 2020), 터키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행복도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Peker & Cengiz, 2021).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019년~2020년 중반까지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였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elliwell, Huang, Wang, & Norton, 2021). 이외 다른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경감되었지만,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다(KAMILÇELEBİ, 2020).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이집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친구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전체 연구 참여자의 24.1%에 해당하였으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경우는 40.6%로 조사 집단 전체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El-Zoghby, Soltan, & Salama, 2020). 중국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Yu, Li, Li, Xiang, Yuan, Liu, Li, & Xiong, 2020).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에볼라 확산 같은 과거 감염병 확산 시에도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상미, 2020).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등의 방역지침 정책이 정신 및 심리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huiyan, Sakib, Pakpour, Griffiths, & Mamun, 2020). 하지만, 국내에서는 높은 수준의 감염병 위험 및 체계적 방역지침정책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국민이 적응해나가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향상성이 낮아져서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나가면서 부정적

정신건강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Choi, Hui, & Wan, 2020). 실제 연구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지침, 실직 등으로 인한 우울 발현을 언급하고 있다(Shader, 2020). 이에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신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신건강

1) on and off-line (학교, 직장, 등)에 따른 접촉 방식과 사회적 관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원격의료, 학습, 근무 등의 비대면 접촉방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IT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교육부의 경우 4월 20일 초중고 학생 54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여 디지털학습서비스를 제공하였다(배영임, 신혜리, 2020). 의료 영역에서도 ‘보건의료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방식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배영임, 신혜리, 2020; 손해인, 2020). 이러한 비대면 방식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일부의 경우 생산성 및 효율성, 출퇴근에 따른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이재완, 2020). 또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감염에 대한 우려나 불안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Byun, Jeon, & Hwang, 2020).

그러나 한편으로 원격근무 등의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외로움, 소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났다(이재완, 2020; Chen, Jones, Underwood, Moore, Bullmore, Banerjee, Osimoa, Deakin, Hatfield, Thompson, Artingstall, Slann, Lewis, Cardinal, & Cardinal, 2020). 재택근무 시 홀로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관리 감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증가 및 의욕 저하가 발생하고, 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유지 및 소속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근, 2020).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가족 중심의 삶으로 재편됨에 따라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 스트레스 극복의 어려움이 조명되었으며(성미애 외, 2020), 반대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음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영전, 2020; 안효상, 서정희, 2020; 진미정 외, 2020).

2) 직업 (실직 또는 계약조건 변화)

일반적으로 실직 및 고용 불안정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약조건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하거나 실직한 사람들의 경우 정규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변금선, 이해권, 2018), 실업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살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Paul & Moser, 2009; Wanberg, 2012).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 2억 5,500만 개에 상당하는 일자리 소멸 등의 대규모 변화는(ILO, 2021), 이를 경험하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World Bank Open Data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400만 개의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4.9%에서 5.6%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자살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Kawohl & Nordt, 2020). 호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2020년 5월 이후 230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 및 근로시간의 단축을 경험하였고, 2020년 3월에는 실업률이 7%로 증가하는 등의 현상으로 자살률 증가를 우려하였다(Deady et al., 2020).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실업률과 자살률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에 따른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McIntyre & Lee, 2020).

이러한 우려 및 예측과 같이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한 개인은 상실과 공포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stein, Duffy, Ferreira, Cohen-Scali Cinamon, & Allan, 2020; Blustein & Guarino, 2020; Crayne, 2020 ; Kniffin et al., 2021). 이탈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인 1,946명을 조사한 결과 1,274명이 실직하였고 이 중 5.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Pompili et al., 2021).

3) 소득 (단절 또는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체제 변화는 개인의 소득 단절 및 감소로 이어졌다(안효상, 서정희, 2020). 국민의 소득 감소가 자살률 증가나 행복 및 삶의 만족 저하로 이어졌던 과거 상황을 고려하여(김종섭, 2010; 여유진, 2015),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 상황 악화가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주고 자살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Brenner & Bhugra, 2020).

실제 2020년 3월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소득이 손실된 집단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evlin, M., McBride, O., Murphy, Miller, Hartman, Levita, & Bentall, 2020). 아일랜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 손실이 있었던 집단에서 우울감 및 전반적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Hyland, Shevlin, McBride, Murphy, Karatzias, Bentall, Martinez, & Vallières, 2020).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소득 손실이 있는 집단에서 우울 증상의 위험이 더 높았다(Hertz-Palmor et al., 2021). 임신한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경감된 집단에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Thayer & Gildner, 2021).

또한, 코로나19 기간 미국에서는 소득이 경감된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Wanberg, Csillag, Douglass, Zhou, & Pollard, 2020), 미국 미시간주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의 저하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요인들보다는 그 영향력이 덜하다고 평가하였다(Oh & Neal, 2021).



제3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 제3절 사회통합 인식
- 제4절 요약 및 소결

제 3 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제1절 들어가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은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삶의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외로의 물리적·인적 교류가 차단되고, 휴직·실직·폐업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을 끼쳤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긴 휴원과 방학에 돌입했고, 갈 곳 잃은 아동과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 부모는 불가피하게 재택이나 휴업을 선택했다. 행복감에 들떠 있어야 할 대학 신입생은 동급생과 선배·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조차 없이 쓸쓸한 1학년을 보내야 했다. 그런가 하면 노동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불어 닥친 설상가상의 요인으로 인해 더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노인들은 오랜 기간 가족과 차단되면서 고독과 우울이 한층 가중된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유급휴직이나 재택근무가 가능했지만,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은 실직의 공포에 떨어야 했고, 자영자는 영업 손실에 한숨을 짓거나 배달 등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기 동안은 장보기나 쇼핑조차도 ‘무서운 일’이 되어버림으로써 일부 품목은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많은 소비자가 자잘한 일상 용품과 식료품에서 가구·가전 등 값비싼 내구재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신 소비풍속도가 전개되면서 온라인쇼핑몰은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극장, 쇼핑몰, 병원, 학교 등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던 곳이 어디나 ‘위험 지대’로 변모함으로써 사람들의 발을 집과 직장에 꽂꽂 묶어두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한 단면이지만 불과 2년여 만에 사람들의 삶에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했다.

물론 일상의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모든 변화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외적 공포와 위기에 직면하여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새삼 더 절감했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적 통찰과 행복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이에 협력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써 방역 모범국이라는 자부심과 시민의식, 신뢰도가 한층 고조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다층적 영향으로 인한 “범-심리적 우울감” 즉 ‘코로나 블루’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영향은 코로나가 개인 삶에 미친 실질적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현적 회복과는 별개로 훨씬 더 오래도록 이연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중 사회통합 관련 인식과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공통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코로나 전의 추이와 코로나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볼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변수의 설문 문항, 척도, 유효 연도는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영역별로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신뢰도, 사회적 지지, 형평성 인식 등이다. 전반적인 추이와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통합과 관련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웹 조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대면조사방식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문에서는 전체,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대별, 균등화된 가구소득 5분위별, 주관적 계층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도 추이를 분석하였다.⁴⁾

<표 3-1>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통 문항

영역	문항	척도	유효 연도
행복과 삶의 만족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매우 행복했다(10) / 11점 척도	2014년~2021년 전년도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 11점 척도	2014년~2021년 전년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매우 우울했다(10) / 11점 척도	2014년~2021년 전년도

4) 성별, 학력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도는 그 차이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영역	문항	척도	유효 연도	
사회 통합도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1)~전혀 자랑스럽지 않다(4)~ / 4점 척도 (역 코딩 값 활용)	2014년~2021년 전년도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 11점 척도	2016년~2021년 전년도	
신뢰도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0)~매우 믿을 수 있다(10) / 11점 척도	2014년~2021년 전년도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4년~2021년 전년도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4년~2021년 전년도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6년~2021년 전년도	
사회적 지지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받고 있지 않음(0)~매우 많이 받고 있음(10) / 11점 척도	2017년, 2021년	
	도움 청할 사람 유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 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없음(0), 있음(1)	2014~2015년, 2017년~2021년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없음(0), 있음(1)	2014~2015년, 2017년~2021년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없음(0), 있음(1)	2014~2015년, 2017년~2021년
형평성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 코딩 값 활용)	2014년~2021년 전년도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 코딩 값 활용)	2014년~2021년 전년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 코딩 값 활용)	2014년~2021년 전년도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역 코딩 값 활용)	2014년~2021년 전년도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2014년~2021년 전년도	

주: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부록 [조사표] 참조

제2절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1. 주관적 행복도

먼저, 주관적 행복도는 2017년에 6.73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전까지도 하락 추세에 있었다(〈표 3-2〉, [그림 3-1] 참조).

〈표 3-2〉 행복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6.20	6.01	6.49	6.73	6.61	6.48	6.33	-
연령대	20/30대	6.57	6.21	6.76	7.05	6.89	6.84	6.55	*
	40/50대	6.25	5.94	6.39	6.66	6.49	6.41	6.28	-
	60/70대	5.72	5.77	6.15	6.23	6.36	5.94	6.10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6.62	6.30	6.71	7.06	6.87	6.61	6.61	-
	임시일용직	5.68	5.38	5.74	6.03	6.33	6.00	5.97	-
	자영자	6.19	6.12	6.48	6.73	6.41	6.49	6.07	***
	실업자	4.87	5.06	5.48	5.69	5.68	5.69	5.73	-
	비경활	6.19	6.06	6.63	6.75	6.73	6.57	6.46	-
소득 5분위	1분위	5.33	5.34	5.90	6.05	6.09	5.83	5.72	-
	2분위	6.11	5.71	6.45	6.65	6.63	6.37	6.12	-
	3분위	6.20	6.19	6.59	6.86	6.61	6.62	6.51	-
	4분위	6.52	6.40	6.66	6.96	6.61	6.71	6.54	-
	5분위	6.96	6.47	6.86	7.22	7.13	6.93	6.83	-
주관적 계층	하층	5.06	4.77	5.25	5.33	5.82	5.24	5.30	-
	중하층	6.11	5.92	6.25	6.59	6.51	6.26	6.16	-
	중간층	6.84	6.54	6.93	7.15	6.90	6.87	6.68	-
	중상층(상층)	7.37	7.07	7.45	7.78	7.52	7.43	7.34	-

주: 1) 행복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매우 행복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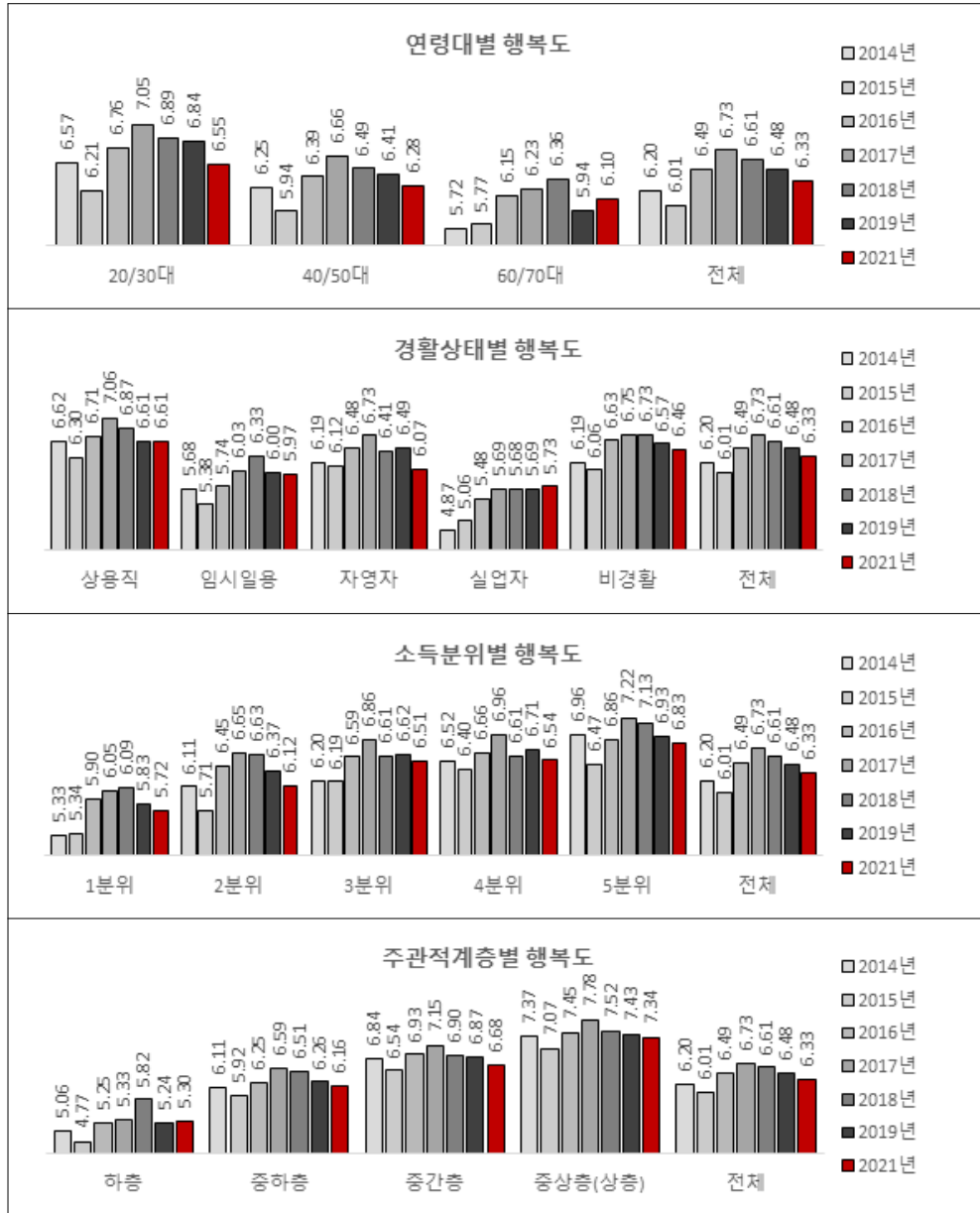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 행복도

(단위: 점)



주: 행복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매우 행복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계층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8년과 2019년 각각 6.61점과 6.48점을 보였으며,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1년에는 6.33점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2021년의 주관적 행복도의 하락이 추세에 따른 하락의 연장선인지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⁵⁾ 연도 간 행복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Scheffe값)에서도 2019년과 2021년의 행복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볼 때,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20/30대의 주관적 행복도는 6.84점에서 6.55점으로 0.29점 하락하였으며, 40/50대의 주관적 행복도는 6.41점에서 6.28점으로 0.14점 감소했다. 코로나19 기간 20/30대 청년들의 행복도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반면, 60/70대의 행복도는 5.94점에서 6.10점으로 오히려 0.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경제·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청장년의 행복도 감소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령층은 가족의 내적 결속력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지지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행복도가 미미하게나마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 상태별 행복도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시·일용직,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행복도가 2019년 수준과 유사하거나 미미하게 감소한 데 비해, 자영자의 주관적 행복도는 2021년 6.07점으로 2019년에 비해 0.42점 하락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9년과 2021년 경제활동 상태별 행복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직종은 자영자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직종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균등화된 가구소득 5분위별 행복도의 증감을 살펴보면, 모든 분위에서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행복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가 가장 많이 낮아진 소득분위는 2분위로 2019년 6.37점에서 2021년 6.12점으로 0.25점 감소했다. 하지만 모든 분위에서 2019년과 2021년의 주관적 행복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주관적 계층별 행복도는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이 미미한 행복도의 상승을 보였을 뿐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의 2021년 행복도는 모두 2019년에 비해 하락한

5) 종사상 지위별 행복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tata 프로그램의 Oneway ANOVA 분석 결과 종사상 지위별 연도 간 F값과 Scheffe 값을 비교했다. 이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참조). 하지만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복도도 0.06 증가에 그쳐 사실상 모든 소득계층에서 행복도가 정체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복합적인 주관적 감정에 의해 좀 더 많이 좌우된다면, 삶의 만족도는 본인을 둘러싼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삶의 만족도는 각각 6.15점(2019년)과 5.90점(2021년)으로 0.25점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감소였다. 동일 시점에 행복도가 0.15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가 6점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조사 이래 2015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표 3-3>, [그림 3-2] 참조).

연령대별로 볼 때도 60/70대의 행복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대조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2021년에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20/30대에서 0.29점, 40/50대에서 0.25점, 60/70대에서 0.17점 감소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20~50대 청장년층의 삶의 만족도 감소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볼 때, 앞서 행복도와 유사하게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자영자의 삶의 만족도는 2019년 6.25점에서 2021년 5.66점으로 0.59점 하락하여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자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많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3〉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
전체		6.05	5.65	6.17	6.33	6.28	6.15	5.90	***
연령대	20/30대	6.30	5.80	6.34	6.61	6.54	6.34	6.06	*
	40/50대	6.09	5.59	6.12	6.21	6.17	6.13	5.88	*
	60/70대	5.71	5.49	5.92	6.03	6.01	5.85	5.67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6.40	5.93	6.33	6.61	6.51	6.29	6.15	-
	임시일용직	5.51	4.95	5.60	5.92	5.92	5.68	5.50	-
	자영자	6.08	5.77	6.21	6.34	6.14	6.25	5.66	***
	실업자	4.84	4.90	4.82	5.10	5.40	5.24	5.28	-
	비경활	6.08	5.70	6.30	6.32	6.40	6.16	6.04	-
소득 5분위	1분위	5.24	4.97	5.49	5.63	5.75	5.48	5.34	-
	2분위	5.91	5.37	6.00	6.21	6.18	5.98	5.73	-
	3분위	6.11	5.74	6.29	6.45	6.23	6.23	6.00	-
	4분위	6.34	6.07	6.45	6.62	6.42	6.46	6.16	-
	5분위	6.77	6.16	6.62	6.81	6.83	6.68	6.28	*
주관적 계층	하층	4.98	4.34	4.81	4.79	5.35	4.93	4.83	-
	중하층	5.94	5.54	5.90	6.19	6.17	5.99	5.69	***
	중간층	6.64	6.23	6.63	6.78	6.60	6.48	6.29	-
	중상층(상층)	7.43	6.80	7.37	7.52	7.36	7.26	6.87	-

주: 1)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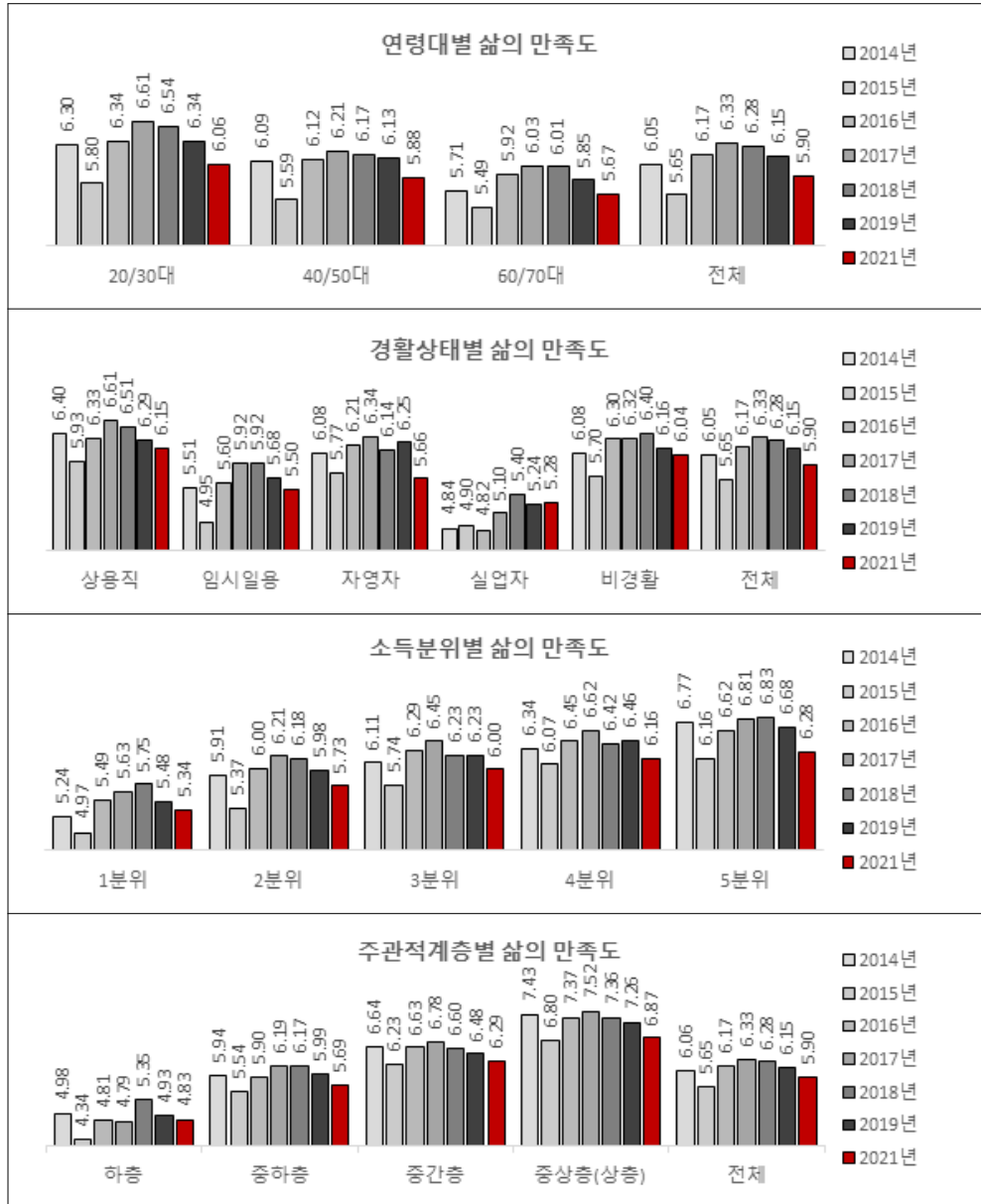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소득 5분위별 삶의 만족도는 모든 분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삶의 만족도가 소득 최상위 분위, 즉 5분위에서 0.4점의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으며,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였다는 점이다. 이는 좀 더 심층적 분석을 요하는 결과지만, 2021년 5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 24.6%가 자영자 가구주를 둔 가구라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안정적인 고소득 상용직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주었으나, 기존의 고소득 자영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등, 2021)

[그림 3-2]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주: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별로 큰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감 폭도 큰 편차를 보인다. 2021년을 기준으로 자신을 하층에 속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는 4.83점으로 자신을 중상층 이상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점수(6.87점)에 비해 2점 이상 낮았다. 하지만 2019년 대비 2021년의 삶의 만족도는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자신을 중상층 이상과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각각 0.39점과 0.30점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3. 우울감

우울감은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와는 대체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또한 우울은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조영주, 2016), 우울 점수의 상승은 보건·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유의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울감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2.93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하지만 2018년과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3-4>, [그림 3-3] 참조).

연령대별로 볼 때,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20/30대의 우울 수준은 0.24점, 40/50대의 우울 수준은 0.3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0/70대의 우울 수준은 0.1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주관적 행복도와 유사했다. 특히, 40/50대의 우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는데, 이 연령대가 노동 시장의 핵심연령계층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한 연령대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에 자영자의 평균적인 우울 수준이 크게 상승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 기간에 모든 직종 사람들의 우울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영자의 경우 2019년 2.58점에서 2021년 3.07점으로 우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소득 5분위별로 볼 때도 모든 분위에서 2019년 대비 2021년에 우울감이 증가했지만 2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우울 점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0.45점 상승)를 나타냈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2019년 대비 2021년 우울감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

들만이 평균 0.12점 감소하였을 뿐, 중하층 이상의 나머지 계층에서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층 이상이 0.48점으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으며, 중하층은 0.26, 중간층은 0.22점 증가하였다.

〈표 3-4〉 우울감

(단위: 점)

구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3.21	3.09	2.75	2.93	2.71	2.93	**
연령대	20/30대	3.01	2.93	2.58	2.82	2.44	2.67	-
	40/50대	3.12	3.14	2.79	2.93	2.71	3.10	***
	60/70대	3.60	3.32	2.99	3.11	3.19	3.04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77	3.05	2.48	2.70	2.45	2.64	-
	임시일용직	3.46	3.38	3.31	3.22	3.07	3.26	-
	자영자	3.36	3.02	2.57	2.95	2.58	3.07	***
	실업자	4.14	3.66	3.53	3.74	3.29	3.33	-
	비경활	3.29	3.01	2.86	2.95	2.95	3.00	-
소득 5분위	1분위	3.84	3.60	3.29	3.41	3.36	3.50	-
	2분위	3.32	3.10	2.79	2.75	2.80	3.25	*
	3분위	3.16	2.97	2.67	2.82	2.61	2.84	-
	4분위	3.21	2.95	2.50	2.85	2.38	2.59	-
	5분위	2.45	2.80	2.44	2.79	2.31	2.45	-
주관적 계층	하층	3.97	3.93	3.84	3.47	3.90	3.78	-
	중하층	3.38	3.25	2.86	2.99	2.68	2.95	-
	중간층	2.68	2.78	2.38	2.76	2.51	2.73	-
	중상층(상층)	2.20	2.44	2.19	2.13	1.84	2.32	-

주: 1) 우울감은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매우 우울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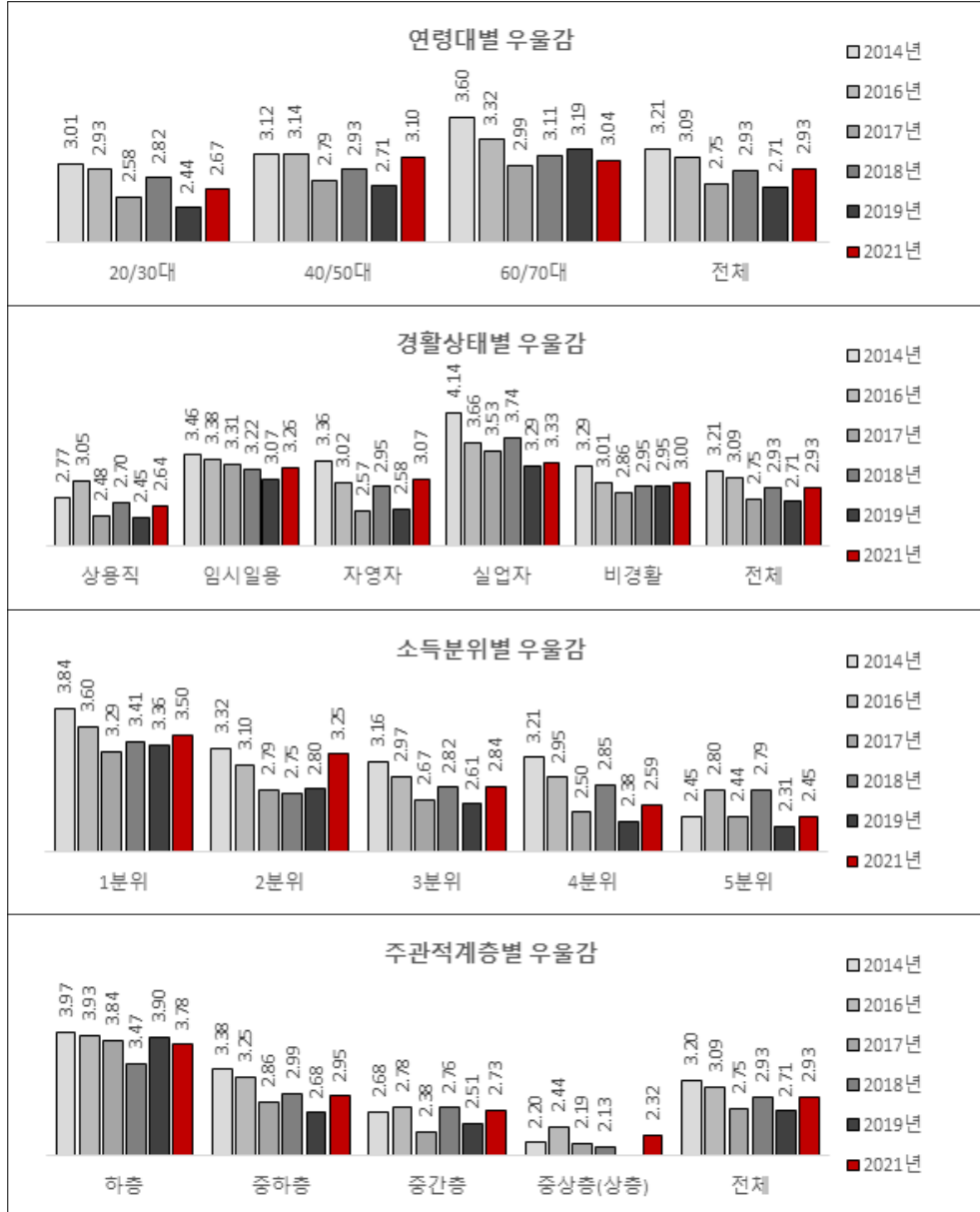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3] 우울감

(단위: 점)



주: 우울감은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매우 우울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3절 사회통합 인식

1.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통합도

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뒤르켐(Durkheim)은 공유된 충성심과 연대를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이를 위한 하위 가치로서 공동체 유대, 가치의 공유, 소속감, 함께 일할 능력 등을 꼽았다(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외, 2014, p.69). 이렇게 본다면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4점 척도로 측정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82점에서 2.88점 사이로 2.9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에는 2.96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21년의 자부심 상승은 이전의 모든 연도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팬데믹으로 개인적·국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전 세계 공통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방역이나 경제면에서 성공적으로 이에 대응했다는 국내·국제적인 평가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볼 때, 2021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60/70대가 3.0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40/50대가 2.96점, 20/30대가 2.92점의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컸다. 하지만 20/30대는 2019년과 2021년 사이 자부심 점수가 0.1점, 40/50대는 0.08점, 60/70대는 0.07점 상승해서 젊은층일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상용직(0.07점), 임시·일용직(0.16점), 자영자(0.06점), 비경제활동인구(0.12점)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상승하였으나, 실업자(0.02점)의 자부심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집단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유일했다. 비록 해외에 비해 선방했다고는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던 경제활동인구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자부심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3-5〉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
전체		2.84	2.84	2.82	2.86	2.83	2.88	2.96	***
연령대	20/30대	2.71	2.75	2.72	2.80	2.77	2.82	2.92	***
	40/50대	2.83	2.82	2.83	2.82	2.83	2.88	2.96	*
	60/70대	3.00	3.07	3.04	3.05	2.96	2.97	3.04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85	2.81	2.78	2.83	2.83	2.86	2.94	-
	임시일용직	2.82	2.77	2.77	2.82	2.80	2.83	2.99	-
	자영자	2.84	2.89	2.87	2.89	2.83	2.90	2.96	-
	실업자	2.68	2.77	2.67	2.71	2.93	2.93	2.91	-
	비경활	2.85	2.86	2.87	2.90	2.84	2.89	3.01	***
소득 5분위	1분위	2.92	2.92	2.89	2.92	2.91	2.96	2.97	-
	2분위	2.90	2.83	2.81	2.85	2.83	2.86	2.96	*
	3분위	2.83	2.81	2.81	2.84	2.83	2.87	2.98	*
	4분위	2.77	2.82	2.81	2.84	2.81	2.81	2.92	*
	5분위	2.78	2.80	2.79	2.84	2.78	2.87	2.99	*
주관적 계층	하층	2.81	2.77	2.71	2.75	2.76	2.88	2.86	-
	중하층	2.80	2.81	2.80	2.85	2.80	2.85	2.92	-
	중간층	2.86	2.89	2.86	2.89	2.88	2.89	3.02	***
	중상층(상층)	3.11	2.87	2.96	2.96	2.92	2.97	3.09	-

주: 1)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자랑스럽다(1)~전혀 자랑스럽지 않다(4) 4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활용함.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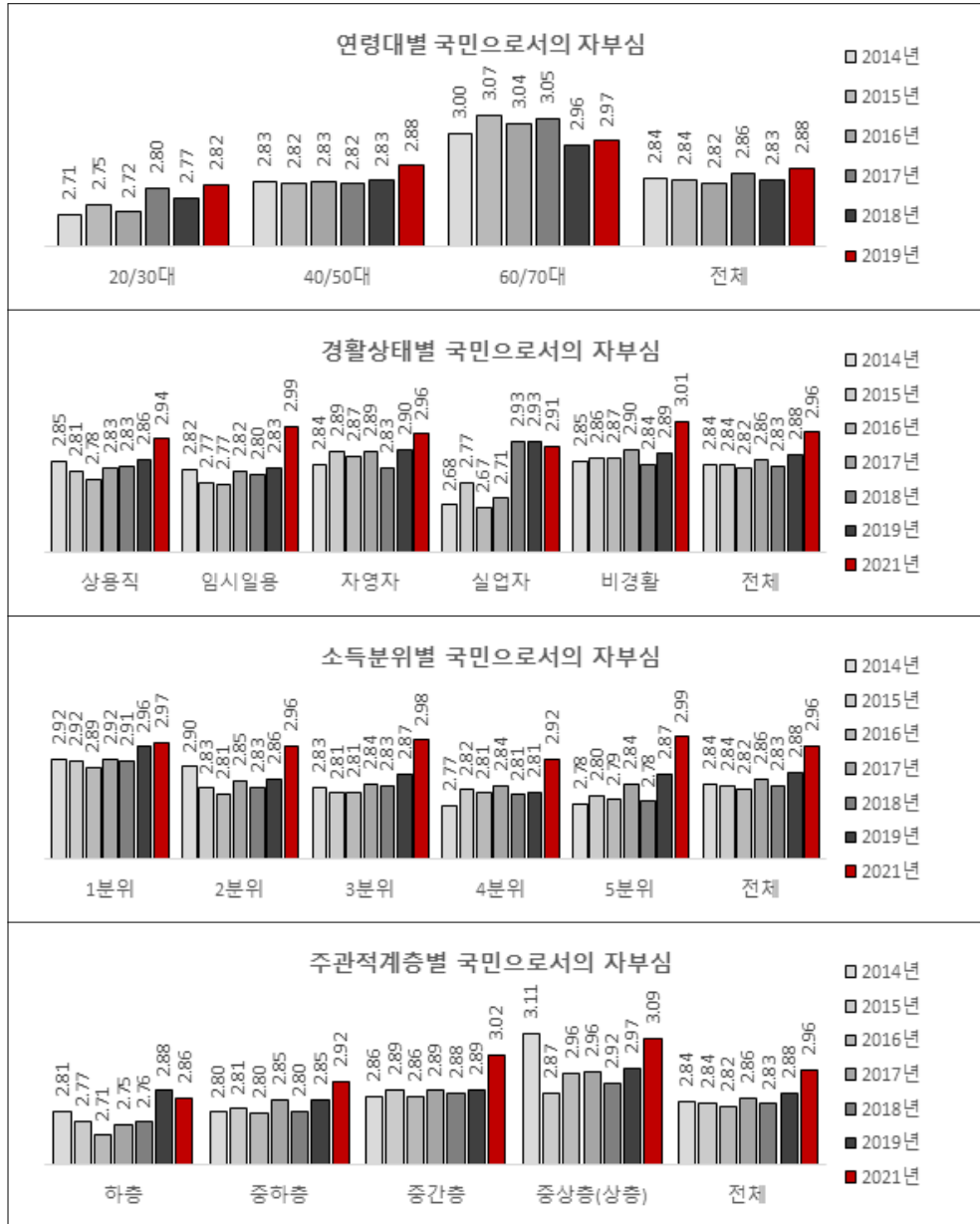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구소득 5분위별로 볼 때 대체로 2분위 이상 소득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0.1점 이상 높아졌고 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이었다. 이에 비해, 하위 1분위 소득자는 같은 기간에 0.01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주관적으로 인지된 계층의 경우 중간층 이상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자부심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약 0.12점 상승하여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자신을 하층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미미하지만,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그림 3-4]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단위: 점)



주: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자랑스럽다(1)~전혀 자랑스럽지 않다(4) 4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팬데믹 전에 비해 2021년에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크게 상승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이 기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4.18	4.50	4.17	4.17	4.59	***
연령대	20/30대	4.22	4.52	4.22	4.26	4.69	***
	40/50대	4.12	4.48	4.17	4.13	4.66	***
	60/70대	4.24	4.50	4.11	4.08	4.30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24	4.51	4.25	4.10	4.67	***
	임시일용직	4.01	4.32	4.21	4.07	4.59	**
	자영자	4.12	4.50	4.03	4.34	4.58	*
	실업자	3.79	4.52	3.96	3.84	4.54	*
소득 5분위	비경활	4.27	4.54	4.22	4.16	4.49	***
	1분위	3.99	4.43	4.21	4.01	4.38	***
	2분위	4.05	4.39	4.01	4.37	4.61	-
	3분위	4.26	4.61	4.15	4.28	4.50	-
	4분위	4.34	4.57	4.24	4.21	4.76	***
주관적 계층	5분위	4.28	4.47	4.27	4.00	4.69	***
	하층	3.57	4.04	3.72	4.07	4.38	-
	중하층	4.01	4.54	4.19	4.12	4.49	***
	중간층	4.46	4.60	4.29	4.20	4.72	***
	중상층(상층)	4.53	4.57	4.52	4.42	4.70	-

주: 1) 전반적인 사회통합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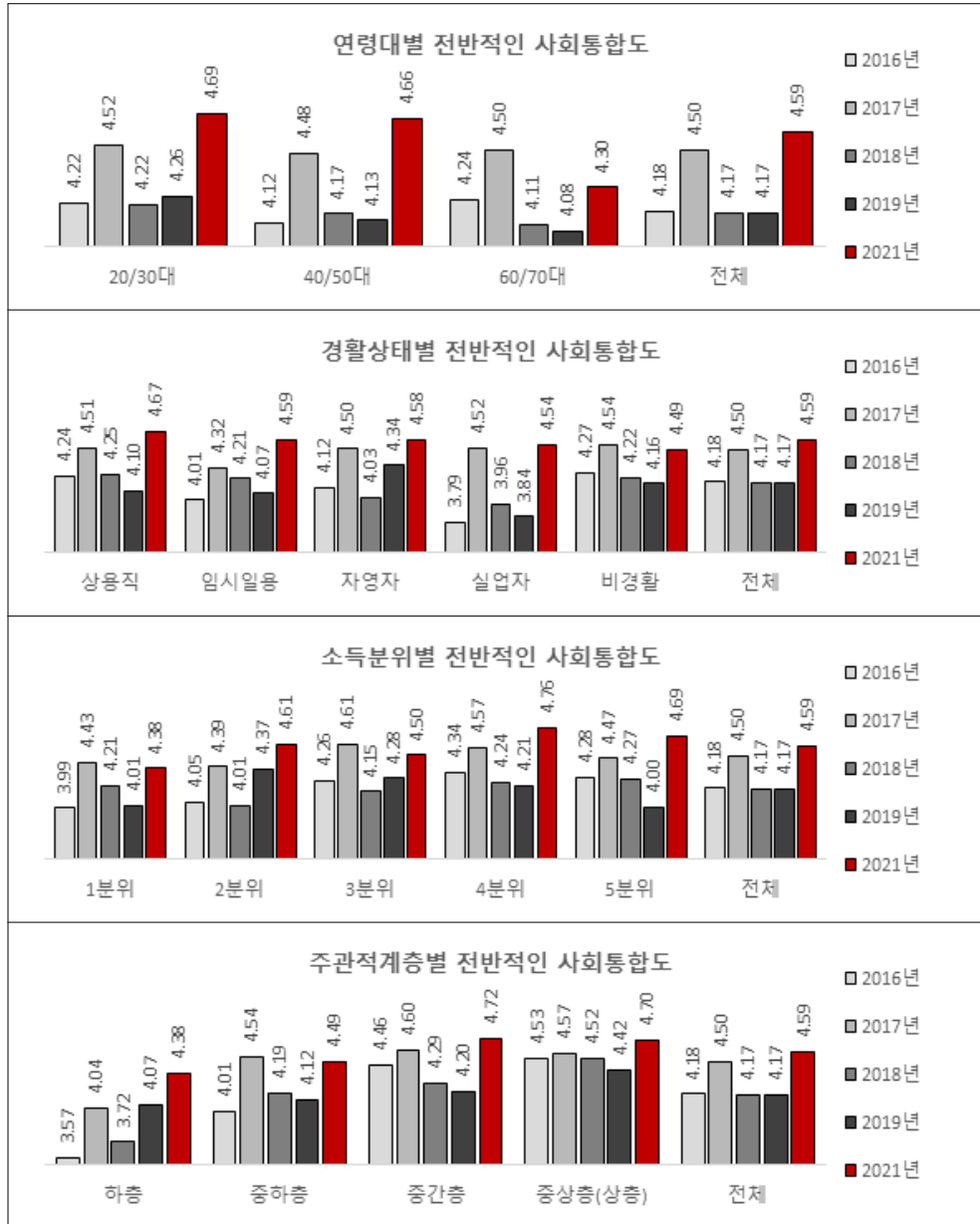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5]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단위: 점)



주: 전반적인 사회통합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0점에서 10점까지로 계측된 전반적인 통합도에 대한 평가는 2016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4.18점, 4.17점, 4.17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4.50점, 2021년에 4.59점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17년이 소위 ‘촛불 혁명’으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칭송받았던 해였다면,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범적인 방역정책과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확진자 수와 치명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통합 수준에 긍정적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 40/50대의 사회통합도(0.53점)가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20/30대(0.43점), 60/70대(0.23점)의 순이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노인층의 사회통합도에 대한 평가는 청장년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코로나 이후 그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모든 직종의 사회통합 평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소득 5분위별로 볼 때도 모든 분위에서 사회통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분위(0.68점), 4분위(0.55점), 1분위(0.36점)에서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지만, 2분위(0.24점)와 3분위(0.22점)의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낮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간층(0.52점)과 중하층(0.37점)에서 사회통합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객관적 소득분위와 주관적 소득계층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6) 2021년을 기준으로 자신을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약 16%,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약 32%는 소득 4,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자신을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약 27%, 중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약 20%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1, 2분위에 속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결과).

2. 신뢰도

가.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전반적인 사회신뢰도에 대한 평가 역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인 2021년에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인 신뢰도는 2021년 5.37점으로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019년에 비해 2021년 사회적 신뢰는 0.37점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4.81	4.73	4.73	5.12	4.86	5.00	5.37	***
연령대	20/30대	4.36	4.64	4.64	5.06	4.92	5.07	5.45	***
	40/50대	4.95	4.75	4.74	5.16	4.83	4.99	5.46	**
	60/70대	4.94	4.89	4.89	5.15	4.84	4.88	5.06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5.12	4.78	4.85	5.20	5.04	4.92	5.48	***
	임시일용직	4.83	4.61	4.61	4.93	4.73	4.91	5.35	-
	자영자	4.96	4.69	4.73	5.10	4.69	5.03	5.28	-
	실업자	3.66	4.74	3.84	5.07	4.50	4.59	5.30	-
	비경활	4.63	4.77	4.74	5.13	4.90	5.15	5.31	-
소득 5분위	1분위	4.64	4.65	4.51	5.11	4.81	4.83	5.12	-
	2분위	4.66	4.62	4.57	4.99	4.86	5.01	5.36	-
	3분위	4.98	4.67	4.84	5.12	4.84	5.01	5.38	-
	4분위	5.13	4.95	4.83	5.25	4.84	5.12	5.46	-
	5분위	4.67	4.78	4.90	5.11	4.97	5.05	5.51	**
주관적 계층	하층	4.87	4.38	4.25	4.56	4.45	4.61	4.92	-
	중하층	4.47	4.70	4.53	5.13	4.79	4.94	5.22	*
	중간층	5.08	4.93	4.99	5.28	5.00	5.10	5.59	***
	중상층(상층)	5.25	4.80	5.13	5.25	5.54	5.45	5.71	-

주: 1) 전반적인 사회신뢰도는 전혀 믿을 수 없다(0)~매우 믿을 수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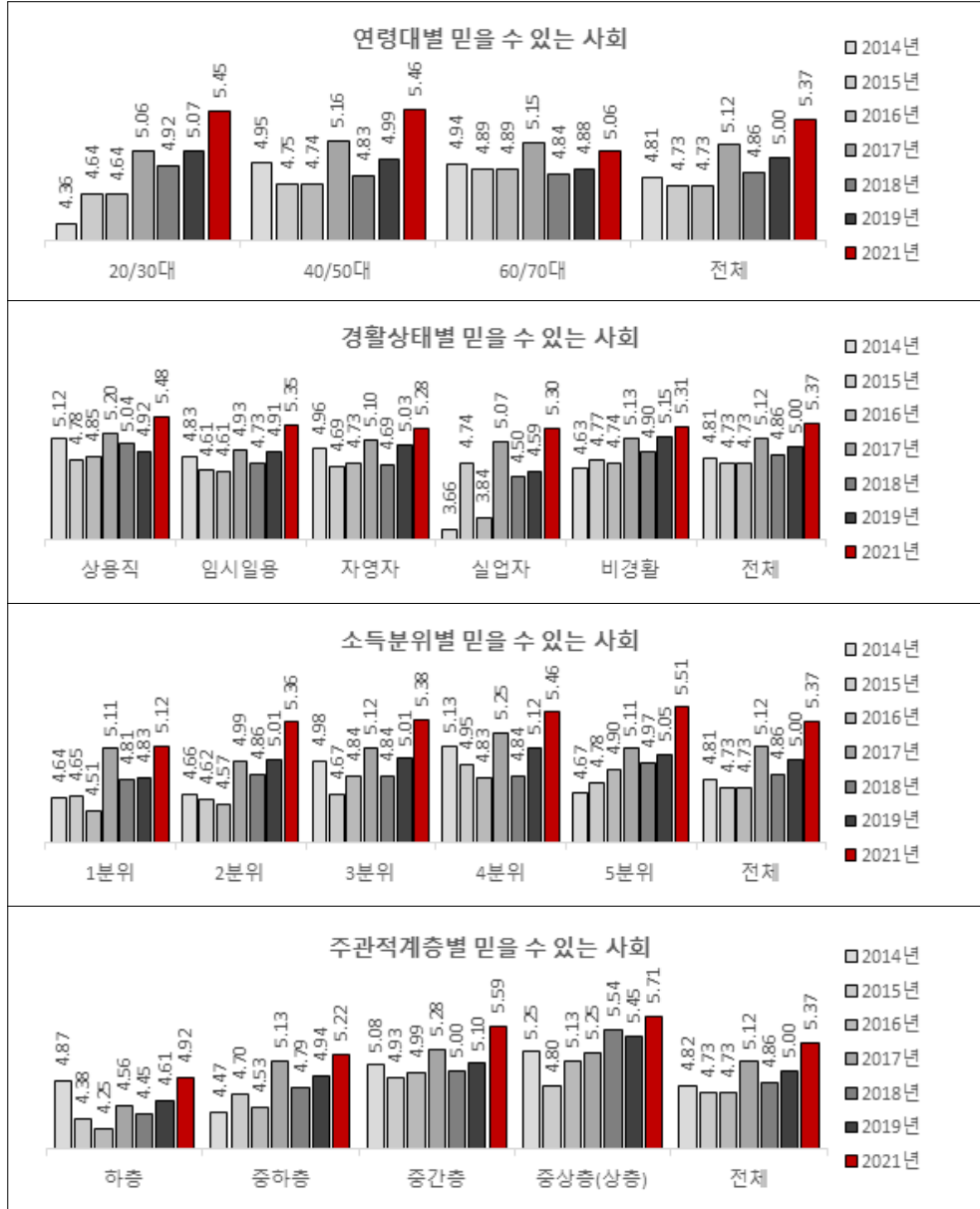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6]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단위: 점)



주: 전반적인 사회신뢰도는 전혀 믿을 수 없다(0)~매우 믿을 수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연령대별로 20/30대(0.38점)와 40/50대(0.47점)의 사회적 신뢰도 상승 폭이 상당히 크고 유의한 데 비해, 60/70대(0.17점)의 상승 폭은 낮은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9년 이전에는 노인층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평가가 청장년층과 유사하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그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이유에 기인하는지는 좀 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에 대한 높은 국민적 협조와 순응도가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더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볼 때도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진 종사상 지위는 실업자와 상용직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각각 4.59점과 4.92점이던 사회적 신뢰도가 2021년에 각각 5.30점과 5.48로 0.71점과 0.46점 상승했다. 하지만 상용직에서의 신뢰도 상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신뢰도는 0.16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의 사회적 신뢰도는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 5분위로 계층된 객관적 소득계층별 사회적 신뢰도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대략 0.3점 내외의 신뢰도 상승을 보였다. 이에 비해 5분위에 속한 사람의 평균적인 신뢰도는 0.46점 상승하여 다른 분위 사람들보다 상승 폭이 컸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앞서 경제활동 상태별 사회신뢰도에서 상용직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주관적인 계층인식 상 자신을 중간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신뢰도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회적 신뢰도는 2019년 5.10점에서 2021년 5.59점으로 0.49점 상승한 것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연도에 걸쳐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그러한 양상이 유지되었다.

나. 대인신뢰도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대인 신뢰도는 이전과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가 국가, 사회제도, 조직, 사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대인신뢰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해-점수가 높을수록 반대입장- 2014년 조사 이래 대략 평균 2.3점에서 2.4점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항은 5점 척도이며 2점이 ‘약간 동의한다’, 3점이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점에서 2.3점에서 2.4점대는 약간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2.30점에서 2021년 2.33점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볼 때, 2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장년층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수가 상승한 데 비해 60/70대 노인층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대인신뢰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증감은 아니지만, 연령대별 대인신뢰도 변화의 방향은 앞서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도에서 청장년층이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는데 노인층은 미미한 상승만을 보인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3-8〉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2.46	2.31	2.49	2.43	2.35	2.30	2.33	-
연령대	20/30대	2.39	2.32	2.59	2.46	2.39	2.35	2.43	-
	40/50대	2.47	2.26	2.43	2.39	2.30	2.25	2.30	-
	60/70대	2.49	2.39	2.44	2.43	2.38	2.33	2.22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49	2.32	2.52	2.48	2.34	2.35	2.39	-
	임시일용직	2.37	2.27	2.44	2.37	2.43	2.23	2.19	-
	자영자	2.51	2.36	2.43	2.41	2.29	2.28	2.29	-
	실업자	2.21	2.15	2.35	2.35	2.34	2.30	2.36	-
	비경황	2.46	2.30	2.55	2.41	2.40	2.29	2.32	-
소득 5분위	1분위	2.37	2.33	2.38	2.43	2.34	2.25	2.26	-
	2분위	2.38	2.29	2.44	2.40	2.30	2.31	2.23	-
	3분위	2.49	2.27	2.55	2.43	2.42	2.31	2.34	-
	4분위	2.50	2.33	2.56	2.44	2.35	2.35	2.39	-
	5분위	2.53	2.32	2.55	2.43	2.34	2.30	2.43	-
주관적 계층	하층	2.28	2.21	2.19	2.22	2.16	2.16	2.14	-
	중하층	2.38	2.27	2.42	2.43	2.34	2.22	2.28	-
	중간층	2.62	2.40	2.60	2.48	2.43	2.40	2.40	-
	중상층(상층)	2.66	2.29	2.84	2.51	2.43	2.37	2.62	-

주: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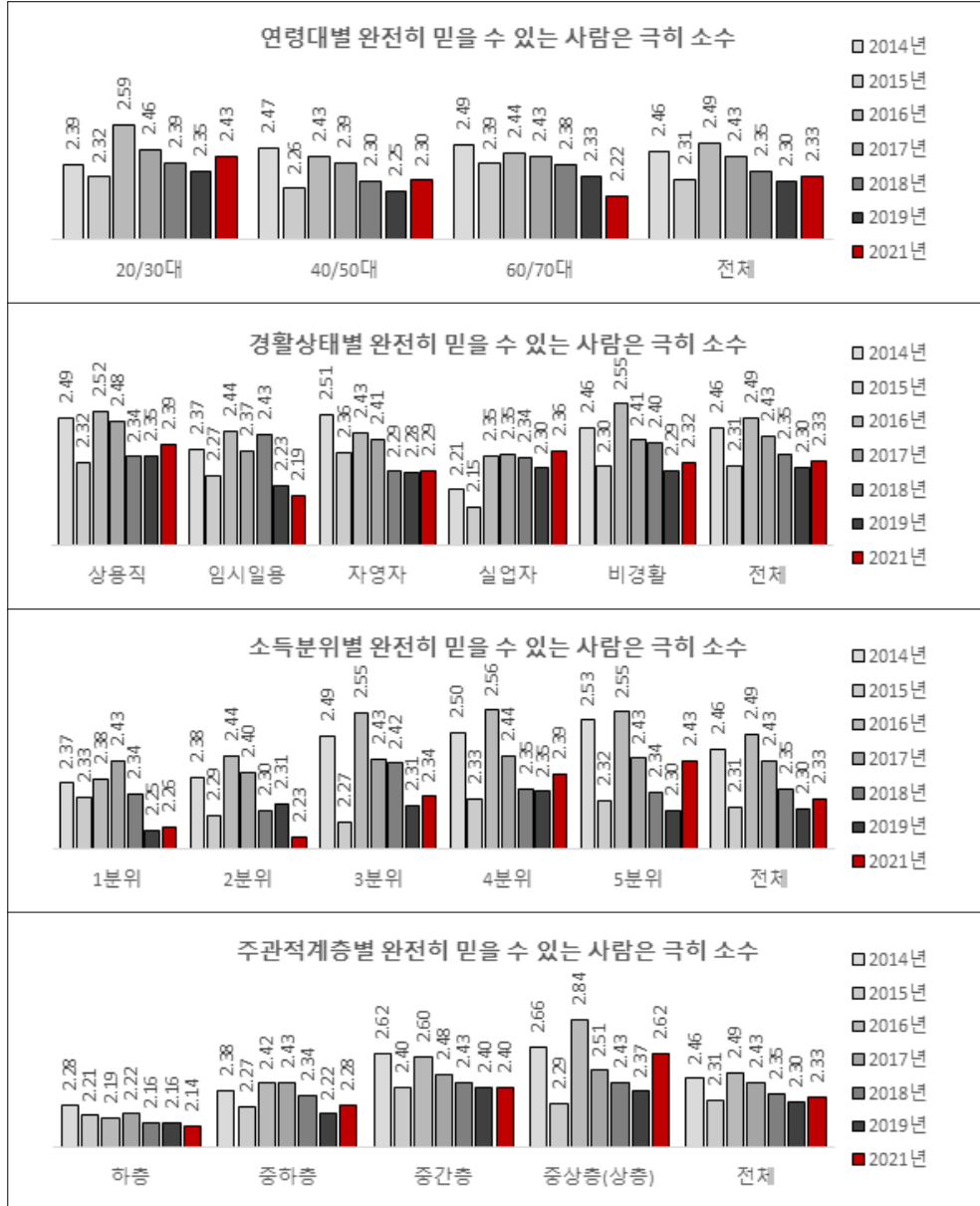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7] 대인신뢰도 1: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단위: 점)



주: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동의에 가까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문항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코로나 전후로 대인신뢰도 차이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19년과 2021년 집단별 증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9〉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2.63	2.41	2.57	2.57	2.50	2.48	2.46	-
연령대	20/30대	2.51	2.43	2.65	2.56	2.58	2.52	2.55	-
	40/50대	2.66	2.36	2.50	2.53	2.43	2.45	2.43	-
	60/70대	2.68	2.51	2.59	2.65	2.52	2.47	2.38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66	2.45	2.58	2.60	2.55	2.53	2.51	-
	임시일용직	2.59	2.30	2.50	2.47	2.52	2.43	2.39	-
	자영자	2.64	2.41	2.52	2.54	2.38	2.51	2.37	-
	실업자	2.44	2.33	2.47	2.55	2.45	2.34	2.45	-
	비경황	2.63	2.45	2.65	2.58	2.56	2.43	2.50	-
소득 5분위	1분위	2.62	2.40	2.50	2.63	2.47	2.43	2.43	-
	2분위	2.54	2.42	2.50	2.48	2.49	2.47	2.40	-
	3분위	2.61	2.39	2.66	2.60	2.56	2.46	2.41	-
	4분위	2.67	2.45	2.62	2.58	2.50	2.57	2.54	-
	5분위	2.70	2.41	2.59	2.52	2.50	2.47	2.52	-
주관적 계층	하층	2.54	2.31	2.32	2.48	2.23	2.33	2.31	-
	중하층	2.58	2.39	2.54	2.56	2.50	2.41	2.46	-
	중간층	2.74	2.49	2.66	2.58	2.60	2.56	2.50	-
	중상층(상층)	2.61	2.37	2.70	2.66	2.59	2.60	2.51	-

주: 1)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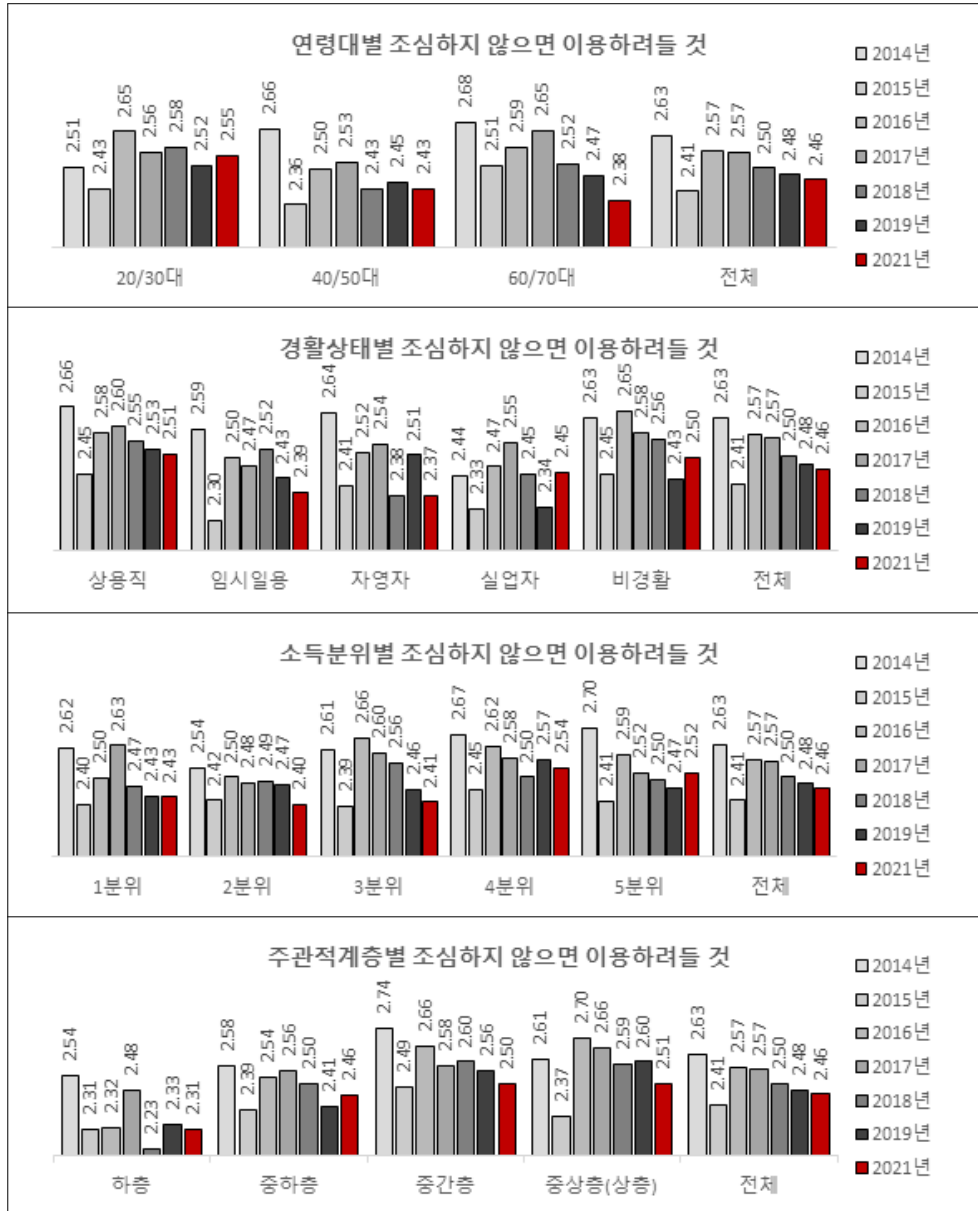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8] 대인신뢰도 2: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하려 들 것

(단위: 점)



주: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된 결과 평균적으로 약간 동의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전에 비해 약간 더 동의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에 비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데 대한 동의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실업자, 5분위, 중상층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객관적·주관적 소득계층에서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더 동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특히, 60/70대 고령층과 소득 2분위의 경우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단위: 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2.29	2.32	2.24	2.23	2.18	-
연령대	20/30대	2.32	2.33	2.28	2.24	2.24	-
	40/50대	2.24	2.28	2.18	2.21	2.17	-
	60/70대	2.30	2.39	2.29	2.23	2.12	*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29	2.37	2.26	2.26	2.19	-
	임시일용직	2.26	2.29	2.26	2.21	2.15	-
	자영자	2.24	2.31	2.20	2.21	2.15	-
	실업자	2.03	2.18	2.16	2.25	2.31	-
	비경활	2.35	2.30	2.25	2.20	2.17	-
소득 5분위	1분위	2.24	2.38	2.27	2.18	2.17	-
	2분위	2.28	2.29	2.21	2.26	2.11	**
	3분위	2.28	2.31	2.30	2.28	2.22	-
	4분위	2.34	2.32	2.19	2.29	2.18	-
	5분위	2.29	2.27	2.22	2.12	2.23	-
주관적 계층	하층	2.07	2.12	2.09	2.17	2.03	-
	중하층	2.24	2.34	2.21	2.14	2.12	-
	중간층	2.37	2.36	2.33	2.30	2.26	-
	중상층(상층)	2.42	2.32	2.17	2.28	2.36	-

주: 1)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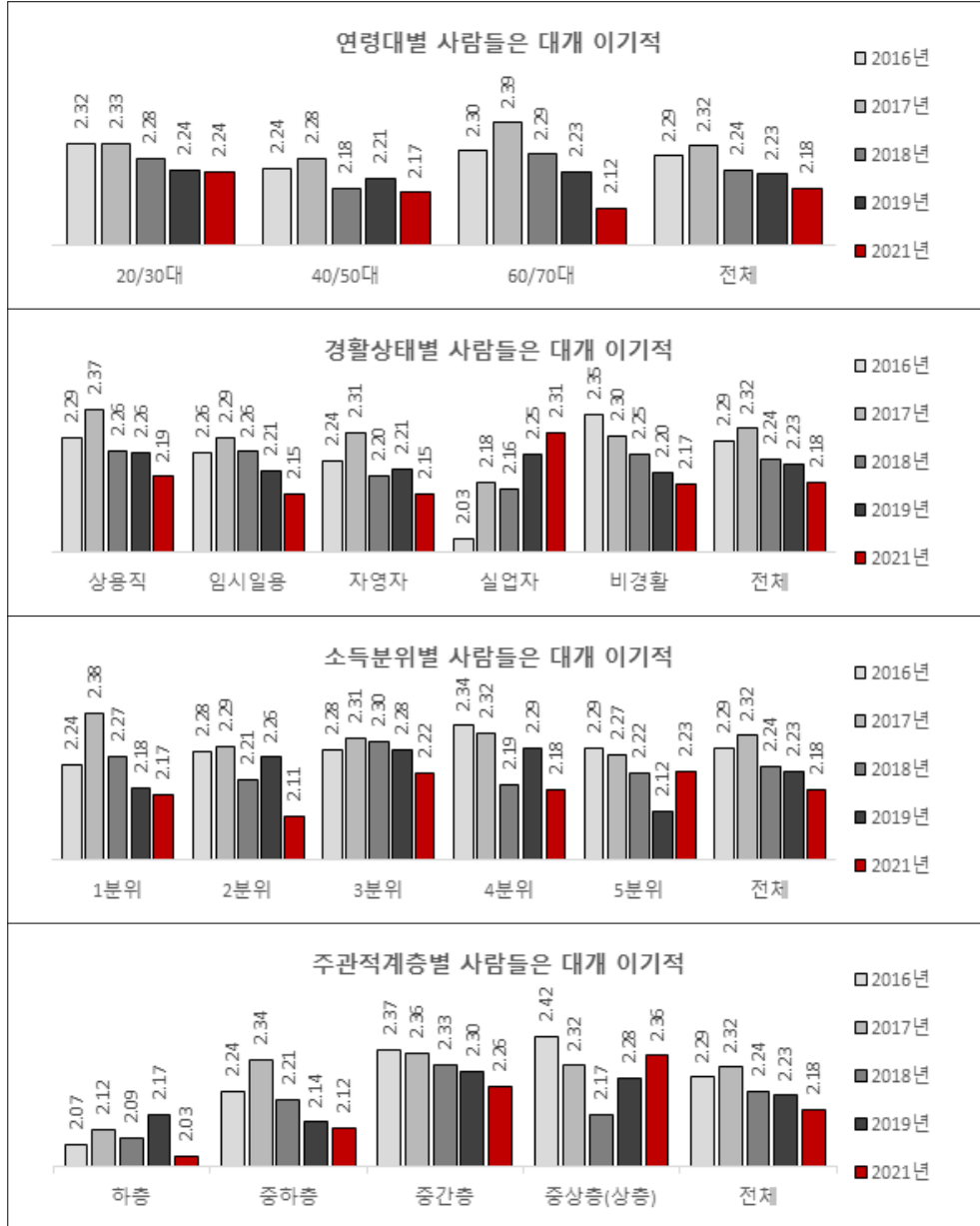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9] 대인신뢰도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단위: 점)



주: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사회적 자본

가.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0에서 10점 척도로 평가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항의 분석결과는 2017년 이전에 비해 2021년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에 5.94점이던 사회적 지지 점수는 2021년 5.67로 0.27점 감소했다.

〈표 3-11〉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단위: 점)

구분		2017	2021	*)
전체		5.94	5.67	***
연령대	20/30대	6.30	5.91	***
	40/50대	5.83	5.63	**
	60/70대	5.50	5.35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26	5.89	***
	임시일용직	5.37	5.29	-
	자영자	5.82	5.68	-
	실업자	5.30	4.95	-
	비경활	5.98	5.65	***
소득 5분위	1분위	5.20	5.08	-
	2분위	5.91	5.53	***
	3분위	6.06	5.75	***
	4분위	6.20	5.89	***
	5분위	6.47	6.12	***
주관적 계층	하층	4.66	4.72	-
	중하층	5.76	5.49	***
	중간층	6.39	6.00	***
	중상층(상층)	6.86	6.62	-

주: 1)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전혀 받고 있지 않음(0)~매우 많이 받고 있음(10)으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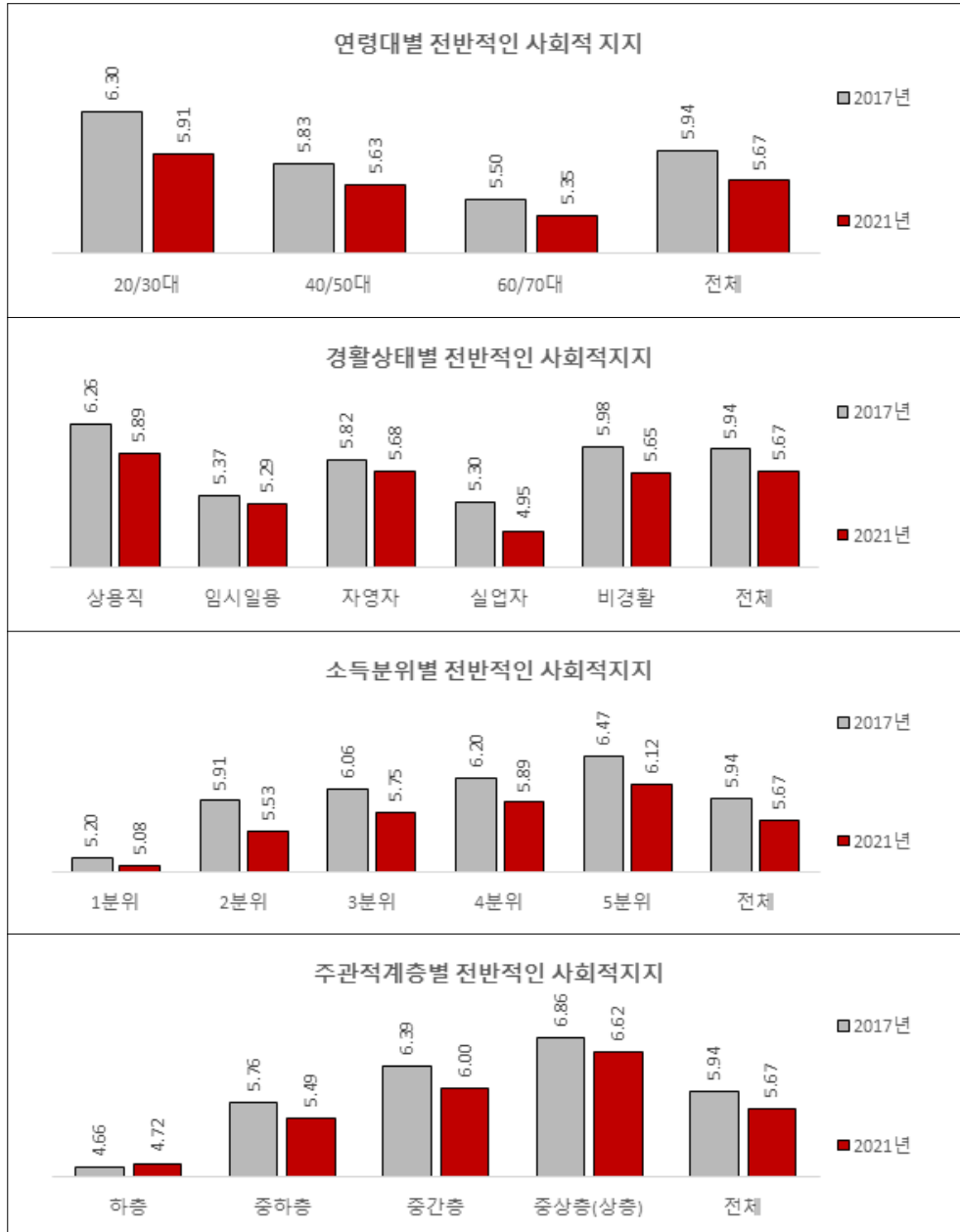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7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0]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단위: 점)



주: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해 전혀 받고 있지 않음(0)~매우 많이 받고 있음(10)으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17년 대비 2021년에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특히 20/30대 청년의 사회적 지지도가 0.3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볼 때도 모든 직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지지도가 하락했다. 특히 상용직(0.36점)과 비경제활동인구(0.33점)에서의 사회적 지지도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이 제약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 큰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위의 사회적 지지도가 하락하였으며 2분위 이상 사람의 사회적 지지도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본인을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회적 지지도가 2017년 4.66점에서 2021년 4.72점으로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중하층과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회적 지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자본의 유무

다음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는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 개의 문항, 즉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에 가족 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유무를 판별하였다.⁷⁾

전체적으로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의 비율은 2017년에 비해 5% 정도 실제로 감소하여 201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청년층에서 도움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볼 때 모든 직종에서 아플 때 도움을 줄 만한 자원이 하락하였지만, 특히 상용직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아플 때 도와줄 만한 사회적 자본이 각각 7%와 8%가량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

7) 원래 문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① 친척, ② 직장동료, ③ 친구, ④ 이웃,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⑥ 기타, ⑦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나, ①~⑥까지를 1로, ⑦을 0으로 재코딩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해당 항목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소득 5분위별로는 1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4분위와 5분위에서 아플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9%포인트와 8%포인트가량 증가하여 다른 분위에 비해 큰 증가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별로 볼 때도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도와줄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은 데 비해, 중하층 이상 계층에서는 모두 도와줄 사람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간층에서 7%포인트가량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표 3-12〉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유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7	2021	*)
전체		75.73	80.46	83.64	78.54	***
연령대	20/30대	80.69	82.85	87.70	81.35	***
	40/50대	74.80	78.65	82.67	78.78	-
	60/70대	73.08	79.55	77.74	73.76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75.42	82.28	87.82	80.59	***
	임시일용직	67.92	75.75	77.71	73.66	-
	자영자	80.61	84.26	83.50	81.64	-
	실업자	72.21	72.29	71.88	77.11	-
	비경활	76.77	79.47	82.90	75.28	***
소득 5분위	1분위	68.46	73.38	72.89	74.05	-
	2분위	73.54	78.09	82.84	76.73	*
	3분위	78.15	83.66	85.77	81.59	-
	4분위	81.30	84.18	88.15	78.79	***
	5분위	77.92	83.18	89.76	82.09	**
주관적 계층	하층	64.93	67.77	66.42	67.57	-
	중하층	77.59	81.03	83.49	78.84	*
	중간층	79.65	84.81	88.43	81.11	***
	중상층(상층)	80.92	88.05	90.52	83.36	-

주: 1) 기존 문항을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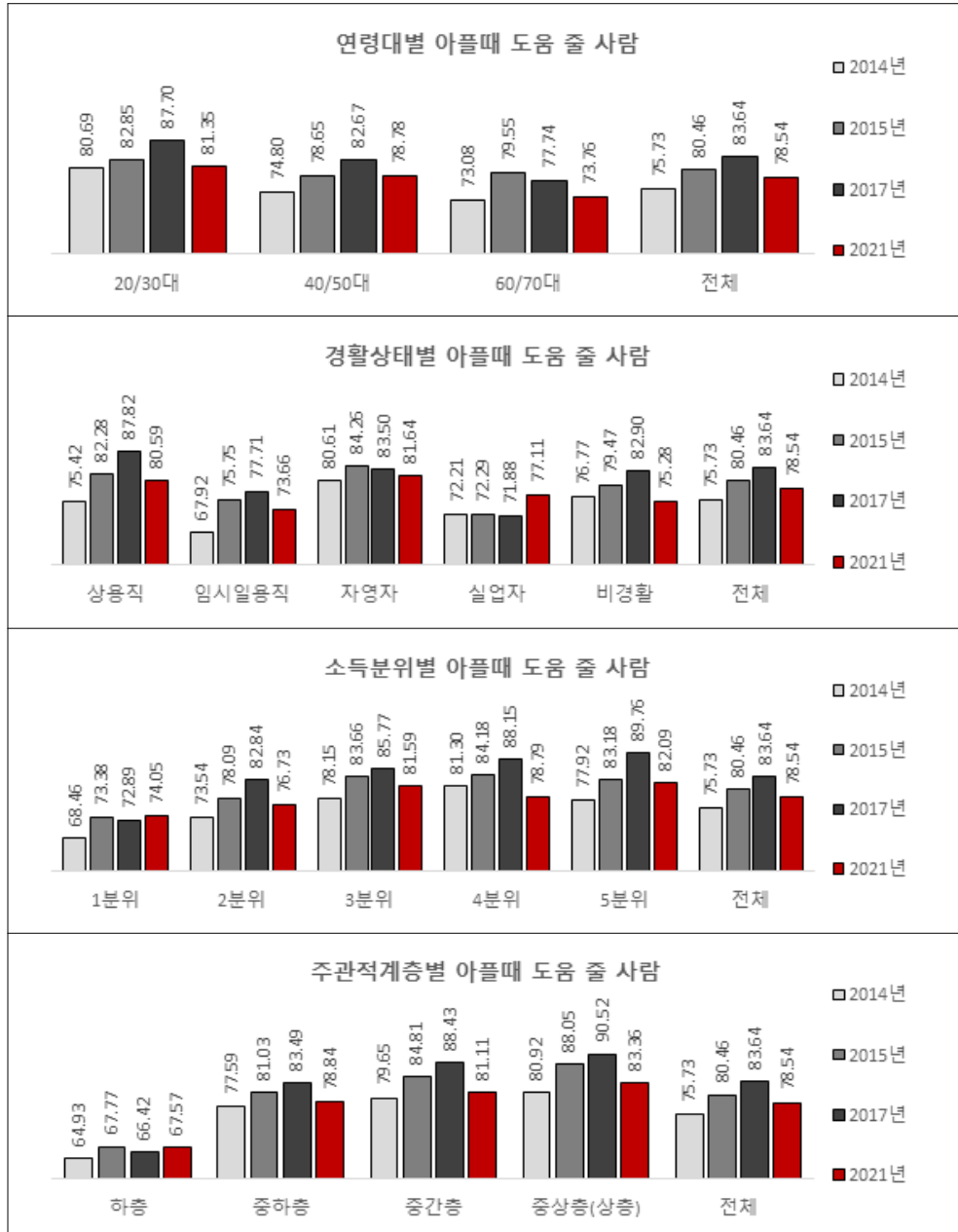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7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1] 아플 때 도움 줄 사람 유무

(단위: %)



주: 기존 문항을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021년에 ‘큰돈 빌려줄 사람’이 있는 사람의 비율 역시 실질적 감소를 보였다.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큰돈 빌려줄 사람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약 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8%포인트),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상용직(12%포인트)과 비경제활동인구(6%포인트), 소득 5분위별로는 4분위(12%포인트)와 5분위(11%포인트), 주관적 계층별로는 중간층(7%포인트)과 중상층 이상(16%포인트)에서 큰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큰돈을 빌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실업자 약 57%, 1분위 약 53%,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 약 44%로 다른 유형과 계층에 비해 절대적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다는 점은 유의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표 3-13〉 큰돈 빌려줄 사람 유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7	2021	*
전체		69.77	69.35	71.51	64.76	*
연령대	20/30대	77.91	73.21	77.02	68.71	***
	40/50대	69.66	69.74	72.23	66.54	-
	60/70대	61.64	59.94	58.92	55.43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76.39	75.10	79.46	67.29	***
	임시일용직	59.64	64.62	59.80	59.93	-
	자영자	73.32	72.27	73.18	68.28	-
	실업자	61.04	50.86	55.64	56.80	-
	비경제활동	67.02	66.68	68.30	61.77	*
소득 5분위	1분위	56.34	54.33	53.56	52.79	-
	2분위	67.01	65.52	69.15	65.95	-
	3분위	73.88	73.09	73.91	67.02	*
	4분위	77.48	77.88	79.41	66.53	***
	5분위	75.11	76.66	83.71	72.63	***
주관적 계층	하층	52.35	48.56	51.31	44.01	-
	중하층	71.92	70.45	68.23	63.21	*
	중간층	77.52	75.95	78.65	71.83	***
	중상층(상층)	76.60	84.00	87.14	70.70	***

주: 1) 기존 문항을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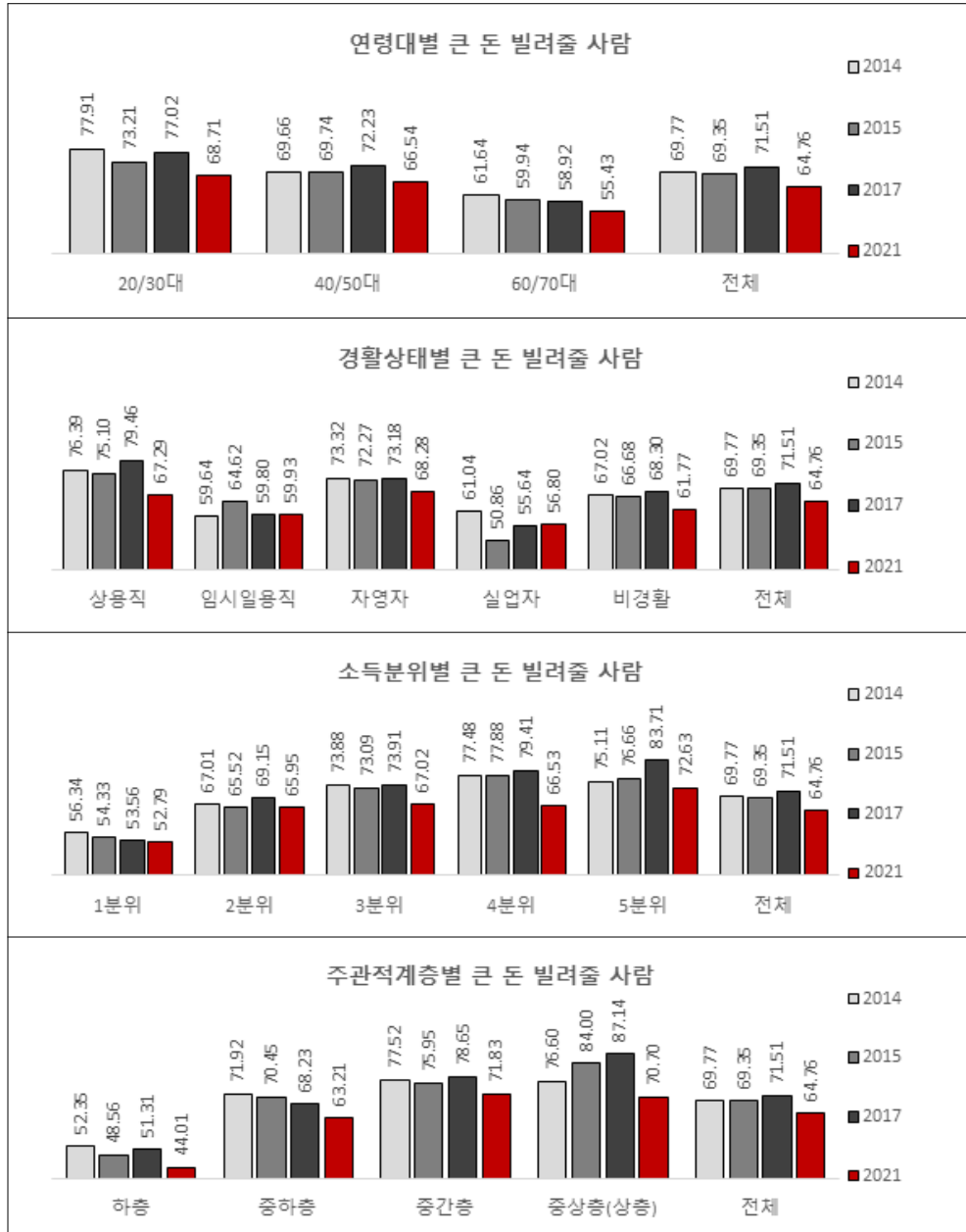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2] 큰돈 빌려줄 사람 유무

(단위: %)



주: 기존 문항을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고민을 나눌 사람의 절대적 사회자본 수준은 앞서 두 가지 사회적 자본보다는 높았다. 2021년 기준으로 약 90%의 응답자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 비해 그 비율이 약간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민을 나눌 사람이 줄어든 집단은 상용직(4%포인트), 5분위(5%포인트), 중간층(4%포인트)과 중상층 이상(8%포인트)이었다. 대체로 안정적인 고소득집단에서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절대적 사회자본의 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 3-14〉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단위: %)

구분		2014	2015	2017	2021	*)
전체		88.34	90.20	91.54	89.50	*
연령대	20/30대	91.85	94.60	95.93	94.17	-
	40/50대	89.95	87.80	91.28	89.53	-
	60/70대	81.08	86.31	83.38	82.23	-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92.50	93.93	96.41	91.80	***
	임시일용직	81.21	85.89	86.57	86.21	-
	자영자	87.68	90.78	90.52	89.69	-
	실업자	79.39	74.93	83.16	83.28	-
	비경활	88.79	90.31	90.02	88.80	-
소득 5분위	1분위	75.95	81.18	79.58	80.23	-
	2분위	87.46	87.74	91.60	90.30	-
	3분위	92.67	93.78	94.59	91.04	-
	4분위	92.26	94.24	96.36	93.80	-
	5분위	94.76	94.53	96.73	92.40	*
주관적 계층	하층	76.09	80.23	75.22	77.44	-
	중하층	89.67	90.69	90.75	90.20	-
	중간층	93.53	93.72	96.59	92.60	***
	중상층(상층)	95.74	95.27	98.28	89.91	**

주: 1) 기존 문항을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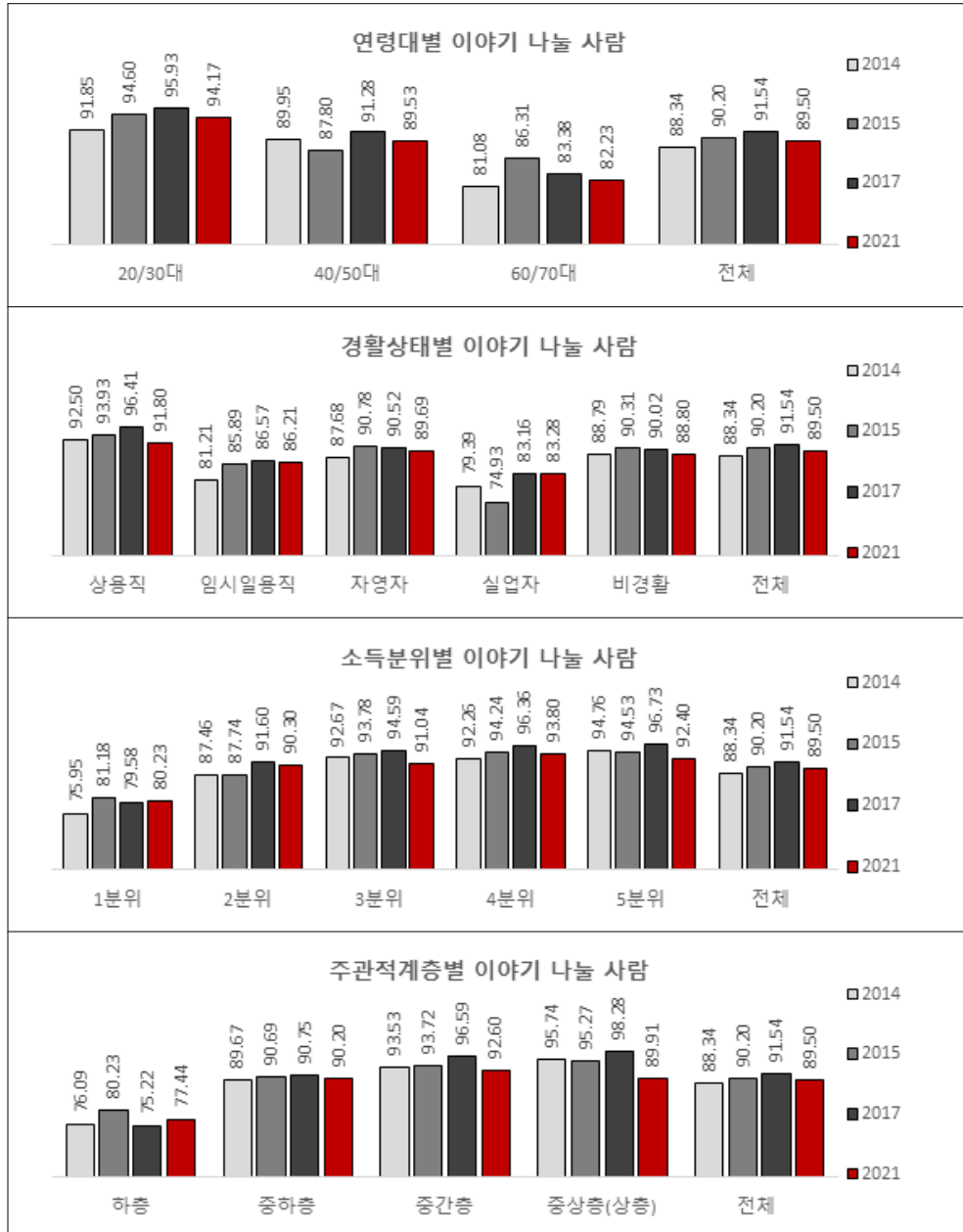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3] 이야기 나눌 사람 유무

(단위: %)



주: 기존 문항을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형평성

가. 형평성 인식

형평성 인식은 두 개의 문항 즉,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로 계측되었다.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동의 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역코딩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4년 조사 이후 3.4~3.6점대로 대체로 ‘약간 동의’와 ‘중립’ 사이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동의 정도가 약간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였다. 즉, 한국사회의 공정 이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직접적 영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공정 이슈가 크게 부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핵심 연령층, 종사상 지위에서는 상용직, 소득 5분위에서는 하위 1분위, 주관적 계층에서는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형평성 인식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2019년까지 다른 소득계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한국의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 2021년에는 한국의 공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표 3-15〉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3.61	3.59	3.54	3.59	3.42	3.51	**
연령대	20/30대	3.64	3.63	3.51	3.55	3.44	3.49	-
	40/50대	3.66	3.58	3.60	3.64	3.39	3.52	*
	60/70대	3.47	3.52	3.47	3.57	3.43	3.52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61	3.60	3.51	3.56	3.35	3.50	**
	임시일용직	3.53	3.58	3.63	3.57	3.45	3.51	-
	자영자	3.76	3.64	3.59	3.69	3.43	3.53	-
	실업자	3.83	3.62	3.51	3.63	3.50	3.62	-
	비경활	3.54	3.53	3.50	3.54	3.48	3.49	-
소득 5분위	1분위	3.57	3.57	3.52	3.59	3.38	3.60	***
	2분위	3.55	3.60	3.59	3.57	3.42	3.52	-
	3분위	3.60	3.55	3.60	3.62	3.41	3.55	-
	4분위	3.64	3.53	3.42	3.67	3.39	3.43	-
	5분위	3.68	3.71	3.59	3.50	3.51	3.45	-
주관적 계층	하층	3.68	3.65	3.62	3.76	3.37	3.64	***
	중하층	3.61	3.63	3.54	3.57	3.45	3.50	-
	중간층	3.57	3.54	3.51	3.56	3.42	3.48	-
	중상층(상층)	3.50	3.56	3.58	3.39	3.36	3.42	-

주: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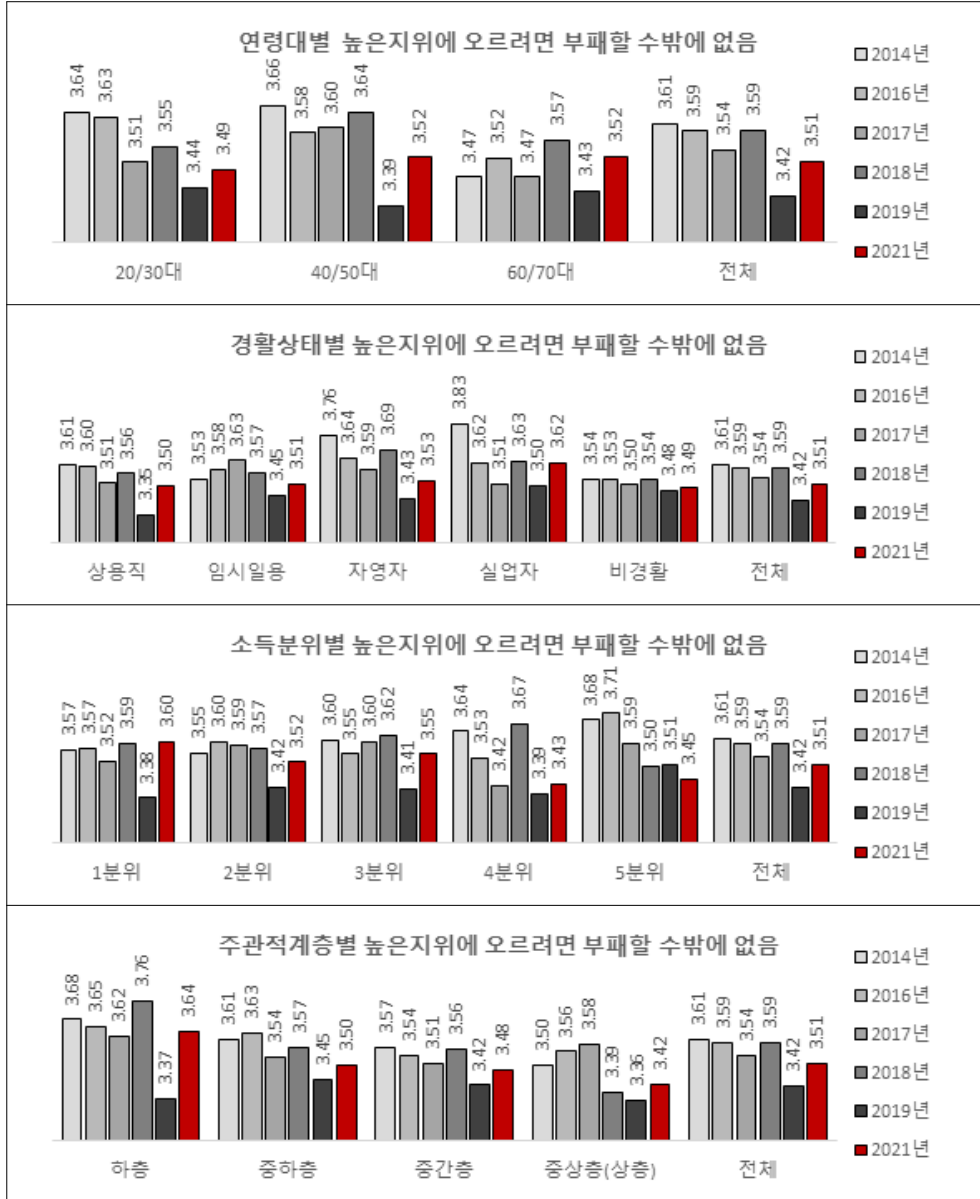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4]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한국의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대해서는 5점 만점 척도에서 4.1~4.2 점대의 점수를 보여, 한국의 소득격차에 대해 너무 크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개인의 특성이나 소득 계층별로도 2021년과 2019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6〉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4.24	4.29	4.14	4.22	4.22	4.21	4.26	-
연령대	20/30대	4.23	4.29	4.12	4.20	4.19	4.16	4.25	-
	40/50대	4.27	4.34	4.18	4.25	4.26	4.28	4.27	-
	60/70대	4.18	4.19	4.10	4.19	4.19	4.18	4.25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21	4.29	4.15	4.21	4.24	4.20	4.27	-
	임시일용직	4.31	4.38	4.18	4.28	4.26	4.24	4.27	-
	자영자	4.27	4.28	4.17	4.22	4.22	4.21	4.24	-
	실업자	4.35	4.43	4.08	4.28	4.17	4.37	4.19	-
	비경황	4.21	4.24	4.11	4.21	4.19	4.20	4.27	-
소득 5분위	1분위	4.23	4.31	4.15	4.27	4.25	4.23	4.27	-
	2분위	4.23	4.35	4.21	4.23	4.26	4.23	4.30	-
	3분위	4.22	4.28	4.13	4.25	4.18	4.20	4.24	-
	4분위	4.26	4.27	4.12	4.18	4.19	4.16	4.24	-
	5분위	4.26	4.25	4.12	4.17	4.23	4.24	4.24	-
주관적 계층	하층	4.30	4.46	4.31	4.45	4.38	4.32	4.34	-
	중하층	4.27	4.33	4.19	4.25	4.29	4.26	4.33	-
	중간층	4.19	4.18	4.07	4.13	4.11	4.15	4.19	-
	중상층(상층)	4.09	4.25	4.05	4.17	4.16	4.16	4.13	-

주: 1)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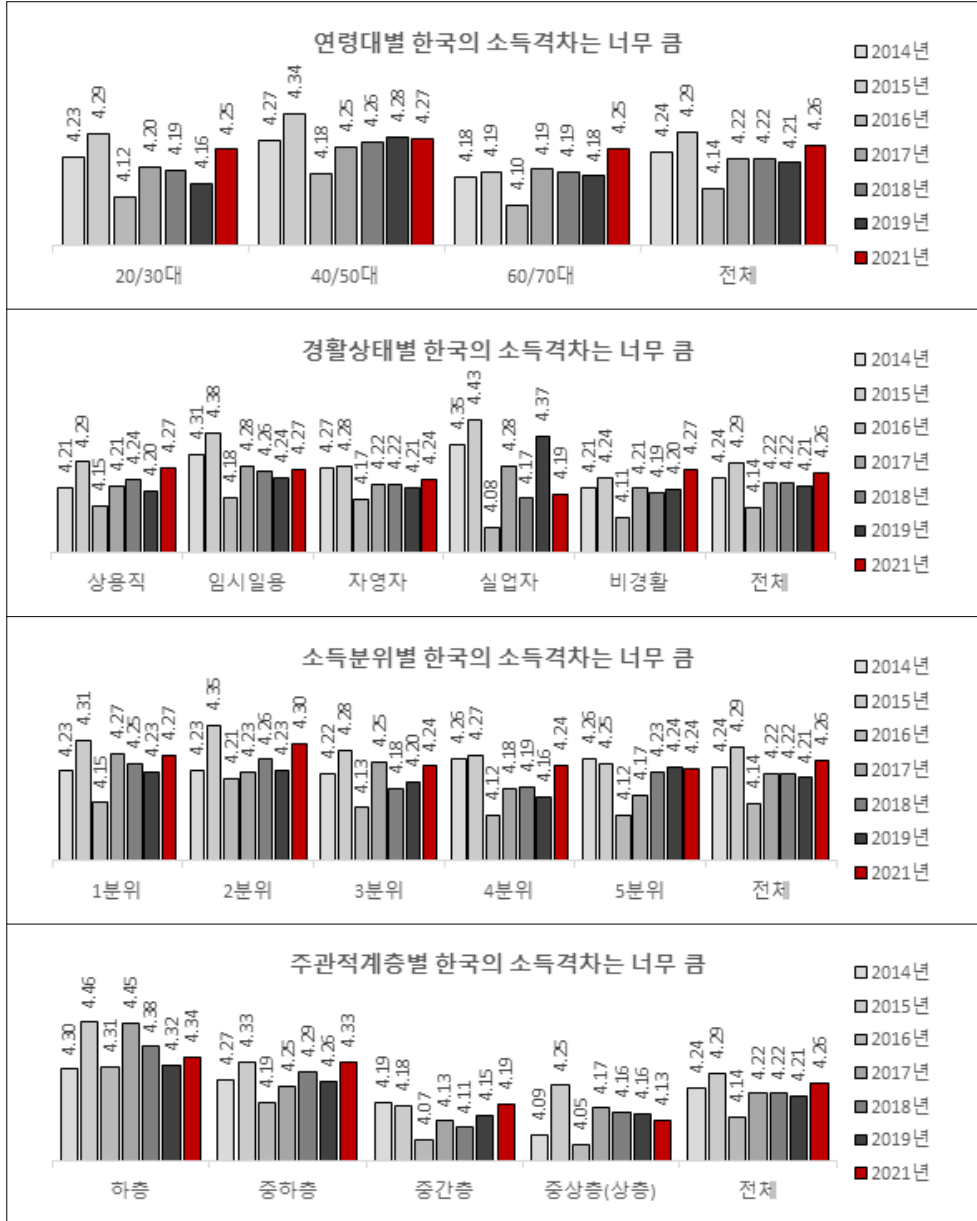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5]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큼'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정부 분배정책에 대한 견해

한국의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은 데 비해 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 동의’와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사이의 점수를 보였다. 2014년 이래 대략 3.5점에서 3.7점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매우 미미하게 동의가 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대, 취업 상태, 소득 5분위,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었다.

〈표 3-17〉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3.66	3.71	3.69	3.74	3.55	3.57	3.54	-
연령대	20/30대	3.71	3.77	3.69	3.76	3.51	3.56	3.50	-
	40/50대	3.70	3.73	3.72	3.75	3.61	3.58	3.57	-
	60/70대	3.53	3.54	3.64	3.69	3.51	3.55	3.55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69	3.75	3.70	3.72	3.57	3.61	3.51	-
	임시일용직	3.70	3.77	3.67	3.80	3.60	3.54	3.64	-
	자영자	3.64	3.67	3.69	3.68	3.52	3.50	3.52	-
	실업자	3.71	3.87	3.76	3.80	3.68	3.66	3.49	-
비경황		3.64	3.65	3.69	3.78	3.52	3.59	3.58	-
소득 5분위	1분위	3.62	3.76	3.76	3.87	3.61	3.70	3.62	-
	2분위	3.65	3.74	3.73	3.71	3.63	3.63	3.58	-
	3분위	3.64	3.72	3.62	3.75	3.52	3.53	3.53	-
	4분위	3.69	3.65	3.68	3.72	3.51	3.47	3.49	-
	5분위	3.73	3.67	3.67	3.64	3.49	3.51	3.49	-
주관적 계층	하층	3.72	3.83	3.78	3.96	3.72	3.70	3.67	-
	중하층	3.69	3.78	3.75	3.79	3.59	3.64	3.61	-
	중간층	3.66	3.60	3.63	3.66	3.47	3.48	3.46	-
	중상층(상층)	3.35	3.55	3.62	3.52	3.41	3.55	3.35	-

주: 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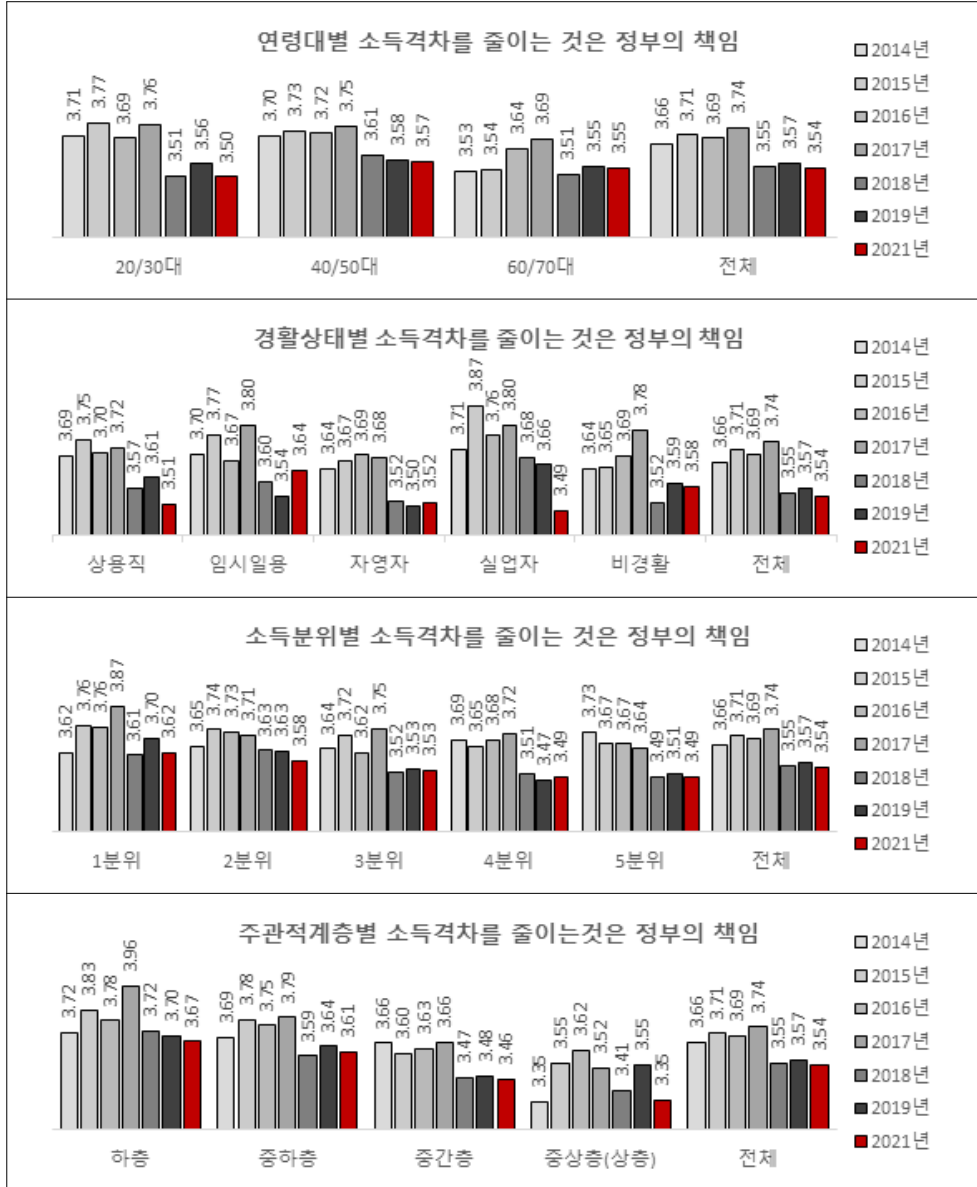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6]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계층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정도는 앞서 분배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동의 수준보다 약간 더 낮아서, 3.3점~3.6점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2019년과 2021년에는 3.37로 동일한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선 연도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 취업 상태, 소득 5분위, 주관적 소득계층별로도 2019년과 2021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3-18〉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3.60	3.49	3.55	3.56	3.49	3.37	3.37	-
연령대	20/30대	3.63	3.49	3.60	3.55	3.47	3.40	3.35	-
	40/50대	3.60	3.51	3.54	3.59	3.53	3.38	3.39	-
	60/70대	3.56	3.42	3.47	3.49	3.42	3.32	3.37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65	3.48	3.57	3.55	3.48	3.34	3.36	-
	임시일용직	3.59	3.59	3.59	3.68	3.57	3.38	3.53	-
	자영자	3.50	3.43	3.50	3.44	3.45	3.35	3.26	-
	실업자	3.84	3.85	3.64	3.77	3.79	3.54	3.41	-
	비경황	3.59	3.43	3.55	3.58	3.45	3.41	3.41	-
소득 5분위	1분위	3.69	3.58	3.64	3.61	3.55	3.39	3.42	-
	2분위	3.59	3.51	3.53	3.52	3.49	3.39	3.42	-
	3분위	3.56	3.47	3.54	3.55	3.50	3.39	3.29	-
	4분위	3.58	3.42	3.54	3.60	3.44	3.35	3.37	-
	5분위	3.58	3.46	3.50	3.47	3.45	3.35	3.34	-
주관적 계층	하층	3.68	3.64	3.65	3.73	3.66	3.62	3.48	-
	중하층	3.61	3.49	3.59	3.56	3.48	3.35	3.37	-
	중간층	3.56	3.42	3.50	3.50	3.44	3.32	3.34	-
	중상층(상층)	3.45	3.40	3.47	3.54	3.37	3.45	3.35	-

주: 1)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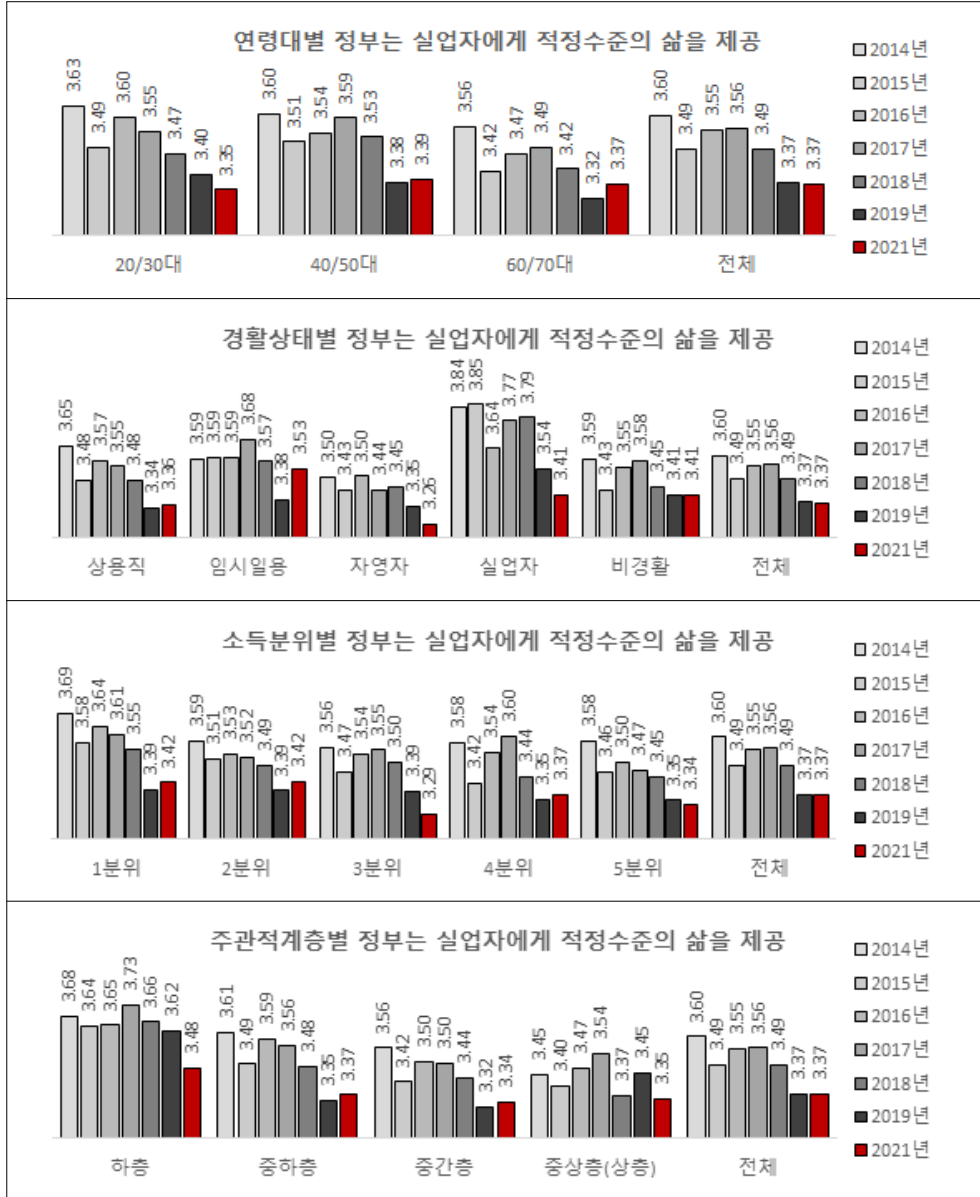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실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정부 분배정책에 대한 앞선 두 문항, 즉 전반적인 정부 개입과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의견이 2019년과 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가 빈곤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여야 한다(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음)는 데 대해서는 2021년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70대, 자영자, 중하층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자기이해적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결과이다.

〈표 3-19〉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
전체		3.31	3.33	3.17	3.32	3.24	3.17	3.29	***
연령대	20/30대	3.30	3.36	3.22	3.31	3.30	3.19	3.30	-
	40/50대	3.32	3.33	3.13	3.31	3.20	3.19	3.28	-
	60/70대	3.33	3.26	3.14	3.35	3.21	3.09	3.30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26	3.31	3.17	3.29	3.29	3.22	3.29	-
	임시일용직	3.32	3.43	3.12	3.37	3.19	3.27	3.35	*
	자영자	3.31	3.20	3.07	3.24	3.15	3.04	3.22	-
	실업자	3.38	3.56	3.51	3.48	3.41	3.49	3.41	-
	비경황	3.35	3.35	3.22	3.36	3.24	3.15	3.30	-
소득 5분위	1분위	3.42	3.35	3.22	3.47	3.30	3.25	3.36	-
	2분위	3.25	3.30	3.16	3.27	3.35	3.20	3.34	-
	3분위	3.36	3.35	3.19	3.27	3.24	3.16	3.18	-
	4분위	3.32	3.28	3.14	3.29	3.10	3.17	3.26	-
	5분위	3.21	3.37	3.13	3.27	3.19	3.06	3.31	**
주관적 계층	하층	3.35	3.44	3.29	3.55	3.49	3.49	3.40	-
	중하층	3.37	3.32	3.18	3.29	3.22	3.12	3.35	****
	중간층	3.27	3.29	3.13	3.28	3.16	3.14	3.23	-
	중상층(상층)	3.20	3.30	3.10	3.22	3.20	2.94	3.09	-

주: 1)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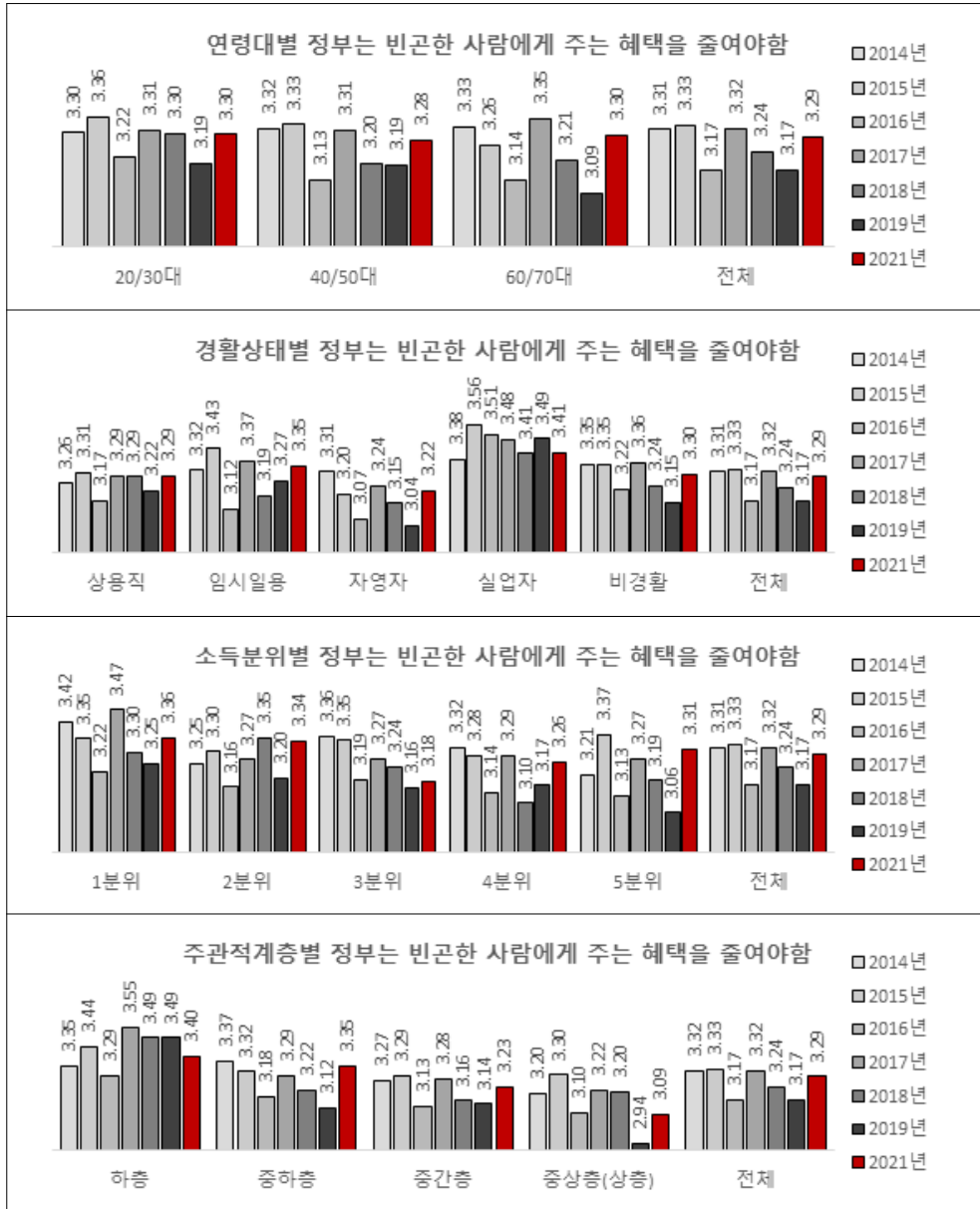
2) 2020년은 웹조사방식으로 수행되어 조사방식 차이로 인한 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3) *) 별표 표시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19년과 2021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3-18]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정부는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 코로나19 전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한 변수와 항목은 <표 3-20>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첫째,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했으며, 반대로 우울감은 상승했다. 2020년에 조사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행복감은 약간 하락하였지만(6.5 → 6.4), 삶의 만족도는 2019년과 동일 수준이었으며(6.0 → 6.0), 우울감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3.4 → 3.3)(한국행정연구원, 2021, p.38),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서는 직접적인 생활상의 체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삶의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도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우울감 역시 유의한 수준의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심리적 고립감이 증척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는 핵심 근로 연령대라 할 수 있는 40~50대, 직종별로는 자영업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1분위, 하층보다는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은 2분위, 중하층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 점도 이러한 유추를 가능케 한다.

둘째,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코로나 이후 사회통합 인식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청장년층에서 국민적 자부심과 전반적인 사회통합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다. 또한 경찰 상태별로 볼 때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자부심과 사회통합 인식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고령층보다는 젊은층, 그중에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학생 등의 국민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나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의 대응 역량과 능력에 따라 사회통합도는 상이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Gisselquist & Vaccaro, 2021; Jewett, Mah, Howell, & Larsen, 2021).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비춰진 우리나라의

8) 2021년 본 조사에서 자영업자 중 코로나19 동안 소득이 하락한 사람은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체계와 경제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국격이 상승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통합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위축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국격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경제활동인구의 자부심이나 사회통합 인식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0〉 코로나19 전과 후(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와 항목

영역	문항	전체	연령대	경황상태	소득5분위	주관적계층	
행복과 삶의 만족도	행복도	-		자영자 ↓	-	-	
	삶의 만족도	전체 ↓	2/30대 ↓ 4/50대 ↓	자영자 ↓	5분위 ↓	중하층 ↓	
	우울감	전체 ↑	4/50대 ↑	자영자 ↑	2분위 ↑	-	
사회 통합도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전체 ↑	2/30대 ↑ 4/50대 ↑	비경활 ↑	2/3/4/5 분위 ↑	중간층 ↑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전체 ↑	2/30대 ↑ 4/50대 ↑	전직종 ↑ 비경활 ↑	1/4/5 분위 ↑	중하층 ↑ 중간층 ↑	
신뢰도	전반적인 사회신뢰도	전체 ↑	2/30대 ↑ 4/50대 ↑	상용직 ↑	5분위 ↑	중하층 ↑ 중간층 ↑	
	대인 신뢰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	-	-	-	-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	-	-	-	-	-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		-	6/70대 ↓	-	2분위 ↓	-	
사회적 지지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도	전체 ↓	2/30대 ↓ 4/50대 ↓	상용직 ↓ 비경활 ↓	2/3/4/5 분위 ↓	중하층 ↓ 중간층 ↓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전체 ↓	2/30대 ↓	비경활 ↓	2/4/5 분위 ↓	중하층 ↓ 중간층 ↓	
	큰돈을 빌릴 사람 유무	전체 ↓	2/30대 ↓	상용직 ↓ 비경활 ↓	3/4/5 분위 ↓	중하층 ↓ 중간층 ↓ 중상층 ↓	
	우울할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유무	전체 ↓	-	상용직 ↓	5분위 ↓	중간층 ↓ 중상층 ↓	
형평성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전체 ↑	4/50대 ↑	상용직 ↑	1분위 ↑	하층 ↑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	-	-	-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	-	-	-	-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	-	-	-	-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전체 ↑	6/70대 ↑	임시일용직 ↑	5분위 ↑	중하층 ↑	

주: 연도 간 차이(F값)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Scheffe값이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위 항목임.

셋째,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전과 비교할 때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눈에 띄게 상승한 반면, 미시적 수준에서의 대인신뢰는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일부 집단에서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위험 관리의 거버넌스와 관련되어 있다(Kye & Hwang, 2020). 실제로 계봉오와 황선재(Kye & Hwan, 2020)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사회, 국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팬데믹 위기에 대한 선제적대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모범적 방역적 대응과 함께 높은 시민의식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외국과는 달리 사재기나 혐오범죄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가 크게 높아졌으나 이러한 사회적 신뢰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대인신뢰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건’은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와 시민이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경험을 제공해 주었지만, 그것은 익명의 타인과의 직접적 상호 작용에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자본은 전반적으로 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대인신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청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 2~5분위, 중하층과 중간층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지지의 하락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추정컨대, 공적 지원과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1분위, 하층, 노인보다는 주로 사적인 자원과 교류에 의존하는 중관계층의 사회적 지지도가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경제적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봉쇄 등으로 사회적 교류와 문화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과 휴교로 돌봄의 공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부와 같은 청장년 비경제활동인구에게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와 결핍 간 괴리감이 더 클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사회자본이 비물질적 영역에서보다 물리적·금전적 영역에서 더 하락한 데서도 유추할 수 있다. 즉,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큰돈을 빌려줄 사람,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 나눌 사람 등 모든 사회자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지만, 큰돈 빌려줄 사람(7%포인트),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5%포인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락을 보인 데 비해, 이야기 나눌 사람(2%포인트)의 하락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자본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빛을 발하지만, 실제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자원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진척된 사회와 세대일수록 이는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형평성과 관련된 인식은 이 시기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공정성 논란과 더 유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개입해야 한다든가, 실업자의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인식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을 향한 정부개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제4장

코로나19 전후 위험인식의 변화와 영향요인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연구 방법
- 제3절 분석 결과
- 제4절 요약 및 소결

제 4 장

코로나19 전후 위험인식의 변화와 영향요인

제1절 들어가며

IMF 등의 금융위기와 메르스·코로나19 등의 감염병,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현대 사회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특징을 보인다. 2019년 말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우리는 울리히 벡이 말한 ‘세계 위험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마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위험의 충격에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영향을 받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위험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재난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소득, 계층, 집단, 지역 등에 따라 불평등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채종현 외, 2018, p.49). 이에 대해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울리히 벡은 현대 사회의 위험이 “상처받기 쉬운 약한 집단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겨레 기사, 2014.5.15.).

코로나19 감염병 역시 전 세계로 확산하였으나 그 피해는 지역, 직업, 소득,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국가, 불안정한 직업군, 저소득계층, 여성, 청년과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용직 사무직 노동자는 대부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감염으로부터의 안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영세 사업장의 자영자는 일자리 상실 및 매출 급감을 경험하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을 계속하고 있을지라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쉽다. 이렇듯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위험은 기존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빈곤층 확대를 야기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가시화하고, 결국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러나 위험의 인식은 실제적인 위험의 강도나 분배와 같은 분포를 그릴 수도 있지만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폴 슬로빅은 위험이 마음이나 문화와 독립적으로 측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간주한다, 즉, 위험은 실제적이지만 실제 위험과 객관적 위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Slovic & Weber, 2002). 실제로 이전의 광우병 사태는 사실상 사망률이 교통사고 보다 낮은 위험이지만, 일반 대중은 광우병을 훨씬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이승훈, 2009). 전문가나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특정 위험이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일반 대중은 그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위험에 처해있을지라도 위험의 인식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이 개인의 직관과 경험, 정보의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위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별개로 주관적인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위험은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아서 사회적 불안감과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오윤경, 2020, p.90).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가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삶의 질 등 전 방위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변화가 있는가? 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이장의 또 다른 목적이다.

위험인식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같은 객관적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계층의식과 신뢰와 같은 주관적 태도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수아, 임동균, 2016). 즉,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직업, 소득수준 등이 객관적 요인으로서 위험 노출과 경험을 매개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적 태도, 사회적 신뢰 등의 인식 또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19의 위험과 그로 인한 충격이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사회 구성원의 불평등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인식의 주관적 요인으로 살펴본 사회적 자본(신뢰 및 사회적 지지) 이외에 불평등 인식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험 인식의 관리 및 부정적 영향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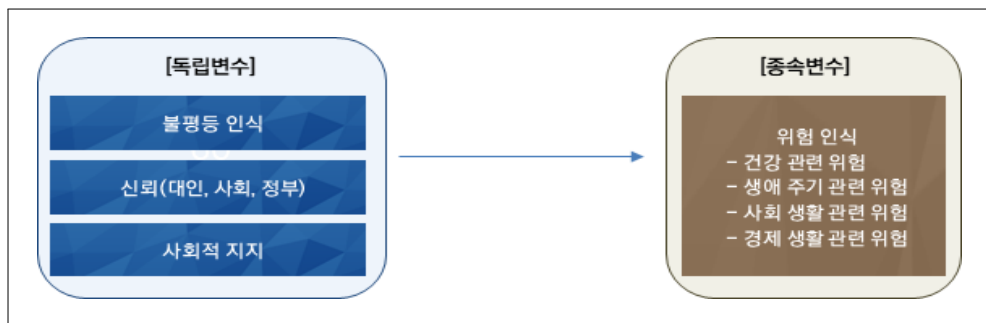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에 앞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사회경제적 위기 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취약 집단의 위험인식 수준을 검토한다. 이때 활용되는 특성은 성, 연령층, 거주 지역,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 5가지 변수를 활용하였다.

불평등과 신뢰 및 사회적 지지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위험인식은 조사에서 수행된 7가지 위험 영역 중 자연재해, 정치 및 대외 관계, 환경 관련 위험인식을 제외한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관련 위험 4가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관적 인식 요인으로 불평등 인식과 신뢰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위험인식의 영향요인 분석은 코로나19 전후 시기인 2017년과 2021년의 비교를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 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1년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함께 비교 가능한 문항을 포함한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그림 4-1] 연구 모형



먼저, 종속변수인 위험인식은 위험 영역별로 불안 수준을 ‘①매우 불안하다’부터 ‘⑤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불안 수준 즉, 위험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접수가 높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의 주관적 위험인식은 불안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Beck(1992)은 20세기 후반에 느끼는 불안은 위험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 위험인식의 수준 및 영향요인 설명과 해석을 할 때 ‘위험인식’은 맥락에 따라 ‘불안’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불평등 인식은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문항과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질문의 동의 정도를 역코딩 한 후 두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신뢰 변수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그리고 정부신뢰로 구분하였다. 대인신뢰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와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두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사회신뢰는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대인신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사회신뢰는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Earle & Cvetkovich, 1995).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신뢰 수준은 2017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위험인식의 영향요인 분석에 한정하여 투입하였는데, 행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응답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신뢰의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종속변수인 위험인식에 미치는 신뢰의 영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수준 역시 두 문항 응답의 평균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는데,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와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 연령층, 혼인 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거주지역 등을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4-1〉 활용 변수

구분	활용 문항		
종속 변수	위험 인식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인식 높음 - ①매우 불안하다 ~ ⑤전혀 불안하지 않다(역코딩) (전반적 위험: 4개 영역의 평균값)	
독립 변수	불평등 인식	1)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2)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인식 높음 (두 문항의 평균값) - ①매우 동의한다~ ⑤매우 반대한다(역코딩)	
	신뢰	대인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 높음 (두 문항의 평균값) ①매우 동의한다 ~ ⑤매우 반대한다
		사회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 높음 - ①전혀 믿을 수 없다 ~ ⑤매우 믿을 수 있다		
	정부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 높음 - ①매우 신뢰한다~②다소 신뢰한다~③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역코딩)	
	사회적 지지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 높음 (두 문항의 평균값) - ①전혀 받고 있지 않음(매우 적음) ~ ⑤ 보통 ~ ⑩ 매우 많이 받고 있음(매우 많음)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	남, 여
		연령층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혼인 상태	유배우, 별거·사별·이혼, 미혼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시·일용직(특수고용),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제3절 분석 결과

1. 위험인식 수준의 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은 2017년 평균 3.09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까웠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약 1년 반 이상이 지나고 있는 2021년 시점에서는 평균 점수가 3.57점으로

위험에 대한 불안 인식이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2017년 ‘자연재해 관련’ 위험과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은 각각 2.84점, 2.97점으로 보통(3점) 이하 수준으로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위 두 가지 위험을 포함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가장 불안감이 높은 것은 방사성 폐기물, 대기 및 수질 오염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위험(3.31점)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에는 ‘건강 관련’ 위험(3.81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위험의 보기로는 전염병, 정신건강, 성인병, 먹거리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불안 점수가 3.79점으로 건강 관련 위험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두 해 모두 가장 낮은 불안 수준을 보이고 있다(각각 2.84점, 3.26점).

〈표 4-2〉 영역별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2021	F값(유의도)
자연재해 관련 위험	2.84	3.26	358.85***
건강 관련 위험	3.15	3.81	861.57***
생애주기 관련 위험	3.04	3.70	913.36***
사회생활 관련 위험	3.13	3.44	166.54***
경제생활 관련 위험	3.19	3.79	840.4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위험	2.97	3.35	260.55***
환경 관련 위험	3.31	3.64	258.99***
평균	3.09	3.57	833.81***

주 :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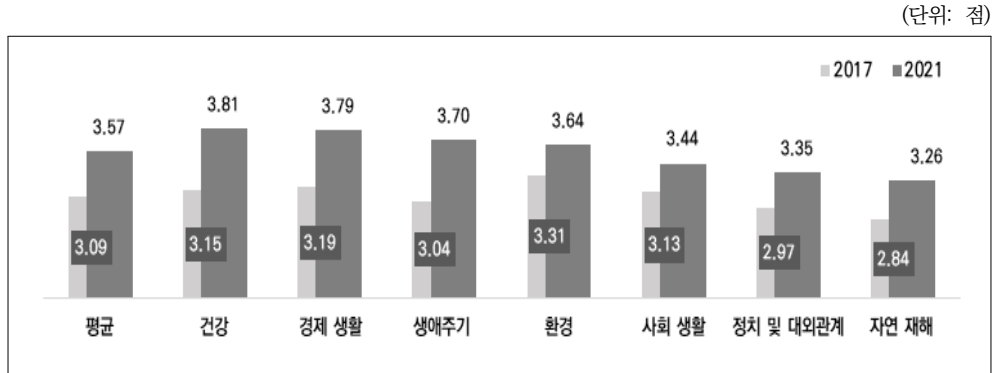
2) ‘①매우 불안하다’~‘③보통이다’~‘⑤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1) 위험인식에 따른 불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7년의 불안 수준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표 문항을 영역별로 통합·축소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의 경우, 2017년에는 1)홍수나 태풍, 2)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동, 3)황사나 가뭄, 4)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4가지 문항에 대한 각각의 불안 수준을 물었으나, 2021년에는 이를 통합하여 ‘자연재해 관련’ 불안 수준을 물었다. 영역별로 문항을 통합·축소하면서 각 세부 위험을 예로 제시하였으나, 응답자별로 세부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영역별 위험 요인의 편차를 가져왔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인식 수준의 비교 시 절대적인 수치의 비교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 영역별 위험인식 수준



주: '①매우 불안하다'~'③보통이다'~'⑤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아래에서는 위험인식 수준을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중 사회적 위기 시 취약한 집단을 구분해 주는 변수인 성, 연령,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수준, 그리고 지역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7가지 영역별 위험인식 중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관련이 깊은 4가지 위험 영역(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에 대한 집단별 차이에 집중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은 위 4가지 위험인식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중장년층은 노년층과 청년층보다, 중소도시 거주자는 대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보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다른 경제활동상태인 경우보다 전반적 위험인식 수준이 2017년과 2021년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위험인식 수준도 2017년과 2021년 모두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1년에는 하층 및 중하층과 중간층과 중상(상)층의 위험인식이 양분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래서 살펴본 영역별 위험인식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2021년 위험인식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하층과 중상(상)층의 위험인식이 상대적으로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3〉 집단별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3.07	27.89***	3.64	20.07***
	여	3.19		3.73	
연령층	청년층	3.04	6.97***	3.63	8.83***
	중장년층	3.17		3.71	
	노년층	3.11		3.71	
지역	대도시	3.10	31.13***	3.67	11.03***
	중소도시	3.20		3.74	
	농어촌	2.94		3.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04	10.88***	3.68	4.44**
	임시/일용직	3.23		3.74	
	고용주/자영자	3.15		3.64	
	실업자/비경활	3.17		3.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0	33.60***	3.77	32.80***
	중하층	3.21		3.75	
	중간층	3.04		3.62	
	중상(상)층	2.89		3.57	

주: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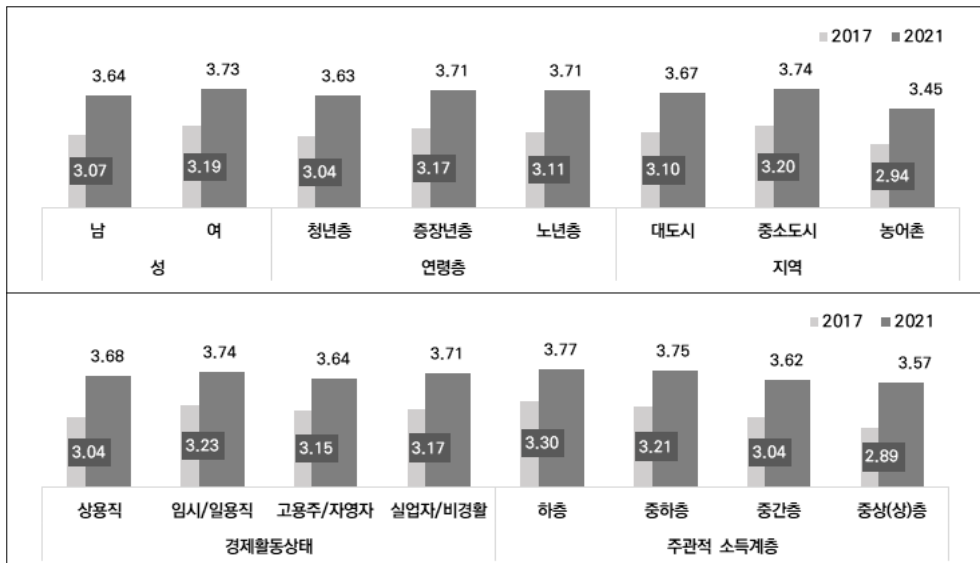
2) 전반적인 위험은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관련 위험 4개 영역의 평균값으로 '①매우 불안하다'~ '⑤보통이다'~'⑤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3] 집단별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장 위험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영역은 건강 영역인데, 건강관련 위험은 전염병, 정신건강, 성인병, 먹거리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에 관한 불안이 증가한 것이 2021년 건강 관련 위험인식 수준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건강 관련 위험인식은 2017년 2021년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노년층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인식은 2017년에는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높으며, 실업자/비경활인 경우, 고용주/자영자, 상용직 순으로 나타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위험인식은 임시/일용직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다소 큰 점수 차로 가장 낮았던 상용직의 위험인식이 다른 경제활동상태인 경우와 유사해졌고, 이에 따라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용직 역시 건강 관련 위험에 따른 불안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4-4〉 집단별 건강 관련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3.09	25.22***	3.75	28.94***
	여	3.22		3.87	
연령층	청년층	3.03	16.82***	3.73	12.92***
	중장년층	3.19		3.82	
	노년층	3.25		3.92	
지역	대도시	3.15	5.44**	3.82	4.33*
	중소도시	3.17		3.84	
	농어촌	3.07		3.6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03	15.98***	3.80	1.88
	임시/일용직	3.26		3.90	
	고용주/자영자	3.19		3.77	
	실업자/비경활	3.20		3.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5	24.12***	3.92	30.31***
	중하층	3.21		3.92	
	중간층	3.06		3.73	
	중상(상)층	2.93		3.50	

주 :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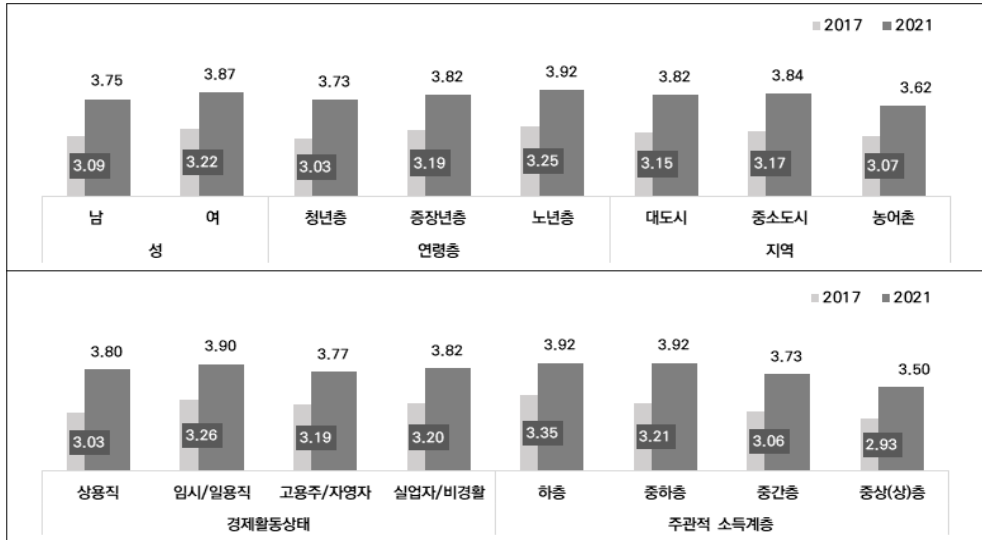
2) ①매우 불안하다~③보통이다~⑤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4] 집단별 건강 관련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은 2017년과 2021년 모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실업, 빈곤, 주택 가격 및 전세금 불안, 금융 불안, 경기 침체 등과 같은 경제생활과 관련한 위험에 관한 불안 인식은 코로나19 전후의 사회적 위기와 관련 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21년 모두 남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이 달리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2017년에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비해 낮은 위험인식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2021년 현재는 노년층의 위험인식이 청년층의 위험인식 수준(각각 3.77점, 3.74점)을 상회할 만큼 연령층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 이후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층에서 유사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역과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2017년과 2021년 집단별 위험인식 수준의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관련 위험인식은 중소도시>대도시>농어촌, 임시/일용직>실업자/비경활>고용주/자영자>상용직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상용직 노동자일 경우, 중상(상)층의 계층인식을 가지면 경제 관련 위험인식이 가장 낮다.

〈표 4-5〉 집단별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3.18	2.16	3.76	2.64
	여	3.20		3.81	
연령층	청년층	3.17	9.30***	3.74	2.58
	중장년층	3.23		3.81	
	노년층	3.03		3.77	
지역	대도시	3.18	39.42***	3.79	9.04***
	중소도시	3.27		3.83	
	농어촌	2.87		3.5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14	5.15**	3.74	5.27**
	임시/일용직	3.32		3.86	
	고용주/자영자	3.18		3.78	
	실업자/비경활	3.20		3.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44	36.63***	3.95	37.50***
	중하층	3.30		3.88	
	중간층	3.06		3.67	
	중상(상)층	2.87		3.67	

주 :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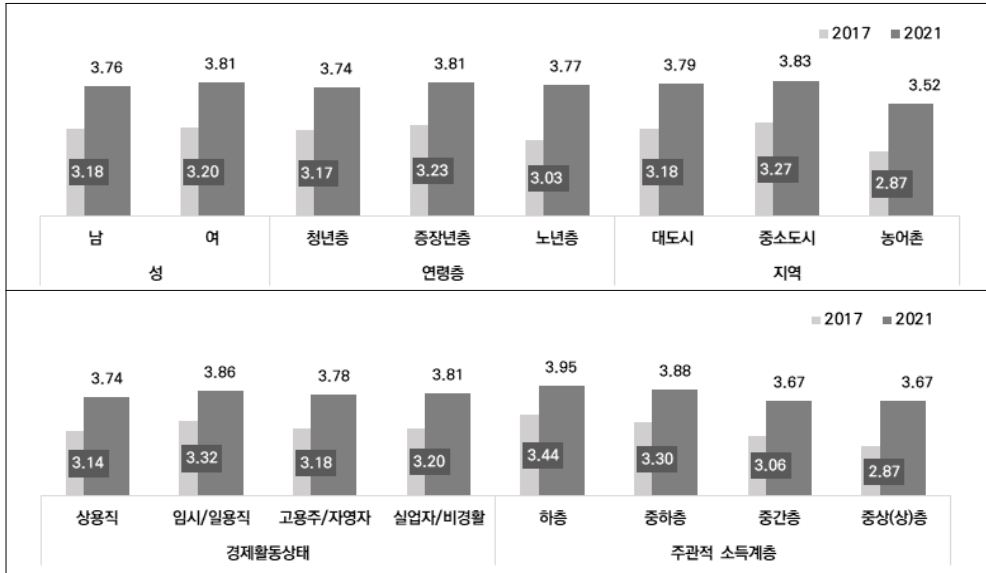
2) '①매우 불안하다'~'③보통이다'~'⑤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5] 집단별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가족 해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등이 예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2017년 5가지 특성(성, 연령층, 거주 지역,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별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2021년에는 성별과 경제활동상태별 위험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과 다르게 2021년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남성과 여성,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실업자 등과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층과 주관적 소득계층,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고 있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 대해 청년층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생애주기와 관련한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집단별 생애주기 관련 위험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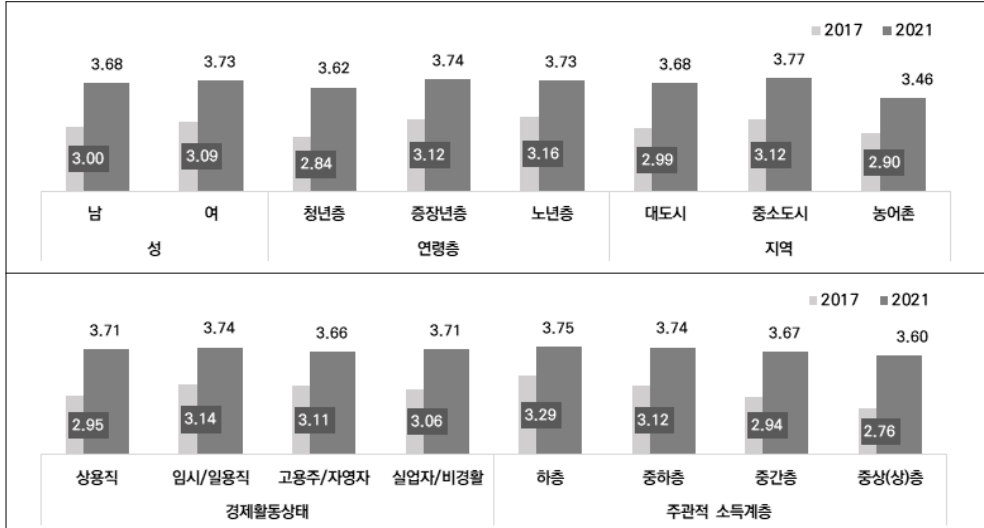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3.00	11.35***	3.68	2.1
	여	3.09		3.73	
연령층	청년층	2.84	37.32***	3.62	11.67***
	중장년층	3.12		3.74	
	노년층	3.16		3.73	
지역	대도시	2.99	26.61***	3.68	10.86***
	중소도시	3.12		3.77	
	농어촌	2.90		3.46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95	8.89***	3.71	1.46
	임시/일용직	3.14		3.74	
	고용주/자영자	3.11		3.66	
	실업자/비경활	3.06		3.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9	46.37***	3.75	17.32***
	중하층	3.12		3.74	
	중간층	2.94		3.67	
	중상(상)층	2.76		3.60	

주 : 1) * p<0.05, ** p<0.01, *** p<0.001
 2) '①매우 불안하다'~'③보통이다'~'⑤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6] 집단별 생애주기 관련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생활 관련 위험은 범죄, 교통사고 등의 인적 재난 및 산업재해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은 2021년 3.44점으로 영역별 전체 평균 3.57점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2017년에는 전체 평균 3.09점보다 높은 3.13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생각하면, 4개 위험 영역 중에서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은 2021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대도시>농어촌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같은 양상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상태별로는 2017년에는 실업자/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가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이 다음 순으로 높았으나 2021년에는 실업자/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가 가장 높긴 하지만, 상용직이 임시/일용직과 같은 수준으로 불안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관적 소득계층별 위험인식에서도 발견되는데, 2017년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생활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중상(상)층이 하층보다 불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그 양상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령층에 따른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은 2021년에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4-7〉 집단별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3.02	54.44***	3.38	29.08***
	여	3.24		3.51	
연령층	청년층	3.14	3.24*	3.42	1.80
	중장년층	3.15		3.46	
	노년층	3.00		3.40	
지역	대도시	3.07	26.00***	3.39	6.39***
	중소도시	3.23		3.53	
	농어촌	2.93		3.2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03	6.01***	3.47	4.01**
	임시/일용직	3.19		3.46	
	고용주/자영자	3.11		3.33	
	실업자/비경활	3.21		3.4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3	4.96**	3.47	3.79**
	중하층	3.18		3.46	
	중간층	3.10		3.41	
	중상(상)층	3.01		3.52	

주 :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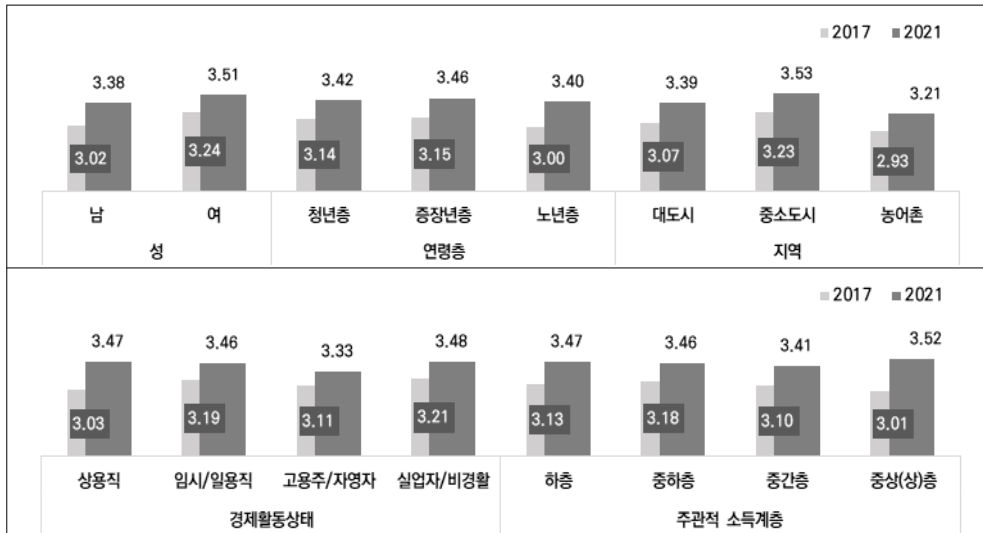
2) '①매우 불안하다'~'③보통이다'~'⑤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7〕 집단별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불평등 인식과 신뢰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의 변화

불평등 인식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와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소득격차 수준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점수가 2017년 4.22점에서 2021년 4.26점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2018년과 2019년의 평균 점수를 고려하였을 때 2021년이 약간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회의 불평등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2021년은 3.51점으로 2017년 3.54점과 비교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19년 3.42점보다 0.09점 높은 수준으로 다른 비교 연도의 증감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불평등 인식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8〉 불평등 인식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점수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유의도)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2017	4.22	40.03	45.07	12.03	2.74	0.12	35.39 ***
	2018	4.22	39.74	45.65	11.91	2.47	0.23	
	2019	4.21	37.18	49.34	11.26	1.95	0.27	
	2021	4.26	40.50	46.70	11.05	1.55	0.2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2017	3.54	12.68	49.66	20.98	12.19	4.49	167.20 ***
	2018	3.59	14.30	47.88	23.10	11.99	2.73	
	2019	3.42	11.57	40.46	31.20	11.96	4.82	
	2021	3.51	13.26	44.72	25.71	12.27	4.03	

주: 1) * p<0.05, ** p<0.01, *** p<0.001

2) 평균점수는 ‘①매우 동의한다’~‘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⑤매우 반대한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이러한 불평등 인식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불평등 인식 점수는 위 표의 소득불평등 인식과 기회의 불평등 측면에서 살펴본 성공과 관련된 부패인식 관련 응답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대체로 불평등 인식 수준은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과 2021년 모두 주관적 소득계층별 불평등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을 보면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격차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대체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9〉 집단별 불평등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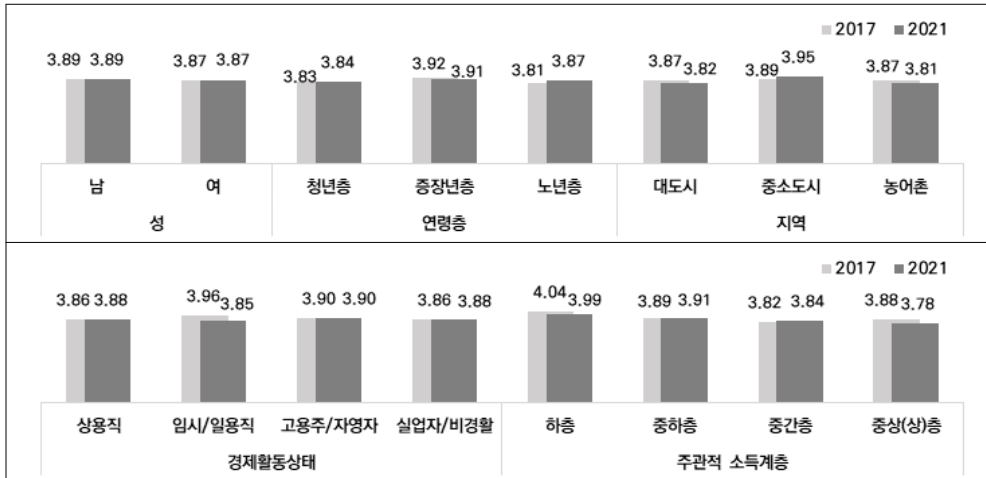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3.89	1.59	3.89	0.42
	여	3.87		3.87	
연령층	청년층	3.83	3.62*	3.84	2.84
	중장년층	3.92		3.91	
	노년층	3.81		3.87	
지역	대도시	3.87	1.74	3.82	6.31*
	중소도시	3.89		3.95	
	농어촌	3.87		3.81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3.86	1.11	3.88	1.26
	임시/일용직	3.96		3.85	
	고용주/자영자	3.90		3.90	
	실업자/비경활	3.86		3.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04	14.63***	3.99	18.54***
	중하층	3.89		3.91	
	중간층	3.82		3.84	
	중상(상)층	3.88		3.78	

주 : 1) * p<0.05, ** p<0.01, *** p<0.001
 2)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문항의 응답 '①매우 동의한다'~'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⑥매우 반대한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8] 집단별 불평등 인식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보다 직접적으로 위기 시 위험의 불균등한 분배 인식을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대체로 집단 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하층>중간층>상층 순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구 소득 감소율은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송상윤, 2021).

한편 연령층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장년층과 청년층에 미친 충격이 각각 7.45점, 7.41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노년층에게 미친 충격은 6.15점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다고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고용과 소득 측면, 즉 실직이나 휴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등의 충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연령층에 따라 충격이 다르게 미쳤다는 인식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연령층에게 고용과 소득 측면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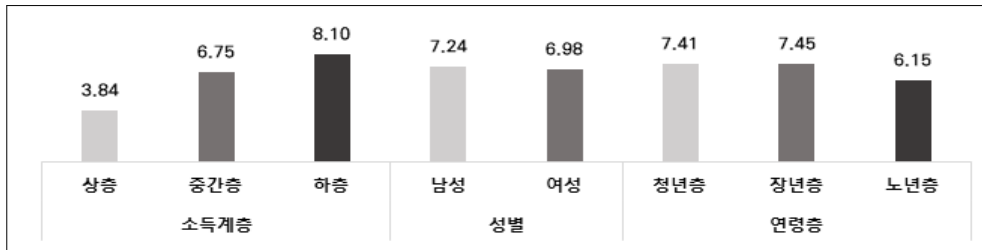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남녀 각각 7.24점, 6.98점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남성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녀에 대한 경제적 영향 인식에

대한 응답 점수를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4%, 같은 수준으로 응답한 비율은 52.91%, 여성이 남성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5%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고용충격을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이는 실제로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실제와 인식 간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최대 5.4% 감소한 반면 남성 취업자 수는 최대 2.4%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오삼일, 이종하, 2021), ILO는 2021년 근로 연령층 중 여성 고용률은 43.2%로 남성 고용률 68.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2019년 대비 여성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4.2% 감소한 반면 남성 고용 감소율은 3.0% 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ILO, 2021).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가구의 가장 또는 주 소득원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4-9]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영향 인식

(단위: 점)



주: 상층, 중간층, 하층/ 남성, 여성/ 청년, 장년층, 노년층 각각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매우 영향을 미침' 11점 척도로 질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신뢰 수준은 대인신뢰와 사회신뢰로 나뉘볼 수 있다. 대인신뢰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와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로, 사회신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11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대인신뢰 두 개 문항 모두 3점(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이하로 신뢰수준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대인신뢰 수준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인신뢰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표 4-10〉 대인신뢰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점수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유의도) (χ^2)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017	2.43	11.69	48.55	26.46	12.11	1.20	110.69 ***
	2018	2.35	15.91	47.24	23.59	12.2	1.05	
	2019	2.30	14.57	53.47	20.75	9.59	1.62	
	2021	2.33	13.21	53.05	23.02	9.23	1.49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2017	2.57	8.73	42.13	34.88	12.39	1.87	115.26 ***
	2018	2.50	13.12	41.12	29.54	14.66	1.56	
	2019	2.48	9.88	47.22	29.36	12.19	1.35	
	2021	2.46	12.19	43.52	31.98	10.70	1.61	

주: 평균점수는 '①매우 동의한다'~'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⑤매우 반대한다'에 대한 평균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신뢰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대인신뢰 수준은 2017년과 2021년 성별 차이와 2017년 경제활동상태별 집단 차이를 제외한 다른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해 모두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대인신뢰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상용직의 신뢰 수준이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이 가장 낮은 대인신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연령층과 지역별 대인신뢰의 집단별 차이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중장년층의 대인신뢰 수준이 가장 낮고, 청년층과 노년층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021년 노년층의 대인신뢰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 중장년층 보다는 낮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7년 지역별 대인신뢰 수준은 농어촌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농어촌의 대인신뢰 수준이 중소도시와 유사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층별 대인신뢰 수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노년층의 대인신뢰 수준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이 농어촌 대인신뢰 수준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향후 대인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던 노년층과 농어촌 거주자들의 대인신뢰 수준이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1년 낮아진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 국가지표체계: 국가발전지표>사회통합>연대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1>

〈표 4-11〉 집단별 대인신뢰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2.48	1.39	2.39	1.02
	여	2.51		2.40	
연령층	청년층	2.54	3.47*	2.50	10.58***
	중장년층	2.46		2.36	
	노년층	2.54		2.33	
지역	대도시	2.44	11.13***	2.32	4.55*
	중소도시	2.51		2.45	
	농어촌	2.62		2.45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54	1.91	2.45	5.61***
	임시/일용직	2.42		2.31	
	고용주/자영자	2.48		2.33	
	실업자/비경활	2.49		2.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5	11.59***	2.22	19.96***
	중하층	2.49		2.37	
	중간층	2.53		2.45	
	중상(상)층	2.58		2.57	

주 :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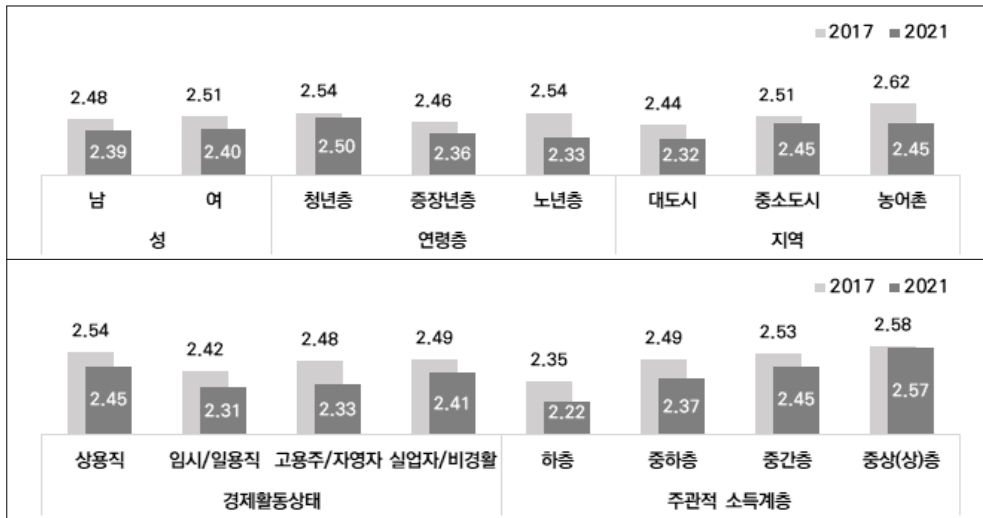
2)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와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두 문항 응답 '①매우 동의한다'~'③동의도 반대도 아니다'~'⑤매우 반대한다'의 평균값을 분석함.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10] 집단별 대인신뢰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신뢰 역시 평균 5점(보통)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4개년 간의 경향은 대인신뢰 수준이 감소한 것과 상반되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12점에서 2018년 4.86점으로 낮아졌다가 2019년 5.00점, 2021년 5.37점으로 사회신뢰 수준이 증가하였다.

〈표 4-12〉 사회신뢰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점수	전혀 믿을 수 없다				보통				매우 믿을 수 있다				χ^2 (유의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017	5.12	1.06	1.51	5.28	11.46	10.38	32.68	13.13	15.96	7.18	0.88	0.49	274.92 ***	
2018	4.86	1.88	2.15	6.68	13.44	11.04	33.32	11.67	11.13	6.96	1.10	0.63		
2019	5.00	0.80	1.86	6.02	12.53	12.06	29.68	16.05	13.87	5.92	1.00	0.21		
2021	5.37	0.60	1.21	4.80	9.95	7.41	32.40	15.22	17.53	8.40	1.70	0.78		

주: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신뢰 수준의 집단별 차이는 2017년에는 지역과 주관적 소득계층별 집단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2021년에는 연령층, 지역, 경제활동상태, 주관적 소득계층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신뢰 수준의 차이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대체로 두 해 모두 대도시의 사회신뢰 수준이 가장 낮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경제활동상태별로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상용직의 사회신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주/자영자의 사회신뢰 수준은 임시/일용직보다 2017년에는 높았으나, 2021년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응정책의 영향 등이 전반적인 사회신뢰 수준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의 사회신뢰 수준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사회신뢰가 약간 높아진 것과 다르게 미미하지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대인신뢰 역시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2021년 노년층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표 4-13〉 집단별 사회신뢰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5.13	0.01	5.35	0
	여	5.11		5.38	
연령층	청년층	5.07	0.55	5.43	6.37**
	중장년층	5.12		5.40	
	노년층	5.22		5.11	
지역	대도시	5.00	7.89***	5.25	7.23***
	중소도시	5.21		5.38	
	농어촌	5.20		5.8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5.20	1.3	5.48	4.79**
	임시/일용직	4.93		5.40	
	고용주/자영자	5.10		5.25	
	실업자/비경활	5.12		5.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6	14.98***	4.92	29.08***
	중하층	5.13		5.22	
	중간층	5.28		5.59	
	중상(상)층	5.25		5.71	

주: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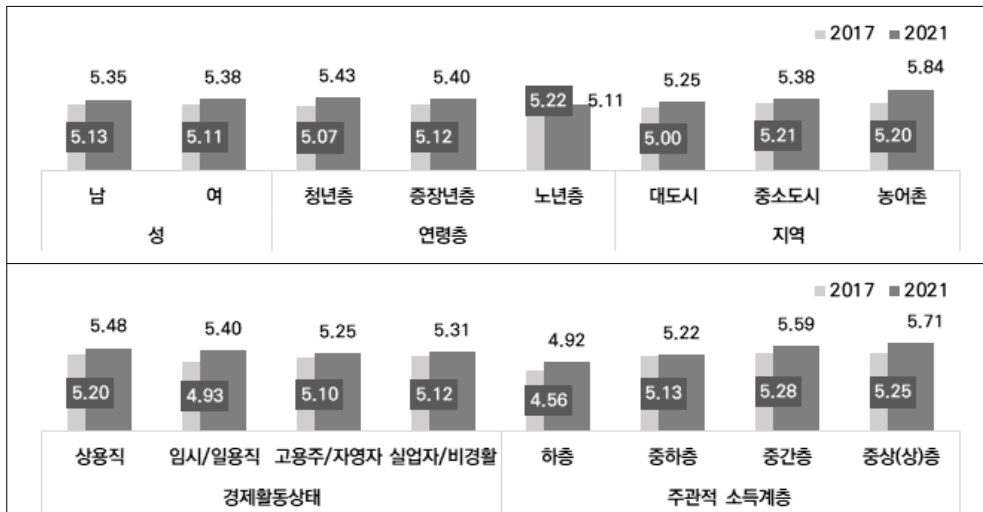
2) '㉠전혀 믿을 수 없다'~'㉡매우 믿을 수 있다' 응답값을 분석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11] 집단별 사회신뢰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시기인 2019년 조사보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가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김태심, 조영호, 2021; 행정안전부, 2021.7.9.)가 발표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에 대한 신뢰가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이 2019년 43.24%에서 2021년 47.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신뢰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점수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유의도) (χ^2)
2019	1.48	4.42	38.82	56.76	35.15***
2021	1.51	2.94	44.97	52.09	

주: 1) 평균점수는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④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2) 기관 신뢰 문항은 2019년과 2021년에만 조사되어 2019~2021년 비교 분석 결과를 담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행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2019년과 202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2019년에는 농어촌이 가장 낮았으나, 2021년에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어촌 거주자는 대인신뢰 수준은 감소하고, 사회 및 행정부 신뢰 수준은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21년에는 2019년과 다르게 경제활동상태와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행정부 신뢰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21년 행정부신뢰 수준은 상용직이 가장 높고, 실업자/비경활,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자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등으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집단으로 정부의 대응정책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2019년 상용직 다음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높았던 고용주/자영자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21년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른 행정부신뢰 수준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9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소득계층별 인식차이가 조금 더 뚜렷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15〉 집단별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신뢰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1.45	0.7	1.49	1.55
	여	1.50		1.52	
연령층	청년층	1.49	0.57	1.51	1.38
	중장년층	1.48		1.52	
	노년층	1.43		1.46	
지역	대도시	1.45	3.82*	1.50	20.02***
	중소도시	1.50		1.49	
	농어촌	1.43		1.6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1.52	2.24	1.53	3.78**
	임시/일용직	1.46		1.51	
	고용주/자영자	1.47		1.46	
	실업자/비경활	1.44		1.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6	1.18	1.36	21.07***
	중하층	1.46		1.47	
	중간층	1.49		1.56	
	중상(상)층	1.52		1.68	

주 :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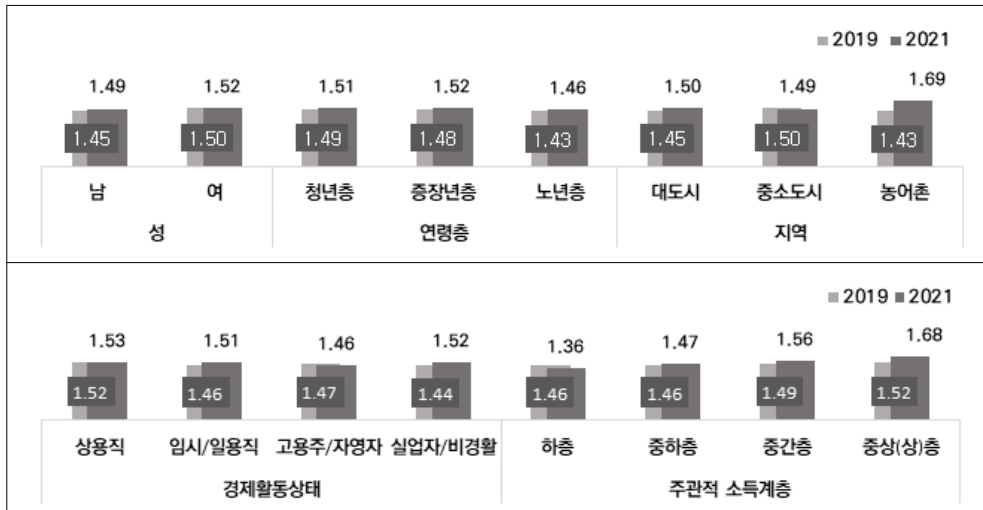
2) '①매우 신뢰한다', '②다소 신뢰한다',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④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기관 신뢰 문항은 2019년과 2021년에만 조사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12〕 집단별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신뢰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나 일상적인 고민과 감정, 정보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지지를 해줄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보통(5점) 이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58.63%에서 2021년 48.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5.94점에서 5.67점으로 감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보통(5점) 이상으로 많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59.61%에서 52.22%로 감소하였다(평균 5.92점에서 5.72점으로 감소).

〈표 4-16〉 사회적 지지 수준

(단위: 점, %)

구분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	2021	2017	2021
평균 점수	5.94	5.67	5.92	5.72
전혀 받고 있지 않음 (매우 적음) ↕	①	1.13	0.78	0.9
	②	1.06	0.68	2.26
	③	2.46	1.97	3.45
	④	5.09	5.3	6.27
	⑤	5.92	5.71	5.33
보통	⑥	25.72	37.17	22.17
↕ 매우 많이 받고 있음 (매우 많음)	⑦	19.71	19.06	17.98
	⑧	18.39	16.42	19.55
	⑨	13.11	9.05	14.75
	⑩	5.14	2.64	4.68
	⑩	2.28	1.21	2.65
χ^2 (유의도)	166.34***		82.30***	

주: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감정과 정보를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적 지지 수준은 2017년과 2021년 모두 청년층이 가장 높고 중장년층, 노년층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상용직이 가장 높고 임시·일용직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7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지역별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집단별 사회적 지지 수준

(단위: 점)

구분		2017	F값(유의도)	2021	F값(유의도)
성별	남	5.84	4.76*	5.61	3.12
	여	6.02		5.78	
연령층	청년층	6.37	66.05***	6.08	66.59***
	중장년층	5.85		5.63	
	노년층	5.36		5.25	
지역	대도시	5.93	1.12	5.71	1.38
	중소도시	5.94		5.66	
	농어촌	5.87		5.82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6.21	25.24***	5.91	20.92***
	임시/일용직	5.47		5.36	
	고용주/자영자	5.86		5.67	
	실업자/비경활	5.86		5.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66	204.33***	4.72	159.5***
	중하층	5.77		5.49	
	중간층	6.37		6.05	
	중상(상)층	6.77		6.69	

주 :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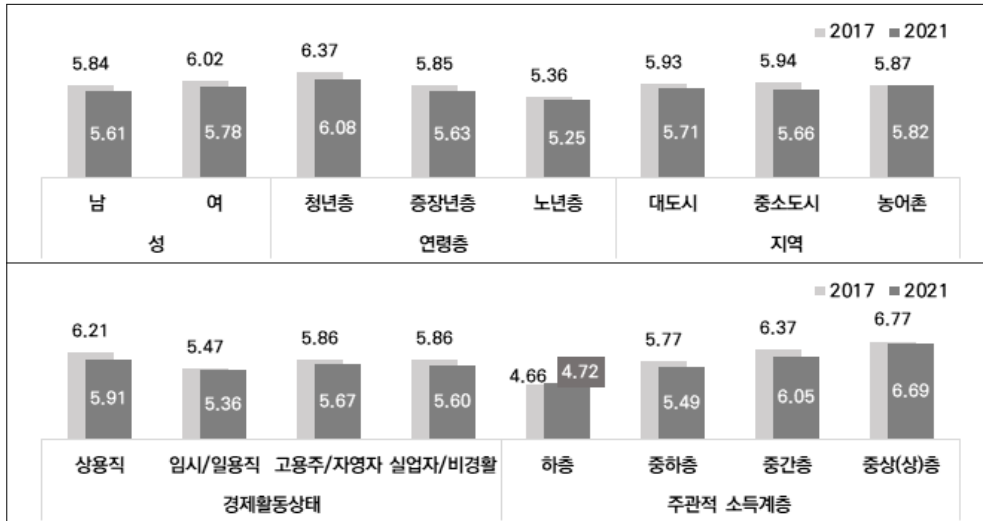
2) 사회적 지지 2개 문항의 응답 '㉠전혀 받고 있지 않다(매우 적음)~'㉡보통'~'㉢매우 많이 받고 있음(매우 많음)'의 평균을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4-13] 집단별 사회적 지지 수준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불평등 인식과 신뢰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하에서는 불평등 인식과 신뢰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위험인식은 앞서 살펴본 7가지 위험 영역 중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와 관련이 깊은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4가지 영역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먼저,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의 평균값을 통해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평등 인식의 정도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2017년 전반적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021년에는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위험인식을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위험인식, 생애주기 관련 위험인식,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 모두에서 불평등 인식은 2017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시기에는 불평등 인식이 증가하고, 이것이 위험인식 수준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시 사회구성원의 불안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기 이전부터 불평등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한편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사회적 지지 수준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인신뢰와 사회신뢰는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사회적 지지 정도는 위험인식에 부(-)적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는 2017년 전반적 위험인식에 부(-)적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017년에는 대인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1년에는 대인신뢰 수준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역별 위험인식 중 건강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사회 전체에 공유되어 위험인식을 낮추는 대인신뢰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인신뢰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에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신뢰는 개인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데, 전반적인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에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관련 위험에는 2021년에 부(-)적 방향으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는 2017년에만 부(-)적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대인신뢰의 영향력에 비해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신뢰보다는 대인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대인 및 사회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와 위험의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는 다르게 사회적 지지 정도는 대체로 위험인식에 2017년과 2021년 모두 부(-)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일상적인 고민 및 감정, 정보를 나누는 정도가 높고, 그러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위험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건강 관련 위험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건강 관련 위험인식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강하고 넓게 공유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과 2021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7년에는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발견된다. 연령층과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가 바로 그 요인이다. 먼저 연령층은 2017년에 생애주기와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은 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 생애주기 관련 위험인식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일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2021년에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은 청년층보다 노년층일 경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 역시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관련 위험인식은 특히 노년층일 경우 주된 일자리로부터 퇴직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정해식 외, 2017; 이재완, 2018), 2021년 코로나19가 경제적

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인식이 개인의 위험 노출과 무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 관련 위험과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혼인상태는 201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2021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혼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위도 신경 쓰게 됨으로써 미혼자보다 재난 또는 사회 위험인식을 더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는데 (Knuth et al., 2015; 조광덕, 김중배, 2018),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혼인상태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상태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2017년에 건강 관련 위험은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실업자/비경활 상태인 경우 높게 나타났지만, 2021년에는 경제활동상태별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인 및 사회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201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2021년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험인식의 수준이 상승하였고,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만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성별과 거주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요인은 시기와 무관하게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인식 수준이 2017년과 2021년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 위험인식뿐만 아니라,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관련 위험 모두 여성은 남성보다 위험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2017년 경제생활 관련 위험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실업률 상승 및 경기침체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주 지역과 주관적 소득계층 요인도 시기와 무관하게 위험인식에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위험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주관적 소득계층 요인은 하층과 비교하였을 때 중간층 이상부터 위험인식이 낮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 하층과 중하층은 위험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표 4-18〉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전반적 위험

구분		전반적 위험	
		2017년 (b/se)	2021년 (b/se)
성 (남성=0)		0.090*** (0.025)	0.096*** (0.024)
연령층 (청년층=0) (34세 이하)	중장년층 (35~64세)	0.007 (0.035)	0.013 (0.037)
	노년층 (65세 이상)	-0.100 (0.052)	0.018 (0.054)
혼인상태 (유배우=0)	별거·사별·이혼	-0.016 (0.041)	-0.063 (0.041)
	미혼	-0.148*** (0.036)	-0.085* (0.037)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023 (0.040)	0.015 (0.045)
	대졸 이상	0.067 (0.043)	0.049 (0.04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0.129** (0.041)	0.032 (0.040)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105** (0.033)	-0.052 (0.034)
	실업자/비경활	0.117*** (0.031)	-0.004 (0.0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0)	중하층	-0.029 (0.038)	0.011 (0.038)
	중간층	-0.182*** (0.039)	-0.093* (0.039)
	중상층(상층)	-0.317*** (0.058)	-0.127* (0.062)
지역 (농어촌=0)	대도시	0.171*** (0.041)	0.207*** (0.044)
	중소도시	0.270*** (0.040)	0.258*** (0.043)
불평등 인식		0.024 (0.017)	0.153*** (0.017)
신뢰	대인신뢰	-0.063*** (0.017)	-0.026 (0.016)
	사회신뢰	-0.008 (0.007)	-0.006 (0.007)
사회적 지지		-0.039*** (0.007)	-0.033*** (0.008)
상수		3.433*** (0.113)	3.360*** (0.119)
N		3838	3922
Adj R ²		0.071	0.056

주: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4-19〉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2: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구분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2017년 (b/se)	2021년 (b/se)	2017년 (b/se)	2021년 (b/se)
성 (남성=0)		0.096*** (0.030)	0.114*** (0.033)	0.058* (0.027)	0.069* (0.031)
연령층 (청년층=0) (34세 이하)	중장년층 (35~64세)	0.017 (0.042)	-0.020 (0.051)	0.119** (0.039)	0.066 (0.048)
	노년층 (65세 이상)	0.020 (0.062)	0.040 (0.076)	0.081 (0.058)	0.129 (0.071)
혼인상태 (유배우=0)	별거·사별·이혼	-0.056 (0.049)	-0.121* (0.057)	0.029 (0.046)	-0.087 (0.053)
	미혼	-0.173*** (0.043)	-0.181*** (0.051)	-0.178*** (0.040)	-0.070 (0.047)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014 (0.048)	-0.053 (0.062)	-0.020 (0.044)	0.078 (0.058)
	대졸 이상	0.033 (0.051)	-0.026 (0.067)	0.031 (0.048)	0.132* (0.06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0.157** (0.049)	0.044 (0.056)	0.096* (0.046)	0.031 (0.052)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125** (0.040)	-0.076 (0.047)	0.091* (0.037)	-0.049 (0.044)
	실업자/비경활	0.130*** (0.037)	-0.045 (0.042)	0.082* (0.034)	-0.005 (0.0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0)	중하층	-0.060 (0.045)	0.010 (0.052)	-0.071 (0.042)	0.034 (0.049)
	중간층	-0.195*** (0.046)	-0.157** (0.054)	-0.228*** (0.043)	-0.006 (0.051)
	중상층(상층)	-0.311*** (0.069)	-0.397*** (0.086)	-0.374*** (0.064)	-0.060 (0.080)
지역 (농어촌=0)	대도시	0.118* (0.049)	0.224*** (0.061)	0.144** (0.045)	0.200*** (0.057)
	중소도시	0.139** (0.048)	0.213*** (0.060)	0.262*** (0.044)	0.276*** (0.056)
불평등 인식		0.004 (0.020)	0.167*** (0.024)	0.028 (0.019)	0.177*** (0.022)
신뢰	대인신뢰	-0.069** (0.020)	0.016 (0.023)	-0.073*** (0.018)	-0.066** (0.021)
	사회신뢰	0.003 (0.008)	-0.019* (0.009)	0.007 (0.008)	0.003 (0.009)
사회적 지지		-0.035*** (0.009)	-0.004 (0.011)	-0.048*** (0.008)	-0.040*** (0.011)
상수		3.522*** (0.135)	3.433*** (0.166)	3.341*** (0.125)	3.219*** (0.155)
N		3838	3922	3838	3922
Adj R ²		0.045	0.039	0.084	0.041

주: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4-20〉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3: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구분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2017년 (b/se)	2021년 (b/se)	2017년 (b/se)	2021년 (b/se)
성 (남성=0)		0.192*** (0.033)	0.135*** (0.030)	0.016 (0.030)	0.066* (0.030)
연령층 (청년층=0) (34세 이하)	중장년층 (35~64세)	-0.077 (0.047)	-0.005 (0.047)	-0.032 (0.042)	0.010 (0.045)
	노년층 (65세 이상)	-0.227*** (0.070)	-0.058 (0.069)	-0.273*** (0.062)	-0.038 (0.067)
혼인상태 (유배우=0)	별거·사별·이혼	-0.055 (0.055)	-0.063 (0.052)	0.018 (0.049)	0.020 (0.050)
	미혼	-0.142** (0.048)	-0.072 (0.046)	-0.100* (0.043)	-0.016 (0.045)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067 (0.054)	-0.024 (0.057)	0.059 (0.048)	0.060 (0.055)
	대졸 이상	0.097 (0.058)	0.003 (0.061)	0.105* (0.052)	0.086 (0.060)
경제활동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0.146** (0.056)	-0.019 (0.051)	0.117* (0.050)	0.071 (0.050)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117** (0.045)	-0.124** (0.042)	0.087* (0.040)	0.039 (0.041)
	실업자/비경활	0.165*** (0.041)	-0.018 (0.038)	0.090* (0.037)	0.053 (0.03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0)	중하층	0.096 (0.050)	0.019 (0.048)	-0.081 (0.045)	-0.018 (0.046)
	중간층	0.007 (0.052)	-0.015 (0.049)	-0.313*** (0.047)	-0.193*** (0.048)
	중상층(상층)	-0.080 (0.078)	0.105 (0.078)	-0.502*** (0.070)	-0.157* (0.076)
지역구분2 (농어촌=0)	대도시	0.117* (0.055)	0.154** (0.055)	0.304*** (0.049)	0.248*** (0.054)
	중소도시	0.282*** (0.282)	0.268*** (0.055)	0.397*** (0.048)	0.276*** (0.053)
불평등 인식		0.061** (0.023)	0.136*** (0.022)	0.002 (0.002)	0.134*** (0.021)
신뢰	대인신뢰	-0.035 (0.022)	-0.022 (0.021)	-0.076*** (-0.076)	-0.030 (0.020)
	사회신뢰	-0.024* (0.009)	0.004 (0.009)	-0.017* (-0.017)	-0.010 (0.008)
사회적 지지		-0.026* (0.010)	-0.035*** (0.010)	-0.048*** (-0.048)	-0.054*** (0.010)
상수		3.005*** (0.152)	3.111*** (0.151)	3.865*** (0.136)	3.679*** (0.147)
N		3838	3922	3838	3922
Adj R ²		0.042	0.032	0.080	0.048

주: *p<0.05, **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앞선 분석에서 2017년에 불평등 인식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가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반대로 신뢰, 특히 대인신뢰는 대체로 2017년에는 위험인식에 부(-)적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2021년에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래에서는 2017년에 조사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어 제외하였던 정부신뢰 변수를 추가하고, 대인 및 사회신뢰, 그리고 사회적 지지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에 불평등 인식은 전반적인 위험인식에 모든 모형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신뢰나 사회적 지지 등이 통제되었을 때에도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위험인식의 관리에 불평등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인 및 사회신뢰는 다른 주관적 인식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각각의 모형(2, 3)에서는 전반적 위험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신뢰와 사회적 지지 변수를 모두 통제한 모형(6)에서는 설명력을 잃는다. 하지만 정부신뢰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다른 주관적 인식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모형(4)과 통제된 모형(6) 모두에서 전반적 위험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대인 및 사회신뢰 수준도 위험인식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대인 및 사회신뢰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위기 시 위험인식을 관리함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역시 다른 주관적 인식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5)와 통제된 모형(6)에서도 위험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감에는 긍정적으로, 우울 및 스트레스 등에는 부정적으로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물질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는 믿음은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4-21〉 2021년 전반적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구분		(1) 불평등 → 위험인식 (b/se)	(2) 불평등, 대인신뢰 → 위험인식 (b/se)	(3) 불평등, 사회신뢰 → 위험인식 (b/se)	(4) 불평등, 정부신뢰 → 위험인식 (b/se)	(5) 불평등, 사회적 지지 → 위험인식 (b/se)	(6) 불평등, 신뢰, 사회적 지지 → 위험인식 (b/se)
성 (남성=0)		0.088*** (0.024)	0.028*** (0.024)	0.088*** (0.024)	0.087*** (0.024)	0.096*** (0.024)	0.094*** (0.024)
연령층 (청년층=0) (34세 이하)	중장년층 (35~64세)	0.031 (0.037)	0.028 (0.037)	0.031 (0.037)	0.048 (0.037)	0.013 (0.037)	0.033 (0.038)
	노년층 (65세 이상)	0.038 (0.054)	0.035 (0.054)	0.034 (0.054)	0.033 (0.055)	0.020 (0.054)	0.020 (0.056)
혼인상태 (유배우=0)	별거사별이혼	-0.048 (0.041)	-0.050 (0.041)	-0.050 (0.041)	-0.033 (0.042)	-0.062 (0.041)	-0.043 (0.042)
	미혼	-0.080* (0.037)	-0.079* (0.037)	-0.081* (0.037)	-0.058 (0.037)	-0.085* (0.037)	-0.063 (0.037)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008 (0.045)	0.009 (0.045)	0.008 (0.045)	-0.009 (0.046)	0.015 (0.045)	-0.001 (0.046)
	대졸 이상	0.039 (0.049)	0.040 (0.049)	0.038 (0.049)	0.021 (0.049)	0.049 (0.049)	0.031 (0.049)
경제활동상태 (상용직=0)	임시일용직	0.040 (0.041)	0.037 (0.041)	0.041 (0.041)	0.039 (0.041)	0.033 (0.040)	0.032 (0.041)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0.050 (0.034)	-0.053 (0.034)	-0.053 (0.034)	-0.077* (0.035)	-0.050 (0.034)	-0.077* (0.034)
	실업자/비경활	0.005 (0.030)	0.004 (0.030)	0.003 (0.030)	0.005 (0.031)	-0.003 (0.030)	-0.002 (0.03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0)	중하층	-0.012 (0.037)	-0.008 (0.037)	-0.009 (0.038)	-0.008 (0.038)	0.009 (0.038)	0.011 (0.039)
	중간층	-0.135*** (0.038)	-0.129*** (0.038)	-0.127*** (0.038)	-0.014** (0.039)	-0.097* (0.038)*	-0.083* (0.040)
	중상층(상층)	-0.195*** (0.060)	-0.186** (0.061)	-0.186** (0.061)	-0.161** (0.061)	-0.133 (0.062)	-0.108 (0.063)
지역구분2 (농어촌=0)	대도시	0.223*** (0.044)	0.217*** (0.044)	0.214*** (0.044)	0.168*** (0.044)	0.214*** (0.044)	0.163*** (0.044)
	중소도시	0.269*** (0.043)	0.269*** (0.043)	0.262*** (0.043)	0.225*** (0.044)	0.260*** (0.043)	0.220*** (0.044)
불평등 인식		0.165*** (0.017)	0.155*** (0.017)	0.160*** (0.017)	0.148*** (0.017)	0.162*** (0.017)	0.145*** (0.017)
신뢰	대인신뢰		-0.037* (0.016)				-0.008 (0.017)
	사회신뢰			-0.014* (0.007)			0.007 (0.007)
	정부신뢰				-0.190*** (0.021)		-0.188*** (0.022)
사회적 지지						-0.036*** (0.008)	-0.031*** (0.008)
상수		2.837*** (0.102)	2.964*** (0.115)	2.932 (0.112)	3.233*** (0.111)	3.044*** (0.111)	3.389*** (0.129)
N		3922	3922	3922	3922	3922	3922
R ²		0.055	0.056	0.056	0.077	0.060	0.080

주: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요약 및 소결

이 장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관적인 인식 요인으로 불평등 인식, 신뢰(대인, 사회, 정부),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 보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위험인식과 관련 설명 요인들의 수준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러한 변화가 영향요인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변수는 2017년과 2021년, 4가지(건강, 생애주기, 사회 및 경제생활 관련) 위험 영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경제생활 관련 위험 제외).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Gustafson, 1998; Byrnes, Miller, & Schafer, 1999; 이승훈, 최수정, 2009; 김수아, 임동균, 2016; 조광덕, 김중백, 2018)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연령이나 교육수준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 영역 등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나는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여성은 동일한 위험이라도 남성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Olveda et al., 2004)고 설명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험 지위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경제활동상태는 2017년에 전반적으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고용주/자영자, 실업자/비경활인 경우 위험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인 2021년에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직 역시 사회경제적 위기 시 위험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 및 위험인식의 관리가 모든 계층에 두루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주관적 소득계층은 위험 영역에 따라 위험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건강 관련 위험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은 2017년과 2021년 모두 하층보다 중간층 이상에서 위험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소득계층별 차이가 확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위험 관리 및 예방 지원이 경제생활 관련 위험(실업, 빈곤, 주택 가격 및 전세금 불안, 금융 불안, 경기 침체 등)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위험(전염병, 정신건강, 성인병, 먹거리 문제 등) 영역에서도 체감도 높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인식에 대한 소득계층별 영향이 하층보다 중간층 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험인식 관리를 위해서는 중하층을 포함하여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조작적 개념이 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산층 귀속의식이 축소되고 이를 서민의식이 대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한 연구(조권중, 최지원, 2016)는 하층과 중하층의 위험인식이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넷째, 위험인식의 주관적 영향요인으로 불평등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불평등 인식은 사회생활 관련 위험인식을 제외한, 건강, 생애주기,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 2017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는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전반적 위험인식 요인(〈표 4-21〉)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든 모형에서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위험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자본의 부(-)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인식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상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 시 위험인식의 관리에 불평등 인식이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조광덕 외(2018)는 낮은 공정성은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져오고, 이는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불평등 인식은 2017년에 비해 2021년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표 4-8〉),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불평등 인식 수준을 급격히 증가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잠재되어 있던 영향력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인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사회경제적 위기 전 예방 차원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소득격차와 같은 실제적인 결과적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공정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위험인식의 관리를 위해 신뢰수준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대인신뢰와 사회신뢰는 위험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신뢰와 사회적 지지 수준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위기 시, 위험인식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과 개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신뢰를 연구한 김태심 외(2021)는 재난시기에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두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재난시기에 시민들은 비재난시기보다 정부의 대응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정부신뢰에 반영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시민들은 개인과 주변의 피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정부신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위기 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고, 위험인식을 낮출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은 소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은 오히려 백이 위험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도 강조한 바 있다. 소통은 신뢰와 협력,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하는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겨레, 2014.5.15.).

한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행복감 등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울감 등의 부정적 인식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ener, 1984; 정해식 외, 2017; 김성아 외, 2019; 손주희 외, 2018). 이장의 분석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위기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모든 유형의 위험인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서 및 물질적 도움을 받는 정도 또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인식 수준의 관리를 위해서도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례로 중고령자의 정서적 지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능기부, 노노케어 등의 프로그램 활성화, 가족기능 향상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다(임안나, 박영숙, 2017).



제5장

코로나19 전후 신뢰·차별 인식의 변화

- 제1절 들어가며
- 제2절 연구 방법
- 제3절 분석 결과
-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 5 장 코로나19 전후 신뢰·차별 인식의 변화

제1절 들어가며

팬데믹 시대에 혐오와 차별은 오늘날 전 지구적인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Miller(2018)는 한 국가의 불안정한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은 본인의 이익이나 안전에 더욱 집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들은 평소 취약한 지위에 놓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는데, 즉 사람들의 공포,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주민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등으로 감정적으로 배출한다(Miller, 2018).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인간은 건강에 대한 단순한 공포심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수자 혹은 취약한 자에 대한 차별 혹은 혐오를 표출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인터넷상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혐오 표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신뢰 역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즉,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강한 신뢰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낮은 신뢰는 오히려 위기 극복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실제로 팬데믹 시기에 정부 혹은 공공영역의 신뢰 수준은 정부의 방역지침의 효과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Goldfinch, Taplin, & Gauld, 2021; Gustavsen, Røiseland, & Pierre, 2017). 미국의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는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이는 미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14개국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Devlin & Connaughton, 2020.08.27.).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9년에 비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데(Goldfinch, Gauld, & Herbison, 2009; Goldfinch, Taplin, & Gauld, 2021), 이는 양국의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Goldfinch, Taplin, & Gauld, 2021).

많은 선행연구들은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 그리고 신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외 여러 연구에서 아시아 출신 혹은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낙인과 편견 그리고

인종차별 등과 같은 사례가 다뤄진 바 있다(Dhanani & Franz, 2020; He, He, Zhou, Nie, & He, 2020). 국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움과 국내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경험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엠디 콜람 랍바니, 김경학, 2021; 장이츠, 김민아, 2021). 그렇지만 소수의 국내 연구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거나, 질적 연구로 살펴봄으로써, 이주민 혹은 소수자 전체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으로, 신뢰와 관련된 연구로는, 정부 및 정치신뢰에 주목한 바 있다(김태심, 조영호, 2021; 오현진, 2021; 황선재, 길정아, 최슬기, 2021). 또한,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혹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다(노현웅, 21.01.03). 그렇지만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신뢰의 양상 및 변화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코로나19 전후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진단하고, 각 단계 현황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작업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시대에 신뢰와 차별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신뢰, 관련 정책, 정보제공 그리고 차별 인식과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신뢰와 차별과 관련한 문항들은 국내외에서 활용한 기존 문항들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본 조사와의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신뢰와 차별 인식에 대한 추세를 파악하는데는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뢰가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2021년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전국의 성인 남녀 3,923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개인 단위로 응답하였다.

2. 측정 변수

신뢰와 차별 문항으로는 <표 5-1>과 같다.

우선, 사회신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정부신뢰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인신뢰는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신뢰는 정부의 방역 조치,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기 시 정보신뢰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수준을 묻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과 경험에 관련한 문항으로는, ‘귀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차별이나 혐오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는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완치된 사람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여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종속변수로는 사회통합 인식에 관해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지역, 주거점유 형태, 학력, 소득분위를 활용하였다.

〈표 5-1〉 신뢰와 차별 관련 문항

구분	변수		
신뢰	사회신뢰	문2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0 - 매우 믿을 수 있다 10
	정부신뢰	문28)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7) 행정부 - (8) 입법부 - (9) 사법부	매우 신뢰한다 1 -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3 - 모르겠다 9
	대인신뢰	문29)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매우 동의한다 1 - 매우 반대한다 5
코로나 19와 신뢰	코로나19 평가	문9)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 3)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매우 적절하다 1 - 매우 부적절하다 5
	위기 시, 정보신뢰	문10) 귀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코로나 19와 차별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인식과 경험	문13) 귀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1 - 자주 생각했다 4
		문14)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1 - 없다 2 순위) 여성 1 기타 등등
		문15)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완치된 사람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모르겠다 9
종속 변수	사회통합 인식	문2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0 - 매우 믿을 수 있다 10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 연령, 소득, 지역, 학력, 경제활동 상태, 주거 유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와 신뢰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정책 및 관련 정보신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국외 조사의 유사 문항과 비교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와 차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조사 결과와도 비교할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 차별과 사회통합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떤 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신뢰와 차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신뢰가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차별 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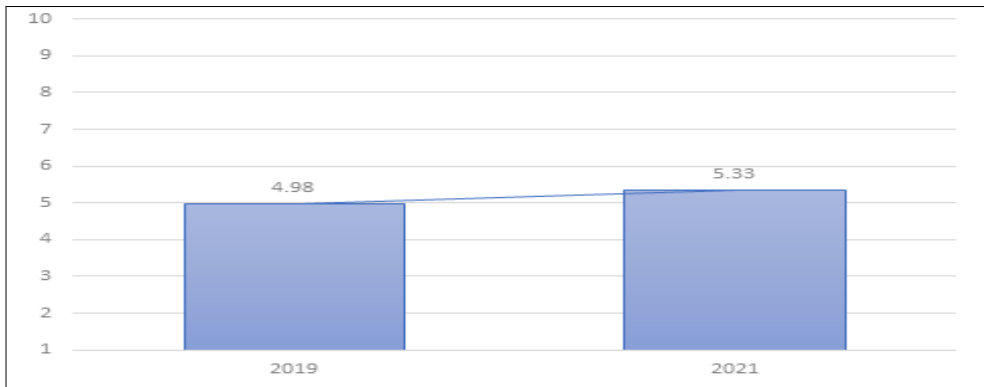
제3절 분석결과

1. 코로나19와 신뢰

코로나19와 신뢰에 대해서는, 사회신뢰, 정부신뢰 그리고 대인신뢰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조사가 시행된 2021년 분석결과와 더불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의 신뢰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98점에서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1년에는 5.33점으로 상승하였다(그림 5-1).

[그림 5-1] 코로나19 전후 사회신뢰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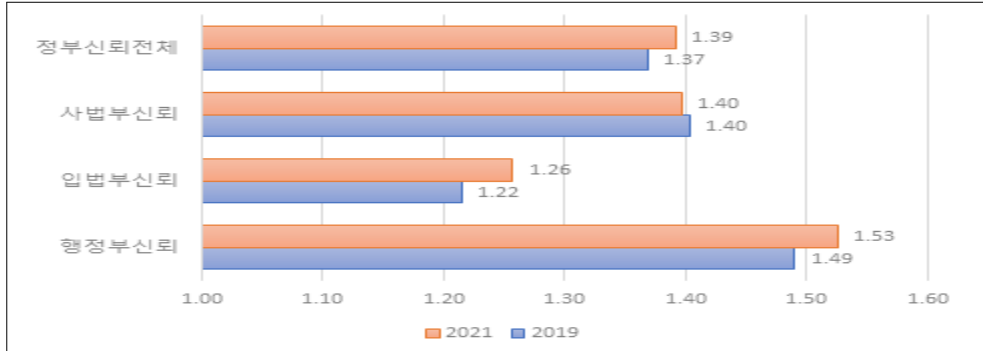
주: 0 전혀 믿을 수 없다 - 10점 매우 믿을 수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정부신뢰 전반에 대해서는 2019년 1.37에서 2021년 1.39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각각의 신뢰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법부 신뢰는 2021년과 2019년 모두 1.40점으로 동일하였다(그림 5-2). 반면, 입법부에 대한 신뢰는 2019년 1.22점에서 2021년 1.26점으로, 행정부신뢰는 2019년 1.49점에서 2021년 1.5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5-2).

[그림 5-2] 코로나19 전후 정부신뢰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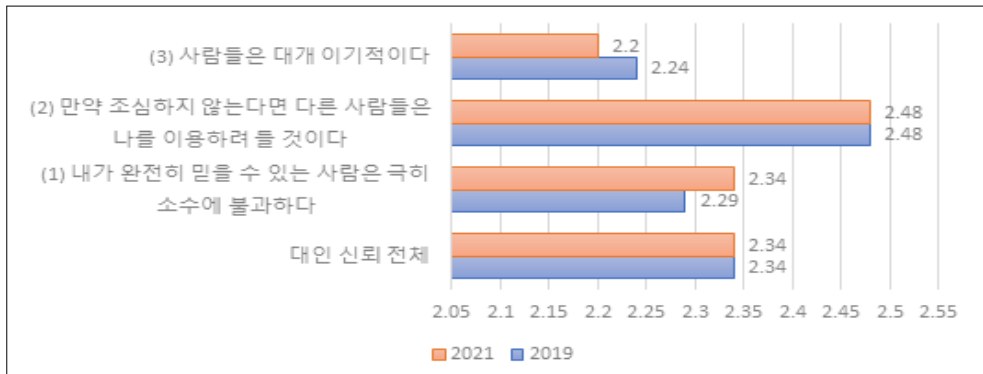


주: 1) 해당 문항 척도는 4점 척도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음을 의미함.
 2) 평균 점수는 '①매우 신뢰한다 ~ 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를 역코딩 하였으며, '⑨모르겠다' 응답은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코로나19 전후 대인신뢰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대인신뢰 전반에 대해서는 2019년과 2021년 차이는 없었다(그림 5-3). 대인신뢰 각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라는 응답은 2019년 2.24점에서 2021년 2.2점으로 미미하게나마 감소했으나,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물음에는 2019년 2.29점에서 2021년 2.3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5-3] 코로나19 전후 대인신뢰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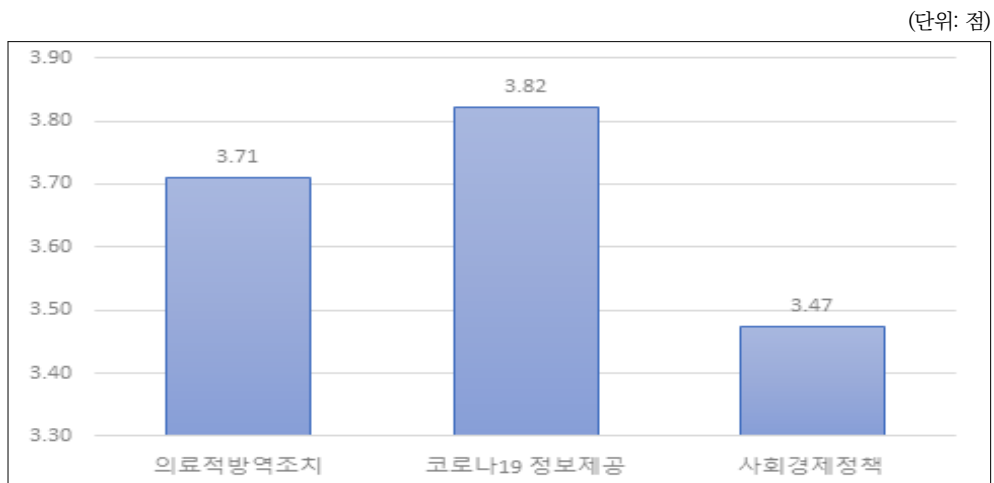
주: 해당 문항 척도는 5점 척도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신뢰가 낮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코로나19와 정부정책 및 관련 정보신뢰

가. 코로나19 관련 정책평가

다음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와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림 5-4]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가 3.82점으로 가장 좋았고, 정부의 의료적 방역조치가 3.71점으로 2위 그리고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이 3.47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5-4]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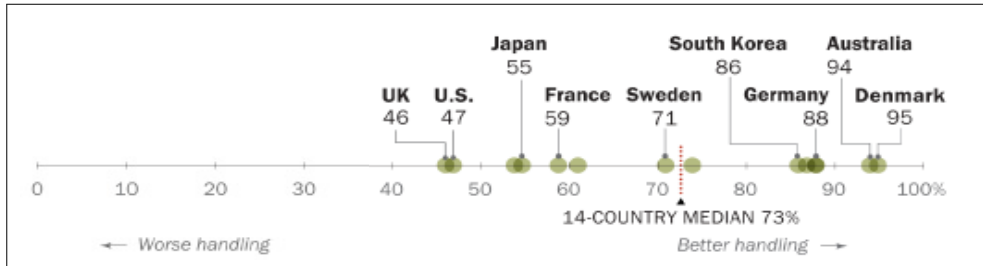
주: 1) 해당 문항 척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함.

2) 평균 점수는 '①매우 높다 ~ ⑤매우 낮다'를 역코딩 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re)가 2020년 발간한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 14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Devlin & Connaughton, 2020.08.27.). 그 결과는 [그림 5-5]와 같다. 구체적으로, 덴마크, 호주, 독일 응답자는 자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은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의 자국 정부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응답자는 자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그림 5-5] 자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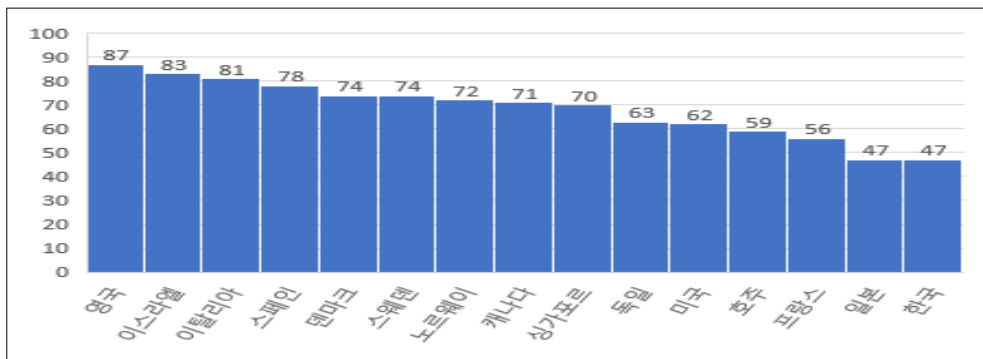


자료: Delvin, K and Connaughton, A. (2020.08.27.) Most Approve of National Response to 코로나19 in 14 Advanced Econom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8/27/most-approve-of-national-response-to-코로나19-in-14-advanced-economies/> 에서 2021.09.24. 인출)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of London)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5개국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5-6]과 같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였다(Imperial College of London, 2021).

[그림 5-6] 각 국별 코로나19 백신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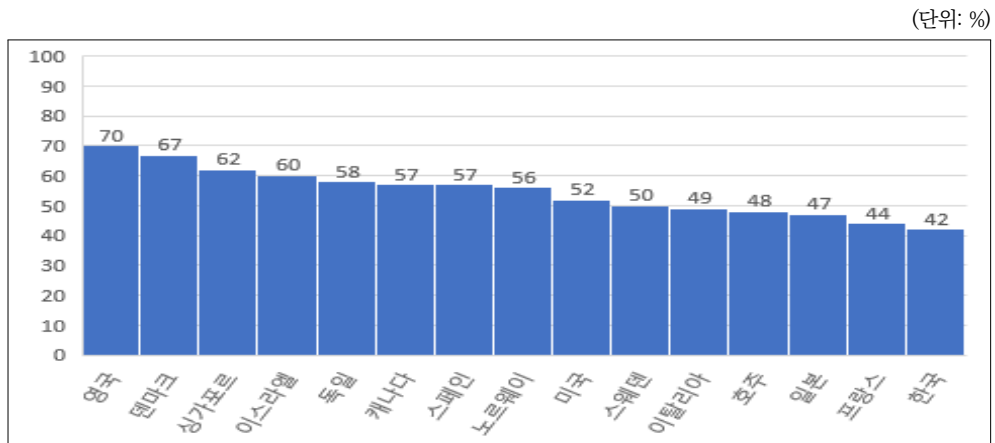


자료: Imperial College of London (2021) GLocal attitudes towards a 코로나19 vaccine. (https://www.imperial.ac.uk/media/imperial-college/institute-of-global-health-innovation/GlobalVaccineInsights_ICL-YouGov-코로나19-Behaviour-Tracker_20210520_v2.pdf 에서 2021.09.24. 인출하여 저자 편집.

1)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다.

또한, 자국의 보건당국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5-7]과 같다. 영국 응답자들은 자국의 보건당국이 효과적인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으나, 한국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그림 5-7] 보건당국이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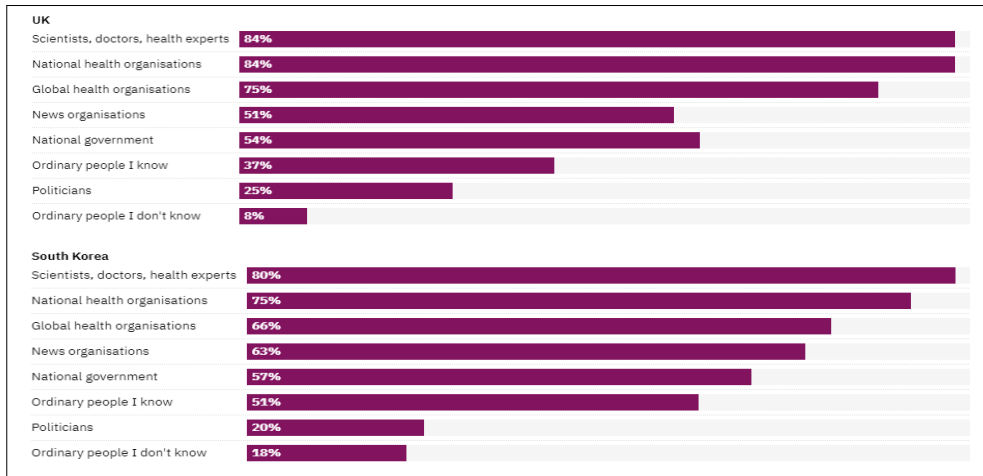
자료: Imperial College of London (2021) Global attitudes towards a 코로나19 vaccine.

https://www.imperial.ac.uk/media/imperial-college/institute-of-global-health-innovation/GlobalVaccineInsights_ICL-YouGov-코로나19-Behaviour-Tracker_20210520_v2.pdf 에서 2021.09.24. 인출하여 저자 편집.

위의 두 결과를 보며,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본 조사가 실시된 2021년 3월~5월은, 한국과 영국의 백신 접종 진행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영국은 2020년 12월부터 노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1). 영국에서는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더나 백신이 제공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1). 이에 따라, 2021년 3월 당시 약 2천 7백만 명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는 성인 인구의 약 절반 이상에 달하였다(BBC, 2021.03.21.). 반면, 한국 상황은 이와 달랐다. 2021년 2월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가 처음으로 접종 대상이 되었고, 4월이 되어서야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조사를 시행한 시점에 양국의 상황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진행된 조사는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총 8개국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을 비교하였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결과만을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 5-8]을 보면, 한국과 영국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자, 의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코로나19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양국 모두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국가보건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2위를 차지하였고, 국제보건기구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모두 3위였다. 흥미로운 점은 뉴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은 63%였으나, 영국은 51%로,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뉴스 언론사로부터 제공되는 코로나19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한국인들은 지인들로부터 얻은 코로나19 정보를 신뢰하는 수준이 51%로 영국의 37%보다 무려 14%포인트 높았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코로나19 정보를 신뢰하는 비율은 18%로 영국의 8%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았다. 즉, 한국인들은 주변인들로부터 얻은 코로나19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영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5-8] 영국과 한국의 코로나19 정보의 출처에 대한 신뢰 비교



자료: Nielsen, R.K., Schulz, A. and Fletcher, R. (2021) An ongoing infodemic: How people in eight countries access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a year into the pandemic,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ongoing-infodemic-how-people-eight-countries-access-news-and-information-about-coronavirus-year> 에서 2021.10.06. 인출

나. 국가 위기 시, 공공부문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

국가 위기 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물어보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신뢰도는 4점 만점에 2.05점으로 중간 수치로 나왔다. 매우 신뢰한다는 15.8%, 약간 신뢰한다는 64.8%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80.6%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17.9%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6%로 나타났다.

〈표 5-2〉 국가 위기 시 공공부문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신뢰한다	618	15.8
약간 신뢰한다	2,542	64.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701	17.9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62	1.6
전체	3,92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코로나19와 차별

가. 잠재적 차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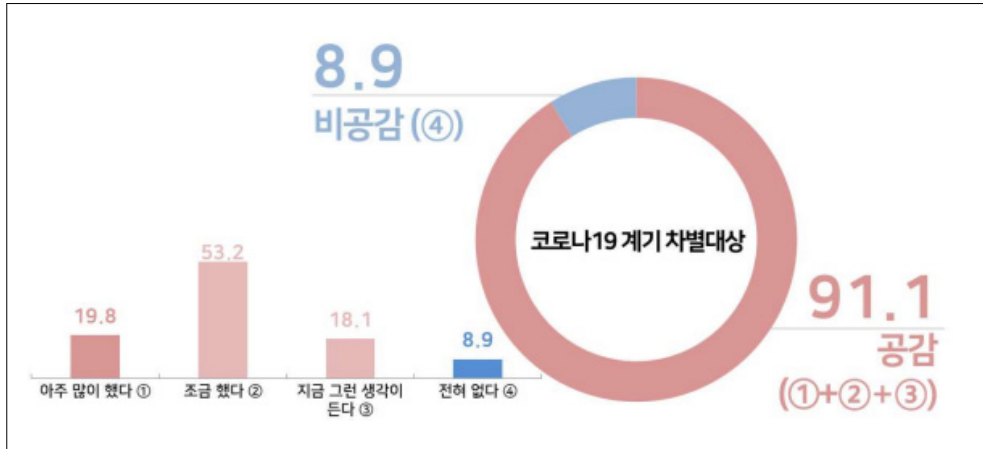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거나, 나도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무려 91.1%가 나도 언젠가 차별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오직 8.9%만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9]).

2021년 수행된 본 조사에서도 유사 질문인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차별대상/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주 생각했다'라는 응답이 4.8%, '가끔 생각했다'가 17.7%, '한두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36.8%, 그리고 '전혀 없다' 응답은 40.7%를 차지하였다([그림 5-10]). 즉, 응답자의 59.3%

이상은 한 번이라도 본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코로나19 계기 차별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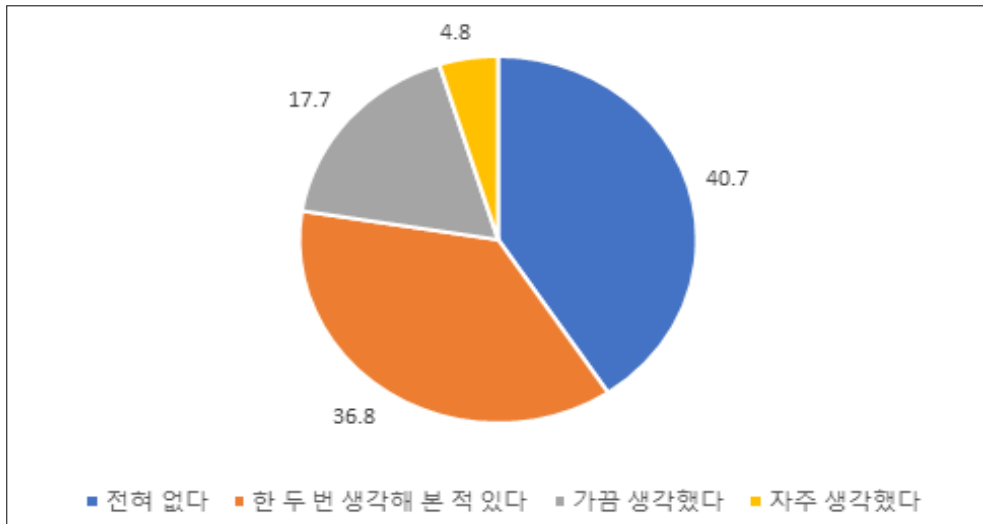
(N: 1,000, 단위: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p.42.
 file:///C:/Users/kihasa/Downloads/2020%EB%85%84%20%EC%B0%A8%EB%B3%84%EC%97%90%20%EB%8C%80%ED%95%9C%20%EA%B5%AD%EB%AF%BC%EC%9D%B8%EC%8B%9D%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pdf 에서 2021.10.06. 인출

[그림 5-10] 코로나19 이후 잠재적 차별 가능성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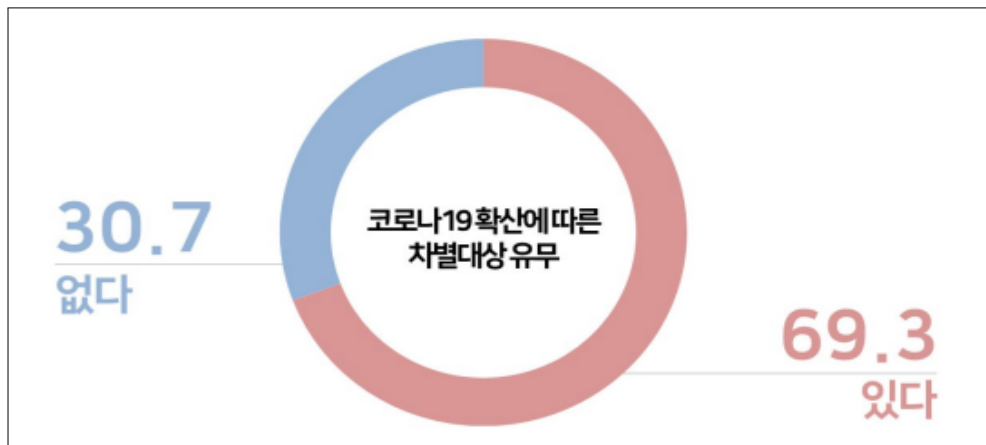
두 조사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람들은 감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에 본인 역시 소수자 집단 혹은 차별대상자처럼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경향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져, 일상이 차츰 회복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의 잠재적 차별 가능성에 관한 생각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나.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혐오 대상

2020년 수행된 국가인권위원회(2020) 연구에서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대상이나 집단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아래 [그림 5-11]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69.3%가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고 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학생과 장애인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차별/혐오의 대상이 있다고 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

[그림 5-1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대상 유무

(N: 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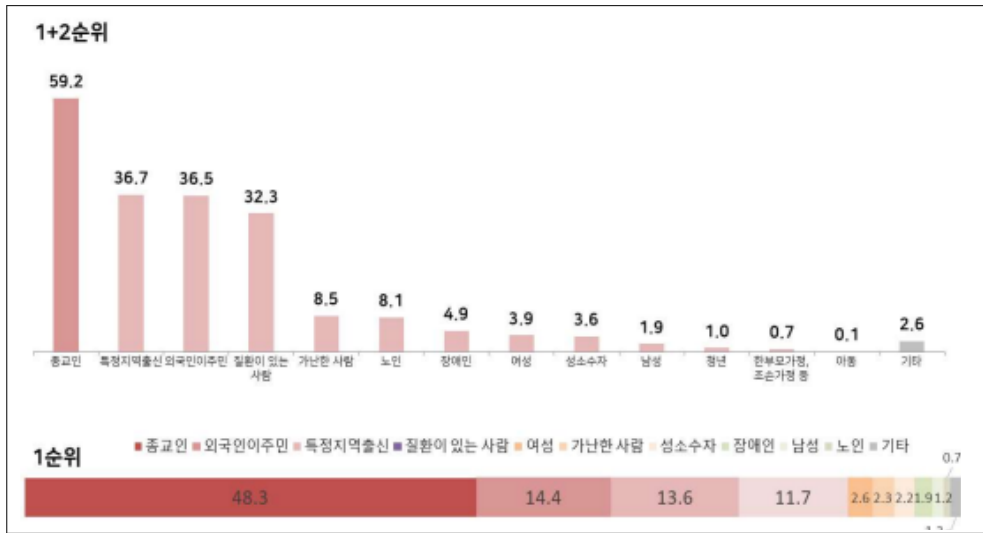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p.39.

file:///C:/Users/kihasa/Downloads/2020%EB%85%84%20%EC%B0%A8%EB%B3%84%EC%97%90%20%EB%8C%80%ED%95%9C%20%EA%B5%AD%EB%AF%BC%EC%9D%B8%EC%8B%9D%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pdf 에서 2021.10.06. 인출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된 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결과는 [그림 5-12]와 같다. 조사 결과, 종교인이 59.2%로 1위를 차지하였고, 특정지역출신이 2위, 외국인/이주민이 3위, 질환이 있는 사람이 4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림 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대상 (복수 응답)

(N: 69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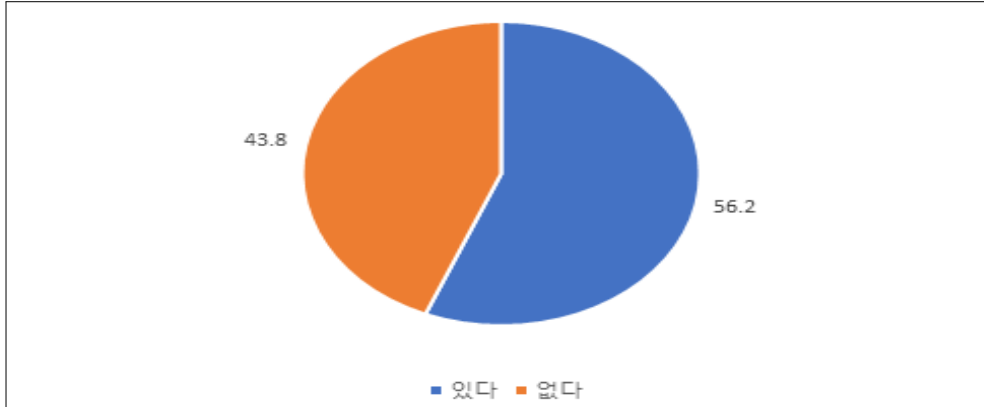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p.40.
 file:///C:/Users/kihasa/Downloads/2020%EB%85%84%20%EC%B0%A8%EB%B3%84%EC%97%90%20%EB%8C%80%ED%95%9C%20%EA%B5%AD%EB%AF%BC%EC%9D%B8%EC%8B%9D%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pdf 에서 2021.10.06. 인출

2021년 수행된 본 조사에서도 위와 유사한 질문,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있다’고 답한 비율이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43.8%였다([그림 5-13]).

[그림 5-13]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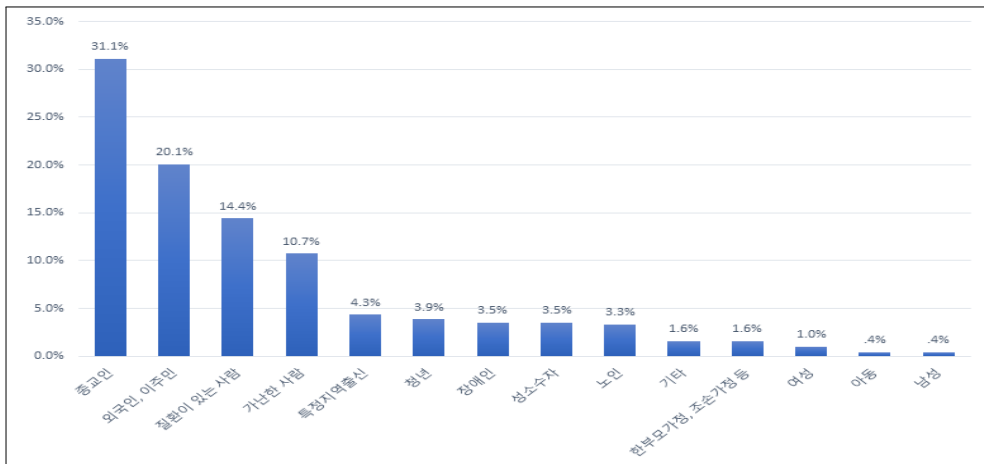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 1순위, 2순위 모두 확인하게 하였다. 그 결과, 종교인이 31.1%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및 이주민이 20.1%로 2위, 질환이 있는 사람이 14.4%로 3위, 가난한 사람이 10.7%로 4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로는 특정지역출신(4.3%), 청년(3.9%), 장애인(3.5%), 성소수자(3.5%), 노인(3.3%), 기타(1.6%), 한부모 및 조손가정(1.6%), 여성(1.0%), 아동(0.4%), 남성(0.4%) 순이었다(그림 5-14).

[그림 5-14]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 (중복 응답)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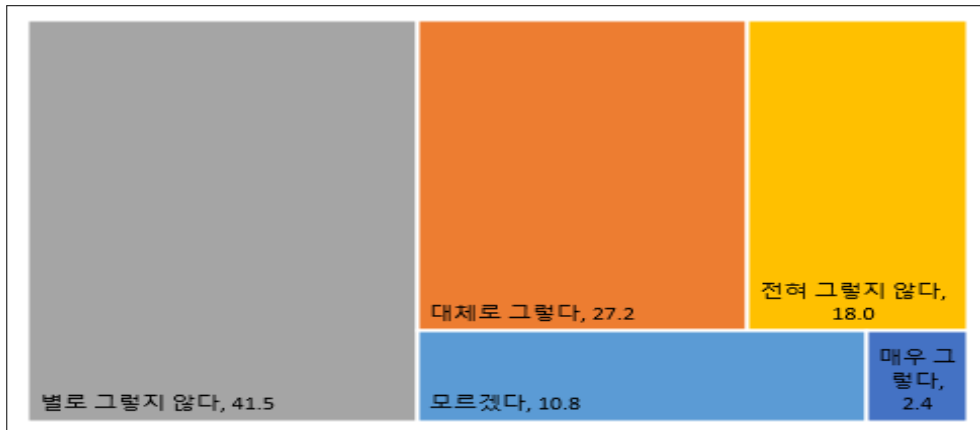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있다는 응답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변에 차별문제가 심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차별/혐오의 대상으로는 종교인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특정 지역 및 특정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종교 집단 내에서 집단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되었기에 이들에 대한 차별/혐오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외국인 및 이주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알 수 없지만, 여러 해외 국가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등이 종종 보도되었고, 국내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장이츠, 김민아, 2021).

다.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완치자 차별대우 인식

본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1.5% 약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대체로 그렇다’가 27.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 ‘모르겠다’가 10.8%,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2.4%를 차지하였다(그림 5-15).

[그림 5-15]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해당 질문은 터키의 인도적 구호단체인 적십자사인 적신월사(Turkish Red Crescent)에서도 16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활용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 완치자/확진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역 주민의 14.9%는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난민 중에서는 5.3%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Turkish Red Crescent Society, 2021, p.32). 즉, 터키 주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관련 낙인이 난민 집단보다 많다고 볼 수 있다(Turkish Red Crescent Society, 2021, p.4).

[그림 5-16] 터키 내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Host population	Refugee	Other	Prefer not to answer
No	921 (24.0%)	1,605 (41.8%)	15 (0.4%)	5 (0.1%)
Yes	573 (14.9%)	205 (5.3%)	4 (0.1%)	
Do not know	137 (3.6%)	124 (3.2%)	1 (0.0%)	4 (0.1%)
To some extent	109 (2.8%)	134 (3.5%)	1 (0.0%)	2 (0.1%)

Figure 16 Likelihood of people to face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COVID-19

자료: Turkish Red Crescent Society (2021)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KAP) - assessment on 코로나19, p.32. file:///C:/Users/kihasa/Downloads/KAP_2_assessment%20report_FINAL.pdf 에서 2021.10.06. 인출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을 받은 집단/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코로나19 완치자/확진자 당사자가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하였고, 코로나19의 심환자가 2위, 노인이 3위, 보건인력 4위, 시리아 난민이 5위, 기타 난민이 6위, 가난한 사람이 7위 등의 순이었다(Turkish Red Crescent Society, 2021, p.32). 노인이 상위권에 언급된 것은, 사람들이 보통 노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Turkish Red Crescent Society, 2021).

[그림 5-17]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을 받은 집단/사람

	Host population	Refugee	Other	Prefer not to answer
Anyone who is or have been infected with coronavirus	427 (41.5%)	157 (15.3%)	3 (0.3%)	0 (0.0%)
Persons suspected with coronavirus	401 (39.0%)	120 (11.7%)	2 (0.2%)	0 (0.0%)
Old people	116 (11.3%)	73 (7.1%)	1 (0.1%)	0 (0.0%)
Health workers	133 (12.9%)	45 (4.4%)	1 (0.1%)	0 (0.0%)
Syrians	53 (5.2%)	52 (5.1%)	0 (0.0%)	1 (0.1%)
Any refugee	53 (5.2%)	41 (4.0%)	0 (0.0%)	1 (0.1%)
Poor people	57 (5.5%)	25 (2.4%)	1 (0.1%)	0 (0.0%)
Those who work outside	63 (6.1%)	15 (1.5%)	0 (0.0%)	0 (0.0%)
Local people	32 (3.1%)	23 (2.2%)	0 (0.0%)	1 (0.1%)
Other	14 (1.4%)	18 (1.8%)	0 (0.0%)	0 (0.0%)

자료: Turkish Red Crescent Society (2021)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KAP) - assessment on 코로나19, p.33, file:///C:/Users/kihasa/Downloads/KAP_2_assessment%20report_FINAL.pdf 에서 2021.10.06. 인출

종합해 보면, 한국과 터키 양국 모두 코로나19 완치자/확진자를 둘러싼 차별 인식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과 터키 모두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본 조사에 활용된 조사도 다른 시점에서 다른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엄밀한 비교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4. 신뢰와 차별 인식 상태의 진단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부신뢰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5-3>과 같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학력, 소득분위,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주거점유형태 그리고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정부신뢰는 19~34세 청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은 정부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정부신뢰가 높은 반면, 고졸 출신은 정부신뢰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의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분위가 정부신뢰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활동 상태는 실업자가 정부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주, 자영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정부신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중상층(상층)의 정부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층의 정부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자가 정부신뢰가 가장 높고, 전세 및 월세가 정부신뢰가 낮았다.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부신뢰는 높은 반면 중소도시 거주자의 정부신뢰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5-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신뢰

구 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도)
전체		3,830	1.39	0.43	
성별	남	1,958	1.38	0.42	-1.155
	여	1,872	1.40	0.44	
연령	19~34세	921	1.43	0.45	4.270*
	35~64세	2,318	1.38	0.42	
	65세 이상	591	1.37	0.43	
학력	중졸 이하	567	1.37	0.44	8.914***
	고졸	1,612	1.36	0.42	
	대졸 이상	1,651	1.43	0.43	
소득 분위	1분위	1,197	1.43	0.44	4.197**
	2분위	360	1.40	0.46	
	3분위	722	1.35	0.41	
	4분위	769	1.37	0.42	
	5분위	782	1.40	0.4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01	1.40	0.42	6.181***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38	1.38	0.45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896	1.35	0.41	
	실업자	200	1.51	0.49	
	비경제활동 인구	995	1.40	0.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15	1.29	0.40	38.100***
	중하층	1,519	1.35	0.40	
	중간층	1,615	1.44	0.45	
	중상층(상층)	181	1.62	0.47	
주거 점유형태	자가	2,711	1.40	0.44	3.407*
	전세	497	1.36	0.41	
	월세	622	1.36	0.41	
지역	대도시	1,365	1.38	0.43	15.898***
	중소도시	1,879	1.37	0.42	
	농어촌	586	1.48	0.44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신뢰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5-4〉와 같다. 그 결과, 연령, 주관적 소득계층, 주거점유형태, 그리고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대인신뢰는 19~3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5~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중상층(상층)의 대인신뢰는 가장 높은 반면, 하층의 대인신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 대인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에 거주하는 이들의 대인신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인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대인신뢰를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5-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신뢰

(단위: %)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도)
전체		3,923	2.34	0.71	
성별	남	1,994	2.33	0.71	-.992
	여	1,929	2.35	0.70	
연령	19~34세	946	2.43	0.73	10.451***
	35~64세	2,364	2.31	0.70	
	65세 이상	613	2.31	0.70	
학력	중졸 이하	587	2.31	0.69	2.416
	고졸	1,655	2.32	0.69	
	대졸 이상	1,681	2.37	0.73	
소득 분위	1분위	1,233	2.35	0.70	.760
	2분위	371	2.32	0.73	
	3분위	738	2.32	0.71	
	4분위	787	2.32	0.69	
	5분위	794	2.36	0.7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6	2.39	0.71	3.629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53	2.30	0.73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911	2.28	0.68	
	실업자	206	2.37	0.72	
	비경제활동인구	1,027	2.34	0.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5	2.18	0.65	22.407***
	중하층	1,546	2.29	0.66	
	중간층	1,656	2.41	0.73	
	중상층(상층)	186	2.55	0.85	
주거 점유형태	자가	2,776	2.36	0.71	6.711**
	전세	507	2.27	0.72	
	월세	640	2.28	0.67	
지역	대도시	1,398	2.29	0.71	6.090**
	중소도시	1,933	2.37	0.70	
	농어촌	592	2.35	0.74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신뢰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5-5>와 같다. 그 결과, 연령, 학력, 소득분위,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주거 점유형태, 그리고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사회신뢰는 19~34세의 청년이 사회신뢰가 높은 반면, 65세 이상 사회신뢰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사회신뢰가 높고, 중졸 이하의 사회신뢰는 저조하였다.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5분위가 사회신뢰가 가장 높은 집단이었고, 1분위의 사회신뢰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사회신뢰가 가장 높은 데 반해,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사회신뢰는 낮은 것으로 보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중상층(상층)의 사회신뢰는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하층의 사회신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주거점유형태로는 자가 및 전세에 거주하는 집단의 사회신뢰가 월세에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사회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신뢰

(단위: %)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도)
전체		3,923	5.33	1.83	
성별	남	1,994	5.33	1.88	.056
	여	1,929	5.33	1.78	
연령	19~34세	946	5.42	1.84	6.067***
	35~64세	2,364	5.35	1.82	
	65세 이상	613	5.13	1.84	
학력	중졸 이하	587	5.14	1.79	9.558***
	고졸	1,655	5.26	1.83	
	대졸 이상	1,681	5.47	1.84	
소득 분위	1분위	666	5.01	1.81	11.955***
	2분위	976	5.26	1.88	
	3분위	702	5.26	1.81	
	4분위	746	5.48	1.78	
	5분위	833	5.61	1.8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6	5.48	1.83	3.674**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53	5.31	1.77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911	5.21	1.87	
	실업자	206	5.33	1.79	
	비경제활동인구	1,027	5.26	1.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5	4.86	1.91	29.082***
	중하층	1,546	5.20	1.78	
	중간층	1,656	5.54	1.80	
	중상층(상층)	186	5.95	1.85	
주거 점유형태	자가	2,776	5.39	1.83	8.523***
	전세	507	5.39	1.83	
	월세	640	5.06	1.83	
지역	대도시	1,398	5.23	1.82	7.232**
	중소도시	1,933	5.34	1.81	
	농어촌	592	5.57	1.92	

주: 1) *p<0.05, **p<0.01, ***p<0.001

2) 카이제곱 값은 건강 포용(만성질환 없고 우울하지 않음)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위기 시 공공부문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5-6〉). 그 결과, 학력, 소득분위,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주거 점유형태 그리고 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과 연령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국가 위기 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정보신뢰는, 대졸 이상이 정보 신뢰가 강하고, 고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의 경우, 5분위가 정보신뢰가

가장 강하였던 반면, 2분위의 신뢰는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실업자가 정보신뢰가 가장 높은 데 반해, 고용자, 자영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정보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중상층(상층)의 정보신뢰가 가장 높은 반면, 하층의 정보신뢰는 낮았다. 주거점유형태에서는 자가일 때 정보신뢰가 가장 높았고, 월세는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들의 정보신뢰가 가장 높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의 정보신뢰는 낮았다.

〈표 5-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정보신뢰

(단위: %)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도)
전체		3,923	2.95	0.63	
성별	남	1,994	2.93	0.65	-1.309
	여	1,929	2.96	0.61	
연령	19~34세	946	2.92	0.60	1.142
	35~64세	2,364	2.96	0.64	
	65세 이상	613	2.95	0.64	
학력	중졸 이하	587	2.94	0.64	11.876***
	고졸	1,655	2.90	0.60	
	대졸 이상	1,681	3.00	0.65	
소득 분위	1분위	666	2.96	0.68	6.224***
	2분위	976	2.89	0.63	
	3분위	702	2.94	0.61	
	4분위	746	2.93	0.60	
	5분위	833	3.03	0.6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6	2.99	0.59	4.30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53	2.93	0.63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911	2.89	0.69	
	실업자	206	3.01	0.66	
	비경제활동인구	1,027	2.94	0.6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35	2.87	0.64	12.216***
	중하층	1,546	2.90	0.62	
	중간층	1,656	3.00	0.62	
	중상층(상층)	186	3.05	0.68	
주거 점유형태	월세	640	2.87	0.65	6.440**
	전세	507	2.94	0.62	
	자가	2,776	2.97	0.63	
지역	대도시	1,398	2.90	0.61	10.316***
	중소도시	1,933	2.95	0.61	
	농어촌	592	3.04	0.71	

주: 1) *p<0.05, **p<0.01, ***p<0.001

2) 카이제곱 값은 건강 포용(만성질환 없고 우울하지 않음)에 대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잠재적 차별 가능성 인식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5-7>과 같다. 그 결과, 연령, 학력, 주관적 소득계층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5~64세가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가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그런 인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잠재적 차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중졸 이하가 잠재적 차별 가능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하층이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가 많으나 중상층(상층)은 그런 인식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5-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잠재적 차별 가능성 인식 분포

(단위: %)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도)
전체		3,923	1.87	0.87	
성별	남	1,994	1.84	0.87	-1.90
	여	1,929	1.89	0.87	
연령	19~34세	946	1.79	0.86	25.033***
	35~64세	2,364	1.94	0.87	
	65세 이상	613	1.69	0.85	
학력	중졸 이하	587	1.72	0.87	10.195***
	고졸	1,655	1.90	0.87	
	대졸 이상	1,681	1.89	0.87	
소득 분위	1분위	666	1.90	0.91	.967
	2분위	976	1.87	0.87	
	3분위	702	1.89	0.87	
	4분위	746	1.83	0.83	
	5분위	833	1.84	0.87	
경제활 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6	1.88	0.86	1.472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53	1.89	0.88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911	1.87	0.85	
	실업자	206	1.96	0.94	
	비경제활동인구	1,027	1.82	0.87	
주관적 소득계 층	하층	535	2.04	1.01	9.384***
	중하층	1,546	1.86	0.82	
	중간층	1,656	1.82	0.87	
	중상층(상층)	186	1.81	0.85	
주거 접유형 태	월세	640	2.02	0.90	13.780
	전세	507	1.89	0.89	
	자가	2,776	1.83	0.85	
지역	대도시	1,398	1.82	0.84	2.687
	중소도시	1,933	1.89	0.89	
	농어촌	592	1.88	0.86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5-8〉과 같다. 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소득분위, 주관적 소득계층 그리고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은 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이 가장 높고, 반면 35~64

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가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분위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하층이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이 가장 높고, 중하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분포

(단위: %)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값(유의도)
전체		3,923	3.51	2.05	
성별	남	1,994	3.60	2.07	2.781**
	여	1,929	3.42	2.01	
연령	19~34세	946	3.48	1.93	8.199****
	35~64세	2,364	3.44	1.99	
	65세 이상	613	3.81	2.37	
학력	중졸 이하	587	3.72	2.32	7.303**
	고졸	1,655	3.57	2.13	
	대졸 이상	1,681	3.38	1.84	
소득 분위	1분위	666	3.64	2.28	2.798*
	2분위	976	3.62	2.22	
	3분위	702	3.38	1.93	
	4분위	746	3.48	1.99	
	5분위	833	3.40	1.75	
경제활 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26	3.48	1.93	0.600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453	3.44	2.11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911	3.53	2.09	
	실업자	206	3.67	2.19	
	비경제활동인구	1,027	3.53	2.09	
주관적 소득계 층	하층	535	3.71	2.35	2.663*
	중하층	1,546	3.42	1.99	
	중간층	1,656	3.53	1.98	
	중상층(상층)	186	3.47	2.12	
주거 점유형 태	월세	640	3.53	2.20	0.053
	전세	507	3.50	2.01	
	자가	2,776	3.51	2.02	
지역	대도시	1,398	3.28	1.76	14.215****
	중소도시	1,933	3.62	2.16	
	농어촌	592	3.70	2.25	

주: 1)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5. 심층분석

가. 신뢰와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

신뢰가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는 아래 <표 5-9>와 같다. 모형 1은 신뢰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잠재적 차별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2는 코로나19로 인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에 미치는 영향, 모형 3은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완치된 사람이 차별대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은 신뢰 유형 중에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잠재적 차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분위 그리고 주거점유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중졸 이하의 대졸보다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낮고, 35~64세는 65세 이상 노인보다, 소득 1분위가 5분위보다, 월세가 자가보다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높았다.

모형 2 역시 사회신뢰와 정부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중졸 이하가 대졸보다, 소득 4분위가 소득 5분위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차별/혐오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사회신뢰만이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이 저조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소득 3분위가 5분위보다, 임시 일용직이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월세가 자가보다 코로나19 완치자/확진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코로나19로 인한 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 잠재적 차별 가능성		모형 2 -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		모형 3 -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B	OR	B	OR	B	OR	
신뢰	사회신뢰	-.051*	.950	-.043*	.958	-.048*	.953	
	정부신뢰	-.384***	.681	-.183***	.833	-.065	.937	
	대인신뢰	-.017	.984	.054	1.056	-.066	.936	
통제 변수	성별 (여자=0)	남성	-.243**	.784	-.166*	.847	-.246**	.782
	연령 (65세 이하=0)	19-34세	.130	1.139	-.042	.959	.020	1.020
		35-64세	.454***	1.574	-.016	.984	.201	1.222
	학력 (대졸=0)	중졸 이하	-.518***	.596	-.344*	.709	.048	1.049
		고졸	-.038	.962	-.004	.996	-.012	.988
	소득분위 (5분위=0)	1분위	.286*	1.332	-.117	.889	.259	1.295
		2분위	.096	1.100	-.101	.904	.180	1.197
		3분위	.123	1.131	-.111	.895	.249*	1.283
		4분위	.055	1.057	-.253*	.776	.222	1.249
	경제활동 상태 (0=비경활)	상용직	.163	1.178	.073	1.076	-.043	.958
		임시일용직	.160	1.174	-.022	.978	.278*	1.321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45	1.156	-.079	.924	.087	1.091
	주거 점유형태 (0=자가)	월세	.335**	1.398	.064	1.066	.316**	1.372
		전세	.042	1.043	.052	1.054	.105	1.111
		지역 (0=농어촌)	대도시	-.189	.828	-.402***	.669	-.125
중소도시	-.080		.923	-.291**	.747	-.042	.959	
상수항		1.321***	3.748	1.370***	3.934	-.423	.655	
		-2LL=4987.491 Nagelkerke R^2 : .065 Hosmer & Lemeshow test: χ^2 9.398(p=.310)		-2LL=5188.797 Nagelkerke R^2 : .021 Hosmer & Lemeshow test: χ^2 8.485(p=.388)		-2LL=4280.004 Nagelkerke R^2 : .026 Hosmer & Lemeshow test: χ^2 9.783(p=.281)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코로나19 정책평가와 신뢰

신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5-10>과 같다. 모형 1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료적 방역조치, 코로나 정보제공,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가일수록,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2는 대인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대인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 주거점유형태 그리고 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젊을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대인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의료적 방역조치, 코로나19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경제정책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관련하여 의료적 방역조치, 코로나19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신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균등화된 가구소득, 주거점유형태 그리고 지역이 사회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사회신뢰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신뢰의 영향요인분석

변수		모형 1 - 정부신뢰		모형 2 - 대인신뢰		모형 3 - 사회신뢰	
		B	S.E.	B	S.E.	B	S.E.
(상수)		.902***		1.921***		2.641***	
코로나19 평가	의료적방역조치	.030*	.061	.002	.002	.234***	.112
	코로나정보제공	.052***	.103	.022	.027	.118*	.055
	사회경제정책	.027**	.058	.074***	.097	.272***	.137
통제 변수	성별	.009	.010	.025	.017	-.005	-.001
	연령	-.031*	-.045	-.072**	-.064	-.091	-.031
	학력	.034**	.056	-.004	-.004	.088	.034
	균등화된 가구소득	-1.269E-05	-.019	1.991E-05	.018	.000*	.038
	경제활동상태	.008	.029	-.008	-.018	-.021	-.018
	주거점유형태	.021*	.037	.052**	.056	.120**	.050
	지역	.042***	.067	.046**	.044	.159***	.059
adj R ²		.049(.047)		.024(.022)		.086(.083)	
F값(유의도)		19.788***		9.645***		36.599***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코로나19 정책평가와 차별 인식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적 차별 가능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11〉과 같다. 모형 1은 차별혐오대상 유무의 영향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평가 중에서, 유일하게 위기 시 공공부문의 정보제공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주거점유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완치자/확진자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일용직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월세는 자가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완치자/확진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유일하게 사회경제정책이 잠재적 차별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주거점유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중졸 이하가 대졸보다 잠재적 차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35~64세가 65세 이하 노인보다, 월세가 자가보다 잠재적 차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잠재적 차별 가능성의 영향요인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코로나19 완치자/확진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잠재적 차별 가능성		
		B	OR	B	OR	
코로나 19 평가	의료적방역조치	.075	1.078	-.108	.898	
	코로나19정보제공	-.123	.884	-.049	.953	
	사회경제정책	.044	1.045	-.096*	.909	
	위기 시, 정보제공	-.209**	.811	.112	1.118	
통제 변수	성별 (여자=0)	남성	-.269**	.764	-.242**	.785
	연령 (65세 이하=0)	19-34세	-.074	.929	.051	1.052
		35-64세	.148	1.159	.462***	1.588
	학력 (대졸=0)	중졸 이하	.108	1.114	-.367**	.693
		고졸	-.007	.993	.006	1.006
	경제활동 상태 (0=비경활)	상용직	-.040	.961	.118	1.126
		임시일용직	.303*	1.353	.141	1.151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06	1.112	.155	1.167
	주거 점유형태 (0=자가)	월세	.386***	1.472	.456***	1.577
		전세	.151	1.163	.081	1.085
상수항		-.133	.876	.674**	1.961	
		-2LL=4380.453 Nagelkerke R^2 : .027 Hosmer & Lemeshow test: χ^2 11.953(p=.153)		-2LL=5166.612 Nagelkerke R^2 : .046 Hosmer & Lemeshow test: χ^2 13.326(p=.101)		

주: *p<.05, **p<.01,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신뢰, 차별과 사회통합 인식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에서는 신뢰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회신뢰, 정부신뢰, 그리고 대인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사회신뢰, 정부신뢰 그리고 대인신뢰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학력, 균등화된 가구소득, 그리고 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일수록, 저학력일수록, 균등화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신뢰와 위기 시 정보신뢰가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위기 시 공공부문 정보제공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유형 중에서는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사회통합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학력, 균등화된 가구소득, 그리고 지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신뢰, 위기 시 정보신뢰, 그리고 코로나19 정책 평가가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신뢰, 대인신뢰와 더불어 위기 시 정보신뢰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사회경제정책 평가가 사회통합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 시 정보제공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다소 특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학력, 균등화된 가구소득, 그리고 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신뢰가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 - 사회통합인식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B	S.E.	B	S.E.
(상수)		1.803***		1.633***		1.191***	
신뢰	사회신뢰	.339***	.344	.335***	.340	.312***	.317
	정부신뢰	.147*	.035	.123	.029	.120	.029
	대인신뢰	.291***	.113	.291***	.113	.272***	.106
위기 시 신뢰	공공부문 정보제공			.082	.029	-.119*	-.041
코로나19 평가	의료적방역조치					.037	.018
	코로나정보제공					.014	.007
	사회경제 정책					.283***	.145
통제 변수	성별	.141*	.039	.138*	.038	.118*	.033
	연령	-.083	-.029	-.088	-.030	-.088	-.030
	학력	-.116*	-.045	-.121**	-.047	-.105*	-.041
	균등화된 가구소득	.000*	.040	.000*	.040	.000*	.038
	경제활동 상태	-.014	-.012	-.013	-.011	-.011	-.009
	주거 점유형태	-.009	-.004	-.011	-.005	-.003	-.001
	지역	.139***	.052	.135***	.051	.142***	.054
adj R^2		.176(.174)		.176(.174)		.196(.193)	
F값(유의도)		81.405***		74.367***		66.357***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요약 및 소결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뢰와 차별의 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추이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우선, 코로나19와 신뢰 유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정책 평가와 관련 정보신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차별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차별은 응답자 당사자의 잠재적 차별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차별과 혐오의

대상 여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완치자 혹은 확진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집단별 신뢰 및 차별 인식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이유를 본 연구결과에 비춰본다면, 사회신뢰가 차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신뢰 형성에 자발적인 사회단체 참여경험과 사회적 규범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방점을 두고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김우철, 2014). 이에 따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및 사회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일조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NPO지원센터, 2019.08.12.). 또한, 사회단체 참여가 높은 국가가 대인신뢰 수준도 높은 만큼(박통희, 2010), 대인신뢰가 저조한 집단에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엄격한 법질서의 확립, 즉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박종민, 2007, p.30). 무엇보다 사회신뢰 강화를 위해서는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대응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국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사회통합 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최창용, 이태준, 2017, p.14-15). 이에 따라 정부 공직자 및 기타 공인을 대상으로 절차상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하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재일, 2017).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나도 언제든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고, 코로나19로 인해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집단/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역시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나 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다고 생각한 비율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평소 취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동하고 기존에 차별과 무관한 사람/집단도 차별에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태롭게 하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차별/혐오가 특정 집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깨달음으로써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도 마련된 바 있다(박윤경, 2020.06.23.). 따라서 국민 인식

전환에 그치지 말고, 지역에서는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요구된다.

셋째,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과 더불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적극적 도입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영국인보다 뉴스 언론으로부터 얻은 코로나19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언론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들 매체로부터의 정보 수용이 큰 문제가 될 바 없으나,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및 불완전한 정보들이 버젓이 유통되어, 이를 신봉한 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신체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짜뉴스가 퍼지는 대표적 통로 중 하나인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게시물 혹은 계정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정민, 2021.08.28.). 또한, 경찰 및 지자체에서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관련 정보 및 기사에 대해 모니터링 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정민, 2021.08.28.).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지 언론 생산자만이 노력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고도 투명하게 제공하는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개인 스스로가 미디어에서 접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 및 판단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정현선, 장은주, 2021). 실제로 최근 미디어 리터러시 교과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정현선, 장은주, 2021).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과 같은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한 국내의 연구는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엄밀한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에 대한 1차, 2차 접종이 진행되는 시기와 더불어 수도권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본 조사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를 코로나 1, 2차 접종이 끝난 시기 혹은 부스터 샷을 맞는 시기 등, 코로나19 시기별로 살펴본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신뢰 및 차별 인식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자료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결과 I :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

제4절 분석결과 II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 적응력

제5절 요약 및 소결

제 6 장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

제1절 들어가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는 사회적 결속력과 응집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으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자본은 위기 기간, 그리고 복구 기간에 개인과 지역사회의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orkowska & Laurence, 2021; Jewett, Sarah, Howell, & Larsen, 2021; Kim, 2020). 그리고 이러한 위기 대응 능력은 개인 차원의 트라우마,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줄여주고 일상적인 삶의 영위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은 감염의 공포와 함께 경제활동의 위축, 사회적 관계의 물리적 차단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1). 예를 들어,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는 2020년 초의 불안감이 예년에 비해 두 배 또는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체코, 멕시코,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우울증이 확산하였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기 상황일수록 개인과 가족, 개인과 지역사회, 개인과 전체 사회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은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자본은 위기 시기에 개인의 물리적, 정서적, 정신적 지지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 기대와 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거노인, 입시를 앞둔 청소년, 취업을 앞둔 청년,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자본은 이들에게 일차적인 버팀목이 될 수는 없어도 일상으로의 ‘되튐’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중요한 자원임은 틀림없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응집력과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대응력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계측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적 지원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를 소개하고,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자본, 심리적 대응력 등에 대한 척도와 변수를 설명하였다. 3절에서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조사'를 활용하여 개인 특성과 경제적 수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 차이를 분석하고 사회응집력과 사회자본이 심리적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4절에서는 2021년 실시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상황에서의 생활 적응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절 자료 및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과 생활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사회적 자본이 이러한 대응력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대응력 관련 문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과제로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조사 문항을, 생활 적응력은 2021년에 본 과제를 위해 설계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문항을 각각 활용하였다.

1.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 분석

가. 사용 자료

먼저, 심리적 대응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

약 40일간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5,000가구를 목표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4,991가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외, 2021).

나.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심리적 대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 민감도와 코로나 블루로 명명된 두 개의 척도를 만들었다. 먼저, 코로나 민감도는 아래 5개 5점 척도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한다. 각 문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을 때 1점, 가장 높을 때 5점이 부여되었다. 5개 문항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코로나19에 대해 전혀 혹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로 평균 4.18점을 기록하였다. 반면 코로나19가 천천히 혹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25점으로 관련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합산된 점수를 ‘코로나 민감도’로 명명하였으며 25점 만점에 평균 18.73점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4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1〉 코로나 민감도 측정 문항

(단위: 점)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코로나19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나와 매우 가까이 있다.	3.81
2) 코로나19는 천천히 확산되고 있다~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25
3) 코로나19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항상 생각하고 있다.	4.18
4) 코로나19가 전혀 두렵지 않다~매우 두렵다.	3.77
5)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스트레스를 받는다.	3.72
코로나 민감도(합산점수)	18.73

주: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민감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코로나 블루’로 칭한 척도는 아래 5개 문항의 합산 점수로 계측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우울과 삶의 만족도 저하 등으로 나타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평균 3.2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행복감이 낮아졌다(3.16점), 우울해졌다(3.10점),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2.92)가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2.22점으로 그렇지 않다(2점)에 더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합산 점수로 코로나 블루 평균 점수는 25점 만점에 14.68점을 기록하였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441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 코로나 블루 측정 문항

(단위: 점)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나는 우울해졌다	3.10
2)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나의 심리적 건강상태는 나빠졌다	2.92
3)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다.	3.28
4)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나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졌다.	3.16
5)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졌다.	2.22
코로나 블루(합산점수)	14.68

주: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블루가 심함을 의미함(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자료 분석.

2)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얻은 지역사회 응집성 점수와 특정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자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 응집성 평가 문항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지',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인지',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이다. 이들 문항을 합산한 점수는 2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13.92로 산출되었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6868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0.7에 근접하여 지역사회 응집성 척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3〉 지역사회 응집성 평가 문항

(단위: 점)

지역사회 응집성(이웃과의 관계)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89
2)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3.94
3)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4.13
4)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참여할 것이다	2.96
지역사회 응집성(합산점수)	13.92

주: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함(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자료 분석.

또 다른 독립변수로 사회적 자본은 〈표 5-4〉에 제시된 네 개의 문항으로 계측되었다. 아플 때, 큰돈이 필요할 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보살핌이 필요할 때 도와줄 가족 이외의 자원에 대한 측정 문항으로서 그러한 자원이 존재하면 1로, 존재하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평균 점수는 3.41로 산출되었으며, 문항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4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4〉 사회적 자본 평가 문항

(단위: 점)

사회적 자본(도움을 청할 사람 유무) 문항(0-1척도)	평균 점수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0.89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0.74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0.90
4)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0.88
사회적 자본(합산점수)	3.41

주: 0점은 해당 항목에 대해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음을, 1점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자료 분석.

3) 통제변수

개인 특성과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인 특성 변수로는 성별(남성, 여성), 교육 수준(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학 이상), 혼인 여부(기혼, 이혼/사별 등, 미혼), 아동이 있는지의 여부(없음, 있음),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년 1월~9월) 동안 가구소득 변화(변함없거나 증가, 약간 감소, 크게

감소)와 균등화된 가구소득 5분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적응력 분석

가. 사용 자료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 적응력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 실시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 6~8월에 가구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4,000가구(4,000명)이다.

1) 종속변수

여기에서 분석할 종속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개인의 생활 적응력으로,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조치에 대한 신뢰도, 코로나 대응 개인 생활수칙 준수도,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본인 삶의 변화에 대한 전망, 포스트코로나 시기 사회경제 변화 전망의 세 개 척도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척도로 명명하였다. 여기에는 의료적 방역조치, 정보 제공,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정보 제공(3.81점), 의료적 방역 조치(3.71점), 사회경제정책(3.47점) 순이며, 중간 이상으로 정부 대응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408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코로나에 대한 중앙정부 대응정책에 대한 신뢰도

(단위: 점)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진단, 치료, 밀접접촉자 등 자가 격리, 의료기관 운영, 의료인력 운용, 생활치료시설 설치 등)	3.71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언론을 통한 확진자 및 완치자 등 일일통계 발표,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 및 문자발송을 통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3.81
3)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재난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	3.47
정부 대응정책 신뢰도(합산 점수)	10.99

주: '매우 부적절하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적절하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의 정책대응이 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개인의 방역수칙과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코로나19 이후 개인 생활수칙 준수' 척도를 구성하였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4.55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3.87점), '자기개발과 미래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3.48점),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비대면 접촉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3.85점)의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6884로 7에 미치지 못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표 6-6〉 코로나19 이후 개인 생활수칙 준수도

(단위: 점)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4.55
2)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운동, 영양제 섭취, 식단관리 등)	3.87
3) 자기개발과 미래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3.48
4)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비대면 접촉(전화, SNS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3.85
개인의 생활 수칙(합산점수)	15.75

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생활 수칙을 잘 준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코로나에 대한 생활 적응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 번째 독립변수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본인 삶의 변화 전망을 선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본인 삶을 가구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친구·동료들과의 관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평가하는 5점 척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2.5~2.9점대를 기록하고 있어-변화 없을 것으로 볼 때 3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코로나 이전에 비해 미래를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6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7〉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기 본인 삶의 변화 전망 (단위: 점)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가구 경제 상황	2.57
2) 가족관계	2.95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2.82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2.64
본인의 삶의 전망(합산 점수)	10.97

주: '훨씬 더 나빠질 것'을 1점으로 하고 '훨씬 더 좋아질 것'을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척도로, 경제적 수준, 불평등과 양극화, 시민의식,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전망보다 코로나 이후를 좀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은 대략 2.1~2.8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합산 점수는 20점 만점에 9.93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081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기 사회경제 변화 전망 (단위: 점)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경제적 수준(1인당 GDP, 수출, 경기 등)	2.32
2) 불평등, 양극화	2.11
3) 시민의식(준법의식, 문화적 성숙도 등)	2.86
4)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2.63
사회경제 변화 전망(합산 점수)	9.93

주: '훨씬 더 나빠질 것'을 1점으로 하고 '훨씬 더 좋아질 것'을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독립변수

이 장에서 초점을 두는 주제는 개인의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개인의 위기 대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앞서 심리적 대응력 평가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다만 질문 문항을 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사회 응집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표 6-9>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평균은 대략 2.8~3.5점 사이에 있으며, 총합산 점수는 25점 만점에 16.07이었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1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9> 지역사회 응집성 평가 문항

(단위: 점)

지역사회 응집성(이웃과의 관계) 문항(1~5점 척도)	평균 점수
(1) 이웃과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3.17
(2) 이웃이 곤경에 처하면 도움 의향이 있다	3.54
(3)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다	3.25
(4) 이 동네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2.88
(5) 이 동네 이웃들과 나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3.22
지역사회 응집성(합산 점수)	16.07

주: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함(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사회적 자본 평가 문항은 3개 문항으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으로 코딩되었다. 합산 평균 점수는 2.33점이며,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6802로 7에 미치지 못해 약간 낮게 평가되었다.

<표 6-10> 사회적 자본 평가 문항

(단위: 점)

사회적 자본(도움을 청할 사람 유무) 문항	평균 점수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0.79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0.65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0.90
사회적 자본(합산 점수)	2.33

주: 0점은 해당 항목에 대해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음을, 1점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앞서 코로나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제3절 분석결과 I: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

1.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심리적 대응력

먼저, 개인과 가구의 특성별로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대응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6-11> 참조).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는 성별, 혼인 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코로나 19 기간의 소득 감소 여부별, 소득 5분위별,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여성과 남성이었다. 여성의 코로나로 인한 민감도는 19.16으로 남성의 17.80에 비해 1.35 더 높게 나타났다. 사별이나 이혼을 한 사람은 기혼자에 비해, 아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경제활동자, 실업자, 임시·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가구소득이 코로나로 인해 크게 감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도권 이외 거주자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민감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우울과 삶의 만족도 저하는 아동 유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코로나 블루가 상당한 점수 차이(1.21점)로 더 높았다.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코로나 블루가 20~3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핵심 근로계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결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더 큰 코로나 블루를 체감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특히 상용직보다 비경제활동자가 1.25점 정도 더 높은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 가구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우울감이 전체

비교 대상 집단 중 가장 높은 15.48점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볼 때, 대체로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자의 코로나 블루가 다른 분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보다 약간 더 높은 우울감을 보였다.

〈표 6-11〉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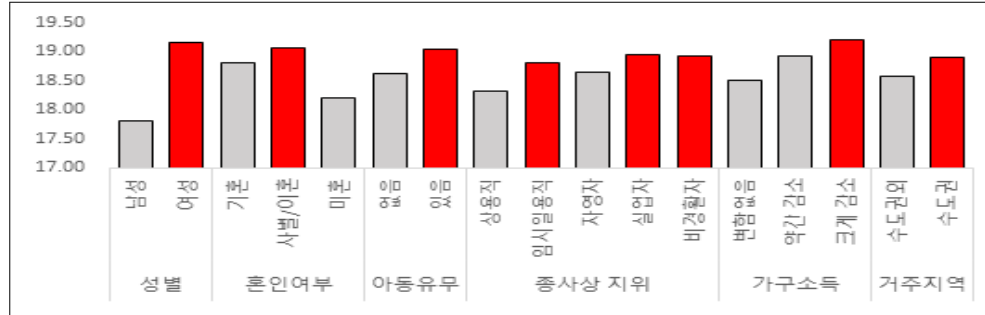
(단위: 점)

항목	평균값	F값(유의도)
성별	남성	17.80
	여성	19.16
연령집단	30/40대	18.55
	40/50대	18.78
	60/70대	18.8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73
	고졸 이하	18.71
	대학 이상	18.75
혼인 여부	기혼	18.80
	사별/이혼 등	19.06
	미혼	18.19
아동 유무	없음	18.63
	있음	19.04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32
	임사·일용	18.80
	자영자	18.64
	실업자	18.94
	비경활자	18.93
가구소득	변함없음(증가포함)	18.50
	약간 감소	18.92
	크게 감소	19.20
소득분위	1분위	18.82
	2분위	18.89
	3분위	18.83
	4분위	18.47
	5분위	18.66
거주지역	수도권 이외	18.58
	수도권	18.90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자료 분석.

[그림 6-1]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민감도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자료 분석.

<표 6-12>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블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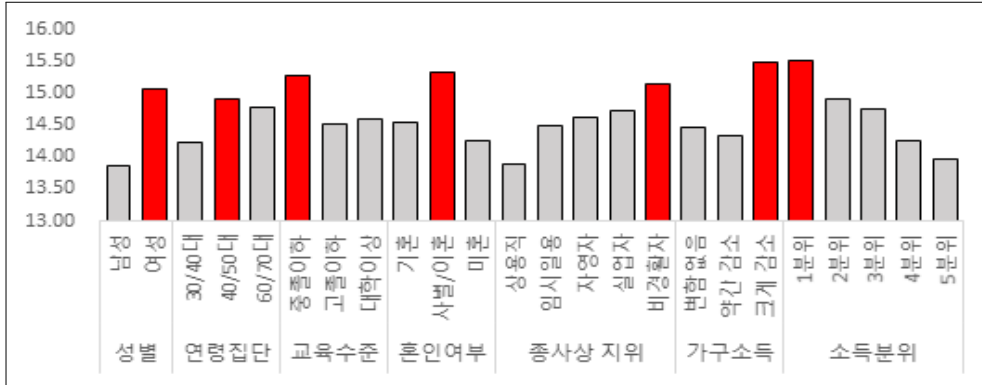
항목	평균값	F값 (유의도)
성별	남성	13.85
	여성	15.06
연령집단	30/40대	14.22
	40/50대	14.90
	60/70대	14.7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28
	고졸 이하	14.50
	대학 이상	14.59
혼인 여부	기혼	14.54
	사별/이혼 등	15.34
	미혼	14.26
아동 유무	없음	14.66
	있음	14.7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90
	임시·일용	14.50
	자영자	14.62
	실업자	14.73
	비경활자	15.15
가구소득	변함없음(증가포함)	14.46
	약간 감소	14.33
	크게 감소	15.48
소득분위	1분위	15.52
	2분위	14.91
	3분위	14.74
	4분위	14.26
	5분위	13.96
거주지역	수도권 이외	14.56
	수도권	14.80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자료 분석.

[그림 6-2]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코로나 우울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자료 분석.

2. 지역사회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고서도 평소 이웃과의 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로 측정된 지역사회 응집성과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의 유무로 예측된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민감도와 코로나 블루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코로나 민감도와 코로나 블루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13〉 참조).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사회 응집성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민감도를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 민감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반면, 지역사회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 블루를 낮추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추가 가능하다.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는 경제·사회 활동이 많거나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 응집성은 지역사회의 이웃과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지로 측정되었으므로 좀 더 대외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일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전 사회적인 위축과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은 그 자체로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와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응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해 더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는 성격적 혹은 상황적 반응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 자체를 낮추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 자체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이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낮추는데 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성일수록,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코로나19에 더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또한,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가구의 근로소득이 코로나19 기간에 많이 감소한 사람일수록,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 5분위에 속한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코로나 블루가 낮은 수준이었다.

〈표 6-13〉 지역사회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대응력에 미친 영향

변수		코로나 민감도 b/se	코로나 블루 b/se
성별(남자=0)		1.292*** (0.108)	0.952*** (0.125)
연령집단 (20/30대=0)	40/50대	0.055 (0.133)	0.438** (0.154)
	60/70대	0.272 (0.186)	0.013 (0.216)
교육수준 (중졸 이하=0)	고졸	0.154 (0.149)	-0.499** (0.172)
	대학 이상	0.407* (0.171)	0.041 (0.198)
혼인여부 (유배우=0)	사별/이혼 등	0.285* (0.128)	0.258 (0.149)
	미혼	-0.198 (0.159)	-0.207 (0.184)
아동 유무	있음	0.188 (0.137)	0.045 (0.158)
종사상 지위 (상용직=0)	임사·일용	-0.034 (0.169)	-0.095 (0.196)
	자영자	-0.209 (0.166)	0.058 (0.193)
	실업자	0.027 (0.298)	-0.258 (0.345)
	비경활	0.046 (0.153)	0.411* (0.177)
가구소득 (변함없음 또는 증가=0)	약간 감소	0.520*** (0.136)	0.154 (0.157)
	크게 감소	0.739*** (0.124)	1.058*** (0.144)
소득분위 (1분위=0)	2분위	-0.085 (0.154)	-0.317 (0.178)
	3분위	-0.11 (0.158)	-0.328 (0.184)
	4분위	-0.261 (0.164)	-0.569** (0.190)
	5분위	-0.055 (0.173)	-0.834*** (0.200)
수도권 거주 (수도권 이외 거주=0)		0.375*** (0.095)	0.327** (0.111)
지역사회 응집성		0.088*** (0.017)	-0.104*** (0.019)
사회적 자본		-0.072 (0.047)	-0.357*** (0.055)
상수		16.151*** (0.374)	16.460*** (0.433)
N		4,991	4,991
R^2		0.057	0.076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자료 분석.

제4절 분석결과 II: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생활 적응력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상황을 맞아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성역할에 따라, 연령에 따라,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에 따라, 일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은 지대했다. 하지만 2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팬데믹 상황에 맞서면서 그 대응 방식과 적응의 속도는 상이했다. 물론 상황의 유형과 영향의 강도에 따라 적응도는 일차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인구·사회적·경제적 특성, 심리적 방어 기제, 회복탄력성 등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대응력과 적응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한 신뢰도(적절성 평가), 개인 생활수칙 준수도(자기 관리 능력),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평가와 사회·경제 전망의 낙관성 등을 척도를 활용하여 개인과 가구 특성에 따른 생활 적응력의 차이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평균적으로 여성, 40~50대 중장년층, 상용직,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대응정책을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 코로나 기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한 사람, 중하 계층에 속한 사람은 정부의 대응정책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정부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단행함으로써 특히 자영업자의 손실이 적지 않았다. 비록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바람직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특히 자영업자와 가구 소득이 크게 감소한 응답자들의 정부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지침 준수, 건강 추구 행태, 자기개발 노력, 관계망 유지 노력 등의 자기관리 정도에 따라 생활 적응력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는 <표 6-15>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구 특성과 경제적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에 대응해 일상 생활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일수록, 가구소득이 줄지 않을수록, 고소득층일수록 자기 관리에 충실했다.

〈표 6-14〉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정부 대응정책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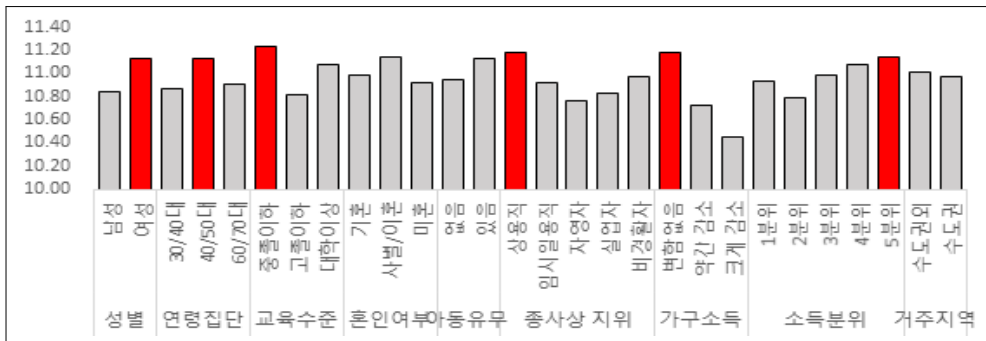
(단위: 점)

항목	평균값	F값(유의도)
성별	남성	10.85
	여성	11.13
연령집단	30/40대	10.86
	40/50대	11.13
	60/70대	10.9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23
	고졸 이하	10.82
	대학 이상	11.08
혼인 여부	기혼	10.99
	사별/이혼 등	11.14
	미혼	10.92
아동 유무	없음	10.94
	있음	11.1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19
	임시·일용	10.91
	자영자	10.77
	실업자	10.83
	비경활자	10.97
가구소득	변함없음(증가포함)	11.17
	약간 감소	10.72
	크게 감소	10.46
소득분위	1분위	10.93
	2분위	10.79
	3분위	10.99
	4분위	11.08
	5분위	11.14
거주지역	수도권 이외	11.00
	수도권	10.97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6-3〕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정부 대응정책 신뢰도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6-15〉 개인 및 가구 특성별 개인 생활수치 준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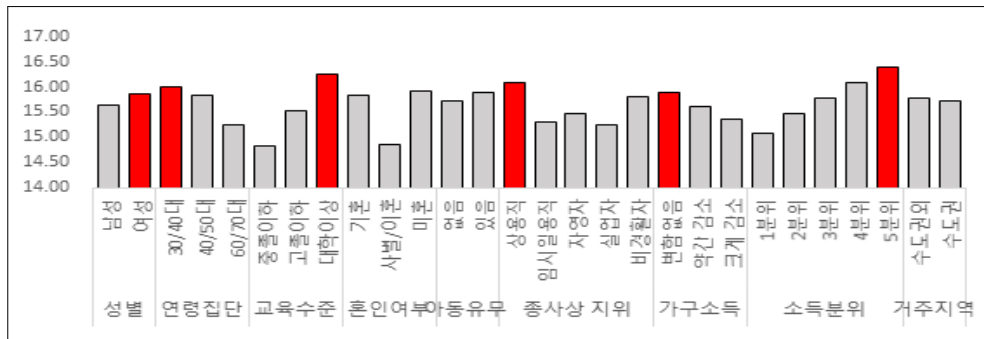
(단위: 점)

항목	평균값	F값(유의도)
성별	남성	15.63
	여성	15.87
연령집단	30/40대	15.99
	40/50대	15.83
	60/70대	15.2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84
	고졸 이하	15.52
	대학 이상	16.25
혼인 여부	기혼	15.82
	사별/이혼 등	14.84
	미혼	15.92
아동 유무	없음	15.71
	있음	15.88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08
	임시·일용	15.31
	자영자	15.48
	실업자	15.24
	비경활자	15.81
가구소득	변함없음(증가포함)	15.88
	약간 감소	15.60
	크게 감소	15.37
소득분위	1분위	15.09
	2분위	15.47
	3분위	15.78
	4분위	16.07
	5분위	16.39
거주지역	수도권 이외	15.78
	수도권	15.72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6-4〕 개인 및 가구 특성별 개인 생활수치 준수도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코로나 이후의 삶은 자신과 전체 사회 측면에서 평가되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포스트코로나 시대 본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친구 관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평가한 '삶의 전망' 척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현재 경제상태가 더 나은 사람일수록, 즉 코로나로 인한 가구 경제 손실이 없고, 고소득층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코로나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더 낙관적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자면 고령자일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컸거나 중하층일수록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이후 자신의 삶을 다소 어둡게 전망했다. 또한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약간 자신의 삶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의 상황, 즉 경제적 수준, 불평등과 양극화, 시민의식,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전망도 자신의 삶에 대한 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젊은 층, 미혼자, 상용직 취업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사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도 가구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거나 증가한 사람, 4, 5분위의 고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미래 사회를 덜 부정적으로 보았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이후 자신의 삶과 전반적인 사회를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집단은 자영자, 코로나로 인해 가구소득이 크게 감소한 사람, 그리고 하위 2분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들 집단의 공약수(89명)의 자기 삶에 대한 전망 점수는 9.89점, 사회 전반에 대한 전망 점수는 8.8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는 이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심리적 위축과 미래에 대한 낙담을 안겨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코로나 사회에서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사회통합적 차원과 정신건강 차원의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이 구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6-16〉 개인 및 가구 특성별 포스트코로나 개인 생활 전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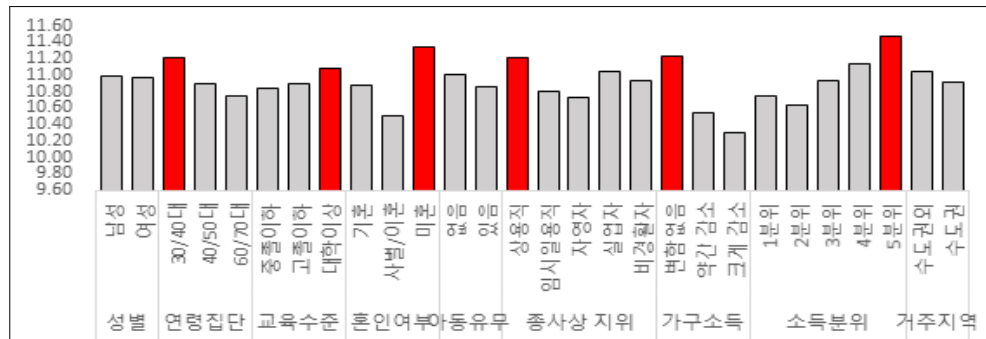
항목		평균값	F값(유의도)
성별	남성	10.98	0.08
	여성	10.96	
연령집단	30/40대	11.21	17.97***
	40/50대	10.90	
	60/70대	10.7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85	5.64**
	고졸 이하	10.89	
	대학 이상	11.09	
혼인 여부	기혼	10.88	34.67***
	사별/이혼 등	10.51	
	미혼	11.34	
아동 유무	없음	11.01	3.77
	있음	10.87	
종사상 지위	상용직	11.21	9.90***
	임시·일용	10.80	
	자영자	10.73	
	실업자	11.05	
	비경활자	10.93	
가구소득	변함없음(증가포함)	11.23	83.03***
	약간 감소	10.55	
	크게 감소	10.30	
소득분위	1분위	10.74	21.93***
	2분위	10.64	
	3분위	10.92	
	4분위	11.13	
	5분위	11.47	
거주지역	수도권 이외	11.04	5.09*
	수도권	10.91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6-5] 개인 및 가구 특성별 포스트코로나 개인 생활 전망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6-17〉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사회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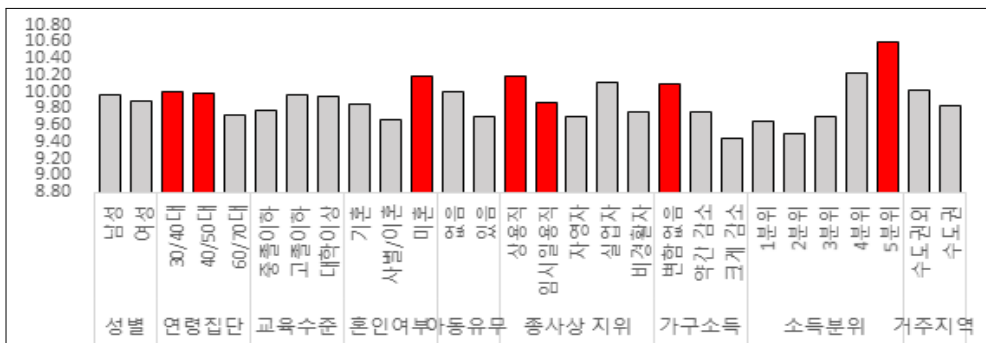
(단위: 점)

항목	평균값	F값(유의도)
성별	남성	9.97
	여성	9.89
연령집단	30/40대	10.00
	40/50대	9.99
	60/70대	9.72
교육수준	중졸 이하	9.79
	고졸 이하	9.96
	대학 이상	9.94
혼인 여부	기혼	9.86
	사별/이혼 등	9.67
	미혼	10.18
아동 유무	없음	10.00
	있음	9.71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19
	임시·일용	9.86
	자영자	9.71
	실업자	10.11
	비경활자	9.77
가구소득	변함없음(증가포함)	10.09
	약간 감소	9.75
	크게 감소	9.44
소득분위	1분위	9.65
	2분위	9.50
	3분위	9.71
	4분위	10.23
	5분위	10.60
거주지역	수도권 이외	10.02
	수도권	9.84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6-6〉 개인 및 가구 특성별 사회경제 전망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지역사회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이 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 사회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다양한 생활 적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18>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응집성이 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경제적 특성 변수를 모두 통제하고도 정부신뢰도, 생활수칙 준수도, 개인생활 전망, 사회경제 전망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 의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자기 관리 등 생활수칙을 잘 준수하며, 코로나 이후의 삶과 사회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한편,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코로나에 대응하여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자본은 정부신뢰도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전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학적 특성 변수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 신뢰와 생활수칙 준수도가 높았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연령은 전반적인 생활 적응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학력자는 중졸 학력자에 비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유의하게 더 낮았지만, 코로나에 대응하여 생활수칙은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사람은 기혼자에 비해 자신과 사회의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 변수로 투입된 종사상 지위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용직에 비해 정부정책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코로나로 인해 가구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정부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코로나 이후의 삶과 사회에 대해서도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소득자, 즉 4분위와 5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하위계층에 비해 자기 관리와 미래 전망에서 모두 더 긍정적이었다. 수도권 거주자는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자기 관리와 미래 삶에서 모두 더 부정적이었다.

〈표 6-18〉 지역사회 응집성의 사회적 자본이 코로나 생활 적응력에 미친 영향

변수		정부신뢰도 b/se	생활수칙 준수도 b/se	개인생활 전망 b/se	사회경제 전망 b/se
성별(남자=0)		0.261*** (0.076)	0.280*** (0.082)	-0.003 (0.064)	-0.029 (0.088)
연령집단 (20/30대=0)	40/50대	0.483*** (0.106)	0.05 (0.115)	0.084 (0.090)	0.236 (0.123)
	60/70대	0.142 (0.151)	0.074 (0.163)	-0.086 (0.127)	0.001 (0.175)
교육수준 (중졸이하=0)	고졸	-0.477*** (0.137)	0.525*** (0.149)	-0.227 (0.116)	-0.111 (0.159)
	대학 이상	-0.345* (0.152)	1.133*** (0.165)	-0.261* (0.128)	-0.386* (0.177)
혼인 여부 (유배우=0)	사별/이혼 등	0.229 (0.127)	-0.534*** (0.138)	-0.129 (0.107)	0.004 (0.148)
	미혼	0.263* (0.120)	0.066 (0.130)	0.468*** (0.101)	0.382** (0.139)
아동 유무	있음	0.241* (0.100)	-0.153 (0.109)	0.002 (0.084)	-0.091 (0.116)
종사상 지위 (상용직=0)	임사일용	-0.061 (0.138)	-0.152 (0.149)	0.009 (0.116)	-0.021 (0.160)
	자영자	-0.078 (0.115)	-0.236 (0.124)	0.109 (0.097)	-0.217 (0.133)
	실업자	-0.09 (0.175)	-0.277 (0.190)	0.206 (0.148)	0.306 (0.203)
	비경제활동자	-0.304** (0.103)	0.185 (0.112)	-0.154 (0.087)	-0.229 (0.120)
가구소득 (변함없음 또는 증가=0)	약간 감소	-0.532*** (0.114)	-0.093 (0.124)	-0.728*** (0.097)	-0.352** (0.133)
	크게 감소	-0.768*** (0.113)	-0.037 (0.122)	-0.914*** (0.095)	-0.513*** (0.131)
소득분위 (1분위=0)	2분위	-0.141 (0.120)	0.115 (0.130)	-0.163 (0.102)	-0.056 (0.140)
	3분위	0.046 (0.124)	0.238 (0.134)	0.052 (0.105)	0.098 (0.144)
	4분위	0.097 (0.127)	0.540*** (0.138)	0.184 (0.107)	0.602*** (0.147)
	5분위	0.118 (0.136)	0.771*** (0.148)	0.496*** (0.115)	0.962*** (0.158)
수도권 거주 (수도권 이외 거주=0)		0.025 (0.073)	-0.184* (0.079)	-0.139* (0.062)	-0.186* (0.085)
지역사회 응집성		0.030* (0.012)	0.062*** (0.013)	0.039*** (0.010)	0.071*** (0.014)
사회적 자본		-0.071 (0.040)	0.135** (0.043)	0.193*** (0.033)	0.084 (0.046)
상수		10.798*** (0.292)	13.438*** (0.317)	10.212*** (0.246)	8.662*** (0.339)
N		3,922	3,922	3,922	3,922
r2		0.038	0.077	0.083	0.047

주 :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 자료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5절 요약 및 소결

교육학, 의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종종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이 학술적인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해 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기경희, 김광수, 2018, p.162)으로 정의된다. 회복탄력성은 주로 외부적 충격이 정점에 이른 단계보다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정근식, 2020). 재난이나 위기에서의 ‘되튐’, 즉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나 적극적 노력 또한 일종의 회복탄력성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다소 엄격한 측정을 요하는 ‘회복탄력성’ 대신 ‘위기 대응력’이라는 용어로 코로나19에 직면한 개인의 대응 인식, 태도, 전망을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고 지역사회 응집성과 사회적 자본이 위기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대응력과 일상생활 적응력은 달리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가 실질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로 인한 우울감, 즉 코로나 블루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생활 수칙을 더 엄격하게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기질적 차이를 배제할 수 없지만, 코로나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였다(통계청, 2020b). 또한 가정 내 돌봄의 부담도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중첩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은 민감도와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2030 여성 자살률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하였다는 결과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하여 해석될 수 있다(국민일보, 2020. 9.8.일자). 한편,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코로나 블루가 예상과 달리 20~30대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3장에서 일반적 추세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주목된다. 물론 20~30대 중 취업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의 우울감이 높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은 핵심 근로연령대인 40~50대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유무에 따른 코로나 블루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리적 대응력과 생활 적응력 모두에서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가구소득이 최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경우 생활수칙 준수도를 제외한 모든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에 대해 더 민감했고, 이로 인해 더 우울감을 느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코로나 이후의 개인 생활 전망과 사회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더 낮게 평가했다. 또, 대체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특히 중하층이라 할 수 있는 2분위에서 전반적으로 위기 대응력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코로나19의 위험에 더 큰 민감도를 보였으며, 코로나19 발발 이후 더 큰 우울감을 보고했다. 또한 생활수칙 준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개인 생활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 특성상 인구밀집도가 높고 이동이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더 많다. 2021년 11월 30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서울이 1,596명, 경기도가 994명으로 전국 발생률 863명을 훨씬 초과한다. 수도권 자영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지역사회응집력과 사회자본의 강도는 위기 대응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과 지역 요인 등을 통제하고도 이웃의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코로나와 관련된 민감도는 더 높게 나타났으나,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또한 지역사회 응집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도 높았고, 생활수칙을 좀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코로나 민감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확연히 낮았다. 또, 사회자본의 크기는 정부신뢰도나 거시적인 사회경제 전망과는 무관했지만, 개인적인 생활수칙 준수도나 코로나 이후의 개인 생활 전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에 대한 위기 대응력, 나아가 재난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이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박사는 코로나19를 '위대한 불평등주의자'로 표현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무직 상근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자녀를 집에서 돌보고 학습지도할 여력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등 소득, 재산, 기회에 따른 차이를 더 가시화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그 차이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chwab & Malleret, 2021). 따라서 재난으로 인한 이러한 격차의 심화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설계와 개입이 요구된다. 성별,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 집단별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공동체의 자생력과 상호 신뢰, 사회자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수준 변화와 영향요인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신건강

제3절 분석 결과 I : 코로나 전후의 정신건강
(2017년과 2021년 비교)

제4절 분석 결과 II : 정신건강 영향요인 및 코로나의 영향

제5절 분석 결과 III : 코로나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통합적 분석

제6절 요약 및 소결

제 7 장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수준 변화와 영향요인

제1절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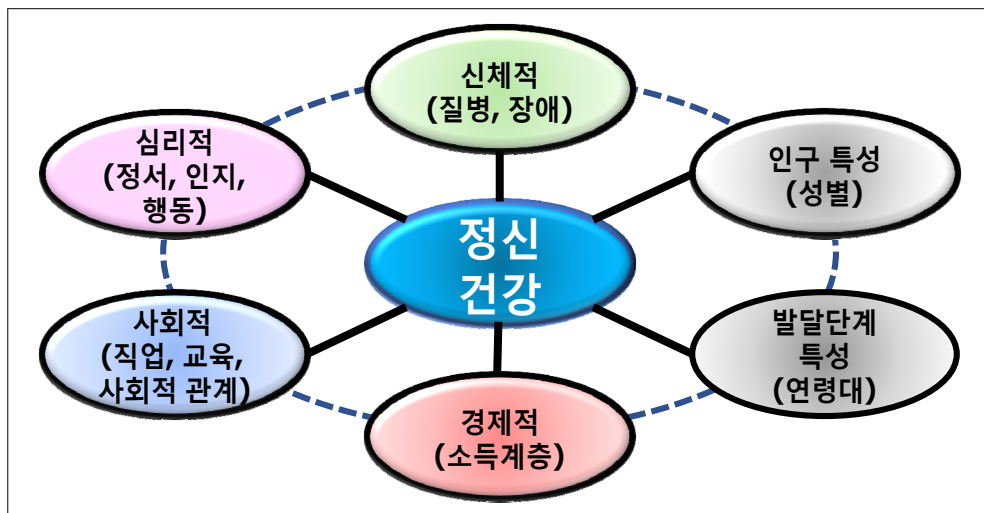
건강의 개념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건강은 절대적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번 정의된 건강의 정의도 사회문화적 특성 및 관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의료적 관점이 지배하는 사회문화적 전통에서 건강의 개념은 질병이 없는 상태 또는 허약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생태학적 맥락에서 건강은 질병 유무나 허약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까지 포함한 유기적 조화를 얻은 상태로 정의된다. 질병의 개념이나 유무는 사회문화적 특성 및 의학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고 허약의 정도도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다.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건강(健康)”의 개념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21). 사전적 의미의 건강도 신체적 측면의 건강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신적 측면의 건강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는 더 포괄적이어서 신체적 정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측면의 건강도 강조하고 있다.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미 “건강은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정의하였다(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21). 즉, 건강이란 단순한 생존 추구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역량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대처 능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WHO의 건강 개념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건강 개념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적 건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건강 요인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개념이다. 표준국어대 사전에 따르면 “정신건강(精神健康)”이란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어 마음이 바르고 평안한 상태’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21). 협의에서 정신건강은 심리적 또는 정신적 측면의 건강을 의미하지만, 건강 개념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의의 건강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안녕 상태 또는 적응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의 정신건강은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 7-1]에서 도식화한 것처럼 개인의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 안녕 상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생태학적 항상성이 유지된 웰빙(well-being)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7-1] 개인의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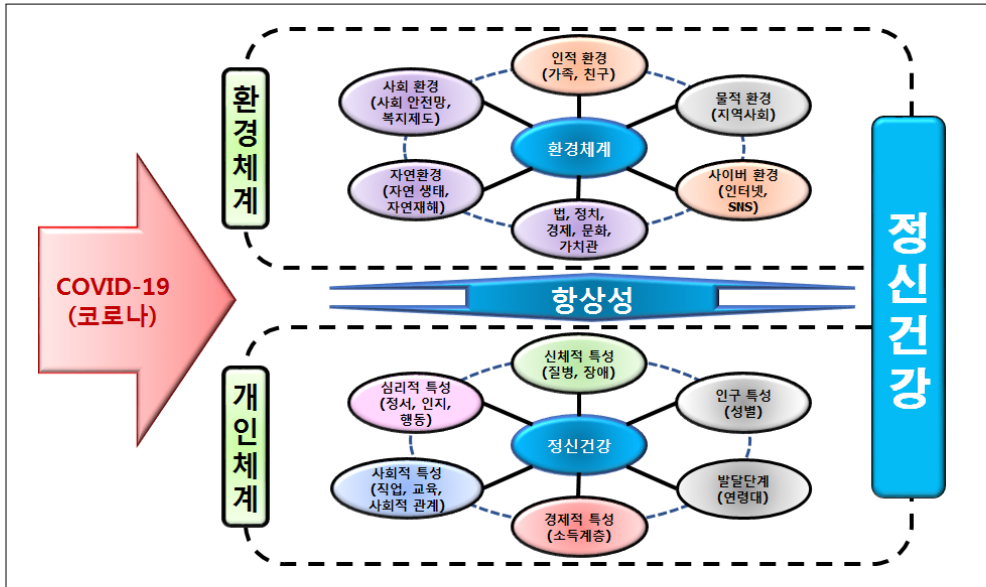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건강의 주요 구성 요인 중 하나인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이나 사회적 건강 영역과 상호 역동 하에서 결정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 일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삶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그림 7-2]의 도식처럼 개인체계 요인과 환경체계 요인들로 구성된다(Bronfenbrenner, 1979).

[그림 7-2] 생태학적 정신건강과 코로나의 영향



자료: 저자 작성.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인체계 구성 요인들은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과 같은 심리적 특성, 신체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신체적 특징, 직업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 특징,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같은 경제적 특징, 성별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징, 나이나 코호트 등의 발달단계 특징 등 다양한 생태체계적 요인들을 포함한다. 개인의 정신건강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체계 차원에서 정신건강은 이러한 개인체계 요인들 간의 항상성이 유지된 안녕 상태로 정의된다.

환경체계 구성 요인들은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적환경, 사회안전망 복지제도와 같은 사회환경, 개인이 속한 자연환경, 개인이 속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가치관, 개인의 주거환경이나 지역사회 환경, 개인이 속하거나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이버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된다. 환경체계 차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이 속한 환경체계 요인들 간의 항상성이 유지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생태체계이론의 환경 속의 인간 관점에서 개인체계 요인과 환경체계 요인은 상호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적 관계이다.

생태체계이론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정의하면 개인체계 요인과 환경체계요인 간의 건강한 항상성이 유지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신체, 심리, 사회적 안녕 상태로 정의된다. 개인 및 환경체계 요인들 뿐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요인들도 개인 및 환경체계의 안녕 상태를 위협하고 나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포항 지진 후 해당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정적 지원이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지역 주민의 안녕 상태와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9년 이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도 개인 및 환경 체계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코로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재난지원금, 백신 접종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코로나와 정부 대응의 영향이 개인체계 요인들(예: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소득, 등)이나 환경체계 요인들(예: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농어촌 도시, 등)에 따라 동질한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코로나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코로나 전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코로나의 영향이 개인 및 환경체계 요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제2절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신건강

1. 코로나19의 정신건강 영향요인

가. 연령(세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정신건강 영향이 전 연령층에서 우려되었지만, 특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 코로나19 위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Klaiber, Wen, DeLongis, & Sin, 2021). 젊은 연령대일수록 일상생활의 제약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홍성희, 2021; Mihashi, Otsubo, Yinjuan, Nagatomi, Hoshiko, & Ishitake, 2009), 젊은 층이 다수 이루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층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가 취약하기 때문이다(성미애 외, 2020; Klaiber et al., 2021). 일부 연구에서는 특히 21~40세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제약을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화하였다고 해석하였다(Shevlin et al., 2020).

코로나19 확산 이후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35세 이하 혹은 20대의 젊은 연령층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박용천 외, 2020; El-Zoghby et al., 2020; Ozamiz-Etxebarria et al., 2020; Pieh et al., 2021), 저연령 집단 내에서도 17~28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30대 성인보다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unus et al., 2020). 저연령 집단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Rossi et al., 2020; Ozamiz-Etxebarria et al., 2020),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추세를 바탕으로 2020년의 자살률을 예상 비율과 비교한 분석에서 30세 미만에서 자살률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akamoto et al., 2021).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에 차이는 없지만 젊은 연령대의 경우 인지 대처효율이 낮다고 보고되었다(Klaiber et al., 2021).

나. 성별

많은 실증 연구들에서 코로나19 이후 여성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보고하고 있다(El-Zoghby et al., 2020; Pieh et al., 2021). 코로나19 이후 남성 집단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 많은 외상성 고통이 발현되었으며(박용천 외, 2020), 더 많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Othman, 2020; Ozamiz-Etxebarria et al., 2020; Wang, Pan, Wan, Tan, Xu, Ho, & Ho, 2020), 자살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kamoto et al., 2021). Kniffin 외(2021)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남성보다는 여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대체가능한 혹은 불안정한 직업적 지위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Alon, Doepke, Olmstead-Rumsey, & Tertilt, 2020). 실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다수가 일을 중단하였거나 건강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어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안효상, 서정희, 2020; UN, 2020). 둘째,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이나 사건에 대해 더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타인의 스트레스에도 높은 수준으로 공감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Bloise & Johnson, 2007; Kessler & McLeod, 1984).

다. 소득/계층

저소득은 감염병 상황에서 많은 취약성을 만들어낸다. 저소득 집단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의 근로 단축,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정책 속에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Lopes & Jaspal, 2020). 코로나19 이후 영국에서는 저소득 집단에서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Pieh et al., 2021). 미국의 저소득 집단은 고소득 집단보다 우울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았으며(Ettman, Abdalla, Cohen, Sampson, Vivier, & Galea, 2020), 2020년 3월에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저소득 집단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hevlin, McBride, Murphy, Miller, Hartman, Levita, & Bentall, 2020).

라. 지역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인구밀집도에 따라 불안에 차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안이 높고(Fitzpatrick, Harris, & Drawve, 2020), 확진 사례가 많은 곳에서 공포나 걱정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tzpatrick, Drawve, & Harris, 2020). 우울증상도 교외 지역에 비해 도심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olman, Thompson, Garfin, & Silver, 2020).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에서 시행된 연구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촌 지역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Duan, Shao, Wang, Huang, Miao, Yang, & Zhu,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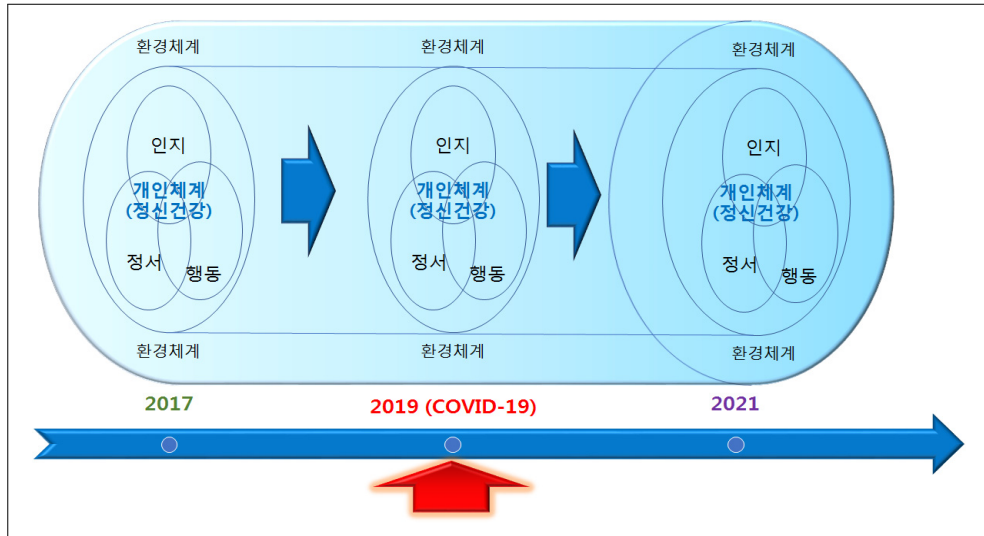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가. 연구 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들에 의하면 코로나19가 개인 및 환경체계 요인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초래한다. 코로나 상황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코로나의 영향이나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조치는 당사자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 등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경제적 상황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그림 7-3]과 같이 코로나 전과 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연실험설계를 통해 코로나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이전인 2017년 국민의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이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가 국민의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대별, 성별, 소득 계층별,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과 도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정신건강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 사이의 정신건강 지표 수준이 유의하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정신건강 지표 예측요인들이 코로나 전후로 동질한지 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7-3] 코로나의 영향: 자연 실험설계



자료: 저자 작성.

나. 연구 방법

2021년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3,96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7년 조사대상자였던 3,839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2021년 조사대상자 성별 구성은 여성이 1,927명, 남성이 1,996명으로, 교차분석결과 2017년의 성별 구성인 여성 1,891명, 남성 1,948명과 성별 구성비에서 차이가 없었다($\chi^2(1)=.015, p>.05$). 2021년에 비수도권 참여자 수가 2,002명이고 수도권 참여자 수가 1,921명인데, 교차분석결과는 2017년 비수도권 참여자 1,909명, 수도권 참여자 1,930명과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구성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1)=1.324, p>.05$). 2021년에 대도시 지역 참여자는 1,672명, 중소도시 지역 참여자는 1,914명, 농어촌 지역 참여자는 337명인데, 교차분석 결과는 2017년 대도시 참여자 1,615명, 중소도시 참여자 1,837명, 농어촌 참여자 388명과 지역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chi^2(2)=5.270, p>.05$). 종합하면 2021년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2017년 참여자들의 특성과 성별, 지역별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표본집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측정 도구: 사회심리적 건강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17년과 2021년에 사회통합조사에 참여한 7,801명이다. 2021년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3,96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7년 조사대상자였던 3,839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2021년 조사대상자 성별 구성은 여성이 1,927명, 남성이 1,996명으로, 교차분석결과는 2017년의 성별 구성인 여성 1,891명, 남성 1,948명과 성별 구성비에서 차이가 없었다($\chi^2(1)=.015, p>.05$). 2021년에 비수도권 참여자 수가 2,002명이고 수도권 참여자 수가 1,921명인데, 교차 분석결과는 2017년 비수도권 참여자 1,909명, 수도권 참여자 1,930명과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구성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1)=1.324, p>.05$). 2021년에 대도시 지역 참여자는 1,672명, 중소도시 지역 참여자는 1,914명, 농어촌 지역 참여자는 337명인데, 교차분석 결과 이는 2017년 대도시 참여자 1,615명, 중소도시 참여자 1,837명, 농어촌 참여자 388명과 지역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2)=5.270, p>.05$). 종합하면 2021년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2017년 참여자들의 특성과 성별, 지역별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표본집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측정 도구

① 요인 변수(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심리적 건강 변수(종속변수)는 행복도, 우울 정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 등 5개이다.

행복도는 응답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라는 한 문항으로, 0부터 10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0’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 ‘5’는 ‘보통’, ‘10’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한다.

우울 정도는 응답자가 우울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라는 한 문항으로, 0부터 10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0’은 ‘전혀 우울하지 않음’, ‘5’는 ‘보통’, ‘10’은 ‘매우 우울함’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라는 한 문항으로, 0부터 10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0’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 ‘5’는 ‘보통’,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응답자가 얼마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라는 한 문항으로, 0부터 10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0’은 ‘전혀 받고 있지 않음’, ‘5’는 ‘보통’, ‘10’은 ‘매우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살생각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와 ‘아니오’로 대답하였다. ‘0’은 ‘없었음’, ‘1’은 ‘있었음’을 의미한다.

② 독립변수

4절의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활용할 주요 독립변수는 성, 연령, 교육, 배우자 유무, 가구원 소득, 직업 특성, 지역 특성, 시점이다. 먼저,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이분 변수로 여성을 ‘0’으로 코딩하고 남성을 ‘1’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조사 시점과 태어난 시점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산출한 나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 수준은 교육 받은 연도 및 졸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열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 6=대학원 이상을 의미한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여, 이분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원 소득은 보고된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를 기반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원 소득을 산출하였다(가구원 소득=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가구원 소득이 정규분포에 위배 되어 분석에서는 자연로그로 전환한 가구원 소득(LN 가구원소득=LN(가구원소득))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직업 특성은 비정규직을 ‘0’으로 코딩하고, 정규직을 ‘1’로 코딩하여, 이분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지역 특성 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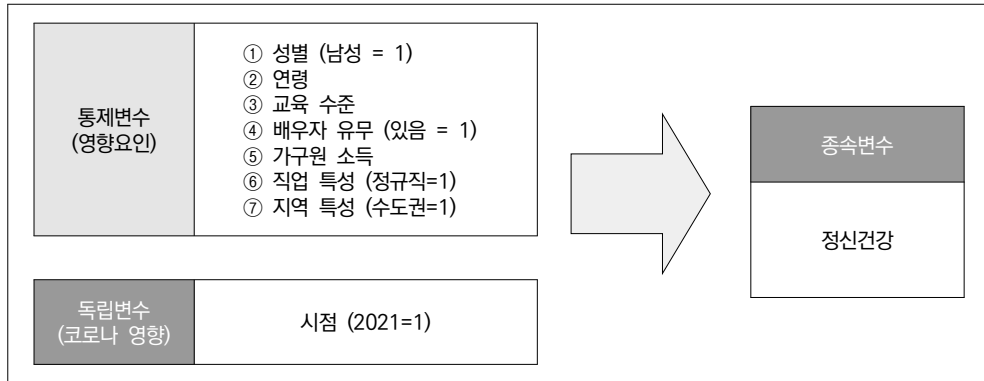
비수도권을 '0'으로 코딩하고, 수도권을 '1'로 코딩하여, 이분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 이전 2017년을 '0'으로 코딩하고, 코로나 이후인 2021년 데이터를 '1'로 코딩하여, 이분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분석 방법(모형)

먼저, 제3절에서는 정신건강 변수의 현황 및 변화, 구체적으로 2017년 대비 코로나 발병 이후인 2021년에 주요 정신건강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정신건강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주요 정신건강 변수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7년 대비 2021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2017년과 2021년간의 평균값 및 분포의 차이를 t-검증과 카이스퀘어 검증과 같은 이항분석을 실시하고, 이어서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 사이에 주요 정신건강 변수의 수준 변화가 있는지를 다변량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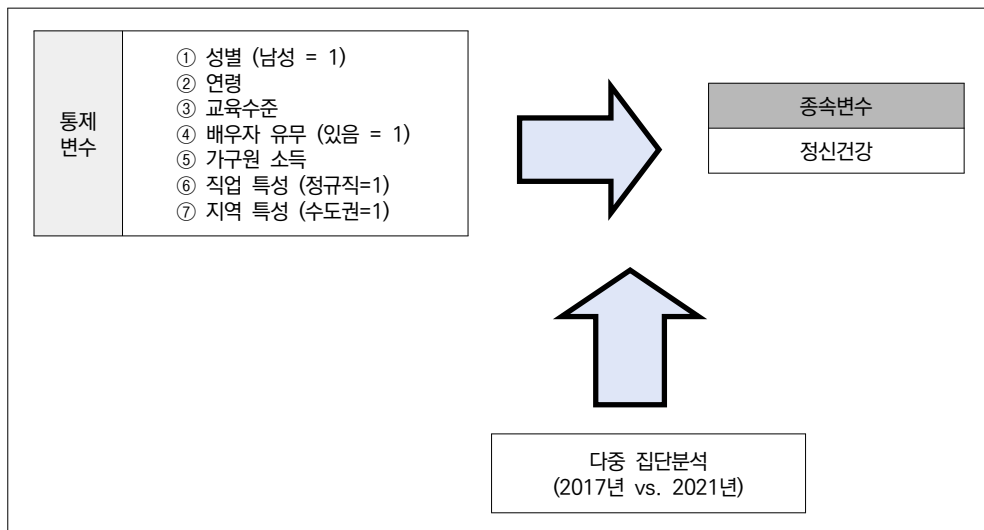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지 또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지만, 정신건강 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4절에서는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주기 전인 2017년 자료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인 2021년 자료를 통합하여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정신건강 변화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영향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시점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점이 코로나 전인 2017년이 '0'으로 코딩되고 코로나 이후인 2021년이 '1'로 코딩되어 있어서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시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7-4]와 같다.

[그림 7-4] 연구모형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제4절에서 살펴본 구조모형들이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통해 정신건강 영향요인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코로나 이후인 2021년 두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건강 변수들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해 시점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한다. 정신건강 예측요인이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7-5]와 같다.

[그림 7-5]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모형



제3절 분석 결과 1 : 코로나 전후의 정신건강 (2017년과 2021년 비교)

1. 코로나 전후의 주요 정신건강 지표의 변화

다음 <표 7-1>은 행복도, 우울 정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 등의 주요 정신건강 지표들의 시점별 차이 및 차이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1> 연도별 연구 참여자 특성 및 시점 간 차이

변수	연도	참여자 수	M(유무)	SD(N)	차이 (t/x^2)
행복도	2017	3839	6.7279	1.9767	$t=8.85^{***}$
	2021	3923	6.3344	1.8972	
우울 정도	2017	3839	2.7498	2.2281	$t=3.57^{***}$
	2021	3923	2.9330	2.2868	
삶의 만족도	2017	3839	6.3285	1.9543	$t=10.11^{***}$
	2021	3923	5.8964	1.8050	
사회적 지지	2017	3839	5.9439	1.8839	$t=6.87^{***}$
	2021	3923	5.6680	1.6409	
자살생각	2017	3839	없음	3,596명	$x^2=.024$
			있음	243명	
	2021	3923	없음	3,678명	
			있음	245명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표 7-1>에서 정리된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은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인 2021년에는 2017년과 비교해서 행복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등 긍정 정신건강 수준은 감소하였고, 우울 정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두 시점 간 자살생각을 가진 참가자들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행복도 변화: 참가자 특성별 변화 차이

가. 연령대별(세대별)

〈표 7-2〉와 [그림 7-6]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행복도 변화의 크기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행복도 하락 폭이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행복도 하락 폭은 연령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19, p<.10). 행복도 수준은 두 시점 모두에서 2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행복도 수준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30대, 50대, 60대 연령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20대와 40대 연령층의 행복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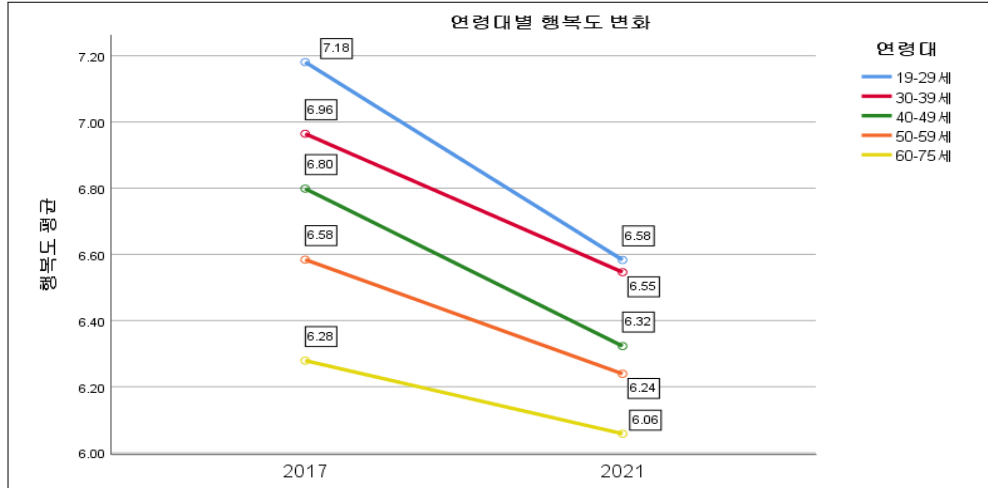
〈표 7-2〉 행복도: 연령대별

연령대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19~29세	2017년	7.1809	1.83931	785	2.219†
	2021년	6.5831	1.81341	734	
	전체	6.8920	1.85052	1,519	
30~39세	2017년	6.9644	2.01714	814	
	2021년	6.5462	1.79415	650	
	전체	6.7787	1.93191	1,464	
40~49세	2017년	6.7986	1.84829	973	
	2021년	6.3227	1.89079	787	
	전체	6.5858	1.88182	1,760	
50~59세	2017년	6.5840	1.97993	911	
	2021년	6.2390	1.98380	820	
	전체	6.4206	1.98867	1,731	
60~75세	2017년	6.2789	2.09919	839	
	2021년	6.0580	1.91397	931	
	전체	6.1627	2.00637	1,77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6] 연령대별 행복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성별

〈표 7-3〉과 [그림 7-7]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행복도 변화의 크기가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행복도 하락 폭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행복도 하락폭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448, p>.05$). 두 시점 모두에서 여성의 행복도 수준이 남성이 느끼는 행복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의 행복도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행복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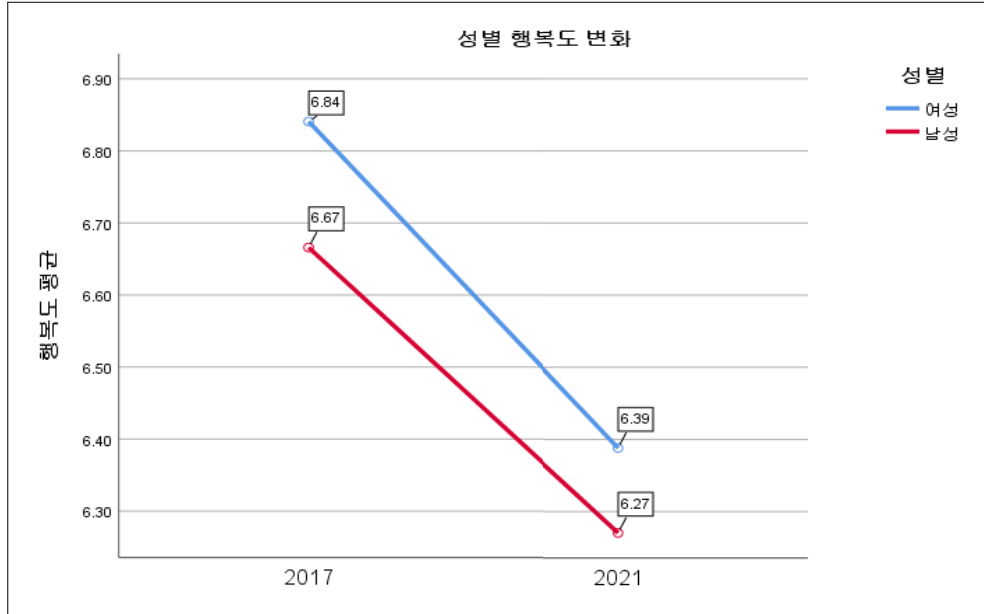
성별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여성	2017년	6.8408	1.95045	2155	.448
	2021년	6.3880	1.89909	1928	
	전체	6.6270	1.93936	4083	
남성	2017년	6.6659	2.00531	2167	
	2021년	6.2703	1.89134	1994	
	전체	6.4763	1.96128	4161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7] 성별 행복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소득계층별

〈표 7-4〉와 [그림 7-8]은 2017년과 2021년 사이 행복도 변화의 크기가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행복도 하락 폭은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F=3.149, p<.05$). 두 시점 모두에서 소득 상위계층의 행복도 수준이 소득 하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도 감소의 폭은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에 비해서 하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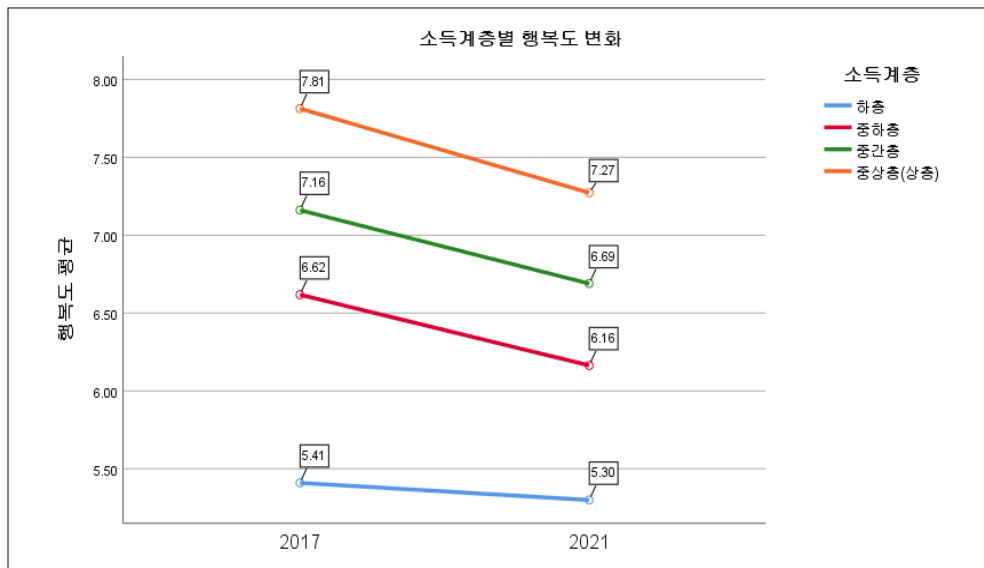
〈표 7-4〉 행복도: 소득계층별

소득계층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하층	2017년	5.4094	2.38017	618	3.149*
	2021년	5.2991	2.16204	535	
	전체	5.3582	2.28124	1153	
중하층	2017년	6.6177	1.78536	1580	
	2021년	6.1634	1.78985	1499	
	전체	6.3966	1.80163	3079	
중간층	2017년	7.1610	1.78886	1851	
	2021년	6.6893	1.74141	1690	
	전체	6.9359	1.78177	3541	
중상층(상층)	2017년	7.8132	1.63765	273	
	2021년	7.2727	1.84593	198	
	전체	7.5860	1.74689	471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8] 소득계층별 행복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지역별

1) 수도권과 비수도권

〈표 7-5〉와 [그림 7-9]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행복도 변화의 크기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17년에 비수도권의 행복도 수준이 수도권 행복도 수준보다 높았지만, 행복도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2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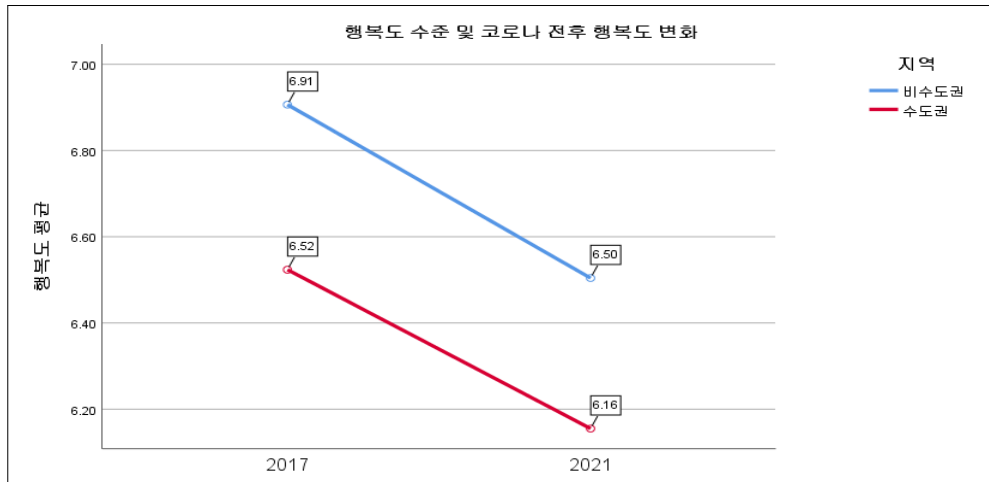
〈표 7-5〉 행복도: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비수도권	2017년	6.9064	1.88818	2691	.123
	2021년	6.5042	1.99099	2749	
	전체	6.7031	1.95103	5440	
수도권	2017년	6.5235	2.03851	1148	
	2021년	6.1550	1.82942	1174	
	전체	6.3372	1.94395	2322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9] 수도권과 비수도권 행복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표 7-6〉과 [그림 7-10]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행복도 변화의 크기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17년에 중소도시의 행복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농어촌이 중간 정도이고, 대도시 행복도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행복도 하락 폭이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행복도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F=.666, p>.05$).

〈표 7-6〉 행복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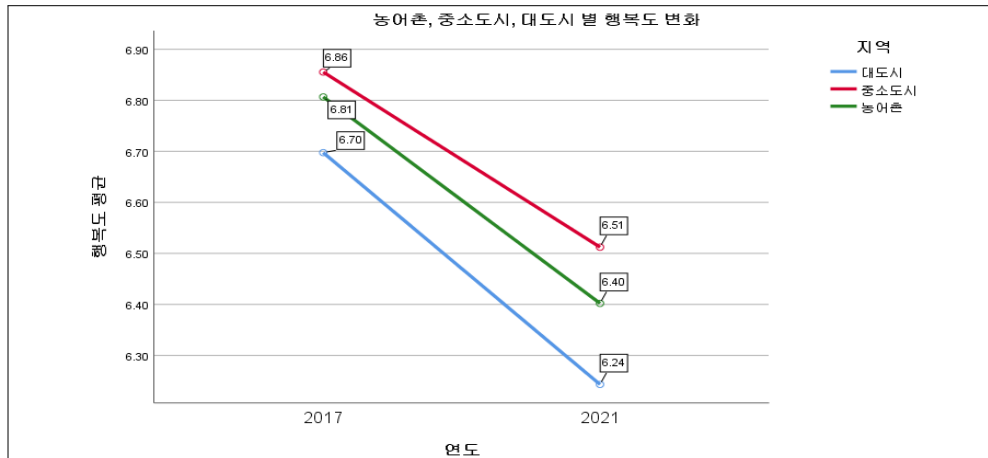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대도시	2017년	6.6975	1.97623	1375	.666
	2021년	6.2432	1.89852	1398	
	전체	6.4684	1.95037	2773	
중소도시	2017년	6.8553	1.90309	1921	
	2021년	6.5122	1.93328	1933	
	전체	6.6832	1.92570	3854	
농어촌	2017년	6.8066	1.98458	543	
	2021년	6.4020	2.09920	592	
	전체	6.5956	2.05424	1135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0]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행복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농어촌과 도시

〈표 7-7〉과 [그림 7-11]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행복도 변화의 크기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17년에 농어촌의 행복도 수준이 약간 높았지만 비슷한 수준이었고, 행복도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01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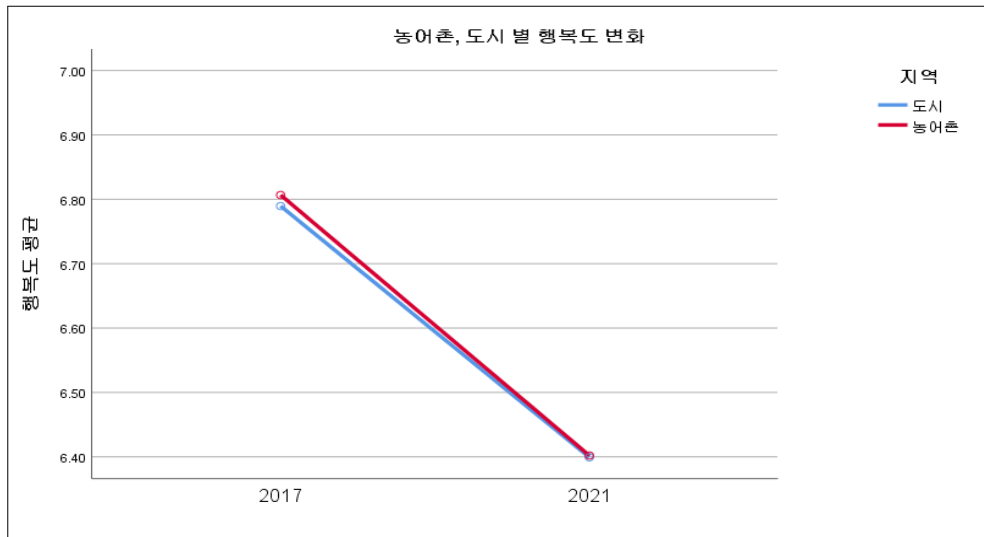
〈표 7-7〉 행복도: 농어촌, 도시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도시	2017년	6.7894	1.93521	3296	.013
	2021년	6.3993	1.92307	3331	
	전체	6.5933	1.93881	6627	
농어촌	2017년	6.8066	1.98458	543	
	2021년	6.4020	2.09920	592	
	전체	6.5956	2.05424	1135	

주: † <.10, *<.05, **<.01,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1] 농어촌과 도시 행복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우울 정도 변화: 참가자 특성별 변화 차이

가. 연령대별(세대별)

〈표 7-8〉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우울 정도 변화의 크기가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울 정도 하락 폭이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우울 정도 하락 폭은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19, p>.05$).

〈표 7-8〉 우울 정도: 연령대별

연령대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19~29세	2017년	2.4917	2.10992	785	.119
	2021년	2.5300	2.15017	734	
	전체	2.5102	2.12885	1,519	
30~39세	2017년	2.5676	2.16530	814	
	2021년	2.7738	2.18616	650	
	전체	2.6592	2.17626	1,464	
40~49세	2017년	2.6434	2.15864	973	
	2021년	3.0572	2.25996	787	
	전체	2.8284	2.21348	1,760	
50~59세	2017년	2.8397	2.28050	911	
	2021년	3.1195	2.42753	820	
	전체	2.9723	2.35476	1,731	
60~75세	2017년	2.9416	2.31889	839	
	2021년	3.0397	2.30183	931	
	전체	2.9932	2.30980	1,770	

주: † <.10, *<.05, **<.0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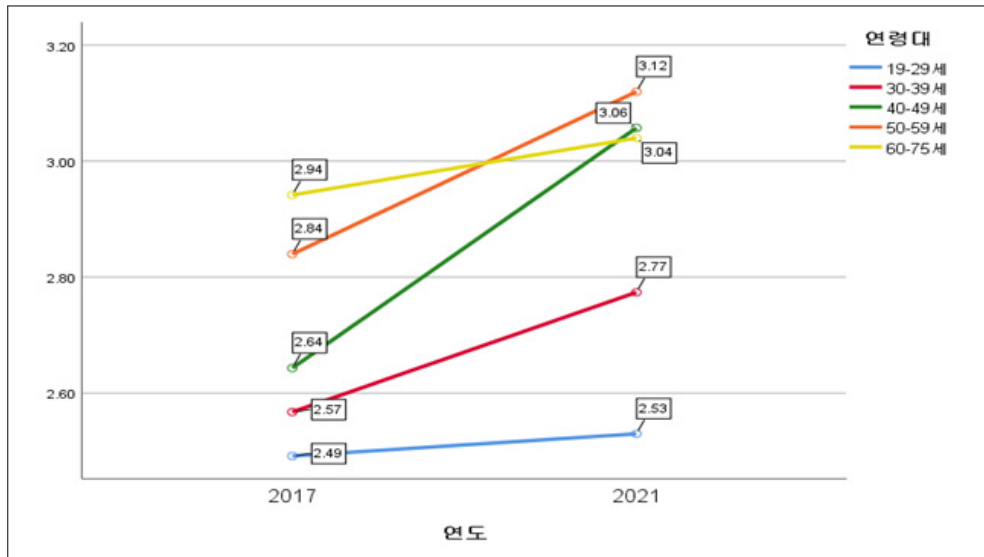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2]는 두 시점 간 우울 정도 변화 추이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 연령대에 걸쳐서 2017년 대비 2021년의 우울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대별 순서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2017년에는 우울 정도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50대, 40대, 30대, 20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는 50대의 우울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40대의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세 번째로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그래프상으로는 20대와 60대의 우울 정도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지만, 증가 폭에 있어서 두 시점 간의 연령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119, p>.05$).

[그림 7-12] 연령대별 우울 정도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성별

〈표 7-9〉와 [그림 7-13]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우울 정도 변화의 정도가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울 정도 증가 폭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우울 정도 증가 폭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448, p>.05$). 두 시점 모두에서 여성의 우울 정도 수준이 남성이 느끼는 우울 정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의 우울 정도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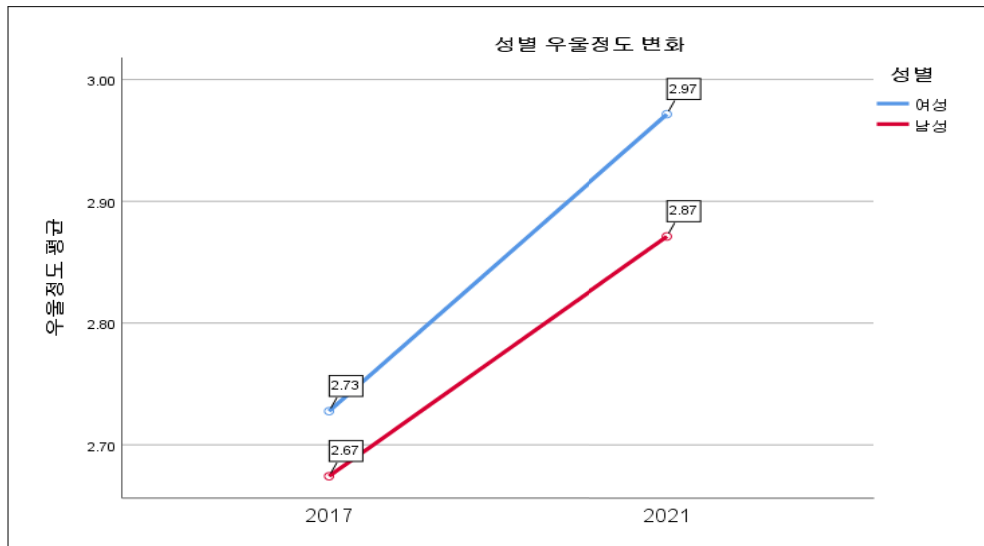
〈표 7-9〉 우울 정도: 성별

성별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여성	2017년	2.7276	2.22599	2155	.224
	2021년	2.9715	2.30401	1928	
	전체	2.8428	2.26616	4083	
남성	2017년	2.6742	2.20299	2167	
	2021년	2.8711	2.26293	1994	
	전체	2.7686	2.23382	4161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3] 성별 우울 정도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소득계층별

〈표 7-10〉과 [그림 7-14]는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우울 정도 변화의 크기가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우울 정도 상승 폭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3.149$, $p<.05$). 두 시점 모두에서 소득 상위계층의 우울 정도 수준이 소득 하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의 우울 정도 수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에서 정리한 것처럼 우울 정도 증가 폭은 중상층(상층)과 중간층에서 중하층이나 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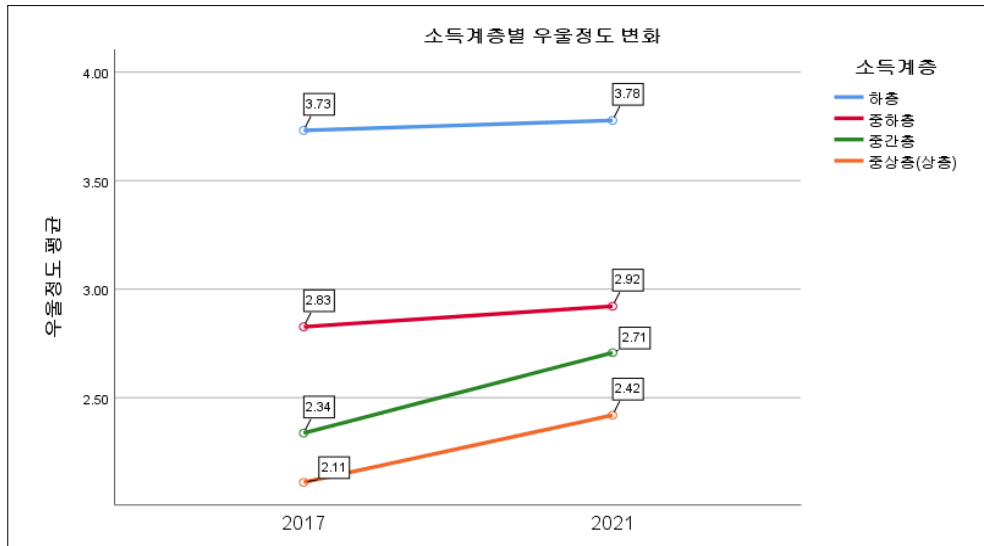
〈표 7-10〉 우울 정도: 소득계층별

소득계층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하층	2017년	3.7314	2.57887	618	2.853*
	2021년	3.7776	2.54713	535	
	전체	3.7528	2.56319	1153	
중하층	2017년	2.8266	2.05166	1580	
	2021년	2.9213	2.22540	1499	
	전체	2.8727	2.13818	3079	
중간층	2017년	2.3366	2.09185	1851	
	2021년	2.7071	2.19127	1690	
	전체	2.5134	2.14757	3541	
중상층(상층)	2017년	2.1099	2.20353	273	
	2021년	2.4192	2.17532	198	
	전체	2.2399	2.19472	471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4〕 소득계층별 우울 정도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지역별

1) 수도권과 비수도권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우울 정도 변화의 크기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우울 정도 상승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002, p>.05).

〈표 7-11〉 우울 정도: 수도권,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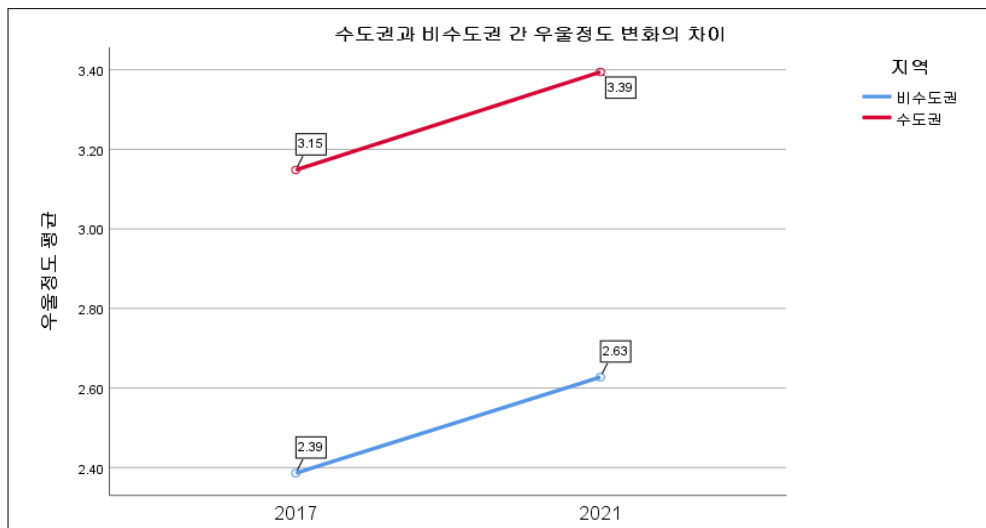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비수도권	2017년	2.3861	2.11490	2691	.002
	2021년	2.6275	2.27275	2749	
	전체	2.5081	2.19920	5440	
수도권	2017년	3.1481	2.29415	1148	
	2021년	3.3944	2.31132	1174	
	전체	3.2726	2.30565	2322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5〕 수도권과 비수도권 우울 정도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우울 정도 변화의 크기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우울 변화폭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F=12.578, p<.001$). 2017년에는 우울 정도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높았는데,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는 우울 정도의 높은 순서가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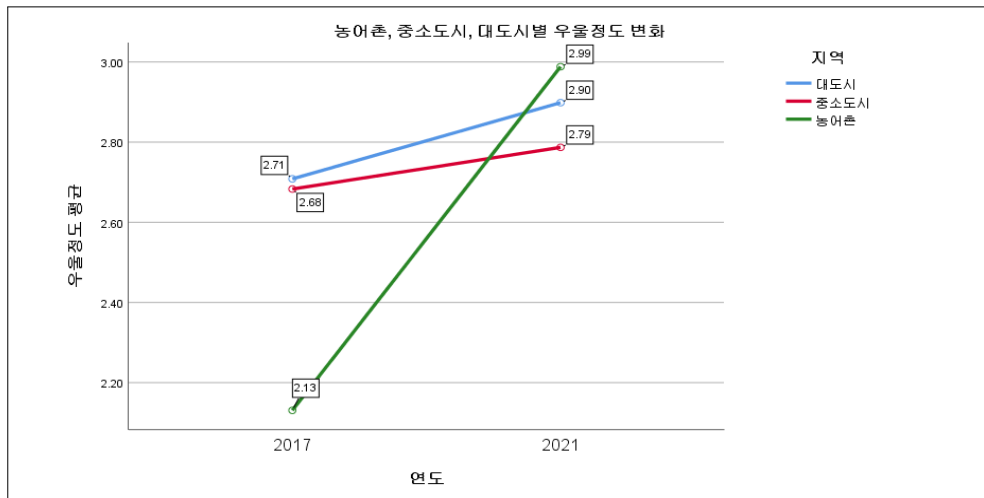
〈표 7-12〉 우울 정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대도시	2017년	2.7084	2.23282	1375	12.578***
	2021년	2.8984	2.40995	1398	
	전체	2.8042	2.32533	2773	
중소도시	2017년	2.6830	2.12867	1921	
	2021년	2.7869	2.19945	1933	
	전체	2.7351	2.16480	3854	
농어촌	2017년	2.1308	2.28815	543	
	2021년	2.9882	2.42062	592	
	전체	2.5780	2.39577	1135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6]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우울 정도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농어촌과 도시

〈표 7-13〉과 [그림 7-17]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우울 정도 변화의 크기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울 정도 상승 폭이 농어촌과 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우울 정도 상승 폭은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F=24.554$, $p<.001$).

〈표 7-13〉 우울 정도: 농어촌,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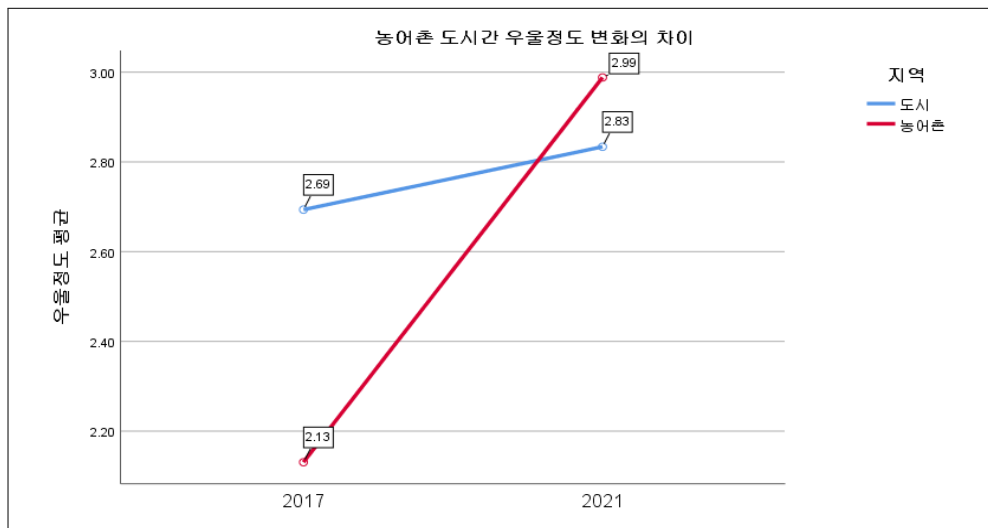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도시	2017년	2.6936	2.17242	3296	24.554***
	2021년	2.8337	2.29046	3331	
	전체	2.7640	2.23346	6627	
농어촌	2017년	2.1308	2.28815	543	
	2021년	2.9882	2.42062	592	
	전체	2.5780	2.39577	1135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7] 농어촌과 도시 우울 정도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삶의 만족도 변화: 참가자 특성별 변화 차이

가. 연령대별(세대별)

〈표 7-14〉와 [그림 7-18]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크기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은 연령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032, p<.10). 두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는 2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정도는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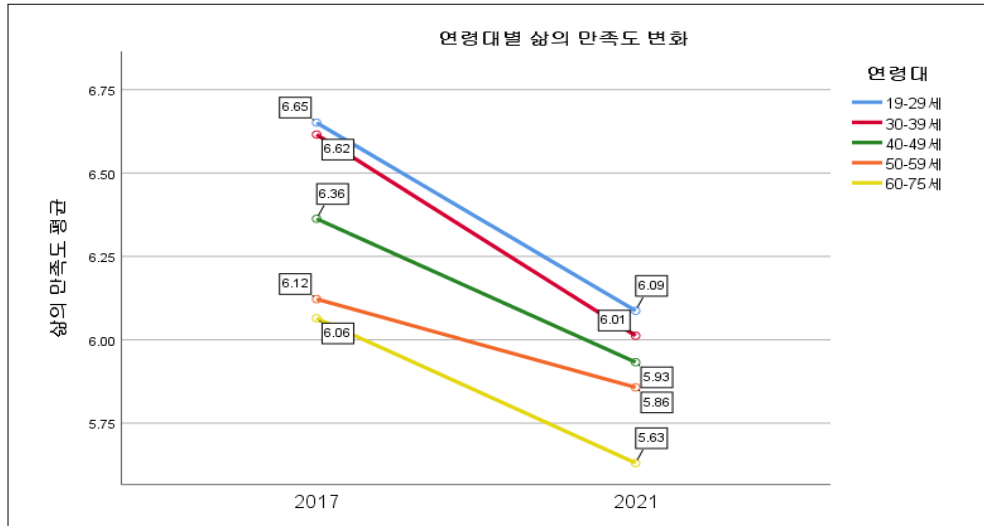
〈표 7-14〉 삶의 만족도: 연령대별

연령대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19~29세	2017년	6.6510	1.96603	785	2.032†
	2021년	6.0872	1.74203	734	
	전체	6.3785	1.88177	1,519	
30~39세	2017년	6.6155	1.91602	814	
	2021년	6.0123	1.76156	650	
	전체	6.3477	1.87257	1,464	
40~49세	2017년	6.3628	1.88860	973	
	2021년	5.9327	1.86485	787	
	전체	6.1705	1.88963	1,760	
50~59세	2017년	6.1218	2.00480	911	
	2021년	5.8573	1.82918	820	
	전체	5.9965	1.92759	1,731	
60~75세	2017년	6.0644	1.93588	839	
	2021년	5.6305	1.76492	931	
	전체	5.8362	1.86007	1,77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8]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성별

〈표 7-15〉와 [그림 7-19]는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크기가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448, p>.05$). 두 시점 모두에서 여성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남성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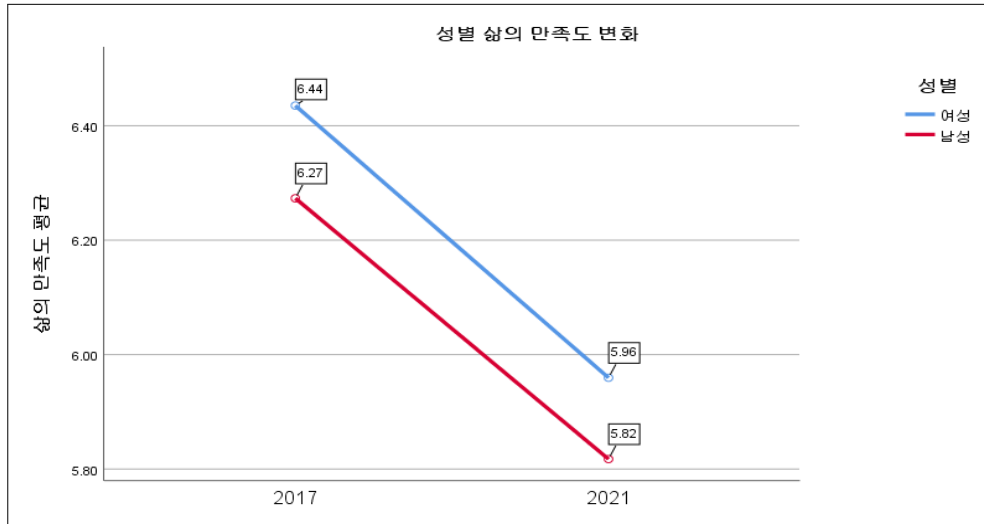
〈표 7-15〉 삶의 만족도: 성별

성별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여성	2017년	6.4353	1.93963	2155	.058
	2021년	5.9595	1.82993	1928	
	전체	6.2106	1.90327	4083	
남성	2017년	6.2732	1.96839	2167	
	2021년	5.8175	1.76939	1994	
	전체	6.0548	1.88921	4161	

주: † <.10, *<.05, **<.01,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19〕 성별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소득계층별

〈표 7-16〉과 [그림 7-20]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크기가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은 소득계층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7.152, p<.001$). 두 시점 모두에서 소득 상위계층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소득 하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감소하였다. 삶의 만족도 감소의 폭은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에 비해서 하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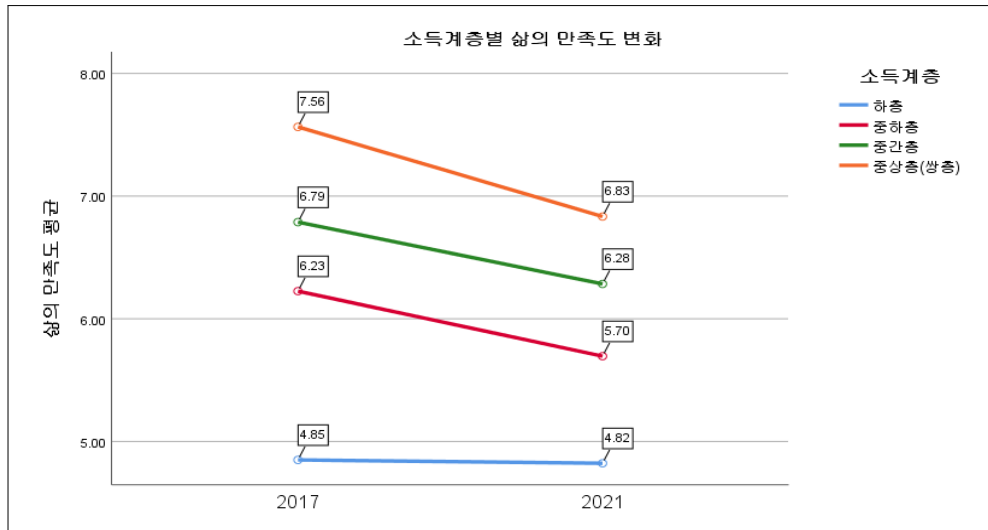
〈표 7-16〉 삶의 만족도: 소득계층별

소득계층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하층	2017년	4.8495	2.31723	618	7.152***
	2021년	4.8224	2.02241	535	
	전체	4.8369	2.18449	1153	
중하층	2017년	6.2253	1.69112	1580	
	2021년	5.6951	1.63483	1499	
	전체	5.9672	1.68467	3079	
중간층	2017년	6.7877	1.76934	1851	
	2021년	6.2840	1.69415	1690	
	전체	6.5473	1.75178	3541	
중상층(상층)	2017년	7.5641	1.63950	273	
	2021년	6.8333	1.70324	198	
	전체	7.2569	1.70351	471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0] 소득계층별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지역별

1) 수도권과 비수도권

〈표 7-17〉과 [그림 7-21]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크기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9.400$, $p<.01$). 2017년에는 비수도권 삶의 만족도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높았지만, 삶의 만족도 감소폭은 비수도권이 커서 2021년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삶의 만족도 격차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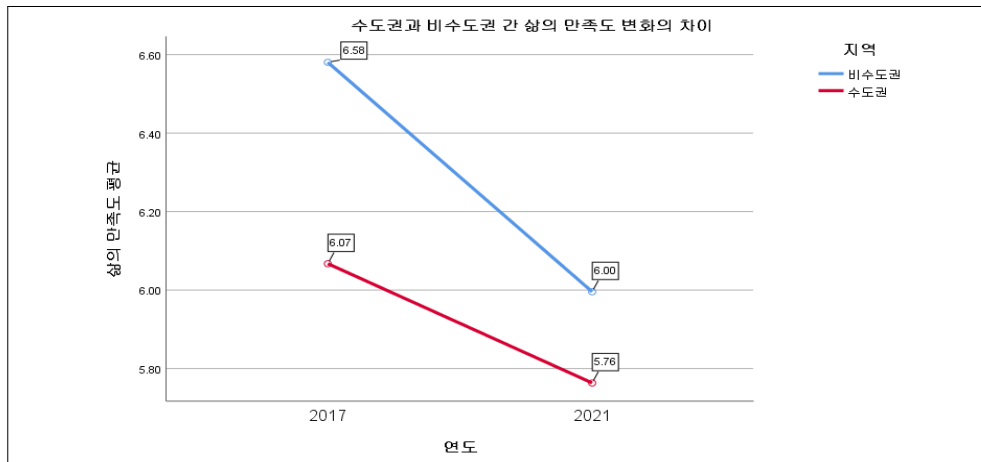
〈표 7-17〉 삶의 만족도: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비수도권	2017년	6.5805	1.80595	2691	9.400**
	2021년	5.9956	1.83131	2749	
	전체	6.2849	1.84200	5440	
수도권	2017년	6.0671	2.04267	1148	
	2021년	5.7632	1.78231	1174	
	전체	5.9134	1.92106	2322	

주: † <.10, *<.05, **<.01,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1] 수도권과 비수도권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는,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삶의 만족도 변화 크기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등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357,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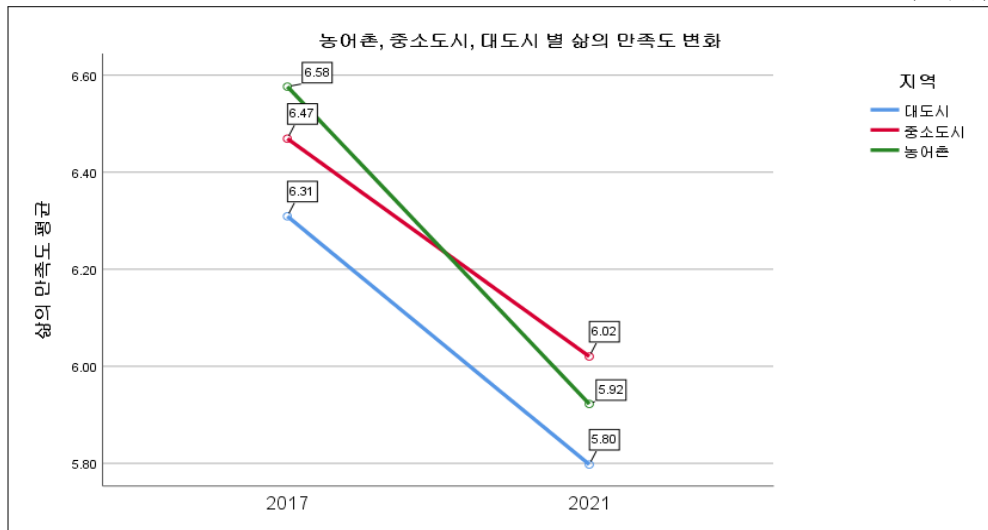
〈표 7-18〉 삶의 만족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대도시	2017년	6.3091	1.95503	1375	.1.091
	2021년	5.7976	1.84661	1398	
	전체	6.0512	1.91793	2773	
중소도시	2017년	6.4690	1.85860	1921	
	2021년	6.0202	1.76670	1933	
	전체	6.2439	1.82669	3854	
농어촌	2017년	6.5764	1.84879	543	
	2021년	5.9223	1.90840	592	
	전체	6.2352	1.90752	1135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2]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농어촌과 도시

〈표 7-19〉과 [그림 7-23]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삶의 만족도 변화의 크기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2.237,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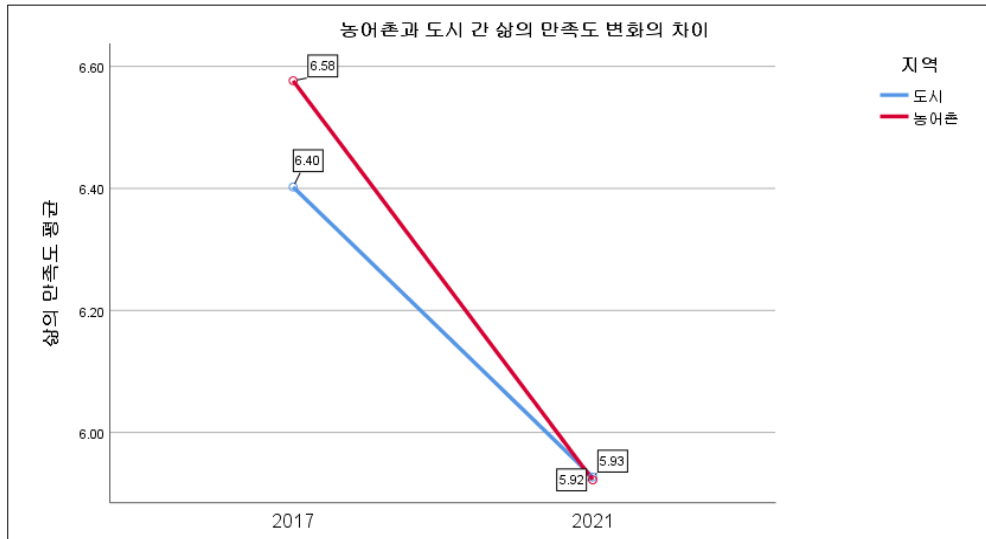
〈표 7-19〉 삶의 만족도: 농어촌, 도시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유의도
도시	2017년	6.4023	1.90077	3296	2.237
	2021년	5.9267	1.80374	3331	
	전체	6.1633	1.86769	6627	
농어촌	2017년	6.5764	1.84879	543	
	2021년	5.9223	1.90840	592	
	전체	6.2352	1.90752	1135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3] 농어촌과 도시 삶의 만족도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사회적 지지 변화: 참가자 특성별 변화 차이

가. 연령대별(세대별)

〈표 7-20〉과 [그림 7-24]는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사회적 지지 변화의 크기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 하락 폭은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612$, $p<.05$). 두 시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20대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완만하고, 30대의 사회적 지지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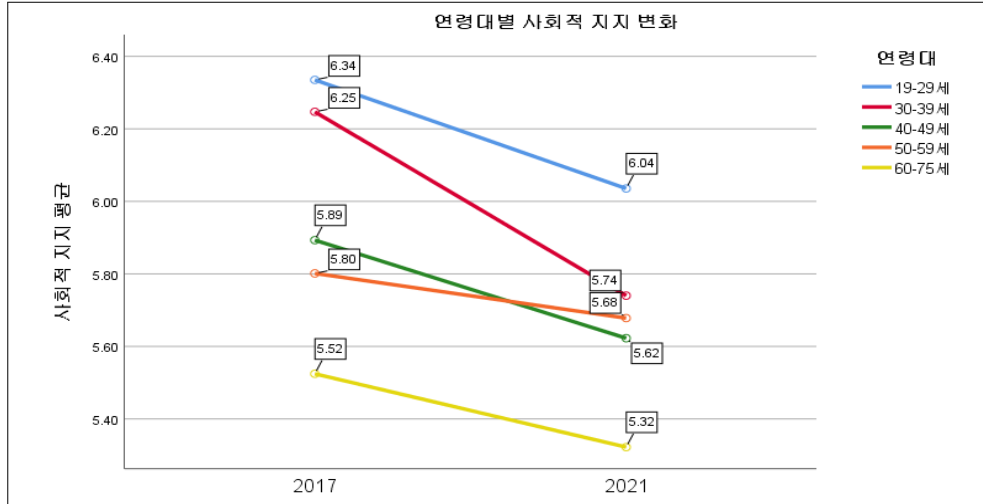
〈표 7-20〉 사회적 지지: 연령대별

연령대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19~29세	2017년	6.3350	1.85951	785	2.612*
	2021년	6.0354	1.60876	734	
	전체	6.1903	1.74871	1,519	
30~39세	2017년	6.2469	1.82216	814	
	2021년	5.7400	1.58822	650	
	전체	6.0219	1.73998	1,464	
40~49세	2017년	5.8931	1.87711	973	
	2021년	5.6226	1.56004	787	
	전체	5.7722	1.74719	1,760	
50~59세	2017년	5.8013	1.82204	911	
	2021년	5.6780	1.59402	820	
	전체	5.7429	1.71841	1,731	
60~75세	2017년	5.5244	1.89688	839	
	2021년	5.3222	1.72500	931	
	전체	5.4181	1.81081	1,77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4]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성별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사회적 지지 변화의 크기가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 하락 폭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428, p>.05$). 두 시점 모두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남성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성별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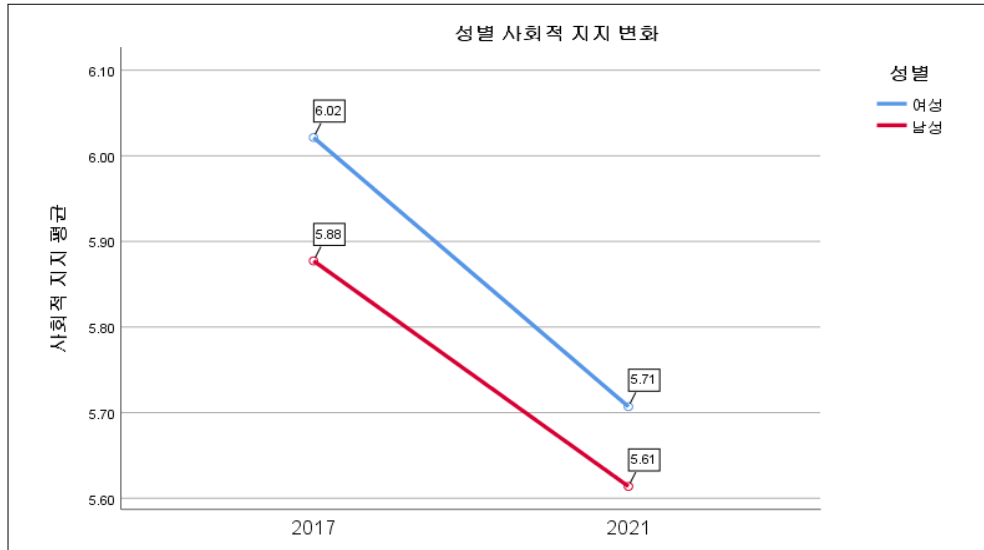
<표 7-21> 사회적 지지: 성별

성별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여성	2017년	6.0213	1.87356	2155	.428
	2021년	5.7070	1.61843	1928	
	전체	5.8729	1.76449	4083	
남성	2017년	5.8772	1.87949	2167	
	2021년	5.6138	1.65436	1994	
	전체	5.7510	1.77983	4161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5] 성별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소득계층별

〈표 7-22〉와 [그림 7-26]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사회적 지지 변화의 크기가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 하락 폭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4.694$, $p<.01$). 두 시점 모두에서 소득 상위계층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소득 하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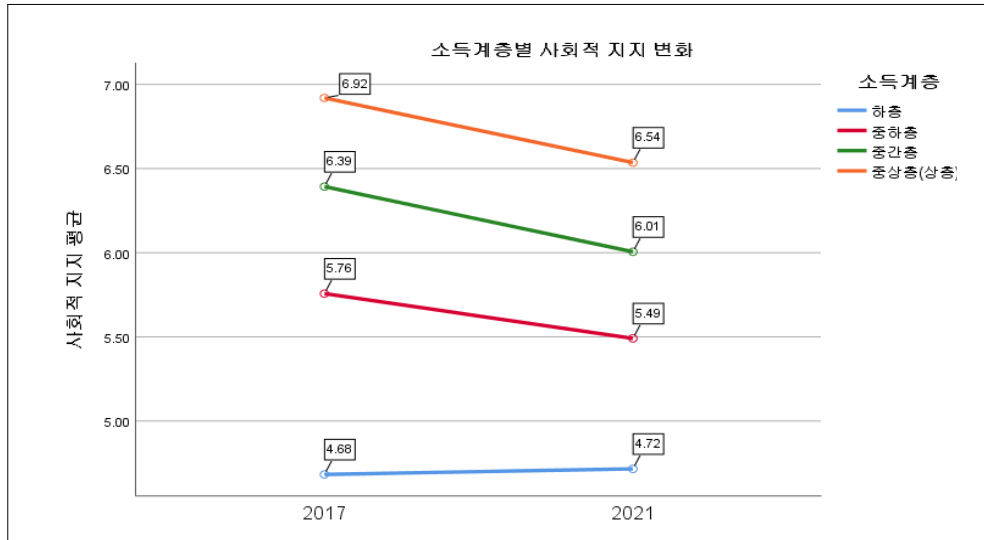
〈표 7-22〉 사회적 지지: 소득계층별

소득계층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하층	2017년	4.6828	2.17539	618	4.694**
	2021년	4.7159	1.87972	535	
	전체	4.6982	2.04272	1153	
중하층	2017년	5.7570	1.66221	1580	
	2021년	5.4910	1.53609	1499	
	전체	5.6275	1.60730	3079	
중간층	2017년	6.3928	1.67936	1851	
	2021년	6.0053	1.48546	1690	
	전체	6.2079	1.60129	3541	
중상층(상층)	2017년	6.9194	1.97803	273	
	2021년	6.5354	1.57592	198	
	전체	6.7580	1.82792	471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6〕 소득계층별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지역별

1) 수도권과 비수도권

〈표 7-23〉과 [그림 7-27]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사회적 지지 변화의 크기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00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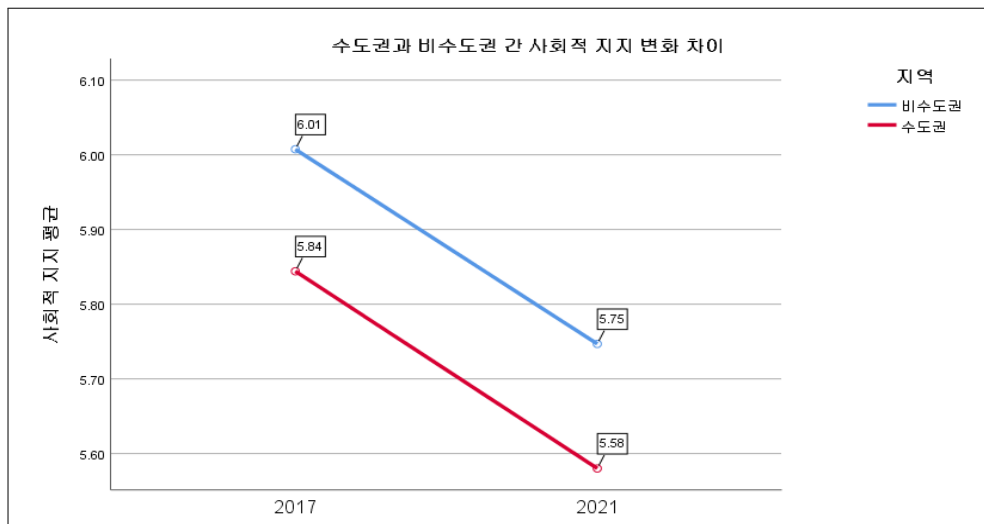
〈표 7-23〉 사회적 지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비수도권	2017년	6.0074	1.78614	2691	.004
	2021년	5.7468	1.74083	2749	
	전체	5.8757	1.76803	5440	
수도권	2017년	5.8441	1.98317	1148	
	2021년	5.5801	1.62304	1174	
	전체	5.7106	1.81448	2322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7]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2021년 사이의 사회적 지지 변화의 크기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 하락 폭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F=4.690, p<.01).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사회적 지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의 사회적 지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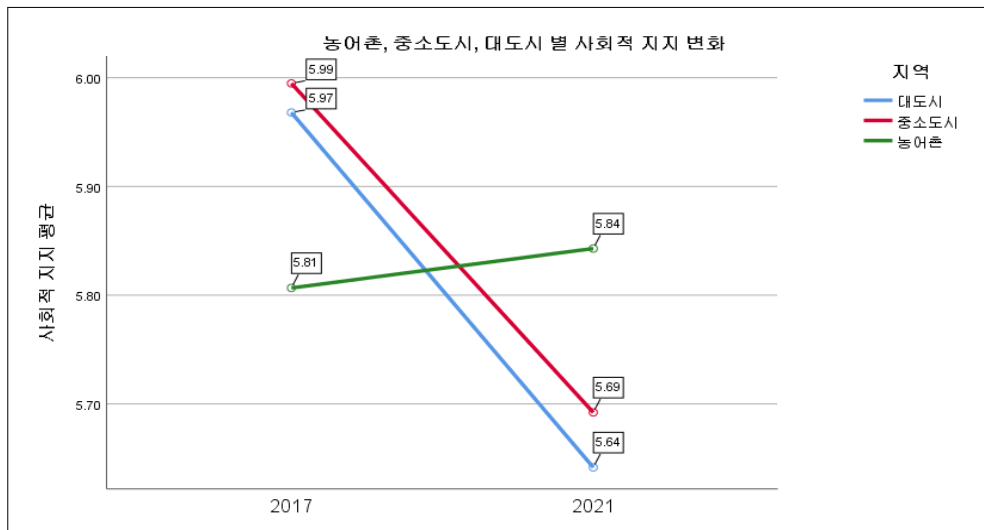
〈표 7-24〉 사회적 지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대도시	2017년	5.9680	1.83778	1375	4.690**
	2021년	5.6416	1.69708	1398	
	전체	5.8035	1.77544	2773	
중소도시	2017년	5.9948	1.85629	1921	
	2021년	5.6922	1.71491	1933	
	전체	5.8430	1.79294	3854	
농어촌	2017년	5.8066	1.84386	543	
	2021년	5.8429	1.70517	592	
	전체	5.8256	1.77218	1135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8〕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농어촌과 도시

〈표 7-25〉와 [그림 7-29]는 2017년과 2021년 사이의 사회적 지지 변화의 크기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변량 분산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F=9.315, p<.01$). 지난 4년간 도시 지역사회적 지지수준은 급감하고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지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에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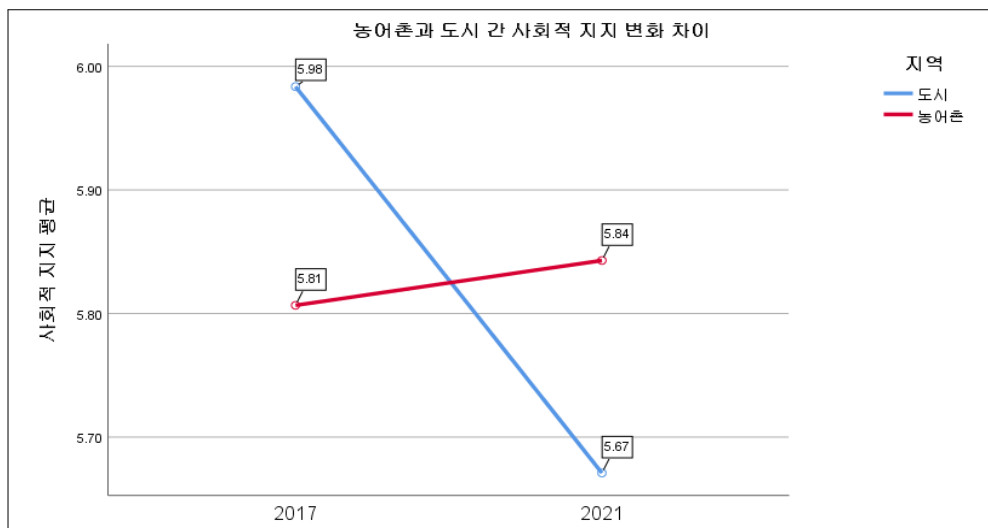
〈표 7-25〉 사회적 지지: 농어촌, 도시

지역	연도	평균	표준편차	인원수	F값(유의도)
도시	2017년	5.9836	1.84836	3296	9.315**
	2021년	5.6710	1.70738	3331	
	전체	5.8265	1.78561	6627	
농어촌	2017년	5.8066	1.84386	543	
	2021년	5.8429	1.70517	592	
	전체	5.8256	1.77218	1135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29] 농어촌과 도시의 사회적 지지 수준 및 변화

(단위: 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5. 자살생각

가. 연령대별(세대별)

〈표 7-26〉은 2017년과 2021년의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 수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교차분석 표이고, [그림 7-30]은 두 시점 간 자살생각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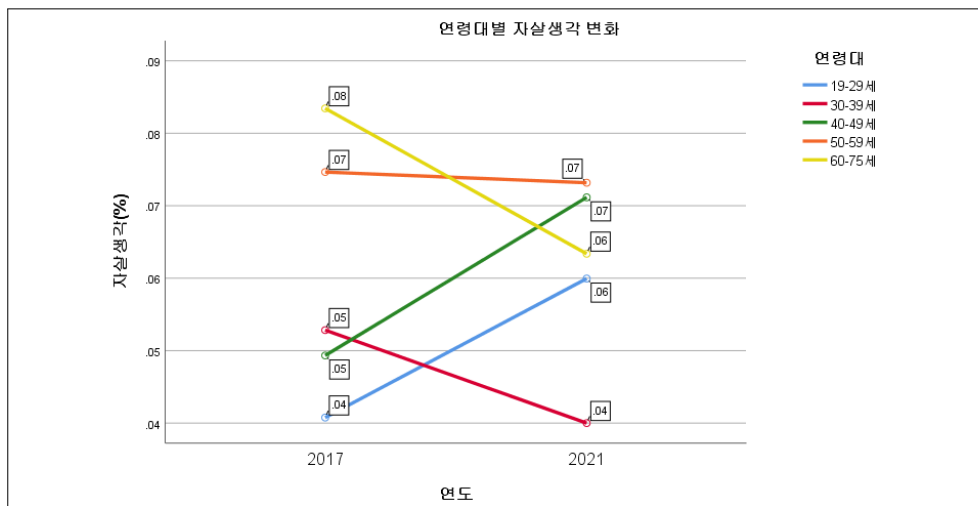
〈표 7-26〉 자살생각: 연령대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전체	χ^2		
2017	자살생각 없음	빈도	700	691	789	749	667	3596	22.562***	
		기대빈도	682.9	685.7	779.3	760.6	687.5	3596.0		
	자살생각 있음	빈도	29	41	43	63	67	243		
		기대빈도	46.1	46.3	52.7	51.4	46.5	243.0		
전체	빈도	729	732	832	812	734	3839			
	기대빈도	729.0	732.0	832.0	812.0	734.0	3839.0			
2021	자살생각 없음	빈도	677	656	737	764	844	3678		
		기대빈도	673.3	638.6	743.7	776.5	845.9	3678.0		
	자살생각 있음	빈도	41	25	56	64	58	244		
		기대빈도	44.7	42.4	49.3	51.5	56.1	244.0		
전체	빈도	718	681	793	828	902	3922			
	기대빈도	718.0	681.0	793.0	828.0	902.0	3922.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30] 연령대별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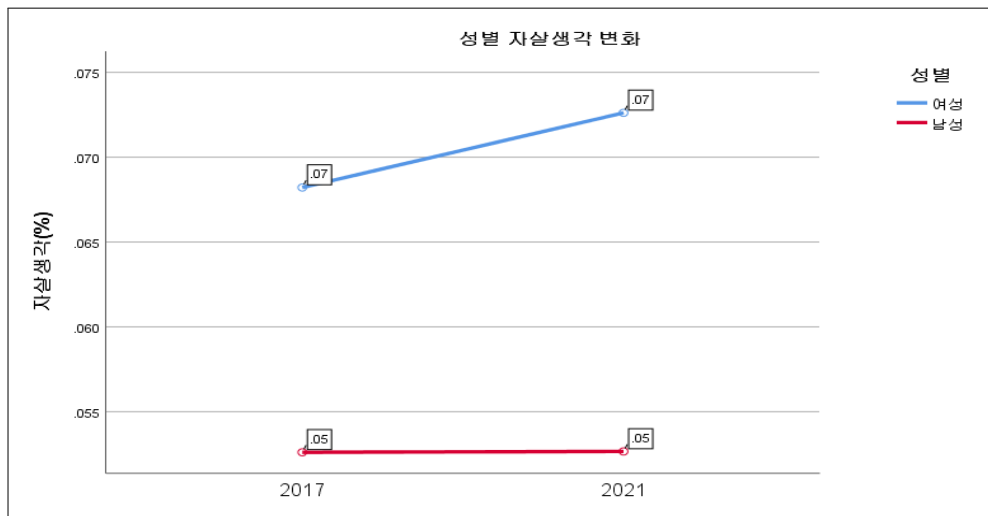
〈표 7-27〉은 2017년과 2021년의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 수를 성별로 정리한 교차 분석 표이고, [그림 7-31]은 두 시점 간 자살생각 변화추이를 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27〉 자살생각: 성별

		구분		여성	남성	전체	χ^2
2017	자살 생각	없음	빈도	1758	1838	3596	11.911***
			기대빈도	1771.3	1824.7	3596.0	
	있음	빈도	133	110	243		
		기대빈도	119.7	123.3	243.0		
전체		빈도	1891	1948	3839		
		기대빈도	1891.0	1948.0	3839.0		
2021	자살 생각	없음	빈도	1784	1894	3678	
			기대빈도	1807.6	1870.4	3678.0	
	있음	빈도	144	101	244		
		기대빈도	120.4	124.6	244.0		
전체		빈도	1928	1995	3922		
		기대빈도	1928.0	1995.0	3922.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31] 성별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 소득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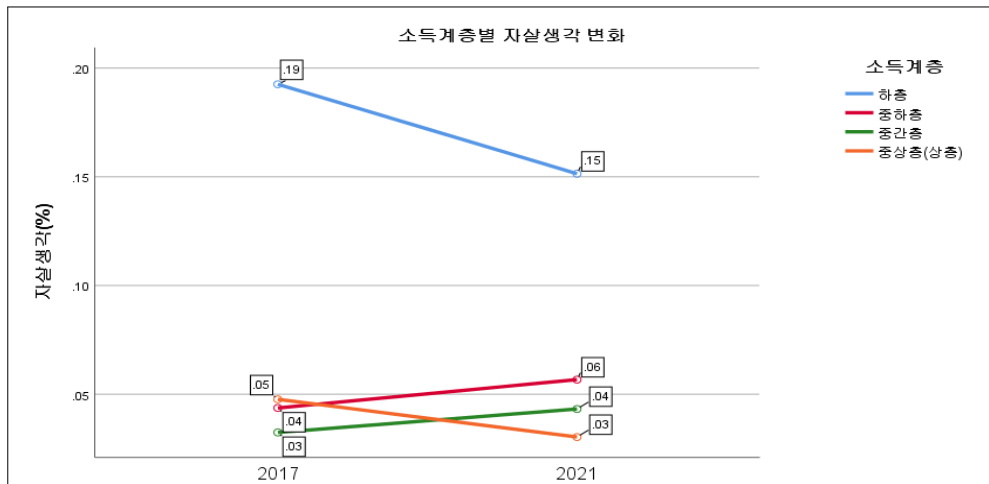
〈표 7-28〉은 2017년과 2021년의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 수를 소득계층별로 정리한 교차분석 표이고, [그림 7-32]는 두 시점 간 자살생각 변화추이를 소득계층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28〉 자살생각: 소득계층별

구분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	전체	χ^2	
2017	자살 생각	없음	빈도	435	1332	1600	230	3596	278.439***
			기대빈도	510.5	1310.5	1549.3	226.7	3596.0	
	있음	빈도	110	67	54	12	243		
		기대빈도	34.5	88.5	104.7	15.3	243.0		
	전체	빈도	545	1399	1654	242	3839		
		기대빈도	545.0	1399.0	1654.0	242.0	3839.0		
2021	자살 생각	없음	빈도	450	1396	1631	202	3678	
			기대빈도	496.0	1392.3	1595.7	195.0	3678.0	
	있음	빈도	79	89	71	6	244		
		기대빈도	33.0	92.7	106.3	13.0	244.0		
	전체	빈도	529	1485	1702	208	3922		
		기대빈도	529.0	1485.0	1702.0	208.0	3922.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32] 소득계층별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라. 지역별

1) 수도권과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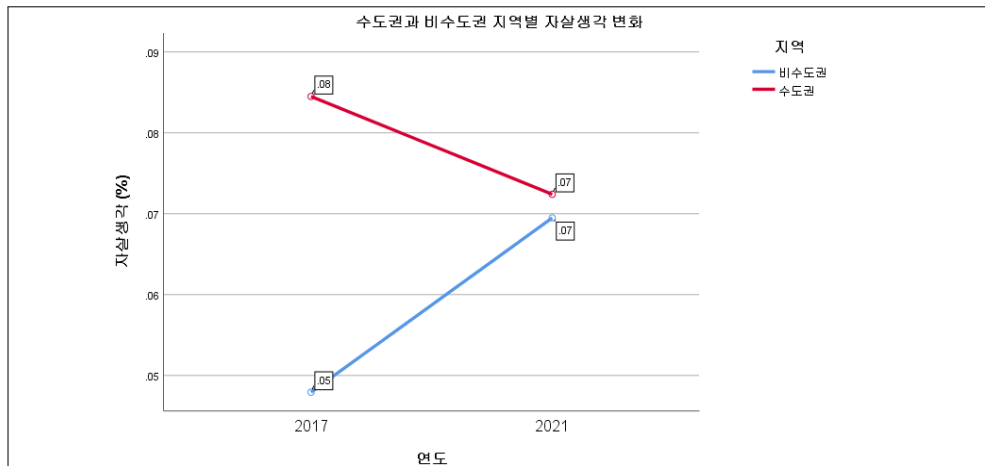
〈표 7-29〉는 2017년과 2021년의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 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별로 정리한 교차분석 표이고, [그림 7-33]은 두 시점 간 자살생각 변화추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29〉 자살생각: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χ^2	
2017	자살 생각	없음	빈도 기대빈도	2562 2532.6	1051 1080.4	3613 3613.0	10.290**
		있음	빈도 기대빈도	129 158.4	97 67.6	226 226.0	
	전체		빈도 기대빈도	2691 2691.0	1148 1148.0	3839 3839.0	
	2021	자살 생각	없음	빈도 기대빈도	2558 2555.6	1089 1091.4	
있음			빈도 기대빈도	191 193.4	85 82.6	276 276.0	
전체		빈도 기대빈도	2749 2749.0	1174 1174.0	3923 3923.0		

주: † <.10, *<.05, **<.01,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33]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표 7-30〉은 2017년과 2021년의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 수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정리한 교차분석 표이고, [그림 7-34]는 두 시점 간 자살생각 변화 추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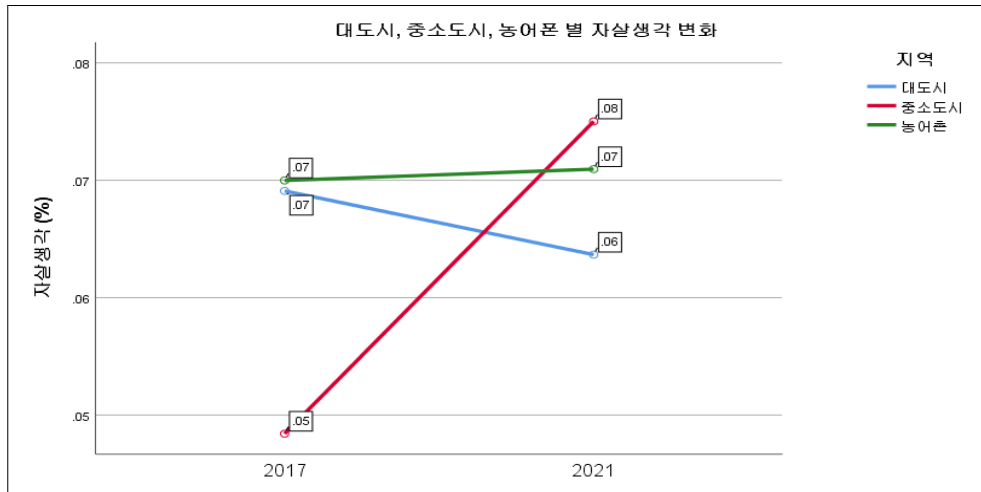
〈표 7-30〉 자살생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χ^2	
2017	자살생각	없음	빈도	1280	1828	505	3613	9.118**
			기대빈도	1294.1	1807.9	511.0	3613.0	
	있음	빈도	95	93	38	226		
		기대빈도	80.9	113.1	32.0	226.0		
전체		빈도	1375	1921	543	3839		
		기대빈도	1375.0	1921.0	543.0	3839.0		
2021	자살생각	없음	빈도	1309	1788	550	3647	
			기대빈도	1299.6	1797.0	550.4	3647.0	
	있음	빈도	89	145	42	276		
		기대빈도	98.4	136.0	41.6	276.0		
전체		빈도	1398	1933	592	3923		
		기대빈도	1398.0	1933.0	592.0	3923.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3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농어촌과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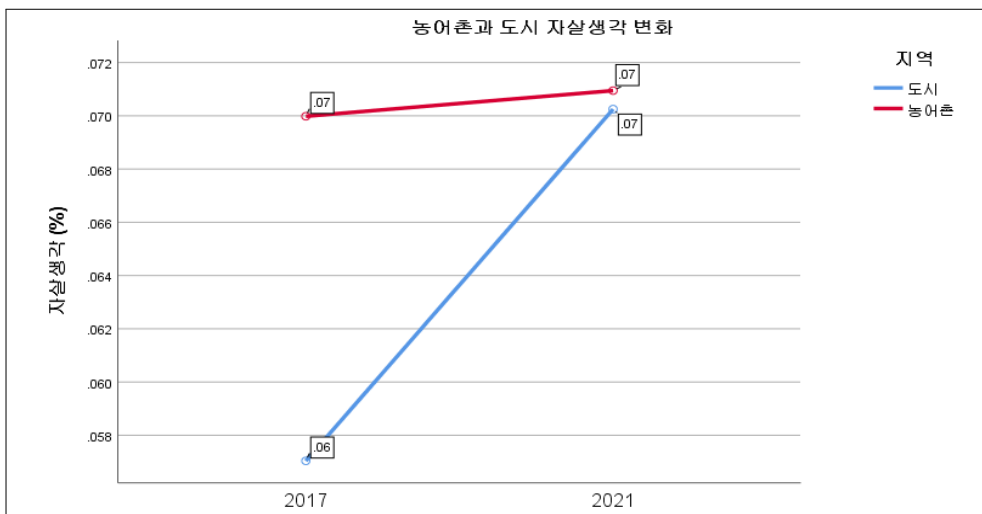
〈표 7-31〉은 2017년과 2021년의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 수를 농어촌과 도시 지역 별로 정리한 교차분석 표이고, [그림 7-35]는 두 시점 간 자살생각 변화추이를 농어촌과 도시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31〉 자살생각: 농어촌, 도시

구분			도시	농어촌	전체	χ^2	
2017	자살 생각	없음	빈도 기대빈도	3108 3102.0	505 511.0	3613 3613.0	10.290**
		있음	빈도 기대빈도	188 194.0	38 32.0	226 226.0	
	전체		빈도 기대빈도	3296 3296.0	543 543.0	3839 3839.0	
	2021	자살 생각	없음	빈도 기대빈도	3097 3096.6	550 550.4	
있음			빈도 기대빈도	234 234.4	42 41.6	276 276.0	
전체		빈도 기대빈도	3331 3331.0	592 592.0	3923 3923.0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그림 7-35] 농어촌과 도시 자살생각 수준 및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4절 분석 결과 II: 정신건강 영향요인 및 코로나의 영향

제3절에서는 코로나 전후 연령대별, 성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변화가 차이가 있었는지를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지 또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지만, 정신건강 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기 전인 2017년 자료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인 2021년 자료를 통합하여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정신건강 변화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1. 행복도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발생 전후 행복도 변화의 유의도를 검증한 구조 방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대비 2021년에 참가자들의 행복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4, p < .001$).

〈표 7-32〉 코로나가 행복도에 미친 영향

외생변수		β (표준화 계수) 및 유의도	내생변수
통제변수	① 성별 (남성=1)	-.053 ***	행복도 $R^2 = .099$
	② 연령	-.106 ***	
	③ 교육수준	-.008	
	④ 배우자 유무 (있음=1)	.123 ***	
	⑤ 가구원 소득	.138 ***	
	⑥ 직업 특성 (정규직=1)	.114 ***	
	⑦ 지역 특성 (수도권=1)	-.461 ***	
독립	시점 (2021=1)	-.114 ***	

주: † < .10, * < .05, ** < .01, *** < .001

모형적합도 : $\chi^2 = .420, p > .05$; RMSEA = .000; IFI =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우울 정도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발생 전후 우울 정도 변화의 유의도를 검증한 구조방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대비 2021년에 참가자들의 우울 정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67$, $p<.001$).

〈표 7-33〉 코로나가 우울 정도에 미친 영향

외생변수		β (표준화 계수) 및 유의도	내생변수
통제변수	① 성별 (남성=1)	-.001	우울정도 $R^2=.069$
	② 연령	.044 **	
	③ 교육수준	.009	
	④ 배우자 유무 (있음=1)	-.066 ***	
	⑤ 가구원 소득	-.118 ***	
	⑥ 직업 특성 (정규직=1)	-.093 ***	
	⑦ 지역 특성 (수도권=1)	.171 ***	
독립	시점 (2021=1)	.067 ***	

주: † <.10, * <.05, ** <.01, *** <.001

모형적합도 : $\chi^2=.420$, $p>.05$; RMSEA=.000; IFI=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삶의 만족도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발생 전후 삶의 만족도 변화의 유의도를 검증한 구조방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대비 2021년에 참가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50$, $p<.001$).

〈표 7-34〉 코로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

외생변수		β (표준화 계수) 및 유의도	내생변수
통제변수	① 성별 (남성=1)	-.055 ***	삶의 만족도 $R^2=.096$
	② 연령	-.061***	
	③ 교육수준	-.018	
	④ 배우자 유무 (있음=1)	.099 ***	
	⑤ 가구원 소득	.155 ***	
	⑥ 직업 특성 (정규직=1)	.086 ***	
	⑦ 지역 특성 (수도권=1)	-.114 ***	
독립	시점 (2021=1)	-.150 ***	

주: † <.10, *<.05, **<.01, ***<.001

모형적합도 : $\chi^2=.420$, $p>.05$; RMSEA=.000; IFI=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사회적 지지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발생 전후 사회적 지지 변화의 유의도를 검증한 구조방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대비 2021년에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94$, $p<.001$).

〈표 7-35〉 코로나가 사회적 지지에 미친 영향

외생변수		β (표준화 계수) 및 유의도	내생변수
통제변수	① 성별 (남성=1)	-.052 ***	사회적 지지 $R^2=.107$
	② 연령	-.092***	
	③ 교육수준	.050 **	
	④ 배우자 유무 (있음=1)	.084 ***	
	⑤ 가구원 소득	.171 ***	
	⑥ 직업 특성 (정규직=1)	.095 ***	
	⑦ 지역 특성 (수도권=1)	-.072 ***	
독립	시점 (2021=1)	-.094 ***	

주: † <.10, *<.05, **<.01, ***<.001

모형적합도 : $\chi^2=.420$, $p>.05$; RMSEA=.000; IFI=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5. 자살생각

가. 자살생각: 구조방정식 분석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발생 전후 자살생각 변화의 유의도를 검증한 구조방정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2021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34$, $p<.01$).

〈표 7-36〉 코로나가 자살생각에 미친 영향¹

외생변수		β (표준화 계수) 및 유의도	내생변수
통제변수	① 성별 (남성=1)	-.007	자살생각 $R^2=.028$
	② 연령	.031 *	
	③ 교육수준	.024	
	④ 배우자 유무 (있음=1)	-.054 ***	
	⑤ 가구원 소득	-.088 ***	
	⑥ 직업 특성 (정규직=1)	-.089 ***	
	⑦ 지역 특성 (수도권=1)	.048 ***	
독립	시점 (2021=1)	.034 **	

주: † <.10, * <.05, ** <.01, *** <.001

모형적합도 : $\chi^2=.420$, $p>.05$; RMSEA=.000; IFI=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나. 자살생각: 이항 로지스틱 분석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코로나 발생 전후 자살생각 변화의 유의도를 검증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2021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Wald(1)=4.877, Exp(B)=1.437, $p<.05$).

〈표 7-37〉 코로나가 자살생각에 미친 영향²

구분	B	(S.E.)	Wald	자유도	Exp(B)	
① 성별 (남성=1)	-.240	(.163)	2.169	1	.787	
② 연령	.003	(.008)	.121	1	.997	
③ 교육수준	.167	(.121)	1.907	1	1.181	
④ 배우자 유무 (있음=1)	-.152	(.182)	.690	1	.859	
⑤ 가구원 소득	-.453	(.192)	5.593	1	.636	*
⑥ 직업 특성 (정규직=1)	-.675	(.186)	13.217	1	.509	***
⑦ 지역 특성 (수도권=1)	.501	(.164)	9.315	1	1.650	**
시점 (2021=1)	.362	(.164)	4.877	1	1.437	*

주: † <.10, * <.05, ** <.01,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5절 분석 결과 III: 코로나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통합적 분석

제4절에서는 정신건강 영향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코로나 전후 정신건강 지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다변량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 전 대비 코로나 후에 긍정적 심리·사회적 정신건강 지표들인 행복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지만,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는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코로나가 국민의 심리·사회적 정신건강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코로나 전후 국민의 사회심리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동질적인지 아니면 이질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5절에서는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이용하여, 제4절에서 검증한 심리·사회적 정신건강 지표들의 예측요인을 살펴보는 5개의 구조모형이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 사이에 동질적인지 아니면 이질적인지를 검증한다. 만약 코로나 이후 국민의 심리사회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달라졌다면, 이러한 영향요인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행복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017년과 2021년 행복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행복도 구조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한 결과, 2017년과 2021년의 구조모형은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7)=6.296, p>.05$).

〈표 7-38〉 행복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외생변수	행복도 구조모형 : 다중집단 분석결과		
	시점 간 동질성 검증 : $x^2(7)=6.296, p>.05$		
	2017년 β	2021년 β	CRD 유의도
① 성별 (남성=1)	-.062 ***	-.045 **	.721
② 연령	-.129 ***	-.086***	1.406
③ 교육수준	-.008	-.010	-.105
④ 배우자 (있음=1)	.126 ***	.122 ***	-.222
⑤ 가구원 소득	.152 ***	.124 ***	-1.272
⑥ 직업 (정규직=1)	.101 ***	.128 ***	-.851
⑦ 지역 (수도권=1)	-.116 ***	-.102 **	.605

주: † <.10, *<.05, **<.01, ***<.001;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2. 우울 정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017년과 2021년 우울 정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행복도 구조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과 2021년의 구조모형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x^2(7)=7.859, p>.05$).

〈표 7-39〉 우울 정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외생변수	우울 정도 구조모형 : 다중집단 분석결과		
	시점 간 동질성 검증 : $\chi^2(7)=7.859, p>.05$		
	2017년 β	2021년 β	CRD 유의도
① 성별 (남성=1)	.006	-.007 ns	-.564
② 연령	.029	.055**	.923
③ 교육수준	-.024	.040 †	2.048 *
④ 배우자 (있음=1)	-.079 ***	-.054 **	.926
⑤ 가구원 소득	-.115 ***	-.122 ***	-.246
⑥ 직업 (정규직=1)	-.096 ***	-.089 **	-.057
⑦ 지역 (수도권=1)	.178 ***	.167 ***	-.112

주: † <.10, * <.05, ** <.01, *** <.001;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3. 삶의 만족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017년과 2021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 구조모형과 2021년 구조모형은 동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7)=18.340, p<.05$).

구조모형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로계수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역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두 시점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CRD=3.547, $p<.001$). 2017년에는 수도권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매우 낮았다($\beta=-.152, p<.001$). 2021년에도 수도권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수도권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보다 낮았지만($\beta=-.078, p<.001$), 그 격차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표 7-40〉 삶의 만족도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외생변수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 다중집단 분석결과		
	시점 간 동질성 검증 : $\chi^2(7)=116.224, p<.001$		
	2017년 β	2021년 β	CRD 유의도
① 성별 (남성=1)	-.066 ***	-.045 **	1.015
② 연령	-.075 ***	-.047*	1.052
③ 교육수준	.024	.011	-.405
④ 배우자 (있음=1)	.096 ***	.101 ***	-.022
⑤ 가구원 소득	.169 ***	.143 ***	-1.504
⑥ 직업 (정규직=1)	.074 **	.098 ***	.649
⑦ 지역 (수도권=1)	-.152 ***	-.078 **	3.547 ***

주: † <.10, * <.05, ** <.01, *** <.001;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4. 사회적 지지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017년과 2021년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구조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 구조모형과 2021년 구조모형은 동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7)=21.529, p<.01$).

구조모형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로계수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세 경로에서 시점 간 차이가 있었다. 첫째, 두 시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 수준의 성별 차이는 2017년($\beta=-.070, p<.001$)보다 2021년($\beta=.023, p>.05$)에 줄어들었다(CRD=1.674, $p<.10$). 둘째, 2017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도 높았으나($\beta=.075, p<.001$), 2021년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beta=.023, p>.05$). 셋째, 두 시점 모두 가구원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가구원 소득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2017년($\beta=.196, p<.001$)에 비해 2021년($\beta=.148, p<.001$)에 유의하게 줄어들었다(CRD=-2.598, $p<.01$).

〈표 7-41〉 사회적 지지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외생변수	사회적 지지 구조모형 : 다중집단 분석결과		
	시점 간 동질성 검증 : $\chi^2(7)=21.529, p<.01$		
	2017년 β	2021년 β	CRD 유의도
① 성별 (남성=1)	-.070 ***	-.033 *	1.864 †
② 연령	-.069 ***	-.115 ***	-1.296
③ 교육수준	.075 ***	.023 ns	-1.674 †
④ 배우자 (있음=1)	.084 ***	.084 ***	-.346
⑤ 가구원 소득	.196 ***	.148 ***	-2.598 **
⑥ 직업 (정규직=1)	.097 ***	.092 **	-.174
⑦ 지역 (수도권=1)	-.077 ***	-.069 **	.627

주: † <.10, * <.05, ** <.01, *** <.001;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5. 자살생각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2017년과 2021년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살생각 구조모형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과 2021년의 구조모형은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7)=23.261, p<.01$).

구조모형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로계수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개의 경로에서 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교육 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두 시점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CRD=2.583, $p<.01$). 201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6, p>.05$), 2021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beta=.063, p<.01$). 둘째, 지역 특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두 시점 간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CRD=-3.094, $p<.001$). 2017년에는 수도권 거주자의 자살생각이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beta=.088, p<.001$), 2021년에는 지역에 따른 자살생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beta=.013, p>.05$).

〈표 7-42〉 자살생각 예측요인: 시점별 차이

외생변수	자살생각 구조모형 : 다중집단 분석결과		
	시점 간 동질성 검증 : $\chi^2(7)=23.261, p<.001$		
	2017년 β	2021년 β	CRD 유의도
① 성별 (남성=1)	.002	-.013	-.665
② 연령	.027	.031	.233
③ 교육수준	-.016	.063 **	2.583 **
④ 배우자 (있음=1)	-.060 ***	-.044 *	.493
⑤ 가구원 소득	-.099 ***	-.081 ***	.537
⑥ 직업 (정규직=1)	-.097 ***	-.083 **	.034
⑦ 지역 (수도권=1)	.088 ***	.013	-3.094 ***

주: † <.10, * <.05, ** <.01, *** <.001; CRD=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 분석.

제6절 요약 및 소결

코로나와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에 국민의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코로나로 인한 행복도,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들의 변화가 연령대별, 성별, 소득 계층별, 지역별(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과 도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2017년과 2021년 데이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영향요인들이 무엇인가? 넷째, 정신건강 영향요인 변수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이후인 2021년 사이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인 2017년 데이터와 코로나 이후인 2021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1) 2017년과 2021년 사이 정신건강 지표 수준이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이항분석을 실시하고, (2) 정신건강 영향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시점 간 정신건강 지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시점별 정신건강 지표의 변화가 주요 독립변수들(예: 연령대, 성별,

소득,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점과 주요 독립변수(연령대, 성별, 소득, 지역) 간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 특성 변수들(예: 성별, 연령, 교육, 배우자, 소득, 직업, 지역)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고, 정신건강 지표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예측요인이 2017년과 2021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정신건강 지표 예측요인들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과 2021년의 정신건강 지표들에 대한 이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우울과 자살생각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분석의 이러한 결과는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다변량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항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의 이러한 결과들은 코로나가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행복도 변화의 정도는 연령대별 및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 행복도 변화는 30대, 50대, 60대와 비교해 20대와 40대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행복도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과 비교해 하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변화의 정도는 소득 계층별 및 농·어촌과 도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득 계층별 우울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과 비교해서 하층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우울 증가 폭이 도시와 비교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변화의 정도는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변화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50대의 감소폭이 작았다. 소득 계층별 삶의 만족도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과 비교해서 하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삶의 만족도 하락 폭이 수도권 하락 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화의 정도는 연령대별, 소득 계층별, 농어촌과 도시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감소폭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반면, 30대의 사회적 지지 감소폭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화는 중상층(상층), 중간층, 중하층에서는 감소한 반면,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과 도시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사회적 지지수준은 급감하고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지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변화의 정도는 연령, 성별, 소득,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자살생각은 거의 변화가 없고 60대와 30대 자살생각은 감소한 반면, 10대와 40대 자살생각은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생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여성의 자살생각은 증가하였다. 소득 계층별로는 중하층과 중간층은 약간 증가하였고, 중상층은 약간 감소한 반면, 하층의 자살생각은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자살생각은 증가한 반면, 수도권 거주자의 자살생각은 감소하였고, 농어촌 자살률이 답보상태를 보인 반면, 도시 지역 자살생각은 급증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21년 통합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복도는 포함된 변수들 중 교육을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 배우자, 소득, 직업, 지역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정도는 성별과 교육을 제외한 연령, 배우자, 소득, 직업, 지역 변수와 관련이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교육변수를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 배우자, 소득, 직업, 지역 특성 등 포함된 모든 변수와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포함된 모든 변수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은 성별과 교육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신건강 지표들의 예측요인들이 코로나 전인 2017년과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 유사한지를 검증한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 동질성 검증에서 행복도와 우울의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에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복도와 우울 예측요인들은 두 시점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 사이에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신건강 지표 예측요인들이 두 시점 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 간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검증결과에서 교육변수와 우울 간의 관계는 두 시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17년에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은 반면, 2021년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이 우울 억제 효과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의 우울 억제 효과가 약화하였고, (2)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울 유발 스트레스 경험(예: 실직, 실직 위험 증가, 소득감소 등)을 더 많이 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동질성 검증결과는, 지역 변수의 영향력은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점 모두 수도권 지역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비수도권 지역의 삶의 만족도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2017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2021년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사이의 삶의 만족도의 지역별 차이가 줄어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삶의 만족도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모형 동질성 검증결과, 성별, 교육, 소득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2017년의 남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비해 매우 낮아서 성별 격차가 컸는데, 2021년에는 여전히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보다 낮지만, 그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적 지지가 줄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지 관련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그 결과 비록 하향평준화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회적 지지의 성별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2017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이 차이가 없었다. 즉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격차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주는 사회적 지지 보호 효과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 2017년과 2021년 모두 가구원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높았지만, 소득에 따른 사회적 지지 차이 격차는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에 비해 코로나 이후인 2021년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사회적 지지 보호 효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된다.

자살생각 구조모형은 2017년과 2021년에 동질 하지 않았다. 자살생각 예측 변수들은 두 시점에서 대부분 동질 하였지만, 교육 및 지역 변수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2017년과 2021년에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뀌었다. 즉, 2017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게 나타났지만,

2021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수준이 자살생각의 보호 요인으로 작동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울이나 사회적 지지 결과와 연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가지던 우울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의 기능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떨어진 것처럼, 유사한 현상이 교육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아마도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정적 스트레스(예: 실직, 실직 위험, 소득감소, 등)를 경험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지역의 경우 2017년에는 수도권 자살생각이 비수도권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2021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간 자살생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자살생각 격차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지역별 거주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방역 대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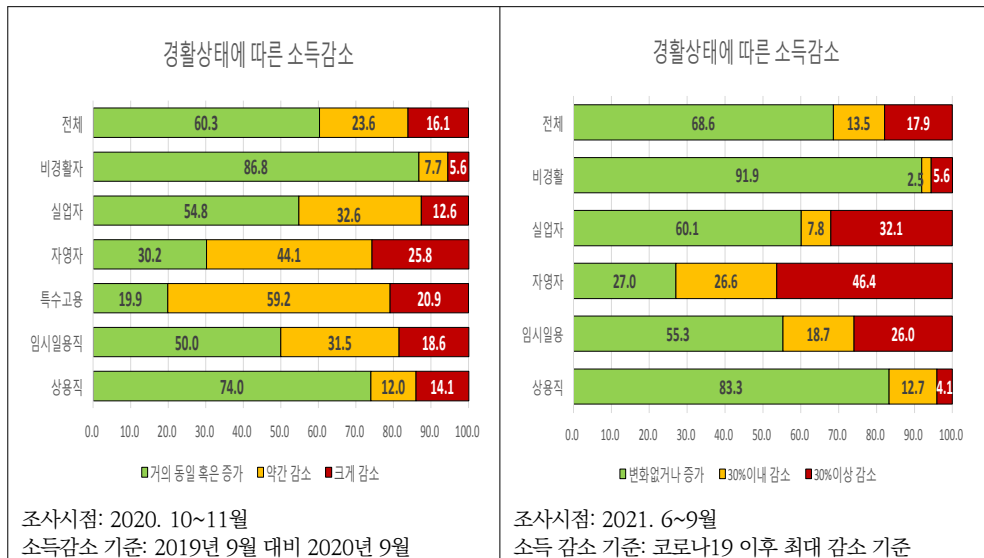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파장과 그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영향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험과 사회통합,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가능함으로써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21년 6~9월 동안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4,000명을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 지원의 효과 평가 조사’의 원자료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추후의 과제를 덧붙임으로써 보고서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전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하락했으며, 반대로 우울감은 상승하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와 우울 정도는 2019년에 비해 유의미한 등락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나 등락 폭이 좀 더 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하락하고 우울감이 더 커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직종별로는 자영업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우울감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으로 31.4%의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했으며, 17.9%는 최대 감소 시점을 기준으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의 73%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46.3%는 3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그림 8-1] 참조).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 정도가 유독 유의미한 증감을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로 인한 가정해체와 자살 사고 등이 급증한 점을 교훈 삼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회복 지원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조치가 법제화되었고,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스, 특고, 생계위기가구 등에게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통합 연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사회연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재난연대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피해집단에게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재난 시기의 트라우마틱한 경험은 일시적으로 사회의 응집력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Lalot et al., 2021), 응급적이고 시의적절한 개입이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8-1]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소득감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자료 분석.

한편, 본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사회통합 인식과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전반적인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재난 시기에는 ‘모두 한배를 탔다’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응집력과 결속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Lalot et al., 2021), 특히, 위기 시기에 대응하는 체계화된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국가의 권위, 능력, 정당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산출하며 외생적 충격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Gisselquist and Vaccaro, 2021). 시의적절한 방역적 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확진율과 치명률을 외국에 비해 크게 낮춘 것이 국민의 자부심과 신뢰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다시 이러한 사회응집력과 자부심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¹⁾ 클라우스 슈밥과 티에리 말르레(Schwab & Malleret, 2021)도 “포용, 연대, 신뢰란 핵심적 가치가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요소이면서 코로나19 억제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3장). 분명 이는 개인의 권리보다 의무감과 세대 간 연대를 우선시 하고, 공동체 모두에 이익이 되는 조치와 규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효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만 재난 시기에 높아진 사회통합 인식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Sweet, 1998; Calo-Blanco, Kovařík, Romero, 2017). 오히려 재난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된다. ‘K-자형 양극화’ 가능성이나 ‘지연된 자살 효과’와 같은 것이 그러한 우려이다. 외환위기 초기에는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으로 국민적 응집력이 높아졌으나,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산율로 이어진 예에서도 이를 가늠할 수 있다(그림 8-2 참조).

1) 클라우스 슈밥과 티에리 말르레(Schwab & Malleret, 2021)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응을 잘한 국가들은 ①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닥쳐올 일에 ‘대비’했으며, ②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고, ③ 비용 대비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④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지도자들과 그들의 제공하는 정보를 높이 신뢰하며, ⑤ 개인적 열망과 욕구보다 공익을 중시하며, 진정한 연대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림 8-2]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도와 경제성장률, 자살률, 출산율 추이

(단위: 지니계수 0-1, %)



자료: 여유진(2021a, 2021b)

코로나19로 인한 ‘개별화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난의 피해 집단이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금전적, 물리적, 사회심리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자영자, 소상공인, 취업 준비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 사람, 가정학습으로 인한 학습 저하 학생 등이 집중적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포용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방역 정책 측면에 비해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좀 더 부각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실업보험 급여의 포괄성이 낮고, 상병급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피해 집단인 불안정 근로계층과 자영자 등의 손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복지제도의 포용성과 적절성은 위기 시기에 더 빛을 발하는 법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보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통합 인식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자본은 거의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장년층, 비경제활동인구, 2~5분위, 중하층과 중간층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지지의 하락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응집력,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자본은 위험에 대한 인식과 민감도, 차별 인식을 낮추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력, 소위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도 유의미하게 작동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재난의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자본은 더욱 빛을 발하지만, 실제로 재난 시기에 개인 차원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자본은 오히려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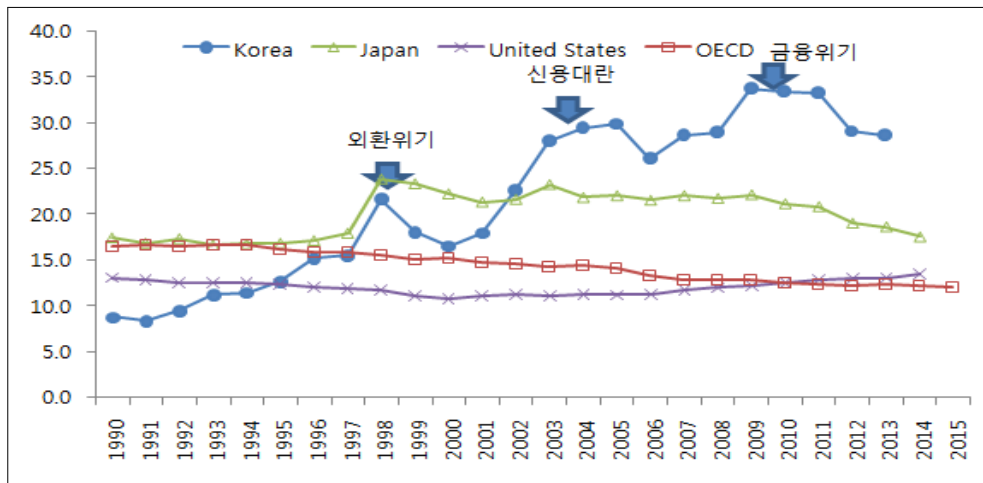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에도 대인신뢰도, 결사체소속도, 사회단체 참여율, 소수자 포용성, 사회적 고립도 등의 사회적 자본 지표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었다(박준 외, 2019). 오랫동안 강한 공동체에 기반한 농경사회이면서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였던 전통이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기반이 급속하게 해체되었다. 비록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응집력이 제고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한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보다 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진척된 미국의 예에서 “국가가 취약한 시장”과 “공동체가 취약한 사회”에서 위기 시기에 어떠한 혼란과 공포를 초래하는지도 목도하였다. 반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가진 커뮤니티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공중 보건 위기를 더 잘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다(Banulescu-Bogdan & Ahad, 2021; Le et al., 2013; Norris et al., 2008; Jung, 2019; Borkowska & Laurence, 2021). ‘풀뿌리 공동체’와 ‘건강한 시민 공간’의 복원은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은 협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 사회의 다양한 부문 간의 연결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역사회 이익과 광범위한 위기 예방 노력에 모두 기여할 것이다(Banulescu-Bogdan & Ahad, 2021). 마을 단위의 상호 협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례화, 학교와 시민 교육을 통한 신뢰, 협력, 연대 제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과 공동체 차원의 재난 대응 교육의 체계화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보 시스템과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전에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외환 위기 이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대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그렸다. 코로나19가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조치가 절실한 이유이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우울감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블루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의 우울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지지도와 사회자본이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게 낮아진 점도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다. 실제로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594명으로 2019년의 575명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25~29세 여성의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9년 30.7명에서 2020년 35.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도와 미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사회자본)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체 네트워크가 취약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와 현세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를 보강해 줄 공적·사적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포괄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대면·비대면의 공동체 네트워크의 활성화, 동심원적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인 지원 대책을 통한 격차 해소, 지나친 경쟁과 경제 중심적 사고의 지양과 협력과 사회적 연대 중심적 사고와의 균형 모색 등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8-3] 자살률 추이

(단위: 10만 명당)



출처: 여유진 외(2018, p.38)의 그림 2-2.

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2021. 11. 30. 인출).



- 고정민. (2021.08.28.).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위험하다?... 끝나지 않는 '가짜뉴스' 전쟁,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57>
2021.11.02.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file:///C:/Users/kihasa/Downloads/2020%EB%85%84%20%EC%B0%A8%EB%B3%84%EC%97%90%20%EB%8C%80%ED%95%9C%20%EA%B5%AD%EB%AF%BC%EC%9D%B8%EC%8B%9D%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pdf> 2021.10.06.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국어원. (2021). 표준국어대사전. 문화체육관광부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1.10.31 인출.
- 기경희, 김광수. (2018). 회복탄력성 연구 동향과 과제 : 회복탄력성 개념과 척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7(2), pp.157-175.
- 기획재정부. (2020. 6. 9.). 20.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1. 1. 26.). 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치: 동향 및 평가(보도참고자료).
- 김도영. (2012). 소득수준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변화 분석. 사회과학연구, 23(3), pp.105-125.
- 김성아, 정해식.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70, pp.95-104.
- 김수근. (2020). 코로나바이러스 재택근무 안전보건-코로나바이러스로 재택근무 시 안전보건 확보. 월간산업보건, pp.10-18.
- 김수아, 임동균. (2016). 위험사회의 사회심리학: 위험인식의 주관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7집 2호, pp.45~75.
- 김수아. (2016). 주관적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383-392.
- 김영란.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14-3, pp.57-88.
- 김영주. (2018). 정부신뢰, 재난경험, 사회적 자본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평, 최병선, 소영진, 정익재. (1995). 한국인의 위험인지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29(3), pp.935-954.

김우철. (2014).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성: 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한국응용경제학회, 16 (1), 191-224.

김재일. (2017).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열린정부 추진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김종섭. (2010). 경제위기와 자살: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23(3), pp. 45-65.

김지영, 정명호. (2015).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호혜성(reciprocity)의 효과: 직무성과와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인사조직연구, 23, pp.89-123.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한국사회학, 41(3), pp.127-153.

김태심, 조영호. (2021).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신뢰. 국가전략, 27(1), pp.39-68

김형용. (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44(2), pp.59-92.

김혜련. (2007). 우리나라에서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 보건사회연구, 27(2), pp.25-43.

노현웅. (21.01.03.). 정부 코로나 대응 신뢰 62%…반년새 10%p 줄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058.html#csidx09b297cc4df4834b9153cce86b88b59> 2021.09.22. 인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2021). 일반건강상식.

<https://www.healthpro.or.kr/health/viewC.php?cat=3&number=84> 2021. 10. 31. 인출.

두산백과. (2021.9.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1716&cid=40942&categoryId=31645> 2021.9.1. 인출.

박상미.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7(5), pp.83-91.

박성민, 조효제, 박종현, 최정규. (2010). 불확실한 세상. 서울: (주)사이언스북스.

박용천, 박기호, 김나은, 이주희, 조수린, 장지희, 정다운, 장은진, 최기홍. (2020). 코로나19, 한국에서의 심리적 영향: 예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pp.355-367.

박윤경. (2020.06.23.). 인권감수성 높은 ‘코로나의 역설’…88%가 “차별금지법 찬성”.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654.html

- 2021.10.21. 인출.
- 박종민. (2007). 법치국가 만들어야 사회적 신뢰가 쌓인다. 나라경제, 3월호, p.28-30.
file:///C:/Users/kihasa/Downloads/070303.PDF 2021.11.09. 인출.
- 박종현. (2010). 불확실한 세상에서 경제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박성민, 조효제, 박종현, 최정규, 노명우, 이창익, 박상표, 강양구, 김재영, 김명진. 불확실한 세상. 서울: ㈜사이언스북스.
- 박준, 김석호, 장수찬, 채종현, 김성근...이두희. (2018).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확충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통희. (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44(1), pp.67-97.
- 박희봉, 이희창. (2010).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pp.1-29.
- 배영임, 신혜리. (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pp.1-26.
- 변금선, 이혜원. (2018).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보건사회연구, 38(3), pp.129-160.
- 성미애, 진미정, 장영은, 손서희. (2020). 코로나19 에 따른 1 인 가구의 일상생활 변화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pp.3-20.
- 손주희, 이명진. (2018). 노인의 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간접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34(1), pp.43-71
- 손해인. (2020).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뉴욕주 정신건강서비스의 변화: 비대면 원격 정신건강 진료 전면적 실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3, pp.71-86.
- 송상윤. (2021).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2021-9. 한국은행.
- 송인한, 이한나. (2011). 사회경제적 박탈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2(3), pp.33-51.
- 송해룡, 김원제. (2015).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신뢰가 위험인식 및 위험 수용에 미치는 효과.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6, pp.36-60.
- 신영전. (2020). 코로나19 대유행시기의 보건복지: “온 보건복지(One Health & Welfare)를 향하여”. 보건사회연구, 40(1), pp.5-10.
- 신주희, (2021.04.15.). 코로나 완치자 두번 올리는 차별·불이익 없어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6269>
2021.11.11. 인출
- 안효상, 서정희(2020).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산업노동연구, 26(3), pp.63-118.

- 앰디 폴람 랍바니, 김경학. (2021).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국내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2(2), pp.673-688.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김문길, 정해석,...정재훈. (2014). 국민대통합 종합 계획. 국민대통합 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황도경, 김명중, 김성아. (2018).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여유진. (2015).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보건복지포럼, 2015(3). pp.36-43.
- 여유진. (2021).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412호, pp.1-12.
- 오삼일, 이종하. (2021).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팬데믹 vs 일반적인 경기침체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2021-8. 한국은행.
- 오윤경. (2020).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행정포커스, 147. pp. 86~91. 한국행정연구원.
- 오현진. (2021).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1), pp.1-35.
- 유근식. (2020). 코로나19 이후의 임시일용직 고용변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8월호(통권 제8호), pp.83-88.
- 이미숙. (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pp.183-209.
- 이승훈, 최수정. (2009). 위험인식의 성별 차이와 그 원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923-939.
- 이승훈. (2009). 현대 사회의 위험과 위험관리: '위험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문화, 29, pp.61-86.
- 이재열. (2004). 위험사회와 생태적·사회적 안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재완. (2020).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시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4, pp.29-55.
- 이재완. (2018). 사회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시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pp.518~526.
- 이준협, 윤병준, 정형선. (2009). EQ-5D로 측정된 소득 계층별 건강집중지수의 분해. 보건과 사회과학, 26, pp.67-87.
- 임안나, 박영숙. (2017).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

- 텐츠학회논문지, 17(3), pp.675-682.
- 장이츠, 김민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이후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보건사회연구, 41(1), pp.22-41.
- 전용빈, 문동성, 임주연, 박세원. (2020. 9. 8.). 심상찮은 코로나 블루, “수도권 2030 여성 극단 선택 급증”, 국민일보.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987129> 2021.11.30. 인출.
- 정근식. (2020). [실학여행] 재난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월간 공공정책, 178, pp.96-97.
- 정석준, (2021.09.15.). [아주 돋보기] “코로나 걸렸었네요...” 보험·의료계 뒷은 완치자 낙인,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15151732044> 2021.11.11. 인출
- 정익중. (2020). 코로나19 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여름), pp.47-59.
- 정진영, 이재열, 조병희, 구혜란, 안정옥, 장덕진, 고희면, 장상철. (2010). 위험인식의 집단 간 차이, 구혜란편.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해식, 김미근,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현선, 장은주.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 <https://hsjeongnet.files.wordpress.com/2021/10/ed959ceab5adecb2adec868ceb8584eca095ecb185ec97b0eab5acec9b90-2022-eab09ceca095-eab590ec9ca1eab3bceca095ec9d98-ebafb8eb9494ec96b4-eba6aced84b0eb9facec8b9c-eab590ec9ca1-eab095ed9994-ebb0a9.pdf> 2021.11.10. 인출.
- 조광덕, 김중백. (2018). 한국사회의 공정성이 사회경제정치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4), pp.192-224.
- 조권중, 최지원. (2016). 중산층 흔들리는 신화. 서울연구원.
- 조상아. (2020). 코로나 우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pp.1-7.
- 조영주. (2016).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실존적 안녕, 우울 및 자살 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pp.801-827.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 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 채종현, 최호진, 이재호, 전대욱, 김진선, 우희정. (2018).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최창용, 이태준. (2017). 2017 -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 - 정책과정 변화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방안. [file:///C:/Users/kihasa/Downloads/1-1%20\(2\).pdf](file:///C:/Users/kihasa/Downloads/1-1%20(2).pdf) 2021.12.28. 인출.

- 통계청. (2020a).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보도자료.
- 통계청. (2020b).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도자료.
- 통계청. (2021).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2021.11.30. 인출.
- 하상근. (2014). 사회적 자본이 정책불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pp.131-157.
- 한겨레. (2014.5.15). 약자들에게 집중된 위험... 시민이 개입해 변화시켜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7241.html. 2021.6. 21.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의 효과평가 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 한국행정연구원. (2021). 2020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 행정안전부. (2021.7.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보도자료.
- 허재준. (2020). '노동시장의 도전과 사회보장' 중 제3장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경제와 노동시장의 일부내용(2020년 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홍성희. (2021).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대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pp.47-61.
- 황선영, 곽한영 (2012).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형성과정에서 사회과 교육의 역할. 중등교육연구. 60(4), pp.1255-1274.
- 황선재. (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pp.5-25.
- 황선재, 길정아, 최슬기. (2021). 코로나19 백신수용성: 정부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2) : 95-120.

- and Why?. *Daedalus*, Vol.119, No.4, 41-60.
- Alesina, A., La Ferrara, E. (2002).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2), 207-234.
- Alon, T., Doepke, M., Olmstead-Rumsey, J., & Tertilt, M. (2020). The impact of 코로나19 on gender equality (No. w2694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37.
- Banulescu-Bogdan, N. & Ahad, A. (2021). Solidarity in Isolation?: Social Cohesion at a Time of Physical distance. MIP EUROPE.
- Bauman, Zygmunt.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 BBC. 2021.03.21. Covid-19: Record-breaking day with 844,285 vaccine doses given in UK. <https://www.bbc.com/news/uk-56477291> 2021.11.02. 인출.
- Beck, Ulrich.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 Bhuiyan, A. I., Sakib, N., Pakpour, A. H., Griffiths, M. D., & Mamun, M. A. (2020). 코로나19-related suicides in Bangladesh due to lockdown and economic factors: case study evidence from media re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6.
- Bloise, S. M., & Johnson, M. K(2007). Memory for emotional and neutral information: Gender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sensitivity. *Memory*, 15(2), 192-204.
- Blustein, D. L., & Guarino, P. A. (2020). Work and unemployment in the time of 코로나19: the existential experience of loss and fear.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60(5), 702-709.
- Blustein, D. L., Duffy, R., Ferreira, J. A., Cohen-Scali, V., Cinamon, R. G., & Allan, B. A. (2020). Unemployment in the time of 코로나19: A research agenda.
- Bol, Damien, Marco Giani, André Blais, and Peter John Loewen (2020). 'The Effect of 코로나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60, 497-505.
- Borkowska, M. & Laurence, J. (2021). Coming together or coming apart? Changes in social cohesion during the 코로나19 pandemic in England, *European*

- Societies, 23:sup1, S618-S636, DOI: 10.1080/14616696.2020.1833067.
- Brenner, M. H., & Bhugra, D. (2020). Acceleration of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e: secondary effects of economic disruption related to 코로나19. *Frontiers In Psychiatry*, 11, 1422.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yrnes, J. P., Miller, D. C., and Schafer, W. D. (1999). Gender differences in risk tak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3). 367-383.
- Byun, J., Jeon, H. C., & Hwang, S. J. (2020). Study on Difference in Coronavirus-19 Related Anxiety betwe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lass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rrent Research and Review*, 145-150.
- Calo-Blanco, A, Kovařík, J, Mengel, F, Romero, JG (2017). Natural disasters and indicators of social cohesion. *PLoS ONE* 12(6): e017688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76888>, 2021. 6. 15 인출.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Chen, S., Jones, P. B., Underwood, B. R., Moore, A., Bullmore, E. T., Banerjee, S., Osimo, E.F., Deakin, J.B., Hatfield, C.F., Thompson, F.J., Artingstall, J.D., Slann, M.P., Lewis, J.R., Cardinal, R.N., & Cardinal, R. N. (2020). The early impact of 코로나19 on mental health and community physical health services and their patients' mortality in 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 UK.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31, 244-254.
- Choi, E. P. H., Hui, B. P. H., & Wan, E. Y. F. (2020). Depression and anxiety in Hong Kong during 코로나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0), 3740.
- Cohen, S., and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ndon, B. J., & Sinha, T. (2010). Who is that masked person: The use of face masks on Mexico City public transportation during the Influenza A (H1N1)

- outbreak. *Health Policy*, 95(1), 50-56.
- Costa, D. L., Kahn, M. E. (2003). Understanding the American decline in social capital, 1952-1998. *Kyklos*, 9(1), 17-46.
- Crayne, M. P. (2020). The traumatic impact of job loss and job search in the aftermath of 코로나19.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S1), S180.
- Deady, M., Tan, L., Kugenthiran, N., Collins, D., Christensen, H., & Harvey, S. B. (2020). Unemployment, suicide and 코로나19: using the evidence to plan for prevention. *Med J Aust*, 10.
- Devlin, K and Connaughton, A. (2020.08.27.) Most Approve of National Response to 코로나19 in 14 Advanced Econom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8/27/most-approve-of-national-response-to-코로나19-in-14-advanced-economies/> 2021.09.24. 인출.
-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1). UK COVID-19 vaccines delivery pla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covid-19-vaccines-delivery-plan/uk-covid-19-vaccines-delivery-plan> 2021.11.02. 인출.
- Dhanani, L. Y., & Franz, B. (2020). Unexpected public health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survey examining anti-Asian attitudes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6), 747-75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nesen, Peter Thisted, and Mads Meier Jæger (2013). 'The Effect of Terror on Institutional Trust: New Evidence from the 3/11 Madrid Terrorist Attack', *Political Psychology*, 34(6), 917-26.
- Duan, L., Shao, X., Wang, Y., Huang, Y., Miao, J., Yang, X., & Zhu, G. (2020). An investigation of mental health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hina during the outbreak of 코로나19.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5, 112-118.
- Earle, T. C. & G. Cvetkovich. (1995). *Social Trust: Toward a Cosmopolitan Society*. Greenwood Publishing Group.
- Earle, T. C. (2010). Trust in risk management: a model-base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Risk analysis*, 30(4). 541-574.
- El-Zoghby, S. M., Soltan, E. M., & Salama, H. M. (2020). Impact of the 코로나19 pandemic on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among adult Egyptians.

- Journal of Community Health, 45, 689-695.
- Esaiasson, Peter, Jacob Sohlberg, Marina Ghersetti, and Bengt Johansson (2020). 'How the Coronavirus Crisis Affects Citizens Trust in Institutions and in Unknown Others: Evidence from "the Swedish Experi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 Ettman, C. K., Abdalla, S. M., Cohen, G. H., Sampson, L., Vivier, P. M., & Galea, S. (2020).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in US adults before and during the 코로나19 pandemic. JAMA Network Open, 3(9), e2019686-e2019686.
- Farrand, P., & McKenna, F. P. (2001). Risk perception in novice dri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questionnaire measures and response latency.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4(3), 201-212.
- Fischhoff, B., S. Lichtenstein, S. L. Derby, P. Slovic & R. L. Keeney. (1984). Acceptable Risk.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tzpatrick, K. M., Drawve, G., & Harris, C. (2020). Facing new fears during the 코로나19 pandemic: The State of America's mental health.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5, 102291.
- Fitzpatrick, K. M., Harris, C., & Drawve, G. (2020). Fear of 코로나19 and the mental health consequences in Americ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S1), S17.
- Gisselquist, RM. and Vaccaro, A. (2021). 코로나19 and the state. WIDER Working Paper 2021/80, United Nations University.
<https://doi.org/10.35188/UNU-WIDER/2021/018-4>, 2021. 10. 4. 인출.
- Goldfinch, S., Gauld, R. and Herbison, P. (2009) The Participation Divide? Political Participation, Trust in Government, and E-government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8(3), 333-350.
- Goldfinch, S., Taplin, R.H. and Gauld, R. (2021) Trust in government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80(6).
- Greyling, T., Rossouw, S., & Adhikari, T. (2020). A tale of three countries: How did 코로나19 lockdown impact happiness? (No. 584). GLO Discussion Paper. 584, 1-18.
- Gustafson, P. (1998). Gender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theoretical and

- methodological perspectives. *Risk Analysis*. 18. 805-812.
- Gustavsen, A., Røiseland, A. & Pierre, J. (2017). Procedure or performance? Assessing citizen's attitudes towards legitimacy in Swedish and Norwegian local government. *Urban Research & Practice*, 7(2), 200-212.
- Hajito, K. W., Gesesew, H. A., Bayu, N. B., & Tsehay, Y. E. (2015). Community awareness and perception on hazards in Southwest Ethiopia: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3. 350-357.
- Haleem, A., Javaid, M., & Vaishya, R. (2020). Effects of 코로나19 pandemic in daily life. *Current Medicine Research and Practice*, 10(2), 78-79.
- He, J., He, L., Zhou, W., Nie, X., & He, M. (2020).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in the outbreak of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8), 2933. doi:10.3390/ijerph17082933
- Helliwell, J. F., Huang, H., Wang, S., & Norton, M. (2021). World happiness, trust and deaths under 코로나19. *World Happiness Report 2021*, 13-57.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 307.
- Holman, E. A., Thompson, R. R., Garfin, D. R., & Silver, R. C. (2020). The unfolding 코로나19 pandemic: A probability-based,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of mental health in the United States. *Science Advances*, 6(42), eabd5390.
- Human Rights Watch, (2020.05.12.) 코로나19 Fueling Anti-Asian Racism and Xenophobia Worldwide, <https://www.hrw.org/news/2020/05/12/코로나19-fueling-anti-asian-racism-and-xenophobia-worldwide#> 에서 2021.11.11. 인출
- Hyland, P., Shevlin, M., McBride, O., Murphy, J., Karatzias, T., Bentall, R. P., Martinez, A., & Vallières, F. (2020).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Republic of Irel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42(3), 249-256.
- ILO. (2021). Building Forward Fairer: Women's rights to work and at work at the core of the 코로나19 recovery. Policy Brief.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gender/documents/publication/wcms_814499.pdf
- Imperial College of London. (2021). Global attitudes towards a 코로나19 vaccine.

https://www.imperial.ac.uk/media/imperial-college/institute-of-global-health-innovation/GlobalVaccineInsights_ICL-YouGov-코로나19-Behaviour-Tracker_20210520_v2.pdf 2021.09.24. 인출

- J. K. Hakes & W. K. Viscusi. (2004). Dead Reckoning: 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Accuracy of Mortality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Vol.24, No.3, 651-663.
- Jewett RL, Mah SM, Howell N, Larsen MM. (2021).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Resilience During 코로나19 and Pandemics: A Rapid Scoping Review to Inform the United Nations Research Roadmap for 코로나19 Recovery. *Int J Health Serv*. 2021 Jul;51(3), 325-336. doi: 10.1177/0020731421997092. Epub 2021 Apr 8. PMID: 33827308; PMCID: PMC8204038.
- Jung, J. Y. (2019). Socio-psychological recovery from disasters through the neighbourhood storytelling network: empirical research in Shinchimachi, Fukushim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3, 21.
- KAMİLÇELEBİ, H. (2020). Will we be happier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effect of 코로나19 on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US citizens. *Gaziantep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19(코로나19 Special Issue), 541-553.
- Kawohl, W., & Nordt, C. (2020). 코로나19, unemployment, and suicide. *The Lancet Psychiatry*, 7(5), 389-390.
- Kessler, R. C., & McLeod, J. D. (1984). Sex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0-631.
- Khademian, F., Delavari, S., Koohjani, Z., & Khademian, Z. (2021). An investigation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nd its relating factors during 코로나19 pandemic in Iran. *BMC Public Health*, 21(1), 1-7.
- Kim, JS. (2020). The role of social cohesion in addressing the impact of 코로나19 on mental health within marginalized communities, *Local Development & Society*, 1(2), 205-216, DOI: 10.1080/26883597.2020.1829985
- Klaiber, P., Wen, J. H., DeLongis, A., & Sin, N. L. (2021). The ups and downs of daily life during 코로나19: Age differences in affect, stress, and positive even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6(2), e30-e37.
- Klomek, A. B. (2020). Suicide prevention during the 코로나19 outbreak. *The Lancet Psychiatry*, 7(5), 390.

- Kniffin, K. M., Narayanan, J., Anseel, F., Antonakis, J., Ashford, S. P., Bakker, A. B., Peter Bamberger., Hari Bapuji., Devasheesh P. Bhave., Virginia K. Choi., Stephanie J. Creary., Evangelia Demerouti., Francis J. Flynn., Michele J. Gelfand., Lindred L. Greer., Gary Johns., & Vugt, M. V. (2021). 코로나19 and the workplace: Implications, issues, and insights for future research and action. *American Psychologist*, 76(1), 63.
- Knuth, D., Kehl, D., Hulse, L., Spangenberg, L., Braehler, E., and Schmidt, S. (2015). Risk perception and emergency experience: comparing a representative German sample with German emergency survivors. *Journal of Risk Research*, 18(5), 581-601.
- Kye, B-O & Hwang, S-J. (2020). Social trust in the midst of pandemic crisis: Implications from 코로나19 of South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ume 68, (<https://doi.org/10.1016/j.rssm.2020.100523>.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76562420300597>)
- Lalot F, Abrams D, Broadwood J, Davies Hayon K, Platts-Dunn I. (2021). The social cohesion investment: Communities that invested in integration programmes are showing greater social cohesion in the midst of the 코로나19 pandemic. *J Community Appl Soc Psychol*. 2021;1-19. <https://doi.org/10.1002/casp.2522>
- Lê, F., Tracy, M., Norris, F. H. and Galea, S. (2013) 'Displacement, county social cohesion, and depression after a large-scale traumatic even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8(11), 1729-41.
- Liao, Q. Y., Cowling, B., Lam, W. T., Ng, M. W., & Fielding, R. (2010). Situational awareness and health protective responses to pandemic influenza A (H1N1) in Hong Kong: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5(10). <https://doi.org/10.1371/journal>.
- Lopes, B. C. D. S., & Jaspal, R. (2020). Understanding the mental health burden of 코로나19 in the United Kingdom.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5), 465.
- McIntyre, R. S., & Lee, Y. (2020). Preventing suicid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World Psychiatry*, 19(2), 250.
- Mihashi, M., Otsubo, Y., Yinjuan, X., Nagatomi, K., Hoshiko, M., & Ishitake, T. (2009). Predic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disorder development during

- recovery following SARS outbreak. *Health Psychology*, 28(1), 91-100.
- Miller, S. D. (2018) Xenophobia toward Refugees and Other Forced Migrants, XRC Research Paper, 5,
<https://www.cigionline.org/publications/xenophobia-toward-refugees-and-other-forced-migrants/> 2021.09.22. 인출.
- Moen, B. E., & Rundmo, T. (2005). Predictors of unrealistic optimism: a study of Norwegian risk takers. *Journal of Risk Research*. 8. 363-382.
- More in Common. (2021). The New Normal?: A 7-country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s of 코로나19 on trust, social cohesion, democracy and expectations for an uncertain future.
<https://www.moreincommon.com/media/bfwlsrxu/more-in-common-the-new-normal-comparative-7-country-en.pdf>, 2021.7.13. 인출.
- Nielsen, J. H. & Lindvall, J. (2021) Trust in government in Sweden and Denmark during the 코로나19 epidemic, *West European Politics*, 44(5-6), 1180-1204.
- Nielsen, R.K., Schulz, A. and Fletcher, R. (2021). An ongoing infodemic: How people in eight countries access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a year into the pandemic.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ongoing-infodemic-how-people-eight-countries-access-news-and-information-about-coronavirus-year> 2021.10.06. 인출.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and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2), 127-50.
- NPO지원센터. (2019.08.12.). [이슈] 줄어드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회복하는 6가지 방법,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4156&sfl=wr_4&stx=%EC%B0%B8%EC%97%AC 2021.10.21. 인출.
- OECD. (2021. 10. 28). Tracking GDP growth in real time,
<https://www.oecd.org/economy/weekly-tracker-of-gdp-growth/> 2021. 10. 28. 인출.
- Oh, J., & Neal, Z. P. (2021). Two's Company, but Four's a Crowd: The Relationship

- Among 코로나19 Stress, Household Size, and Life Satisfaction. *Collabra: Psychology*, 7(1), 24923.
- Olteda, Sigve., Moen, Bjørg-Elin., Klempe, Hroar and Rundmo, Torbjørn. (2004). Explaining risk perception: An evaluation of cultural theory. *Rotunde*.
- Othman, N. (2020).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 the time of 코로나19 pandemic in Kurdistan region, Iraq. *Kurdistan Journal of Applied Research*, 37-44.
- Ozamiz-Etxebarria, N., Dosil-Santamaria, M., Picaza-Gorrochategui, M., & Idoiaga-Mondragon, N. (2020).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level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코로나19 outbreak in a population sample in the northern Spain. *Cadernos de saude publica*, 36. 1-9.
- Paul, K. I., & Moser, K. (2009). Unemployment impairs mental health: Meta-analy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3), 264-282.
- Peacock, W. G., Brody, S. D., & Highfield, W. (2005). Hurricane risk perceptions among Florida's single family homeowner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73(2). 120-135.
- Peker, A., & Cengiz, S. (2021). 코로나19 fear, happiness and stress in adults: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oping with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1-9.
- Pieh, C., Budimir, S., Delgadillo, J., Barkham, M., Fontaine, J. R., & Probst, T. (2021). Mental health during 코로나19 lockdown in the United Kingdom. *Psychosomatic medicine*, 83(4), 328-337.
- Podlesek, A., Roskar, S., & Komidar, L. (2011). Som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on non-mandatory vaccination in an influenza pandemic: Comparison of pandemic (H1n1) and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Zdravstveno Varstvo*, 50(4), 227-238.
- Pompili, M., Innamorati, M., Sampogna, G., Albert, U., Carmassi, C., Carrà, G., Cirulli, K., Erbutto, D., Luciano, M., Nanni, M.G., Sani, G., Tortorella, A., Viganò, C., Volpe, U., & Fiorillo, A. (2021). The impact of 코로나19 on unemployment across Italy: consequences for those affected by psychiatric conditio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6(2022). 59-66.
- Prati, G., Pietrantoni, L., & Zani, B. (2011). A social-cognitive model of pandemic

- influenza H1N1 risk perception and recommended behaviors in Italy. *Risk Analysis*, 31(4), 645-656. <https://doi.org/10.1111/J.1539-6924.2010.01529>.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ehman, U., Shah Nawaz, M. G., Khan, N. H., Kharshiing, K. D., Khursheed, M., Gupta, K., Kashyap, D. & Uniyal, R. (2021).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mong Indians in times of 코로나19 lockdow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7(1), 42-48.
- Renn, O. (2008).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NY: Earthscan. 2794-3654.
- Rosa, E. A. (2003).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SARF): Metatheoretical found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47.
- Rossi, R., Socci, V., Talevi, D., Mensi, S., Niolu, C., Pacitti, F., Di Marco, A., Rossi, A., Siracusano, A., & Di Lorenzo, G. (2020). COVID-19 Pandemic and Lockdown Measures Impact on Mental Health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Italy. *Frontiers in psychiatry*, 11, 790. <https://doi.org/10.3389/fpsy.2020.00790>
- Sakamoto, H., Ishikane, M., Ghaznavi, C., & Ueda, P. (2021). Assessment of suicide in Japan during the 코로나19 pandemic vs previous years. *JAMA Network Open*, 4(2), e2037378-e2037378.
- Sarason, I. G.,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3), 357-367.
- Schraff, Dominik (2020). 'Political Trust during the 코로나19 Pandemic: Rally around the Flag or Lockdown Effec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 Schwab, K. & Malleret, T. (2021). *클라우드 슈팅의 위대한 리셋*. (이진원, 옮김). 메가스터디북스. (원서출판 2020).
- Shader, R. I. (2020). 코로나19 and Depression. *Clinical therapeutics*, 42(6), 962-963.
- Shevlin, M., McBride, O., Murphy, J., Miller, J. G., Hartman, T. K., Levita, L., Mason, L., Martinez, A.P., Mckay, R., Stocks, T.V.A., Bennett, K.M., Hyland, P., Karatzias, T., & Bentall, R. P. (2020). Anxiety, depression, traumatic stress

- and 코로나19-related anxiety in the UK general population during the 코로나 19 pandemic. *BJPsych Open*, 6(6). 1-9.
- Siegrist, M., & Cvetkovich, G.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20.
- Siegrist, M., & Zingg, A. (2014). The role of public trust during pandemics implications for crisis communication. *European Psychologist*, 19(1), 23-32. <https://doi.org/10.1027/10169040/a000169>
- Siegrist, Michael., Luchsinger, Larissa., & Bearth, Angela. (2021). The Impact of Trust and Risk Perception on the Acceptance of Measures to Reduce 코로나19 Cases. *Society for Risk Analysis*.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8014821/pdf/RISA-9999-0.pdf>
- Skocpol, T.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B. Evans, D. Rueschemeyer, and T.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ocpol, T. (2003).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Slovic, P. & E. U. Weber. (2002). Perception of Risk Posed by Extreme Events. in J. Applegate et al. (eds.). *Forthcoming. Regulation of Toxic Substances and Hazardous Waste (Second Edition)*. Foundation Press.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1). Rating the risks. In *Risk/benefit analysis in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Springer US. 193-217.
- Sweet, S. (1998). The Effect of a Natural Disaster on Social Cohesion: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16(3), 321-331.
- Taylor, S. (2021). COVID stress syndrome: clinical and nosological considerations. *Current Psychiatry Reports*, 23(4), 1-7.
- Thayer, Z. M., & Gildner, T. E. (2021). COVID-19-related financial stress associated with higher likelihood of depression among pregnant wome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Human Biology*, 33(3), e23508.
- Turkish Red Crescent Society. (2021).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KAP) - assessment on covid-19, p.32,

file:///C:/Users/kihasa/Downloads/KAP_2_assessment%20report_FINAL.pdf
2021.10.06. 인출.

UN. (2020). The World of Work and 코로나19. Policy Brief. JUNE 2020.

UNESCO, (2020) 코로나19-related discrimination and stigma: a global phenomenon?, <https://en.unesco.org/news/코로나19-related-discrimination-and-stigma-global-phenomenon> 2021.11.11. 인출

Uslaner, T. R.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n Dawans, B., Fischbacher, U., Kirschbaum, C., Fehr, E. and Heinrichs, M. (2012). The social dimension of stress reactivity: acute stress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humans, *Psychological Science* 23(6), 651-60.

Wanberg, C. R. (2012).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unemploy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3, 369-396.

Wanberg, C. R., Csillag, B., Douglass, R. P., Zhou, L., & Pollard, M. S. (2020). Socioeconomic status and well-being during 코로나19: A resource-based examin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Wang, C., Pan, R., Wan, X., Tan, Y., Xu, L., Ho, C. S., & Ho, R. C. (2020). Immediat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2019 coronavirus disease (코로나19) epidemic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5), 1729.

Wilkinson, R., Pickett, K. (2009).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New York, NY: Bloomsbury Press.

Wollebæk, Dag, Bernard Enjolras, Kari Steen-Johnsen, and Guro Ødegård (2012). 'After Utøya: How a High-Trust Society Reacts to Terror—Trust and Civic Engagement in the Aftermath of July 22',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5(01), 32-7.

World Bank. (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Yu, H., Li, M., Li, Z., Xiang, W., Yuan, Y., Liu, Y., Li, Z., & Xiong, Z. (2020). Coping style,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general Chinese popul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코로나19 epidemic. *BMC Psychiatry*, 20(1), 1-11.

- Yunus, W. M. A. W. M., Badri, S. K. Z., Panatik, S. A., & Mukhtar, F. (2020). The Unprecedented Movement Control Order (Lockdown)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Negative Emotional Symptoms, Happiness, and Work-Life Balance of Malaysian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코로나19) Pandemic. *Frontiers in Psychiatry*, 11. 1-15.
- Zhao, D-X and Hall, JH. (1994). State Power and Patterns of Late Development: Resolving the Crisis of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Sociology* 28(2), 539-546.



[부록 1]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1. 조사목적

-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파장과 그 결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친 영향, 사회 통합 인식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모집단의 정의

□ 목표모집단

- 2021년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체 국민

□ 조사모집단

- 2021년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비 민간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 표본추출틀

- 2019년 기준 2020년도 통계청의 SGI 집계구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함

3. 모집단 분석³⁾

□ 2019년 기준 집계구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집계 수는 101,147개이며, 동부는 81.2%, 읍면부는 18.8%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3%, 경기도가 25.1%를 차지하고 있음(〈부표 1-1〉 참조)

〈부표 1-1〉 모집단 집계구 분포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9,429	9,110	.	.	18,539
부산	2,577	3,762	96	231	6,666
대구	1,752	2,619	118	379	4,868
인천	2,168	3,371	159	15	5,713
광주	854	2,121	.	.	2,975
대전	1,118	1,843	.	.	2,961
울산	583	1,234	172	258	2,247
세종	8	471	115	78	672
경기	6,939	14,263	2,331	1,816	25,349
강원	658	1,190	881	343	3,072
충북	679	1,187	842	510	3,218
충남	626	1,375	1,487	776	4,264
전북	875	1,721	875	176	3,647
전남	515	1,049	1,615	492	3,671
경북	1,106	1,697	1,728	730	5,261
경남	1,485	2,751	1,407	1,021	6,664
제주	647	327	370	16	1,360
계	32,019	50,091	12,196	6,841	101,147

주: 총 집계수 수는 103,612개이지만, 집계구 내에 가구 수가 0인 집계구는 제외함.

3) 모집단 분석에서 집계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과 아파트의 구분의 경우 집계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처 유형을 기준으로 단독, 다세대, 연립,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외 거처를 일반으로 정의하고 이를 아파트와 구분하였으며, 일반과 아파트의 규모를 비교하여 큰 규모를 일반 또는 아파트로 결정하였음.

- 가구와 인구 규모를 파악해보면, 전체 가구는 20,343천 가구이며, 전체 인구는 49,255천 명으로 파악되었음(〈부표 1-2〉 참조, 〈부표 1-3〉 참조).
- 동부의 가구는 전체는 80.8%를 차지하며, 읍면부는 19.2%로 나타났고, 인구 규모로서는 동부가 81.5%, 읍면부가 18.5%로 나타났음
- 전체 인구 중에서 경기도의 인구비율이 전체의 25.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이 18.6%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49.7%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 지역별 성별 분포를 파악해보면 〈부표 1-4〉와 같이 전국 남성의 비율은 49.5%, 여성은 50.5%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남녀 성별 규모를 비교했을 때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 동부지역에서 남녀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읍면부에서는 동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음

3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부표 1-2〉 모집단 가구 분포

(단위 : 천 가구)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243	1,653	0	0	3,896
부산	593	722	20	43	1,377
대구	388	485	24	71	969
인천	485	600	33	3	1,121
광주	191	396	0	0	587
대전	262	347	0	0	609
울산	129	223	36	48	437
세종	2	84	29	14	130
경기	1,577	2,506	495	330	4,908
강원	149	230	191	64	634
충북	148	226	185	95	655
충남	146	249	319	150	864
전북	189	324	192	33	738
전남	110	201	340	90	741
경북	249	317	396	140	1,103
경남	327	502	307	185	1,321
제주	123	58	69	3	254
계	7,313	9,124	2,636	1,270	20,343

〈부표 1-3〉 모집단 인구 분포

(단위 : 천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4,620	4,521	0	0	9,141
부산	1,224	1,888	43	114	3,268
대구	822	1,293	56	191	2,361
인천	1,058	1,678	74	7	2,817
광주	389	1,045	0	0	1,434
대전	523	917	0	0	1,440
울산	271	612	79	135	1,096
세종	4	230	55	36	324
경기	3,394	7,095	1,139	913	12,541
강원	297	583	416	164	1,460
충북	306	591	393	248	1,539
충남	286	672	690	389	2,037
전북	394	845	411	84	1,735
전남	235	520	720	237	1,712
경북	510	840	822	360	2,533
경남	685	1,358	649	497	3,189
제주	302	154	165	7	628
계	15,318	24,842	5,713	3,381	49,255

〈부표 1-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단위: 천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173	2,296	2,106	2,300	-	-	-	-
부산	579	600	890	958	21	20	53	57
대구	394	399	606	650	28	26	93	94
인천	520	503	796	836	36	35	4	3
광주	192	181	493	528	-	-	-	-
대전	260	243	443	466	-	-	-	-
울산	137	124	304	297	40	36	67	65
세종	2	2	108	114	29	24	19	19
경기	1,682	1,599	3,364	3,543	578	521	448	449
강원	146	138	279	297	204	193	81	81
충북	152	143	285	300	195	180	123	120
충남	144	130	323	334	337	320	202	195
전북	194	184	401	427	195	197	42	43
전남	116	109	252	256	337	346	118	119
경북	252	238	408	419	391	390	182	182
경남	341	320	662	673	307	310	240	244
제주	147	146	73	78	81	79	3	4
계	7,430	7,355	11,792	12,476	2,778	2,674	1,675	1,675

주: 〈부표 1-3〉과 〈부표 1-4〉의 총합의 차이는 거처 내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로서 거처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됨

□ 시도별 연령분포는 〈부표 1-5〉와 같이 전체 연령대를 시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서울은 50대와 60대 연령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은 50대 연령이 부산인구의 약 17.3%를 차지하였고, 대구는 50대 연령이 17.9%였으며, 상대적으로 20대 미만 연령이 17.7%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인천은 20대 미만 연령대가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60대 미만이 11.7%로 낮게 나타남. 광주는 20대 미만이 19.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전 또한 20대 미만이 18.9%로 높게 나타났음. 울산지역도 20대 미만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19.1%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 지역과는 연령대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 세종은 20대 미만이 26.1%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60대의 비율은 8.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는 20대 미만이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은 50대가 18%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은 20대 미만이 1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은 20대 미만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전북은 20대 미만이 17.7%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50대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20대가 9.3%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음. 경북은 50대가 17.8%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은 20대 미만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는 20대 미만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로 연령대 분포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부표 1-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구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0대 미만	528	866	-	-	1,394
	20대	821	517	-	-	1,338
	30대	767	660	-	-	1,427
	40대	667	788	-	-	1,455
	50대	730	726	-	-	1,456
	60대	586	544	-	-	1,130
	70대 이상	479	380	-	-	859
부산	20대 미만	117	355	5	29	506
	20대	179	209	5	9	402
	30대	137	256	5	19	417
	40대	154	310	6	23	493
	50대	214	327	7	14	562
	60대	215	255	7	11	488
	70대 이상	196	161	7	8	372
대구	20대 미만	95	266	7	46	414
	20대	127	144	6	19	296
	30대	93	163	6	36	298
	40대	110	230	7	34	381
	50대	152	229	11	28	420
	60대	127	147	9	17	300
	70대 이상	111	103	10	8	232

구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인천	20대 미만	142	353	8	2	505
	20대	154	200	5	1	360
	30대	152	246	6	1	405
	40대	162	297	8	1	468
	50대	190	294	14	1	499
	60대	138	172	15	1	326
	70대 이상	110	99	18	1	228
광주	20대 미만	46	236	-	-	282
	20대	67	128	-	-	195
	30대	49	142	-	-	191
	40대	53	189	-	-	242
	50대	66	169	-	-	235
	60대	52	101	-	-	153
	70대 이상	51	71	-	-	122
대전	20대 미만	67	202	-	-	269
	20대	99	105	-	-	204
	30대	68	128	-	-	196
	40대	70	165	-	-	235
	50대	86	152	-	-	238
	60대	68	95	-	-	163
	70대 이상	59	60	-	-	119
울산	20대 미만	33	137	9	32	211
	20대	36	67	8	16	127
	30대	33	95	8	18	154
	40대	40	108	10	26	184
	50대	53	113	16	24	206
	60대	43	60	14	12	129
	70대 이상	29	24	12	5	70
세종	20대 미만	1	70	5	8	84
	20대	1	18	11	5	35
	30대	1	48	5	5	59
	40대	1	48	6	6	61
	50대	0	25	9	6	40
	60대	0	13	9	4	26
	70대 이상	0	4	10	3	17

3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구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경기	20대 미만	451	1607	142	221	2,421
	20대	526	797	125	96	1,544
	30대	511	1073	126	138	1,848
	40대	525	1328	152	176	2,181
	50대	609	1149	217	136	2,111
	60대	415	651	187	81	1,334
	70대 이상	325	424	179	57	985
강원	20대 미만	32	127	42	39	240
	20대	43	60	35	20	158
	30대	29	76	31	26	162
	40대	38	105	46	28	217
	50대	53	101	83	23	260
	60대	48	64	84	15	211
	70대 이상	50	45	90	11	196
충북	20대 미만	40	132	37	65	274
	20대	51	70	37	27	185
	30대	36	81	31	45	193
	40대	41	107	41	45	234
	50대	53	102	75	34	264
	60대	44	58	78	19	199
	70대 이상	39	35	88	11	173
충남	20대 미만	37	172	66	102	377
	20대	51	75	60	37	223
	30대	42	111	51	67	271
	40대	39	127	73	76	315
	50대	46	102	125	56	329
	60대	35	49	135	29	248
	70대 이상	33	28	173	19	253
전북	20대 미만	52	191	39	22	304
	20대	61	95	30	7	193
	30대	43	108	27	12	190
	40대	52	152	42	16	262
	50대	64	142	73	12	291
	60대	56	89	80	8	233
	70대 이상	62	61	117	6	246

구분	연령대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남	20대 미만	30	122	73	65	290
	20대	29	55	51	22	157
	30대	23	73	50	36	182
	40대	31	94	76	46	247
	50대	42	91	127	35	295
	60대	38	51	134	18	241
	70대 이상	39	28	203	12	282
경북	20대 미만	65	195	68	87	415
	20대	70	84	61	36	251
	30대	60	120	58	59	297
	40대	70	153	84	67	374
	50대	89	147	152	58	446
	60대	80	86	170	32	368
	70대 이상	71	46	219	18	354
경남	20대 미만	85	315	61	127	588
	20대	91	142	47	44	324
	30대	83	194	48	85	410
	40대	100	258	70	95	523
	50대	130	236	123	75	564
	60대	107	131	130	44	412
	70대 이상	84	67	164	22	337
제주	20대 미만	60	40	27	2	129
	20대	36	15	15	1	67
	30대	41	21	18	1	81
	40대	51	29	27	1	108
	50대	50	24	29	1	104
	60대	33	14	22	1	70
	70대 이상	29	9	26	1	65
계		15,174	24,604	5,654	3,352	48,784

4. 표본설계

가. 2021년도 사회통합조사 표본설계의 기본 방향

- 모집단인 통계청의 SGI 데이터인 집계구를 활용하여 표본설계를 고려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조사 설계와 같이 층화변수를 사용하고, 층별로 산출되는 통계 값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배분 방법 및 조정이 가능한 층화추출방법을 적용함
- 면접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본설계방안을 제시함

나. 표본규모의 결정

- 층화표본추출의 경우 비례배분과 네이만 배분 가정하에서 전체 표본규모를 결정 하기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bullet \text{ 비례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bullet \text{ 네이만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2 D + \sum_{h=1}^L N_h S_h^2}$$

여기서 S_h^2 은 h 층의 모집단 분산이며, $W_h = N_h/N$ 이고, $D = B^2/4$ 임

- 모집단 분석에서 조사대상 연령대인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대의 비율 (P_h)을 변동으로 고려하여 $S_h^2 = P_h Q_h$ 로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산정할 수 있음

〈부표 1-6〉 표본 규모 산정

(단위 : %, 가구)

B	비례배분		네이만배분	
	가구기준	개인기준	가구기준	개인기준
0.8	11,464	11,561	11,425	11,532
0.9	9,058	9,135	9,028	9,112
1.0	7,337	7,400	7,314	7,381
1.1	6,064	6,116	6,045	6,100
1.2	5,095	5,139	5,079	5,126
1.3	4,341	4,379	4,328	4,368
1.35	4,026	4,060	4,014	4,050
1.36	3,967	4,001	3,955	3,991
1.4	3,743	3,776	3,732	3,766

□ 표본규모는 조사대상연령에 대해 통계값의 추정오차가 1.35%로 관리할 경우 가구기준으로 비례배분하면 약 4,026가구가 요구되며, 개인기준으로는 4,060가구가 표본으로 필요함. 만일 추정오차를 1.3%로 관리할 경우 비례배분하면 가구기준으로 4,341가구, 개인기준으로 4,378가구의 표본이 필요함.

□ 또한 네이만 배분의 경우 가구기준으로 목표오차 1.35%인 경우 4,014가구의 표본이 요구되며, 개인기준에서는 목표오차 1.35%인 경우 4,050가구의 표본이 요구됨

□ 따라서 목표오차 1.35% 이내로 관리할 경우 개인 기준 또는 가구 기준으로 약 4,000가구의 표본이 요구됨

다. 표본배분 방법

□ 층별 표본배분 방법으로는 모집단의 층별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과 모집단의 층별 변동을 고려한 표본배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sum_{k=1}^H N_k}$
- 제곱근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sqrt{N_h}}{\sum_{k=1}^H \sqrt{N_k}}$
- 네이만 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 S_h}{\sum_{k=1}^H N_k S_k}$

□ 방안1: 지역별 가구 수에 대한 비례배분

○ 층별 가구 수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집계구 당 8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 요구되는 집계구는 500개이며, 이를 지역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의 40%가 배분되어 가구 규모가 큰 지역에 과다 배분되는 결과가 나타남

〈부표 1-7〉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1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54	40	0	0	94
부산	15	18	0	1	34
대구	10	12	1	1	24
인천	12	14	1	0	27
광주	5	10	0	0	15
대전	6	9	0	0	15
울산	3	5	1	1	10
세종	0	2	1	0	3
경기	38	61	12	8	119
강원	4	6	5	2	17
충북	4	6	5	2	17
충남	4	6	8	4	22
전북	5	8	5	1	19
전남	3	5	8	2	18
경북	6	8	10	3	27
경남	8	12	8	5	33
제주	3	1	2	0	6
계	180	223	67	30	500

□ 방안2: 지역별 가구 수의 제공에 비례하도록 배분

- 층별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집계구 당 8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 요구되는 집계구는 500개이며, 이를 지역별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여 배분할 경우 방안1)의 특정지역에 과대하게 배분 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

〈부표 1-8〉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2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5	22	-	-	47
부산	13	14	2	3	32
대구	10	12	3	4	29
인천	12	13	3	1	29
광주	7	11	-	-	18
대전	9	10	-	-	19
울산	6	8	3	4	21
세종	1	5	3	2	11
경기	21	27	12	10	70
강원	6	8	7	4	25
충북	6	8	7	5	26
충남	6	8	9	6	29
전북	7	10	7	3	27
전남	6	8	10	5	29
경북	8	9	11	6	34
경남	10	12	9	7	38
제주	6	5	4	1	16
계	159	190	90	61	500

□ 방안3: 층별 조사 대상 연령의 비율 변동에 따른 네이만 배분

- 층별 조사 대상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변동이 큰 층에 많은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층의 규모와 조사대상 연령대의 변동이 큰 층에 많은 표본을 배분함으로써 추정오차를 줄일 수 있음

○ 배분결과를 보면 <부표 1-9>에서와 같이 비례배분보다 더 많은 표본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분되어 규모가 큰 층에 더 많은 표본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최종적으로 표본배분은 층별 가구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방안2의 배분 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부표 1-9> 표본 집계구 배분: 방안3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33	75	-	-	108
부산	7	21	1	2	31
대구	5	15	1	2	23
인천	8	16	1	0	25
광주	3	12	-	-	15
대전	4	10	-	-	14
울산	2	7	1	1	11
세종	0	3	0	0	3
경기	27	72	9	10	118
강원	2	7	3	3	15
충북	2	7	3	4	16
충남	2	9	5	6	22
전북	3	10	4	1	18
전남	2	6	6	3	17
경북	4	11	6	5	26
경남	4	17	5	6	32
제주	3	2	1	0	6
계	111	300	46	43	500

라. 표본 집계구 대체

□ 조사과정에서 응답 거부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집계구 소멸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지역의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함

마. 가구 내 응답자의 선정 방법

- 본 조사는 표본 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대표 가구원의 선정은 Kish(1949)⁴⁾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사 현장에서 조사원의 방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생일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가구원 중 가장 근접한 시점의 생일인 가구원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용함(2021년 6월 현재 만 19~75세)
- 예를 들어 가구주 및 배우자 2인과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대표 가구원 선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되며, 이들 2명 중 조사 시점 기준으로 가장 생일이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임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빠른 생일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5. 추정 방법

가. 가중치의 계산

-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배분인 경우 자체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므로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조사는 표본 집계구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조사구별, 가구원 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4) Kish, Leslie (1949), "A Procedure for Objective Respondent Selection within the Household",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44 (247): 380-387, doi:10.1080/01621459.1949.10483314, JSTOR 2280236

N : 모집단 총 집계구 수($=\sum_{h=1}^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 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가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표본 가구 수

X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 내 j 번째 표본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가구원 수

r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 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최종가중치

① h 층의 j 번째 집계구의 i 번째 가구 내 가구원의 기본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quad (1)$$

②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quad (2)$$

③ 최종 가중치

$$W_{hij} = w_{hi}^r \times w_{hij}^p \quad (3)$$

나. 추정치의 계산

○ 평균 소득 및 지출

$$\hat{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 \dots \quad (4)$$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이며, h 는 층을 나타내는 첨자로서 지역과 동부, 읍면부를 나타낸다. i 는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 표본평균 \widehat{Y} 의 분산 추정치

$$\widehat{V}(\wide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quad (5)$$

여기서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widehat{Y}) \right) / W_{...}$,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이다.

$$SE(\widehat{Y}) = \sqrt{\widehat{V}(\widehat{Y})}$$

○ 상대표준오차

$$\widehat{CV}(\widehat{Y}) = \frac{SE(\widehat{Y})}{\widehat{Y}} \times 100\% \quad (6)$$


[부록 2]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응답자 ID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나라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관기관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HankookResearch

문 의 처
 한국리서치 김지혜 팀장
 02-3014-0122

집계구 번호 (4자리)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자	② 대체가구원

※ 응답자 선정 후 체크해주세요.

응답자 이름 (빠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빠른생일자)	- -
응답자 성별 (선문1)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선문2-1)	만 _____세
주소 (세부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조사 종료 후 면접원이 체크해주세요.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1-5)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방문 기록 적어주세요.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4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면접원 성명		면접시간	분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응답자 선정문항

- ★ 만19~75세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주민등록 생월일기준).
★ 만19세 이상(2002년 5월 31일 이전 출생)에서 만75세 이하(1946년 5월 31일 이후 출생)가 응답합니다.

선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선문2. 귀하는 몇 년 생입니까? (※ 주민등록상 생년)

_____년 _____월 출생 (※ 1945년 6월생 ~ 2002년 5월생 응답가능)

선문2-1. 만 나이 (※ 면접원 입력)

※ 1-5월생 : 2021년 - 출생년도 / 6-12월생 : 2021년 - 출생년도 -1

만 _____세 (※ 만19세 ~ 만75세 응답가능)



I.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빠른 생일자'께서 응답)

- ★ 2021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문1.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이십니까?

구분	가구원 수		
문1-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정,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족,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문1-2. 가구원 중 만18세 미만 가구원 ※ 주민등록기준 2003년 5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문1-3. 만18세 미만 가구원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이 우려되는 가구원			명
문1-4. 만18세 이상 가구원 중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이 우려되는 가구원			명

문1-5. 귀하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구주의 _____)

- ① 가구주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문2.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보기 (※해당사항에 체크)				
2-1. 교육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					
2-2. 혼인상태	① 유배우(사실혼 포함)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문3.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④ 특수고용(택배기사,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등)
- ⑤ 고용주
- ⑥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2021.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5로
- ⑨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문5로

문3-1. (문3에서 ①~⑦ 응답자만)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 ⑩ 군인

문3-2. (문3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문4. (문3에서 ①~⑦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일자리의 지위는 다음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1) 경제적보상 (임금 또는 수입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성 (국가공인자격증 여부, 업무처리를 위한 숙련수준 등)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위상·위세 (직업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①	②	③	④	⑤
4)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시 일자리 안정성 (임금이나 수입 급감, 실직 등의 위험도)	①	②	③	④	⑤



II. 코로나19 이후 변화

문5. 지난 3개월(2021.3.1.-2021.5.31.)동안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전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임금 + 사업소득(자영업소득 포함)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

월평균

 만원

문6.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2월 이후) 그 이전에 비해 귀하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7로
- ③ 해당 없음 (※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없었음) → 문7로

문6-1. (감소하였다면) 대략 몇 % 정도 감소하였습니까? (※ 최대 감소 시점 기준)

- ① 10~30%
- ② 40~60%
- ③ 70~90%
- ④ 100%

문6-2. (감소하였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 ① 1~2개월
- ② 3~6개월
- ③ 7~12개월
- ④ 13개월 이상

문6-3. 코로나19로 인해 귀하의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귀하의 소득 감소 이유가 2가지 이상일 경우, 감소분이 큰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 ① 폐업 또는 실직
- ② 휴업 또는 휴직
- ③ 사업 매출 감소
- ④ 임금 삭감
- ⑤ 근로시간 감소
- ⑥ 기타()

문7. 귀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비해당
1)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①	②	
2)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집세(월세·일세)가 밀린 적이 있다 (자가, 전세, 무상의 경우 ③비해당)	①	②	③
4)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 보험의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적금 및 보험 등이 없는 경우 ③비해당)	①	②	③
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①	②	

문8.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매우 영향을 미침										
8-1. 소득 계층	상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중간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하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매우 영향을 미침										
8-2. 성별	남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여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매우 영향을 미침										
8-3. 세대	청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장년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년층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9.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진단, 치료,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 의료기관 운영, 의료인력 운용, 생활치료시설 설치 등)	①	②	③	④	⑤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 (언론을 통한 확진자 및 완치자 등 일일통계 발표,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 및 문자발송을 통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문10. 귀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언론을 통한 확진자 및 완치자 등 일일통계 발표,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 및 문자발송을 통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1. 코로나19 발생 이후 귀하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운동, 영양제 섭취, 식단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개발과 미래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비대면 접촉(전화, SNS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는 온라인 교육 및 소비, 배달 산업의 성장 등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이 회복된 상황(포스트코로나)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12-1.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본인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1) 가구 경제 상황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문12-2.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1) 경제적 수준(1인당 GDP, 수출, 경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불평등, 양극화	①	②	③	④	⑤
3) 시민의식(준법의식, 문화적 성숙도 등)	①	②	③	④	⑤
4)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①	②	③	④	⑤

문13. 귀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한 두 번 생각해 본 적 있다
- ③ 가끔 생각했다
- ④ 자주 생각했다

문16-2. (문16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지급된 정부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 응답 후 문17로

문16-3. (문16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약간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피해 여부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②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③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④ 피해를 입고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Ⅲ. 사회심리적 감정상태

※ 다음 문18~26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8.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1.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적 지원란,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감정과 정보를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혀 받고 있지 않음 ←					보통					→ 매우 많이 받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음 ←					보통					→ 매우 많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 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4. 다음 문항은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당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사회 및 사회통합 인식

※ 다음 문27~문44번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8.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1) 대기업	①	②	③	④
(2) 종교계	①	②	③	④
(3) 교육계	①	②	③	④
(4)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5) 언론계(신문사, TV방송국 등)	①	②	③	④
(6) 의료계	①	②	③	④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①	②	③	④
(8) 입법부(국회)	①	②	③	④
(9) 사법부(법원)	①	②	③	④
(10) 군대	①	②	③	④
(11)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12) 시민운동단체	①	②	③	④
(13) 검찰, 경찰	①	②	③	④

문29.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30.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⑤

문32.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문33.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34.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35.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3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37.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38.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문39. 귀하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웃과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웃이 곤경에 처하면 도움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동네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동네 이웃들과 나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40. 귀하는 코로나19로 가장 위협받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 신뢰 ② 사회적 연대 ③ 민주주의
- ④ 도전정신 ⑤ 경제성장 ⑥ 인권
- ⑨ 특별히 없다

사회적 신뢰 : 사회구성원 간 신뢰, 정부 및 사회적 조직에 대한 신뢰(의회·사법·기업·언론·사회단체 등)
 사회적 연대 : 힘을 모아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태도

문40-1. 귀하는 코로나19로 가장 높아진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 신뢰 ② 사회적 연대 ③ 민주주의
- ④ 도전정신 ⑤ 경제성장 ⑥ 인권
- ⑨ 특별히 없다

문41. 귀하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전하다	다소 안전하다	보통이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문42.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1) 자연 재해 관련	홍수, 태풍, 황사, 가뭄, 지진 및 쓰나미, 지구온난화 등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관련	전염병, 정신건강, 성인병, 먹거리 문제 등	①	②	③	④	⑤
3) 생애 주기 관련	노후, 가족해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등	①	②	③	④	⑤
4) 사회 생활 관련	범죄, 교통사고 등의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등	①	②	③	④	⑤
5) 경제 생활 관련	실업, 빈곤, 주택 및 전세가격 불안, 금융 불안, 경기 침체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개인의 인권문제, 민주주의의 위기, 북핵 문제, 강대국 간 충돌 등	①	②	③	④	⑤
7) 환경 관련	방사성 폐기물 문제,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①	②	③	④	⑤

문43.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4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①	②	③	④	⑤

문49. 귀 가구 주소득자의 소득이 단절될 경우, 귀하는 공적, 사적 지원 없이 얼마나 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가구원의 소득, 저축한 돈, 기타 재산 등을 감안해 응답해 주세요)

- ①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
- ② 2, 3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③ 4~6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④ 6~12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⑤ 1,2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⑥ 주소득자 소득과 무관하게 가계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안)

■ 본인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
②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설문문항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조사·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한하여 이용됩니다. 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 및 부호화 처리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응답자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부록 3]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기초분석

〈부표 3-1〉 응답자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

구분		0만원	1-99만원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만원 이상	전체 평균 (만원)	취업자 평균 (만원)
전체		30.98	5.10	12.96	22.34	14.98	7.30	3.37	2.98	191.09	280.36
성별	남성	18.64	3.05	10.34	23.40	21.83	11.92	5.69	5.14	257.45	322.25
	여성	43.75	7.22	15.67	21.23	7.89	2.51	0.97	0.75	122.36	217.26
연령	20대 이하	42.22	6.84	9.04	28.39	10.53	1.37	0.96	0.66	132.98	237.55
	30대	22.62	0.96	9.38	29.27	24.86	8.04	2.11	2.76	230.49	298.71
	40대	21.55	3.41	9.57	21.54	21.33	12.45	5.88	4.29	248.84	319.95
	50대	22.34	2.00	16.17	21.15	14.27	11.82	6.31	5.96	242.41	316.03
	60대 이상	44.58	11.17	18.81	14.07	6.14	2.76	1.34	1.11	109.57	197.89
지역1	수도권	29.71	3.60	12.72	23.37	15.50	8.24	3.43	3.42	201.07	292.77
	비수도권	32.30	6.66	13.21	21.25	14.44	6.31	3.31	2.52	180.68	267.54
지역2	대도시	29.18	4.85	12.59	24.33	15.17	6.91	4.06	2.91	197.48	285.70
	중소도시	32.32	4.39	12.94	21.68	15.10	7.82	2.92	2.83	188.43	280.28
	농어촌	32.23	10.36	14.92	16.17	13.40	6.22	2.49	4.21	174.46	254.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39	10.96	24.00	19.67	9.08	3.06	0.83	0.00	127.94	193.87
	중하층	29.12	5.32	14.88	26.18	15.08	6.30	1.85	1.27	176.86	251.24
	중간층	31.97	3.57	8.77	20.39	16.98	8.81	4.72	4.78	213.75	318.97
	중상층(상층)	32.50	1.08	5.39	17.57	12.99	12.81	9.63	8.04	267.93	402.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3.18	10.40	26.43	0.00	0.00	0.00	0.00	0.00	43.13	116.30
	200만 원대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230.24	230.62
	300만 원대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321.18	321.34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416.83	416.50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0.00	0.00	0.00	53.07	46.93	629.36	629.64
학력	중졸 이하	52.87	15.56	18.27	10.09	2.17	0.68	0.06	0.31	66.48	140.36
	고졸	34.01	5.09	16.61	24.70	11.12	4.31	2.83	1.32	160.54	247.51
	대졸 이상	21.52	1.99	7.83	23.69	22.54	12.15	4.88	5.38	257.81	332.2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18	0.39	9.51	38.87	27.88	13.81	4.87	4.49	312.64	312.6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3	21.61	35.55	25.42	9.87	5.47	0.57	1.17	182.00	182.00
	고용주, 자영자	1.31	7.56	22.40	26.57	19.12	8.70	8.06	6.29	281.67	281.67
	무급가족종사자	77.88	3.33	5.76	6.24	6.78	0.00	0.00	0.00	47.26	
	실업자	79.43	5.60	10.40	3.21	0.38	0.00	0.00	0.98	32.26	
	비경제활동인구	92.84	2.26	1.78	1.40	0.96	0.58	0.15	0.03	13.3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39	1.85	6.99	22.68	28.47	15.48	13.85	10.29	376.32	376.3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2	5.13	18.35	35.59	21.65	10.57	3.68	3.71	271.26	274.34
	숙련 및 기술직	9.52	5.09	17.85	28.41	22.59	9.41	3.96	3.17	248.73	271.64
	단순노무 종사자	0.28	29.56	31.34	27.72	4.91	3.06	1.75	1.38	163.35	163.3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20	0.29	7.92	37.66	29.13	14.70	5.23	4.86	320.01	320.01
	비정규직	0.31	20.07	35.64	31.71	8.46	3.30	0.15	0.36	174.89	174.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24	6.00	16.44	19.65	13.10	6.23	2.54	2.81	174.07	263.95
	중도적	31.12	4.84	11.61	21.67	16.12	7.46	4.05	3.13	194.98	286.52
	진보적	28.06	4.63	11.94	26.91	14.63	8.15	2.84	2.85	202.09	284.71

주: “지난 3개월 동안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해당 없음	χ^2 (df)
전체		31.41	45.86	22.74	
성별	남성	36.43	49.22	14.35	168.840(2)***
	여성	26.20	42.37	31.43	
연령	20대 이하	17.24	50.41	32.35	272.026(8)***
	30대	21.66	59.28	19.06	
	40대	37.92	47.05	15.04	
	50대	44.30	39.77	15.92	
	60대 이상	32.46	36.63	30.91	
지역1	수도권	32.30	45.76	21.95	2.274(2)
	비수도권	30.48	45.96	23.56	
지역2	대도시	33.12	44.52	22.35	15.322(4)**
	중소도시	28.76	47.79	23.45	
	농어촌	37.91	41.51	20.5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21	31.75	25.04	115.690(6)***
	중하층	36.46	43.13	20.41	
	중간층	24.17	52.38	23.45	
	중상층(상층)	24.52	47.84	27.6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16	29.52	43.33	958.308(8)***
	200만 원대	38.48	56.98	4.55	
	300만 원대	33.10	65.06	1.84	
	400만 원대	31.36	68.15	0.49	
	500만 원 이상	35.42	61.95	2.63	
학력	중졸 이하	29.08	34.64	36.28	179.325(4)***
	고졸	37.04	38.30	24.66	
	대졸 이상	26.64	56.52	16.8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6.71	79.74	3.56	2,840.107(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02	46.38	4.59	
	고용주, 자영자	76.62	22.18	1.19	
	무급가족종사자	36.91	52.74	10.35	
	실업자	39.88	17.39	42.73	
	비경제활동인구	8.09	23.96	67.95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61	65.82	2.56	15.716(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1.60	55.37	3.03	
	숙련 및 기술직	41.07	54.87	4.06	
	단순노무 종사자	37.76	57.81	4.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48	82.10	3.43	190.433(2)***
	비정규직	44.42	50.30	5.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73	41.84	25.43	10.855(4)*
	중도적	30.79	46.94	22.26	
	진보적	31.25	48.07	20.68	

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이전에 비해 귀하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정도

(단위 : %)

구분		10~30%	40~60%	70~90%	100%	χ^2 (df)
전체		43.01	37.85	11.01	8.13	
성별	남성	43.61	37.33	10.47	8.58	1.061(3)
	여성	42.14	38.60	11.78	7.48	
연령	20대 이하	56.83	23.89	4.69	14.60	54.737(12)***
	30대	49.25	38.23	4.57	7.95	
	40대	44.25	41.34	9.80	4.61	
	50대	43.37	37.55	12.23	6.85	
	60대 이상	32.29	40.36	16.62	10.72	
지역1	수도권	44.75	37.99	9.38	7.87	4.249(3)
	비수도권	41.08	37.70	12.80	8.42	
지역2	대도시	43.97	38.61	9.13	8.29	12.805(6)*
	중소도시	43.51	34.66	13.00	8.82	
	농어촌	36.68	48.34	10.54	4.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19	42.48	16.58	9.75	34.901(9)***
	중하층	43.58	39.95	9.93	6.55	
	중간층	46.25	33.53	10.44	9.78	
	중상층(상층)	63.87	29.76	2.02	4.3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37	38.77	16.81	17.05	174.386(12)***
	200만 원대	53.35	36.85	7.70	2.10	
	300만 원대	53.61	39.66	5.56	1.17	
	400만 원대	54.77	41.68	3.55	0.00	
	500만 원 이상	60.75	28.42	8.85	1.98	
학력	중졸 이하	27.63	42.27	16.67	13.43	42.917(6)***
	고졸	41.26	41.91	11.30	5.53	
	대졸 이상	50.37	30.94	8.77	9.9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75.78	18.49	3.78	1.95	498.954(15)***
	임금근로자	39.89	47.13	8.64	4.3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10	47.19	15.19	1.52	
	고용주, 자영자	50.44	44.30	3.25	2.01	
	무급가족종사자	19.58	16.01	13.20	51.21	
	실업자	31.20	20.57	8.26	39.97	
직업	관리자, 전문가	53.71	35.31	8.61	2.37	17.953(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61	42.03	12.63	2.73	
	숙련 및 기술직	53.18	37.74	8.61	0.47	
	단순노무 종사자	43.31	49.13	5.54	2.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5.87	19.27	2.42	2.44	33.912(3)***
	비정규직	48.96	36.41	10.45	4.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38.34	44.17	12.48	5.02	18.123(6)**
	중도적	42.96	36.46	10.27	10.31	
	진보적	48.75	33.28	10.82	7.14	

주: "(감소하였다면) 대략 몇 % 정도 감소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지속 기간

(단위 : %)

구분		1~2개월	3~6개월	7~12개월	13개월 이상	χ^2 (df)
전체		2.15	19.06	28.26	50.54	
성별	남성	2.21	20.63	27.04	50.13	3.335(3)
	여성	2.06	16.80	30.01	51.13	
연령	20대 이하	6.00	44.04	24.08	25.88	93.919(12)***
	30대	3.53	25.05	29.11	42.31	
	40대	2.21	18.89	29.42	49.48	
	50대	1.19	14.00	27.37	57.44	
	60대 이상	0.96	11.98	29.51	57.54	
지역1	수도권	0.74	20.84	31.67	46.76	24.425(3)***
	비수도권	3.71	17.09	24.49	54.71	
지역2	대도시	1.15	16.76	29.85	52.24	16.557(6)*
	중소도시	2.83	22.36	25.17	49.63	
	농어촌	3.55	14.77	34.63	47.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0	19.25	24.01	55.85	17.319(9)*
	중하층	2.20	17.75	28.65	51.39	
	중간층	2.89	18.91	29.15	49.04	
	중상층(상층)	1.20	33.25	35.85	29.7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2	17.33	26.47	53.98	9.574(12)
	200만 원대	2.86	22.07	27.40	47.67	
	300만 원대	1.16	19.96	31.59	47.29	
	400만 원대	2.39	17.24	32.54	47.84	
	500만 원 이상	0.91	17.61	30.45	51.02	
학력	중졸 이하	1.46	10.97	23.57	64.00	35.711(6)***
	고졸	1.05	16.89	30.80	51.25	
	대졸 이상	3.85	24.61	26.35	45.2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95	37.11	26.56	31.39	149.139(15)***
	임금근로자	2.97	23.67	27.81	45.5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3	8.18	29.02	62.38	
	고용주, 자영자	0.00	15.57	35.86	48.57	
	무급가족종사자	5.54	33.12	23.62	37.71	
	실업자	1.66	20.50	30.88	46.96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82	22.09	22.60	53.49	14.200(9)
	관리자, 전문가	2.01	17.34	26.49	54.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0	19.23	36.27	42.80	
	숙련 및 기술직	1.87	11.51	34.30	52.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5	34.92	28.03	32.80	4.037(3)
	비정규직	3.70	31.16	22.72	42.4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7	18.84	25.83	53.16	10.691(6)
	중도적	1.77	19.18	26.55	52.50	
	진보적	2.95	19.05	34.90	43.10	

주: "(감소하였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 감소 이유

(단위 : %)

구분		폐업 또는 실직	휴업 또는 휴직	사업 매출 감소	임금 삭감	근로시간 감소	기타	χ^2 (df)
전체		9.92	11.09	57.54	5.31	15.99	0.15	
성별	남성	10.43	11.11	57.71	6.58	13.93	0.25	11.967(5)*
	여성	9.19	11.06	57.30	3.49	18.96	0.00	
연령	20대 이하	15.31	30.06	29.85	4.23	20.55	0.00	103.272(20)***
	30대	14.02	5.43	47.32	9.83	23.40	0.00	
	40대	7.21	9.75	60.26	6.56	15.93	0.29	
	50대	7.81	9.16	64.37	3.99	14.67	0.00	
	60대 이상	11.01	9.72	63.03	3.87	12.06	0.32	
지역1	수도권	10.18	13.51	56.01	3.71	16.58	0.00	16.686(5)**
	비수도권	9.63	8.41	59.23	7.08	15.34	0.31	
지역2	대도시	10.88	12.63	54.74	5.13	16.63	0.00	19.274(10)*
	중소도시	10.28	10.62	57.51	6.02	15.40	0.16	
	농어촌	4.23	6.43	69.78	3.04	15.78	0.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69	14.86	48.09	4.45	23.53	0.38	34.491(15)**
	중하층	8.88	9.55	60.15	4.81	16.60	0.00	
	중간층	12.18	10.74	59.02	5.63	12.20	0.23	
	중상층(상층)	8.27	13.38	60.15	11.92	6.28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81	15.88	44.83	3.50	17.80	0.18	139.329(20)***
	200만 원대	4.37	10.24	63.33	5.73	16.34	0.00	
	300만 원대	4.95	6.39	67.36	7.62	13.23	0.44	
	400만 원대	0.00	4.93	62.24	9.77	23.06	0.00	
	500만 원 이상	5.47	2.62	84.21	4.83	2.88	0.00	
학력	중졸 이하	11.47	8.43	61.95	5.03	13.13	0.00	19.679(10)*
	고졸	6.98	10.94	59.58	4.87	17.33	0.29	
	대졸 이상	13.38	12.15	53.35	5.99	15.12	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8.43	10.56	30.07	17.82	33.13	0.00	1,105.258(25)***
	임금근로자	6.93	20.71	21.35	6.85	43.78	0.3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63	2.29	94.55	0.39	2.14	0.00	
	고용주, 자영자	0.00	14.40	82.43	3.17	0.00	0.00	
	무급가족종사자	65.21	23.25	4.87	4.27	2.40	0.00	
	실업자	34.85	34.52	16.48	3.15	9.91	1.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5.12	10.96	62.45	6.47	15.01	0.00	63.779(15)***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13	6.97	70.91	5.12	13.88	0.00	
	숙련 및 기술직	3.92	8.12	56.21	6.67	24.65	0.43	
	단순노무 종사자	5.52	18.76	30.23	5.40	40.09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99	5.95	34.08	19.06	31.92	0.00	47.118(4)***
	비정규직	8.21	24.24	15.57	8.45	43.53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7	9.15	62.84	5.35	12.98	0.00	30.097(10)**
	중도적	10.19	9.31	57.97	3.90	18.48	0.15	
	진보적	9.63	17.29	50.22	8.35	14.21	0.31	

주: “코로나19로 인해 귀하의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1)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4.78	95.22	
성별	남성	4.34	95.66	1.664(1)
	여성	5.22	94.78	
연령	20대 이하	2.46	97.54	28.849(4)***
	30대	4.20	95.80	
	40대	5.42	94.58	
	50대	7.87	92.13	
	60대 이상	3.65	96.35	
지역1	수도권	4.99	95.01	0.464(1)
	비수도권	4.55	95.45	
지역2	대도시	4.98	95.02	10.294(2)**
	중소도시	4.04	95.96	
	농어촌	7.94	92.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33	87.67	95.112(3)***
	중하층	5.42	94.58	
	중간층	2.09	97.91	
	중상층(상층)	2.99	97.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39	94.61	8.612(4)
	200만 원대	5.31	94.69	
	300만 원대	4.03	95.97	
	400만 원대	3.09	96.91	
	500만 원 이상	1.89	98.11	
학력	중졸 이하	3.92	96.08	31.312(2)***
	고졸	6.94	93.06	
	대졸 이상	2.93	97.0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0	98.50	154.225(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22	87.78	
	고용주, 자영자	10.25	89.75	
	무급가족종사자	2.63	97.37	
	실업자	4.25	95.75	
	비경제활동인구	2.08	97.9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67	96.33	5.864(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54	93.46	
	숙련 및 기술직	4.93	95.07	
	단순노무 종사자	6.69	93.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	98.81	73.401(1)***
	비정규직	9.58	90.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6	95.74	2.355(2)
	중도적	5.27	94.73	
	진보적	4.28	95.72	

주: “귀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3.81	96.19	
성별	남성	3.31	96.69	2.942(1)
	여성	4.33	95.67	
연령	20대 이하	1.42	98.58	23.402(4)***
	30대	4.25	95.75	
	40대	4.66	95.34	
	50대	5.70	94.30	
	60대 이상	2.90	97.10	
지역1	수도권	3.00	97.00	7.596(1)**
	비수도권	4.66	95.34	
지역2	대도시	3.63	96.37	0.940(2)
	중소도시	3.78	96.22	
	농어촌	4.88	95.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64	89.36	89.159(3)***
	중하층	3.95	96.05	
	중간층	1.95	98.05	
	중상층(상층)	0.68	99.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70	95.30	15.787(4)**
	200만 원대	4.11	95.89	
	300만 원대	2.45	97.55	
	400만 원대	1.52	98.48	
	500만 원 이상	1.73	98.27	
학력	중졸 이하	3.13	96.87	18.541(2)***
	고졸	5.31	94.69	
	대졸 이상	2.56	97.4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22	98.78	91.592(5)***
	임금근로자	9.76	90.2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47	93.53	
	고용주, 자영자	3.07	96.93	
	무급가족종사자	5.47	94.53	
	실업자	2.39	97.6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2.41	97.59	11.482(3)**
	관리자, 전문가	4.90	95.1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1	97.49	
	숙련 및 기술직 단순노무 종사자	6.69	93.3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0	98.90	66.253(1)***
	비정규직	8.73	91.27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4	96.36	2.843(2)
	중도적	4.29	95.71	
	진보적	2.95	97.05	

주: “귀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3) 집세(월세·일세)가 밀린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χ^2 (df)
전체		2.10	13.80	84.11	
성별	남성	2.38	15.72	81.90	14.746(2)**
	여성	1.81	11.81	86.39	
연령	20대 이하	1.02	19.72	79.26	56.942(8)***
	30대	3.01	15.89	81.10	
	40대	1.42	13.90	84.68	
	50대	3.42	11.12	85.46	
	60대 이상	1.64	9.86	88.49	
지역1	수도권	1.85	15.18	82.97	7.527(2)*
	비수도권	2.36	12.35	85.29	
지역2	대도시	2.60	15.54	81.86	17.325(4)**
	중소도시	1.81	13.18	85.01	
	농어촌	1.26	8.64	90.1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0	28.65	62.45	299.823(6)***
	중하층	1.80	14.81	83.40	
	중간층	0.46	8.78	90.76	
	중상층(상층)	0.37	9.85	89.7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8	13.58	83.64	34.835(8)***
	200만 원대	1.95	17.45	80.61	
	300만 원대	1.90	13.20	84.90	
	400만 원대	0.22	9.11	90.66	
	500만 원 이상	0.00	9.36	90.64	
학력	중졸 이하	1.81	13.26	84.93	26.793(4)***
	고졸	3.38	14.23	82.39	
	대졸 이상	0.94	13.53	85.5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7	16.14	83.00	135.552(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24	18.66	76.10	
	고용주, 자영자	4.03	9.52	86.45	
	무급가족종사자	0.94	5.97	93.09	
	실업자	3.27	26.89	69.84	
	비경제활동인구	0.79	9.69	89.5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36	8.67	90.97	24.486(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87	15.22	81.91	
	숙련 및 기술직	2.06	15.85	82.09	
	단순노무 종사자	5.01	13.58	81.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1	15.22	83.87	39.352(2)***
	비정규직	4.66	21.57	73.7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4	11.40	86.97	24.631(4)***
	중도적	2.97	14.48	82.55	
	진보적	0.71	15.05	84.24	

주: “귀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4)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비해당	χ^2 (df)
전체		8.39	81.05	10.56	
성별	남성	7.97	81.61	10.41	1.105(2)
	여성	8.81	80.47	10.71	
연령	20대 이하	4.63	80.66	14.71	81.549(8)***
	30대	7.77	83.00	9.23	
	40대	10.49	82.56	6.95	
	50대	11.80	81.35	6.85	
	60대 이상	6.84	78.30	14.86	
지역1	수도권	8.89	80.58	10.53	1.339(2)
	비수도권	7.86	81.54	10.59	
지역2	대도시	8.66	82.26	9.08	14.804(4)**
	중소도시	7.90	81.10	11.00	
	농어촌	9.75	74.81	15.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93	67.82	18.24	99.565(6)***
	중하층	10.20	79.94	9.85	
	중간층	5.88	85.18	8.94	
	중상층(상층)	1.80	88.83	9.3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79	77.45	13.76	56.611(8)***
	200만 원대	9.41	82.06	8.53	
	300만 원대	8.12	86.31	5.56	
	400만 원대	7.49	85.00	7.50	
	500만 원 이상	3.28	88.39	8.33	
학력	중졸 이하	7.89	74.29	17.82	51.396(4)***
	고졸	9.94	79.21	10.86	
	대졸 이상	7.03	84.86	8.1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09	86.08	7.83	110.447(1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26	76.16	11.58	
	고용주, 자영자	13.89	76.76	9.35	
	무급가족종사자	10.67	63.37	25.97	
	실업자	11.84	75.28	12.88	
	비경제활동인구	4.86	82.13	13.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9.11	82.22	8.67	15.497(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30	81.40	8.30	
	숙련 및 기술직	7.81	80.48	11.70	
	단순노무 종사자	7.40	77.14	15.4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63	86.76	7.60	24.027(2)***
	비정규직	10.46	77.34	12.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6.66	79.51	13.83	26.162(4)***
	중도적	9.04	80.57	10.38	
	진보적	8.92	83.89	7.20	

주: “귀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		8.50	91.50	
성별	남성	9.32	90.68	3.397(1)
	여성	7.65	92.35	
연령	20대 이하	3.49	96.51	53.765(4)***
	30대	7.69	92.31	
	40대	12.53	87.47	
	50대	11.54	88.46	
	60대 이상	6.77	93.23	
지역1	수도권	7.97	92.03	1.441(1)
	비수도권	9.06	90.94	
지역2	대도시	7.55	92.45	7.934(2)*
	중소도시	8.71	91.29	
	농어촌	12.04	87.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27	84.73	52.394(3)***
	중하층	9.65	90.35	
	중간층	5.75	94.25	
	중상층(상층)	5.67	94.3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20	91.80	3.816(4)
	200만 원대	9.56	90.44	
	300만 원대	9.34	90.66	
	400만 원대	7.00	93.00	
	500만 원 이상	6.86	93.14	
학력	중졸 이하	7.97	92.03	15.412(2)***
	고졸	10.47	89.53	
	대졸 이상	6.76	93.2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9	95.21	160.35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4.48	85.52	
	고용주, 자영자	17.69	82.31	
	무급가족종사자	14.29	85.71	
	실업자	7.64	92.36	
	비경제활동인구	3.85	96.1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39	89.61	1.65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90	89.10	
	숙련 및 기술직	8.85	91.15	
	단순노무 종사자	10.22	89.78	
	정규직 (임금근로자)	4.99	95.01	
비정규직	10.63	89.37		
이념적 성향	보수적	7.00	93.00	3.904(2)
	중도적	9.01	90.99	
	진보적	9.12	90.88	

주: “귀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소득계층 - 1) 상층

(단위 : %)

구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영향을 미침	χ ² (df)
전체		11.25	11.71	12.74	11.84	7.96	17.90	10.07	8.80	4.08	1.39	2.26	
성별	남성	11.57	11.03	13.34	11.60	8.29	17.24	10.33	9.43	4.34	1.05	1.77	15.557 (10)
	여성	10.91	12.41	12.13	12.08	7.62	18.59	9.79	8.15	3.80	1.74	2.77	
연령	20대 이하	9.73	10.59	9.44	14.36	10.44	20.93	8.74	7.59	5.27	1.64	1.27	94.512 (40)***
	30대	11.47	11.55	12.63	15.79	5.83	15.61	10.49	9.31	3.15	1.48	2.67	
	40대	11.68	14.52	10.76	9.37	9.49	15.70	11.16	9.96	3.54	1.49	2.33	
	50대	11.95	9.81	14.85	11.21	6.96	17.75	11.24	7.73	4.10	1.86	2.54	
지역1	수도권	11.93	10.27	11.06	11.03	8.28	17.55	11.72	10.04	3.45	1.45	3.21	59.881 (10)***
	비수도권	10.53	13.21	14.49	12.67	7.63	18.27	8.34	7.52	4.73	1.33	1.27	
지역2	대도시	10.63	10.25	10.84	11.62	8.67	21.59	13.59	7.69	3.25	0.70	1.16	126.97 (20)***
	중소도시	11.29	12.59	14.03	12.19	7.60	14.79	7.17	10.28	4.78	1.85	3.42	
	농어촌	14.04	13.93	14.85	10.95	6.52	17.25	9.02	5.91	4.19	2.22	1.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18	11.73	18.23	14.19	7.78	15.45	7.47	4.57	4.02	1.92	3.44	256.74 (730)***
	중하층	11.99	10.87	12.49	11.30	8.87	19.14	9.59	10.09	3.50	0.79	1.38	
	중간층	10.85	12.74	11.24	11.70	7.62	17.79	11.74	9.21	4.51	1.58	1.03	
	중상층(상층)	9.43	9.27	12.87	10.82	4.73	16.21	6.35	7.03	4.81	2.80	15.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68	11.62	14.07	12.04	6.69	18.71	9.66	7.82	4.19	1.72	2.79	65.377 (40)***
	200만 원대	10.58	11.88	10.14	12.76	9.44	17.81	10.30	10.42	2.94	1.46	2.26	
	300만 원대	11.33	11.06	11.91	11.42	9.52	18.17	9.05	10.51	4.73	0.76	1.54	
	400만 원대	13.39	13.58	14.12	12.49	9.34	13.37	10.00	6.98	5.13	0.44	1.16	
	500만 원 이상	15.32	11.16	12.03	7.26	7.30	16.50	14.88	8.72	4.49	1.18	1.16	
학력	중졸 이하	10.71	13.42	15.89	11.95	7.71	18.42	7.61	6.68	2.25	0.70	4.65	57.807 (20)***
	고졸	10.24	10.66	12.80	10.60	8.61	19.29	11.58	8.37	4.71	1.42	1.72	
	대졸 이상	12.39	12.22	11.75	13.01	7.41	16.40	9.33	9.85	4.01	1.57	2.0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1.85	11.97	11.18	12.60	8.64	16.47	9.49	10.20	4.00	1.42	2.18	102.21 (650)***
	임금근로자	10.25	13.41	14.81	10.04	11.52	13.57	10.30	7.45	3.28	1.75	3.63	
	임시·일용직	11.95	12.86	13.52	10.11	7.43	18.39	12.11	8.78	3.59	0.55	0.71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11.33	7.96	17.49	17.36	6.84	18.76	6.06	2.15	1.85	3.42	6.78	
	무급가족종사자	11.58	7.44	17.21	13.18	4.35	17.25	11.41	9.05	6.28	0.67	1.57	
	실업자	10.33	10.90	12.09	12.23	6.71	21.36	9.25	8.00	4.60	1.81	2.7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7.30	13.21	12.83	8.08	6.81	12.31	11.78	7.01	5.72	1.96	3.01	95.662 (30)***
	관리자, 전문가	10.14	12.26	11.80	12.93	8.60	17.13	10.29	10.81	3.44	0.91	1.6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21	12.26	16.89	10.45	9.74	18.05	9.35	5.28	3.72	1.82	1.24	
	숙련 및 기술직	15.70	11.97	8.13	8.37	11.18	15.38	9.97	7.47	2.07	2.04	7.7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56	12.09	11.08	13.12	8.52	16.77	9.73	9.30	4.09	1.49	2.25	17.829 (10)
	비정규직	11.96	13.75	13.89	8.30	11.19	13.82	8.67	10.42	3.18	1.77	3.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39	11.75	13.93	11.11	7.47	18.30	10.10	10.10	3.87	1.18	1.81	34.844 (20)*
	중도적	12.09	11.87	12.94	11.71	7.44	17.88	10.06	8.40	4.41	1.55	1.65	
	진보적	10.38	11.31	10.95	12.94	9.69	17.49	10.05	8.19	3.58	1.28	4.14	

주: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소득계층 - 2) 중간층

(단위 : %)

구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영향을 미침	χ ² (df)
전체		0.46	0.46	1.21	3.09	4.17	15.69	15.05	21.28	23.45	10.07	5.07	
성별	남성	0.65	0.43	1.26	3.14	4.27	15.74	14.99	21.51	23.31	9.61	5.10	4.504 (10)
	여성	0.26	0.49	1.15	3.04	4.07	15.65	15.12	21.04	23.61	10.54	5.03	
연령	20대 이하	0.54	0.13	1.09	3.52	2.48	18.08	16.02	23.14	20.24	10.16	4.59	53.190 (40)
	30대	0.44	0.45	0.94	3.79	5.26	15.28	14.70	19.55	21.58	12.66	5.35	
	40대	0.44	0.50	1.30	3.31	3.62	15.67	13.69	23.55	23.54	9.34	5.03	
	50대	0.31	0.40	1.34	2.44	4.13	16.82	13.51	19.46	25.70	9.79	6.11	
지역1	수도권	0.59	0.38	1.17	3.58	4.52	16.56	13.78	19.33	27.24	8.33	4.54	59.647 (10)***
	비수도권	0.32	0.54	1.25	2.58	3.81	14.79	16.38	23.31	19.50	11.89	5.62	
지역2	대도시	0.52	0.66	1.30	3.88	3.98	13.24	15.74	21.39	27.27	8.89	3.13	82.016 (20)***
	중소도시	0.45	0.26	1.00	2.53	4.45	18.01	14.98	21.41	19.42	11.17	6.32	
	농어촌	0.22	0.60	1.95	2.39	3.54	14.69	12.05	19.95	27.43	9.66	7.5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6	0.43	1.63	3.70	4.63	18.24	16.35	21.77	20.26	6.65	5.97	148.92 7(30) ***
	중하층	0.55	0.51	1.49	3.19	4.67	13.38	16.55	20.86	22.98	11.17	4.66	
	중간층	0.43	0.46	0.75	2.73	3.58	17.40	14.12	21.93	25.27	9.99	3.34	
	중상층(상층)	0.27	0.15	1.90	3.80	4.36	11.76	8.69	17.64	20.11	11.52	19.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46	0.50	1.36	2.93	3.99	14.77	15.07	21.61	23.62	10.18	5.53	61.200 (40)*
	200만 원대	0.56	0.35	0.74	2.88	4.24	15.68	15.91	21.75	20.87	12.11	4.91	
	300만 원대	0.73	0.43	1.13	3.74	3.23	15.61	13.33	21.52	23.84	11.46	4.98	
	400만 원대	0.00	0.07	1.24	3.87	7.11	20.20	16.99	19.91	22.87	4.71	3.03	
	500만 원 이상	0.00	1.04	1.86	2.62	4.22	17.93	13.76	18.05	31.04	4.88	4.61	
학력	중졸 이하	0.00	0.30	0.62	2.56	4.81	11.46	18.69	23.73	23.48	8.27	6.08	43.815 (20)**
	고졸	0.56	0.45	1.36	2.88	3.81	15.15	14.33	21.95	25.78	9.81	3.93	
	대졸 이상	0.50	0.52	1.24	3.45	4.33	17.48	14.67	19.89	21.19	10.86	5.8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35	0.47	1.28	3.27	4.57	18.49	15.28	22.32	19.67	9.43	4.85	96.478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6	0.41	0.92	2.89	2.66	15.16	16.05	19.92	25.65	8.74	6.63	
	고용주, 자영자	0.37	0.26	1.46	2.83	4.21	11.12	13.72	21.13	28.93	11.60	4.37	
	무급가족종사자	0.00	3.62	0.00	6.19	4.35	18.20	14.51	15.84	17.31	10.27	9.71	
	실업자	0.17	0.00	2.20	1.91	6.06	18.08	18.61	17.23	22.48	9.73	3.52	
	비경제활동인구	0.53	0.48	0.94	3.16	3.91	14.95	14.62	21.79	24.06	10.42	5.15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40	1.08	1.42	3.85	5.12	17.41	10.98	18.82	24.12	8.46	8.34	59.083 (30)**
	숙련 및 기술직	0.38	0.36	1.31	3.04	4.00	16.38	15.79	21.26	23.53	9.66	4.30	
	단순노무 종사자	0.00	0.53	1.00	2.93	4.80	12.21	15.55	23.17	22.50	12.63	4.67	
	단순노무 종사자	2.72	0.40	0.79	3.63	1.28	17.41	12.79	22.71	21.52	8.00	8.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8	0.51	1.19	3.40	4.17	18.80	15.25	22.65	19.44	9.34	4.87	13.276 (10)
	비정규직	0.77	0.13	0.88	2.66	4.36	15.79	17.21	18.40	24.38	9.68	5.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9	0.34	1.02	2.33	4.78	16.43	14.86	20.96	23.70	10.87	4.21	23.289 (20)
	중도적	0.55	0.50	1.55	2.91	3.92	15.84	14.45	21.81	23.01	10.30	5.16	
	진보적	0.21	0.50	0.67	4.38	4.02	14.52	16.61	20.46	24.16	8.63	5.85	

주: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1) 소득계층 - 3) 하층

(단위 : %)

구분		㉞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㉟ 매우 영향을 미침	χ^2 (df)
전체		0.07	0.34	0.37	0.75	1.22	6.12	6.52	12.71	23.53	29.01	19.36	
성별	남성	0.00	0.27	0.39	0.87	1.22	6.17	6.03	14.37	21.02	29.27	20.40	28.354 (10)**
	여성	0.13	0.41	0.36	0.62	1.22	6.06	7.04	11.00	26.13	28.75	18.28	
연령	20대 이하	0.00	0.95	0.17	1.00	0.93	5.84	7.25	16.30	24.56	28.08	14.92	71.487 (40)**
	30대	0.12	0.08	0.29	0.25	1.31	6.04	6.39	9.06	24.24	30.55	21.66	
	40대	0.20	0.31	0.35	0.68	1.59	7.37	6.38	12.05	19.59	30.27	21.21	
	50대	0.02	0.18	0.52	1.11	0.72	7.11	6.78	13.97	24.05	26.67	18.85	
지역1	수도권	0.08	0.34	0.28	0.34	0.33	3.78	4.52	13.20	26.95	31.88	18.30	131.48 9(10) ***
	비수도권	0.05	0.34	0.47	1.17	2.16	8.55	8.61	12.21	19.96	26.02	20.46	
지역2	대도시	0.09	0.25	0.34	0.74	1.09	6.68	8.28	14.29	25.57	27.99	14.68	80.598 (20)***
	중소도시	0.05	0.45	0.30	0.66	1.37	5.97	5.59	12.20	21.79	29.49	22.13	
	농어촌	0.00	0.17	0.92	1.21	1.01	4.18	3.08	7.86	23.30	31.41	26.8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4	0.21	0.12	0.65	0.78	5.20	6.67	10.76	20.88	25.52	29.19	96.474 (30)***
	중하층	0.06	0.18	0.32	0.54	1.42	6.06	7.27	12.79	25.56	29.14	16.68	
	중간층	0.09	0.53	0.37	0.94	1.27	6.59	6.08	13.10	22.43	31.48	17.11	
	중상층(상층)	0.00	0.27	1.41	0.82	0.56	5.02	4.43	14.00	24.81	16.79	31.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01	0.44	0.42	0.84	1.17	5.65	5.84	11.41	24.33	30.43	19.45	68.129 (40)**
	200만 원대	0.10	0.17	0.32	0.58	0.97	5.18	7.39	14.64	24.55	27.63	18.46	
	300만 원대	0.26	0.22	0.23	0.72	1.83	5.15	8.45	10.95	23.68	28.96	19.55	
	400만 원대	0.00	0.20	0.29	0.18	1.32	10.41	4.06	17.38	17.34	28.05	20.78	
	500만 원 이상	0.00	0.61	0.60	1.32	1.02	10.36	6.96	14.79	20.47	24.15	19.72	
학력	중졸 이하	0.00	0.11	0.00	1.00	1.28	3.57	5.75	10.78	26.93	27.85	22.72	44.773 (20)**
	고졸	0.01	0.53	0.36	0.88	0.95	5.89	7.33	13.83	23.97	29.72	16.53	
	대졸 이상	0.14	0.23	0.50	0.54	1.48	7.09	5.96	12.21	22.09	28.67	21.1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18	0.25	0.40	0.56	1.61	6.04	7.62	13.26	23.11	26.87	20.10	48.070 (50)
	임금근로자	0.00	0.32	0.00	0.28	0.47	5.53	4.91	14.13	23.12	30.03	21.21	
	임시·일용직	0.00	0.15	0.42	1.09	1.05	6.54	5.87	13.44	24.69	27.91	18.84	
	고용주, 자영자	0.00	0.00	0.00	1.25	0.00	2.25	3.93	14.89	28.38	30.98	18.32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94	1.68	4.18	6.86	14.00	23.25	30.31	18.80	
직업	실업자	0.00	0.00	0.00	0.94	1.68	4.18	6.86	14.00	23.25	30.31	18.80	64.288 (30)***
	비경제활동인구	0.02	0.70	0.56	0.86	1.17	6.81	6.37	10.47	23.13	31.76	18.15	
	관리자, 전문가	0.00	0.42	1.73	1.16	1.94	6.72	6.66	13.70	17.47	25.35	24.86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4	0.09	0.14	0.52	1.40	5.98	6.84	13.64	24.15	27.99	19.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숙련 및 기술직	0.00	0.51	0.10	0.68	0.31	4.31	6.69	13.93	26.17	29.11	18.19	64.288 (30)***
	단순노무 종사자	0.00	0.35	0.00	1.45	0.52	9.73	2.94	10.37	24.73	27.40	22.53	
	정규직	0.19	0.27	0.39	0.55	1.55	6.23	7.66	13.11	23.06	27.20	19.79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0.00	0.11	0.11	0.41	0.94	5.25	5.52	14.99	23.75	27.49	21.43	21.175 (20)
	보수적	0.00	0.14	0.43	0.67	1.44	5.03	6.52	13.27	24.11	28.39	19.98	
	중도적	0.12	0.25	0.35	0.73	0.94	7.13	6.46	12.23	23.64	29.02	19.14	
진보적	0.02	0.76	0.36	0.87	1.61	5.13	6.66	13.14	22.62	29.71	19.12		

주: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성별 - 1) 남성

(단위 : %)

구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영향을 미침	χ ² (df)
전체		0.37	0.43	0.89	1.30	2.44	12.61	10.46	20.98	26.64	16.30	7.57	
성별	남성	0.38	0.60	0.68	1.27	2.66	12.85	9.71	20.96	25.65	17.83	7.42	15.466
	여성	0.35	0.26	1.11	1.34	2.22	12.35	11.25	21.01	27.67	14.72	7.72	(10)
연령	20대 이하	0.69	0.68	1.60	1.03	1.84	15.56	12.59	21.96	28.55	8.73	6.76	104.38 3(40) ***
	30대	0.22	0.59	0.79	1.70	3.01	12.65	10.71	22.54	24.99	16.30	6.50	
	40대	0.71	0.54	0.62	1.55	2.58	13.82	10.72	19.11	25.72	14.56	10.06	
	50대	0.20	0.13	0.64	1.89	2.44	11.00	10.08	19.70	26.24	19.84	7.86	
지역1	수도권	0.29	0.26	0.87	1.53	2.34	13.07	10.48	20.90	28.27	15.01	6.98	16.835 (10)
	비수도권	0.45	0.61	0.91	1.06	2.55	12.12	10.45	21.07	24.94	17.65	8.18	
지역2	대도시	0.52	0.18	0.39	1.50	1.66	12.19	12.48	23.45	28.13	13.45	6.04	83.630 (20) ***
	중소도시	0.24	0.68	1.29	1.15	3.27	13.07	9.37	18.94	24.68	18.99	8.32	
	농어촌	0.35	0.32	1.08	1.15	1.65	12.03	6.65	20.36	30.35	15.15	10.9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30	0.08	1.26	0.91	1.23	7.08	13.34	18.76	28.34	19.73	8.97	205.15 3(30) ***
	중하층	0.39	0.34	0.57	1.77	1.41	10.15	8.99	21.02	27.74	20.92	6.70	
	중간층	0.42	0.51	1.07	1.12	3.77	16.24	11.02	22.46	25.56	11.66	6.19	
	중상층(상층)	0.00	1.43	0.74	0.45	2.06	14.50	9.16	14.32	23.31	12.56	21.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28	0.21	0.62	0.68	2.59	11.96	9.26	20.75	28.12	17.39	8.15	118.59 8(40) ***
	200만 원대	0.77	0.20	0.84	1.97	1.39	12.17	11.93	22.32	25.06	16.03	7.33	
	300만 원대	0.34	0.87	1.48	1.24	1.62	14.02	12.17	17.37	26.03	17.16	7.70	
	400만 원대	0.00	1.47	0.35	2.43	3.13	14.05	16.13	20.00	23.46	13.67	5.31	
	500만 원 이상	0.15	0.74	2.36	2.58	6.18	14.16	4.10	27.73	25.90	9.91	6.19	
학력	중졸 이하	0.15	0.11	0.87	0.32	1.94	9.74	9.29	22.17	26.89	20.33	8.17	49.822 (20) ***
	고졸	0.30	0.33	1.04	1.35	2.18	11.10	10.65	20.42	29.68	16.50	6.45	
	대졸 이상	0.50	0.62	0.75	1.55	2.85	14.92	10.64	21.18	23.62	14.91	8.4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46	0.69	0.89	2.33	3.30	13.51	12.50	21.77	22.75	14.32	7.49	114.38 6(50) ***
	임금근로자	0.37	0.59	1.04	1.11	1.42	8.75	11.00	22.09	26.70	19.65	7.29	
	임시·일용직	0.00	0.26	0.73	1.12	1.28	10.52	9.68	20.39	29.80	18.78	7.43	
	고용주, 자영자	0.00	0.44	0.87	0.00	1.59	10.29	10.00	20.80	22.45	22.91	10.64	
	무급가족종사자	0.66	0.82	0.00	0.11	4.37	15.84	12.93	14.57	23.51	18.33	8.86	
	실업자	0.49	0.08	1.11	0.51	2.30	14.15	7.71	21.18	30.28	14.77	7.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0.66	0.83	1.76	1.26	5.38	14.14	8.73	19.99	23.26	14.98	8.99	57.034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4	0.45	0.81	1.91	1.91	11.87	12.57	22.41	24.74	15.98	6.99	
	숙련 및 기술직	0.00	0.83	0.62	1.77	1.82	10.01	9.36	20.33	27.75	21.01	6.51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0.33	0.39	2.09	10.63	10.57	17.26	30.23	15.47	13.0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0.50	0.75	0.86	2.44	3.21	13.92	12.63	21.91	22.10	14.34	7.35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0.26	0.18	1.01	1.16	2.22	8.47	11.40	22.37	27.45	18.81	6.67	35.386 (20)*
	보수적	0.17	0.17	1.06	1.51	2.99	13.62	10.64	20.01	24.33	18.48	7.02	
	중도적	0.48	0.49	0.79	1.01	2.25	12.34	9.23	21.61	28.18	16.51	7.12	
	진보적	0.36	0.60	0.91	1.71	2.23	12.03	12.99	20.73	25.91	13.33	9.19	

주: “귀하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인.

〈부표 3-1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2) 성별 - 2) 여성

(단위 : %)

구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영향을 미침	χ^2 (df)
전체		0.28	0.30	0.32	0.92	2.98	15.24	16.16	23.94	23.12	10.88	5.86	
성별	남성	0.38	0.37	0.28	0.89	3.57	17.28	17.76	24.14	20.29	10.07	4.98	46.366 (10)***
	여성	0.19	0.22	0.35	0.96	2.38	13.12	14.50	23.73	26.06	11.71	6.78	
연령	20대 이하	0.43	0.36	0.39	0.22	2.63	17.90	19.38	19.61	24.05	10.01	5.02	65.104 (40)**
	30대	0.34	0.35	0.59	1.54	2.55	17.13	13.86	24.22	24.51	9.66	5.25	
	40대	0.51	0.27	0.43	1.28	3.34	15.29	16.67	21.42	21.68	11.51	7.60	
	50대	0.20	0.16	0.16	0.58	3.18	11.76	17.01	27.38	21.59	11.78	6.20	
지역1	수도권	0.22	0.00	0.16	0.63	2.16	14.99	14.95	27.01	23.13	10.35	6.40	53.204 (10)***
	비수도권	0.35	0.61	0.48	1.23	3.85	15.49	17.42	20.73	23.11	11.43	5.30	
지역2	대도시	0.41	0.11	0.23	1.17	3.01	13.46	19.35	26.48	22.40	9.17	4.19	73.829 (20)***
	중소도시	0.22	0.46	0.40	0.70	3.08	16.77	14.33	21.49	23.13	12.55	6.87	
	농어촌	0.00	0.32	0.25	0.94	2.29	15.34	10.67	25.19	26.70	9.84	8.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6	0.00	0.18	0.20	3.04	14.49	15.73	21.77	25.97	11.70	6.35	125.63 (8)***
	중하층	0.20	0.28	0.26	1.05	2.32	12.35	16.05	24.65	25.90	11.94	4.99	
	중간층	0.31	0.25	0.42	1.08	3.54	17.90	16.68	24.58	20.94	9.31	4.99	
	중상층(상층)	0.00	1.51	0.28	0.57	3.00	15.94	13.69	19.11	13.87	14.04	17.9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8	0.16	0.17	0.87	3.02	14.75	14.32	24.54	23.92	12.12	5.94	98.496 (40)***
	200만 원대	0.60	0.26	0.46	0.86	2.21	12.87	18.69	21.29	26.46	10.23	6.08	
	300만 원대	0.34	0.66	0.43	0.91	2.34	16.45	18.02	23.31	20.86	10.54	6.13	
	400만 원대	0.00	0.20	0.05	1.21	2.88	20.22	20.24	22.43	19.58	8.97	4.23	
	500만 원 이상	0.15	0.73	1.02	1.27	7.09	18.69	12.33	31.77	14.63	6.58	5.73	
학력	중졸 이하	0.00	0.11	0.11	0.22	3.35	12.78	16.26	26.06	23.49	11.11	6.51	42.241 (20)**
	고졸	0.43	0.26	0.29	1.07	2.49	13.57	15.92	24.94	25.37	11.16	4.50	
	대졸 이상	0.23	0.39	0.41	0.99	3.35	17.59	16.36	22.33	20.83	10.54	6.9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9	0.35	0.44	1.16	3.47	16.72	17.38	22.37	20.55	10.77	6.21	83.102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7	0.59	0.42	0.06	2.37	11.88	16.63	24.88	23.54	12.35	6.91	
	고용주, 자영자	0.00	0.28	0.19	0.76	2.11	11.96	16.23	26.25	26.49	11.25	4.47	
	무급가족종사자	0.00	0.44	0.00	0.00	0.87	14.43	13.46	29.68	21.69	10.11	9.32	
	실업자	0.48	0.82	0.49	0.60	5.86	18.35	14.92	18.51	19.67	13.94	6.36	
비경제활동인구	0.04	0.00	0.20	1.23	2.84	16.58	14.75	24.55	24.62	9.56	5.62		
직업	관리자,전문가	0.95	0.51	1.17	0.59	5.86	18.71	12.35	22.65	19.16	10.40	7.64	52.267 (30)**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0.39	0.29	0.18	0.89	2.48	13.30	17.67	24.48	23.82	10.90	5.61	
	숙련 및 기술직	0.00	0.69	0.48	1.03	2.10	14.95	16.94	23.54	23.24	12.01	5.02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0.00	0.00	2.13	16.03	16.93	25.24	18.53	12.88	8.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4	0.38	0.37	1.17	3.29	17.00	17.76	22.49	20.32	10.48	6.09	16.772 (10)
	비정규직	0.26	0.18	0.66	0.26	2.85	11.94	16.54	24.95	22.75	13.23	6.3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37	0.21	0.20	0.65	3.97	15.55	16.59	24.55	22.03	11.56	4.32	30.721 (20)
	중도적	0.32	0.34	0.26	1.06	2.91	15.56	15.07	23.86	23.45	11.37	5.80	
	진보적	0.11	0.30	0.58	0.93	2.03	14.16	18.06	23.40	23.66	9.00	7.77	

주: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세대 - 1) 청년

(단위 : %)

구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영향을 미침	χ ² (df)
전체		0.24	0.23	0.83	2.61	2.13	8.73	12.90	18.06	23.42	20.49	10.36	
성별	남성	0.23	0.27	1.11	2.93	1.87	9.70	12.97	18.42	21.98	20.26	10.25	15.399 (10)
	여성	0.25	0.19	0.53	2.29	2.41	7.72	12.83	17.68	24.91	20.73	10.47	
연령	20대 이하	0.22	0.12	2.00	2.44	1.63	7.90	10.19	18.91	26.36	19.15	11.08	75.965 (40)**
	30대	0.52	0.35	0.67	4.56	1.99	9.64	12.61	15.97	23.22	21.12	9.35	
	40대	0.20	0.45	0.53	2.99	2.86	10.00	13.58	15.51	23.63	18.79	11.46	
	50대	0.25	0.02	0.52	1.97	1.70	8.31	15.41	20.15	19.93	20.89	10.85	
지역1	수도권	0.21	0.22	1.09	3.57	3.03	9.19	13.01	16.58	24.37	19.69	9.03	48.698 (10)***
	비수도권	0.27	0.23	0.55	1.61	1.20	8.26	12.79	19.60	22.43	21.32	11.74	
지역2	대도시	0.38	0.08	0.43	2.70	1.28	8.97	15.87	18.08	23.71	19.60	8.90	84.118 (20)***
	중소도시	0.16	0.39	1.25	2.72	3.08	9.38	11.07	18.09	22.84	20.10	10.92	
	농어촌	0.00	0.04	0.41	1.54	1.02	3.86	8.57	17.74	25.33	27.08	14.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9	0.30	0.37	1.63	1.86	9.66	13.91	20.64	24.30	15.76	11.36	158.91 2(30) ***
	중하층	0.18	0.20	0.30	1.48	1.24	7.58	12.47	17.79	26.14	23.45	9.17	
	중간층	0.34	0.23	1.45	3.57	3.10	9.66	13.71	17.90	21.72	19.33	8.99	
	중상층(상층)	0.00	0.22	0.63	5.31	1.27	6.96	6.80	14.72	15.69	20.86	27.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11	0.20	0.57	2.36	2.11	7.71	11.53	19.21	24.00	21.34	10.87	93.067 (40)***
	200만 원대	0.41	0.26	0.51	2.30	1.64	9.24	13.41	16.31	27.18	18.94	9.79	
	300만 원대	0.26	0.36	1.87	3.52	1.43	9.73	14.18	15.16	21.04	22.43	10.02	
	400만 원대	0.18	0.00	0.48	2.15	4.90	7.11	18.27	18.85	17.88	19.77	10.41	
	500만 원 이상	0.67	0.30	1.88	4.03	2.58	14.35	12.47	21.26	17.72	15.61	9.14	
학력	중졸 이하	0.00	0.31	0.49	1.48	1.02	8.46	12.36	20.23	26.81	19.21	9.61	55.770 (20)***
	고졸	0.09	0.16	0.59	1.83	2.18	8.42	12.97	19.57	24.29	21.31	8.60	
	대졸 이상	0.46	0.27	1.16	3.71	2.42	9.11	13.00	15.95	21.57	20.08	12.2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9	0.34	1.17	2.71	2.83	10.26	15.06	15.90	21.47	19.26	10.72	88.026 (5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14	0.00	0.64	1.87	1.14	8.69	13.29	16.88	24.25	23.68	9.44	
	고용주, 자영자	0.22	0.06	0.35	2.20	1.96	6.19	13.28	21.48	24.18	20.51	9.57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1.56	0.00	0.39	14.33	7.24	25.40	22.55	14.92	13.62	
	실업자	0.17	0.00	1.11	5.84	1.49	12.95	13.29	15.71	22.34	15.82	11.27	
	비경제활동인구	0.26	0.36	0.71	2.66	2.04	7.39	9.98	18.85	25.31	21.98	10.45	
직업	관리자,전문가	0.80	0.82	1.10	3.21	3.04	13.61	13.39	17.10	18.61	15.25	13.06	69.126 (30)***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0.14	0.03	0.96	2.93	2.14	7.85	14.52	17.32	24.42	20.10	9.57	
	숙련 및 기술직	0.10	0.39	0.28	0.35	1.94	9.26	12.88	20.14	21.38	23.54	9.73	
	단순노무 종사자	0.39	0.00	0.95	0.49	2.15	9.33	13.73	19.11	18.49	22.44	12.9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2	0.37	1.26	2.93	2.68	10.49	15.15	16.30	20.72	19.28	10.49	17.964 (10)
	비정규직	0.00	0.00	0.60	1.07	2.02	8.58	13.65	16.25	25.04	22.98	9.8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22	0.17	1.87	3.55	4.18	7.21	11.38	18.24	23.18	22.52	7.49	80.803 (20)***
	중도적 진보적	0.33 0.06	0.24 0.27	0.55 0.23	2.17 2.51	1.17 1.91	9.11 9.64	14.00 12.22	17.23 19.67	24.11 22.19	20.11 18.98	10.96 12.32	

주: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7〉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세대 - 2) 장년층

(단위 : %)

구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영향을 미침	χ^2 (df)
전체		0.14	0.19	0.42	1.01	2.57	9.05	11.64	20.01	27.87	18.67	8.42	
성별	남성	0.13	0.27	0.56	1.18	2.72	9.01	11.80	20.29	27.30	18.50	8.24	5.465 (10)
	여성	0.15	0.11	0.28	0.84	2.41	9.09	11.47	19.72	28.46	18.85	8.61	
연령	20대 이하	0.00	0.06	0.23	1.29	3.39	10.07	12.61	25.12	25.09	13.23	8.92	80.481 (40)***
	30대	0.16	0.08	0.89	1.17	2.50	10.00	11.64	20.10	29.21	15.33	8.94	
	40대	0.34	0.48	0.11	0.74	2.48	9.82	11.25	18.98	24.75	21.02	10.01	
	50대	0.20	0.10	0.42	0.99	2.70	8.75	12.19	17.46	29.11	20.11	7.97	
지역1	수도권	0.13	0.11	0.48	1.17	2.67	9.73	12.02	20.12	29.23	16.16	8.17	22.374 (10)*
	비수도권	0.15	0.27	0.36	0.84	2.46	8.34	11.24	19.90	26.45	21.29	8.69	
지역2	대도시	0.18	0.18	0.17	0.47	2.14	8.66	12.73	22.53	30.16	16.18	6.60	71.586 (20)***
	중소도시	0.07	0.18	0.61	1.39	3.24	9.98	10.97	18.02	25.66	20.40	9.49	
	농어촌	0.35	0.32	0.61	1.53	0.89	5.72	10.02	18.85	29.06	21.24	11.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8	0.00	0.00	0.30	1.41	8.80	13.54	20.67	22.88	21.12	11.21	172.47 0(30) ***
	중하층	0.15	0.31	0.21	0.38	1.96	6.44	10.61	20.89	30.82	21.23	7.01	
	중간층	0.17	0.11	0.69	1.80	3.53	11.70	12.35	19.44	27.56	15.74	6.92	
	중상층(상층)	0.00	0.45	0.80	0.90	1.95	6.67	8.36	16.81	22.04	18.21	23.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02	0.07	0.32	0.67	2.21	7.38	11.25	20.55	29.43	19.70	8.40	100.43 1(40) ***
	200만 원대	0.40	0.22	0.31	0.50	2.29	10.90	12.93	19.35	27.98	17.19	7.94	
	300만 원대	0.26	0.32	0.59	2.09	2.47	8.23	10.61	19.95	25.28	20.18	10.01	
	400만 원대	0.00	0.00	1.06	1.43	6.09	10.88	13.62	22.81	22.41	16.43	5.25	
	500만 원 이상	0.00	0.94	0.50	2.38	2.45	15.29	10.28	15.11	27.80	14.99	10.25	
학력	중졸 이하	0.00	0.00	0.18	0.55	2.06	5.86	9.55	19.50	30.33	23.61	8.37	55.105 (20)***
	고졸	0.09	0.10	0.50	0.68	2.34	7.56	12.59	21.01	29.22	18.13	7.79	
	대졸 이상	0.23	0.34	0.42	1.47	2.94	11.44	11.33	19.20	25.83	17.74	9.0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8	0.38	0.58	1.56	3.21	12.45	12.71	19.13	24.41	16.78	8.51	110.53 8(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27	0.20	0.21	0.58	1.72	5.42	9.60	22.91	29.59	19.05	10.44	
	고용주, 자영자	0.00	0.00	0.40	0.73	2.05	6.15	9.81	19.00	29.90	22.84	9.1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1.39	8.80	21.21	16.90	18.29	25.15	8.26	
	실업자	0.00	0.00	0.17	0.58	2.98	10.14	14.37	22.80	32.26	13.72	2.98	
비경제활동인구	0.04	0.13	0.41	0.85	2.48	8.12	11.26	20.30	29.94	18.48	8.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0.66	0.66	0.80	1.29	1.89	12.29	7.42	18.36	23.68	19.59	13.35	49.852 (3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17	0.12	0.42	1.28	2.96	9.53	12.81	19.87	26.88	17.74	8.21	
	숙련 및 기술직	0.00	0.37	0.46	0.64	1.73	7.37	10.96	19.02	29.53	21.67	8.25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0.00	0.39	2.51	7.06	9.42	22.52	22.62	24.94	10.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0	0.41	0.63	1.65	3.25	12.83	12.05	19.58	23.80	17.16	8.34	32.155 (10)***
	비정규직	0.26	0.00	0.19	0.58	2.00	5.61	12.49	20.61	29.78	18.24	10.2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0.10	0.49	1.36	3.80	9.11	13.11	18.73	26.98	19.82	6.50	39.845 (20)**
	중도적	0.27	0.20	0.41	0.88	1.95	8.68	10.20	21.13	29.51	17.85	8.93	
	진보적	0.00	0.28	0.37	0.90	2.51	9.80	13.13	19.02	25.28	19.17	9.54	

주: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8〉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3) 세대 - 3) 노년층

(단위 : %)

구분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영향을 미침	χ ² (df)
전체		0.52	1.63	3.93	6.04	7.34	19.93	15.46	16.07	14.15	9.31	5.63	
성별	남성	0.51	1.63	4.00	5.89	7.20	19.92	15.53	15.82	14.95	8.94	5.61	2.885 (10)
	여성	0.53	1.62	3.85	6.19	7.49	19.95	15.38	16.32	13.32	9.70	5.65	
연령	20대 이하	0.32	1.70	2.80	4.46	7.71	22.82	15.38	18.89	11.95	6.44	7.52	71.036 (40)**
	30대	0.30	1.26	3.68	5.97	6.03	20.77	15.66	14.20	16.46	10.61	5.06	
	40대	0.89	1.54	5.05	5.24	6.66	19.11	14.56	17.09	14.08	9.71	6.07	
	50대	0.78	1.10	3.81	6.61	9.27	20.52	15.55	15.81	12.36	10.02	4.17	
지역1	수도권	0.57	0.77	3.38	5.14	5.10	17.46	15.04	18.71	17.57	10.71	5.55	128.71 1(10) ***
	비수도권	0.46	2.52	4.50	6.98	9.67	22.50	15.90	13.32	10.59	7.85	5.71	
지역2	대도시	0.77	1.48	3.90	6.00	8.92	21.64	18.09	16.10	12.65	6.62	3.82	91.906 (20)***
	중소도시	0.24	1.45	3.82	5.84	6.38	18.89	13.63	16.08	15.15	11.85	6.66	
	농어촌	0.82	3.38	4.63	7.33	4.91	17.38	12.80	15.79	15.90	8.26	8.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43	0.91	4.02	4.65	4.02	17.80	13.08	14.47	17.50	13.55	9.56	72.134 (30)***
	중하층	0.38	1.89	3.80	6.71	8.18	20.83	16.72	16.10	13.42	7.94	4.04	
	중간층	0.58	1.51	3.89	6.05	7.83	19.74	14.75	16.64	13.58	9.69	5.73	
	중상층(상층)	1.20	2.55	4.91	4.73	5.72	20.52	18.25	15.22	15.54	5.14	6.2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62	1.62	4.05	6.62	6.27	21.97	13.83	15.66	14.08	9.83	5.45	63.399 (40)*
	200만 원대	0.43	1.41	3.79	4.81	7.10	17.92	18.22	17.93	13.06	8.76	6.55	
	300만 원대	0.43	1.67	4.26	5.22	10.07	18.38	16.35	15.54	12.82	8.63	6.63	
	400만 원대	0.70	2.28	4.17	4.82	7.26	15.44	15.95	15.72	20.18	10.21	3.28	
	500만 원 이상	0.00	1.64	2.37	9.19	10.08	20.07	15.64	14.29	14.76	7.81	4.15	
학력	중졸 이하	0.31	1.86	5.04	6.90	7.32	14.74	13.51	18.20	16.29	10.31	5.52	41.106 (20)**
	고졸	0.44	1.44	3.43	5.71	6.67	21.06	17.15	16.59	13.67	9.69	4.14	
	대졸 이상	0.65	1.74	4.07	6.10	8.00	20.38	14.39	14.93	13.98	8.65	7.1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60	1.18	3.89	5.76	8.18	18.62	14.55	16.80	12.83	10.14	7.45	102.63 3(50) ***
	임금근로자	0.12	1.31	2.05	5.79	4.48	22.88	14.60	14.73	18.33	9.80	5.91	
	임시·일용직	1.00	2.12	4.80	6.46	9.48	18.24	19.36	16.25	12.09	6.82	3.39	
	고용주, 자영자	1.47	1.66	4.06	5.98	11.41	18.36	26.15	8.34	12.33	7.04	3.19	
	무급가족종사자	0.00	1.71	2.87	8.94	7.78	19.47	11.36	15.92	16.98	9.64	5.33	
	실업자	0.28	1.97	4.36	5.64	5.59	21.76	14.26	16.13	15.11	9.92	5.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76	1.63	5.02	6.58	9.09	14.76	15.38	16.63	11.65	8.21	9.28	45.139 (30)*
	관리자,전문가	0.54	1.19	3.42	5.88	7.95	19.66	15.76	16.92	14.13	8.82	5.74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0.38	2.51	5.06	5.68	8.19	19.31	19.19	13.25	12.75	9.83	3.84	
	숙련 및 기술직	0.34	1.10	1.94	6.54	5.67	24.15	14.25	14.45	14.05	10.72	6.8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5	1.28	4.08	5.79	7.83	18.65	13.87	17.55	13.01	10.07	7.21	17.755 (10)
	비정규직	0.11	0.96	1.93	5.84	6.14	22.48	15.69	13.67	16.39	10.36	6.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41	1.41	5.15	7.09	7.33	18.39	15.25	13.64	13.22	11.10	7.00	42.627 (20)**
	중도적	0.51	1.67	3.42	6.21	7.97	21.18	15.33	16.00	14.56	7.89	5.26	
	진보적	0.65	1.79	3.62	4.44	5.94	18.95	15.99	19.01	14.33	10.39	4.88	

주: “귀하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다음 집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9〉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1)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

(단위 : %)

구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부적절 하다	매우 부적절 하다	χ^2 (df)
전체		13.04	56.22	21.26	7.51	1.97	
성별	남성	12.68	54.36	21.37	8.86	2.74	24.803(4)***
	여성	13.41	58.15	21.14	6.11	1.18	
연령	20대 이하	8.78	54.45	24.65	8.50	3.62	60.282(16)***
	30대	10.58	58.73	22.35	7.18	1.16	
	40대	15.57	59.04	18.71	4.92	1.76	
	50대	16.40	54.76	19.20	8.33	1.31	
	60대 이상	12.97	54.60	21.86	8.49	2.08	
지역1	수도권	10.70	61.14	19.24	6.70	2.23	47.838(4)***
	비수도권	15.48	51.10	23.36	8.36	1.71	
지역2	대도시	9.40	58.12	21.84	8.07	2.58	44.504(8)***
	중소도시	15.38	55.70	20.59	6.75	1.57	
	농어촌	17.76	49.77	22.15	9.06	1.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44	49.68	26.57	6.59	3.73	83.074(12)***
	중하층	11.39	57.97	20.89	9.03	0.72	
	중간층	13.11	58.16	20.32	6.37	2.04	
	중상층(상층)	23.23	44.54	18.01	8.27	5.9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09	55.23	21.87	8.04	1.78	51.884(16)***
	200만 원대	10.10	61.00	20.65	6.44	1.81	
	300만 원대	12.45	54.85	24.31	6.75	1.64	
	400만 원대	18.24	48.35	22.33	8.31	2.77	
	500만 원 이상	18.39	59.34	10.27	8.00	3.98	
학력	중졸 이하	15.95	54.88	20.35	7.92	0.90	24.690(8)**
	고졸	10.82	55.93	22.35	8.79	2.11	
	대졸 이상	14.32	56.91	20.47	6.15	2.1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95	60.40	18.08	5.25	2.32	41.964(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01	53.94	22.12	8.91	2.03	
	고용주, 자영자	11.83	54.86	21.90	9.60	1.80	
	무급가족종사자	11.36	60.09	24.00	4.56	0.00	
	실업자	10.77	54.33	24.93	7.44	2.52	
	비경제활동인구	13.30	52.89	23.62	8.54	1.66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15.13	55.53	19.13	6.97	3.24	17.713(12)
	판매 종사자	12.49	58.63	20.54	6.16	2.18	
	숙련 및 기술직	12.91	57.21	19.13	9.47	1.27	
	단순노무 종사자	15.86	54.04	19.51	9.94	0.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56	60.10	18.04	5.36	1.94	10.615(4)*
	비정규직	11.66	55.97	22.12	6.89	3.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8.79	53.89	25.41	7.88	4.04	94.261(8)***
	중도적	12.87	56.19	21.98	7.80	1.15	
	진보적	18.30	58.98	14.88	6.44	1.41	

주: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0>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2)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제공

(단위 : %)

구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부적절 하다	매우 부적절 하다	χ^2 (df)
전체		16.77	55.55	20.98	5.44	1.26	
성별	남성	16.01	55.78	21.08	5.03	2.10	24.733(4)***
	여성	17.55	55.30	20.89	5.86	0.39	
연령	20대 이하	14.86	55.63	23.33	5.51	0.67	30.053(16)*
	30대	14.35	55.11	23.93	5.94	0.67	
	40대	18.51	57.76	17.73	4.34	1.66	
	50대	20.00	53.62	19.67	5.33	1.39	
	60대 이상	15.60	55.65	20.97	6.08	1.71	
지역1	수도권	13.62	59.20	21.01	4.98	1.18	35.542(4)***
	비수도권	20.04	51.74	20.95	5.92	1.34	
지역2	대도시	14.20	58.06	20.77	5.47	1.50	19.940(8)*
	중소도시	18.75	54.22	20.53	5.49	1.01	
	농어촌	18.20	50.62	24.57	5.07	1.54	
주관직 소득계층	하층	16.74	50.79	24.39	5.35	2.74	58.435(12)***
	중하층	15.16	56.99	22.10	5.01	0.75	
	중간층	16.87	57.62	18.94	5.59	0.98	
	중상층(상층)	27.41	40.45	21.11	7.57	3.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95	55.32	21.42	6.12	1.20	45.051(16)***
	200만 원대	15.47	57.75	21.97	3.94	0.87	
	300만 원대	17.78	53.96	22.48	4.85	0.93	
	400만 원대	23.32	48.59	20.09	6.33	1.67	
	500만 원 이상	17.70	61.34	11.67	5.85	3.44	
학력	중졸 이하	17.71	56.61	18.09	6.68	0.92	21.065(8)**
	고졸	14.43	55.61	22.55	6.17	1.25	
	대졸 이상	18.75	55.18	20.32	4.37	1.3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57	56.88	19.02	4.54	0.99	35.68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14	53.99	24.39	4.48	2.00	
	고용주, 자영자	15.74	54.66	21.93	5.70	1.96	
	무급가족종사자	16.17	56.95	26.01	0.86	0.00	
	실업자	16.61	55.85	20.60	4.38	2.56	
	비경제활동인구	15.94	54.99	21.09	7.36	0.62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71	54.63	17.42	4.26	2.99	16.03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37	55.28	22.32	4.86	1.17	
	숙련 및 기술직	18.03	56.20	19.72	4.77	1.27	
	단순노무 종사자	14.25	61.56	18.36	4.82	1.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96	57.05	18.25	4.67	1.07	11.580(4)*
	비정규직	14.74	54.95	24.21	4.31	1.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74	52.02	24.91	7.35	1.98	63.672(8)***
	중도적	15.63	58.41	19.69	4.97	1.30	
	진보적	22.76	53.28	19.32	4.29	0.35	

주: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1〉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 (3)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단위 : %)

구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χ^2 (df)
전체		9.01	45.16	32.04	10.97	2.81	
성별	남성	8.24	44.46	30.91	12.54	3.85	29.809(4)***
	여성	9.81	45.89	33.22	9.35	1.73	
연령	20대 이하	8.51	47.85	32.06	9.16	2.42	20.943(16)
	30대	6.92	42.73	36.25	11.59	2.51	
	40대	8.96	46.96	30.79	10.57	2.71	
	50대	10.45	44.72	29.69	11.50	3.63	
	60대 이상	9.72	43.67	32.12	11.82	2.67	
지역1	수도권	7.02	48.25	31.46	10.48	2.80	27.861(4)***
	비수도권	11.09	41.94	32.65	11.49	2.82	
지역2	대도시	6.59	42.63	34.07	13.18	3.52	54.151(8)***
	중소도시	10.83	48.28	29.59	9.16	2.13	
	농어촌	10.69	39.98	35.94	10.31	3.0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44	39.21	37.34	9.81	3.20	94.206(12)***
	중하층	7.88	43.72	34.63	12.12	1.65	
	중간층	8.53	48.98	28.82	10.82	2.86	
	중상층(상층)	17.45	39.31	26.52	7.07	9.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36	44.83	33.05	10.60	2.16	44.012(16)***
	200만 원대	8.68	47.30	31.49	9.85	2.69	
	300만 원대	7.04	41.03	35.06	13.78	3.10	
	400만 원대	9.80	44.00	31.32	11.24	3.64	
	500만 원 이상	11.31	51.26	19.96	10.88	6.58	
학력	중졸 이하	12.22	48.08	30.90	7.39	1.42	25.123(8)**
	고졸	7.55	44.67	32.49	12.31	2.98	
	대졸 이상	9.48	44.77	31.95	10.75	3.0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86	48.67	31.17	8.86	2.44	65.42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04	40.14	35.59	9.44	3.78	
	고용주, 자영자	7.31	41.06	31.87	15.04	4.71	
	무급가족종사자	8.79	44.16	41.03	6.01	0.00	
	실업자	9.10	38.08	38.20	13.01	1.61	
	비경제활동인구	9.56	47.22	29.92	11.38	1.9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0.65	45.03	28.45	10.87	5.01	21.20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51	44.92	33.55	10.68	3.33	
	숙련 및 기술직	9.80	44.71	31.95	11.12	2.41	
	단순노무 종사자	14.95	44.95	30.31	8.45	1.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11	48.18	31.17	9.30	2.24	10.040(4)*
	비정규직	10.26	44.42	34.01	6.98	4.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23	41.16	35.75	11.53	4.34	48.891(8)***
	중도적	8.83	45.35	31.10	12.00	2.72	
	진보적	11.47	49.35	29.86	8.07	1.24	

주: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2〉 국가위기 시 공공부문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χ^2 (df)
전체		12.45	68.04	18.11	1.40	
성별	남성	11.93	67.14	19.01	1.92	11.338(3)*
	여성	12.99	68.97	17.19	0.85	
연령	20대 이하	10.06	71.20	17.28	1.47	21.627(12)*
	30대	13.72	66.67	18.63	0.98	
	40대	14.15	68.90	15.72	1.23	
	50대	12.44	68.95	17.71	0.91	
	60대 이상	11.92	64.96	20.87	2.25	
지역1	수도권	8.78	71.68	18.49	1.04	56.211(3)***
	비수도권	16.28	64.24	17.72	1.77	
지역2	대도시	10.56	67.81	19.97	1.65	48.258(6)***
	중소도시	12.25	69.59	17.09	1.06	
	농어촌	22.95	60.33	14.67	2.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66	68.61	21.87	1.86	50.938(9)***
	중하층	10.36	67.78	20.55	1.31	
	중간층	15.14	68.41	15.24	1.21	
	중상층(상층)	17.60	65.31	14.66	2.4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03	66.53	19.19	1.25	59.182(12)***
	200만 원대	9.82	74.06	15.12	1.00	
	300만 원대	9.99	68.25	20.58	1.18	
	400만 원대	14.33	65.00	19.11	1.56	
	500만 원 이상	20.91	61.49	13.38	4.22	
학력	중졸 이하	13.09	66.19	19.20	1.51	49.471(6)***
	고졸	8.51	70.44	19.84	1.21	
	대졸 이상	16.08	66.26	16.12	1.5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94	71.93	14.28	0.84	55.094(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33	65.62	21.09	0.96	
	고용주, 자영자	11.18	63.06	22.53	3.22	
	무급가족종사자	14.02	65.57	20.42	0.00	
	실업자	12.55	69.13	16.88	1.44	
	비경제활동인구	12.66	67.59	18.68	1.08	
직업	관리자, 전문가	20.98	64.50	12.51	2.01	37.520(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57	69.36	18.58	1.49	
	숙련 및 기술직	13.08	66.98	18.15	1.80	
	단순노무 종사자	10.53	66.58	22.89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13.20	71.90	13.99	0.91	
	비정규직	11.60	68.27	19.36	0.77	7.619(3)
이념적 성향	보수적	8.67	68.03	20.85	2.45	60.860(6)***
	중도적	11.77	69.56	17.36	1.32	
	진보적	18.31	64.69	16.63	0.36	

주: “귀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3〉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1)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60.79	33.82	4.78	0.61	
성별	남성	56.73	36.16	6.27	0.84	40.645(3)***
	여성	64.99	31.40	3.23	0.38	
연령	20대 이하	59.22	33.55	6.34	0.89	15.910(12)
	30대	61.19	35.41	3.25	0.15	
	40대	61.68	33.17	4.31	0.83	
	50대	60.10	35.29	4.18	0.43	
	60대 이상	61.58	32.06	5.65	0.71	
지역1	수도권	56.43	37.87	4.82	0.88	38.229(3)***
	비수도권	65.34	29.60	4.73	0.34	
지역2	대도시	59.11	35.58	4.78	0.54	7.657(6)
	중소도시	61.64	33.09	4.71	0.55	
	농어촌	64.28	29.26	5.13	1.3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4.71	39.10	5.72	0.47	50.756(9)***
	중하층	59.57	34.90	5.13	0.40	
	중간층	62.77	32.59	4.13	0.52	
	중상층(상층)	68.80	22.73	5.19	3.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2.42	32.09	5.08	0.41	31.826(12)**
	200만 원대	55.51	38.22	5.04	1.23	
	300만 원대	59.09	36.17	4.29	0.45	
	400만 원대	61.18	33.60	4.92	0.31	
	500만 원 이상	70.29	26.45	2.51	0.75	
학력	중졸 이하	62.37	32.78	4.73	0.12	31.724(6)***
	고졸	56.31	36.78	5.99	0.92	
	대졸 이상	64.66	31.26	3.62	0.4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1.01	34.31	4.04	0.65	31.424(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6.82	36.14	6.56	0.48	
	고용주, 자영자	57.73	35.72	5.51	1.03	
	무급가족종사자	55.22	38.00	6.59	0.18	
	실업자	54.53	38.13	6.25	1.09	
	비경제활동인구	66.06	29.68	4.02	0.25	
직업	관리자, 전문가	66.73	26.73	6.28	0.26	45.496(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9.35	36.74	3.43	0.49	
	숙련 및 기술직	54.54	35.58	8.46	1.42	
	단순노무 종사자	55.86	34.85	7.30	1.9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2.28	33.26	4.16	0.30	13.889(3)**
	비정규직	54.90	38.86	4.84	1.40	
이념적 성향	보수적	55.86	36.80	5.56	1.78	43.955(6)***
	중도적	62.84	32.42	4.47	0.27	
	진보적	61.93	33.48	4.56	0.03	

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귀하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4〉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2)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27.14	41.13	23.63	7.36	0.74	
성별	남성	26.76	37.73	25.93	8.64	0.95	31.970(4)***
	여성	27.54	44.64	21.25	6.03	0.53	
연령	20대 이하	28.62	33.93	27.57	8.82	1.06	49.899(16)***
	30대	23.61	40.45	25.44	9.51	0.98	
	40대	25.09	45.08	24.22	5.13	0.49	
	50대	30.58	41.93	20.91	5.87	0.70	
	60대 이상	27.29	43.14	21.11	7.88	0.58	
지역1	수도권	27.36	39.30	25.90	6.93	0.50	16.600(4)**
	비수도권	26.91	43.03	21.26	7.80	1.00	
지역2	대도시	29.90	43.26	20.70	5.95	0.20	63.310(8)***
	중소도시	25.53	38.50	26.95	8.10	0.92	
	농어촌	22.64	45.41	19.34	10.14	2.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87	32.30	30.09	12.83	1.92	143.636(12)***
	중하층	21.16	45.56	25.53	7.29	0.47	
	중간층	31.43	40.96	20.76	6.14	0.71	
	중상층(상층)	45.68	33.32	17.12	3.8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59	40.31	25.88	8.26	0.95	61.048(16)***
	200만 원대	24.33	43.52	23.44	8.17	0.55	
	300만 원대	30.72	40.76	21.55	6.12	0.85	
	400만 원대	37.49	42.92	16.13	3.46	0.00	
	500만 원 이상	36.40	37.79	20.43	4.93	0.45	
학력	중졸 이하	22.85	42.00	24.87	9.38	0.90	37.720(8)***
	고졸	24.29	41.59	24.92	8.09	1.12	
	대졸 이상	31.19	40.42	22.02	6.04	0.3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61	41.79	20.04	6.83	0.73	55.92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08	37.64	27.58	10.03	0.67	
	고용주, 자영자	23.45	41.84	25.76	8.05	0.91	
	무급가족종사자	24.60	37.02	25.59	8.80	4.00	
	실업자	20.21	42.81	31.82	4.68	0.48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28.19	41.22	23.29	6.79	0.50	57.529(12)***
	관리자, 전문가	37.75	41.39	17.61	2.91	0.3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7.18	40.36	24.19	7.75	0.52	
	숙련 및 기술직	22.31	41.44	23.33	10.78	2.1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21.20	44.76	23.15	9.33	1.56	34.106(4)***
	정규직	32.14	41.40	19.32	6.35	0.79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22.69	37.87	27.57	11.24	0.63	17.041(8)*
	보수적	26.17	41.37	24.74	7.08	0.64	
	중도적	28.40	39.57	22.76	8.49	0.78	
	진보적	25.50	44.28	24.28	5.16	0.79	

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귀하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5〉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3) 자기개발과 미래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16.54	33.51	34.46	12.83	2.67	
성별	남성	16.78	34.60	34.09	12.17	2.37	4.464(4)
	여성	16.30	32.37	34.85	13.51	2.98	
연령	20대 이하	23.29	35.51	34.26	5.74	1.20	152.472(16)***
	30대	16.45	34.74	36.24	11.19	1.38	
	40대	15.82	35.83	34.55	12.49	1.31	
	50대	15.89	35.73	31.49	13.89	3.00	
	60대 이상	12.48	26.88	35.92	19.03	5.69	
지역1	수도권	16.33	35.99	34.45	11.55	1.68	27.562(4)***
	비수도권	16.76	30.92	34.47	14.15	3.70	
지역2	대도시	17.10	33.61	33.66	13.08	2.54	5.654(8)
	중소도시	15.86	33.40	35.78	12.33	2.62	
	농어촌	17.61	33.55	30.95	14.37	3.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04	22.04	32.83	23.39	8.71	299.005(12)***
	중하층	12.08	31.20	37.49	16.14	3.09	
	중간층	20.32	38.86	32.90	7.37	0.56	
	중상층(상층)	26.42	35.29	29.78	7.00	1.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76	29.61	36.01	15.26	4.36	143.499(16)***
	200만 원대	13.67	36.29	35.06	13.95	1.03	
	300만 원대	19.44	36.58	33.05	9.55	1.38	
	400만 원대	19.59	44.13	30.53	4.76	0.98	
	500만 원 이상	30.06	34.34	28.19	7.11	0.30	
학력	중졸 이하	8.00	24.25	37.87	22.19	7.69	198.187(8)***
	고졸	14.90	32.83	35.20	13.96	3.11	
	대졸 이상	20.68	36.91	32.72	8.94	0.7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61	37.96	32.18	9.88	1.37	57.111(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06	28.49	36.56	13.94	3.95	
	고용주, 자영자	15.22	31.82	35.27	14.67	3.03	
	무급가족종사자	12.46	30.53	35.04	15.98	5.98	
	실업자	10.91	32.52	37.61	16.59	2.38	
비경제활동인구	15.98	31.54	35.25	13.88	3.36		
직업	관리자, 전문가	32.97	33.01	26.98	5.08	1.96	113.61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77	35.77	35.10	11.74	1.62	
	숙련 및 기술직	12.53	32.88	34.61	15.71	4.27	
	단순노무 종사자	13.08	27.25	33.97	19.81	5.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46	38.50	31.47	9.17	1.40	38.676(4)***
	비정규직	15.74	27.94	36.86	16.15	3.3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20	28.67	35.20	17.03	4.90	68.830(8)***
	중도적	17.27	33.73	35.00	11.88	2.12	
	진보적	17.62	38.58	32.42	10.08	1.29	

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귀하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37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부표 3-26〉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식: (4)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비대면 접촉(전화, SNS 등)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한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24.00	44.31	25.02	6.23	0.44	
성별	남성	24.10	42.28	25.90	7.30	0.41	12.517(4)*
	여성	23.90	46.40	24.11	5.13	0.46	
연령	20대 이하	32.45	48.06	16.55	2.55	0.38	196.828(16)***
	30대	24.20	51.44	19.83	4.32	0.20	
	40대	23.92	47.87	22.84	5.38	0.00	
	50대	23.00	40.65	29.29	6.77	0.30	
	60대 이상	18.13	36.16	33.67	10.87	1.17	
지역1	수도권	22.34	45.75	23.97	7.53	0.41	19.580(4)**
	비수도권	25.74	42.80	26.12	4.88	0.46	
지역2	대도시	26.69	40.94	25.91	5.94	0.52	23.594(8)**
	중소도시	21.46	47.60	23.99	6.54	0.41	
	농어촌	25.16	42.28	26.46	5.98	0.1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11	32.94	34.18	13.68	1.10	188.761(12)***
	중하층	19.57	44.71	28.33	7.04	0.35	
	중간층	28.23	47.59	19.96	3.86	0.36	
	중상층(상층)	36.10	43.48	19.47	0.9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51	42.78	26.56	7.40	0.75	74.903(16)***
	200만 원대	20.03	47.98	25.43	6.26	0.31	
	300만 원대	28.00	44.39	23.37	4.24	0.00	
	400만 원대	24.35	48.19	24.40	3.07	0.00	
	500만 원 이상	39.69	38.51	16.33	5.47	0.00	
학력	중졸 이하	14.86	33.95	35.97	14.06	1.16	173.374(8)***
	고졸	22.53	43.87	26.24	6.84	0.53	
	대졸 이상	28.16	47.82	20.57	3.32	0.1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96	46.70	21.21	4.91	0.20	72.880(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32	37.38	34.88	6.48	0.94	
	고용주, 자영자	21.86	42.68	27.62	7.52	0.31	
	무급가족종사자	28.67	40.34	26.79	4.20	0.00	
	실업자	16.91	43.23	30.06	9.80	0.00	
	비경제활동인구	24.39	45.87	22.67	6.34	0.72	
직업	관리자, 전문가	39.86	37.20	19.43	3.52	0.00	72.25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2.84	45.90	25.51	5.48	0.27	
	숙련 및 기술직	21.42	42.58	27.90	7.29	0.82	
	단순노무 종사자	17.10	39.28	31.80	11.25	0.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65	46.96	20.58	4.60	0.22	53.832(4)***
	비정규직	20.62	36.09	34.86	7.55	0.8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49	41.59	30.30	8.06	0.56	52.021(8)***
	중도적	26.26	45.18	23.58	4.53	0.45	
	진보적	24.22	45.50	22.11	7.90	0.27	

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귀하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7〉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1) 가구 경제 상황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6.51	36.64	50.52	5.80	0.52	
성별	남성	6.52	36.70	50.38	5.63	0.77	4.894(4)
	여성	6.51	36.58	50.66	5.98	0.27	
연령	20대 이하	3.45	27.34	59.89	8.60	0.73	92.123(16)***
	30대	3.97	36.89	53.10	5.64	0.40	
	40대	8.32	36.73	48.20	5.84	0.91	
	50대	7.51	40.32	45.85	5.89	0.42	
	60대 이상	8.37	40.39	47.45	3.59	0.21	
지역1	수도권	5.58	36.61	51.81	5.48	0.53	7.527(4)
	비수도권	7.49	36.68	49.17	6.14	0.52	
지역2	대도시	8.56	34.78	50.10	6.00	0.56	28.494(8)***
	중소도시	4.49	37.74	51.49	5.78	0.50	
	농어촌	7.89	39.65	47.06	4.93	0.4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54	45.94	36.44	3.70	0.38	149.218(12)***
	중하층	7.42	39.82	46.36	5.84	0.57	
	중간층	3.79	31.44	58.29	6.02	0.46	
	중상층(상층)	4.47	32.83	52.42	9.20	1.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08	38.46	47.41	5.70	0.34	54.751(16)***
	200만 원대	5.48	39.35	49.38	5.70	0.09	
	300만 원대	4.48	31.60	56.77	5.99	1.17	
	400만 원대	6.19	30.76	56.85	5.04	1.16	
	500만 원 이상	3.25	31.69	56.47	7.38	1.22	
학력	중졸 이하	9.55	40.76	45.29	4.31	0.10	35.424(8)***
	고졸	7.31	37.82	48.60	5.85	0.42	
	대졸 이상	4.84	34.27	53.93	6.21	0.7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4	30.04	61.16	5.47	0.60	256.43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59	39.39	42.82	8.20	0.00	
	고용주, 자영자	12.29	48.53	32.55	5.73	0.90	
	무급가족종사자	4.38	53.80	38.00	3.83	0.00	
	실업자	7.28	42.09	39.68	9.66	1.29	
	비경제활동인구	5.89	33.16	56.05	4.63	0.27	
직업	관리자, 전문가	5.53	30.70	51.86	10.61	1.30	39.93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43	39.25	47.79	4.96	0.57	
	숙련 및 기술직	3.80	36.59	53.08	6.29	0.23	
	단순노무 종사자	10.57	38.10	45.70	5.63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6	28.57	63.23	4.90	0.64	92.275(4)***
	비정규직	9.23	41.47	40.89	8.40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7.13	42.69	46.22	3.07	0.89	47.934(8)***
	중도적	6.84	35.24	50.73	6.70	0.49	
	진보적	5.10	32.76	54.99	6.99	0.17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본인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8〉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2) 가족관계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0.75	12.72	78.65	6.92	0.96	
성별	남성	0.45	13.30	78.76	6.45	1.04	7.154(4)
	여성	1.06	12.12	78.54	7.39	0.88	
연령	20대 이하	0.68	6.41	81.68	9.11	2.13	84.662(16)***
	30대	0.97	14.50	76.28	7.76	0.48	
	40대	0.82	11.23	78.64	7.77	1.53	
	50대	0.28	16.38	75.45	7.10	0.79	
	60대 이상	1.00	14.35	80.98	3.61	0.06	
지역1	수도권	0.96	13.86	76.60	7.56	1.01	11.025(4)*
	비수도권	0.52	11.54	80.79	6.24	0.91	
지역2	대도시	0.65	11.71	79.63	6.74	1.27	16.753(8)*
	중소도시	0.74	14.40	77.30	6.88	0.68	
	농어촌	1.28	8.21	81.50	7.97	1.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1	19.85	75.70	2.77	0.48	63.349(12)***
	중하층	0.77	10.71	80.75	7.18	0.59	
	중간층	0.58	13.16	77.16	7.85	1.26	
	중상층(상층)	0.76	5.36	83.44	7.95	2.4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0	15.02	77.18	6.06	0.94	42.826(16)***
	200만 원대	0.43	10.66	81.76	6.71	0.43	
	300만 원대	0.97	9.41	81.22	7.61	0.79	
	400만 원대	1.32	11.33	76.80	8.04	2.51	
	500만 원 이상	0.25	11.65	75.13	11.33	1.64	
학력	중졸 이하	0.82	12.97	82.99	3.11	0.10	32.641(8)***
	고졸	0.82	14.13	77.90	6.38	0.77	
	대졸 이상	0.66	11.28	78.08	8.57	1.4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4	10.96	79.57	7.83	0.99	22.276(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5	16.42	74.91	7.02	0.60	
	고용주, 자영자	0.70	13.17	78.60	6.67	0.85	
	무급가족종사자	0.00	13.00	83.88	3.12	0.00	
	실업자	0.37	13.03	77.11	7.10	2.39	
	비경제활동인구	0.91	12.99	79.06	6.08	0.9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56	11.42	76.06	8.01	2.96	48.47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8	13.78	77.75	7.43	0.65	
	숙련 및 기술직	0.51	9.43	83.05	6.70	0.31	
	단순노무 종사자	3.00	12.40	79.22	5.14	0.2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69	11.24	79.05	7.94	1.08	9.028(4)
	비정규직	0.99	15.09	77.95	5.41	0.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0	17.67	76.54	4.01	0.98	59.638(8)***
	중도적	0.68	11.86	79.48	6.92	1.06	
	진보적	0.84	8.92	79.26	10.25	0.74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본인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29〉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1.02	23.08	69.76	5.48	0.65	
성별	남성	0.71	22.99	70.37	5.07	0.86	8.503(4)
	여성	1.35	23.17	69.14	5.91	0.44	
연령	20대 이하	1.51	18.61	69.92	8.40	1.55	55.393(16)***
	30대	1.10	23.82	67.31	7.33	0.43	
	40대	0.86	22.20	71.73	4.37	0.83	
	50대	0.56	25.46	68.21	5.24	0.53	
	60대 이상	1.14	24.65	71.18	2.97	0.06	
지역1	수도권	1.26	26.07	66.08	5.86	0.72	27.293(4)***
	비수도권	0.77	19.95	73.61	5.09	0.58	
지역2	대도시	1.01	22.08	70.48	5.49	0.93	19.480(8)*
	중소도시	1.17	24.93	67.76	5.73	0.40	
	농어촌	0.27	17.46	77.54	4.03	0.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9	25.50	67.95	4.08	0.38	19.637(12)
	중하층	1.05	22.14	71.49	4.84	0.48	
	중간층	0.70	23.33	68.83	6.37	0.77	
	중상층(상층)	0.80	21.50	69.65	6.38	1.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88	25.18	68.54	4.89	0.51	26.139(16)
	200만 원대	1.29	19.56	73.47	5.13	0.55	
	300만 원대	1.18	21.35	70.74	6.35	0.38	
	400만 원대	1.08	23.22	66.37	7.50	1.83	
	500만 원 이상	0.76	23.10	67.78	6.97	1.39	
학력	중졸 이하	1.27	20.92	73.80	3.91	0.10	8.746(8)
	고졸	1.02	23.90	68.74	5.66	0.67	
	대졸 이상	0.95	22.92	69.55	5.78	0.8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86	22.34	69.84	6.41	0.55	20.11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2	22.61	69.45	5.50	1.12	
	고용주, 자영자	1.18	22.13	71.35	4.60	0.73	
	무급가족종사자	0.00	20.68	77.37	1.95	0.00	
	실업자	0.53	19.68	72.63	5.87	1.29	
	비경제활동인구	1.17	25.75	67.56	5.08	0.4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70	22.02	64.47	10.09	1.73	39.29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77	23.72	69.58	5.41	0.52	
	숙련 및 기술직	0.79	19.11	75.98	3.39	0.73	
	단순노무 종사자	2.65	17.74	74.51	5.10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93	22.60	69.75	6.12	0.59	1.555(4)
	비정규직	1.24	21.93	70.18	5.67	0.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5	28.03	67.75	2.42	0.76	40.508(8)***
	중도적	1.05	21.14	70.66	6.48	0.66	
	진보적	0.93	21.65	70.11	6.81	0.51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본인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0〉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 삶의 변화: (4)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3.91	35.71	53.54	6.29	0.56	
성별	남성	3.86	36.02	53.10	6.24	0.78	2.924(4)
	여성	3.96	35.38	53.99	6.33	0.34	
연령	20대 이하	2.95	32.74	56.40	7.40	0.52	29.036(16)*
	30대	3.63	36.87	52.81	6.14	0.54	
	40대	5.76	34.84	51.94	6.71	0.75	
	50대	3.07	39.83	50.08	6.17	0.85	
	60대 이상	4.03	34.16	56.39	5.25	0.17	
지역1	수도권	4.17	37.86	53.09	4.33	0.55	30.782(4)***
	비수도권	3.64	33.46	54.00	8.33	0.57	
지역2	대도시	5.69	33.60	54.47	5.43	0.81	42.735(8)***
	중소도시	2.50	38.16	51.84	7.19	0.31	
	농어촌	3.08	32.20	58.54	5.42	0.7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04	38.84	50.93	4.18	0.00	69.077(12)***
	중하층	4.42	39.53	48.76	6.80	0.48	
	중간층	2.57	33.29	57.21	6.25	0.68	
	중상층(상층)	5.80	20.24	64.15	8.26	1.5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87	38.46	50.93	6.35	0.40	29.312(16)*
	200만 원대	3.81	31.83	57.78	6.29	0.28	
	300만 원대	3.64	35.62	54.22	5.90	0.62	
	400만 원대	4.39	34.16	54.12	5.68	1.64	
	500만 원 이상	4.69	30.05	56.46	7.41	1.39	
학력	중졸 이하	2.66	30.40	60.77	6.07	0.10	16.129(8)*
	고졸	4.03	36.96	52.67	5.77	0.57	
	대졸 이상	4.16	36.07	52.23	6.85	0.6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3	32.78	56.67	6.87	0.55	36.374(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85	33.29	54.49	6.79	0.60	
	고용주, 자영자	5.56	38.45	50.19	4.98	0.82	
	무급가족종사자	0.96	33.22	61.81	4.01	0.00	
	실업자	2.34	42.18	45.92	8.58	0.99	
	비경제활동인구	3.83	37.46	52.41	5.97	0.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5.33	33.79	50.75	8.58	1.54	30.16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8	36.17	54.00	4.96	0.59	
	숙련 및 기술직	2.54	31.46	57.99	7.71	0.29	
	단순노무 종사자	3.78	28.13	58.18	9.92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0	33.34	56.48	6.88	0.59	11.355(4)*
	비정규직	6.01	30.43	56.58	6.42	0.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4.28	40.18	50.79	3.88	0.86	35.271(8)***
	중도적	4.26	33.81	54.73	6.92	0.28	
	진보적	2.71	34.73	54.07	7.65	0.85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본인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1〉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1) 경제적 수준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12.62	55.03	20.70	10.86	0.79	
성별	남성	12.01	55.37	20.21	11.56	0.85	3.824(4)
	여성	13.25	54.68	21.21	10.13	0.73	
연령	20대 이하	11.10	53.81	25.64	8.50	0.96	33.926(16)**
	30대	12.56	54.50	21.99	10.08	0.86	
	40대	13.71	54.35	16.83	14.13	0.99	
	50대	12.40	54.93	20.27	11.65	0.75	
	60대 이상	13.13	57.10	19.59	9.72	0.47	
지역1	수도권	11.65	54.98	22.60	10.31	0.46	17.684(4)**
	비수도권	13.63	55.09	18.72	11.43	1.14	
지역2	대도시	13.75	56.59	19.44	9.26	0.96	21.597(8)**
	중소도시	11.87	52.90	22.51	12.08	0.64	
	농어촌	11.24	59.39	16.67	11.86	0.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45	51.43	24.32	7.27	0.53	47.465(12)***
	중하층	13.89	54.26	19.71	11.31	0.82	
	중간층	9.42	57.26	20.84	11.57	0.90	
	중상층(상층)	19.94	51.44	17.33	10.91	0.3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84	56.21	20.02	9.24	0.69	41.548(16)***
	200만 원대	10.85	53.99	23.38	11.09	0.68	
	300만 원대	11.69	54.27	21.48	11.64	0.92	
	400만 원대	14.10	55.05	18.37	10.97	1.51	
	500만 원 이상	9.93	51.37	17.35	20.50	0.85	
학력	중졸 이하	13.36	57.40	19.88	9.23	0.12	17.885(8)*
	고졸	11.47	54.51	22.92	10.36	0.73	
	대졸 이상	13.52	54.83	18.79	11.82	1.0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60	52.18	21.77	13.47	0.98	31.56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74	55.72	20.66	10.02	0.86	
	고용주, 자영자	13.33	57.35	18.60	9.93	0.79	
	무급가족종사자	16.89	54.88	12.68	15.54	0.00	
	실업자	12.97	60.29	18.12	7.52	1.10	
	비경제활동인구	13.01	55.73	21.91	8.84	0.5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2.65	46.60	19.82	19.36	1.58	44.33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40	55.87	19.55	10.42	0.77	
	숙련 및 기술직	7.95	54.29	23.19	13.63	0.93	
	단순노무 종사자	15.76	55.13	22.23	6.49	0.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38	52.65	21.89	13.13	0.96	4.568(4)
	비정규직	14.26	52.72	21.71	10.36	0.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72	60.05	16.56	8.72	0.95	42.678(8)***
	중도적	13.23	52.10	22.89	11.39	0.39	
	진보적	10.01	55.73	20.62	12.14	1.50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2〉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2) 불평등, 양극화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20.58	52.45	22.27	4.51	0.19	
성별	남성	20.32	52.20	22.24	5.06	0.17	3.094(4)
	여성	20.84	52.71	22.31	3.93	0.21	
연령	20대 이하	15.07	53.25	27.15	4.31	0.22	37.826(16)**
	30대	23.13	51.24	21.32	4.23	0.07	
	40대	24.48	50.13	20.52	4.58	0.29	
	50대	20.07	53.52	20.38	5.75	0.27	
	60대 이상	20.06	53.78	22.39	3.67	0.10	
지역1	수도권	19.66	53.56	23.13	3.65	0.00	18.986(4)**
	비수도권	21.53	51.30	21.38	5.40	0.40	
지역2	대도시	22.66	48.76	23.73	4.71	0.14	23.358(8)**
	중소도시	18.97	54.67	21.63	4.54	0.18	
	농어촌	19.32	58.15	18.68	3.34	0.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13	53.22	20.42	3.09	0.14	49.624(12)***
	중하층	22.82	53.43	19.55	4.03	0.17	
	중간층	17.16	52.18	25.61	4.79	0.25	
	중상층(상층)	25.94	45.68	19.15	9.23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88	54.11	21.72	4.07	0.21	26.883(16)*
	200만 원대	20.68	53.13	22.40	3.64	0.14	
	300만 원대	20.96	51.41	22.36	5.20	0.07	
	400만 원대	27.05	43.00	23.72	5.85	0.38	
	500만 원 이상	17.23	50.52	24.22	7.71	0.32	
학력	중졸 이하	17.15	53.80	25.67	3.38	0.00	23.032(8)**
	고졸	19.51	51.89	23.82	4.44	0.33	
	대졸 이상	22.63	52.59	19.76	4.91	0.1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89	52.00	23.31	5.70	0.10	39.66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57	51.53	23.91	3.73	0.26	
	고용주, 자영자	25.79	50.64	19.43	3.81	0.34	
	무급가족종사자	21.25	53.59	18.24	5.70	1.22	
	실업자	17.46	50.66	25.81	6.07	0.00	
	비경제활동인구	19.57	55.02	21.85	3.41	0.15	
직업	관리자, 전문가	24.43	39.02	27.72	8.83	0.00	60.441(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2.52	53.58	19.15	4.42	0.32	
	숙련 및 기술직	14.86	53.86	26.58	4.58	0.12	
	단순노무 종사자	20.43	50.25	28.07	1.25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73	51.79	23.74	5.64	0.10	1.960(4)
	비정규직	20.40	52.41	22.27	4.66	0.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2.11	52.91	21.60	3.14	0.24	18.716(8)*
	중도적	21.60	51.88	21.69	4.70	0.13	
	진보적	16.54	53.19	24.34	5.66	0.27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3〉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3) 시민의식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4.76	28.64	43.49	21.74	1.38	
성별	남성	4.25	29.36	43.58	21.49	1.32	3.199(4)
	여성	5.28	27.89	43.39	21.99	1.44	
연령	20대 이하	2.15	28.55	47.16	21.17	0.97	55.652(16)***
	30대	6.83	26.87	40.71	25.35	0.24	
	40대	5.76	27.65	40.94	23.24	2.41	
	50대	4.27	29.35	42.14	22.25	2.00	
	60대 이상	4.83	30.28	46.14	17.67	1.09	
지역1	수도권	5.53	28.78	45.60	19.18	0.91	28.550(4)***
	비수도권	3.96	28.50	41.28	24.40	1.87	
지역2	대도시	4.53	27.86	46.14	19.90	1.56	17.151(8)*
	중소도시	5.18	29.13	40.73	23.75	1.21	
	농어촌	3.47	29.74	45.98	19.36	1.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90	32.71	42.36	17.85	0.19	42.026(12)***
	중하층	4.24	30.97	43.78	19.27	1.73	
	중간층	4.44	25.82	43.81	24.54	1.38	
	중상층(상층)	5.58	24.68	41.59	26.25	1.9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78	29.14	42.57	21.17	1.33	53.973(16)***
	200만 원대	3.10	29.63	48.28	18.33	0.66	
	300만 원대	3.99	28.55	42.88	23.56	1.03	
	400만 원대	5.56	23.02	43.14	25.16	3.12	
	500만 원 이상	3.59	27.98	35.51	29.80	3.11	
학력	중졸 이하	6.43	26.93	48.32	17.79	0.53	25.041(8)**
	고졸	3.94	29.85	44.01	21.09	1.10	
	대졸 이상	5.05	27.97	41.54	23.53	1.9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0	27.56	44.45	23.50	1.50	38.189(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23	27.42	42.14	21.36	1.84	
	고용주, 자영자	5.42	32.00	43.06	18.19	1.33	
	무급가족종사자	0.86	38.79	38.10	21.03	1.22	
	실업자	4.53	23.70	46.19	25.07	0.51	
	비경제활동인구	5.80	28.42	42.98	21.56	1.24	
직업	관리자, 전문가	4.57	22.61	38.61	30.10	4.11	60.65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52	31.34	43.70	19.53	0.90	
	숙련 및 기술직	2.30	28.49	45.98	21.43	1.79	
	단순노무 종사자	8.53	21.70	43.83	24.65	1.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8	27.09	44.74	23.77	1.42	18.417(4)**
	비정규직	7.17	28.10	42.04	20.44	2.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5.97	34.47	39.57	18.55	1.45	47.122(8)***
	중도적	5.27	26.48	43.77	23.20	1.29	
	진보적	2.24	26.72	47.37	22.18	1.50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4〉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4)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단위 : %)

구분		훨씬 더 나빠질 것	약간 더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더 좋아질 것	훨씬 더 좋아질 것	χ^2 (df)
전체		5.74	39.61	41.09	12.76	0.80	
성별	남성	5.66	39.39	40.92	13.10	0.92	1.162(4)
	여성	5.82	39.83	41.27	12.41	0.68	
연령	20대 이하	3.68	39.91	44.92	11.00	0.48	60.602(16)***
	30대	7.94	33.93	44.89	12.62	0.63	
	40대	6.31	39.93	35.80	16.97	1.00	
	50대	4.32	40.11	40.24	14.22	1.11	
	60대 이상	6.51	42.91	40.61	9.23	0.74	
지역1	수도권	6.82	39.42	42.26	10.69	0.81	24.009(4)***
	비수도권	4.60	39.80	39.87	14.92	0.80	
지역2	대도시	6.53	38.75	41.54	12.32	0.87	7.628(8)
	중소도시	5.32	39.73	40.80	13.34	0.81	
	농어촌	4.20	43.15	40.53	11.70	0.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11	39.58	42.87	9.91	0.53	39.636(12)***
	중하층	5.83	43.51	38.54	11.38	0.74	
	중간층	5.31	36.00	43.74	13.99	0.96	
	중상층(상층)	5.08	41.30	33.12	19.85	0.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77	41.28	39.48	11.71	0.77	58.742(16)***
	200만 원대	4.56	39.02	45.55	10.36	0.51	
	300만 원대	4.59	40.60	40.50	13.35	0.96	
	400만 원대	6.90	34.28	38.37	18.52	1.93	
	500만 원 이상	3.26	32.53	42.39	21.35	0.46	
학력	중졸 이하	6.43	38.75	44.10	10.61	0.11	21.668(8)**
	고졸	5.19	40.24	42.62	11.15	0.79	
	대졸 이상	6.06	39.24	38.71	14.97	1.0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89	35.61	44.76	13.84	0.90	43.81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12	39.75	39.43	14.38	1.33	
	고용주, 자영자	5.34	45.07	37.02	11.91	0.66	
	무급가족종사자	4.75	45.68	36.44	13.13	0.00	
	실업자	5.67	34.23	42.51	15.99	1.60	
	비경제활동인구	7.47	41.42	40.04	10.62	0.45	
직업	관리자, 전문가	5.77	28.21	39.53	23.28	3.21	81.84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14	42.98	39.86	11.42	0.60	
	숙련 및 기술직	3.56	35.41	47.08	13.43	0.53	
	단순노무 종사자	7.25	36.59	43.87	12.28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86	35.18	45.31	13.67	0.98	6.991(4)
	비정규직	5.64	40.29	38.72	14.10	1.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6.85	43.92	37.17	11.18	0.88	28.611(8)***
	중도적	6.07	37.78	42.65	12.94	0.56	
	진보적	3.71	38.67	42.16	14.20	1.26	

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5〉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차별대상/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

구분		전혀 없다	한 두 번 생각해 본 적 있다	가끔 생각했다	자주 생각했다	χ^2 (df)
전체		43.93	36.53	14.95	4.59	
성별	남성	45.24	36.41	14.05	4.30	4.505(3)
	여성	42.58	36.65	15.87	4.90	
연령	20대 이하	50.77	31.68	12.71	4.84	53.567(12)***
	30대	42.92	39.98	12.26	4.85	
	40대	38.11	38.01	19.38	4.50	
	50대	39.22	39.72	15.98	5.08	
	60대 이상	48.71	33.55	13.90	3.84	
지역1	수도권	50.05	34.22	11.12	4.61	80.917(3)***
	비수도권	37.55	38.94	18.94	4.57	
지역2	대도시	44.74	38.13	13.81	3.31	20.758(6)**
	중소도시	43.96	34.78	15.45	5.81	
	농어촌	39.72	38.51	17.71	4.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9.69	31.98	16.78	11.55	123.151(9)***
	중하층	39.34	43.39	13.90	3.37	
	중간층	49.05	32.77	14.55	3.64	
	중상층(상층)	45.65	29.84	21.03	3.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31	33.82	16.21	4.66	44.326(12)***
	200만 원대	41.60	42.13	11.97	4.30	
	300만 원대	44.80	37.03	14.67	3.50	
	400만 원대	41.00	38.11	11.82	9.07	
	500만 원 이상	42.80	34.74	19.94	2.53	
학력	중졸 이하	53.44	29.55	12.90	4.11	22.957(6)**
	고졸	42.59	37.77	15.30	4.35	
	대졸 이상	42.40	37.41	15.22	4.9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20	38.14	14.84	4.82	23.928(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67	37.80	14.08	5.45	
	고용주, 자영자	41.33	39.98	14.65	4.04	
	무급가족종사자	44.64	33.38	19.84	2.15	
	실업자	45.73	29.22	18.68	6.38	
	비경제활동인구	48.20	33.05	14.60	4.15	
직업	관리자, 전문가	37.99	38.14	18.09	5.78	15.881(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07	39.07	14.03	4.82	
	숙련 및 기술직	47.03	34.63	14.36	3.99	
	단순노무 종사자	35.89	44.92	17.00	2.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2.00	38.25	14.79	4.96	0.363(3)
	비정규직	42.78	37.22	14.51	5.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21	34.29	14.78	4.72	10.349(6)
	중도적	43.91	36.19	14.85	5.04	
	진보적	41.35	39.85	15.34	3.46	

주: "귀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6〉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_1순위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성소수자	종교인	장애인	질환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특정지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이동	청년	노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기타	χ^2 (df)
성별	전체	1.02	0.31	2.70	40.36	3.49	14.92	11.50	15.31	0.38	2.57	3.29	0.63	1.19	
	남성	0.59	0.36	2.84	41.59	3.42	13.53	11.09	16.25	0.31	2.72	2.75	0.64	1.37	13.365(13)
연령	여성	1.44	0.26	2.56	39.16	3.55	16.28	11.91	14.40	0.45	2.42	3.82	0.62	1.01	
	20대 이하	0.46	0.00	3.53	40.70	4.12	11.65	8.83	16.80	0.29	3.95	4.58	0.69	0.63	
	30대	0.35	0.00	2.43	37.10	3.66	16.46	12.24	19.63	1.01	1.54	3.09	0.67	0.03	
	40대	1.32	0.37	2.04	44.98	2.48	15.79	9.85	14.82	0.63	1.75	0.82	0.72	1.59	114.411(52) ***
	50대	1.51	0.84	4.18	41.65	3.70	16.94	11.42	12.84	0.10	2.04	1.30	0.21	2.00	
지역1	60대 이상	1.26	0.26	1.45	37.35	3.56	13.60	14.58	13.47	0.00	3.53	6.53	0.87	1.42	
	수도권	1.07	0.33	3.67	36.22	5.28	15.57	13.15	15.05	0.70	1.81	4.83	0.55	1.39	97.600(13) ***
지역2	비수도권	0.97	0.30	1.79	44.24	1.81	14.32	9.96	15.56	0.08	3.28	1.85	0.70	1.00	
	대도시	1.15	0.14	2.71	37.01	5.70	15.73	8.55	17.76	0.48	1.97	2.74	0.41	2.01	
	중소도시	0.95	0.41	2.88	43.01	1.98	14.10	14.18	12.72	0.37	2.89	3.78	0.90	0.70	85.956(26) ***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79	0.54	1.70	41.21	1.67	15.70	10.52	18.12	0.00	3.55	3.20	0.19	0.13	
	하층	1.86	0.00	1.95	43.43	1.72	8.51	20.36	12.80	0.00	2.73	4.05	0.99	0.20	
	중하층	0.36	0.62	2.54	41.09	2.07	14.81	11.33	14.96	0.33	3.05	2.98	0.58	1.60	103.086(39) ***
	중간층	1.45	0.18	2.89	39.64	4.96	17.00	9.97	14.96	0.58	1.89	3.34	0.64	1.20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0.00	0.00	4.09	33.31	5.56	13.97	3.49	27.58	0.00	4.61	3.31	0.00	0.52	
	200만 원 미만	1.07	0.35	2.72	39.21	2.97	14.48	13.30	14.49	0.16	2.35	4.29	0.81	1.07	
	200만 원대	1.03	0.00	1.67	44.00	5.92	15.36	8.72	14.47	0.20	2.50	3.39	0.54	0.75	
	300만 원대	1.23	0.98	3.56	42.71	2.28	14.04	9.62	16.99	1.25	1.86	1.44	0.32	0.65	87.146(52) **
	400만 원대	0.86	0.00	4.42	33.75	3.55	15.84	10.12	22.13	1.08	3.42	0.14	0.47	1.97	
500만 원 이상	0.34	0.00	2.14	39.38	2.05	17.54	12.67	13.23	0.00	4.87	2.97	0.46	3.60		

구분	여성	남성	성소수자	종교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특정지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이동	청년	노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기타	χ^2 (df)
학력	중졸 이하	1.50	0.00	1.00	37.01	3.47	13.11	15.47	2.52	13.47	0.00	8.09	0.88	0.81	78.967(26) ***
	고졸	1.11	0.45	2.39	42.71	4.05	15.71	12.48	1.46	12.50	0.00	1.87	0.75	1.43	
	대졸 이상	0.79	0.25	3.49	38.87	2.91	14.62	9.37	3.16	18.75	0.88	3.42	0.44	1.0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3	0.27	3.41	42.35	3.63	14.90	10.08	2.65	15.10	0.65	2.64	0.62	0.66	78.643(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4	0.27	0.91	39.34	3.74	12.97	15.47	3.22	13.55	0.46	3.80	1.53	2.84	
	고용주, 자영업자	1.56	0.33	2.28	39.61	3.04	17.79	11.07	1.74	15.77	0.10	1.44	0.49	2.16	
	무급가족종사자	3.38	0.00	0.00	52.53	0.00	17.61	9.53	1.18	14.97	0.00	0.00	0.00	0.00	
	실업자	0.00	1.20	5.40	39.75	2.11	13.21	14.55	1.09	14.87	0.00	4.32	0.00	0.7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64	0.21	2.40	38.37	3.93	13.94	11.51	2.24	16.08	0.29	5.47	0.52	0.64	60.342(39)*
	관리자, 전문가	0.31	0.27	2.11	44.58	2.15	15.72	8.06	1.00	15.72	0.59	2.99	0.76	2.8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69	0.17	3.01	40.95	4.02	15.87	10.93	3.26	14.93	0.59	2.01	0.70	1.36	
	숙련 및 기술직	2.04	0.78	2.32	39.96	3.48	12.68	11.08	1.28	18.12	0.00	2.92	0.63	0.68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0.48	40.40	0.00	18.72	21.47	0.97	6.11	0.00	4.93	1.10	1.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1	0.29	3.69	42.11	3.47	14.67	10.41	2.77	15.25	0.70	2.43	0.67	0.71	18.897(13)
	비정규직	0.75	0.00	0.85	38.44	4.34	13.70	13.70	3.11	14.11	0.43	4.57	1.42	2.2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2	0.00	1.97	39.53	2.57	13.98	15.48	0.94	15.18	0.00	3.44	0.59	1.83	55.275(26)**
	중도적	1.41	0.63	2.70	40.37	3.38	16.52	9.92	2.93	15.00	0.24	3.44	0.59	0.98	
	진보적	0.54	0.00	3.48	41.24	4.71	12.70	10.40	2.60	16.08	1.09	2.82	0.75	0.91	

주: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인.

〈부표 3-37〉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_2순위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성소수자	종교인	장애인	질환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특정지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이동	청년	노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기타	χ^2 (df)
성별	전체	0.86	0.34	5.04	16.29	4.95	16.25	4.65	26.65	0.32	4.94	4.74	3.32	1.96	
	남성	0.39	0.15	3.87	16.46	4.81	17.06	4.00	26.94	0.24	5.46	4.91	3.67	2.16	17.967(13)
연령	여성	1.32	0.53	6.19	16.12	5.10	15.44	5.29	26.37	0.40	4.43	4.57	2.96	1.77	
	20대 이하	1.04	0.23	5.63	14.92	3.08	18.67	5.19	26.11	0.00	3.16	3.62	5.86	1.43	
	30대	0.19	0.09	5.88	16.39	6.61	13.95	4.01	21.33	0.59	8.25	4.47	2.57	2.44	
	40대	1.45	0.14	7.69	14.10	4.60	14.80	9.26	32.42	0.59	2.91	2.66	1.37	3.45	111.957(52) ***
	50대	0.08	0.48	3.32	16.80	7.11	13.09	7.28	27.94	0.21	6.23	6.08	4.26	1.84	
지역1	60대 이상	1.46	0.67	3.28	18.73	3.45	20.32	4.19	24.99	0.25	4.37	6.35	2.57	0.87	
	수도권	0.75	0.00	5.34	11.65	6.44	18.48	2.97	25.94	0.27	4.98	6.00	4.87	2.04	76.797(13) ***
지역2	비수도권	0.96	0.66	4.76	20.63	3.57	14.16	6.22	27.32	0.37	4.91	3.56	1.86	1.89	
	대도시	1.23	0.16	5.67	16.51	6.36	13.48	11.22	24.36	0.18	6.24	2.50	5.47	2.01	
	중소도시	0.68	0.48	4.65	16.27	3.15	19.65	7.85	27.98	0.51	3.67	6.72	1.91	2.04	87.989(26) ***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0.26	0.37	4.41	15.50	8.20	10.57	5.77	29.45	0.00	5.96	4.07	1.46	1.37	
	하층	3.16	0.62	5.55	14.27	4.08	19.96	11.12	26.72	0.00	3.62	4.66	1.67	2.29	
	중하층	0.88	0.30	4.96	17.74	4.57	16.21	9.24	25.12	0.12	4.93	4.15	3.34	2.36	
	중간층	0.12	0.18	5.32	14.98	5.70	14.76	9.48	29.16	0.47	5.19	5.65	3.62	1.44	67.455(39)**
월평균 소득	중상층(상층)	1.38	1.35	1.82	21.91	3.59	20.24	11.38	15.88	1.49	6.28	1.39	4.70	2.69	
	200만 원 미만	1.18	0.35	5.13	16.16	5.32	19.76	8.63	25.01	0.11	3.91	5.64	2.42	1.76	
	200만 원대	0.82	0.31	4.42	14.99	3.57	13.48	11.02	27.05	0.25	6.72	5.37	5.25	1.48	
	300만 원대	0.18	0.12	5.19	15.95	3.53	14.28	10.83	29.81	0.58	6.07	1.40	2.22	4.20	99.013(52) ***
	400만 원대	0.58	1.09	5.42	21.00	10.35	11.00	10.80	24.10	0.21	4.18	2.68	3.36	1.42	
500만 원 이상	0.36	0.00	5.74	17.14	4.04	9.62	9.50	33.32	1.69	5.11	5.09	5.62	1.02		

구분	여성	남성	성소수자	종교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특정지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이동	청년	노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기타	χ^2 (df)
학력	중졸 이하	1.73	0.70	2.26	18.72	4.40	11.21	5.26	23.59	0.00	3.07	7.77	1.70	1.10	52.921(26)**
	고졸	0.66	0.29	4.09	15.37	5.82	9.42	4.20	27.12	0.26	5.25	4.99	2.48	1.50	
	대졸 이상	0.82	0.29	6.86	16.55	4.20	13.15	9.53	27.05	0.48	5.17	3.58	4.67	2.7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5	0.35	5.60	16.39	5.72	11.23	5.01	27.23	0.50	5.21	4.12	3.39	2.57	75.570(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4	0.97	3.71	14.33	3.98	10.77	4.94	26.03	0.37	3.95	5.75	2.83	0.52	
	고용주, 자영자	0.21	0.21	5.86	16.83	3.68	16.82	8.37	27.08	0.33	7.80	5.32	2.53	1.16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4.47	26.16	6.14	13.86	4.59	22.51	0.00	8.20	9.03	0.00	2.83	
	실업자	1.20	0.00	5.42	14.47	5.07	18.14	7.27	24.63	0.00	4.07	2.67	6.84	6.66	
비경제활동인구	0.78	0.26	4.21	16.52	5.19	19.94	8.88	4.99	26.40	0.14	3.00	4.98	3.39	1.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8	0.77	7.46	12.21	5.66	11.85	4.57	34.83	0.75	2.54	3.08	4.81	4.04	64.416(3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3	0.44	5.51	16.41	4.46	9.97	4.63	24.21	0.46	7.17	5.30	2.74	1.80	
	숙련 및 기술직	0.00	0.13	3.49	18.71	5.83	13.65	10.70	30.79	0.21	4.22	2.80	3.58	0.81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4.90	17.22	4.31	22.46	7.91	27.15	0.00	3.11	9.44	0.00	0.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7	0.25	5.45	16.51	5.45	11.62	10.58	27.65	0.46	5.55	3.92	3.68	2.79	17.343(13)
	비정규직	1.60	0.88	4.63	14.95	5.47	19.85	11.73	24.80	0.59	3.78	4.89	2.56	0.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3	0.14	2.62	19.92	4.18	17.17	8.74	24.53	0.55	6.55	6.05	2.28	0.76	52.363(26)**
	중도적	1.15	0.40	5.55	16.32	5.31	16.18	8.77	27.36	0.16	4.97	4.10	3.50	2.69	
	진보적	0.52	0.43	6.65	12.32	5.09	15.37	12.56	27.51	0.42	3.15	4.59	4.07	1.80	

주: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8〉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혐오 대상 된 사람/집단_1+2순위(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성소수자	종교인	장애인	직장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특정지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아동	청년	노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기타
전체	1.78	0.61	7.18	54.85	7.90	29.38	20.12	6.46	39.02	0.67	6.96	7.51	3.58	2.93
성별	남성	0.93	6.29	56.27	7.71	28.76	19.90	6.11	40.28	0.53	7.60	7.13	3.92	3.30
	여성	2.61	0.73	8.05	53.46	8.08	20.34	6.81	37.79	0.81	6.35	7.88	3.25	2.58
연령	20대 이하	1.42	0.21	8.75	54.52	6.97	19.08	8.58	41.00	0.29	6.88	7.94	6.13	1.95
	30대	0.52	0.08	7.51	51.27	9.38	23.68	5.28	38.08	1.52	8.67	6.96	2.89	2.14
	40대	2.57	0.48	8.64	57.07	6.42	28.49	6.75	42.63	1.13	4.24	3.10	1.90	4.55
	50대	1.59	1.28	7.20	56.91	10.16	28.83	6.07	38.22	0.29	7.70	6.83	4.09	3.67
	60대 이상	2.56	0.85	4.37	54.02	6.63	31.70	22.16	5.86	35.72	0.23	7.42	12.19	3.16
지역1	수도권	1.74	0.33	8.42	46.58	11.00	22.30	3.02	38.11	0.94	6.23	10.17	4.88	3.21
	비수도권	1.82	0.88	6.02	62.60	4.99	18.08	9.69	39.86	0.42	7.65	5.01	2.36	2.68
지역2	대도시	2.23	0.28	7.69	51.50	11.28	18.39	7.71	39.14	0.64	7.45	4.93	5.21	3.77
	중소도시	1.56	0.84	7.04	57.55	4.80	21.19	5.13	37.74	0.82	6.16	9.78	2.60	2.53
주관적 소득계층	농어촌	1.04	0.87	5.74	55.43	9.19	22.09	7.98	45.14	0.00	9.01	6.93	1.53	1.38
	하층	4.63	0.54	6.81	55.94	5.29	26.00	3.41	36.21	0.00	5.90	8.13	2.45	2.20
	중하층	1.16	0.90	7.07	57.30	6.25	29.62	9.23	37.92	0.44	7.56	6.77	3.64	3.76
	중간층	1.55	0.33	7.56	52.77	9.96	29.93	4.77	40.51	0.99	6.43	8.29	3.81	2.46
	중상층(상층)	1.18	1.16	5.65	52.10	8.63	31.33	13.24	8.63	41.20	1.28	10.00	4.50	4.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2	0.66	7.27	53.54	7.69	20.95	6.82	36.67	0.26	5.82	9.29	2.95	2.64
	200만 원대	1.78	0.28	5.73	57.77	9.20	18.84	6.30	39.32	0.43	8.67	8.32	5.36	2.11
	300만 원대	1.39	1.08	8.05	56.47	5.32	18.96	7.96	42.72	1.75	7.10	2.65	2.23	4.27
	400만 원대	1.38	0.97	9.23	52.38	12.73	19.70	5.63	43.52	1.26	7.13	2.52	3.45	3.23
	500만 원 이상	0.65	0.00	7.16	54.37	5.59	25.95	2.28	42.39	1.48	9.34	7.43	5.38	4.49

구분	여성	남성	성소수자	종교인	장애인	질환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특정지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아동	청년	노인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기타
학력	중졸 이하	3.07	0.64	3.06	7.47	29.94	25.67	7.30	34.93	0.00	5.46	15.16	2.43	1.82
	고졸	1.70	0.71	6.06	9.27	32.34	20.92	5.23	36.82	0.23	7.80	6.34	2.98	2.77
	대졸 이상	1.50	0.50	9.51	6.59	26.14	17.73	7.50	42.45	1.31	6.52	6.56	4.53	3.4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7	0.58	8.43	8.76	25.35	20.16	7.14	39.55	1.10	7.20	6.34	3.66	2.9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4	1.08	4.04	7.10	30.10	24.55	7.38	35.51	0.78	4.92	8.65	3.91	3.28
	고용주, 자영자	1.74	0.52	7.48	6.30	32.71	18.50	5.12	39.79	0.39	9.52	6.16	2.74	3.19
	무급가족종사자	3.38	0.00	3.80	5.23	29.41	13.44	3.05	34.13	0.00	7.78	7.68	0.00	2.41
	실업자	1.12	1.20	10.44	6.84	30.11	21.32	4.42	37.82	0.00	8.11	5.29	6.37	6.9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2.34	0.44	6.16	8.56	31.74	19.43	6.69	39.65	0.42	5.42	9.92	3.55	1.83
	관리자·전문가	1.73	0.93	8.43	6.94	20.60	18.10	4.88	45.23	1.23	5.07	5.59	4.83	6.24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2	0.57	7.98	8.04	30.15	19.91	7.43	36.73	1.00	7.95	6.79	3.17	2.98
	숙련 및 기술직	2.04	0.90	5.43	8.66	24.83	20.60	5.81	45.52	0.19	7.77	5.41	3.81	1.40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4.38	3.44	36.63	27.78	3.24	27.77	0.00	7.41	11.69	1.10	2.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6	0.51	8.57	8.35	25.07	19.88	7.28	40.00	1.11	7.39	5.94	3.96	3.21
	비정규직	2.13	0.76	4.85	9.08	30.89	23.86	6.60	35.59	0.94	5.56	8.80	3.63	2.5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8	0.12	4.31	6.30	29.32	23.29	6.21	37.09	0.49	9.62	8.85	2.63	2.51
	중도적	2.43	0.99	7.60	8.07	30.83	17.67	6.07	39.19	0.38	6.27	7.07	3.68	3.36
	진보적	1.01	0.39	9.44	9.27	26.49	21.66	7.54	40.75	1.46	5.50	6.94	4.41	2.52

주: "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39〉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07	26.75	41.77	18.01	11.40	
성별	남성	1.75	24.96	43.10	18.60	11.59	9.404(4)
	여성	2.39	28.61	40.39	17.40	11.21	
연령	20대 이하	1.29	24.85	45.32	20.02	8.52	60.631(16)***
	30대	2.69	27.18	41.55	20.24	8.34	
	40대	1.17	28.26	40.55	19.26	10.76	
	50대	2.01	27.13	42.83	16.75	11.27	
	60대 이상	3.06	26.28	39.20	14.78	16.69	
지역1	수도권	1.76	24.02	40.82	19.09	14.30	46.786(4)***
	비수도권	2.38	29.60	42.76	16.88	8.37	
지역2	대도시	1.91	26.04	46.29	17.77	8.00	50.591(8)***
	중소도시	2.14	26.54	38.52	18.82	13.98	
	농어촌	2.43	31.51	37.78	14.64	13.6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8	27.59	38.03	16.49	13.61	48.308(12)***
	중하층	1.83	28.74	43.59	15.13	10.72	
	중간층	1.37	24.88	41.94	20.63	11.17	
	중상층(상층)	3.83	25.71	36.85	21.03	12.5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4	26.84	40.95	16.26	13.31	42.003(16)***
	200만 원대	1.73	24.83	44.25	18.88	10.31	
	300만 원대	1.29	27.59	41.59	19.25	10.28	
	400만 원대	2.29	25.07	44.23	19.36	9.04	
	500만 원 이상	0.40	32.77	36.98	24.00	5.85	
학력	중졸 이하	2.90	26.87	37.36	17.06	15.81	28.104(8)***
	고졸	2.15	27.70	41.29	16.69	12.18	
	대졸 이상	1.74	25.80	43.55	19.58	9.3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56	25.20	42.57	20.41	10.26	35.20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73	31.62	37.71	15.92	11.03	
	고용주, 자영자	2.04	29.04	42.58	16.22	10.11	
	무급가족종사자	1.20	27.82	41.08	17.77	12.12	
	실업자	1.20	24.33	42.13	16.79	15.55	
	비경제활동인구	2.26	25.39	41.89	17.36	13.10	
직업	관리자, 전문가	2.22	20.98	46.44	18.70	11.65	48.77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8	28.31	42.57	18.91	8.03	
	숙련 및 기술직	0.90	28.06	37.01	17.73	16.28	
	단순노무 종사자	3.98	30.84	36.98	13.93	14.2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68	23.53	43.78	21.01	10.00	27.099(4)***
	비정규직	2.32	34.92	35.57	16.33	10.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8	30.05	40.32	15.85	11.00	27.067(8)**
	중도적	1.66	25.16	42.24	18.05	12.90	
	진보적	2.16	26.48	42.40	20.42	8.54	

주: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완치된 사람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전 국민 대상 제외)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χ^2 (df)
전체		20.52	79.48	
성별	남성	19.07	80.93	5.108(1)*
	여성	22.02	77.98	
연령	20대 이하	10.94	89.06	58.227(4)***
	30대	19.63	80.37	
	40대	25.20	74.80	
	50대	23.88	76.12	
	60대 이상	21.60	78.40	
지역1	수도권	18.69	81.31	8.475(1)**
	비수도권	22.43	77.57	
지역2	대도시	20.18	79.82	19.412(2)***
	중소도시	19.21	80.79	
	농어촌	29.65	70.3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1.53	68.47	63.300(3)***
	중하층	22.08	77.92	
	중간층	16.29	83.71	
	중상층(상층)	15.97	84.0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76	79.24	3.753(4)
	200만 원대	21.65	78.35	
	300만 원대	20.22	79.78	
	400만 원대	16.55	83.45	
	500만 원 이상	19.96	80.04	
학력	중졸 이하	19.99	80.01	23.778(2)***
	고졸	24.00	76.00	
	대졸 이상	17.29	82.7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99	92.01	612.634(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65	77.35	
	고용주, 자영자	50.53	49.47	
	무급가족종사자	41.22	58.78	
	실업자	20.81	79.19	
	비경제활동인구	12.66	87.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19.08	80.92	32.235(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64	73.36	
	숙련 및 기술직	21.15	78.85	
	단순노무 종사자	9.38	90.62	
		7.17	92.8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17	92.83	27.904(1)***
	비정규직	15.31	84.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89	81.11	7.543(2)*
	중도적	22.27	77.73	
	진보적	18.52	81.48	

주: “귀택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중,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특정 대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1〉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1순위

(단위 :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 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돌봄 관련 지원 (긴급돌봄 포함)	농어가 관련 지원	χ^2 (df)
전체		56.81	14.37	4.36	8.35	10.26	5.86	
성별	남성	59.26	15.88	3.45	8.41	6.28	6.73	15.481(5)**
	여성	54.62	13.01	5.18	8.29	13.83	5.08	
연령	20대 이하	34.07	21.78	25.75	10.58	6.31	1.51	289.044(20)***
	30대	35.41	20.44	4.02	5.86	32.67	1.61	
	40대	60.74	9.25	4.77	9.30	13.37	2.56	
	50대	71.55	16.70	0.00	6.48	1.75	3.52	
	60대 이상	61.66	10.09	0.00	10.07	1.89	16.29	
지역1	수도권	53.09	20.56	5.96	10.25	8.63	1.51	50.062(5)***
	비수도권	60.04	8.99	2.98	6.70	11.67	9.63	
지역2	대도시	66.96	14.07	5.04	6.43	7.50	0.00	116.608(10)***
	중소도시	48.03	15.88	4.68	11.46	13.87	6.08	
	농어촌	54.87	9.77	0.92	3.39	6.24	24.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63	23.69	3.02	19.41	1.31	9.92	88.503(15)***
	중하층	61.29	13.70	3.65	5.57	10.65	5.14	
	중간층	59.83	10.93	6.53	4.94	13.47	4.29	
	중상층(상층)	58.56	2.80	0.00	8.68	24.37	5.5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10	15.52	5.07	13.41	12.32	8.57	75.921(20)***
	200만 원대	66.93	14.60	4.68	2.56	7.22	4.01	
	300만 원대	70.04	11.16	5.06	1.48	9.60	2.67	
	400만 원대	54.03	23.35	0.00	8.92	10.63	3.07	
	500만 원 이상	83.28	3.28	0.00	5.63	6.45	1.37	
학력	중졸 이하	48.33	5.40	0.00	16.00	6.06	24.21	134.333(10)***
	고졸	62.44	15.88	3.21	8.40	5.34	4.72	
	대졸 이상	52.15	15.42	7.41	5.64	18.31	1.0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61	32.06	14.45	11.61	26.48	2.80	673.054(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96	56.43	6.82	11.81	6.56	2.41	
	고용주, 자영자	91.03	1.17	0.10	0.18	1.17	6.35	
	무급가족종사자	68.74	0.00	0.00	0.00	1.85	29.41	
	실업자	21.04	25.16	12.19	37.18	4.42	0.00	
	비경제활동인구	34.99	4.95	4.94	19.07	29.84	6.21	
직업	관리자,전문가	62.80	11.14	0.74	8.62	15.83	0.88	188.068(15)***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69.78	16.64	4.15	3.73	5.11	0.59	
	숙련 및 기술직	46.31	12.52	1.00	1.68	5.94	32.55	
	단순노무 종사자	17.59	26.54	21.93	11.61	10.94	11.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13.76	23.27	17.45	13.12	31.13	1.27	
비정규직	18.75	43.05	8.64	16.12	7.53	5.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67.95	10.74	0.99	8.61	5.87	5.83	30.906(10)**
	중도적	54.09	13.13	5.67	8.24	11.90	6.98	
	진보적	50.96	21.92	4.86	8.33	11.03	2.90	

주: “귀택이 받으신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2〉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2순위

(단위 :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 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돌봄 관련 지원 (긴급돌봄 포함)	농어가 관련 지원	χ^2 (df)
전체		4.75	13.20	27.64	24.72	18.89	10.81	
성별	남성	7.98	12.86	48.17	13.18	13.04	4.77	21.212(5)**
	여성	1.41	13.54	6.45	36.62	24.93	17.06	
연령	20대 이하	0.00	8.47	59.64	19.96	11.93	0.00	34.276(20)*
	30대	15.63	14.48	0.00	15.95	32.04	21.90	
	40대	6.87	19.34	6.24	22.37	27.43	17.75	
	50대	0.48	13.64	48.76	34.17	2.95	0.00	
지역1	수도권	3.60	4.63	39.22	28.80	14.09	9.66	7.752(5)
	비수도권	5.88	21.70	16.14	20.65	23.66	11.96	
지역2	대도시	4.86	15.10	32.03	38.29	9.72	0.00	12.597(10)
	중소도시	4.54	8.51	26.40	18.83	26.29	15.44	
	농어촌	5.43	30.58	19.79	10.68	11.24	22.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00	8.47	58.58	27.09	5.86	0.00	35.557(15)**
	중하층	9.58	15.34	31.87	20.17	10.21	12.83	
	중간층	3.20	15.40	13.55	31.53	32.95	3.37	
	중상층(상층)	0.00	0.00	0.00	0.00	18.88	81.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1	11.14	38.15	20.49	16.83	12.27	16.703(20)
	200만 원대	0.76	20.22	15.15	22.24	28.35	13.28	
	300만 원대	17.75	11.59	0.00	40.45	19.36	10.86	
	400만 원대	0.00	0.00	0.00	0.00	100.00	0.00	
	500만 원 이상	16.04	18.65	15.25	35.36	14.70	0.00	
학력	중졸 이하	0.00	9.55	0.00	15.15	41.15	34.15	19.485(10)*
	고졸	0.00	18.95	11.07	35.74	18.09	16.16	
	대졸 이상	8.86	9.69	43.73	18.40	15.96	3.3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8	13.19	20.39	14.76	29.01	17.87	48.729(2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53	6.85	41.15	29.85	11.67	2.96	
	고용주, 자영자	6.06	22.57	4.76	32.38	27.62	6.61	
	무급가족종사자	0.00	54.35	45.65	0.00	0.00	0.00	
	실업자	0.00	3.24	93.22	3.54	0.00	0.0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3.49	8.13	0.00	30.76	25.59	32.03	8.588(15)
	관리자, 전문가	0.82	18.53	32.11	20.86	13.38	14.2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98	17.77	21.28	25.68	23.20	4.08	
	숙련 및 기술직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0.00	50.32	25.10	24.5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10	14.09	14.98	15.76	30.99	19.08	8.930(5)
	비정규직	0.00	2.33	53.44	40.51	3.72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0.00	22.98	31.52	22.00	13.50	9.99	4.564(10)
	중도적	5.99	14.09	21.60	26.31	24.25	7.75	
	진보적	5.11	7.59	34.37	23.69	13.76	15.47	

주: "귀택이 받으신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3〉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3순위

(단위 :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 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돌봄 관련 지원 (긴급돌봄 포함)	χ^2 (df)
전체		4.68	36.50	22.32	13.17	23.33	
성별	남성	0.00	2.01	37.84	46.84	13.30	8.479(4)
	여성	6.51	49.99	16.25	0.00	27.25	
연령	20대 이하	13.93	0.00	0.00	0.00	86.07	24.280(16)
	30대	0.00	79.04	0.00	20.96	0.00	
	40대	8.60	0.00	91.40	0.00	0.00	
	50대	0.00	4.17	13.60	35.43	46.80	
지역1	수도권	0.00	57.80	0.00	0.00	42.20	8.914(4)
	비수도권	8.73	18.04	41.67	24.58	6.98	
지역2	대도시	10.41	0.00	7.11	18.15	64.33	11.667(8)
	중소도시	0.00	73.19	9.76	17.05	0.00	
	농어촌	7.87	2.31	63.94	0.00	25.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63	0.00	49.37	0.00	0.00	6.900(12)
	중하층	12.27	21.98	42.48	11.70	11.57	
	중간층	0.00	11.16	22.98	22.20	43.67	
	중상층(상층)	0.00	100.00	0.00	0.0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85	44.06	19.59	0.00	28.50	11.486(12)
	200만 원대	0.00	43.27	56.73	0.00	0.00	
	300만 원대	0.00	23.63	15.97	40.16	20.24	
	500만 원 이상	0.00	0.00	0.00	68.89	31.11	
학력	고졸	6.69	37.58	27.70	0.00	28.02	7.219(4)
	대졸 이상	0.00	34.00	9.80	43.76	12.4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00	31.92	21.56	19.19	27.33	18.700(1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0	2.80	0.00	0.00	97.20	
	고용주, 자영자	0.00	15.90	52.48	31.63	0.00	
	비경제활동인구	14.25	80.02	5.72	0.00	0.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0	4.09	77.10	0.00	18.81	2.91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00	18.11	18.37	24.67	38.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00	31.92	21.56	19.19	27.33	3.000(3)
	비정규직	0.00	0.00	0.00	0.00	10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75	0.00	82.25	0.00	0.00	14.026(8)
	중도적	4.83	10.95	4.71	20.99	58.51	
	진보적	0.00	72.03	17.23	10.75	0.00	

주: "귀댁이 받으신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4〉 수령한 특정 대상 재난지원금 종류_1+2+3순위(중복응답)

(단위 : %)

구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미취업 청년 (18~34세) 관련 지원	실업·휴폐업 관련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아동돌봄 관련 지원 (긴급돌봄 포함)	농어가 관련 지원
전체		57.27	15.99	6.95	10.56	12.14	6.74
성별	남성	59.95	17.03	8.00	9.98	7.53	7.14
	여성	54.86	15.05	6.00	11.08	16.28	6.37
연령	20대 이하	34.49	23.51	37.94	14.66	11.35	1.51
	30대	37.09	24.83	4.02	8.32	36.12	3.97
	40대	61.25	10.37	6.36	10.59	14.96	3.58
	50대	71.59	17.71	3.60	9.22	2.35	3.52
	60대 이상	61.66	10.90	0.48	11.76	3.05	17.25
지역1	수도권	53.40	21.83	9.39	12.76	10.49	2.36
	비수도권	60.62	10.91	4.83	8.64	13.58	10.54
지역2	대도시	67.38	15.09	7.27	9.19	8.77	0.00
	중소도시	48.47	17.88	7.40	13.55	16.42	7.57
	농어촌	55.48	12.02	4.21	4.15	7.80	26.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2.77	24.30	7.37	21.36	1.73	9.92
	중하층	62.09	15.00	6.32	7.13	11.49	6.07
	중간층	60.13	12.59	8.27	8.33	17.44	4.61
	중상층(상층)	58.56	12.31	0.00	8.68	26.59	15.1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5.35	17.46	9.34	15.52	14.56	9.84
	200만 원대	66.96	15.92	5.88	3.60	8.55	4.63
	300만 원대	71.24	12.39	5.35	4.96	11.29	3.40
	400만 원대	54.03	23.35	0.00	8.92	11.34	3.07
	500만 원 이상	85.62	6.01	2.23	12.18	9.22	1.37
학력	중졸 이하	48.33	5.91	0.00	16.81	8.27	26.04
	고졸	62.58	17.83	4.48	10.61	7.05	5.72
	대졸 이상	53.19	16.97	12.67	8.33	20.34	1.4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90	33.34	16.01	12.79	28.64	3.8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09	57.53	13.02	16.31	10.58	2.86
	고용주, 자영자	91.33	2.46	0.88	2.13	2.55	6.68
	무급가족종사자	68.74	3.38	2.84	0.00	1.85	29.41
	실업자	21.04	25.85	32.04	37.94	4.42	0.00
	비경제활동인구	35.75	8.10	5.11	22.08	32.34	9.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62.90	13.60	6.79	11.27	18.01	2.70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0.37	18.20	5.97	5.96	7.37	0.88
	숙련 및 기술직	46.31	12.52	1.00	2.48	6.34	32.94
	단순노무 종사자	17.59	26.54	21.93	18.11	10.94	11.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11	24.81	18.86	14.55	33.74	2.57
	비정규직	18.75	43.38	16.33	21.96	10.80	5.91
이념적 성향	보수적	68.12	11.95	3.42	9.76	6.58	6.35
	중도적	54.58	14.27	7.29	10.39	14.30	7.55
	진보적	51.67	25.29	10.17	11.95	12.94	5.04

주: "귀댁이 받으신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5〉 지급된 정부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χ^2 (df)
전체		1.89	35.97	43.57	16.39	2.17	
성별	남성	1.65	31.35	45.97	18.86	2.17	8.370(4)
	여성	2.10	40.12	41.43	14.18	2.18	
연령	20대 이하	4.61	56.45	29.63	8.89	0.42	39.381(16)**
	30대	0.00	41.48	36.87	17.23	4.42	
	40대	1.85	35.59	44.85	16.08	1.64	
	50대	2.70	26.66	48.19	20.02	2.43	
	60대 이상	1.30	33.79	47.80	15.48	1.62	
지역1	수도권	1.08	32.11	48.53	15.90	2.37	9.433(4)
	비수도권	2.59	39.33	39.26	16.82	2.00	
지역2	대도시	1.87	29.59	51.66	14.30	2.58	21.275(8)**
	중소도시	1.37	40.02	39.13	17.75	1.73	
	농어촌	3.86	42.63	32.61	18.46	2.4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5	40.76	36.70	18.84	2.54	15.337(12)
	중하층	1.68	33.06	47.28	16.55	1.43	
	중간층	2.67	35.20	43.57	16.17	2.39	
	중상층(상층)	1.09	47.17	41.51	4.40	5.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6	40.32	39.68	15.68	2.35	16.967(16)
	200만 원대	2.69	33.86	48.41	13.21	1.83	
	300만 원대	1.44	32.97	46.10	17.64	1.86	
	400만 원대	0.00	27.44	49.10	23.46	0.00	
	500만 원 이상	1.09	24.42	45.13	24.52	4.84	
학력	중졸 이하	1.46	40.58	37.89	17.75	2.33	17.352(8)*
	고졸	2.10	31.78	48.00	17.34	0.78	
	대졸 이상	1.75	40.03	39.57	14.65	4.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0	41.61	43.45	11.66	0.67	56.794(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93	56.26	33.05	9.69	0.07	
	고용주, 자영자	1.71	26.63	49.29	19.24	3.13	
	무급가족종사자	0.00	63.26	25.62	11.12	0.00	
	실업자	2.25	27.02	37.90	27.69	5.15	
	비경제활동인구	2.88	39.27	41.24	14.80	1.80	
직업	관리자, 전문가	0.78	36.18	50.65	11.26	1.12	4.988(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0	35.68	43.44	16.53	2.35	
	숙련 및 기술직	0.97	36.84	42.87	17.71	1.62	
	단순노무 종사자	0.00	34.10	58.82	7.08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4	46.67	44.09	5.30	0.81	10.812(4)*
	비정규직	0.00	52.83	30.30	16.87	0.0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1	31.74	42.13	21.77	2.75	10.986(8)
	중도적	1.32	37.95	44.75	14.11	1.88	
	진보적	3.73	35.68	42.15	16.15	2.29	

주: “귀택이 받으신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6〉 본인의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타당하다	대체로 타당하다	약간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3.35	41.74	35.22	8.00	11.69	
성별	남성	3.49	41.83	34.55	7.98	12.15	1.219(4)
	여성	3.20	41.65	35.94	8.02	11.19	
연령	20대 이하	2.93	41.94	32.25	5.08	17.80	49.651(16)***
	30대	4.78	41.05	37.89	6.47	9.81	
	40대	2.97	43.17	35.42	8.61	9.82	
	50대	3.11	39.97	36.69	9.09	11.15	
	60대 이상	3.16	42.47	34.37	10.34	9.66	
지역1	수도권	1.99	42.41	35.55	4.41	15.64	120.170(4)***
	비수도권	4.84	41.00	34.87	11.93	7.37	
지역2	대도시	3.26	39.44	38.87	8.25	10.19	57.169(8)***
	중소도시	3.34	44.49	33.04	6.24	12.89	
	농어촌	3.92	36.79	28.92	18.11	12.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2	24.80	42.04	14.95	14.99	123.515(12)***
	중하층	2.65	39.46	38.82	8.26	10.82	
	중간층	3.03	47.77	31.51	6.55	11.14	
	중상층(상층)	10.88	42.80	27.53	3.71	15.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60	38.16	36.92	9.49	12.83	67.657(16)***
	200만 원대	2.78	46.77	33.59	6.60	10.26	
	300만 원대	3.85	42.49	32.80	7.79	13.06	
	400만 원대	7.04	39.16	43.69	4.44	5.67	
	500만 원 이상	5.49	53.07	23.43	6.18	11.84	
학력	중졸 이하	3.04	35.93	35.28	11.71	14.04	59.386(8)***
	고졸	1.67	41.59	33.98	9.69	13.07	
	대졸 이상	4.94	43.54	36.31	5.43	9.7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26	47.00	33.46	5.13	10.16	143.534(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63	41.43	30.83	12.59	12.51	
	고용주, 자영자	2.48	29.01	44.41	16.00	8.09	
	무급가족종사자	1.40	12.27	58.05	13.78	14.50	
	실업자	4.07	27.59	42.62	6.99	18.73	
	비경제활동인구	2.71	43.78	33.18	6.79	13.54	
직업	관리자, 전문가	6.60	49.56	25.37	7.53	10.93	32.68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39	40.94	38.37	7.81	9.49	
	숙련 및 기술직	2.32	38.84	35.41	11.68	11.76	
	단순노무 종사자	2.93	44.49	31.50	9.41	11.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46	47.33	33.17	5.31	9.73	20.858(4)***
	비정규직	2.48	42.41	31.67	10.71	12.7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0	37.79	37.79	10.16	11.47	48.043(8)***
	중도적	2.99	40.79	34.44	7.81	13.97	
	진보적	4.74	48.26	33.93	5.92	7.14	

주: “귀택이 받으신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7〉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피해 여부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피해를 입고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χ^2 (df)
전체		31.28	16.69	20.33	31.69	
성별	남성	32.17	15.79	20.21	31.83	3.112(3)
	여성	30.37	17.63	20.46	31.55	
연령	20대 이하	28.35	14.14	23.10	34.42	51.274(12)***
	30대	37.75	16.74	17.57	27.93	
	40대	33.95	16.47	20.84	28.75	
	50대	30.27	16.33	23.22	30.18	
지역1	수도권	34.66	16.14	20.32	28.89	25.998(3)***
	비수도권	27.77	17.27	20.34	34.62	
지역2	대도시	31.97	15.78	22.24	30.00	29.003(6)***
	중소도시	31.91	18.04	18.73	31.31	
	농어촌	24.32	13.55	19.87	42.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8.66	26.45	16.84	28.05	81.751(9)***
	중하층	30.05	17.42	22.11	30.42	
	중간층	34.32	13.36	20.27	32.06	
	중상층(상층)	21.90	14.00	16.98	47.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45	17.55	19.55	32.45	27.148(12)**
	200만 원대	30.91	17.76	22.60	28.72	
	300만 원대	31.56	16.03	19.89	32.52	
	400만 원대	39.24	14.54	15.61	30.61	
	500만 원 이상	29.24	10.36	24.81	35.59	
학력	중졸 이하	26.47	21.32	13.68	38.53	61.985(6)***
	고졸	28.54	17.73	23.76	29.97	
	대졸 이상	35.38	14.31	18.97	31.3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1.89	16.90	20.42	30.78	29.471(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0.64	18.72	19.14	31.50	
	고용주, 자영자	28.42	15.06	24.37	32.14	
	무급가족종사자	37.39	11.96	10.42	40.23	
	실업자	33.90	21.44	11.54	33.11	
	비경제활동인구	31.91	16.12	20.21	31.76	
직업	관리자, 전문가	30.22	12.07	22.28	35.43	27.594(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0.48	16.35	22.30	30.86	
	숙련 및 기술직	33.82	16.48	17.43	32.27	
	단순노무 종사자	26.64	28.25	16.73	28.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1.91	16.37	20.79	30.93	4.996(3)
	비정규직	31.56	20.02	17.27	31.1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94	18.68	20.23	31.14	10.639(6)
	중도적	33.22	15.70	20.01	31.07	
	진보적	28.55	16.61	21.15	33.70	

주: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8〉 어제 행복했던 정도

(단위 : %)

구분		◎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행복했다	χ^2 (df)
전체		0.45	0.70	1.54	3.83	4.09	29.66	11.98	17.49	17.37	8.71	4.18	
성별	남성	0.43	1.02	1.37	3.55	4.21	31.00	12.97	17.36	16.14	7.57	4.38	23.742 (10)**
	여성	0.47	0.36	1.71	4.13	3.96	28.27	10.95	17.61	18.66	9.90	3.98	
연령	20대 이하	0.20	0.07	0.93	4.23	3.09	25.61	13.44	19.60	18.33	9.59	4.89	105.06 7(40) ****
	30대	0.40	0.51	0.72	2.26	3.55	28.90	10.22	17.63	22.11	9.93	3.76	
	40대	0.88	0.53	1.41	3.20	5.33	26.76	13.47	18.30	17.35	9.39	3.37	
	50대	0.50	1.23	2.97	4.50	3.48	28.68	12.21	17.75	16.87	7.18	4.63	
	60대 이상	0.25	0.98	1.43	4.65	4.77	36.91	10.60	14.73	13.52	7.89	4.26	
지역1	수도권	0.29	0.47	1.70	4.52	5.23	28.69	15.45	18.79	14.07	7.97	2.83	116.76 8(10) ****
	비수도권	0.61	0.93	1.37	3.12	2.90	30.67	8.35	16.13	20.82	9.49	5.60	
지역2	대도시	0.55	0.80	1.45	3.88	4.16	30.00	14.25	18.47	16.60	6.24	3.60	71.418 (20)***
	중소도시	0.44	0.45	1.51	3.96	4.19	28.58	10.89	16.94	17.98	11.09	3.98	
	농어촌	0.00	1.60	2.15	2.85	3.18	34.11	6.89	15.72	17.78	7.50	8.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9	3.37	3.68	9.77	10.58	33.32	8.97	10.70	11.42	4.61	1.99	467.92 3(30) ****
	중하층	0.49	0.42	1.63	3.67	4.05	34.75	11.68	17.06	17.35	5.75	3.14	
	중간층	0.12	0.19	0.80	2.21	2.57	25.83	13.78	19.59	19.23	10.13	5.56	
	중상층(상층)	0.00	0.00	1.52	3.21	0.30	15.37	6.97	20.51	17.49	28.68	5.9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47	1.08	2.13	4.92	5.30	31.08	11.51	15.60	15.76	7.84	4.31	128.06 8(40)* **
	200만 원대	0.56	0.37	1.26	3.78	3.73	31.58	11.90	16.21	18.02	8.76	3.82	
	300만 원대	0.43	0.21	0.86	1.67	3.27	27.97	13.99	20.47	18.13	10.28	2.72	
	400만 원대	0.38	0.74	0.30	1.89	0.63	25.58	11.62	23.04	24.21	8.74	2.87	
	500만 원 이상	0.00	0.00	0.97	3.00	1.93	20.62	11.49	23.11	17.93	11.51	9.44	
학력	중졸 이하	0.53	1.37	1.82	5.35	5.87	39.16	8.21	13.51	13.54	6.69	3.94	113.66 5(20) ****
	고졸	0.58	0.73	1.61	5.14	4.90	29.97	12.85	17.14	16.37	6.71	4.02	
	대졸 이상	0.30	0.46	1.39	2.12	2.77	26.54	12.25	19.01	19.49	11.26	4.4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0	0.39	0.95	3.09	2.14	26.41	11.48	18.95	21.63	10.35	4.10	180.93 3(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85	1.30	1.17	2.71	7.63	34.06	13.26	18.25	13.63	3.61	3.54	
	고용주, 자영자	0.30	1.03	1.97	5.61	4.21	34.30	12.63	16.76	13.21	6.41	3.56	
	무급가족종사자	0.00	2.10	1.42	0.00	1.23	35.18	2.05	19.96	20.26	13.39	4.41	
	실업자	0.67	1.84	4.16	5.07	6.82	34.29	12.83	13.65	12.97	4.11	3.59	
	비경제활동인구	0.31	0.27	1.63	4.02	4.65	27.32	12.11	16.37	17.16	11.04	5.13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63	0.42	0.80	1.10	3.84	27.27	13.39	16.36	20.60	10.74	4.85	54.927 (30)**
	숙련 및 기술직	0.40	0.95	1.55	4.33	3.59	28.96	12.86	18.87	17.82	7.63	3.04	
	단순노무 종사자	0.85	0.68	0.99	3.68	4.11	31.87	8.65	18.12	17.38	8.10	5.59	
	단순노무 종사자	0.00	0.00	0.67	2.14	2.56	44.59	8.09	15.89	12.99	8.16	4.9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40	0.31	1.03	2.63	2.24	25.79	11.40	19.24	22.05	10.66	4.25	64.597 (10)***
	비정규직	0.98	1.51	1.08	3.61	6.16	34.49	12.50	17.58	14.31	4.33	3.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61	0.81	1.71	4.17	3.80	33.49	12.76	14.50	16.65	7.47	4.02	58.953 (20)***
	중도적	0.34	0.84	1.51	3.49	3.91	30.25	10.39	19.35	17.72	7.81	4.39	
	진보적	0.50	0.23	1.40	4.20	4.83	23.95	14.57	16.82	17.45	12.13	3.92	

주: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49> 어제 우울했던 정도

(단위 : %)

구분		⑨ 전혀 우울 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우울 했다	χ^2 (df)
전체		15.83	17.31	16.23	14.67	5.65	17.89	5.15	3.64	2.20	0.96	0.49	
성별	남성	17.34	16.22	15.88	15.20	4.92	19.11	4.71	3.67	1.69	0.76	0.51	24.743 (10)**
	여성	14.26	18.44	16.59	14.12	6.40	16.62	5.60	3.61	2.74	1.17	0.47	
연령	20대 이하	21.02	18.11	14.49	14.22	6.47	17.18	3.25	3.45	1.06	0.28	0.47	96.030 (40)***
	30대	16.80	18.80	16.39	15.76	5.29	17.25	4.17	2.66	2.02	0.70	0.17	
	40대	14.72	14.74	18.61	16.05	4.72	17.73	6.04	3.65	2.32	1.19	0.23	
	50대	13.63	15.93	18.47	12.41	5.74	17.19	7.10	4.08	2.47	1.51	1.48	
	60대 이상	13.96	19.06	13.32	15.06	5.99	19.72	4.82	4.12	2.90	0.99	0.07	
지역1	수도권	13.17	11.14	15.55	18.58	7.09	19.27	6.36	4.64	2.48	1.06	0.66	198.08 2(10) ***
	비수도권	18.59	23.74	16.93	10.59	4.15	16.45	3.88	2.59	1.91	0.86	0.32	
지역2	대도시	18.40	17.97	16.51	10.71	5.78	17.03	5.96	4.34	1.97	0.77	0.56	100.72 2(20) ***
	중소도시	12.87	17.14	16.37	19.13	5.56	18.03	4.35	2.91	1.99	1.14	0.52	
	농어촌	19.85	14.92	14.00	9.00	5.49	21.37	5.65	4.25	4.59	0.89	0.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75	12.09	18.07	14.80	7.54	16.51	6.66	6.96	4.73	2.92	1.96	211.09 3(30) ***
	중하층	15.58	15.98	16.80	15.03	5.22	20.15	4.86	2.98	2.54	0.54	0.32	
	중간층	18.42	19.12	14.11	14.59	5.54	17.61	5.15	3.55	1.29	0.38	0.24	
	중상층(상층)	16.94	25.20	24.74	12.44	4.81	7.49	3.27	0.56	0.82	3.73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20	16.76	14.91	14.31	5.58	18.43	5.98	4.93	3.02	1.12	0.77	103.24 1(40) ***
	200만 원대	14.98	17.32	17.68	13.78	7.41	18.50	5.09	2.58	1.31	1.15	0.19	
	300만 원대	16.86	17.69	16.43	18.11	4.78	17.70	3.39	3.04	1.17	0.55	0.28	
	400만 원대	18.01	16.15	21.04	16.14	3.79	15.60	5.52	1.59	1.39	0.39	0.38	
	500만 원 이상	26.43	21.94	15.25	10.73	4.18	14.62	2.68	1.10	2.44	0.64	0.00	
학력	중졸 이하	11.84	17.93	13.05	14.36	6.64	20.51	5.36	4.91	3.03	2.01	0.35	91.862 (20)***
	고졸	14.66	16.12	15.46	13.00	6.11	18.83	6.15	4.88	2.81	1.18	0.80	
	대졸 이상	18.14	18.27	17.91	16.38	4.90	16.19	4.12	2.05	1.37	0.43	0.2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44	18.17	16.04	16.43	5.64	17.47	4.29	1.25	1.17	0.56	0.54	132.92 4(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59	13.22	18.03	13.62	4.95	21.25	6.66	4.16	2.98	1.24	1.30	
	고용주, 자영자	14.99	16.94	17.82	11.35	6.20	16.23	5.85	5.55	3.25	1.66	0.16	
	무급가족종사자	20.45	19.70	22.16	20.74	1.96	8.48	2.96	2.03	0.19	1.33	0.00	
	실업자	15.67	11.89	13.22	13.61	9.32	19.93	5.82	5.69	2.67	1.16	1.02	
	비경제활동인구	14.16	19.12	14.72	15.03	5.09	18.41	5.12	4.83	2.49	0.78	0.25	
직업	관리자,전문가	18.20	14.34	14.38	13.12	2.54	25.67	7.27	2.53	1.02	0.92	0.00	62.036 (30)**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16.12	16.53	17.75	15.77	6.51	15.47	4.91	3.28	1.87	0.97	0.84	
	숙련 및 기술직	17.52	20.49	17.01	12.09	4.60	17.03	3.76	2.57	3.53	1.30	0.11	
	단순노무 종사자	13.79	16.95	15.74	13.46	5.31	23.12	6.76	2.53	1.62	0.73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40	18.78	15.81	15.79	5.66	16.80	4.40	1.30	1.11	0.45	0.49	45.785 (10)***
	비정규직	11.90	13.12	18.79	15.86	5.02	20.79	5.88	3.06	2.72	1.39	1.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14	17.40	16.39	13.85	6.25	19.76	4.73	2.68	2.51	1.07	0.20	53.262 (20)***
	중도적	17.68	16.91	16.04	15.23	4.12	17.78	4.67	3.85	2.37	0.74	0.62	
	진보적	12.52	18.08	16.44	14.36	8.32	15.97	6.69	4.28	1.48	1.31	0.55	

주: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0〉 삶에 만족하는 정도

(단위 : %)

구분		◎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 한다	χ^2 (df)
전체		0.66	1.25	2.84	4.41	4.87	30.56	16.73	20.32	12.72	3.54	2.10	
성별	남성	0.95	1.02	2.89	4.15	5.22	32.50	17.43	19.32	11.62	2.56	2.36	33.314 (10)***
	여성	0.36	1.50	2.80	4.68	4.52	28.56	16.00	21.35	13.87	4.56	1.82	
연령	20대 이하	0.20	0.87	3.41	2.84	3.48	28.65	18.11	22.54	13.82	3.36	2.71	84.415 (40)***
	30대	0.57	1.25	1.81	4.53	4.40	27.22	17.31	23.00	14.52	3.69	1.69	
	40대	0.93	1.84	3.17	3.98	4.72	27.19	17.14	20.74	14.70	3.65	1.94	
	50대	1.19	0.95	2.68	4.87	5.38	30.88	16.62	20.38	11.37	2.93	2.75	
지역1	수도권	0.64	1.79	3.06	4.24	5.33	29.10	19.74	21.29	10.43	2.68	1.68	67.830 (10)***
	비수도권	0.68	0.69	2.61	4.58	4.39	32.08	13.59	19.30	15.11	4.44	2.53	
지역2	대도시	0.87	2.11	3.51	3.91	4.62	29.91	18.35	20.23	11.03	3.77	1.68	67.888 (20)***
	중소도시	0.56	0.54	2.20	4.82	5.08	30.74	15.93	20.59	14.55	3.10	1.88	
	농어촌	0.13	1.04	3.17	4.53	4.95	32.80	13.23	19.20	10.71	4.86	5.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8	3.43	6.79	8.70	11.10	34.83	13.20	10.67	5.08	2.19	0.74	468.62 8(30) ***
	중하층	0.38	1.09	2.39	5.09	5.50	37.11	17.41	16.74	11.06	1.99	1.25	
	중간층	0.17	0.73	2.27	2.83	2.92	24.87	18.01	24.99	15.94	4.37	2.92	
	중상층(상층)	0.00	1.14	0.78	1.57	0.56	19.56	10.34	32.16	17.76	11.25	4.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3	1.34	3.09	5.22	6.12	32.64	16.15	16.72	12.27	3.48	2.03	130.34 4(40) ***
	200만 원대	0.40	0.98	3.13	3.89	4.26	30.77	17.87	22.27	10.69	4.01	1.74	
	300만 원대	0.56	1.97	1.48	4.47	3.43	27.71	19.66	24.80	12.50	2.22	1.20	
	400만 원대	0.38	0.39	2.08	1.18	2.56	27.78	17.29	24.46	18.03	3.73	2.12	
	500만 원 이상	0.00	0.81	4.03	3.58	3.44	23.75	9.58	25.89	17.80	5.20	5.91	
학력	중졸 이하	0.41	1.55	3.81	7.10	6.80	38.49	13.92	14.38	9.00	3.31	1.24	108.93 9(20) ***
	고졸	0.94	1.42	2.43	4.90	5.85	31.57	17.61	19.71	11.23	2.93	1.43	
	대졸 이상	0.46	1.00	2.96	3.13	3.36	27.23	16.71	22.68	15.28	4.20	2.9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50	1.45	1.85	3.14	2.81	27.23	17.70	24.50	14.52	4.07	2.24	198.67 3(50) ***
	임금근로자	2.21	2.04	2.27	5.49	6.09	35.10	15.00	19.54	8.69	2.47	1.10	
	임시·일용직	0.58	1.18	3.77	6.46	7.13	32.55	16.04	18.41	9.58	2.43	1.85	
	고용주, 자영자	0.00	3.62	1.23	1.68	4.65	28.71	11.08	26.55	16.60	4.62	1.25	
	무급가족종사자	0.67	1.00	7.81	6.96	9.91	30.77	22.48	9.04	6.71	1.24	3.39	
실업자	0.29	0.59	2.84	3.80	4.41	31.56	15.97	18.41	15.33	4.49	2.3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14	0.93	1.28	3.65	5.23	26.28	12.51	22.46	15.93	5.62	4.96	82.955 (30)***
	관리자,전문가	0.60	1.89	2.98	4.58	4.77	29.38	18.43	22.05	11.26	2.91	1.16	
	사무,서비스,	1.19	0.42	1.75	4.78	4.32	31.05	14.49	22.48	14.06	3.75	1.70	
	판매 종사자	1.03	2.56	1.69	3.89	3.34	43.58	12.38	18.33	7.67	1.71	3.8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숙련 및 기술직	0.43	1.47	1.95	3.24	3.01	25.32	17.84	25.51	14.91	3.96	2.36	66.003 (10)***
	단순노무 종사자	2.37	2.08	1.91	4.35	4.38	39.34	14.57	17.93	8.93	2.95	1.19	
이념적 성향	보수적	0.72	1.61	3.61	5.99	4.92	32.68	15.74	16.82	12.32	3.71	1.87	53.254 (20)***
	중도적	0.61	1.32	2.55	4.06	4.96	31.76	16.60	20.77	12.63	2.58	2.18	
	진보적	0.70	0.69	2.62	3.35	4.64	25.49	18.14	23.35	13.40	5.46	2.17	

주: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1〉 사회적 지지 정도

(단위 : %)

구분		◎ 전혀 받고 있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많이 받고 있음	χ ² (df)
전체		0.78	0.68	1.97	5.30	5.71	37.17	19.06	16.42	9.05	2.64	1.21	
성별	남성	0.83	0.82	2.27	4.64	6.54	38.59	17.86	16.10	8.81	2.11	1.42	22.912 (10)*
	여성	0.72	0.54	1.66	5.99	4.85	35.70	20.31	16.75	9.29	3.18	1.00	
연령	20대 이하	0.53	0.19	1.06	3.06	5.95	30.95	19.42	20.82	12.59	3.41	2.01	150.26 6(40) ***
	30대	1.07	0.48	1.07	4.17	3.20	39.04	20.24	16.99	9.49	3.48	0.77	
	40대	0.98	0.94	1.09	4.61	5.02	41.71	16.28	16.59	10.29	2.05	0.45	
	50대	0.59	0.46	1.82	6.20	5.84	38.54	19.67	15.62	7.14	2.30	1.82	
	60대 이상	0.75	1.22	4.28	7.74	7.91	35.45	19.77	13.08	6.55	2.22	1.02	
지역1	수도권	0.62	0.57	1.71	5.80	7.31	36.89	20.93	14.78	8.28	1.92	1.18	48.062 (10)***
	비수도권	0.94	0.80	2.24	4.78	4.05	37.46	17.11	18.13	9.85	3.39	1.25	
지역2	대도시	0.95	0.74	1.93	6.39	5.84	33.05	20.99	17.17	9.46	2.85	0.62	65.657 (20)***
	중소도시	0.71	0.71	2.04	4.51	6.00	40.20	18.73	15.18	8.02	2.20	1.70	
	농어촌	0.31	0.27	1.71	4.44	3.46	40.43	11.37	19.70	12.81	4.09	1.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1	2.80	5.77	14.33	11.70	35.24	13.44	8.38	4.25	0.78	1.11	490.21 1(30)** *
	중하층	0.59	0.62	1.90	6.59	6.46	41.41	18.48	13.42	8.36	1.19	0.97	
	중간층	0.56	0.15	0.92	1.98	3.89	35.65	21.09	20.32	10.70	3.53	1.22	
	중상층(상층)	0.30	0.15	1.41	0.38	0.00	24.24	20.89	26.40	12.68	10.38	3.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94	0.98	3.09	7.60	7.19	37.30	17.14	14.26	7.50	3.01	1.00	177.84 4(40) ***
	200만 원대	0.50	0.43	0.65	4.39	5.06	39.37	21.83	15.60	9.01	1.93	1.24	
	300만 원대	0.93	0.12	1.36	2.50	4.77	36.83	21.22	20.03	9.79	1.90	0.54	
	400만 원대	0.41	1.07	1.11	0.66	2.45	32.49	22.06	20.82	14.73	2.61	1.57	
	500만 원 이상	0.65	0.15	0.35	2.77	2.58	34.57	15.64	22.44	12.88	4.01	3.96	
학력	중졸 이하	1.10	2.15	4.86	9.40	7.62	37.36	20.24	8.40	5.64	2.30	0.93	165.96 9(20) ***
	고졸	0.38	0.52	2.28	5.53	6.99	39.76	17.61	16.30	7.32	2.18	1.12	
	대졸 이상	1.08	0.40	0.81	3.86	3.90	34.60	20.12	18.93	11.73	3.18	1.3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41	0.35	0.90	3.38	4.52	36.47	20.82	19.08	10.02	2.64	1.41	163.25 9(50) ***
	임금근로자	1.21	1.60	2.56	7.33	5.80	43.53	15.42	12.57	7.33	1.77	0.88	
	임시·일용직	0.63	0.21	1.58	5.48	5.28	40.74	18.63	16.03	8.33	1.89	1.19	
	고용주, 자영업자	1.33	0.00	0.00	0.40	3.26	31.42	26.54	22.58	8.60	3.96	1.92	
	무급가족종사자	1.52	3.41	4.45	8.42	11.82	38.73	14.30	10.75	4.60	1.23	0.78	
	실업자	1.00	0.58	3.03	6.52	6.50	32.82	19.09	15.62	9.96	3.74	1.15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00	0.58	3.03	6.52	6.50	32.82	19.09	15.62	9.96	3.74	1.15	105.84 8(30) ***
	관리자,전문가	0.73	0.17	0.64	1.13	2.53	39.55	15.03	18.67	14.30	3.84	3.41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0.51	0.42	1.23	5.01	5.04	37.94	20.24	17.23	9.24	2.26	0.89	
	숙련 및 기술직	0.74	0.32	1.47	4.54	5.08	39.48	20.56	19.28	5.62	1.66	1.2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1.42	2.86	3.83	7.58	8.29	43.66	16.69	7.06	6.19	1.65	0.76	60.572 (10)***
	정규직	0.33	0.32	0.75	3.28	4.20	36.87	19.93	19.69	10.52	2.70	1.42	
이념적 성향	비정규직	1.30	1.51	2.51	7.20	6.51	40.55	19.61	12.34	5.71	1.73	1.03	76.232 (20)***
	보수적	0.54	1.24	3.27	6.39	7.31	40.15	15.47	14.02	8.66	2.10	0.86	
	중도적	0.58	0.65	1.61	4.80	4.96	37.67	19.59	17.74	8.56	2.35	1.49	
	진보적	1.49	0.11	1.26	5.18	5.54	32.62	22.04	16.28	10.57	3.89	1.02	

주: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2〉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단위 : %)

구분		㉠ 매우 적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매우 많음	χ^2 (df)
전체		0.78	1.60	3.67	6.48	5.39	29.85	17.18	18.40	10.86	3.94	1.84	
성별	남성	0.66	2.24	3.80	6.36	5.90	32.27	16.68	17.38	9.90	2.87	1.95	40.072 (10)***
	여성	0.90	0.95	3.52	6.61	4.87	27.36	17.69	19.45	11.87	5.04	1.74	
연령	20대 이하	0.98	0.13	2.04	5.24	3.37	22.50	14.14	25.77	15.97	6.62	3.25	201.96 7(40) ***
	30대	1.23	1.86	2.86	7.13	5.28	28.53	18.50	17.56	11.17	4.15	1.71	
	40대	0.09	2.05	3.98	7.12	4.20	32.41	16.12	16.77	12.76	2.23	2.25	
	50대	0.24	2.02	2.93	7.00	6.11	29.24	21.10	18.22	8.24	3.35	1.55	
지역1	수도권	0.54	1.43	3.32	6.99	6.99	28.27	19.18	18.99	8.90	3.39	2.00	57.685 (10)***
	비수도권	1.03	1.79	4.03	5.96	3.73	31.51	15.09	17.77	12.91	4.51	1.68	
지역2	대도시	0.77	2.16	3.97	6.61	4.30	27.05	18.23	18.60	12.61	3.96	1.76	46.105 (20)**
	중소도시	0.70	1.08	3.31	6.68	6.23	31.49	17.42	18.21	9.37	3.68	1.82	
	농어촌	1.31	1.81	4.18	4.77	6.04	34.48	10.58	18.42	10.70	5.31	2.4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2	4.66	7.14	11.24	9.86	32.43	14.42	10.85	4.80	1.15	0.72	388.61 6(30) ***
	중하층	0.77	1.34	4.58	6.55	6.43	34.18	17.90	15.80	9.16	2.07	1.21	
	중간층	0.28	0.90	2.10	5.01	3.43	27.21	18.02	22.39	12.91	5.45	2.31	
	중상층(상층)	0.00	1.50	1.12	6.00	2.65	14.01	12.16	23.45	21.74	11.98	5.4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1	2.03	5.14	7.58	6.45	29.49	15.29	17.09	10.15	4.09	1.46	131.66 8(40) ***
	200만 원대	0.30	1.09	2.31	7.76	3.93	30.88	17.79	18.57	11.44	4.11	1.82	
	300만 원대	0.68	1.11	2.84	3.60	5.17	33.40	18.86	19.63	9.69	3.21	1.81	
	400만 원대	0.00	0.20	1.31	3.10	5.89	24.65	23.50	22.19	15.81	2.27	1.09	
	500만 원 이상	0.29	2.92	1.70	4.23	2.36	26.64	18.35	20.57	11.39	5.73	5.81	
학력	중졸 이하	2.62	3.05	7.77	6.04	7.47	32.91	17.55	12.04	6.80	2.82	0.93	127.72 6(20) ***
	고졸	0.73	1.51	3.67	6.84	6.09	30.66	16.84	18.97	9.91	3.31	1.48	
	대졸 이상	0.28	1.27	2.44	6.28	4.10	28.16	17.40	19.73	13.00	4.87	2.4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0.39	1.33	2.88	5.03	4.24	29.05	18.28	20.65	11.69	4.30	2.15	164.35 9(50) ***
	임금근로자	2.24	2.24	3.02	8.26	6.54	32.29	17.30	13.36	11.86	2.11	0.77	
	임시·일용직	0.37	1.01	3.31	6.71	5.15	34.20	20.52	15.37	8.99	2.47	1.91	
	고용주, 자영업자	3.03	0.00	5.61	2.89	7.56	28.70	12.56	19.43	7.59	10.03	2.60	
	무급가족종사자	0.76	6.60	7.85	9.37	5.86	29.98	10.78	14.71	10.84	2.57	0.70	
비경제활동인구	0.80	1.24	4.26	7.11	6.32	26.76	14.86	20.50	10.95	5.16	2.04		
직업	관리자, 전문가	0.00	1.31	1.50	3.97	3.57	32.50	15.77	17.24	12.91	6.68	4.56	95.355 (30)***
	사무, 서비스,	0.51	1.14	3.15	6.66	4.72	29.31	19.81	19.36	10.59	3.14	1.61	
	판매 종사자	1.16	1.85	3.16	6.22	5.67	35.83	17.46	14.05	9.64	3.77	1.18	
	숙련 및 기술직	3.99	2.25	5.83	2.90	8.72	31.76	15.47	15.10	12.58	0.65	0.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0.31	1.28	2.83	4.94	4.30	28.13	18.42	21.15	12.18	4.18	2.27	52.959 (10)***
	비정규직	2.39	2.28	3.43	8.16	5.24	34.83	17.12	12.95	9.96	2.79	0.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0.54	1.94	5.01	6.26	5.09	33.85	14.86	16.68	10.27	4.29	1.21	47.000 (20)**
	중도적	0.98	1.39	3.24	6.23	6.02	30.22	17.67	17.64	10.72	3.86	2.03	
	진보적	0.62	1.68	3.07	7.30	4.36	24.43	18.76	22.05	11.86	3.70	2.17	

주: “귀하는 평소 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400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부표 3-53〉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1)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단위 :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 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df)
전체		36.23	2.69	28.59	7.30	1.01	2.74	21.46	
성별	남성	37.70	3.19	28.38	4.28	1.07	2.52	22.85	61.986(6)***
	여성	34.71	2.17	28.80	10.42	0.93	2.96	20.01	
연령	20대 이하	25.30	2.05	49.79	1.05	1.09	2.99	17.73	432.634(24)* ***
	30대	35.28	4.67	33.67	2.99	0.09	3.68	19.61	
	40대	42.66	3.52	24.08	5.86	1.06	2.50	20.33	
	50대	36.30	2.27	27.58	8.82	0.67	2.29	22.07	
	60대 이상	39.92	1.36	12.76	15.37	1.89	2.45	26.24	
지역1	수도권	41.89	2.91	25.50	7.36	1.09	3.21	18.04	76.448(6)***
	비수도권	30.33	2.46	31.80	7.23	0.92	2.25	25.01	
지역2	대도시	40.55	1.54	28.23	5.99	0.87	2.81	20.02	102.909(12)* ***
	중소도시	33.53	3.36	28.94	6.52	1.11	2.75	23.78	
	농어촌	30.12	4.59	28.35	18.22	1.05	2.31	15.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3.04	2.73	16.34	10.70	1.75	3.03	32.43	94.475(18) ***
	중하층	35.85	2.70	29.86	7.28	1.03	2.13	21.16	
	중간층	37.07	2.75	30.56	6.76	0.74	3.23	18.89	
	중상층(상층)	40.18	2.07	34.48	3.15	1.08	2.40	16.6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3.04	0.90	26.62	11.10	1.53	2.74	24.07	195.988(24)* ***
	200만 원대	34.26	4.11	33.36	4.98	1.00	2.23	20.07	
	300만 원대	40.48	5.44	28.64	2.60	0.00	3.39	19.44	
	400만 원대	45.41	2.76	27.77	3.07	0.03	2.63	18.33	
	500만 원 이상	47.23	4.88	27.75	1.97	0.51	3.16	14.50	
학력	중졸 이하	32.48	0.45	11.58	19.94	2.40	3.10	30.05	270.177(12)* ***
	고졸	33.60	3.16	31.09	7.38	0.70	2.21	21.87	
	대졸 이상	39.90	2.90	31.22	3.45	0.89	3.15	18.4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47	5.35	31.22	2.75	0.80	3.00	19.41	195.808(3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2.08	3.47	28.10	8.44	1.32	2.60	23.97	
	고용주, 자영자	40.10	1.47	25.38	11.62	0.28	2.05	19.10	
	무급가족종사자	35.41	0.00	23.00	17.72	1.85	4.75	17.28	
	실업자	36.75	0.00	29.90	3.70	3.17	3.59	22.89	
	비경제활동인구	33.58	0.49	27.83	9.56	1.18	2.65	24.72	
직업	관리자,전문가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39.42	4.90	30.63	2.50	0.71	4.09	17.76	58.896(18) ***
	숙련 및 기술직	32.27	4.78	26.69	10.00	0.48	1.53	24.24	
	단순노무 종사자	33.51	1.95	20.76	10.33	1.69	2.52	29.25	
	정규직	37.78	5.80	30.87	2.31	0.87	3.19	19.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32.05	2.07	28.23	8.67	0.92	2.60	25.46	55.881(6)***
	보수적	40.47	2.29	23.47	8.55	1.54	2.76	20.92	42.801(12) ***
이념적 성향	중도적	36.16	2.37	28.89	7.04	0.79	2.76	21.99	
	진보적	31.50	3.86	33.80	6.41	0.87	2.67	20.89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4〉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2) 큰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단위 :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 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df)
전체		29.83	1.95	25.02	1.69	0.52	5.75	35.24	
성별	남성	26.68	2.57	27.64	1.13	0.73	5.39	35.86	45.074(6)***
	여성	33.10	1.30	22.31	2.27	0.30	6.13	34.60	
연령	20대 이하	23.30	0.72	36.89	0.33	1.63	4.75	32.38	247.122(24)* ***
	30대	29.59	2.43	30.25	0.49	0.00	7.08	30.15	
	40대	32.23	3.08	26.21	0.60	0.81	6.99	30.09	
	50대	32.46	2.24	20.88	2.28	0.00	5.45	36.69	
	60대 이상	30.69	1.29	14.38	4.11	0.24	4.73	44.57	
지역1	수도권	32.23	2.53	26.49	1.41	0.67	4.99	31.68	40.882(6)***
	비수도권	27.33	1.34	23.49	1.99	0.35	6.55	38.95	
지역2	대도시	35.06	1.52	24.81	1.17	0.54	4.98	31.91	99.441(12) ***
	중소도시	24.24	1.88	26.13	1.63	0.53	6.25	39.35	
	농어촌	35.64	4.46	19.78	4.61	0.31	6.78	28.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93	1.29	11.71	1.78	0.74	2.56	55.99	180.481(18)* ***
	중하층	28.23	2.46	24.73	1.72	0.25	5.82	36.79	
	중간층	31.21	1.69	29.71	1.82	0.61	6.80	28.17	
	중상층(상층)	39.95	2.02	22.64	0.22	1.08	4.78	29.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9.99	0.68	20.49	2.62	0.72	5.81	39.69	137.573(24)* ***
	200만 원대	27.46	2.56	30.24	0.97	0.74	4.21	33.83	
	300만 원대	29.05	3.56	28.23	1.03	0.00	6.27	31.87	
	400만 원대	34.32	3.99	29.03	0.09	0.00	6.33	26.23	
	500만 원 이상	33.65	3.42	29.53	0.46	0.00	8.83	24.12	
학력	중졸 이하	28.57	1.10	10.81	4.92	0.00	3.49	51.11	196.425(12)* ***
	고졸	28.13	2.57	24.42	2.21	0.23	5.68	36.76	
	대졸 이상	31.86	1.59	29.83	0.23	0.95	6.49	29.0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03	3.43	29.39	0.31	0.47	5.66	32.71	183.496(3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16	2.23	24.13	1.80	0.49	5.71	38.49	
	고용주, 자영자	32.28	1.88	23.78	3.37	0.00	6.66	32.03	
	무급가족종사자	41.20	0.00	17.39	5.44	0.00	6.22	29.75	
	실업자	16.99	0.25	29.33	1.23	3.93	5.07	43.20	
	비경제활동인구	33.31	0.42	20.33	2.06	0.32	5.34	38.23	
직업	관리자, 전문가	31.65	3.16	30.34	0.21	1.01	12.29	21.34	119.731(18)*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9.79	2.41	29.10	1.18	0.18	5.15	32.19	
	숙련 및 기술직	27.67	2.85	19.51	3.66	0.00	5.20	41.11	
	단순노무 종사자	26.84	4.02	13.65	2.32	1.39	3.48	48.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83	3.60	29.74	0.18	0.51	5.45	32.69	25.528(6)***
	비정규직	27.70	1.33	23.71	1.40	0.46	6.84	38.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73	0.90	21.01	2.44	0.10	4.92	37.91	78.498(12) ***
	중도적	30.86	1.65	24.54	1.43	0.68	5.23	35.62	
	진보적	24.23	3.81	30.72	1.42	0.65	7.86	31.31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40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부표 3-55〉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사람: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우

(단위: %)

구분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사회 복지사 전담 공무원	기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음	χ^2 (df)
전체		10.11	3.64	68.17	5.18	0.63	1.77	10.50	
성별	남성	8.78	5.22	69.41	2.57	0.66	1.93	11.43	93.123(6)***
	여성	11.48	2.00	66.89	7.89	0.61	1.60	9.52	
연령	20대 이하	3.33	1.83	87.16	1.21	0.34	1.16	4.97	437.789(24)* ***
	30대	7.83	4.90	76.69	1.23	0.36	2.24	6.74	
	40대	11.82	6.56	66.80	2.40	1.46	1.65	9.30	
	50대	11.84	3.62	65.22	6.18	0.16	1.39	11.59	
	60대 이상	14.13	1.56	50.55	12.86	0.78	2.35	17.77	
지역1	수도권	11.25	3.40	69.86	5.34	0.90	2.27	6.98	66.188(6)***
	비수도권	8.92	3.88	66.42	5.02	0.36	1.24	14.16	
지역2	대도시	10.86	3.19	70.89	4.20	0.49	1.82	8.55	41.449(12) ***
	중소도시	9.17	4.08	67.05	5.19	0.80	1.74	11.96	
	농어촌	11.68	3.31	61.08	10.03	0.43	1.66	11.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96	3.70	47.27	9.69	1.43	2.39	22.56	205.081(18)* **
	중하층	8.50	4.27	70.04	5.63	0.47	1.28	9.80	
	중간층	9.53	3.33	73.55	3.62	0.48	2.09	7.40	
	중상층(상층)	19.10	1.40	63.97	3.26	1.08	1.10	10.0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26	1.11	65.01	7.99	1.10	1.47	13.06	202.548(24)* **
	200만 원대	9.17	4.36	71.84	2.96	0.42	1.71	9.55	
	300만 원대	9.05	8.40	70.43	2.81	0.00	2.14	7.17	
	400만 원대	13.12	7.15	68.75	2.12	0.00	1.47	7.40	
	500만 원 이상	11.31	5.31	73.77	0.42	0.00	3.76	5.43	
학력	중졸 이하	14.54	1.49	41.23	16.06	1.43	2.42	22.83	338.521(12)* **
	고졸	9.49	3.14	70.54	4.95	0.35	1.53	10.00	
	대졸 이상	9.39	4.76	73.90	2.17	0.67	1.81	7.3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46	7.34	71.36	1.86	0.43	2.34	8.20	230.071(3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4	4.41	65.30	5.79	0.64	2.43	12.58	
	고용주, 자영자	10.81	1.96	69.49	6.39	0.00	0.85	10.51	
	무급가족종사자	16.16	3.92	51.02	12.02	0.00	4.58	12.30	
	실업자	11.22	0.00	65.19	2.58	2.68	1.60	16.72	
	비경제활동인구	11.65	0.40	66.12	8.40	0.99	1.24	11.20	
직업	관리자,전문가	10.11	6.16	73.13	1.35	0.18	3.71	5.36	67.717(18) ***
	사무,서비스, 판매 종사자	9.47	4.93	71.29	3.86	0.29	1.79	8.38	
	숙련 및 기술직	8.33	6.03	63.00	6.05	0.25	1.51	14.83	
	단순노무 종사자	10.61	3.46	58.55	6.65	1.39	1.96	17.3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73	7.40	70.74	1.81	0.37	2.49	8.45	20.904(6)**
	비정규직	7.52	4.10	69.23	4.30	0.86	2.04	11.9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45	3.75	60.63	7.60	0.55	2.22	10.80	67.427(12) ***
	중도적	8.82	3.30	69.72	4.41	0.84	1.79	11.11	
	진보적	7.96	4.24	73.44	4.11	0.27	1.20	8.78	

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6〉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17.79	48.89	28.88	3.60	0.84	
성별	남성	17.33	47.54	30.42	3.76	0.96	6.171(4)
	여성	18.28	50.28	27.30	3.43	0.72	
연령	20대 이하	17.95	50.67	26.61	4.11	0.66	45.567(16)***
	30대	17.38	45.63	32.90	3.21	0.87	
	40대	16.68	48.21	30.48	3.45	1.19	
	50대	15.48	46.65	33.31	3.34	1.22	
	60대 이상	21.08	52.58	22.19	3.85	0.30	
지역1	수도권	13.81	53.17	27.89	4.14	0.99	58.496(4)***
	비수도권	21.95	44.42	29.92	3.03	0.68	
지역2	대도시	21.27	47.61	27.44	2.93	0.74	34.400(8)***
	중소도시	14.46	50.50	29.76	4.29	0.99	
	농어촌	19.49	46.04	31.09	2.93	0.4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39	41.87	33.99	6.65	2.10	54.612(12)***
	중하층	16.44	49.28	30.11	3.38	0.79	
	중간층	19.38	51.13	26.12	2.78	0.59	
	중상층(상층)	20.59	45.55	29.77	4.0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83	50.21	27.63	3.39	0.94	30.190(16)*
	200만 원대	17.42	48.55	28.70	4.86	0.47	
	300만 원대	15.33	50.67	31.02	1.87	1.11	
	400만 원대	18.69	42.73	33.70	4.36	0.52	
	500만 원 이상	23.58	42.73	28.62	3.98	1.10	
학력	중졸 이하	19.26	55.07	20.55	4.64	0.49	24.759(8)**
	고졸	16.99	47.86	30.80	3.28	1.08	
	대졸 이상	18.14	48.04	29.51	3.60	0.7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73	48.89	28.24	3.44	0.69	85.80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00	45.08	32.28	5.25	2.38	
	고용주, 자영자	15.82	45.04	35.17	3.51	0.46	
	무급가족종사자	25.93	55.66	18.41	0.00	0.00	
	실업자	9.92	47.06	35.86	5.92	1.24	
	비경제활동인구	20.20	53.20	23.05	2.94	0.61	
직업	관리자, 전문가	18.33	37.78	38.30	5.05	0.54	36.349(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31	47.53	31.13	3.80	1.22	
	숙련 및 기술직	19.32	53.41	24.69	2.22	0.36	
	단순노무 종사자	21.69	46.55	27.85	3.91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55	48.52	28.12	3.06	0.75	20.196(4)***
	비정규직	14.78	48.18	28.80	6.08	2.16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92	49.38	25.08	4.42	0.20	37.098(8)***
	중도적	16.46	50.27	29.03	3.43	0.81	
	진보적	17.14	45.26	32.95	3.02	1.63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40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부표 3-57〉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28.19	50.80	17.70	2.76	0.56	
성별	남성	27.51	51.07	18.07	2.59	0.76	4.119(4)
	여성	28.89	50.52	17.31	2.93	0.34	
연령	20대 이하	27.89	48.93	19.33	3.19	0.66	30.526(16)*
	30대	28.35	49.62	18.83	2.64	0.56	
	40대	26.89	50.34	19.54	3.09	0.14	
	50대	26.94	51.44	17.56	2.67	1.39	
	60대 이상	30.58	53.01	14.04	2.29	0.08	
지역1	수도권	25.85	52.36	17.98	3.25	0.56	13.668(4)**
	비수도권	30.63	49.17	17.41	2.24	0.55	
지역2	대도시	32.42	47.97	16.65	2.31	0.65	36.683(8)***
	중소도시	24.20	53.61	18.41	3.36	0.42	
	농어촌	29.82	48.90	18.88	1.58	0.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15	45.17	23.04	4.73	1.91	56.564(12)***
	중하층	26.74	53.00	16.84	3.06	0.36	
	중간층	30.34	50.02	17.15	2.11	0.38	
	중상층(상층)	28.67	55.79	14.67	0.88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41	52.88	16.20	2.84	0.67	27.319(16)*
	200만 원대	27.33	48.18	21.17	2.91	0.41	
	300만 원대	30.25	50.12	17.88	1.66	0.10	
	400만 원대	25.85	49.45	19.67	3.88	1.15	
	500만 원 이상	35.05	47.10	14.38	2.85	0.62	
학력	중졸 이하	28.09	54.22	13.85	3.45	0.39	18.888(8)*
	고졸	26.17	52.70	18.06	2.35	0.72	
	대졸 이상	30.18	47.94	18.49	2.95	0.4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0.14	47.97	18.66	2.82	0.41	59.82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92	50.04	20.25	2.81	1.97	
	고용주, 자영자	24.91	53.50	18.23	3.06	0.30	
	무급가족종사자	40.80	52.56	6.47	0.17	0.00	
	실업자	21.01	51.20	22.33	4.79	0.67	
	비경제활동인구	29.99	52.64	14.82	2.22	0.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7.40	46.47	22.03	3.05	1.04	31.086(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6.98	49.69	19.22	3.35	0.76	
	숙련 및 기술직	31.65	53.86	13.89	0.46	0.14	
	단순노무 종사자	29.17	49.52	17.38	3.94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45	47.99	18.30	2.82	0.44	9.257(4)
	비정규직	27.26	48.32	19.75	2.82	1.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3.05	49.40	14.77	2.76	0.02	35.648(8)***
	중도적	28.08	50.27	18.31	2.61	0.73	
	진보적	22.82	53.59	19.73	3.07	0.79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8〉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17.11	38.10	36.40	7.14	1.26	
성별	남성	16.51	37.68	36.68	8.04	1.09	6.540(4)
	여성	17.73	38.54	36.10	6.20	1.43	
연령	20대 이하	17.61	38.98	33.15	8.43	1.83	51.804(16)***
	30대	16.55	35.68	39.31	7.77	0.69	
	40대	14.85	36.06	41.68	5.91	1.51	
	50대	15.29	38.23	35.59	9.10	1.80	
	60대 이상	20.79	40.93	32.87	4.90	0.51	
지역1	수도권	17.67	36.34	37.37	7.40	1.21	5.617(4)
	비수도권	16.52	39.94	35.38	6.86	1.31	
지역2	대도시	19.95	39.24	33.83	5.73	1.26	44.843(8)***
	중소도시	14.04	36.65	39.33	8.63	1.36	
	농어촌	20.42	40.71	32.48	5.67	0.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40	35.43	34.99	12.22	2.96	79.272(12)***
	중하층	14.49	37.50	39.64	7.19	1.19	
	중간층	20.41	38.00	34.85	5.80	0.94	
	중상층(상층)	15.63	50.11	29.44	4.82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37	38.87	35.20	7.21	1.36	15.840(16)
	200만 원대	15.55	36.03	40.17	6.86	1.39	
	300만 원대	17.25	39.75	35.14	7.22	0.64	
	400만 원대	15.06	39.24	36.08	8.06	1.56	
	500만 원 이상	22.52	34.32	35.68	6.32	1.16	
학력	중졸 이하	19.99	39.96	34.16	4.88	1.02	14.179(8)
	고졸	16.28	39.17	36.13	7.45	0.97	
	대졸 이상	17.05	36.52	37.32	7.50	1.6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93	36.14	38.03	6.56	1.34	82.246(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85	37.08	36.22	8.75	2.11	
	고용주, 자영자	13.55	37.74	40.16	7.54	1.00	
	무급가족종사자	33.55	46.73	16.80	2.91	0.00	
	실업자	13.01	30.96	39.33	15.51	1.20	
	비경제활동인구	18.83	42.16	32.41	5.53	1.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4.33	34.81	39.06	9.71	2.09	43.97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38	35.64	39.88	7.59	1.51	
	숙련 및 기술직	20.42	43.87	30.94	4.22	0.54	
	단순노무 종사자	24.74	35.52	33.72	5.63	0.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8.64	35.70	37.84	6.55	1.28	6.985(4)
	비정규직	15.33	38.97	35.32	8.08	2.3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1.63	37.31	33.78	6.63	0.65	37.173(8)***
	중도적	16.35	39.35	36.53	6.44	1.33	
	진보적	13.56	36.26	39.11	9.25	1.81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59〉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12.50	37.07	40.40	8.93	1.11	
성별	남성	11.30	34.88	42.39	10.29	1.13	22.170(4)***
	여성	13.74	39.33	38.34	7.51	1.08	
연령	20대 이하	12.60	29.51	45.09	11.67	1.13	127.778(16)***
	30대	11.05	35.10	40.94	11.89	1.02	
	40대	11.13	32.57	47.19	8.56	0.56	
	50대	11.84	38.97	37.19	9.72	2.28	
	60대 이상	15.32	46.78	33.23	4.10	0.56	
지역1	수도권	10.18	36.33	42.99	9.39	1.10	25.775(4)***
	비수도권	14.91	37.84	37.69	8.44	1.12	
지역2	대도시	12.17	32.93	43.61	9.82	1.47	47.189(8)***
	중소도시	11.50	40.30	38.94	8.48	0.79	
	농어촌	19.79	39.26	32.72	7.07	1.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53	46.06	31.12	4.47	1.82	88.549(12)***
	중하층	10.61	38.82	41.33	8.92	0.31	
	중간층	13.03	32.22	43.27	10.15	1.32	
	중상층(상층)	11.34	41.39	33.75	10.25	3.2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71	43.96	34.24	5.95	1.15	170.403(16)***
	200만 원대	10.21	32.42	46.26	10.47	0.64	
	300만 원대	10.17	33.91	43.66	11.45	0.81	
	400만 원대	12.77	25.12	47.66	11.68	2.78	
	500만 원 이상	8.68	21.45	51.24	17.38	1.25	
학력	중졸 이하	16.78	52.72	26.59	3.34	0.57	124.366(8)***
	고졸	12.47	37.98	40.53	8.03	0.99	
	대졸 이상	11.25	31.52	44.38	11.46	1.3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11	28.83	46.05	12.62	1.39	152.066(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15	33.16	44.36	7.52	1.81	
	고용주, 자영자	9.91	39.09	42.60	7.81	0.60	
	무급가족종사자	14.15	46.30	36.18	3.37	0.00	
	실업자	11.53	45.40	37.99	4.75	0.33	
	비경제활동인구	15.96	45.70	30.53	6.77	1.04	
직업	관리자, 전문가	8.09	21.75	51.66	15.36	3.13	89.05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35	32.10	46.16	10.30	1.09	
	숙련 및 기술직	13.43	41.49	37.78	6.86	0.44	
	단순노무 종사자	19.75	39.97	32.79	6.98	0.5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78	28.32	45.20	13.22	1.47	22.278(4)***
	비정규직	11.70	34.29	46.42	5.80	1.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57	41.65	35.97	6.12	0.69	80.242(8)***
	중도적	11.96	36.09	42.75	7.76	1.45	
	진보적	10.16	33.95	40.31	14.74	0.85	

주: “지난 한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0〉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10.62	32.65	43.05	12.38	1.30	
성별	남성	9.31	31.80	45.02	12.41	1.45	11.907(4)*
	여성	11.98	33.53	41.01	12.35	1.13	
연령	20대 이하	9.29	27.94	45.85	15.90	1.01	72.213(16)***
	30대	10.97	29.86	43.67	14.30	1.20	
	40대	8.67	30.52	46.80	12.69	1.32	
	50대	11.65	33.07	40.93	11.99	2.36	
	60대 이상	12.18	40.01	39.01	8.21	0.59	
지역1	수도권	8.92	31.96	44.06	13.56	1.50	18.483(4)**
	비수도권	12.39	33.38	42.01	11.15	1.08	
지역2	대도시	10.69	26.87	45.55	14.88	2.01	69.512(8)***
	중소도시	9.87	36.82	41.92	10.71	0.69	
	농어촌	14.53	37.69	37.12	9.47	1.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54	36.02	38.59	6.93	1.92	56.092(12)***
	중하층	9.43	34.20	43.67	11.83	0.86	
	중간층	10.08	30.67	43.96	14.01	1.28	
	중상층(상층)	8.49	29.25	42.53	16.79	2.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27	36.66	40.14	9.62	1.31	94.000(16)***
	200만 원대	8.29	31.94	45.70	13.29	0.77	
	300만 원대	10.14	29.26	44.35	15.49	0.76	
	400만 원대	8.06	27.93	43.35	17.62	3.04	
	500만 원 이상	10.09	17.64	52.83	17.13	2.30	
학력	중졸 이하	15.32	44.79	33.87	5.84	0.18	103.713(8)***
	고졸	9.21	34.49	43.65	11.34	1.30	
	대졸 이상	10.58	27.26	45.21	15.33	1.6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20	28.57	44.67	15.09	1.47	65.332(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47	30.95	43.41	13.54	1.63	
	고용주, 자영자	8.72	33.51	43.50	13.40	0.87	
	무급가족종사자	12.38	48.29	33.35	5.98	0.00	
	실업자	6.45	38.05	45.26	9.93	0.31	
	비경제활동동인구	13.30	35.91	40.72	8.55	1.52	
직업	관리자, 전문가	7.26	16.06	52.15	22.30	2.23	83.40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86	31.50	42.70	14.52	1.42	
	숙련 및 기술직	10.55	38.36	43.07	7.45	0.57	
	단순노무 종사자	13.61	33.72	39.86	12.70	0.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31	28.10	44.83	15.17	1.59	6.132(4)
	비정규직	11.23	33.47	40.63	13.14	1.5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95	34.25	42.28	8.80	0.71	51.292(8)***
	중도적	9.48	32.31	44.52	12.07	1.62	
	진보적	9.29	31.56	40.70	17.19	1.25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1〉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8.87	32.60	40.88	15.13	2.51	
성별	남성	8.00	31.67	41.06	16.46	2.81	10.594(4)*
	여성	9.77	33.57	40.70	13.75	2.21	
연령	20대 이하	8.07	25.48	43.12	21.46	1.87	93.980(16)***
	30대	8.62	30.07	46.04	12.69	2.57	
	40대	5.49	32.08	42.13	16.96	3.35	
	50대	10.47	34.25	38.30	13.94	3.04	
	60대 이상	11.19	39.14	36.50	11.41	1.76	
지역1	수도권	7.43	32.67	41.91	15.19	2.80	11.674(4)*
	비수도권	10.37	32.53	39.82	15.07	2.21	
지역2	대도시	9.24	28.72	42.16	15.80	4.08	61.303(8)***
	중소도시	7.94	35.47	40.86	14.77	0.96	
	농어촌	12.30	35.62	34.74	13.80	3.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97	37.76	36.65	8.34	2.29	100.735(12)***
	중하층	9.45	35.35	39.45	12.88	2.87	
	중간층	7.08	29.73	42.73	18.28	2.18	
	중상층(상층)	3.85	23.39	46.78	22.70	3.2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87	36.47	38.25	11.43	2.98	123.501(16)***
	200만 원대	6.87	32.64	44.19	14.75	1.54	
	300만 원대	7.22	30.44	40.56	19.86	1.92	
	400만 원대	9.30	19.47	46.08	22.67	2.48	
	500만 원 이상	3.80	22.79	44.42	25.19	3.79	
학력	중졸 이하	13.16	45.04	34.78	6.59	0.44	101.795(8)***
	고졸	9.05	33.11	40.54	14.81	2.50	
	대졸 이상	7.42	28.42	43.04	17.98	3.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85	27.65	42.32	19.79	2.39	104.848(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1	28.60	47.34	13.85	3.50	
	고용주, 자영자	6.94	36.28	40.92	13.81	2.05	
	무급가족종사자	11.45	47.91	23.59	9.41	7.65	
	실업자	12.02	36.77	38.57	11.16	1.48	
	비경제활동인구	11.72	36.23	37.84	11.78	2.43	
직업	관리자, 전문가	5.84	16.31	48.48	26.17	3.20	67.313(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19	32.27	41.22	16.41	2.92	
	숙련 및 기술직	9.87	34.36	40.69	13.26	1.83	
	단순노무 종사자	6.85	35.93	44.95	11.38	0.8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42	26.92	42.52	19.85	2.30	13.456(4)**
	비정규직	5.98	30.81	45.31	14.31	3.5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86	37.94	36.96	12.16	2.09	52.810(8)***
	중도적	7.81	30.86	43.63	14.56	3.13	
	진보적	8.91	30.30	39.34	19.80	1.65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2〉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6.95	30.23	45.12	15.89	1.81	
성별	남성	6.20	30.20	45.38	16.30	1.92	3.933(4)
	여성	7.74	30.26	44.84	15.47	1.70	
연령	20대 이하	5.44	23.19	46.35	23.75	1.26	89.775(16)***
	30대	6.37	28.25	46.98	16.10	2.30	
	40대	6.89	27.38	47.67	16.60	1.46	
	50대	6.79	34.31	43.00	13.53	2.37	
	60대 이상	8.81	36.08	42.43	11.01	1.66	
지역1	수도권	5.71	31.92	45.29	15.43	1.65	14.032(4)**
	비수도권	8.25	28.47	44.94	16.37	1.98	
지역2	대도시	6.40	25.37	48.49	17.32	2.42	47.021(8)***
	중소도시	7.07	34.18	42.61	15.00	1.14	
	농어촌	9.06	31.91	42.62	13.80	2.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29	40.14	33.27	9.05	2.25	178.993(12)***
	중하층	6.65	33.40	43.90	14.55	1.49	
	중간층	5.23	25.43	49.87	17.54	1.93	
	중상층(상층)	2.02	21.64	44.96	29.37	2.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41	33.30	41.94	14.69	1.66	59.653(16)***
	200만 원대	5.94	28.52	50.25	13.97	1.32	
	300만 원대	6.09	26.87	47.74	16.84	2.45	
	400만 원대	3.46	25.33	46.61	21.88	2.71	
	500만 원 이상	5.38	26.09	43.67	22.75	2.11	
학력	중졸 이하	11.37	41.53	36.89	8.83	1.38	86.684(8)***
	고졸	7.03	29.90	46.61	14.71	1.74	
	대졸 이상	5.57	27.19	46.11	19.13	2.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22	26.31	46.71	19.67	2.09	80.853(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7	27.92	49.18	13.85	2.27	
	고용주, 자영자	8.06	32.61	45.83	12.16	1.33	
	무급가족종사자	17.03	33.82	39.35	8.93	0.87	
	실업자	9.25	44.12	34.95	11.49	0.18	
	비경제활동인구	7.34	31.61	43.16	15.91	1.98	
직업	관리자, 전문가	5.10	16.98	50.62	24.59	2.72	56.972(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51	28.65	47.64	15.21	1.98	
	숙련 및 기술직	7.96	32.23	43.37	15.36	1.08	
	단순노무 종사자	6.91	41.43	38.60	11.74	1.3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40	25.45	47.70	19.45	2.00	9.412(4)
	비정규직	6.81	30.42	45.03	15.04	2.69	
이념적 성향	보수적	8.89	32.62	44.04	13.41	1.05	30.437(8)***
	중도적	6.81	29.09	45.66	16.00	2.44	
	진보적	5.06	29.99	45.16	18.50	1.29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3〉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6.33	26.36	43.07	20.62	3.61	
성별	남성	5.47	26.76	42.93	21.06	3.79	5.768(4)
	여성	7.23	25.95	43.22	20.18	3.43	
연령	20대 이하	4.48	24.91	39.23	29.02	2.36	74.269(16)***
	30대	6.80	24.52	45.05	18.66	4.98	
	40대	4.19	24.05	48.40	19.91	3.45	
	50대	7.54	26.98	42.13	19.25	4.11	
	60대 이상	8.24	30.38	40.81	17.32	3.25	
지역1	수도권	5.78	25.62	43.26	21.22	4.12	6.690(4)
	비수도권	6.91	27.13	42.88	20.00	3.08	
지역2	대도시	5.76	19.89	45.08	24.12	5.15	97.841(8)***
	중소도시	6.80	31.48	42.18	17.57	1.97	
	농어촌	6.50	29.40	38.19	20.65	5.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11	35.24	35.36	12.06	3.23	153.117(12)***
	중하층	5.67	29.12	42.69	18.54	3.96	
	중간층	4.98	21.95	45.96	24.01	3.10	
	중상층(상층)	2.34	20.14	41.76	29.58	6.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26	29.76	40.94	18.21	3.83	69.443(16)***
	200만 원대	6.14	23.73	47.78	19.77	2.59	
	300만 원대	4.47	26.31	40.51	24.29	4.42	
	400만 원대	4.99	22.35	46.19	23.65	2.82	
	500만 원 이상	5.77	14.07	45.46	30.16	4.54	
학력	중졸 이하	8.57	36.42	38.34	13.94	2.73	65.685(8)***
	고졸	6.64	27.82	42.18	19.73	3.63	
	대졸 이상	5.38	21.95	45.35	23.48	3.8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77	23.60	44.25	23.54	3.84	51.759(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1	22.41	45.41	23.03	3.03	
	고용주, 자영자	8.02	28.45	42.80	17.26	3.47	
	무급가족종사자	11.98	31.52	35.29	14.31	6.90	
	실업자	9.45	32.75	38.02	16.95	2.84	
	비경제활동인구	6.23	28.54	42.26	19.39	3.58	
직업	관리자, 전문가	4.93	15.01	50.33	23.58	6.16	40.70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23	24.97	43.33	21.83	3.64	
	숙련 및 기술직	6.84	31.76	41.07	17.85	2.49	
	단순노무 종사자	5.43	25.71	43.06	23.25	2.5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90	22.93	44.85	23.66	3.65	2.255(4)
	비정규직	6.08	24.80	42.15	23.03	3.94	
이념적 성향	보수적	8.10	25.53	46.16	17.96	2.25	38.659(8)***
	중도적	5.75	27.01	40.37	21.98	4.88	
	진보적	5.58	25.89	45.48	20.70	2.36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4〉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23.84	45.64	25.39	4.46	0.67	
성별	남성	21.91	45.90	26.82	4.71	0.67	10.253(4)*
	여성	25.84	45.37	23.92	4.20	0.67	
연령	20대 이하	26.73	45.05	22.10	5.71	0.41	74.899(16)***
	30대	28.57	44.25	21.77	4.45	0.96	
	40대	18.14	45.96	30.60	5.03	0.28	
	50대	20.81	43.14	29.85	4.82	1.37	
	60대 이상	25.78	49.16	22.07	2.63	0.35	
지역1	수도권	21.15	47.82	25.58	4.79	0.65	17.730(4)**
	비수도권	26.65	43.36	25.19	4.11	0.69	
지역2	대도시	27.60	44.01	23.54	4.17	0.69	32.238(8)***
	중소도시	19.94	47.55	27.01	4.83	0.67	
	농어촌	27.39	42.85	25.39	3.81	0.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96	41.36	30.98	4.48	2.23	49.468(12)***
	중하층	23.75	45.01	25.28	5.70	0.26	
	중간층	25.09	47.10	23.75	3.43	0.63	
	중상층(상층)	21.60	49.00	25.44	3.96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10	43.53	24.13	4.34	0.90	49.163(16)***
	200만 원대	20.15	50.49	24.92	3.83	0.61	
	300만 원대	22.21	48.52	24.71	4.48	0.07	
	400만 원대	20.41	42.95	31.80	4.02	0.82	
	500만 원 이상	19.48	41.11	31.06	8.01	0.33	
학력	중졸 이하	25.01	50.83	19.89	3.29	0.98	17.878(8)*
	고졸	24.48	45.45	25.26	4.15	0.66	
	대졸 이상	22.88	44.27	27.16	5.11	0.5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07	46.56	26.04	3.86	0.46	69.15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9.95	44.84	27.17	6.39	1.65	
	고용주, 자영자	20.38	45.05	29.46	4.64	0.46	
	무급가족종사자	38.38	43.31	18.30	0.00	0.00	
	실업자	21.15	42.65	25.79	9.39	1.02	
	비경제활동인구	28.56	45.96	21.24	3.60	0.64	
직업	관리자, 전문가	19.11	43.82	29.37	6.25	1.45	34.260(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16	45.04	28.67	4.48	0.65	
	숙련 및 기술직	27.63	48.62	21.18	2.32	0.24	
	단순노무 종사자	22.56	48.24	22.61	6.25	0.3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06	46.89	25.98	3.68	0.38	16.722(4)**
	비정규직	21.80	44.93	24.78	6.63	1.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09	45.61	22.59	4.50	0.21	35.460(8)***
	중도적	24.98	44.78	25.17	4.31	0.76	
	진보적	17.59	47.57	29.10	4.74	1.00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41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부표 3-65〉 지난 한 달간 감정 상태: (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χ^2 (df)
전체		27.82	49.73	18.89	2.77	0.79	
성별	남성	26.76	50.54	19.15	2.83	0.72	2.760(4)
	여성	28.92	48.89	18.61	2.72	0.86	
연령	20대 이하	30.51	48.85	15.75	3.63	1.26	55.862(16)***
	30대	31.76	51.20	14.42	2.39	0.23	
	40대	23.47	49.33	23.93	2.55	0.73	
	50대	25.66	48.22	21.58	2.98	1.56	
	60대 이상	28.53	51.06	17.83	2.40	0.19	
지역1	수도권	21.22	53.49	21.54	2.95	0.80	91.149(4)***
	비수도권	34.70	45.81	16.11	2.59	0.79	
지역2	대도시	31.21	49.70	16.23	2.19	0.67	39.737(8)***
	중소도시	24.03	50.68	21.05	3.43	0.81	
	농어촌	32.52	44.49	19.75	1.96	1.2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12	44.96	28.14	3.25	2.52	77.619(12)***
	중하층	28.58	49.21	18.19	3.53	0.49	
	중간층	28.98	51.99	16.21	2.21	0.61	
	중상층(상층)	29.93	47.10	22.18	0.79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0.09	48.24	17.18	3.33	1.16	46.651(16)***
	200만 원대	22.35	53.39	22.30	1.76	0.19	
	300만 원대	28.38	51.13	18.16	2.19	0.15	
	400만 원대	28.49	48.01	18.74	3.94	0.82	
	500만 원 이상	27.46	46.98	21.96	2.08	1.52	
학력	중졸 이하	26.26	53.02	17.98	2.16	0.58	4.492(8)
	고졸	28.79	48.78	18.64	2.87	0.92	
	대졸 이상	27.35	49.67	19.39	2.87	0.7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6.68	51.03	19.99	1.79	0.51	76.389(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36	45.35	21.62	3.32	2.35	
	고용주, 자영자	24.46	50.82	21.52	2.58	0.62	
	무급가족종사자	35.97	54.16	8.55	1.33	0.00	
	실업자	23.38	45.97	23.38	5.79	1.49	
	비경제활동인구	32.24	49.59	14.19	3.46	0.52	
직업	관리자, 전문가	27.43	42.07	25.74	3.20	1.57	45.715(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4.79	50.72	21.05	2.40	1.03	
	숙련 및 기술직	32.60	52.69	13.95	0.76	0.00	
	단순노무 종사자	22.13	52.34	22.04	3.49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96	51.31	19.45	1.84	0.44	19.360(4)**
	비정규직	27.41	45.34	21.61	3.14	2.50	
이념적 성향	보수적	29.96	49.91	17.52	2.37	0.24	34.391(8)***
	중도적	29.56	47.05	19.26	3.21	0.91	
	진보적	21.52	55.43	19.62	2.27	1.16	

주: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께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6〉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77.31	18.97	2.82	0.90	
성별	남성	79.56	18.02	1.91	0.51	23.874(3)***
	여성	74.97	19.96	3.77	1.30	
연령	20대 이하	82.82	14.66	2.35	0.17	92.161(12)***
	30대	82.82	15.03	2.05	0.09	
	40대	79.44	16.99	2.39	1.17	
	50대	76.59	19.06	3.69	0.67	
	60대 이상	67.54	27.05	3.35	2.06	
지역1	수도권	77.84	18.78	2.07	1.31	16.145(3)**
	비수도권	76.75	19.18	3.60	0.47	
지역2	대도시	79.01	16.64	3.07	1.28	23.042(6)**
	중소도시	75.73	21.30	2.32	0.65	
	농어촌	77.80	17.35	4.42	0.4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0.50	28.84	7.95	2.70	148.966(9)***
	중하층	77.10	19.51	2.88	0.51	
	중간층	82.18	15.69	1.34	0.79	
	중상층(상층)	81.67	16.90	1.43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1.23	22.59	4.70	1.48	111.559(12)***
	200만 원대	81.39	17.29	0.98	0.34	
	300만 원대	86.06	12.56	1.07	0.31	
	400만 원대	82.24	16.20	1.56	0.00	
	500만 원 이상	83.57	15.27	0.35	0.81	
학력	중졸 이하	62.02	29.36	5.63	2.99	108.970(6)***
	고졸	77.10	19.04	3.10	0.76	
	대졸 이상	82.06	15.81	1.71	0.4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56	14.98	1.13	0.33	131.160(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0.42	24.55	3.92	1.11	
	고용주, 자영자	78.61	18.34	2.60	0.46	
	무급가족종사자	84.06	11.19	4.75	0.00	
	실업자	57.01	33.81	8.40	0.78	
	비경제활동인구	74.78	19.81	3.46	1.95	
직업	관리자, 전문가	79.20	18.12	2.14	0.54	75.439(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0.46	17.00	2.39	0.15	
	숙련 및 기술직	83.31	14.95	1.50	0.24	
	단순노무 종사자	64.97	28.98	1.41	4.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4.14	14.60	0.95	0.30	45.886(3)***
	비정규직	71.41	23.48	3.94	1.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74.21	21.77	3.42	0.60	14.067(6)*
	중도적	78.24	17.88	2.69	1.19	
	진보적	78.82	18.17	2.41	0.60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4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 -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부표 3-67〉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2) 비교적 잘 지냈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3.39	8.72	27.05	60.84	
성별	남성	3.18	8.44	26.43	61.95	2.510(3)
	여성	3.61	9.01	27.69	59.69	
연령	20대 이하	1.94	6.27	26.10	65.69	44.934(12)***
	30대	1.98	5.33	28.24	64.44	
	40대	3.84	10.70	25.14	60.32	
	50대	4.01	10.05	27.30	58.64	
	60대 이상	4.63	10.28	28.35	56.73	
지역1	수도권	3.78	7.37	27.84	61.01	11.850(3)**
	비수도권	2.97	10.14	26.23	60.66	
지역2	대도시	4.91	8.10	24.88	62.11	32.490(6)***
	중소도시	2.02	9.03	28.11	60.84	
	농어촌	3.60	10.05	31.80	54.5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7.81	19.82	25.77	46.60	179.288(9)***
	중하층	2.64	10.07	27.50	59.79	
	중간층	2.76	5.01	26.80	65.44	
	중상층(상층)	2.59	1.27	29.19	66.9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3	11.78	29.71	54.58	105.878(12)***
	200만 원대	3.53	6.01	28.12	62.35	
	300만 원대	1.75	6.58	24.80	66.87	
	400만 원대	3.50	4.56	20.84	71.11	
	500만 원 이상	2.44	4.56	15.15	77.85	
학력	중졸 이하	4.00	14.23	30.62	51.15	54.491(6)***
	고졸	4.08	8.97	28.31	58.64	
	대졸 이상	2.53	6.84	24.76	65.8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2	5.23	26.13	66.72	97.185(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97	11.51	26.97	55.55	
	고용주, 자영자	3.90	8.96	25.86	61.28	
	무급가족종사자	1.36	6.35	17.83	74.46	
	실업자	4.67	15.76	37.16	42.42	
	비경제활동인구	3.68	10.65	27.79	57.89	
직업	관리자, 전문가	3.33	8.55	25.00	63.12	32.873(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34	7.13	24.96	64.56	
	숙련 및 기술직	1.61	4.97	29.66	63.76	
	단순노무 종사자	5.87	15.37	27.15	51.6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1.98	4.72	25.53	67.78	
비정규직	4.79	10.81	28.15	56.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21	9.06	29.10	58.63	8.741(6)
	중도적	3.54	8.79	25.06	62.60	
	진보적	3.24	8.18	29.09	59.48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8〉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3) 상당히 우울했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78.34	17.17	3.52	0.97	
성별	남성	80.18	15.79	3.22	0.80	8.651(3)*
	여성	76.43	18.60	3.82	1.15	
연령	20대 이하	84.17	12.78	2.15	0.91	35.401(12)***
	30대	80.58	15.83	2.52	1.07	
	40대	77.51	17.47	4.07	0.95	
	50대	75.58	18.08	5.01	1.33	
	60대 이상	75.29	20.58	3.50	0.64	
지역1	수도권	78.21	17.84	2.81	1.14	8.503(3)*
	비수도권	78.48	16.47	4.25	0.80	
지역2	대도시	79.62	16.04	2.85	1.48	16.874(6)*
	중소도시	77.69	17.96	3.77	0.58	
	농어촌	75.66	18.29	5.38	0.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7.62	29.97	9.53	2.89	204.855(9)***
	중하층	77.62	18.63	3.21	0.54	
	중간층	84.67	12.23	2.23	0.87	
	중상층(상층)	84.43	14.63	0.94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3.36	20.64	4.50	1.49	68.350(12)***
	200만 원대	81.25	14.70	3.45	0.60	
	300만 원대	83.47	14.36	1.87	0.30	
	400만 원대	86.77	11.86	0.99	0.38	
	500만 원 이상	84.75	11.81	2.93	0.50	
학력	중졸 이하	69.16	24.87	5.13	0.83	45.572(6)***
	고졸	77.44	17.31	3.81	1.43	
	대졸 이상	81.95	14.74	2.75	0.5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4.88	12.86	1.64	0.63	131.247(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2.24	20.54	4.34	2.89	
	고용주, 자영자	77.67	16.91	4.93	0.49	
	무급가족종사자	84.92	12.17	1.58	1.33	
	실업자	57.98	30.69	10.10	1.23	
	비경제활동인구	76.57	19.17	3.41	0.85	
직업	관리자, 전문가	78.95	16.87	3.51	0.68	17.379(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9.77	15.94	3.16	1.13	
	숙련 및 기술직	85.98	11.77	1.89	0.36	
	단순노무 종사자	76.75	16.56	4.39	2.2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85.34	12.30	1.73	0.63	
이념적 성향	보수적	76.26	18.89	4.21	0.64	7.901(6)
	중도적	78.71	17.07	3.20	1.02	
	진보적	79.93	15.40	3.43	1.24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69〉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66.98	26.37	5.53	1.11	
성별	남성	67.95	26.13	4.96	0.96	3.796(3)
	여성	65.98	26.61	6.13	1.27	
연령	20대 이하	71.51	24.99	3.10	0.40	30.689(12)**
	30대	69.72	24.19	5.76	0.33	
	40대	66.20	26.29	6.29	1.22	
	50대	64.81	27.21	6.40	1.58	
	60대 이상	64.00	28.40	5.84	1.76	
지역1	수도권	67.15	26.74	4.76	1.35	6.707(3)
	비수도권	66.81	25.98	6.34	0.87	
지역2	대도시	69.73	24.23	4.68	1.36	16.771(6)*
	중소도시	64.32	28.61	6.13	0.94	
	농어촌	68.45	24.28	6.40	0.8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58	38.52	12.74	3.16	205.129(9)***
	중하층	64.58	29.48	5.07	0.87	
	중간층	75.15	19.83	4.26	0.76	
	중상층(상층)	71.79	26.75	0.99	0.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3.91	27.22	7.37	1.51	68.680(12)***
	200만 원대	66.07	28.70	4.63	0.60	
	300만 원대	69.59	27.36	2.79	0.26	
	400만 원대	77.03	18.36	4.22	0.38	
	500만 원 이상	76.24	18.47	2.56	2.72	
학력	중졸 이하	57.02	33.52	7.64	1.82	36.954(6)***
	고졸	65.97	27.06	5.85	1.12	
	대졸 이상	70.93	23.57	4.60	0.8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1.55	24.54	2.98	0.93	78.574(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0.56	28.94	8.60	1.91	
	고용주, 자영자	62.24	30.47	6.51	0.78	
	무급가족종사자	67.33	30.33	2.34	0.00	
	실업자	52.55	35.60	10.15	1.70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70.10	22.58	6.11	1.21	12.173(9)
	관리자, 전문가	65.43	27.39	6.20	0.97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7.20	26.67	5.01	1.12	
	숙련 및 기술직	69.31	26.94	3.31	0.45	
	단순노무 종사자	59.05	32.28	6.66	2.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2.17	23.81	3.07	0.96	22.289(3)***
	비정규직	62.49	28.83	6.83	1.8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7.47	23.86	8.12	0.56	24.714(6)***
	중도적	66.70	27.24	4.63	1.43	
	진보적	67.06	27.33	4.56	1.05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0〉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62.80	29.30	6.33	1.56	
성별	남성	65.99	27.43	5.32	1.26	20.398(3)***
	여성	59.51	31.24	7.38	1.87	
연령	20대 이하	76.41	19.18	3.24	1.17	171.558(12)***
	30대	70.12	23.12	5.71	1.05	
	40대	63.82	28.21	6.79	1.18	
	50대	60.92	31.06	6.13	1.89	
	60대 이상	47.29	41.35	9.04	2.32	
지역1	수도권	64.49	28.87	5.07	1.57	12.232(3)**
	비수도권	61.05	29.74	7.65	1.56	
지역2	대도시	65.78	27.66	4.82	1.74	22.757(6)**
	중소도시	59.97	31.34	7.38	1.30	
	농어촌	64.14	25.80	7.89	2.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3.56	38.57	12.69	5.19	176.133(9)***
	중하층	63.51	29.24	6.38	0.86	
	중간층	69.40	25.00	4.47	1.14	
	중상층(상층)	52.73	41.30	5.09	0.8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5.69	33.91	8.03	2.36	98.780(12)***
	200만 원대	67.89	27.14	4.27	0.70	
	300만 원대	72.71	21.31	5.31	0.67	
	400만 원대	70.68	24.15	3.96	1.21	
	500만 원 이상	67.38	26.05	5.64	0.94	
학력	중졸 이하	44.65	41.22	10.94	3.19	102.907(6)***
	고졸	62.94	29.11	6.04	1.91	
	대졸 이상	68.08	25.93	5.25	0.7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71.90	23.10	4.11	0.89	118.414(15)***
	임금근로자	59.01	30.64	6.02	4.34	
	임시·일용직	56.91	33.69	8.35	1.05	
	임금근로자	60.42	32.82	6.77	0.00	
	고용주, 자영자	51.81	33.13	12.87	2.19	
	무급가족종사자	59.26	32.57	6.58	1.59	
직업	관리자, 전문가	61.97	27.89	8.88	1.26	38.596(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4.91	28.37	5.10	1.62	
	숙련 및 기술직	71.26	23.80	4.84	0.11	
	단순노무 종사자	54.32	32.35	8.24	5.0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2.92	21.97	4.20	0.91	43.374(3)***
	비정규직	59.45	32.40	4.29	3.8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7.14	34.19	7.51	1.16	25.819(6)***
	중도적	63.90	28.28	6.11	1.71	
	진보적	66.91	25.92	5.47	1.70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1〉 지난 일주일 간 부정적 경험: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81.11	15.02	2.78	1.09	
성별	남성	81.80	14.51	2.73	0.97	1.738(3)
	여성	80.40	15.55	2.83	1.22	
연령	20대 이하	89.19	7.95	2.06	0.80	71.170(12)***
	30대	85.11	12.74	1.44	0.71	
	40대	80.20	15.50	3.41	0.88	
	50대	78.59	16.97	2.78	1.65	
	60대 이상	74.77	20.16	3.79	1.29	
지역1	수도권	79.93	15.96	2.84	1.28	4.680(3)
	비수도권	82.34	14.05	2.71	0.90	
지역2	대도시	83.67	12.62	2.29	1.41	20.150(6)**
	중소도시	79.20	16.92	3.12	0.76	
	농어촌	79.27	16.15	3.19	1.3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9.06	30.42	6.88	3.64	249.728(9)***
	중하층	80.09	16.45	3.00	0.46	
	중간층	88.38	9.10	1.58	0.95	
	중상층(상층)	85.03	14.16	0.55	0.2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7.35	17.73	3.50	1.41	55.011(12)***
	200만 원대	82.47	15.35	1.54	0.64	
	300만 원대	85.51	10.92	2.58	0.99	
	400만 원대	85.63	12.52	1.49	0.37	
	500만 원 이상	89.77	5.50	3.45	1.28	
학력	중졸 이하	69.53	23.82	4.59	2.06	82.062(6)***
	고졸	79.33	16.64	2.85	1.19	
	대졸 이상	86.29	10.83	2.17	0.7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17	10.90	2.29	0.65	100.018(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4.31	19.47	3.16	3.06	
	고용주, 자영자	80.26	16.00	2.35	1.39	
	무급가족종사자	85.69	12.91	1.41	0.00	
	실업자	63.02	28.55	6.97	1.46	
	비경제활동인구	81.38	15.21	2.82	0.60	
직업	관리자, 전문가	80.95	13.63	4.92	0.50	43.094(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2.44	13.98	2.55	1.03	
	숙련 및 기술직	86.11	11.93	0.56	1.41	
	단순노무 종사자	73.95	19.58	1.68	4.7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06	10.92	2.38	0.64	22.152(3)***
	비정규직	78.92	15.42	2.88	2.78	
이념적 성향	보수적	78.92	17.16	3.15	0.78	8.535(6)
	중도적	82.00	14.32	2.42	1.26	
	진보적	81.67	14.11	3.13	1.09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2〉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6.13	10.12	28.59	55.15	
성별	남성	6.36	9.50	28.48	55.66	2.093(3)
	여성	5.90	10.77	28.70	54.63	
연령	20대 이하	3.94	8.28	28.17	59.61	36.438(12)***
	30대	6.05	6.78	30.01	57.16	
	40대	6.18	11.96	26.23	55.63	
	50대	7.57	10.38	27.83	54.22	
	60대 이상	6.58	12.26	30.63	50.52	
지역1	수도권	6.68	9.30	27.81	56.21	6.524(3)
	비수도권	5.56	10.99	29.40	54.05	
지역2	대도시	6.69	9.66	27.09	56.56	14.678(6)*
	중소도시	5.73	10.53	28.53	55.22	
	농어촌	5.70	10.12	36.41	47.7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3	22.19	28.34	37.05	199.724(9)***
	중하층	5.61	10.84	30.56	52.99	
	중간층	4.68	6.57	27.26	61.49	
	중상층(상층)	5.70	3.37	26.12	64.8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57	13.35	30.04	50.04	119.745(12)***
	200만 원대	6.63	6.24	32.43	54.70	
	300만 원대	3.35	8.74	27.21	60.70	
	400만 원대	9.47	5.34	22.81	62.39	
	500만 원 이상	3.78	7.61	13.82	74.78	
학력	중졸 이하	6.34	14.16	32.85	46.64	51.121(6)***
	고졸	6.28	11.39	30.32	52.01	
	대졸 이상	5.93	7.69	25.65	60.7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56	7.41	28.09	59.95	74.44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83	11.87	29.50	51.80	
	고용주, 자영자	8.02	10.86	25.89	55.23	
	무급가족종사자	4.72	8.23	26.44	60.62	
	실업자	11.92	17.87	34.12	36.08	
	비경제활동인구	5.47	10.96	29.86	53.72	
직업	관리자, 전문가	6.83	10.83	22.03	60.31	25.909(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00	8.95	27.33	57.72	
	숙련 및 기술직	5.55	6.60	30.61	57.25	
	단순노무 종사자	4.68	16.18	33.86	45.2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7	7.38	27.31	60.94	15.902(3)**
	비정규직	6.55	10.74	31.54	51.17	
이념적 성향	보수적	5.86	10.60	31.36	52.18	10.344(6)
	중도적	6.18	10.24	26.53	57.05	
	진보적	6.34	9.33	29.95	54.38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3〉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91.43	6.80	1.42	0.35	
성별	남성	91.51	6.61	1.59	0.30	1.464(3)
	여성	91.34	7.00	1.25	0.41	
연령	20대 이하	93.07	5.77	0.22	0.94	24.438(12)*
	30대	92.50	6.17	1.06	0.26	
	40대	90.63	7.49	1.88	0.00	
	50대	90.48	7.22	2.09	0.20	
	60대 이상	90.88	7.10	1.63	0.40	
지역1	수도권	91.42	6.75	1.43	0.40	0.246(3)
	비수도권	91.43	6.85	1.41	0.30	
지역2	대도시	93.20	5.60	1.02	0.18	19.017(6)**
	중소도시	90.62	7.15	1.71	0.51	
	농어촌	87.18	10.77	1.75	0.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3.90	13.17	2.53	0.40	63.232(9)***
	중하층	90.58	7.02	1.86	0.54	
	중간층	94.11	4.98	0.70	0.21	
	중상층(상층)	94.65	3.99	1.36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0.20	7.56	1.93	0.30	19.050(12)
	200만 원대	92.35	5.81	1.13	0.72	
	300만 원대	93.62	5.83	0.55	0.00	
	400만 원대	92.28	6.26	1.03	0.43	
	500만 원 이상	91.47	7.35	0.99	0.18	
학력	중졸 이하	89.08	8.95	1.70	0.27	7.423(6)
	고졸	91.96	6.41	1.16	0.46	
	대졸 이상	91.60	6.54	1.59	0.2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2.29	6.48	0.95	0.28	47.67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9.05	8.19	1.82	0.94	
	고용주, 자영자	92.49	5.27	1.77	0.46	
	무급가족종사자	90.35	8.62	1.03	0.00	
	실업자	81.73	13.05	4.89	0.32	
	비경제활동인구	92.55	6.36	0.95	0.13	
직업	관리자, 전문가	90.26	7.37	2.37	0.00	14.739(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1.49	7.04	1.01	0.46	
	숙련 및 기술직	93.80	4.44	1.18	0.58	
	단순노무 종사자	91.01	5.16	3.06	0.7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2.80	5.92	0.98	0.31	6.075(3)
	비정규직	89.60	7.90	1.62	0.89	
이념적 성향	보수적	90.32	7.57	1.89	0.22	6.017(6)
	중도적	92.00	6.51	1.09	0.40	
	진보적	91.42	6.55	1.63	0.40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4〉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9) 마음이 슬펐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82.01	14.58	2.62	0.79	
성별	남성	83.78	13.31	2.26	0.65	9.047(3)*
	여성	80.18	15.89	2.99	0.94	
연령	20대 이하	86.73	11.29	1.15	0.82	38.308(12)***
	30대	85.58	12.10	1.83	0.49	
	40대	80.93	15.30	3.19	0.58	
	50대	80.76	14.64	3.40	1.20	
	60대 이상	77.66	18.37	3.17	0.81	
지역1	수도권	80.59	15.44	2.99	0.98	6.832(3)
	비수도권	83.49	13.68	2.23	0.60	
지역2	대도시	84.48	12.31	2.34	0.87	18.848(6)**
	중소도시	80.84	15.57	2.85	0.74	
	농어촌	76.40	20.22	2.72	0.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4.81	26.38	6.48	2.33	164.775(9)***
	중하층	81.55	14.96	2.79	0.70	
	중간층	88.02	10.04	1.45	0.49	
	중상층(상층)	79.82	19.05	1.14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7.98	17.39	3.46	1.17	56.882(12)***
	200만 원대	84.98	13.43	1.27	0.33	
	300만 원대	85.62	12.31	1.65	0.42	
	400만 원대	87.99	8.64	3.22	0.15	
	500만 원 이상	87.32	9.08	2.51	1.09	
학력	중졸 이하	72.45	21.98	3.63	1.94	57.496(6)***
	고졸	80.77	15.65	2.81	0.77	
	대졸 이상	86.06	11.34	2.13	0.4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6.32	11.26	2.00	0.42	70.703(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77.59	15.71	4.66	2.04	
	고용주, 자영자	82.79	14.05	2.47	0.69	
	무급가족종사자	77.66	21.33	0.17	0.84	
	실업자	67.96	25.79	5.10	1.16	
	비경제활동인구	80.86	16.09	2.32	0.73	
직업	관리자, 전문가	83.12	13.30	3.45	0.13	23.755(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3.34	13.27	2.36	1.04	
	숙련 및 기술직	87.49	10.63	1.48	0.40	
	단순노무 종사자	74.87	18.56	5.82	0.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6.30	11.13	2.16	0.41	16.816(3)**
	비정규직	80.18	14.51	3.44	1.87	
이념적 성향	보수적	82.37	13.90	3.37	0.37	9.610(6)
	중도적	82.34	14.31	2.26	1.08	
	진보적	80.87	15.95	2.54	0.64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5〉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92.71	6.31	0.80	0.18	
성별	남성	92.37	6.54	0.99	0.11	3.487(3)
	여성	93.07	6.07	0.61	0.25	
연령	20대 이하	94.03	5.35	0.17	0.45	28.010(12)**
	30대	93.83	5.47	0.44	0.26	
	40대	92.19	6.79	1.01	0.00	
	50대	92.46	5.56	1.73	0.25	
	60대 이상	91.50	7.97	0.53	0.00	
지역1	수도권	91.98	7.18	0.63	0.21	6.616(3)
	비수도권	93.48	5.40	0.98	0.15	
지역2	대도시	94.25	4.97	0.61	0.17	18.879(6)**
	중소도시	92.09	6.88	0.82	0.21	
	농어촌	88.61	9.71	1.64	0.0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4.92	12.57	1.67	0.85	82.879(9)***
	중하층	91.66	6.92	1.28	0.13	
	중간층	95.52	4.27	0.18	0.04	
	중상층(상층)	97.10	2.65	0.25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1.13	7.76	0.80	0.31	25.316(12)*
	200만 원대	93.57	5.39	0.97	0.06	
	300만 원대	95.81	3.50	0.69	0.00	
	400만 원대	94.26	4.51	1.23	0.00	
	500만 원 이상	92.84	6.98	0.00	0.18	
학력	중졸 이하	89.61	9.07	0.99	0.34	19.507(6)**
	고졸	91.95	7.05	0.72	0.28	
	대졸 이상	94.38	4.77	0.82	0.0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4.54	4.86	0.56	0.03	68.631(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1.08	6.69	1.41	0.82	
	고용주, 자영자	93.63	5.24	1.06	0.07	
	무급가족종사자	90.69	9.31	0.00	0.00	
	실업자	81.83	17.40	0.44	0.32	
	비경제활동인구	92.67	6.39	0.79	0.15	
직업	관리자, 전문가	93.18	6.05	0.77	0.00	6.205(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3.16	5.80	0.85	0.18	
	숙련 및 기술직	95.10	3.69	0.85	0.36	
	단순노무 종사자	94.08	5.19	0.73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4.67	4.73	0.56	0.04	12.284(3)**
	비정규직	92.59	5.71	0.93	0.77	
이념적 성향	보수적	92.43	6.89	0.67	0.01	7.177(6)
	중도적	93.03	5.93	0.90	0.14	
	진보적	92.33	6.47	0.72	0.47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6〉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위 : %)

구분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χ^2 (df)
전체		83.87	12.79	2.59	0.75	
성별	남성	84.91	12.18	2.29	0.63	4.128(3)
	여성	82.80	13.43	2.89	0.88	
연령	20대 이하	88.27	8.86	1.74	1.12	47.728(12)***
	30대	85.35	12.39	1.84	0.41	
	40대	84.19	11.13	3.77	0.91	
	50대	83.15	12.74	2.97	1.15	
	60대 이상	79.63	17.74	2.43	0.21	
지역1	수도권	82.58	14.16	2.30	0.96	10.406(3)*
	비수도권	85.22	11.37	2.88	0.53	
지역2	대도시	86.17	10.42	2.64	0.77	15.725(6)*
	중소도시	81.98	14.60	2.67	0.75	
	농어촌	83.20	14.29	1.87	0.6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7.23	23.82	6.20	2.75	183.600(9)***
	중하층	83.30	13.45	2.76	0.49	
	중간층	90.09	8.07	1.39	0.45	
	중상층(상층)	79.37	18.73	1.9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9.57	15.63	3.68	1.12	70.507(12)***
	200만 원대	85.87	12.44	1.59	0.10	
	300만 원대	89.29	8.83	1.14	0.74	
	400만 원대	90.10	7.62	2.27	0.00	
	500만 원 이상	90.09	7.42	1.40	1.09	
학력	중졸 이하	75.34	20.63	3.41	0.62	49.896(6)***
	고졸	83.77	11.93	3.11	1.19	
	대졸 이상	86.51	11.29	1.83	0.3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9.07	9.27	1.14	0.51	93.921(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0.05	13.40	4.38	2.18	
	고용주, 자영자	85.26	11.43	2.87	0.45	
	무급가족종사자	81.57	18.25	0.17	0.00	
	실업자	70.30	23.43	4.89	1.38	
	비경제활동인구	80.62	15.60	3.19	0.58	
직업	관리자, 전문가	84.55	12.77	2.50	0.18	16.562(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5.86	10.79	2.28	1.07	
	숙련 및 기술직	89.90	8.60	1.08	0.42	
	단순노무 종사자	82.14	14.23	3.64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8.77	9.58	1.10	0.56	21.868(3)***
	비정규직	83.01	11.48	3.46	2.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82.21	14.39	3.14	0.26	12.094(6)
	중도적	84.46	12.29	2.48	0.77	
	진보적	84.47	12.07	2.18	1.28	

주: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7〉 지난 일주일간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

(단위 : %)

구분		전혀 어렵지 않았다	약간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다	매우 많이 어려웠다	χ^2 (df)
전체		52.88	40.64	5.44	1.04	
성별	남성	53.99	39.28	5.28	1.45	4.926(3)
	여성	51.84	41.91	5.59	0.65	
연령	20대 이하	52.41	44.57	2.91	0.12	25.745(12)*
	30대	54.98	40.49	4.27	0.26	
	40대	55.37	37.74	6.31	0.57	
	50대	50.18	40.68	6.89	2.26	
	60대 이상	52.35	40.51	5.78	1.36	
지역1	수도권	52.01	41.47	5.54	0.97	0.938(3)
	비수도권	53.75	39.81	5.34	1.11	
지역2	대도시	55.17	40.38	3.16	1.29	17.259(6)**
	중소도시	51.15	40.76	7.20	0.89	
	농어촌	52.14	41.16	5.99	0.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87	40.18	13.52	4.42	149.866(9)***
	중하층	49.67	44.80	5.06	0.47	
	중간층	59.80	37.50	2.60	0.09	
	중상층(상층)	64.97	34.64	0.28	0.1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8.84	42.27	7.22	1.67	44.550(12)***
	200만 원대	54.68	42.76	2.19	0.37	
	300만 원대	57.89	37.02	4.67	0.43	
	400만 원대	64.20	32.82	2.98	0.00	
	500만 원 이상	61.22	33.37	5.41	0.00	
학력	중졸 이하	49.66	40.75	7.52	2.07	19.315(6)**
	고졸	50.42	42.20	6.17	1.21	
	대졸 이상	56.91	38.89	3.78	0.4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58.55	37.93	3.15	0.37	65.925(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5.97	43.65	7.51	2.87	
	고용주, 자영자	53.87	39.98	5.86	0.29	
	무급가족종사자	66.33	24.62	6.09	2.97	
	실업자	37.06	49.10	13.08	0.76	
	비경제활동인구	52.34	41.54	4.66	1.46	
직업	관리자, 전문가	60.76	32.79	6.45	0.00	23.443(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2.87	41.07	5.07	0.99	
	숙련 및 기술직	61.83	33.93	3.70	0.55	
	단순노무 종사자	43.01	50.22	4.13	2.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9.47	37.18	3.05	0.30	25.826(3)***
	비정규직	44.89	46.18	6.23	2.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48.45	45.57	5.08	0.89	19.336(6)**
	중도적	56.71	36.47	5.45	1.38	
	진보적	49.73	43.94	5.88	0.44	

주: “만약 귀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이라도 위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그로 인해 일을 하거나 가정일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8〉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단위 : %)

구분		예	아니오	χ^2 (df)
전체		6.24	93.76	
성별	남성	5.08	94.92	9.695(1)**
	여성	7.45	92.55	
연령	20대 이하	5.71	94.29	12.168(4)*
	30대	3.71	96.29	
	40대	7.10	92.90	
	50대	7.75	92.25	
	60대 이상	6.45	93.55	
지역1	수도권	6.06	93.94	0.283(1)
	비수도권	6.44	93.56	
지역2	대도시	5.63	94.37	1.807(2)
	중소도시	6.71	93.29	
	농어촌	6.60	93.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93	85.07	84.898(3)***
	중하층	5.97	94.03	
	중간층	4.19	95.81	
	중상층(상층)	2.88	97.1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45	91.55	33.143(4)***
	200만 원대	4.39	95.61	
	300만 원대	3.96	96.04	
	400만 원대	4.77	95.23	
	500만 원 이상	2.78	97.22	
학력	중졸 이하	7.72	92.28	8.904(2)*
	고졸	7.12	92.88	
	대졸 이상	4.95	95.0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64	95.36	28.117(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1	90.79	
	고용주, 자영자	4.90	95.10	
	무급가족종사자	7.38	92.62	
	실업자	12.16	87.84	
	비경제활동인구	6.75	93.25	
직업	관리자, 전문가	5.95	94.05	2.853(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76	94.24	
	숙련 및 기술직	4.19	95.81	
	단순노무 종사자	7.19	92.81	
		4.33	95.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3	95.67	11.097(1)**
	비정규직	8.40	91.60	
이념적 성향	보수적	5.77	94.23	1.223(2)
	중도적	6.67	93.33	
	진보적	5.85	94.15	

주: “귀하는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79〉 지난 1년간 죽고 싶었던 이유

(단위 : %)

구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가족갈등 및 주변과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기타	χ^2 (df)
전체		39.51	29.62	26.74	4.13	
성별	남성	45.83	27.96	22.44	3.77	3.043(3)
	여성	35.05	30.79	29.77	4.39	
연령	20대 이하	38.01	16.74	32.72	12.53	16.433(12)
	30대	48.83	34.61	14.77	1.78	
	40대	35.88	30.67	30.00	3.46	
	50대	44.34	26.25	26.86	2.55	
	60대 이상	34.73	39.21	24.41	1.65	
지역1	수도권	35.38	30.85	32.05	1.71	7.049(3)
	비수도권	43.57	28.40	21.52	6.51	
지역2	대도시	41.44	24.77	29.22	4.56	2.853(6)
	중소도시	39.39	31.18	25.35	4.08	
	농어촌	32.08	41.08	24.18	2.6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25	31.56	18.21	2.97	16.877(9)
	중하층	39.18	25.38	33.44	2.01	
	중간층	34.68	29.52	28.88	6.92	
	중상층(상층)	0.00	67.86	14.36	17.7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8.89	29.49	27.32	4.30	11.977(12)
	200만 원대	41.86	22.39	34.36	1.39	
	300만 원대	29.60	39.79	19.48	11.14	
	400만 원대	40.20	41.75	18.05	0.00	
	500만 원 이상	73.15	14.59	12.26	0.00	
학력	중졸 이하	35.14	32.00	28.36	4.51	1.952(6)
	고졸	40.93	29.69	26.88	2.50	
	대졸 이상	39.57	28.40	25.78	6.2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78	32.80	24.94	8.47	27.165(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2.82	15.73	20.23	1.23	
	고용주, 자영자	49.34	20.12	28.96	1.59	
	무급가족종사자	34.74	65.26	0.00	0.00	
	실업자	47.02	24.83	25.99	2.17	
	비경제활동인구	23.36	38.99	33.30	4.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8.84	32.88	31.36	6.93	10.164(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2.30	20.53	23.92	3.26	
	숙련 및 기술직	27.84	43.89	21.29	6.98	
	단순노무 종사자	56.18	26.42	12.93	4.4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6.95	31.68	24.75	6.62	2.879(3)
	비정규직	54.53	20.85	19.06	5.56	
이념적 성향	보수적	36.31	35.52	25.83	2.34	15.264(6)*
	중도적	39.63	33.69	20.90	5.77	
	진보적	42.85	12.66	42.45	2.04	

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0〉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단위 : %)

구분		⑩ 전혀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믿을 수 있다	χ^2 (df)
전체		0.60	1.21	4.80	9.95	7.41	32.40	15.22	17.53	8.40	1.70	0.78	
성별	남성	0.86	1.25	4.90	10.47	7.87	30.12	15.03	18.32	8.91	1.74	0.53	19.668 (10)*
	여성	0.33	1.17	4.70	9.41	6.94	34.77	15.42	16.71	7.87	1.65	1.03	
연령	20대 이하	0.75	1.53	5.63	8.46	7.21	29.96	14.25	21.02	8.74	1.23	1.23	98.855 (40) ***
	30대	0.28	1.10	3.76	7.47	8.98	31.19	16.64	20.39	8.88	1.30	0.00	
	40대	0.85	0.74	3.25	10.50	5.89	35.71	14.97	14.54	10.33	1.71	1.51	
	50대	0.21	0.81	4.39	9.55	7.57	32.79	14.09	18.71	9.03	2.19	0.65	
	60대 이상	0.86	1.83	6.68	12.90	7.59	32.00	16.17	14.15	5.48	1.89	0.46	
지역1	수도권	0.58	0.90	4.28	8.62	6.52	32.20	17.70	18.90	8.12	1.53	0.65	39.2 00(10) ***
	비수도권	0.62	1.53	5.35	11.33	8.35	32.62	12.63	16.11	8.69	1.86	0.91	
지역2	대도시	0.62	1.38	5.81	10.59	7.03	31.48	17.14	17.86	6.32	0.99	0.78	84.855 (20) ***
	중소도시	0.62	1.16	4.12	9.63	7.99	33.69	14.58	16.82	8.96	1.92	0.50	
	농어촌	0.38	0.66	3.69	8.58	6.05	29.64	9.32	19.97	15.49	3.92	2.3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3	3.03	7.30	13.49	10.57	30.64	12.54	11.70	7.08	2.53	0.21	134.25 1(30) ***
	중하층	0.74	0.79	5.69	10.99	8.93	33.48	14.31	15.47	7.66	1.20	0.74	
	중간층	0.36	0.80	3.68	8.35	5.57	32.14	16.12	21.21	9.19	1.72	0.87	
	중상층(상층)	0.70	2.98	1.25	6.65	3.66	31.39	21.21	17.03	10.55	2.90	1.6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52	1.11	5.49	11.04	7.67	33.68	14.56	15.80	7.23	2.00	0.89	67.118 (40) **
	200만 원대	0.74	1.55	4.67	9.43	8.94	29.87	14.89	19.60	8.45	1.06	0.79	
	300만 원대	0.35	1.37	4.83	9.41	5.65	32.34	17.48	17.27	9.56	0.93	0.81	
	400만 원대	1.15	1.46	2.11	7.20	5.94	32.27	18.83	18.76	9.66	2.62	0.00	
	500만 원 이상	0.65	0.09	3.03	7.75	5.88	31.73	12.01	22.80	13.04	2.37	0.65	
학력	중졸 이하	0.45	0.79	5.79	10.83	9.26	34.12	15.73	15.91	5.22	1.45	0.45	36.155 (20) *
	고졸	0.65	1.28	5.29	9.16	7.11	34.81	14.84	16.07	8.24	1.87	0.67	
	대졸 이상	0.59	1.27	4.04	10.46	7.15	29.55	15.44	19.44	9.50	1.60	0.9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69	1.69	3.81	9.31	7.04	29.49	16.26	19.37	9.86	1.52	0.96	68.095 (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33	0.35	4.42	9.43	9.14	34.11	13.81	16.95	9.93	1.17	0.35	
	고용주, 자영자	0.91	0.86	5.40	12.21	8.50	31.89	14.18	15.78	8.02	2.04	0.21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4.44	11.36	4.27	30.59	13.89	23.30	10.29	1.85	0.00	
	실업자	0.00	1.23	3.91	11.47	9.02	34.81	13.80	17.79	4.38	2.35	1.24	
	비경제활동인구	0.53	1.30	6.01	8.98	6.26	35.46	15.61	16.23	6.78	1.76	1.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1.58	2.48	3.89	7.32	7.61	31.45	12.11	15.78	12.10	3.90	1.77	82.498 (30)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0.31	1.17	4.43	11.17	6.97	31.57	16.27	18.46	8.36	0.81	0.47	
	숙련 및 기술직	1.49	0.43	5.63	8.47	9.33	28.32	13.47	18.61	10.73	3.03	0.50	
	단순노무 종사자	0.00	0.76	1.28	11.78	11.21	32.36	15.53	16.58	9.66	0.84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0.69	1.28	4.00	9.69	6.47	28.64	16.83	20.16	9.75	1.59	0.90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7	2.04	5.56	13.14	7.47	32.63	15.05	15.11	5.80	1.59	0.35	92.751 (20) ***
	중도적	0.43	0.94	4.99	9.95	7.98	33.49	14.21	17.37	8.50	1.21	0.93	
	진보적	0.18	0.86	3.52	6.29	6.10	29.75	17.65	20.68	11.17	2.89	0.93	

주: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1〉 기관에 대한 신뢰도: (1) 대기업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5.68	55.72	33.98	4.62	
성별	남성	5.86	54.79	35.97	3.38	19.533(3) ***
	여성	5.50	56.68	31.91	5.91	
연령	20대 이하	5.85	59.41	30.08	4.66	53.731(12) ***
	30대	4.79	60.23	33.62	1.35	
	40대	6.38	55.44	33.65	4.53	
	50대	4.61	56.40	34.72	4.26	
	60대 이상	6.59	49.00	36.95	7.47	
지역1	수도권	5.83	58.89	30.35	4.92	23.926(3) ***
	비수도권	5.52	52.41	37.75	4.31	
지역2	대도시	7.77	54.86	33.70	3.66	28.867(6) ***
	중소도시	4.06	56.35	34.20	5.39	
	농어촌	4.51	56.41	34.09	4.9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54	46.53	41.50	7.42	76.202(9) ***
	중하층	3.90	53.95	37.47	4.68	
	중간층	7.14	60.43	28.79	3.64	
	중상층(상층)	9.35	53.24	32.32	5.0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83	54.19	33.58	6.40	44.488(12) ***
	200만 원대	4.67	54.12	38.24	2.97	
	300만 원대	5.13	60.37	32.33	2.18	
	400만 원대	7.10	56.70	31.74	4.46	
	500만 원 이상	7.79	61.04	28.53	2.64	
학력	중졸 이하	5.72	47.45	37.27	9.55	77.721(6) ***
	고졸	5.74	52.06	37.15	5.06	
	대졸 이상	5.62	61.74	29.92	2.7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93	58.46	33.05	3.56	41.419(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43	54.28	35.17	5.12	
	고용주, 자영자	5.33	52.47	37.63	4.58	
	무급가족종사자	1.25	44.56	48.33	5.87	
	실업자	10.39	50.49	30.53	8.58	
	비경제활동인구	6.39	56.95	31.71	4.95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21	59.92	28.22	3.65	26.175(9) **
	숙련 및 기술직	5.13	55.92	34.72	4.23	
	단순노무 종사자	2.35	52.91	40.75	4.00	
	단순노무 종사자	5.56	52.04	36.98	5.4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5.23	57.87	33.32	3.58	1.596(3)
	비정규직	4.79	55.76	35.01	4.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7.30	55.13	31.99	5.58	12.154(6)
	중도적	5.10	56.12	34.35	4.43	
	진보적	5.10	55.53	35.43	3.94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2〉 기관에 대한 신뢰도: (2) 종교계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3.18	30.94	60.98	4.90	
성별	남성	2.10	29.96	63.46	4.48	21.872(3) ***
	여성	4.31	31.95	58.40	5.33	
연령	20대 이하	2.33	28.83	62.97	5.87	41.076(12) ***
	30대	2.09	24.63	68.37	4.92	
	40대	3.08	30.78	61.95	4.19	
	50대	4.00	33.23	58.62	4.16	
	60대 이상	4.03	35.41	55.12	5.43	
지역1	수도권	3.16	32.26	60.06	4.53	4.047(3)
	비수도권	3.21	29.56	61.94	5.29	
지역2	대도시	3.76	31.93	60.57	3.74	21.712(6) **
	중소도시	2.39	30.51	61.72	5.37	
	농어촌	4.86	28.39	58.79	7.9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6	27.16	64.45	5.44	23.276(9) **
	중하층	2.43	28.87	63.27	5.44	
	중간층	3.83	33.72	57.89	4.56	
	중상층(상층)	3.86	32.58	61.07	2.5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3	32.79	57.78	6.01	48.651(12) ***
	200만 원대	4.26	28.52	64.02	3.19	
	300만 원대	1.95	25.74	67.40	4.91	
	400만 원대	0.64	37.29	60.00	2.08	
	500만 원 이상	3.39	30.09	60.95	5.57	
학력	중졸 이하	4.42	35.85	53.53	6.20	30.364(6) ***
	고졸	4.16	29.54	61.48	4.82	
	대졸 이상	1.87	30.82	62.71	4.5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6	27.90	64.84	4.30	24.164(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38	30.71	59.17	5.74	
	고용주, 자영자	2.40	33.17	60.34	4.09	
	무급가족종사자	3.14	31.64	63.10	2.12	
	실업자	2.60	33.30	58.87	5.23	
	비경제활동인구	3.64	32.84	57.49	6.03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6	34.61	59.51	4.12	12.550(9)
	숙련 및 기술직	2.44	30.31	64.21	3.03	
	단순노무 종사자	2.93	31.38	58.76	6.9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95	27.98	64.77	4.30	3.601(3)
	비정규직	3.97	29.91	60.57	5.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3.92	34.05	58.21	3.83	25.255(6) ***
	중도적	2.11	30.06	62.50	5.33	
	진보적	4.71	29.29	60.80	5.20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3〉 기관에 대한 신뢰도: (3) 교육계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5.92	58.48	32.66	2.94	
성별	남성	5.80	57.22	34.03	2.95	3.494(3)
	여성	6.04	59.78	31.24	2.94	
연령	20대 이하	6.83	59.38	29.90	3.90	22.062(12)*
	30대	4.66	61.00	32.22	2.12	
	40대	6.25	58.02	33.81	1.92	
	50대	6.40	59.24	31.93	2.44	
	60대 이상	5.41	55.56	34.86	4.17	
지역1	수도권	5.67	57.55	34.08	2.70	4.204(3)
	비수도권	6.17	59.44	31.19	3.20	
지역2	대도시	6.15	54.78	36.29	2.78	36.037(6) ***
	중소도시	5.09	60.72	31.24	2.95	
	농어촌	9.44	64.09	22.73	3.7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87	48.56	42.26	5.31	137.399(9) ***
	중하층	4.38	55.80	36.75	3.08	
	중간층	6.48	64.80	26.59	2.13	
	중상층(상층)	17.48	51.11	28.76	2.6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6.40	58.10	31.86	3.64	30.097(12) **
	200만 원대	4.56	60.10	33.14	2.20	
	300만 원대	4.96	54.77	37.91	2.37	
	400만 원대	8.68	56.50	31.63	3.20	
	500만 원 이상	6.02	66.75	25.99	1.23	
학력	중졸 이하	5.31	59.08	29.33	6.29	25.586(6) ***
	고졸	5.78	58.03	33.90	2.29	
	대졸 이상	6.23	58.73	32.46	2.5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85	59.66	31.18	2.31	28.410(1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8	55.81	37.73	3.47	
	고용주, 자영자	4.78	58.24	34.48	2.50	
	무급가족종사자	7.37	60.39	29.58	2.66	
	실업자	6.29	53.76	34.28	5.67	
	비경제활동인구	6.63	59.07	30.96	3.34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03	60.78	29.11	2.08	19.654(9)*
	숙련 및 기술직	4.92	57.15	35.30	2.63	
	숙련 및 기술직	6.59	62.31	29.21	1.88	
	단순노무 종사자	4.53	57.85	32.44	5.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19	59.84	30.98	1.98	21.676(3) ***
	비정규직	2.67	56.27	37.41	3.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5.28	56.91	34.37	3.44	17.580(6) **
	중도적	5.31	58.20	33.49	3.00	
	진보적	7.99	60.90	28.87	2.24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4〉 기관에 대한 신뢰도: (4) 노동조합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07	30.63	59.20	8.10	
성별	남성	2.23	29.82	62.08	5.87	32.206(3) ***
	여성	1.91	31.46	56.21	10.41	
연령	20대 이하	2.21	34.03	53.02	10.74	55.521(12) ***
	30대	2.74	31.72	59.11	6.43	
	40대	2.00	30.95	61.67	5.38	
	50대	2.19	33.96	56.45	7.41	
	60대 이상	1.42	23.75	64.53	10.30	
지역1	수도권	1.73	28.84	62.61	6.81	23.058(3) ***
	비수도권	2.43	32.49	55.63	9.45	
지역2	대도시	1.24	27.90	63.42	7.43	120.593(6) ***
	중소도시	1.61	32.15	58.36	7.88	
	농어촌	8.79	35.52	42.96	12.7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6	28.27	59.30	10.87	47.490(9) ***
	중하층	2.40	26.42	64.03	7.14	
	중간층	1.66	34.84	55.71	7.79	
	중상층(상층)	4.41	32.19	52.95	10.4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2	28.86	57.70	11.22	59.527(12) ***
	200만 원대	1.58	32.63	59.62	6.16	
	300만 원대	1.95	29.77	64.07	4.21	
	400만 원대	2.80	32.18	59.87	5.15	
	500만 원 이상	2.09	37.46	56.98	3.46	
학력	중졸 이하	1.35	26.83	57.58	14.24	36.478(6) ***
	고졸	2.64	31.99	58.45	6.92	
	대졸 이상	1.74	30.44	60.40	7.4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5	34.66	57.20	5.69	56.628(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2	29.61	61.32	7.36	
	고용주, 자영자	1.53	25.94	64.76	7.77	
	무급가족종사자	3.83	30.44	47.52	18.22	
	실업자	1.45	34.98	55.11	8.46	
	비경제활동인구	2.13	28.39	58.46	11.02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87	36.43	56.23	4.48	29.140(9) **
	숙련 및 기술직	1.67	28.77	62.36	7.20	
	숙련 및 기술직	3.65	34.56	54.80	6.99	
	단순노무 종사자	0.11	34.72	56.30	8.86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5	34.25	57.77	5.43	5.432(3)
	비정규직	1.66	31.95	58.39	7.9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9	28.81	60.85	8.64	44.325(6) ***
	중도적	1.42	29.00	61.13	8.44	
	진보적	3.96	36.31	53.01	6.72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5> 기관에 대한 신뢰도: (5) 언론계(신문사, TV 방송국)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1.91	32.20	61.28	4.61	2.145(3)
성별	남성	1.96	31.60	62.19	4.25	23.891(12) *
	여성	1.86	32.82	60.34	4.98	
연령	20대 이하	1.22	33.71	60.77	4.31	7.678(3)
	30대	2.02	28.85	66.33	2.79	
	40대	2.56	32.76	60.88	3.80	
	50대	1.98	32.79	60.19	5.05	
	60대 이상	1.73	32.50	59.23	6.53	
지역1	수도권	1.60	32.02	62.47	3.90	99.849(6) ***
	비수도권	2.23	32.38	60.04	5.35	
지역2	대도시	1.48	32.77	59.98	5.77	77.993(9) ***
	중소도시	1.29	30.14	65.14	3.43	
	농어촌	7.53	41.10	45.79	5.5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40	24.08	66.10	8.41	24.367(12) *
	중하층	1.64	29.98	63.91	4.46	
	중간층	2.18	34.59	59.79	3.44	
	중상층(상층)	2.85	49.11	42.43	5.6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6	32.85	59.68	5.61	41.264(6) ***
	200만 원대	2.03	30.29	63.92	3.76	
	300만 원대	2.36	30.56	64.03	3.05	
	400만 원대	2.12	31.90	60.03	5.95	
	500만 원 이상	0.50	38.15	59.33	2.01	
학력	중졸 이하	2.07	37.28	53.28	7.37	44.680(15) ***
	고졸	2.72	30.48	61.70	5.09	
	대졸 이상	1.07	32.36	63.26	3.3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0	31.53	64.04	2.53	40.854(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8	32.45	59.16	7.21	
	고용주, 자영자	2.51	28.90	64.21	4.38	
	무급가족종사자	3.42	37.99	49.92	8.68	
	실업자	2.99	36.96	54.88	5.17	
	비경제활동인구	1.48	34.01	58.56	5.95	
직업	관리자, 전문가	0.88	35.05	62.69	1.39	11.203(3)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85	29.02	64.40	4.74	
	숙련 및 기술직	3.61	31.98	62.08	2.34	
	단순노무 종사자	0.87	41.85	49.68	7.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0	32.01	63.61	2.47	5.860(6)
	비정규직	1.30	30.86	62.27	5.5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9	33.52	60.01	5.18	
	중도적	2.06	31.85	61.82	4.28	
	진보적	2.29	31.46	61.57	4.68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6〉 기관에 대한 신뢰도: (6) 의료계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17.34	65.35	16.02	1.29	
성별	남성	16.34	66.09	16.64	0.92	8.096(3) *
	여성	18.37	64.58	15.37	1.68	
연령	20대 이하	19.94	63.83	15.17	1.06	11.356(12)
	30대	17.15	64.53	17.20	1.11	
	40대	16.24	67.79	14.81	1.16	
	50대	18.50	63.66	16.55	1.29	
	60대 이상	15.31	66.58	16.37	1.74	
지역1	수도권	17.70	65.87	15.36	1.07	3.166(3)
	비수도권	16.96	64.81	16.70	1.53	
지역2	대도시	17.39	63.65	17.76	1.20	26.916(6) ***
	중소도시	15.83	67.43	15.35	1.39	
	농어촌	25.66	61.94	11.16	1.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16	59.28	26.60	2.96	114.455(9) ***
	중하층	14.98	65.98	17.98	1.06	
	중간층	20.66	66.35	11.92	1.07	
	중상층(상층)	22.71	68.12	8.63	0.5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02	65.71	15.74	1.53	18.174(12)
	200만 원대	17.54	63.38	17.46	1.63	
	300만 원대	15.42	68.92	15.31	0.35	
	400만 원대	17.86	62.99	18.10	1.05	
	500만 원 이상	23.04	63.77	12.36	0.83	
학력	중졸 이하	16.99	65.19	15.74	2.09	10.171(6)
	고졸	18.16	63.65	16.65	1.55	
	대졸 이상	16.65	67.05	15.49	0.8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8.20	64.14	16.69	0.97	49.944(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78	59.67	20.71	2.85	
	고용주, 자영자	14.85	68.05	16.06	1.03	
	무급가족종사자	10.97	76.76	9.85	2.42	
	실업자	21.65	56.28	21.57	0.50	
	비경제활동인구	17.86	68.43	12.40	1.31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1.33	63.52	14.03	1.12	34.800(9) ***
	숙련 및 기술직	15.22	65.21	18.22	1.35	
	단순노무 종사자	18.23	66.75	14.72	0.29	
	단순노무 종사자	19.13	57.85	17.91	5.1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91	64.60	16.64	0.85	12.486(3) **
	비정규직	17.94	59.13	20.20	2.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16	62.85	16.63	1.36	4.490(6)
	중도적	16.57	66.48	15.71	1.24	
	진보적	16.95	65.72	16.00	1.33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7> 기관에 대한 신뢰도: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등)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79	42.67	49.43	5.11	
성별	남성	2.69	41.92	51.19	4.20	9.931(3) *
	여성	2.89	43.46	47.60	6.05	
연령	20대 이하	2.34	42.29	49.83	5.54	35.627(12) ***
	30대	3.43	46.72	45.31	4.54	
	40대	2.84	46.95	46.55	3.66	
	50대	3.16	43.00	48.73	5.10	
	60대 이상	2.28	35.86	55.38	6.48	
지역1	수도권	2.24	42.75	50.22	4.80	5.814(3)
	비수도권	3.37	42.60	48.60	5.44	
지역2	대도시	3.07	40.79	50.67	5.47	45.345(6) ***
	중소도시	1.94	42.38	50.67	5.01	
	농어촌	6.27	53.71	36.16	3.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2	30.20	60.41	7.86	89.309(9) ***
	중하층	2.33	40.19	52.28	5.21	
	중간층	3.18	47.42	45.10	4.30	
	중상층(상층)	6.11	53.34	36.48	4.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87	41.32	49.79	6.02	14.734(12)
	200만 원대	2.43	43.53	48.90	5.14	
	300만 원대	2.31	43.41	50.72	3.55	
	400만 원대	4.10	43.39	48.83	3.68	
	500만 원 이상	3.08	47.54	46.09	3.29	
학력	중졸 이하	2.53	41.58	48.83	7.06	18.409(6) **
	고졸	2.62	39.93	51.95	5.49	
	대졸 이상	3.03	45.66	47.15	4.1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32	46.00	47.66	4.03	48.267(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6	39.70	49.83	6.21	
	고용주, 자영자	2.37	37.62	56.24	3.77	
	무급가족종사자	3.97	56.38	33.10	6.54	
	실업자	4.21	46.83	42.75	6.21	
	비경제활동인구	2.71	41.55	49.06	6.69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02	43.25	49.38	3.35	9.411(9)
	숙련 및 기술직	2.18	42.11	51.01	4.70	
	숙련 및 기술직	3.11	44.43	48.63	3.83	
	단순노무 종사자	4.24	43.99	46.60	5.1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5	46.07	47.93	3.85	9.805(3) *
	비정규직	3.88	40.84	49.28	6.01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4	35.67	55.61	6.88	73.975(6) ***
	중도적	2.36	42.86	50.34	4.43	
	진보적	4.83	50.34	40.27	4.56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8〉 기관에 대한 신뢰도: (8) 입법부(국회)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1.53	20.19	72.81	5.48	
성별	남성	1.13	20.00	74.12	4.75	8.651(3) *
	여성	1.94	20.38	71.44	6.24	
연령	20대 이하	1.54	22.66	68.21	7.58	34.547(12) ***
	30대	1.58	21.46	72.96	4.00	
	40대	1.52	22.98	71.69	3.82	
	50대	1.58	18.33	75.39	4.70	
	60대 이상	1.44	16.50	74.96	7.10	
지역1	수도권	1.18	19.72	74.16	4.94	6.547(3)
	비수도권	1.89	20.67	71.39	6.04	
지역2	대도시	1.68	19.68	72.18	6.47	19.942(6) ***
	중소도시	1.12	19.77	74.53	4.58	
	농어촌	3.11	25.06	66.15	5.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5	12.49	79.88	6.48	96.411(9) ***
	중하층	1.06	16.92	76.41	5.61	
	중간층	1.87	23.10	70.03	4.99	
	중상층(상층)	3.00	39.24	51.75	6.0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1	19.77	71.38	7.04	23.664(12) *
	200만 원대	1.18	20.29	73.68	4.86	
	300만 원대	1.28	20.80	74.59	3.33	
	400만 원대	1.87	19.36	74.66	4.11	
	500만 원 이상	0.76	22.53	74.43	2.27	
학력	중졸 이하	1.99	19.08	71.16	7.78	13.020(6) *
	고졸	1.75	19.52	72.91	5.83	
	대졸 이상	1.17	21.17	73.20	4.4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5	20.45	74.82	3.47	48.384(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4	20.92	70.76	6.28	
	고용주, 자영자	1.40	15.89	77.87	4.84	
	무급가족종사자	1.25	33.01	60.09	5.65	
	실업자	1.99	23.65	64.99	9.38	
	비경제활동인구	1.68	21.05	69.85	7.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2	21.41	73.98	3.08	10.621(9)
	숙련 및 기술직	1.27	18.57	75.52	4.65	
	단순노무 종사자	1.96	19.70	74.36	3.98	
	단순노무 종사자	1.32	25.71	66.96	6.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1	20.75	74.86	3.39	9.082(3) *
	비정규직	2.23	20.52	71.52	5.73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7	17.90	74.07	6.86	29.626(6) ***
	중도적	1.54	18.86	74.56	5.05	
	진보적	1.92	25.76	67.48	4.85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89> 기관에 대한 신뢰도: (9) 사법부(법원)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12	31.79	61.67	4.42	
성별	남성	2.20	31.32	62.73	3.74	5.394(3)
	여성	2.04	32.27	60.57	5.12	
연령	20대 이하	2.42	34.17	58.88	4.53	13.345(12)
	30대	2.23	34.08	60.07	3.62	
	40대	2.13	33.20	60.67	4.00	
	50대	1.96	30.70	62.77	4.58	
	60대 이상	1.94	27.91	64.97	5.17	
지역1	수도권	1.45	29.58	65.73	3.25	38.458(3) ***
	비수도권	2.83	34.09	57.44	5.64	
지역2	대도시	1.98	32.80	60.89	4.32	34.506(6) ***
	중소도시	1.83	29.34	64.53	4.30	
	농어촌	4.47	40.66	49.31	5.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8	21.79	70.40	5.63	129.981(9) ***
	중하층	1.75	27.06	67.08	4.11	
	중간층	2.02	36.17	57.55	4.26	
	중상층(상층)	5.40	55.17	34.53	4.8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29	30.63	61.06	6.02	33.612(12) **
	200만 원대	2.02	33.49	61.75	2.74	
	300만 원대	2.26	29.00	65.67	3.08	
	400만 원대	1.77	34.22	61.60	2.41	
	500만 원 이상	1.29	38.50	56.73	3.49	
학력	중졸 이하	2.82	30.86	58.94	7.38	20.552(6) **
	고졸	1.51	30.89	63.57	4.04	
	대졸 이상	2.51	32.94	60.64	3.9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6	33.06	62.23	2.65	54.765(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9	30.04	62.45	5.42	
	고용주, 자영자	1.56	28.01	66.86	3.56	
	무급가족종사자	2.28	43.12	51.68	2.91	
	실업자	5.39	31.77	54.33	8.50	
	비경제활동인구	1.97	32.84	58.99	6.20	
직업	관리자, 전문가	2.36	34.40	61.14	2.10	15.175(9)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1	30.23	64.66	3.40	
	숙련 및 기술직	2.14	32.24	62.61	3.02	
	단순노무 종사자	2.61	34.08	56.01	7.3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6	33.32	62.43	2.49	11.201(3) *
	비정규직	2.79	29.88	62.21	5.13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2	31.23	62.81	3.94	7.617(6)
	중도적	2.34	30.66	62.13	4.87	
	진보적	1.76	34.92	59.33	3.99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0〉 기관에 대한 신뢰도: (10) 군대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4.75	42.34	47.63	5.28	
성별	남성	5.36	43.12	47.57	3.95	17.292(3) **
	여성	4.12	41.53	47.69	6.66	
연령	20대 이하	5.88	37.70	50.47	5.94	29.584(12) ***
	30대	2.57	42.05	52.03	3.36	
	40대	6.00	43.25	45.55	5.20	
	50대	4.75	44.94	45.05	5.26	
	60대 이상	4.41	43.06	46.24	6.29	
지역1	수도권	5.18	43.46	46.79	4.56	7.485(3)
	비수도권	4.30	41.17	48.50	6.03	
지역2	대도시	5.89	39.78	51.18	3.15	53.183(6) ***
	중소도시	3.86	43.11	46.29	6.74	
	농어촌	4.19	50.68	37.61	7.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75	33.99	54.69	6.57	50.336(9) ***
	중하층	3.81	40.01	51.70	4.48	
	중간층	5.30	46.31	42.80	5.58	
	중상층(상층)	7.04	47.67	40.11	5.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11	42.87	45.73	6.30	48.203(12) ***
	200만 원대	3.70	38.67	53.87	3.76	
	300만 원대	4.68	39.80	50.03	5.49	
	400만 원대	6.70	42.78	46.95	3.57	
	500만 원 이상	3.66	56.61	35.49	4.24	
학력	중졸 이하	5.46	45.13	41.51	7.90	19.412(6) **
	고졸	4.96	40.10	50.10	4.84	
	대졸 이상	4.34	43.68	47.06	4.9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9	42.48	48.61	4.52	38.055(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15	37.99	49.30	6.56	
	고용주, 자영자	3.38	41.34	51.41	3.88	
	무급가족종사자	0.00	55.58	36.09	8.33	
	실업자	6.00	49.83	39.46	4.71	
	비경제활동인구	5.69	42.38	45.31	6.62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82	42.14	51.43	2.62	30.944(9) ***
	숙련 및 기술직	4.37	38.98	51.32	5.33	
	단순노무 종사자	3.35	48.10	44.73	3.82	
	단순노무 종사자	7.23	49.93	35.99	6.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39	42.40	48.74	4.47	1.588(3)
	비정규직	5.37	40.61	48.68	5.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6.34	41.98	46.23	5.44	13.887(6) *
	중도적	4.14	41.09	49.46	5.31	
	진보적	4.28	45.51	45.18	5.03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1〉 기관에 대한 신뢰도: (11) 금융기관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7.67	62.31	26.16	3.87	
성별	남성	7.63	60.87	27.87	3.63	6.501(3)
	여성	7.70	63.80	24.38	4.12	
연령	20대 이하	9.59	59.05	24.74	6.62	36.188(12) ***
	30대	6.51	61.19	28.99	3.31	
	40대	7.35	63.63	27.28	1.74	
	50대	7.94	62.32	25.98	3.77	
	60대 이상	7.04	64.57	24.31	4.07	
지역1	수도권	6.92	58.50	29.58	5.00	44.053(3) ***
	비수도권	8.45	66.28	22.58	2.69	
지역2	대도시	7.92	64.98	24.14	2.96	35.067(6) ***
	중소도시	7.09	59.10	28.73	5.08	
	농어촌	9.69	67.30	21.50	1.5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72	51.43	35.77	6.08	75.834(9) ***
	중하층	6.22	61.50	28.29	3.99	
	중간층	8.49	66.42	21.72	3.37	
	중상층(상층)	13.68	62.07	22.80	1.4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59	61.29	25.80	4.32	34.327(12) **
	200만 원대	5.04	62.01	28.24	4.71	
	300만 원대	8.88	64.81	23.53	2.78	
	400만 원대	5.86	60.61	32.16	1.37	
	500만 원 이상	8.99	67.26	20.88	2.86	
학력	중졸 이하	7.46	64.14	23.47	4.93	13.218(6) *
	고졸	7.82	60.79	26.67	4.72	
	대졸 이상	7.58	63.23	26.45	2.7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54	63.24	27.08	3.15	36.562(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81	55.36	30.56	4.27	
	고용주, 자영자	5.99	64.40	26.02	3.58	
	무급가족종사자	8.04	76.44	15.52	0.00	
	실업자	10.06	61.78	24.36	3.80	
	비경제활동인구	8.91	61.75	24.23	5.12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42	65.34	23.75	1.49	20.952(9) *
	숙련 및 기술직	6.82	60.92	28.85	3.41	
	단순노무 종사자	5.98	66.76	23.88	3.39	
		6.66	61.04	25.29	7.0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6.33	63.54	27.35	2.78	17.211(3) **
	비정규직	10.07	55.56	29.00	5.36	
이념적 성향	보수적	9.69	60.39	25.58	4.33	14.001(6) *
	중도적	6.60	62.13	27.48	3.79	
	진보적	7.69	64.91	23.90	3.50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2〉 기관에 대한 신뢰도: (12) 시민운동단체

(단위 : %)

구분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80	37.30	52.47	7.44	
성별	남성	2.21	36.77	55.15	5.88	24.698(3) ***
	여성	3.41	37.84	49.69	9.06	
연령	20대 이하	2.51	42.55	46.54	8.40	40.788(12) ***
	30대	1.99	35.11	56.48	6.41	
	40대	3.74	39.41	50.48	6.37	
	50대	3.98	37.21	52.15	6.66	
	60대 이상	1.71	32.99	56.18	9.12	
지역1	수도권	2.49	34.20	57.25	6.06	40.334(3) ***
	비수도권	3.11	40.53	47.48	8.88	
지역2	대도시	2.02	38.75	52.42	6.80	95.697(6) ***
	중소도시	2.33	35.37	55.35	6.95	
	농어촌	9.27	41.04	36.29	13.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58	29.35	60.64	9.43	41.507(9) ***
	중하층	2.74	38.16	52.65	6.44	
	중간층	3.19	39.00	50.08	7.73	
	중상층(상층)	5.56	37.45	49.81	7.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2	35.61	51.80	9.88	40.037(12) ***
	200만 원대	2.97	39.25	52.30	5.48	
	300만 원대	2.53	37.36	54.25	5.85	
	400만 원대	3.52	37.44	54.78	4.26	
	500만 원 이상	2.58	43.18	51.32	2.92	
학력	중졸 이하	1.38	34.53	50.62	13.47	36.806(6) ***
	고졸	3.25	37.78	51.89	7.08	
	대졸 이상	2.77	37.66	53.57	6.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98	39.63	52.34	5.05	47.398(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7	39.21	49.85	6.97	
	고용주, 자영자	1.82	35.04	55.63	7.52	
	무급가족종사자	3.02	45.88	40.16	10.94	
	실업자	0.66	38.02	54.65	6.67	
	비경제활동인구	3.15	34.35	51.90	10.60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11	41.74	49.57	5.58	29.876(9) ***
	숙련 및 기술직	2.48	36.54	55.59	5.39	
	단순노무 종사자	4.37	42.41	44.80	8.42	
	단순노무 종사자	1.05	38.46	50.65	9.8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08	39.92	52.10	4.90	3.080(3)
	비정규직	2.64	38.79	51.52	7.05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1	37.16	53.63	6.49	31.031(6) ***
	중도적	2.16	35.06	54.46	8.32	
	진보적	4.30	42.41	46.70	6.59	

주: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3〉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3.21	53.05	23.02	9.23	1.49	
성별	남성	13.46	51.51	23.66	9.50	1.87	6.933(4)
	여성	12.94	54.65	22.36	8.96	1.09	
연령	20대 이하	10.90	48.82	25.28	13.22	1.78	64.698(16) ***
	30대	10.17	52.66	26.34	9.98	0.85	
	40대	16.39	50.71	21.08	10.73	1.09	
	50대	13.17	54.12	22.96	7.80	1.95	
	60대 이상	14.56	57.80	20.48	5.49	1.66	
지역1	수도권	11.47	56.65	22.51	8.26	1.11	27.805(4) ***
	비수도권	15.01	49.30	23.55	10.25	1.88	
지역2	대도시	16.42	53.58	20.19	8.74	1.08	57.371(8) ***
	중소도시	10.00	53.92	24.25	9.81	2.01	
	농어촌	15.45	45.46	30.13	8.42	0.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01	59.16	20.38	4.21	0.24	108.030(12) ***
	중하층	13.45	55.51	22.11	7.85	1.08	
	중간층	12.50	49.74	24.92	11.33	1.50	
	중상층(상층)	10.04	47.09	20.73	14.70	7.4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12	54.24	21.35	8.45	1.84	52.327(16) ***
	200만 원대	10.65	56.08	23.71	8.76	0.80	
	300만 원대	11.34	52.33	26.24	9.51	0.57	
	400만 원대	13.86	45.28	24.68	14.65	1.53	
	500만 원 이상	18.79	43.82	24.04	10.09	3.26	
학력	중졸 이하	13.92	57.47	21.38	6.03	1.20	27.736(8) **
	고졸	12.10	55.25	23.14	8.38	1.13	
	대졸 이상	14.06	49.61	23.40	11.02	1.9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1.78	50.95	24.86	11.21	1.21	39.226(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3.95	58.66	19.23	7.00	1.16	
	고용주, 자영자	15.56	52.76	22.72	7.69	1.27	
	무급가족종사자	10.43	47.49	32.76	7.31	2.01	
	실업자	13.74	49.71	23.85	11.90	0.80	
	비경제활동인구	13.12	54.59	21.68	8.37	2.24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9.23	42.85	22.04	12.09	3.80	51.441(12) ***
	숙련 및 기술직	10.76	51.15	27.61	9.20	1.28	
	단순노무 종사자	14.70	58.33	20.22	5.98	0.7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38	50.22	24.92	11.29	1.19	15.831(4) **
	비정규직	12.58	59.84	18.86	7.76	0.9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01	55.22	21.38	7.23	1.16	19.350(8) *
	중도적	12.38	52.85	23.93	9.14	1.71	
	진보적	12.96	51.00	22.92	11.75	1.37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4〉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2.19	43.52	31.98	10.70	1.61	
성별	남성	12.49	44.73	31.66	9.20	1.93	12.755(4) *
	여성	11.89	42.28	32.31	12.26	1.28	
연령	20대 이하	9.96	40.99	34.62	12.45	1.97	31.483(16) **
	30대	10.80	40.59	33.55	12.82	2.24	
	40대	13.59	44.04	29.81	10.91	1.65	
	50대	13.46	43.15	32.23	10.06	1.10	
	60대 이상	12.62	47.64	30.34	8.11	1.28	
지역1	수도권	12.93	44.20	31.35	10.49	1.03	10.922(4) *
	비수도권	11.42	42.82	32.63	10.92	2.21	
지역2	대도시	15.03	44.11	29.48	9.98	1.40	46.688(8) ***
	중소도시	9.53	44.04	34.40	10.52	1.52	
	농어촌	13.23	37.70	30.61	15.32	3.1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97	43.36	32.60	6.01	1.07	53.503(12) ***
	중하층	10.52	45.85	32.17	10.32	1.14	
	중간층	12.14	41.05	33.01	11.84	1.96	
	중상층(상층)	12.38	47.56	20.53	16.03	3.5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10	43.18	32.28	11.20	1.24	36.866(16) **
	200만 원대	12.90	40.93	35.67	8.57	1.93	
	300만 원대	10.55	47.95	31.00	9.15	1.35	
	400만 원대	12.14	43.13	28.06	14.28	2.40	
	500만 원 이상	14.34	45.33	23.47	13.84	3.03	
학력	중졸 이하	12.18	47.71	31.09	7.71	1.31	15.604(8) *
	고졸	13.58	42.37	32.14	10.53	1.37	
	대졸 이상	10.84	43.39	32.08	11.76	1.9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96	42.98	32.51	11.35	2.21	35.624(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6.34	42.07	29.95	9.84	1.81	
	고용주, 자영자	13.39	48.04	29.24	8.51	0.82	
	무급가족종사자	6.09	43.24	36.99	13.68	0.00	
	실업자	13.83	40.16	34.10	11.09	0.83	
	비경제활동인구	11.22	42.28	33.38	11.53	1.58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15	42.24	28.90	10.95	2.76	36.639(12) ***
	숙련 및 기술직	12.33	46.18	30.03	9.89	1.57	
	숙련 및 기술직	10.57	37.35	36.77	13.96	1.36	
	단순노무 종사자	13.70	50.09	31.99	2.64	1.5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23	43.21	32.11	11.42	2.04	3.147(4)
	비정규직	14.00	43.05	30.33	10.15	2.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86	46.38	30.89	9.45	1.43	17.725(8) *
	중도적	11.58	44.19	32.39	10.19	1.65	
	진보적	13.93	38.76	32.31	13.27	1.73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5〉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9.60	49.38	24.97	5.48	0.57	
성별	남성	19.71	49.40	24.72	5.27	0.90	8.907(4)
	여성	19.49	49.36	25.23	5.70	0.23	
연령	20대 이하	15.99	49.34	26.95	6.72	1.01	20.525(16)
	30대	18.74	50.03	24.88	5.70	0.65	
	40대	20.76	49.31	24.00	5.50	0.43	
	50대	20.86	47.43	25.14	5.89	0.68	
	60대 이상	20.93	50.78	24.15	3.95	0.18	
지역1	수도권	21.01	50.59	22.15	5.74	0.51	19.137(4) **
	비수도권	18.13	48.12	27.91	5.22	0.63	
지역2	대도시	23.65	47.45	22.56	5.92	0.42	42.464(8) ***
	중소도시	16.33	51.79	26.01	5.11	0.76	
	농어촌	18.01	45.27	31.01	5.45	0.2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5.95	48.16	23.05	2.41	0.43	65.523(12) ***
	중하층	20.80	51.54	22.58	4.78	0.31	
	중간층	17.12	47.92	27.91	6.36	0.69	
	중상층(상층)	15.16	49.00	22.85	11.16	1.8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93	49.78	25.06	5.69	0.55	24.181(16)
	200만 원대	21.21	49.07	24.96	4.29	0.48	
	300만 원대	19.66	50.20	23.81	6.29	0.03	
	400만 원대	22.34	45.76	22.98	7.55	1.36	
	500만 원 이상	15.80	49.65	29.35	3.81	1.40	
학력	중졸 이하	16.71	50.44	28.10	4.59	0.17	9.579(8)
	고졸	19.67	50.37	24.11	5.27	0.57	
	대졸 이상	20.39	48.11	24.87	5.96	0.6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73	47.81	26.28	5.61	0.56	62.922(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9.22	53.89	20.69	4.86	1.34	
	고용주, 자영자	20.87	50.25	23.92	4.86	0.11	
	무급가족종사자	11.22	48.00	36.70	4.08	0.00	
	실업자	21.12	42.66	23.64	9.32	3.26	
	비경제활동인구	18.94	50.24	25.34	5.38	0.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58	43.34	22.37	7.57	1.14	33.596(12) **
	숙련 및 기술직	19.74	50.54	23.87	5.46	0.39	
	단순노무 종사자	16.14	48.82	30.46	3.90	0.69	
	단순노무 종사자	18.42	54.88	24.27	1.90	0.5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0.16	47.13	26.70	5.47	0.55	11.760(4) *
	비정규직	18.33	54.43	20.60	5.37	1.2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8.19	51.00	25.37	4.83	0.61	16.388(8) *
	중도적	21.17	48.63	24.85	4.90	0.45	
	진보적	17.75	49.18	24.76	7.53	0.78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6〉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4)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3.26	44.72	25.71	12.27	4.03	
성별	남성	14.68	44.88	22.99	12.89	4.57	22.067(4) ***
	여성	11.80	44.55	28.53	11.64	3.48	
연령	20대 이하	10.53	43.43	31.22	12.28	2.54	37.119(16) ***
	30대	12.68	46.90	23.72	11.62	5.08	
	40대	14.38	41.71	26.77	11.87	5.27	
	50대	16.00	44.28	23.01	12.98	3.73	
	60대 이상	12.39	47.13	24.39	12.47	3.62	
지역1	수도권	14.34	43.57	26.80	12.66	2.63	27.220(4) ***
	비수도권	12.14	45.91	24.58	11.87	5.49	
지역2	대도시	8.10	46.82	24.28	15.60	5.19	127.111(8) ***
	중소도시	18.41	43.33	25.40	9.75	3.09	
	농어촌	9.63	42.11	34.59	10.07	3.6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6.51	46.88	23.30	10.49	2.81	21.270(12) *
	중하층	12.35	45.22	26.42	12.48	3.53	
	중간층	13.38	43.23	26.26	12.69	4.45	
	중상층(상층)	10.58	47.85	22.28	11.99	7.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91	45.17	26.68	11.34	3.91	23.753(16)
	200만 원대	12.10	44.59	27.67	12.25	3.39	
	300만 원대	12.90	45.61	23.71	13.68	4.09	
	400만 원대	16.81	39.59	23.10	14.53	5.97	
	500만 원 이상	16.87	45.43	19.12	13.69	4.90	
학력	중졸 이하	12.55	46.08	26.40	12.17	2.80	10.616(8)
	고졸	14.01	43.90	26.83	11.68	3.58	
	대졸 이상	12.76	45.10	24.43	12.88	4.8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34	43.48	24.35	13.21	4.62	28.35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24	45.68	25.24	15.15	2.70	
	고용주, 자영자	12.23	47.73	26.74	10.20	3.09	
	무급가족종사자	8.97	43.62	32.11	11.66	3.64	
	실업자	18.32	44.24	23.76	8.46	5.23	
	비경제활동인구	12.79	43.89	26.89	12.11	4.33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18	41.07	21.99	13.17	7.59	39.496(12) ***
	숙련 및 기술직	12.16	45.90	25.51	13.46	2.98	
	단순노무 종사자	11.39	45.79	27.85	10.19	4.79	
	단순노무 종사자	20.88	42.97	23.95	10.55	1.6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4.25	43.10	24.64	13.05	4.95	10.417(4) *
	비정규직	12.00	47.60	24.23	14.05	2.1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55	43.18	24.01	10.90	4.37	37.424(8) ***
	중도적	10.85	47.41	25.43	12.35	3.97	
	진보적	13.68	40.53	28.31	13.69	3.79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7>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5)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40.50	46.70	11.05	1.55	0.21	
성별	남성	42.01	45.06	10.79	1.78	0.36	10.836(4) *
	여성	38.93	48.40	11.31	1.31	0.05	
연령	20대 이하	39.13	43.39	16.10	1.30	0.08	43.256(16) ***
	30대	40.87	49.30	8.04	1.72	0.07	
	40대	42.17	45.73	10.21	1.18	0.71	
	50대	41.29	46.73	10.01	1.90	0.07	
	60대 이상	39.11	48.20	10.99	1.62	0.08	
지역1	수도권	41.43	47.03	9.98	1.48	0.08	7.534(4)
	비수도권	39.53	46.35	12.16	1.62	0.34	
지역2	대도시	42.67	44.17	11.57	1.42	0.16	13.483(8)
	중소도시	39.63	48.16	10.26	1.71	0.25	
	농어촌	34.70	50.98	12.92	1.25	0.1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50.34	36.20	11.32	1.73	0.41	72.055(12) ***
	중하층	43.82	46.06	9.08	0.88	0.16	
	중간층	35.38	50.16	12.33	2.04	0.10	
	중상층(상층)	33.69	49.64	13.91	1.82	0.9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9.60	46.83	12.11	1.27	0.19	25.963(16)
	200만 원대	41.67	47.23	9.66	1.44	0.00	
	300만 원대	41.07	43.73	11.98	2.83	0.38	
	400만 원대	40.92	50.36	7.76	0.96	0.00	
	500만 원 이상	41.47	46.59	9.34	1.71	0.89	
학력	중졸 이하	39.15	49.57	10.42	0.72	0.14	8.806(8)
	고졸	39.15	47.82	10.92	1.93	0.18	
	대졸 이상	42.21	44.76	11.36	1.43	0.2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1.26	47.00	9.77	1.52	0.45	24.447(2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9.50	46.05	12.17	2.09	0.19	
	고용주, 자영자	42.15	44.55	11.03	2.21	0.06	
	무급가족종사자	38.19	43.18	15.86	2.77	0.00	
	실업자	35.82	48.90	13.58	1.70	0.00	
	비경제활동인구	39.84	47.96	11.39	0.76	0.05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03	42.47	12.30	1.44	1.76	47.803(12) ***
	숙련 및 기술직	42.12	45.46	10.60	1.76	0.06	
	숙련 및 기술직	39.03	49.74	8.40	2.74	0.10	
	단순노무 종사자	35.39	48.06	15.59	0.96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0.37	47.55	9.95	1.65	0.49	2.534(4)
	비정규직	43.80	44.50	10.10	1.48	0.11	
이념적 성향	보수적	39.60	46.21	11.35	2.52	0.31	10.403(8)
	중도적	40.88	47.19	10.56	1.20	0.16	
	진보적	40.69	46.17	11.77	1.19	0.17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8〉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6)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단위: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14.72	41.35	29.23	12.76	1.94	
성별	남성	14.82	41.08	28.14	13.93	2.02	6.271(4)
	여성	14.61	41.63	30.36	11.54	1.85	
연령	20대 이하	15.38	38.69	31.87	11.93	2.12	26.685(16) *
	30대	12.85	40.16	30.83	13.19	2.98	
	40대	17.15	39.53	27.42	13.91	1.99	
	50대	14.92	42.79	29.96	10.77	1.56	
	60대 이상	13.28	44.65	26.86	13.90	1.31	
지역1	수도권	15.74	44.40	27.77	10.75	1.34	35.409(4) ***
	비수도권	13.66	38.17	30.76	14.85	2.56	
지역2	대도시	15.34	41.36	29.08	12.39	1.82	5.732(8)
	중소도시	14.62	41.71	29.16	12.63	1.88	
	농어촌	12.24	39.25	30.40	15.30	2.8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76	47.79	25.60	8.98	1.87	51.213(12) ***
	중하층	15.66	43.68	28.62	10.47	1.57	
	중간층	14.01	37.88	30.76	15.08	2.27	
	중상층(상층)	11.13	36.74	30.39	19.72	2.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4.55	42.10	29.60	11.91	1.85	41.335(16) ***
	200만 원대	14.75	41.34	31.11	11.04	1.75	
	300만 원대	11.80	43.40	28.28	13.70	2.83	
	400만 원대	17.22	38.80	28.32	14.05	1.61	
	500만 원 이상	19.93	33.75	23.13	21.64	1.55	
학력	중졸 이하	12.97	45.13	28.10	12.31	1.50	10.348(8)
	고졸	15.76	40.80	30.03	11.67	1.75	
	대졸 이상	14.23	40.77	28.80	13.95	2.2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4.63	39.78	30.23	12.82	2.54	38.578(20) **
	임금근로자	14.02	45.93	26.88	11.68	1.49	
	임시·일용직	15.64	41.38	25.92	15.37	1.69	
	임금근로자	16.52	29.08	37.63	14.73	2.05	
	고용주, 자영자	12.58	42.43	26.59	18.21	0.19	
	무급가족종사자	14.77	42.02	31.29	10.05	1.87	
직업	관리자, 전문가	17.13	37.97	31.30	9.57	4.02	31.187(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76	42.03	27.52	13.05	1.64	
	숙련 및 기술직	11.19	38.19	30.93	17.10	2.60	
	단순노무 종사자	12.11	45.41	27.39	13.83	1.26	
	비경제활동인구	14.92	39.42	29.83	13.29	2.5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83	47.02	27.70	9.97	1.48	10.661(4) *
	비정규직	11.28	43.82	29.25	13.59	2.07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47	40.12	29.07	12.49	1.84	15.618(8) *
	중도적	14.81	41.24	29.57	12.38	1.99	
	진보적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99>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7)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8.53	40.64	32.59	15.86	2.38	
성별	남성	8.23	40.77	32.21	15.90	2.88	5.032(4)
	여성	8.84	40.51	32.99	15.82	1.85	
연령	20대 이하	9.53	37.79	36.57	14.05	2.07	22.219(16)
	30대	7.78	39.01	32.58	18.34	2.29	
	40대	9.75	42.04	29.66	16.38	2.17	
	50대	8.48	42.03	30.04	16.67	2.78	
	60대 이상	7.26	41.64	34.36	14.24	2.50	
지역1	수도권	7.74	43.31	30.68	16.03	2.24	15.150(4)**
	비수도권	9.35	37.86	34.58	15.68	2.52	
지역2	대도시	7.38	39.84	33.26	16.02	3.49	38.174(8)***
	중소도시	9.34	42.44	30.91	16.10	1.21	
	농어촌	9.58	34.39	38.84	13.72	3.4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92	41.41	33.97	11.86	1.84	31.660(12)**
	중하층	7.63	42.44	32.42	14.30	3.21	
	중간층	8.70	38.51	32.76	18.21	1.83	
	중상층(상층)	7.42	43.28	28.98	18.02	2.3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6	41.99	31.77	15.36	2.01	32.515(16)**
	200만 원대	8.16	39.30	33.29	16.14	3.12	
	300만 원대	5.81	40.24	37.76	14.01	2.18	
	400만 원대	12.62	35.62	30.37	19.30	2.09	
	500만 원 이상	8.96	41.64	26.82	19.16	3.42	
학력	중졸 이하	7.36	40.46	37.87	12.55	1.76	21.544(8)**
	고졸	9.43	40.17	32.39	15.00	3.01	
	대졸 이상	8.00	41.15	31.22	17.69	1.9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8.84	39.68	32.68	16.43	2.37	52.442(20)***
	임금근로자	11.77	41.64	31.19	14.44	0.95	
	임시·일용직	6.49	38.10	35.39	15.84	4.20	
	임금근로자	1.96	37.95	44.02	12.78	3.29	
	고용주, 자영자	12.45	36.65	31.00	19.07	0.82	
	무급가족종사자	7.87	44.27	30.60	15.34	1.93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12.23	37.54	33.23	15.55	1.45	29.643(12)**
	관리자, 전문가	7.78	39.32	33.72	16.35	2.8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6.68	38.38	34.82	16.58	3.54	
	숙련 및 기술직 단순노무 종사자	13.41	49.20	27.85	8.53	1.0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83	39.61	32.29	16.79	2.48	11.357(4)*
	비정규직	11.14	44.14	30.52	13.38	0.83	
이념적 성향	보수적	7.02	39.14	31.74	19.19	2.91	31.557(8)***
	중도적	8.09	41.40	34.47	13.80	2.25	
	진보적	11.23	40.71	29.43	16.59	2.04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0〉 다음 의견에 대한 동의: (8)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단위 : %)

구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χ^2 (df)
전체		2.08	20.53	34.39	32.39	10.61	
성별	남성	2.00	19.90	34.25	33.21	10.64	1.795(4)
	여성	2.17	21.19	34.53	31.53	10.57	
연령	20대 이하	2.20	20.88	34.19	32.79	9.95	12.021(16)
	30대	1.73	19.41	34.77	33.16	10.93	
	40대	1.49	21.64	33.04	31.44	12.40	
	50대	2.85	21.73	33.75	31.65	10.01	
	60대 이상	2.08	19.03	36.03	32.99	9.87	
지역1	수도권	1.67	23.70	34.78	33.72	6.13	102.716(4) ****
	비수도권	2.52	17.22	33.98	31.00	15.28	
지역2	대도시	1.80	17.95	37.41	33.14	9.71	54.775(8) ****
	중소도시	1.84	23.27	30.52	33.00	11.37	
	농어촌	4.92	17.78	41.39	25.14	10.7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4	18.77	33.45	31.07	15.17	55.064(12) ****
	중하층	2.16	17.45	36.12	32.25	12.03	
	중간층	2.04	22.43	33.98	33.47	8.07	
	중상층(상층)	3.35	31.48	27.73	27.81	9.6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1	20.60	33.91	31.85	11.73	27.231(16) *
	200만 원대	2.82	20.67	35.30	33.58	7.63	
	300만 원대	1.99	17.55	37.74	33.37	9.36	
	400만 원대	1.48	23.05	30.51	32.75	12.22	
	500만 원 이상	1.79	23.64	31.47	29.59	13.51	
학력	중졸 이하	2.61	19.87	34.33	31.93	11.26	2.568(8)
	고졸	1.76	21.20	34.05	32.54	10.46	
	대졸 이상	2.24	20.08	34.74	32.38	10.5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2	20.48	34.24	32.89	10.36	39.245(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5	21.11	33.09	28.55	15.10	
	고용주, 자영자	2.74	19.76	38.52	30.76	8.22	
	무급가족종사자	0.00	24.73	44.79	21.44	9.03	
	실업자	1.36	16.72	35.47	32.18	14.28	
	비경제활동인구	1.94	21.37	31.23	35.37	10.09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3.80	19.84	32.14	30.56	13.66	34.711(12) **
	숙련 및 기술직	1.82	21.95	37.32	29.62	9.29	
	숙련 및 기술직	2.55	17.32	35.17	34.08	10.87	
	단순노무 종사자	1.58	16.66	25.64	40.42	15.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6	20.18	34.36	32.47	10.83	2.776(4)
	비정규직	1.83	21.25	33.16	30.48	13.28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0	23.57	33.79	31.56	9.09	26.273(8) **
	중도적	2.39	18.34	36.61	32.16	10.51	
	진보적	1.52	21.89	30.17	33.84	12.58	

주: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1〉 1년간 활동 빈도: (1) 자원봉사

(단위 : %)

구분		일주일에 한 번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χ^2 (df)
전체		86.08	8.86	2.63	1.55	0.88	
성별	남성	85.14	9.40	3.08	1.58	0.80	5.116(4)
	여성	87.05	8.30	2.17	1.52	0.97	
연령	20대 이하	85.42	9.29	2.94	1.90	0.45	48.035(16) ***
	30대	85.21	12.12	1.97	0.64	0.05	
	40대	86.21	9.46	2.28	1.43	0.62	
	50대	85.48	7.85	3.85	1.57	1.25	
	60대 이상	87.70	6.44	2.07	2.05	1.74	
지역1	수도권	87.88	8.55	2.06	0.84	0.67	22.538(4) ***
	비수도권	84.20	9.18	3.22	2.29	1.11	
지역2	대도시	87.61	7.53	2.52	1.59	0.76	34.779(8) ***
	중소도시	86.42	9.01	2.41	1.19	0.97	
	농어촌	76.53	14.58	4.45	3.43	1.0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1.98	5.60	0.37	0.95	1.11	70.528(12) ***
	중하층	88.37	8.16	2.14	0.70	0.63	
	중간층	83.53	9.72	3.31	2.31	1.13	
	중상층(상층)	75.61	15.10	6.38	2.91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02	6.65	2.44	1.72	1.18	96.160(16) ***
	200만 원대	86.14	9.87	1.71	1.49	0.79	
	300만 원대	87.31	8.89	2.46	1.01	0.33	
	400만 원대	79.34	17.94	1.76	0.90	0.06	
	500만 원 이상	75.71	11.85	8.78	2.49	1.16	
학력	중졸 이하	91.71	3.55	1.70	1.60	1.44	41.565(8) ***
	고졸	87.50	8.55	1.96	1.37	0.63	
	대졸 이상	83.03	10.74	3.56	1.71	0.9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2.94	12.29	2.75	1.58	0.43	52.394(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8.68	7.34	1.25	1.68	1.05	
	고용주, 자영자	86.83	7.21	3.90	1.18	0.88	
	무급가족종사자	86.97	9.67	1.43	1.93	0.00	
	실업자	87.91	8.03	1.35	0.71	2.00	
	비경제활동인구	88.04	6.36	2.50	1.86	1.24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5.27	14.14	6.82	2.23	1.54	55.367(12) ***
	숙련 및 기술직	85.52	10.25	2.46	1.37	0.40	
	단순노무 종사자	87.80	8.06	1.70	1.78	0.65	
	단순노무 종사자	94.12	3.17	0.98	0.29	1.4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2.59	12.65	2.89	1.59	0.28	23.967(4) ***
	비정규직	90.27	6.17	1.14	1.40	1.03	
이념적 성향	보수적	86.18	7.97	3.30	1.46	1.09	16.401(8) *
	중도적	86.83	8.27	2.44	1.84	0.61	
	진보적	84.29	11.18	2.28	1.01	1.23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2〉 1년간 활동 빈도: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단위 : %)

구분		일주일에 한 번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χ^2 (df)
전체		78.78	12.05	6.77	1.93	0.48	
성별	남성	78.83	12.45	6.52	1.74	0.45	1.677(4)
	여성	78.72	11.63	7.01	2.13	0.50	
연령	20대 이하	85.48	8.47	4.51	1.39	0.14	82.094(16) ***
	30대	75.23	15.35	7.80	1.47	0.15	
	40대	74.86	13.54	7.85	3.25	0.51	
	50대	73.34	14.07	9.65	2.12	0.83	
	60대 이상	84.57	9.23	4.18	1.38	0.64	
지역1	수도권	80.65	10.74	6.31	2.05	0.26	13.960(4) **
	비수도권	76.83	13.42	7.24	1.81	0.71	
지역2	대도시	78.30	11.50	8.06	1.81	0.34	25.667(8) **
	중소도시	80.35	11.53	5.56	2.07	0.49	
	농어촌	72.24	17.72	7.19	1.80	1.0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9.18	7.15	1.82	1.36	0.49	164.983(12) ***
	중하층	82.46	12.22	4.29	0.86	0.16	
	중간층	74.73	13.08	8.81	2.76	0.62	
	중상층(상층)	59.15	14.82	20.27	4.24	1.5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3.60	8.84	5.52	1.43	0.60	124.919(16) ***
	200만 원대	79.11	13.79	5.11	1.51	0.48	
	300만 원대	75.71	14.65	6.99	2.50	0.14	
	400만 원대	64.92	19.48	11.91	3.22	0.47	
	500만 원 이상	63.49	16.04	15.72	4.49	0.26	
학력	중졸 이하	86.85	8.43	3.22	0.84	0.67	115.188(8) ***
	고졸	83.36	10.98	3.76	1.60	0.30	
	대졸 이상	71.93	14.16	10.74	2.58	0.5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1.37	17.04	8.42	2.83	0.33	101.153(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5.22	8.15	5.10	1.15	0.38	
	고용주, 자영자	78.40	12.50	6.79	1.64	0.67	
	무급가족종사자	81.62	7.83	8.08	2.48	0.00	
	실업자	84.54	11.96	2.94	0.56	0.00	
	비경제활동인구	84.51	7.25	5.99	1.55	0.70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9.75	19.50	16.19	3.40	1.16	83.991(12) ***
	숙련 및 기술직	77.32	13.32	6.76	2.28	0.31	
	숙련 및 기술직	79.14	13.91	4.85	1.66	0.44	
	단순노무 종사자	87.90	8.95	2.76	0.39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1.20	17.38	8.20	2.92	0.30	36.044(4) ***
	비정규직	84.85	8.55	5.27	0.92	0.41	
이념적 성향	보수적	80.44	10.11	7.70	1.41	0.34	48.237(8) ***
	중도적	80.33	12.22	5.83	1.43	0.19	
	진보적	73.44	13.89	7.75	3.65	1.28	

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3〉 국가 자긍심

(단위 : %)

구분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χ^2 (df)
전체		11.84	73.29	14.38	0.50	
성별	남성	11.63	72.39	15.29	0.69	5.818(3)
	여성	12.06	74.22	13.42	0.30	
연령	20대 이하	7.62	75.18	16.64	0.55	49.726(12) ****
	30대	9.82	74.79	15.08	0.31	
	40대	11.97	72.37	14.82	0.84	
	50대	11.12	74.91	13.31	0.66	
	60대 이상	17.28	69.96	12.62	0.15	
지역1	수도권	9.64	73.83	16.10	0.43	25.280(3) ****
	비수도권	14.13	72.72	12.58	0.57	
지역2	대도시	11.96	71.74	15.70	0.59	14.607(6) *
	중소도시	10.89	75.00	13.67	0.44	
	농어촌	16.61	71.19	11.80	0.4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89	67.98	19.91	2.22	131.113(9) ****
	중하층	9.71	72.90	17.28	0.11	
	중간층	12.68	76.96	10.12	0.23	
	중상층(상층)	25.14	59.44	14.40	1.0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26	72.09	14.12	0.53	30.751(12) **
	200만 원대	8.33	73.65	17.61	0.40	
	300만 원대	11.60	76.32	11.88	0.19	
	400만 원대	10.91	72.97	15.27	0.85	
	500만 원 이상	14.81	74.47	9.80	0.93	
학력	중졸 이하	18.99	72.31	8.30	0.39	49.667(6) ****
	고졸	10.66	71.70	17.07	0.57	
	대졸 이상	10.86	75.11	13.58	0.4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87	74.74	14.81	0.58	33.530(15)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04	74.48	13.55	0.94	
	고용주, 자영자	11.78	72.21	15.76	0.25	
	무급가족종사자	26.50	61.95	11.55	0.00	
	실업자	10.48	70.73	18.22	0.57	
비경제활동인구	14.04	72.94	12.62	0.40		
직업	관리자, 전문가	13.36	77.23	8.58	0.83	29.939(9)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49	74.00	15.87	0.64	
	숙련 및 기술직	14.65	68.82	16.53	0.00	
	단순노무 종사자	11.70	76.84	11.06	0.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98	75.00	14.44	0.58	0.772(3)
	비정규직	11.35	74.02	14.22	0.4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2.68	72.65	14.00	0.67	17.935(6) **
	중도적	10.18	75.19	14.07	0.56	
	진보적	14.55	69.81	15.47	0.16	

주: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4〉 지난 10년 동안 생활수준의 변화

(단위 : %)

구분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χ^2 (df)
전체		0.93	25.21	52.26	18.70	2.90	
성별	남성	1.14	25.17	51.00	19.26	3.44	8.025(4)
	여성	0.73	25.25	53.56	18.12	2.34	
연령	20대 이하	0.76	22.36	64.57	11.54	0.76	203.351(16) ***
	30대	1.38	31.66	52.66	13.35	0.95	
	40대	0.89	29.53	48.35	19.17	2.06	
	50대	1.21	27.80	47.38	18.60	5.01	
	60대 이상	0.52	16.41	50.08	28.11	4.87	
지역1	수도권	0.73	22.73	56.86	17.38	2.30	37.509(4) ***
	비수도권	1.15	27.79	47.46	20.07	3.52	
지역2	대도시	1.08	25.89	50.70	19.11	3.22	9.657(8)
	중소도시	0.85	24.73	54.14	17.63	2.66	
	농어촌	0.70	24.55	49.31	22.76	2.6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10	10.00	44.29	31.99	13.63	491.505(12) ***
	중하층	0.25	22.75	52.03	22.72	2.25	
	중간층	1.53	30.15	55.20	12.62	0.49	
	중상층(상층)	3.07	41.01	50.00	5.92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0.73	19.66	52.45	22.84	4.31	171.350(16) ***
	200만 원대	0.30	27.16	53.23	16.55	2.77	
	300만 원대	0.54	30.56	52.61	15.33	0.96	
	400만 원대	2.23	32.83	51.68	13.05	0.20	
	500만 원 이상	4.20	39.77	47.18	8.73	0.13	
학력	중졸 이하	0.39	15.02	50.29	27.56	6.73	132.882(8) ***
	고졸	1.08	23.57	51.20	20.64	3.51	
	대졸 이상	0.95	29.83	53.87	14.18	1.1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29	31.68	56.66	9.52	0.85	284.371(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44	22.39	47.29	24.35	5.53	
	고용주, 자영자	0.62	24.60	40.41	30.05	4.31	
	무급가족종사자	2.41	37.40	41.38	15.28	3.53	
	실업자	1.32	10.11	51.23	30.69	6.64	
	비경제활동인구	0.74	20.61	58.22	17.81	2.62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62	34.31	47.36	15.76	0.96	50.291(12) ***
	숙련 및 기술직	0.98	28.47	50.63	16.85	3.08	
	숙련 및 기술직	0.88	26.79	51.29	19.29	1.74	
	단순노무 종사자	0.00	16.93	44.65	32.68	5.7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9	33.00	55.54	9.30	0.78	101.465(4) ***
	비정규직	0.21	19.41	53.24	22.55	4.58	
이념적 성향	보수적	0.87	20.93	50.69	23.94	3.58	55.274(8) ***
	중도적	1.03	24.76	54.91	16.17	3.13	
	진보적	0.81	31.12	48.20	18.25	1.62	

주: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5〉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단위 : %)

구분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20	37.90	41.01	14.45	4.43	
성별	남성	2.64	39.04	39.32	14.86	4.14	8.836(4)
	여성	1.75	36.71	42.77	14.03	4.74	
연령	20대 이하	3.17	42.38	41.20	7.51	5.74	91.203(16)***
	30대	2.53	41.95	40.53	11.40	3.59	
	40대	1.67	40.88	38.45	15.08	3.91	
	50대	2.35	36.85	41.02	15.85	3.93	
	60대 이상	1.51	29.61	43.48	20.44	4.96	
지역1	수도권	2.00	35.79	43.75	13.52	4.95	17.681(4)**
	비수도권	2.42	40.10	38.17	15.42	3.89	
지역2	대도시	2.46	35.07	42.80	15.04	4.63	13.540(8)
	중소도시	2.05	39.59	40.40	13.83	4.13	
	농어촌	1.80	42.29	35.68	15.04	5.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0.90	17.16	41.37	33.07	7.51	517.227(12)* ***
	중하층	1.04	31.51	46.55	16.87	4.03	
	중간층	2.47	46.32	39.37	7.70	4.14	
	중상층(상층)	11.66	67.38	13.98	5.05	1.93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0	33.43	41.09	17.80	5.59	127.281(16)* **
	200만 원대	1.54	38.91	44.35	11.78	3.41	
	300만 원대	1.73	38.79	44.77	12.05	2.66	
	400만 원대	2.12	47.38	34.18	12.76	3.56	
	500만 원 이상	6.55	55.84	27.73	5.60	4.28	
학력	중졸 이하	1.53	30.52	40.93	20.93	6.09	113.952(8)***
	고졸	1.20	33.41	43.34	16.94	5.11	
	대졸 이상	3.37	44.45	38.79	10.10	3.2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24	44.24	39.59	10.68	3.25	103.074(20)* **
	임금근로자	0.90	28.40	44.14	19.45	7.1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08	35.21	42.38	17.29	3.04	
	고용주, 자영자	4.91	44.44	30.34	13.76	6.54	
	무급가족종사자	4.52	25.15	44.95	19.62	5.76	
	실업자	2.17	37.80	40.48	14.15	5.41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4.06	51.02	34.43	6.21	4.29	56.750(12)***
	관리자, 전문가	1.75	37.04	42.80	14.68	3.73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90	40.11	38.47	15.19	4.32	
	숙련 및 기술직 단순노무 종사자	1.16	29.31	42.67	22.52	4.3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30	44.60	39.24	10.70	3.17	47.445(4)***
	비정규직	0.83	30.77	44.38	16.94	7.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2	31.27	45.05	17.19	4.47	57.713(8)***
	중도적	2.44	38.19	41.19	12.79	5.39	
	진보적	1.89	44.87	35.99	14.97	2.28	

주: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6〉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예상

(단위 : %)

구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29	46.19	32.97	8.99	9.56	
성별	남성	2.55	46.92	31.75	9.62	9.16	5.871(4)
	여성	2.02	45.43	34.23	8.34	9.97	
연령	20대 이하	3.36	43.13	32.54	5.83	15.15	68.389(16) ***
	30대	2.80	47.54	29.68	10.37	9.61	
	40대	1.57	48.02	33.38	7.63	9.40	
	50대	2.56	47.83	31.50	10.11	8.01	
	60대 이상	1.43	44.49	36.79	10.64	6.64	
지역1	수도권	1.57	44.56	34.58	8.18	11.10	27.154(4) ***
	비수도권	3.03	47.89	31.29	9.84	7.95	
지역2	대도시	2.05	41.41	38.32	7.71	10.51	50.612(8) ***
	중소도시	2.58	49.62	28.66	10.12	9.02	
	농어촌	1.79	50.43	30.90	8.98	7.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0	30.63	36.28	18.58	13.40	182.717(12) ***
	중하층	1.32	45.49	33.11	10.45	9.63	
	중간층	3.05	49.69	33.58	5.01	8.67	
	중상층(상층)	5.98	62.11	18.55	6.80	6.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32	42.51	34.40	10.15	10.62	51.046(16) ***
	200만 원대	2.11	47.53	33.80	8.56	7.99	
	300만 원대	1.60	48.44	32.38	7.47	10.11	
	400만 원대	2.45	49.17	31.31	9.63	7.44	
	500만 원 이상	4.10	61.11	22.32	4.48	7.99	
학력	중졸 이하	0.82	45.21	36.13	10.47	7.37	28.149(8) ***
	고졸	1.98	43.62	34.35	9.41	10.63	
	대졸 이상	3.02	48.97	30.69	8.15	9.17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18	50.63	30.39	8.05	8.75	76.383(20) ***
	임금근로자	1.81	41.41	32.06	13.15	11.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8	47.70	31.85	10.94	7.24	
	고용주, 자영자	1.93	52.09	36.42	5.47	4.09	
	무급가족종사자	5.56	34.01	34.14	10.76	15.53	
	비경제활동인구	2.02	43.41	37.06	6.90	10.61	
직업	관리자, 전문가	5.85	47.25	24.96	9.14	12.80	45.193(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2	47.86	32.36	9.52	8.74	
	숙련 및 기술직	1.40	51.04	30.97	10.79	5.80	
	단순노무 종사자	2.89	45.71	34.01	9.21	8.1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26	51.24	30.07	7.97	8.46	15.014(4) **
	비정규직	1.47	43.23	32.11	11.57	11.62	
이념적 성향	보수적	2.42	45.09	36.38	7.94	8.16	15.196(8)
	중도적	2.26	45.39	32.12	9.52	10.72	
	진보적	2.18	49.23	30.92	9.05	8.62	

주: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7〉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도

(단위 : %)

구분		0.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χ^2 (df)
전체		2.09	2.86	7.23	15.49	12.49	33.45	12.43	9.51	3.76	0.34	0.34	
성별	남성	2.73	2.91	8.08	15.26	12.49	32.28	11.57	10.37	3.65	0.42	0.24	21.420 (10)*
	여성	1.42	2.80	6.36	15.74	12.50	34.67	13.32	8.61	3.87	0.27	0.44	
연령	20대 이하	1.18	2.28	6.28	19.09	12.65	31.03	13.05	9.69	3.25	0.64	0.84	87.549 (40) ****
	30대	1.90	1.86	5.97	13.33	13.55	36.33	12.13	8.99	5.64	0.30	0.00	
	40대	3.07	3.30	7.50	14.42	12.35	32.29	12.06	11.01	3.16	0.41	0.43	
	50대	1.34	2.28	7.08	14.15	11.50	33.12	14.24	10.50	5.41	0.20	0.20	
지역1	수도권	2.49	3.15	6.75	14.24	13.90	33.07	13.44	8.34	4.27	0.19	0.16	35.583 (10)***
	비수도권	1.67	2.55	7.74	16.80	11.03	33.85	11.38	10.72	3.22	0.50	0.53	
지역2	대도시	2.15	4.14	7.46	17.09	13.37	31.83	14.14	7.43	2.13	0.14	0.14	120.84 (20) ****
	중소도시	2.24	1.92	7.23	14.46	11.85	34.60	11.68	10.43	5.02	0.37	0.20	
	농어촌	0.95	1.84	6.16	13.46	11.80	34.95	8.22	14.58	4.66	1.25	2.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2	2.55	8.59	17.59	15.51	31.63	8.95	6.52	5.35	0.40	0.00	100.23 1(30) ****
	중하층	1.97	3.16	6.92	17.02	12.68	35.50	10.68	8.49	3.35	0.08	0.15	
	중간층	1.70	2.30	7.34	14.38	11.73	32.21	14.24	11.53	3.50	0.58	0.49	
	중상층(상층)	4.03	6.09	5.18	8.33	9.72	33.61	18.99	7.80	4.72	0.21	1.3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6	3.01	6.84	17.50	13.34	34.48	10.86	7.91	3.27	0.33	0.41	74.129 (40) **
	200만 원대	1.38	3.41	7.18	14.78	11.51	33.05	15.44	9.38	3.41	0.20	0.26	
	300만 원대	1.80	1.69	8.73	11.49	12.99	32.11	13.07	12.18	5.09	0.50	0.35	
	400만 원대	4.00	3.10	7.37	12.56	10.83	28.46	12.96	13.94	6.06	0.73	0.00	
	500만 원 이상	3.30	2.29	6.77	15.36	10.11	35.86	11.87	10.89	2.94	0.15	0.46	
학력	중졸 이하	2.18	2.95	6.92	14.98	13.88	35.64	11.80	9.14	1.97	0.30	0.23	24.737 (20)
	고졸	1.45	2.63	7.13	15.75	11.95	35.15	12.08	9.80	3.58	0.18	0.30	
	대졸 이상	2.68	3.05	7.42	15.39	12.61	31.15	12.96	9.33	4.47	0.52	0.4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53	2.45	7.60	14.88	10.60	31.29	15.06	10.29	4.47	0.55	0.28	86.093 (5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9	2.76	6.39	14.46	17.00	33.77	9.52	9.32	3.92	0.32	0.35	
	고용주, 자영자	2.02	3.73	7.28	15.14	12.34	33.87	10.73	11.80	2.66	0.20	0.22	
	무급가족종사자	1.28	0.26	4.54	8.88	13.92	34.29	15.44	15.40	3.55	1.17	1.25	
	실업자	1.33	2.52	6.05	17.98	12.87	36.77	12.64	6.77	1.66	0.00	1.41	
	비경제활동인구	1.72	3.05	7.51	16.96	12.93	35.10	11.26	7.05	3.98	0.21	0.23	
직업	관리자, 전문가	5.20	3.32	8.35	13.74	12.71	33.12	12.20	7.07	2.51	0.18	1.60	83.252 (30)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1	2.91	6.82	14.85	12.94	33.43	13.33	9.43	4.42	0.38	0.00	
	숙련 및 기술직	2.50	2.00	8.57	14.43	9.78	30.52	11.85	16.26	2.71	0.86	0.52	
	단순노무 종사자	3.59	3.16	4.83	16.32	12.43	28.31	12.84	14.42	3.99	0.11	0.0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57	1.99	7.59	14.77	10.08	31.72	15.24	10.62	4.69	0.46	0.26	26.010 (10)**
	비정규직	1.77	3.70	7.15	14.66	16.57	32.52	10.49	8.63	3.67	0.42	0.4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74	5.55	7.73	17.63	11.62	32.81	11.14	7.16	3.48	0.15	0.00	82.738 (20) ****
	중도적	2.05	1.93	7.05	14.50	13.46	35.17	11.46	10.00	3.62	0.33	0.42	
	진보적	1.43	1.81	7.06	15.23	11.35	30.39	16.06	11.13	4.38	0.60	0.56	

주: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8〉 이웃과의 관계: (1) 이웃과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9.50	37.05	22.60	22.71	8.13	
성별	남성	7.86	33.82	22.17	26.43	9.72	60.693(4) ****
	여성	11.21	40.40	23.04	18.86	6.49	
연령	20대 이하	3.44	19.24	22.63	36.16	18.52	545.878(16) ****
	30대	4.02	30.82	26.20	30.41	8.56	
	40대	7.47	36.26	24.78	23.21	8.27	
	50대	11.22	45.88	23.04	16.12	3.74	
	60대 이상	18.68	48.51	17.52	11.82	3.47	
지역1	수도권	5.81	35.28	23.30	26.33	9.29	93.781(4) ****
	비수도권	13.36	38.89	21.87	18.94	6.94	
지역2	대도시	7.09	35.44	21.99	25.88	9.60	221.474(8) ****
	중소도시	8.17	37.43	23.85	22.53	8.04	
	농어촌	29.10	42.89	18.52	8.08	1.4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45	38.60	20.21	21.02	7.71	27.930(12) **
	중하층	8.34	38.27	23.70	20.96	8.73	
	중간층	8.92	35.45	22.79	25.10	7.75	
	중상층(상층)	15.16	37.51	19.24	20.01	8.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32	39.35	21.05	18.90	8.37	88.887(16) ****
	200만 원대	6.69	32.59	24.68	27.03	9.01	
	300만 원대	5.63	35.48	22.50	28.29	8.11	
	400만 원대	6.78	34.25	26.91	27.52	4.55	
	500만 원 이상	9.92	41.88	22.50	18.30	7.40	
학력	중졸 이하	22.62	46.33	16.76	10.79	3.51	202.441(8) ****
	고졸	8.11	38.10	23.60	21.75	8.43	
	대졸 이상	6.95	33.26	23.36	27.20	9.22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31	31.51	24.32	29.52	10.33	283.527(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26	39.16	17.42	23.91	8.24	
	고용주, 자영자	15.78	41.61	25.54	12.10	4.97	
	무급가족종사자	39.92	43.29	9.16	7.64	0.00	
	실업자	5.55	33.90	26.72	27.64	6.18	
	비경제활동인구	9.61	40.19	20.61	21.11	8.47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29	35.79	22.20	21.89	9.83	63.692(12) ****
	숙련 및 기술직	7.81	33.83	24.80	25.44	8.11	
	숙련 및 기술직	15.51	39.76	19.81	16.09	8.82	
	단순노무 종사자	11.33	48.15	16.89	20.69	2.9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19	30.91	24.15	30.13	10.63	36.482(4) ****
	비정규직	9.92	38.80	18.42	24.11	8.7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18	46.65	20.93	16.25	4.99	99.962(8) ****
	중도적	9.62	34.99	23.27	23.52	8.60	
	진보적	7.32	30.56	23.04	28.36	10.73	

주: “귀하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09〉 이웃과의 관계: (2) 이웃이 곤경에 처하면 도움 의향이 있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10.13	46.77	33.10	7.23	2.78	
성별	남성	10.02	44.23	34.04	8.59	3.12	18.582(4) **
	여성	10.23	49.39	32.13	5.82	2.43	
연령	20대 이하	6.19	40.72	37.53	11.07	4.49	106.928(16) ***
	30대	6.87	46.94	34.61	8.46	3.12	
	40대	9.08	44.26	36.72	6.67	3.28	
	50대	13.67	50.89	27.88	5.66	1.90	
	60대 이상	13.39	49.87	30.04	5.17	1.54	
지역1	수도권	7.68	46.59	33.81	8.28	3.65	41.827(4) ***
	비수도권	12.68	46.95	32.36	6.13	1.88	
지역2	대도시	8.20	45.12	33.48	8.70	4.49	83.206(8) ***
	중소도시	10.23	47.60	34.12	6.31	1.74	
	농어촌	19.06	50.16	25.39	5.14	0.2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58	38.23	33.36	10.06	2.77	55.039(12) ***
	중하층	8.48	45.56	35.53	6.84	3.59	
	중간층	9.38	50.45	31.38	6.74	2.06	
	중상층(상층)	14.08	46.97	29.17	6.81	2.9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1.19	45.99	33.46	6.82	2.53	28.392(16) *
	200만 원대	8.79	47.00	34.14	6.47	3.60	
	300만 원대	7.62	46.05	33.70	9.72	2.91	
	400만 원대	13.07	46.90	31.58	7.36	1.10	
	500만 원 이상	9.14	53.43	26.97	7.01	3.46	
학력	중졸 이하	15.36	48.50	30.71	3.72	1.71	39.853(8) ***
	고졸	8.40	45.45	35.85	7.63	2.67	
	대졸 이상	10.24	47.53	31.14	7.89	3.2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61	47.37	32.77	8.48	3.77	108.888(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2.86	40.18	36.73	7.82	2.41	
	고용주, 자영자	12.70	52.69	28.14	3.77	2.70	
	무급가족종사자	32.26	41.74	20.33	4.38	1.28	
	실업자	8.70	39.88	37.81	11.75	1.86	
	비경제활동인구	9.09	46.27	35.48	7.15	2.01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0.40	47.50	31.97	6.19	3.94	6.987(12)
	숙련 및 기술직	10.15	46.84	32.67	7.16	3.19	
	숙련 및 기술직	11.75	50.30	28.44	6.52	2.98	
	단순노무 종사자	12.95	45.85	32.48	6.97	1.75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62	46.79	32.86	8.92	3.82	7.272(4)
	비정규직	11.06	44.71	34.00	7.42	2.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9.43	51.99	31.66	4.74	2.19	33.034(8) ***
	중도적	10.39	44.38	34.51	7.39	3.33	
	진보적	10.35	46.03	31.63	9.73	2.25	

주: “귀하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0〉 이웃과의 관계: (3)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4.31	32.81	48.22	12.96	1.70	
성별	남성	3.88	30.62	49.59	14.24	1.68	14.218(4) **
	여성	4.75	35.08	46.81	11.64	1.73	
연령	20대 이하	2.10	21.73	54.62	18.33	3.23	152.205(16) ***
	30대	2.30	29.69	54.41	12.23	1.37	
	40대	2.86	34.36	47.94	12.95	1.89	
	50대	5.73	35.43	46.34	10.73	1.77	
	60대 이상	7.55	40.21	40.43	11.30	0.50	
지역1	수도권	2.16	29.72	52.31	14.25	1.56	76.206(4) ***
	비수도권	6.55	36.02	43.96	11.62	1.85	
지역2	대도시	2.46	29.32	51.22	15.42	1.59	163.338(8) ***
	중소도시	4.20	33.56	47.96	12.21	2.08	
	농어촌	14.13	45.85	34.82	5.08	0.1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6	33.59	40.96	16.64	2.66	49.865(12) ***
	중하층	3.45	30.72	51.23	13.01	1.60	
	중간층	4.00	33.21	49.44	11.87	1.49	
	중상층(상층)	8.32	42.50	35.20	12.21	1.7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5.17	35.27	44.62	13.39	1.55	49.833(16) ***
	200만 원대	2.60	26.89	55.77	12.76	1.98	
	300만 원대	2.72	32.29	50.74	13.12	1.13	
	400만 원대	5.36	34.87	46.75	10.44	2.57	
	500만 원 이상	6.23	33.51	45.19	12.87	2.20	
학력	중졸 이하	9.69	41.47	38.45	9.58	0.81	80.818(8) ***
	고졸	3.19	32.83	49.12	12.69	2.18	
	대졸 이상	3.79	30.21	50.26	14.24	1.5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8	29.28	52.42	12.34	2.57	113.593(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5.05	29.16	45.90	17.65	2.24	
	고용주, 자영자	5.62	37.56	45.82	10.15	0.85	
	무급가족종사자	16.34	53.74	22.86	7.05	0.00	
	실업자	2.47	25.78	51.16	19.87	0.72	
	비경제활동인구	3.77	35.47	46.69	12.81	1.26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5.31	31.42	48.33	12.52	2.42	39.648(12) ***
	숙련 및 기술직	3.32	31.23	51.17	12.38	1.90	
	단순노무 종사자	7.98	38.23	39.41	12.30	2.08	
	단순노무 종사자	7.09	27.05	50.68	14.06	1.1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31	29.47	51.70	12.82	2.70	8.899(4)
	비정규직	4.92	28.30	47.36	17.21	2.21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4	39.28	42.16	12.64	1.28	46.492(8) ***
	중도적	4.27	32.32	49.20	12.77	1.43	
	진보적	4.01	26.44	53.03	13.75	2.77	

주: “귀하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1> 이웃과의 관계: (4) 이 동네 이웃 사람들은 대체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7.44	30.65	32.95	24.03	4.93	
성별	남성	7.67	32.48	33.44	22.04	4.37	14.292(4) **
	여성	7.21	28.76	32.44	26.09	5.50	
연령	20대 이하	9.37	34.40	32.14	20.47	3.62	90.412(16) ***
	30대	10.20	28.79	35.69	23.05	2.27	
	40대	8.23	29.06	35.25	23.14	4.31	
	50대	6.00	33.07	32.02	24.42	4.50	
	60대 이상	4.46	28.24	30.35	28.04	8.90	
지역1	수도권	7.42	34.60	33.47	21.63	2.89	65.029(4) ***
	비수도권	7.47	26.54	32.41	26.54	7.05	
지역2	대도시	7.42	33.73	33.90	21.68	3.27	88.658(8) ***
	중소도시	8.06	29.85	32.66	24.34	5.10	
	농어촌	4.04	19.91	29.86	33.99	12.1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16	33.67	28.41	22.61	6.15	30.002(12) **
	중하층	7.32	31.01	31.77	25.19	4.70	
	중간층	6.41	30.10	35.74	23.22	4.53	
	중상층(상층)	12.42	24.85	30.03	26.06	6.6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02	29.51	31.83	25.24	6.40	43.387(16) ***
	200만 원대	8.01	35.29	31.43	21.19	4.09	
	300만 원대	8.91	30.58	33.57	24.72	2.22	
	400만 원대	6.13	26.21	39.87	24.22	3.57	
	500만 원 이상	6.80	28.35	37.54	22.90	4.42	
학력	중졸 이하	4.79	27.47	29.89	27.67	10.19	65.036(8) ***
	고졸	5.89	31.67	33.79	23.91	4.75	
	대졸 이상	9.74	30.61	33.05	23.07	3.5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77	33.55	32.73	21.64	3.32	59.352(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55	31.62	33.79	20.10	5.94	
	고용주, 자영자	5.56	26.48	33.98	27.19	6.78	
	무급가족종사자	6.66	27.74	25.03	28.58	11.99	
	실업자	7.41	27.16	37.19	26.18	2.06	
	비경제활동인구	6.67	30.38	31.83	25.83	5.30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77	26.62	35.26	23.86	5.49	50.013(12) ***
	숙련 및 기술직	8.15	33.72	33.02	21.75	3.36	
	숙련 및 기술직	5.74	26.50	32.03	27.06	8.67	
	단순노무 종사자	7.73	26.37	32.06	24.17	9.67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91	32.90	32.80	21.88	3.51	4.887(4)
	비정규직	9.12	35.92	32.25	18.03	4.68	
이념적 성향	보수적	4.07	32.30	30.92	26.54	6.18	38.867(8) ***
	중도적	8.69	30.74	34.12	22.50	3.95	
	진보적	8.59	28.55	32.69	24.53	5.64	

주: “귀하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2〉 이웃과의 관계: (5) 이 동네 이웃들과 나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 %)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χ^2 (df)
전체		3.10	32.20	49.90	13.01	1.79	
성별	남성	3.29	29.82	50.61	14.40	1.88	14.152(4) **
	여성	2.91	34.66	49.16	11.57	1.69	
연령	20대 이하	2.97	26.10	54.03	14.65	2.25	45.333(16) ***
	30대	2.11	32.90	47.76	15.17	2.06	
	40대	2.74	31.33	49.63	13.53	2.77	
	50대	3.14	36.44	46.91	12.28	1.23	
	60대 이상	4.24	33.40	51.21	10.30	0.85	
지역1	수도권	1.85	36.17	47.37	13.39	1.22	54.413(4) ***
	비수도권	4.41	28.06	52.53	12.62	2.38	
지역2	대도시	2.43	32.88	50.09	12.93	1.66	19.177(8) *
	중소도시	3.38	31.25	49.31	13.98	2.08	
	농어촌	4.87	34.27	52.25	7.90	0.7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3	31.96	42.00	20.96	2.75	72.755(12) ***
	중하층	2.20	29.63	52.84	13.65	1.68	
	중간층	3.82	34.79	49.90	9.80	1.69	
	중상층(상층)	5.70	29.96	48.94	14.57	0.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41	33.13	48.98	12.91	1.58	29.001(16) *
	200만 원대	2.59	31.35	51.70	11.64	2.72	
	300만 원대	1.77	28.08	54.45	14.16	1.54	
	400만 원대	4.71	36.24	42.33	15.05	1.66	
	500만 원 이상	3.89	33.12	48.61	13.56	0.82	
학력	중졸 이하	4.30	35.52	48.62	10.79	0.78	14.692(8)
	고졸	3.05	31.02	51.36	12.47	2.11	
	대졸 이상	2.80	32.36	48.86	14.20	1.7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1	33.05	48.76	12.95	2.54	51.378(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16	31.11	47.07	15.47	3.18	
	고용주, 자영자	3.18	31.97	51.43	13.05	0.38	
	무급가족종사자	5.48	44.88	41.77	6.52	1.36	
	실업자	2.69	27.43	47.61	18.23	4.04	
	비경제활동인구	3.45	31.81	52.50	11.43	0.81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4	29.51	49.97	14.61	1.67	41.490(12) ***
	숙련 및 기술직	2.00	33.13	48.25	14.91	1.71	
	단순노무 종사자	4.85	34.94	49.58	7.30	3.34	
	단순노무 종사자	5.01	28.60	53.68	11.12	1.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72	32.60	49.49	12.60	2.59	7.024(4)
	비정규직	3.31	32.43	44.43	16.73	3.10	
이념적 성향	보수적	4.48	36.31	46.32	11.00	1.89	48.069(8) ***
	중도적	2.11	29.99	53.85	12.53	1.52	
	진보적	3.72	32.34	45.27	16.41	2.26	

주: “귀하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3〉 코로나19로 가장 위협받는 사회적 가치

(단위 : %)

구분		사회적 신뢰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도전정신	경제성장	인권	특별히 없다	χ^2 (df)
전체		20.27	12.66	2.78	2.70	44.51	5.62	11.45	
성별	남성	20.06	13.36	3.26	2.56	43.55	5.70	11.52	6.299 (6)
	여성	20.50	11.95	2.27	2.85	45.51	5.53	11.39	
연령	20대 이하	20.39	13.60	2.98	2.57	43.22	5.49	11.75	35.854 (24)
	30대	20.47	14.04	2.82	2.98	44.87	5.46	9.36	
	40대	20.41	12.08	2.66	4.39	44.56	5.95	9.95	
	50대	22.55	13.65	2.65	1.65	42.29	5.64	11.57	
	60대 이상	17.83	10.48	2.79	2.09	47.28	5.53	14.00	
지역1	수도권	21.33	12.94	2.24	2.83	43.14	6.54	10.99	15.405 (6)*
	비수도권	19.17	12.38	3.34	2.57	45.94	4.66	11.94	
지역2	대도시	20.49	13.04	2.98	2.23	42.52	6.18	12.56	20.409 (12)
	중소도시	19.26	12.75	2.67	3.31	46.11	5.33	10.56	
	농어촌	24.95	10.29	2.36	1.58	45.33	4.47	11.0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19	8.96	2.32	2.08	43.91	5.87	14.67	88.631 (18)***
	중하층	20.83	13.86	3.90	2.43	44.67	5.75	8.56	
	중간층	19.68	12.29	1.99	3.44	45.87	5.37	11.35	
	중상층(상층)	16.35	16.61	2.26	0.21	33.75	6.05	24.7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28	11.76	2.22	2.10	46.16	4.97	12.52	44.745 (24)**
	200만 원대	17.23	12.70	3.72	3.18	46.52	6.00	10.65	
	300만 원대	23.97	13.04	2.51	3.64	40.42	5.72	10.70	
	400만 원대	22.88	14.27	4.54	2.42	39.88	7.21	8.80	
	500만 원 이상	19.26	16.76	2.33	3.81	39.74	7.20	10.89	
학력	중졸 이하	19.02	8.06	1.09	0.95	46.62	3.99	20.26	73.404 (12)***
	고졸	18.97	13.01	3.07	2.64	45.98	6.24	10.10	
	대졸 이상	21.92	13.70	2.99	3.29	42.46	5.50	10.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1.10	14.90	2.76	3.57	43.86	4.64	9.17	59.874 (3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91	10.26	2.97	1.13	42.39	8.61	11.72	
	고용주, 자영자	17.72	11.71	2.81	2.06	46.62	6.75	12.33	
	무급가족종사자	14.96	10.00	3.75	2.06	49.27	1.21	18.74	
	실업자	22.69	13.20	3.75	2.42	39.67	3.78	14.49	
	비경제활동인구	19.80	11.58	2.42	2.83	45.38	5.43	12.56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80	12.46	4.31	5.19	44.27	6.98	6.00	40.658 (18)**
	숙련 및 기술직	20.29	13.81	2.77	2.33	44.33	5.98	10.49	
	숙련 및 기술직	18.91	12.76	2.69	2.65	45.38	4.45	13.16	
	단순노무 종사자	23.15	7.36	0.90	1.02	44.84	6.22	16.5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1.19	15.04	2.99	3.15	43.74	4.56	9.33	14.994 (6)*
	비정규직	22.83	10.60	1.60	2.65	43.61	7.61	11.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7.84	12.03	3.56	1.41	50.68	4.26	10.23	49.997 (12)***
	중도적	20.80	12.29	2.15	2.70	43.78	6.54	11.74	
	진보적	21.92	14.21	3.25	4.19	39.04	5.16	12.23	

주: “귀하는 코로나19로 가장 위협받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4〉 코로나19로 가장 높아진 사회적 가치

(단위 : %)

구분		사회적 신뢰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	도전정신	경제성장	인권	특별히 없다	χ^2 (df)
전체		13.62	22.99	2.11	5.18	8.61	5.78	41.70	
성별	남성	13.45	22.25	2.59	5.75	8.94	5.73	41.28	9.017 (6)
	여성	13.80	23.75	1.62	4.58	8.28	5.84	42.13	
연령	20대 이하	9.42	23.13	2.13	6.01	8.53	7.61	43.17	52.458 (24)**
	30대	14.87	24.23	3.22	4.52	8.93	4.99	39.24	
	40대	14.32	23.04	2.27	5.27	7.63	5.73	41.73	
	50대	15.29	25.41	1.99	6.04	9.18	5.74	36.34	
	60대 이상	13.89	19.67	1.24	4.14	8.79	5.00	47.27	
지역1	수도권	13.37	24.01	1.67	4.85	7.82	6.39	41.89	12.653 (6)*
	비수도권	13.88	21.93	2.58	5.52	9.45	5.15	41.50	
지역2	대도시	12.33	22.72	2.66	6.26	7.61	6.25	42.18	33.852 (12)**
	중소도시	14.43	23.51	1.38	4.11	9.10	5.89	41.58	
	농어촌	15.45	21.37	3.61	5.89	10.84	2.87	39.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85	17.81	1.54	4.04	7.49	9.38	49.89	73.820 (18)***
	중하층	12.61	25.07	2.30	5.81	9.19	4.45	40.57	
	중간층	15.31	24.02	2.27	4.84	8.57	6.06	38.92	
	중상층(상층)	16.64	12.86	0.96	6.22	7.64	3.96	51.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34	21.59	1.59	4.96	8.28	5.98	44.26	49.513 (24)**
	200만 원대	12.16	23.46	2.13	5.12	9.69	5.54	41.90	
	300만 원대	11.60	25.09	3.47	4.54	8.36	6.92	40.01	
	400만 원대	17.79	22.77	2.96	7.05	9.44	4.90	35.09	
	500만 원 이상	20.97	27.46	1.90	6.34	7.07	3.46	32.80	
학력	중졸 이하	12.27	16.54	1.38	3.71	7.98	4.76	53.35	53.973 (12)***
	고졸	14.74	21.30	2.09	6.22	8.86	6.27	40.52	
	대졸 이상	12.94	26.54	2.36	4.60	8.57	5.61	39.3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48	24.88	2.76	5.64	8.92	5.81	38.52	58.518 (3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75	22.75	1.74	4.66	9.03	6.33	39.73	
	고용주, 자영자	14.38	21.55	2.21	3.80	10.97	4.19	42.91	
	무급가족종사자	17.30	10.96	5.86	2.64	7.05	7.16	49.04	
	실업자	13.30	24.50	2.56	8.03	6.27	6.39	38.94	
	비경제활동인구	12.15	22.21	1.03	5.41	6.91	6.45	45.83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4.68	26.23	1.08	4.06	6.41	9.45	38.08	40.568 (18)**
	숙련 및 기술직	12.97	24.55	2.74	4.56	10.38	4.58	40.23	
	단순노무 종사자	17.84	17.67	2.65	5.77	8.62	5.97	41.49	
	단순노무 종사자	15.34	19.44	2.76	6.91	9.22	4.74	41.5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3.31	25.37	2.89	6.03	8.80	5.79	37.82	10.399 (6)
	비정규직	16.83	21.44	1.78	3.86	9.46	6.66	39.96	
이념적 성향	보수적	14.94	24.15	1.66	4.08	8.92	6.18	40.05	24.488 (12)*
	중도적	13.46	21.56	2.08	5.58	7.65	5.46	44.20	
	진보적	12.46	24.80	2.72	5.53	10.39	6.04	38.06	

주: “귀하는 코로나19로 가장 높아진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5〉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한국사회가 안전한 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안전하다	다소 안전하다	보통이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χ^2 (df)
전체		3.51	36.75	33.58	22.77	3.40	
성별	남성	3.49	37.62	32.55	22.54	3.79	4.032(4)
	여성	3.52	35.84	34.64	23.00	2.99	
연령	20대 이하	1.52	34.41	35.49	23.71	4.88	44.529(16) ***
	30대	3.49	37.87	33.73	22.42	2.49	
	40대	4.63	40.31	32.75	19.03	3.28	
	50대	4.87	36.93	34.36	20.95	2.88	
	60대 이상	2.86	34.45	31.95	27.25	3.49	
지역1	수도권	3.12	38.01	36.45	19.91	2.51	37.881(4) ***
	비수도권	3.91	35.43	30.59	25.75	4.32	
지역2	대도시	4.12	32.38	35.09	24.76	3.65	46.920(8) ***
	중소도시	2.52	40.66	32.97	20.32	3.54	
	농어촌	6.06	36.21	29.59	26.79	1.3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0	30.47	36.16	26.97	5.30	94.790(12) ***
	중하층	2.64	34.83	32.19	27.43	2.92	
	중간층	4.55	39.82	33.97	18.77	2.90	
	중상층(상층)	7.32	41.26	33.78	11.57	6.0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70	34.63	32.23	26.02	3.42	57.406(16) ***
	200만 원대	2.31	37.45	35.67	21.06	3.52	
	300만 원대	2.77	41.41	33.60	18.00	4.22	
	400만 원대	3.68	33.64	38.91	22.11	1.65	
	500만 원 이상	7.77	43.14	30.49	15.70	2.91	
학력	중졸 이하	3.55	40.67	27.94	25.10	2.74	59.780(8) ***
	고졸	2.70	32.01	34.93	26.74	3.62	
	대졸 이상	4.27	40.17	33.94	18.23	3.3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32	39.43	34.29	19.02	3.93	35.964(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1	34.50	33.13	26.98	2.48	
	고용주, 자영자	3.93	35.48	35.58	22.03	2.98	
	무급가족종사자	2.34	40.64	30.33	21.03	5.66	
	실업자	1.92	33.18	37.60	24.71	2.59	
	비경제활동인구	4.10	35.58	30.83	26.06	3.42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24	43.87	31.26	14.99	5.63	35.662(12) ***
	숙련 및 기술직	2.83	36.52	36.44	21.08	3.13	
	숙련 및 기술직	5.34	36.21	30.45	24.83	3.17	
	단순노무 종사자	1.50	37.88	31.21	26.29	3.1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3.44	39.82	33.87	19.28	3.59	11.357(4) *
	비정규직	2.47	32.76	36.25	24.80	3.71	
이념적 성향	보수적	2.34	34.68	32.77	25.72	4.50	60.616(8) ***
	중도적	2.75	35.70	35.67	22.43	3.44	
	진보적	6.53	41.43	29.90	20.11	2.03	

주: “귀하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6〉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1) 자연재해 관련

(단위 :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df)
전체		9.37	38.79	25.25	21.77	4.83	
성별	남성	8.16	38.89	25.62	21.62	5.72	13.407(4) **
	여성	10.62	38.68	24.86	21.93	3.92	
연령	20대 이하	7.86	31.19	26.49	28.16	6.30	55.216(16) ***
	30대	10.28	35.87	27.63	21.90	4.32	
	40대	8.64	39.12	26.21	22.43	3.60	
	50대	10.55	42.28	23.09	18.95	5.13	
	60대 이상	9.43	43.52	23.60	18.58	4.87	
지역1	수도권	8.39	36.53	27.41	23.48	4.19	26.007(4) ***
	비수도권	10.38	41.14	23.00	19.99	5.50	
지역2	대도시	7.04	38.08	27.47	22.98	4.44	37.985(8) ***
	중소도시	11.54	39.49	23.06	21.30	4.61	
	농어촌	8.55	38.26	26.68	18.46	8.05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1.13	36.97	25.31	21.35	5.23	31.194(12) **
	중하층	9.79	40.93	26.00	18.93	4.35	
	중간층	7.90	38.51	24.70	23.64	5.26	
	중상층(상층)	13.87	30.33	24.22	27.77	3.8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50	37.73	23.86	23.19	4.72	35.169(16) **
	200만 원대	8.07	42.19	27.81	17.87	4.07	
	300만 원대	9.11	35.31	28.53	21.59	5.46	
	400만 원대	9.26	42.92	21.11	20.45	6.26	
	500만 원 이상	5.88	38.40	23.97	26.49	5.26	
학력	중졸 이하	11.16	41.85	21.09	19.88	6.02	26.180(8) **
	고졸	9.72	37.06	28.26	20.10	4.86	
	대졸 이상	8.49	39.55	23.57	23.94	4.4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26	36.36	26.70	22.67	5.01	49.639(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26	42.05	25.50	19.07	3.13	
	고용주, 자영자	9.71	42.03	25.96	16.73	5.57	
	무급가족종사자	7.91	56.05	21.19	9.51	5.34	
	실업자	5.28	38.27	24.60	28.12	3.73	
	비경제활동인구	9.77	37.07	23.16	25.00	5.00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8.25	32.09	27.37	25.52	6.77	32.506(12) **
	숙련 및 기술직	11.73	41.75	22.48	18.22	5.82	
	단순노무 종사자	14.43	39.82	21.27	21.75	2.7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9.23	36.05	26.85	22.53	5.34	12.857(4)
	비정규직	11.27	41.87	23.60	20.81	2.45	*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08	43.07	21.79	20.58	4.47	18.851(8) *
	중도적	9.15	37.54	26.91	21.27	5.14	
	진보적	9.02	36.61	25.56	24.24	4.58	

주: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7〉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2) 건강 관련

(단위 :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df)
전체		27.70	39.99	19.70	11.09	1.52	
성별	남성	26.38	38.02	21.87	12.02	1.71	20.433(4) ***
	여성	29.07	42.02	17.46	10.12	1.32	
연령	20대 이하	25.74	36.68	20.05	15.32	2.20	55.208(16) ***
	30대	27.32	40.30	21.63	9.45	1.29	
	40대	26.13	37.30	22.89	12.81	0.86	
	50대	29.42	40.48	20.12	8.67	1.31	
	60대 이상	29.34	44.29	14.78	9.66	1.93	
지역1	수도권	29.79	40.84	18.20	9.90	1.26	19.219(4) **
	비수도권	25.52	39.09	21.27	12.32	1.79	
지역2	대도시	27.37	41.75	18.08	10.90	1.90	24.234(8) **
	중소도시	29.07	39.06	20.04	10.64	1.18	
	농어촌	21.55	36.51	25.87	14.53	1.5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5.31	34.21	19.10	9.81	1.58	74.557(12) ***
	중하층	30.10	42.45	17.22	9.43	0.80	
	중간층	23.89	40.78	21.47	11.85	2.00	
	중상층(상층)	22.38	30.62	24.50	19.93	2.5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90	40.55	17.78	12.10	1.68	43.140(16) ***
	200만 원대	28.42	40.59	21.86	7.62	1.50	
	300만 원대	23.59	42.95	22.44	9.70	1.32	
	400만 원대	33.37	31.95	19.81	14.29	0.59	
	500만 원 이상	26.79	35.78	20.40	15.10	1.93	
학력	중졸 이하	29.52	45.96	13.58	9.67	1.27	26.342(8) **
	고졸	27.11	40.24	19.33	12.07	1.25	
	대졸 이상	27.74	37.97	21.89	10.55	1.8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8.80	36.24	22.69	11.09	1.18	49.569(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9.02	42.48	18.79	8.68	1.04	
	고용주, 자영자	24.67	44.00	18.14	10.92	2.27	
	무급가족종사자	22.77	42.35	21.59	11.64	1.65	
	실업자	25.86	34.73	28.05	8.93	2.43	
	비경제활동인구	28.60	41.73	15.59	12.65	1.44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62	31.03	30.43	19.10	1.82	74.280(12) ***
	숙련 및 기술직	29.70	40.34	19.65	8.81	1.50	
	숙련 및 기술직	25.26	42.64	19.78	11.18	1.14	
	단순노무 종사자	32.27	42.55	13.54	10.00	1.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53	35.59	23.39	11.32	1.17	12.610(4) *
	비정규직	31.30	41.51	17.68	8.97	0.5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8.97	41.30	16.92	11.97	0.84	18.018(8) *
	중도적	28.50	38.51	20.47	10.88	1.64	
	진보적	24.47	41.73	21.22	10.54	2.04	

주: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8〉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3) 생애주기 관련

(단위 :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df)
전체		19.77	43.70	25.10	10.01	1.40	
성별	남성	19.73	42.10	25.70	11.14	1.34	7.992(4)
	여성	19.82	45.36	24.49	8.85	1.47	
연령	20대 이하	17.30	40.15	26.37	13.44	2.75	41.318(16) ***
	30대	24.14	41.77	23.99	9.47	0.61	
	40대	19.62	43.52	25.85	10.04	0.96	
	50대	19.47	45.42	25.60	8.48	1.03	
	60대 이상	18.85	46.58	23.82	9.08	1.66	
지역1	수도권	23.06	45.70	20.98	9.00	1.27	59.001(4) ***
	비수도권	16.34	41.63	29.41	11.07	1.55	
지역2	대도시	18.47	44.30	25.40	10.33	1.49	49.275(8) ***
	중소도시	22.46	43.82	22.98	9.67	1.07	
	농어촌	10.95	40.07	35.69	10.42	2.8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26	41.60	26.83	7.43	1.88	35.962(12) ***
	중하층	19.69	45.75	24.15	9.83	0.58	
	중간층	18.59	43.86	25.49	10.17	1.89	
	중상층(상층)	23.72	33.21	24.35	16.57	2.15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0.11	42.56	24.78	10.82	1.73	33.803(16) **
	200만 원대	21.26	46.99	22.46	7.96	1.33	
	300만 원대	17.20	44.91	28.58	8.56	0.75	
	400만 원대	22.92	38.86	25.97	11.83	0.42	
	500만 원 이상	14.36	43.70	27.75	12.31	1.88	
학력	중졸 이하	17.05	47.67	24.72	8.50	2.06	11.402(8)
	고졸	19.35	44.09	24.48	10.60	1.48	
	대졸 이상	21.00	42.15	25.82	9.90	1.1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0.11	43.24	24.71	11.13	0.81	61.394(20) ***
	임금근로자	18.46	47.84	24.07	8.95	0.68	
	임시·일용직	18.10	44.81	28.04	6.74	2.31	
	임금근로자	11.04	31.28	39.16	15.28	3.24	
	고용주, 자영자	15.64	43.43	32.01	7.95	0.97	
	무급가족종사자	22.53	42.62	21.62	11.43	1.79	
직업	관리자, 전문가	17.24	33.37	32.79	15.68	0.92	56.220(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0.89	45.58	24.23	8.01	1.28	
	숙련 및 기술직	13.35	45.63	29.39	10.46	1.17	
	단순노무 종사자	20.51	47.62	18.71	10.76	2.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32	43.24	25.54	11.22	0.68	10.370(4) *
	비정규직	22.10	48.09	19.63	9.09	1.0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17	46.53	24.28	9.16	0.87	21.241(8) **
	중도적	19.18	43.10	26.87	9.35	1.50	
	진보적	21.78	41.79	22.15	12.47	1.81	

주: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19>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4) 사회생활 관련

(단위 :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df)
전체		12.20	36.08	36.85	13.59	1.27	
성별	남성	11.02	33.87	38.43	15.28	1.39	21.973(4) ***
	여성	13.43	38.37	35.21	11.84	1.15	
연령	20대 이하	13.92	30.76	38.80	14.86	1.66	38.516(16) **
	30대	14.98	35.74	33.74	14.40	1.15	
	40대	11.57	36.67	38.70	11.91	1.16	
	50대	13.56	36.71	36.09	12.21	1.44	
	60대 이상	8.06	39.48	36.73	14.73	1.01	
지역1	수도권	16.48	37.60	34.85	10.18	0.90	107.960(4) ***
	비수도권	7.75	34.49	38.94	17.16	1.66	
지역2	대도시	9.29	38.20	36.28	14.89	1.33	69.761(8) ***
	중소도시	15.94	34.79	36.49	11.78	0.99	
	농어촌	5.43	32.87	41.71	17.42	2.5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2.86	35.87	38.26	11.92	1.09	39.391(12) ***
	중하층	10.88	38.03	37.86	12.53	0.70	
	중간층	12.22	34.60	37.02	14.45	1.72	
	중상층(상층)	19.88	34.78	24.65	18.50	2.1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2.35	36.39	36.93	13.05	1.28	19.941(16)
	200만 원대	12.05	36.90	36.36	13.49	1.21	
	300만 원대	10.84	33.47	41.03	13.76	0.90	
	400만 원대	16.69	36.26	32.06	13.12	1.87	
	500만 원 이상	9.70	36.76	33.61	18.32	1.61	
학력	중졸 이하	11.21	38.45	35.31	14.04	0.99	11.239(8)
	고졸	11.48	35.72	37.45	14.46	0.89	
	대졸 이상	13.21	35.72	36.73	12.62	1.7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3.86	34.96	36.74	13.24	1.21	44.414(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21	41.15	36.28	12.97	0.39	
	고용주, 자영자	9.10	33.98	40.48	14.88	1.57	
	무급가족종사자	8.34	35.21	31.82	20.71	3.93	
	실업자	10.45	35.08	41.65	10.57	2.25	
	비경제활동인구	14.22	37.09	34.03	13.50	1.16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77	28.85	42.08	17.66	1.63	27.707(12) **
	숙련 및 기술직	12.50	37.54	35.90	13.10	0.96	
	숙련 및 기술직	10.51	32.09	40.89	14.70	1.80	
	단순노무 종사자	8.47	43.10	35.59	11.21	1.6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2.83	35.24	37.21	13.53	1.19	5.304(4)
	비정규직	13.39	40.23	33.67	12.06	0.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1.50	36.96	36.38	14.50	0.67	8.413(8)
	중도적	12.24	36.37	37.22	12.82	1.35	
	진보적	12.94	34.43	36.58	14.26	1.79	

주: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0〉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5) 경제생활 관련

(단위 :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df)
전체		20.37	48.36	21.80	8.36	1.11	
성별	남성	19.31	48.65	21.82	9.03	1.19	4.726(4)
	여성	21.48	48.06	21.77	7.66	1.03	
연령	20대 이하	19.02	47.97	20.71	10.84	1.45	22.750(16)
	30대	22.57	47.99	21.20	7.59	0.65	
	40대	23.40	45.83	21.01	8.46	1.30	
	50대	18.70	50.80	22.45	6.89	1.16	
	60대 이상	18.65	48.94	23.20	8.22	0.98	
지역1	수도권	23.78	51.05	17.86	6.58	0.73	78.508(4) ***
	비수도권	16.82	45.56	25.90	10.21	1.51	
지역2	대도시	20.78	47.96	21.63	8.26	1.36	42.898(8) ***
	중소도시	21.21	50.07	20.15	7.78	0.79	
	농어촌	13.55	40.69	31.98	12.11	1.66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37	48.01	17.41	6.67	0.54	104.071(12) ***
	중하층	22.69	49.88	20.49	6.62	0.33	
	중간층	15.48	49.06	23.97	9.56	1.92	
	중상층(상층)	26.05	32.70	24.52	15.25	1.4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1.23	48.30	21.75	7.82	0.89	27.436(16) *
	200만 원대	19.49	50.41	21.52	7.42	1.16	
	300만 원대	19.93	48.62	21.85	7.85	1.76	
	400만 원대	23.19	44.46	21.40	10.25	0.70	
	500만 원 이상	14.68	45.52	23.44	14.79	1.57	
학력	중졸 이하	18.70	49.60	24.01	7.19	0.50	21.452(8) **
	고졸	19.22	51.24	21.07	7.56	0.91	
	대졸 이상	21.99	45.21	21.84	9.48	1.4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37	45.40	23.35	9.53	1.35	42.548(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8.05	57.47	17.36	6.64	0.47	
	고용주, 자영자	20.77	48.82	21.48	7.79	1.13	
	무급가족종사자	17.74	33.79	32.30	15.91	0.26	
	실업자	19.39	51.55	18.07	9.72	1.28	
	비경제활동인구	21.47	48.29	21.95	7.21	1.08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3.32	40.61	31.48	14.13	0.46	75.716(12) ***
	숙련 및 기술직	22.51	48.81	20.29	7.53	0.85	
	단순노무 종사자	15.95	47.38	24.50	10.18	1.99	
	단순노무 종사자	20.72	59.42	12.55	4.91	2.40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45	45.55	23.93	9.60	1.47	21.111(4) ***
	비정규직	22.24	53.87	16.50	6.95	0.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9.59	50.80	21.41	7.78	0.43	18.263(8) *
	중도적	20.13	48.70	22.00	7.70	1.47	
	진보적	21.80	44.81	21.81	10.48	1.11	

주: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1>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6) 정치 및 대외 관계 관련

(단위 :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df)
전체		9.62	32.78	41.49	15.04	1.08	
성별	남성	10.05	31.49	42.29	15.21	0.96	4.107(4)
	여성	9.18	34.11	40.67	14.85	1.19	
연령	20대 이하	8.69	27.51	44.80	16.67	2.33	41.349(16) ***
	30대	9.73	36.65	38.23	15.00	0.39	
	40대	8.22	32.66	42.78	15.55	0.79	
	50대	12.45	32.91	39.97	13.61	1.06	
	60대 이상	8.92	34.02	41.57	14.62	0.86	
지역1	수도권	12.31	36.29	38.81	11.91	0.67	86.589(4) ***
	비수도권	6.81	29.11	44.29	18.29	1.50	
지역2	대도시	7.14	36.24	41.25	14.19	1.18	42.080(8) ***
	중소도시	12.06	30.30	41.53	15.31	0.80	
	농어촌	8.14	29.67	42.43	17.67	2.1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55	30.85	41.80	15.98	0.82	42.433(12) ***
	중하층	9.36	33.41	41.54	15.23	0.46	
	중간층	8.39	33.64	41.72	14.50	1.75	
	중상층(상층)	19.23	26.04	38.48	15.65	0.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9.74	32.06	40.61	16.17	1.41	19.752(16)
	200만 원대	9.41	32.53	43.44	13.76	0.85	
	300만 원대	9.60	33.82	42.92	13.12	0.54	
	400만 원대	11.67	37.51	37.47	13.00	0.36	
	500만 원 이상	7.13	31.29	42.64	17.59	1.34	
학력	중졸 이하	9.03	31.34	43.79	14.51	1.33	4.659(8)
	고졸	9.97	32.49	41.38	15.36	0.80	
	대졸 이상	9.46	33.48	40.92	14.88	1.26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8.33	31.98	43.85	14.98	0.85	33.161(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0.92	34.73	40.00	13.79	0.57	
	고용주, 자영자	10.49	32.50	42.03	14.10	0.87	
	무급가족종사자	3.63	27.06	41.90	27.41	0.00	
	실업자	11.33	26.27	42.85	16.94	2.62	
	비경제활동인구	10.18	34.83	38.40	15.09	1.51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15	35.15	39.42	15.08	1.19	23.132(12) *
	숙련 및 기술직	9.61	32.04	44.05	13.80	0.50	
	숙련 및 기술직	8.57	32.51	38.64	19.34	0.94	
	단순노무 종사자	8.10	31.14	46.69	11.68	2.3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36	31.61	44.23	14.93	0.87	4.980(4)
	비정규직	11.08	33.19	39.87	15.20	0.65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24	35.40	40.56	12.80	1.02	15.206(8)
	중도적	9.06	32.87	41.84	15.00	1.23	
	진보적	10.15	29.56	41.80	17.70	0.80	

주: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2〉 다음 현상으로 인해 불안한 정도: (7) 환경 관련

(단위 : %)

구분		매우 불안하다	대체로 불안하다	보통이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χ^2 (df)
전체		16.26	44.21	28.54	9.75	1.25	
성별	남성	14.43	43.71	29.69	10.80	1.37	15.579(4) ***
	여성	18.15	44.72	27.35	8.66	1.11	
연령	20대 이하	13.06	41.75	31.91	11.41	1.87	29.070(16) *
	30대	16.52	45.98	25.82	10.98	0.70	
	40대	17.20	44.22	28.72	8.72	1.14	
	50대	18.61	42.99	29.70	7.89	0.81	
	60대 이상	15.62	45.92	26.69	10.11	1.65	
지역1	수도권	16.75	48.75	25.26	8.84	0.40	62.121(4) ***
	비수도권	15.74	39.47	31.96	10.70	2.12	
지역2	대도시	13.53	44.60	30.11	10.67	1.09	46.032(8) ***
	중소도시	19.33	44.48	26.35	8.83	1.02	
	농어촌	12.35	40.72	33.20	10.45	3.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3.86	44.62	27.53	12.79	1.21	23.263(12) *
	중하층	17.29	43.82	28.29	9.58	1.01	
	중간층	15.38	45.45	28.91	8.73	1.53	
	중상층(상층)	22.16	35.72	29.83	11.56	0.7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8.15	43.56	27.26	9.45	1.58	32.806(16) **
	200만 원대	14.41	42.49	32.01	10.17	0.93	
	300만 원대	13.42	47.23	29.38	9.05	0.93	
	400만 원대	19.25	45.95	26.07	8.53	0.21	
	500만 원 이상	11.43	46.08	27.06	13.69	1.74	
학력	중졸 이하	16.12	39.60	29.61	12.25	2.43	18.141(8) *
	고졸	15.38	45.54	28.86	9.37	0.84	
	대졸 이상	17.15	44.28	27.91	9.37	1.29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84	43.78	30.04	10.41	0.94	45.740(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7.76	45.83	25.12	10.43	0.87	
	고용주, 자영자	14.99	43.81	29.34	10.31	1.55	
	무급가족종사자	8.55	40.25	30.17	18.22	2.82	
	실업자	13.82	38.68	34.91	9.32	3.26	
	비경제활동인구	19.38	45.71	26.15	7.69	1.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54	43.71	28.88	11.12	0.75	30.952(12) **
	숙련 및 기술직	14.31	46.91	28.35	9.61	0.81	
	단순노무 종사자	16.23	36.50	32.04	13.09	2.14	
	단순노무 종사자	20.76	38.12	26.52	12.08	2.5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5.37	43.02	29.97	10.62	1.02	5.424(4)
	비정규직	16.75	47.31	24.80	10.32	0.82	
이념적 성향	보수적	13.43	46.06	29.56	9.63	1.32	33.271(8) ***
	중도적	15.18	44.66	28.33	10.34	1.49	
	진보적	21.89	41.06	27.84	8.58	0.62	

주: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3〉 우리나라 갈등 정도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7.86	72.09	16.91	0.76	2.38	
성별	남성	·	·	·	·	·	10.959(4) *
	여성	8.27	73.25	16.08	0.52	1.87	
연령	20대 이하	7.43	70.89	17.77	1.00	2.91	16.331(16)
	30대	·	·	·	·	·	
	40대	7.85	69.38	18.40	1.05	3.31	
	50대	6.51	72.42	17.80	0.91	2.36	
	60대 이상	9.04	71.56	17.15	0.40	1.85	
지역1	수도권	7.50	72.73	16.26	1.08	2.43	15.476(4) **
	비수도권	8.17	73.88	15.44	0.43	2.08	
지역2	대도시	·	·	·	·	·	11.598(8)
	중소도시	7.66	70.67	18.75	0.98	1.95	
	농어촌	8.07	73.58	14.99	0.53	2.8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	·	·	·	·	21.754(12) *
	중하층	7.92	71.20	17.91	0.71	2.27	
	중간층	7.81	71.75	16.97	0.78	2.69	
	중상층(상층)	7.84	78.48	11.61	0.88	1.19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	·	·	·	·	66.402(16) ***
	200만 원대	10.81	69.19	16.63	0.53	2.84	
	300만 원대	8.49	73.65	15.31	0.60	1.95	
	400만 원대	6.33	71.87	18.27	1.02	2.51	
	500만 원 이상	8.34	70.20	17.92	0.32	3.22	
학력	중졸 이하	·	·	·	·	·	16.201(8) *
	고졸	8.79	71.80	15.58	0.62	3.20	
	대졸 이상	7.80	69.57	20.22	0.27	2.1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	·	·	·	·	33.726(20) *
	임금근로자	5.67	75.40	15.64	2.54	0.76	
	임시·일용직	·	·	·	·	·	
	임금근로자	7.37	70.06	20.49	0.00	2.07	
	고용주, 자영자	6.55	77.78	14.42	0.22	1.03	
	무급가족종사자	·	·	·	·	·	
직업	실업자	6.51	73.47	16.23	0.78	3.00	17.084(12)
	비경제활동인구	8.60	71.96	15.85	0.54	3.06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7.54	71.81	18.15	0.97	1.53	
	숙련 및 기술직	7.81	73.48	16.61	0.82	1.28	
	단순노무 종사자	7.36	72.28	16.49	0.24	3.62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7.87	70.97	19.11	0.56	1.49	19.879(4) **
	비정규직	6.45	71.07	20.03	0.00	2.45	
이념적 성향	보수적	7.78	70.49	18.58	0.48	2.67	10.785(8)
	중도적	8.24	71.41	15.35	1.16	3.84	
	진보적	·	·	·	·	·	

주: “우리나라는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4〉 집단 간 갈등 정도: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18.09	58.88	19.41	1.49	2.12	
성별	남성	17.85	59.61	19.11	1.36	2.07	1.237(4)
	여성	18.35	58.12	19.73	1.63	2.18	
연령	20대 이하	14.00	56.24	23.17	1.81	4.78	68.118(16) ***
	30대	19.73	60.10	18.21	1.52	0.45	
	40대	20.27	58.42	18.41	0.74	2.15	
	50대	19.06	58.48	18.92	2.59	0.95	
	60대 이상	17.31	60.82	18.67	0.87	2.33	
지역1	수도권	18.91	58.49	19.56	1.17	1.87	6.099(4)
	비수도권	17.24	59.28	19.26	1.83	2.39	
지역2	대도시	17.39	55.54	24.01	2.04	1.01	68.896(8) ***
	중소도시	19.45	60.74	15.63	1.10	3.07	
	농어촌	13.82	64.84	18.10	1.01	2.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2.01	58.14	13.94	3.38	2.52	86.893(12) ***
	중하층	20.31	60.67	16.45	0.91	1.67	
	중간층	15.38	57.06	24.09	1.07	2.39	
	중상층(상층)	14.50	62.83	16.24	4.27	2.1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9.87	56.62	19.36	1.43	2.73	32.572(16) **
	200만 원대	15.24	60.78	20.66	1.75	1.56	
	300만 원대	14.97	63.73	18.15	1.66	1.49	
	400만 원대	23.42	55.64	18.94	1.20	0.80	
	500만 원 이상	15.68	61.86	19.03	1.00	2.44	
학력	중졸 이하	17.22	57.52	20.29	1.85	3.11	14.888(8)
	고졸	17.45	58.42	21.23	1.35	1.53	
	대졸 이상	18.97	59.72	17.39	1.52	2.4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7.85	60.85	18.47	1.48	1.35	34.672(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5.83	62.57	17.14	0.74	3.72	
	고용주, 자영자	17.13	57.29	21.78	1.83	1.96	
	무급가족종사자	11.55	65.88	19.68	1.72	1.16	
	실업자	19.90	55.48	17.91	2.21	4.50	
	비경제활동인구	20.18	56.05	20.20	1.42	2.14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20	56.09	20.87	1.16	4.68	21.262(12) *
	숙련 및 기술직	16.75	60.98	19.22	1.43	1.63	
	숙련 및 기술직	17.50	60.71	19.16	1.55	1.08	
	단순노무 종사자	19.70	60.33	15.90	2.19	1.8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21	60.96	18.94	1.53	1.36	13.008(4) *
	비정규직	18.19	62.57	14.98	0.79	3.47	
이념적 성향	보수적	20.91	57.22	17.32	2.18	2.37	23.699(8) **
	중도적	16.21	59.51	21.30	1.10	1.89	
	진보적	19.01	59.40	17.66	1.57	2.35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5> 집단 간 갈등 정도: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4.83	58.86	13.47	0.81	2.02	
성별	남성	26.13	59.57	12.14	0.67	1.49	15.108(4) **
	여성	23.49	58.13	14.86	0.95	2.57	
연령	20대 이하	24.34	56.68	15.11	0.55	3.32	35.727(16) **
	30대	24.12	60.99	13.39	0.65	0.85	
	40대	26.03	59.98	11.68	1.14	1.17	
	50대	26.61	55.57	14.99	1.25	1.57	
	60대 이상	23.08	61.03	12.42	0.43	3.04	
지역1	수도권	24.07	59.87	13.56	0.54	1.96	5.330(4)
	비수도권	25.62	57.81	13.39	1.09	2.09	
지역2	대도시	24.03	57.45	15.62	1.30	1.60	27.213(8) **
	중소도시	24.74	60.20	12.20	0.45	2.41	
	농어촌	29.32	58.26	10.09	0.41	1.9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7.58	54.60	13.26	1.54	3.01	37.002(12) ***
	중하층	27.47	58.27	11.87	0.78	1.61	
	중간층	22.17	60.65	14.34	0.52	2.32	
	중상층(상층)	20.79	59.26	18.45	1.50	0.0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4.46	58.32	13.29	0.80	3.13	44.233(16) ***
	200만 원대	23.62	60.31	14.41	0.96	0.70	
	300만 원대	27.10	59.04	12.21	0.81	0.83	
	400만 원대	31.63	53.22	13.98	0.70	0.46	
	500만 원 이상	18.83	64.01	13.98	0.46	2.72	
학력	중졸 이하	21.18	60.99	12.78	0.95	4.10	21.058(8) **
	고졸	25.41	58.01	13.56	1.04	1.97	
	대졸 이상	25.36	59.06	13.60	0.54	1.45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6.84	57.50	14.07	0.54	1.05	43.276(20) **
	임금근로자	21.93	64.30	10.76	0.49	2.52	
	임시·일용직	26.39	56.18	14.27	1.22	1.93	
	임금근로자	12.69	62.69	22.71	0.00	1.91	
	고용주, 자영자	21.86	62.99	10.98	0.94	3.22	
	무급가족종사자	23.79	59.13	13.16	1.02	2.90	
직업	관리자, 전문가	24.66	58.56	13.40	0.61	2.78	21.182(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95	56.88	14.96	0.88	1.33	
	숙련 및 기술직	24.21	62.40	12.03	0.41	0.95	
	단순노무 종사자	26.16	62.10	8.02	0.11	3.6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6.96	57.33	14.11	0.59	1.01	9.227(4)
	비정규직	23.67	61.76	11.63	0.46	2.49	
이념적 성향	보수적	25.31	59.25	11.88	0.81	2.75	13.938(8)
	중도적	23.83	60.33	13.36	0.82	1.67	
	진보적	26.50	55.17	15.57	0.79	1.97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6〉 집단 간 갈등 정도: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18.53	46.59	28.81	3.53	2.54	
성별	남성	18.32	47.89	27.91	3.20	2.68	4.274(4)
	여성	18.75	45.24	29.74	3.87	2.39	
연령	20대 이하	18.12	45.90	29.40	2.49	4.09	27.645(16) *
	30대	21.62	44.93	27.08	4.27	2.09	
	40대	18.39	47.75	28.53	3.22	2.10	
	50대	19.58	46.97	28.24	3.85	1.37	
	60대 이상	15.68	47.02	30.42	3.78	3.10	
지역1	수도권	21.20	46.96	27.46	2.43	1.94	38.339(4) ***
	비수도권	15.75	46.20	30.22	4.67	3.16	
지역2	대도시	18.50	44.29	31.06	4.28	1.88	25.332(8) **
	중소도시	18.83	48.34	27.32	2.54	2.97	
	농어촌	16.99	48.05	26.12	5.44	3.3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1.58	47.36	23.54	4.72	2.79	57.073(12) ***
	중하층	22.10	46.43	26.37	3.18	1.92	
	중간층	15.16	46.72	31.57	3.32	3.23	
	중상층(상층)	12.90	44.70	37.04	4.77	0.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7.92	45.05	30.81	3.30	2.91	27.159(16) *
	200만 원대	19.63	44.91	28.28	4.22	2.95	
	300만 원대	19.02	50.03	25.71	3.80	1.43	
	400만 원대	21.30	48.54	25.14	2.59	2.44	
	500만 원 이상	15.03	53.99	26.78	3.30	0.91	
학력	중졸 이하	12.23	47.02	34.15	3.73	2.87	32.332(8) ***
	고졸	18.84	46.05	27.75	3.96	3.40	
	대졸 이상	20.11	46.98	28.24	3.06	1.6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9.65	48.19	26.86	3.50	1.80	48.199(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1.86	47.65	24.32	1.78	4.38	
	고용주, 자영자	15.87	47.01	30.08	5.06	1.99	
	무급가족종사자	13.75	38.50	38.55	7.10	2.10	
	실업자	14.88	47.48	33.52	1.33	2.79	
	비경제활동인구	18.60	44.14	30.77	3.42	3.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7.88	48.22	27.30	2.97	3.63	36.074(12) ***
	숙련 및 기술직	19.68	47.09	28.45	3.12	1.66	
	단순노무 종사자	14.28	50.81	25.73	6.36	2.82	
	단순노무 종사자	25.25	39.96	26.18	3.90	4.71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9.58	48.01	27.09	3.62	1.70	18.111(4) **
	비정규직	21.46	48.98	23.72	1.49	4.34	
이념적 성향	보수적	16.43	46.62	30.19	4.28	2.48	20.205(8) *
	중도적	17.63	47.20	29.47	3.05	2.65	
	진보적	22.94	45.20	25.77	3.73	2.35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7〉 집단 간 갈등 정도: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27.86	53.35	15.42	1.06	2.31	
성별	남성	27.98	53.15	15.21	1.26	2.40	1.938(4)
	여성	27.74	53.56	15.64	0.85	2.22	
연령	20대 이하	25.16	54.21	15.64	1.09	3.90	41.568(16) ***
	30대	27.28	53.37	15.72	1.98	1.64	
	40대	29.26	51.12	17.30	0.60	1.72	
	50대	31.60	50.53	15.54	1.18	1.16	
	60대 이상	25.78	57.20	13.26	0.62	3.14	
지역1	수도권	25.00	54.20	17.50	0.88	2.41	25.254(4) ***
	비수도권	30.84	52.46	13.25	1.25	2.21	
지역2	대도시	31.29	50.17	14.68	1.33	2.53	27.100(8) **
	중소도시	24.42	56.16	16.36	0.92	2.14	
	농어촌	30.42	53.14	13.76	0.47	2.21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46	55.33	13.15	2.35	2.71	28.929(12) **
	중하층	30.91	51.24	14.74	0.82	2.28	
	중간층	25.30	54.72	16.66	0.91	2.42	
	중상층(상층)	30.65	52.14	15.93	0.69	0.60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27.65	54.14	14.45	0.92	2.84	19.003(16)
	200만 원대	25.07	54.08	17.14	1.40	2.31	
	300만 원대	30.56	51.87	15.34	1.07	1.15	
	400만 원대	30.15	50.06	17.32	1.28	1.18	
	500만 원 이상	30.27	51.97	14.89	0.61	2.26	
학력	중졸 이하	22.30	57.97	15.60	0.63	3.50	15.447(8)
	고졸	28.64	53.02	14.93	1.04	2.37	
	대졸 이상	28.76	52.29	15.84	1.20	1.9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8.02	52.37	16.94	0.99	1.68	50.656(20) ***
	임금근로자	27.94	56.34	12.36	0.49	2.87	
	임시·일용직	31.00	50.43	15.25	1.69	1.63	
	임금근로자	15.67	55.50	27.67	0.76	0.40	
	고용주, 자영자	22.09	52.92	17.64	2.15	5.19	
	무급가족종사자	27.33	55.36	13.63	0.74	2.94	
직업	관리자, 전문가	26.24	53.15	15.91	0.73	3.97	23.681(12) *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29.50	51.63	16.15	1.31	1.40	
	숙련 및 기술직	27.85	52.77	16.95	0.99	1.44	
	단순노무 종사자	25.22	60.70	11.01	0.00	3.08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28.42	52.70	16.36	0.93	1.59	6.107(4)
	비정규직	26.69	55.29	14.35	0.63	3.04	
이념적 성향	보수적	26.31	53.84	15.71	1.53	2.61	14.260(8)
	중도적	27.53	54.88	14.78	0.92	1.89	
	진보적	30.38	49.40	16.50	0.82	2.90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8〉 집단 간 갈등 정도: (5)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9.71	35.12	42.89	8.78	3.49	
성별	남성	9.14	33.22	45.05	8.60	3.99	13.376(4) *
	여성	10.31	37.09	40.65	8.97	2.98	
연령	20대 이하	16.33	34.30	37.24	7.32	4.81	122.407(16) ***
	30대	13.51	34.90	39.69	7.62	4.28	
	40대	9.17	37.87	44.50	6.61	1.84	
	50대	7.49	35.90	43.31	10.81	2.49	
	60대 이상	4.10	32.81	48.01	10.87	4.21	
지역1	수도권	11.24	36.45	39.36	8.07	4.88	49.009(4) ***
	비수도권	8.12	33.74	46.58	9.53	2.04	
지역2	대도시	9.89	36.94	41.29	9.38	2.50	29.655(8) ***
	중소도시	10.15	33.34	44.04	7.84	4.64	
	농어촌	6.37	36.26	44.29	11.19	1.8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09	37.83	40.44	7.71	3.94	24.841(12) *
	중하층	9.03	35.30	45.13	8.22	2.33	
	중간층	10.29	34.51	40.95	9.69	4.57	
	중상층(상층)	8.93	32.05	49.04	8.17	1.81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0.19	34.37	43.13	8.82	3.48	22.902(16)
	200만 원대	9.90	35.88	42.27	9.24	2.71	
	300만 원대	9.20	35.79	44.60	6.78	3.63	
	400만 원대	10.84	37.54	35.95	11.86	3.81	
	500만 원 이상	5.26	33.91	47.15	8.07	5.61	
학력	중졸 이하	3.91	33.20	47.86	10.74	4.29	41.768(8) ***
	고졸	11.10	32.54	43.71	9.34	3.31	
	대졸 이상	10.09	38.20	40.62	7.66	3.4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76	35.08	41.68	8.23	4.25	54.780(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9.76	35.56	46.30	5.53	2.85	
	고용주, 자영자	6.48	35.29	44.99	11.40	1.83	
	무급가족종사자	3.62	47.22	40.83	8.32	0.00	
	실업자	6.12	38.44	38.99	10.54	5.91	
	비경제활동인구	11.80	33.38	42.36	8.70	3.75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80	38.62	39.11	7.87	2.60	36.461(12) ***
	숙련 및 기술직	9.86	35.75	42.07	8.26	4.07	
	숙련 및 기술직	6.57	34.81	47.37	10.25	1.00	
	단순노무 종사자	4.33	29.39	54.14	9.92	2.2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0.51	35.32	41.77	8.67	3.73	6.050(4)
	비정규직	10.35	34.43	45.21	5.47	4.55	
이념적 성향	보수적	8.10	34.80	40.67	11.58	4.85	32.750(8) ***
	중도적	10.09	35.62	44.26	6.90	3.13	
	진보적	10.74	34.41	42.41	9.73	2.71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29〉 집단 간 갈등 정도: (6)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8.96	43.83	37.59	6.67	2.96	
성별	남성	10.04	42.83	36.77	7.42	2.95	10.203(4) *
	여성	7.84	44.86	38.44	5.89	2.97	
연령	20대 이하	7.43	41.20	38.24	7.28	5.86	53.646(16) ***
	30대	9.40	44.82	37.11	5.26	3.40	
	40대	9.70	43.54	40.45	5.09	1.22	
	50대	11.14	43.43	36.10	7.20	2.13	
	60대 이상	7.18	45.77	36.29	8.14	2.61	
지역1	수도권	10.03	46.34	32.81	6.46	4.37	62.983(4) ***
	비수도권	7.84	41.21	42.57	6.89	1.49	
지역2	대도시	9.32	45.00	36.75	6.55	2.38	13.551(8)
	중소도시	9.10	42.98	37.70	6.52	3.69	
	농어촌	6.32	42.77	41.13	8.09	1.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0.28	43.09	37.23	6.75	2.65	20.038(12)
	중하층	9.54	45.40	37.13	5.71	2.22	
	중간층	8.14	43.28	37.23	7.67	3.69	
	중상층(상층)	8.15	38.94	44.80	5.03	3.08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8.89	43.71	36.93	7.26	3.21	22.773(16)
	200만 원대	8.02	45.23	37.85	6.10	2.81	
	300만 원대	9.76	47.21	36.54	4.19	2.30	
	400만 원대	11.78	36.38	41.39	8.02	2.44	
	500만 원 이상	7.60	40.38	39.88	8.43	3.72	
학력	중졸 이하	6.89	43.54	36.77	9.72	3.07	15.993(8) *
	고졸	9.91	42.79	37.70	6.86	2.74	
	대졸 이상	8.65	44.92	37.72	5.57	3.13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9.00	44.50	38.10	5.53	2.88	64.850(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78	44.31	40.07	4.68	2.16	
	고용주, 자영자	9.76	40.83	39.48	8.31	1.61	
	무급가족종사자	4.80	34.16	53.19	7.11	0.74	
	실업자	7.80	41.25	30.84	11.56	8.56	
	비경제활동인구	8.91	46.09	34.74	6.83	3.43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1.25	41.17	38.11	5.35	4.11	9.601(12)
	숙련 및 기술직	8.49	43.73	39.34	6.25	2.19	
	숙련 및 기술직	9.26	42.81	39.85	6.44	1.64	
	단순노무 종사자	9.80	42.10	38.84	7.07	2.19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8.54	45.16	38.06	5.69	2.55	2.479(4)
	비정규직	9.86	42.01	40.40	4.88	2.85	
이념적 성향	보수적	7.19	42.08	39.01	8.30	3.43	17.050(8) *
	중도적	9.07	45.03	37.35	5.84	2.72	
	진보적	10.75	43.18	36.49	6.63	2.95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0〉 집단 간 갈등 정도: (7)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45.03	43.38	9.23	0.99	1.37	
성별	남성	46.32	42.67	8.89	0.89	1.23	3.301(4)
	여성	43.69	44.13	9.59	1.09	1.51	
연령	20대 이하	38.45	45.87	12.21	0.21	3.26	73.704(16) ***
	30대	46.19	42.51	8.83	1.11	1.35	
	40대	47.42	44.39	5.49	1.89	0.82	
	50대	46.60	40.93	9.88	1.47	1.12	
	60대 이상	45.82	43.44	9.87	0.27	0.60	
지역1	수도권	41.16	47.48	8.75	1.19	1.41	32.330(4) ***
	비수도권	49.06	39.11	9.73	0.77	1.33	
지역2	대도시	48.49	41.84	8.01	0.34	1.32	29.114(8) ***
	중소도시	42.18	44.48	10.44	1.57	1.34	
	농어촌	44.01	44.80	8.47	0.89	1.8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41.26	45.32	9.41	2.13	1.87	29.845(12) **
	중하층	45.72	44.31	8.43	0.65	0.88	
	중간층	45.34	43.11	9.10	0.86	1.59	
	중상층(상층)	47.05	34.05	15.56	1.51	1.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43.56	44.75	9.38	0.86	1.45	41.415(16) ***
	200만 원대	44.81	41.68	10.76	1.48	1.27	
	300만 원대	48.31	43.87	5.97	1.32	0.54	
	400만 원대	45.54	38.06	14.21	0.00	2.18	
	500만 원 이상	48.79	43.83	4.65	0.59	2.13	
학력	중졸 이하	39.16	48.70	10.23	0.77	1.13	23.751(8) **
	고졸	43.20	44.23	9.80	0.92	1.85	
	대졸 이상	48.55	40.98	8.38	1.11	0.9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6.12	41.71	10.00	1.33	0.83	52.090(20)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2.46	43.36	11.35	0.00	2.84	
	고용주, 자영자	50.14	40.37	7.41	1.09	0.99	
	무급가족종사자	38.58	47.62	13.04	0.76	0.00	
	실업자	39.03	43.38	12.65	1.90	3.05	
	비경제활동인구	42.65	47.45	7.69	0.73	1.47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49.06	43.50	5.35	0.25	1.84	19.612(12)
	숙련 및 기술직	46.90	41.11	9.53	1.23	1.23	
	단순노무 종사자	43.81	43.55	10.85	0.95	0.83	
		44.12	39.51	15.08	0.57	0.7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46.82	41.46	9.53	1.28	0.90	12.956(4) *
	비정규직	41.14	44.25	11.97	0.40	2.25	
이념적 성향	보수적	46.34	42.65	8.93	0.97	1.10	14.092(8)
	중도적	43.71	45.39	8.49	0.86	1.56	
	진보적	46.43	39.81	11.22	1.29	1.26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1〉 집단 간 갈등 정도: (8) 지역 간의 갈등(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χ^2 (df)
전체		15.81	43.39	32.08	5.58	3.14	
성별	남성	16.86	42.71	32.11	5.50	2.81	4.757(4)
	여성	14.71	44.09	32.06	5.66	3.48	
연령	20대 이하	14.77	38.96	35.19	5.71	5.36	33.643(16) **
	30대	17.27	43.32	30.63	6.46	2.32	
	40대	14.01	45.91	31.77	6.06	2.25	
	50대	16.87	44.01	32.78	3.76	2.58	
	60대 이상	16.13	44.17	30.36	6.06	3.28	
지역1	수도권	17.04	45.36	29.61	4.99	3.00	18.125(4) **
	비수도권	14.53	41.34	34.66	6.19	3.28	
지역2	대도시	14.73	42.92	34.64	5.15	2.55	28.067(8) ***
	중소도시	17.42	43.13	30.69	5.38	3.38	
	농어촌	12.01	47.14	27.31	8.83	4.7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5.45	46.54	27.07	7.06	3.88	22.598(12) *
	중하층	14.74	44.57	32.25	5.48	2.95	
	중간층	17.36	41.11	33.52	4.90	3.11	
	중상층(상층)	11.65	45.58	31.86	8.09	2.82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5.01	43.75	31.41	5.80	4.02	28.101(16) *
	200만 원대	14.90	43.88	31.69	6.46	3.06	
	300만 원대	18.21	42.96	33.16	4.86	0.81	
	400만 원대	17.72	39.04	36.91	3.45	2.88	
	500만 원 이상	17.29	44.84	30.56	4.90	2.41	
학력	중졸 이하	11.90	45.02	31.71	6.67	4.70	26.030(8) **
	고졸	15.24	44.58	30.77	5.65	3.76	
	대졸 이상	17.52	41.74	33.47	5.19	2.08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6.81	44.00	31.83	5.29	2.07	43.541(20) **
	임금근로자	12.03	45.22	32.38	4.72	5.66	
	임시·일용직	17.19	39.33	33.64	7.10	2.74	
	임금근로자	7.38	49.54	28.75	9.22	5.10	
	고용주, 자영자	15.22	39.75	32.87	8.18	3.98	
	무급가족종사자	15.85	45.02	31.24	4.47	3.42	
	실업자	15.49	43.25	30.66	6.94	3.65	
직업	관리자, 전문가	16.00	42.77	32.53	5.79	2.91	4.734(12)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15.30	42.69	33.62	5.23	3.16	
	숙련 및 기술직	16.49	46.26	30.28	5.52	1.45	
	단순노무 종사자	16.55	44.56	32.01	5.01	1.87	
	비정규직	13.96	43.25	32.32	4.85	5.63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7.01	42.06	32.16	5.44	3.34	17.607(4) **
	비정규직	15.28	42.93	32.79	5.21	3.79	
이념적 성향	보수적	15.60	45.94	30.44	6.55	1.47	17.176(8) *
	중도적						
	진보적						

주: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임.

〈부표 3-132〉 가구주 소득 단절 시 공적/사적 지원 없이 가계 유지 할 수 있는 기간

(단위 : %)

구분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	2, 3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4~6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6~12개월 내외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1,2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주소득자 소득과 무관하게 가계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	χ^2 (df)
전체		10.54	21.63	17.15	14.38	21.68	14.62	
성별	남성	10.28	21.96	16.45	13.49	22.81	15.01	6.757 (5)
	여성	10.81	21.28	17.88	15.30	20.50	14.23	
연령	20대 이하	9.09	21.79	18.91	14.10	22.97	13.15	111.210 (20)***
	30대	8.30	23.88	22.03	17.55	17.31	10.92	
	40대	12.83	23.13	16.68	14.92	22.04	10.40	
	50대	9.69	21.22	15.22	14.94	24.49	14.44	
지역1	수도권	10.67	24.78	18.10	13.81	17.67	14.97	52.414 (5)***
	비수도권	10.41	18.34	16.16	14.97	25.85	14.26	
지역2	대도시	8.69	19.64	16.23	13.53	25.29	16.63	53.200 (10)***
	중소도시	11.59	23.66	18.29	15.24	18.80	12.41	
	농어촌	13.75	19.99	15.27	13.68	20.08	17.24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3.37	28.99	20.51	8.91	12.04	6.18	318.638 (15)***
	중하층	9.66	23.76	20.08	16.22	20.45	9.82	
	중간층	6.86	18.63	14.35	14.37	25.81	19.98	
	중상층(상층)	14.40	12.19	10.65	15.15	21.07	26.54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89	23.55	16.28	12.92	18.34	15.02	134.905 (20)***
	200만 원대	8.38	24.12	18.10	16.51	20.83	12.06	
	300만 원대	7.19	19.39	17.84	14.70	27.69	13.19	
	400만 원대	7.37	15.18	21.94	14.96	24.42	16.13	
	500만 원 이상	3.85	10.71	13.40	16.73	33.06	22.25	
학력	중졸 이하	19.15	20.53	14.25	8.77	17.37	19.92	113.585 (10)***
	고졸	10.36	25.15	15.93	15.28	21.71	11.56	
	대졸 이상	8.15	18.54	19.20	15.17	22.93	16.01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6.44	19.86	18.79	16.43	23.52	14.96	86.946 (25)***
	임금근로자	13.42	27.92	15.67	13.79	19.44	9.75	
	임시·일용직	10.21	21.70	16.07	14.42	21.85	15.76	
	임금근로자	15.67	11.23	14.42	11.10	26.22	21.36	
	고용주, 자영자	15.80	26.04	14.70	10.05	18.51	14.90	
	무급가족종사자	13.45	20.98	17.13	13.02	20.45	14.96	
직업	비경제활동인구	8.82	16.65	16.55	13.54	27.67	16.77	37.414 (15)**
	관리자, 전문가	8.09	22.14	18.15	15.81	22.34	13.47	
	사무, 서비스, 판매 종사자	9.06	22.36	17.56	14.88	20.72	15.41	
	숙련 및 기술직	18.29	23.13	10.13	14.22	17.17	17.06	
	단순노무 종사자	6.43	19.22	19.37	16.22	23.93	14.84	
직업안정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11.98	28.52	14.22	15.45	18.64	11.20	40.321 (5)***
	비정규직	9.78	20.36	16.87	10.95	23.06	18.98	
이념적 성향	보수적	10.76	22.80	17.57	15.57	20.56	12.74	36.925 (10)***
	중도적	10.95	20.51	16.55	15.68	22.54	13.77	
	진보적							

주: “귀 가구주 소득자의 소득이 단절될 경우, 귀하는 공적, 사적 지원 없이 얼마나 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른 가구원의 소득, 저축한 돈, 기타 재산 등을 감안해 응답해 주세요)”에 대한 응답임.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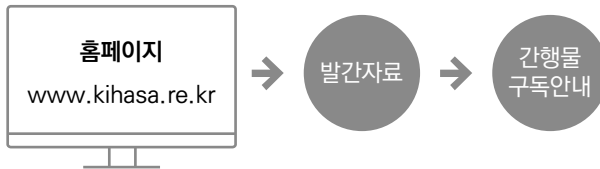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